濟州文化叢書

日帝强占期의
濟　州　島
Ⅰ

洪　性　穆　譯

총 목 차

濟州島案內 / 靑柳綱太郞 …… 5

南鮮 寶窟 濟州島 / 大野秋月 ……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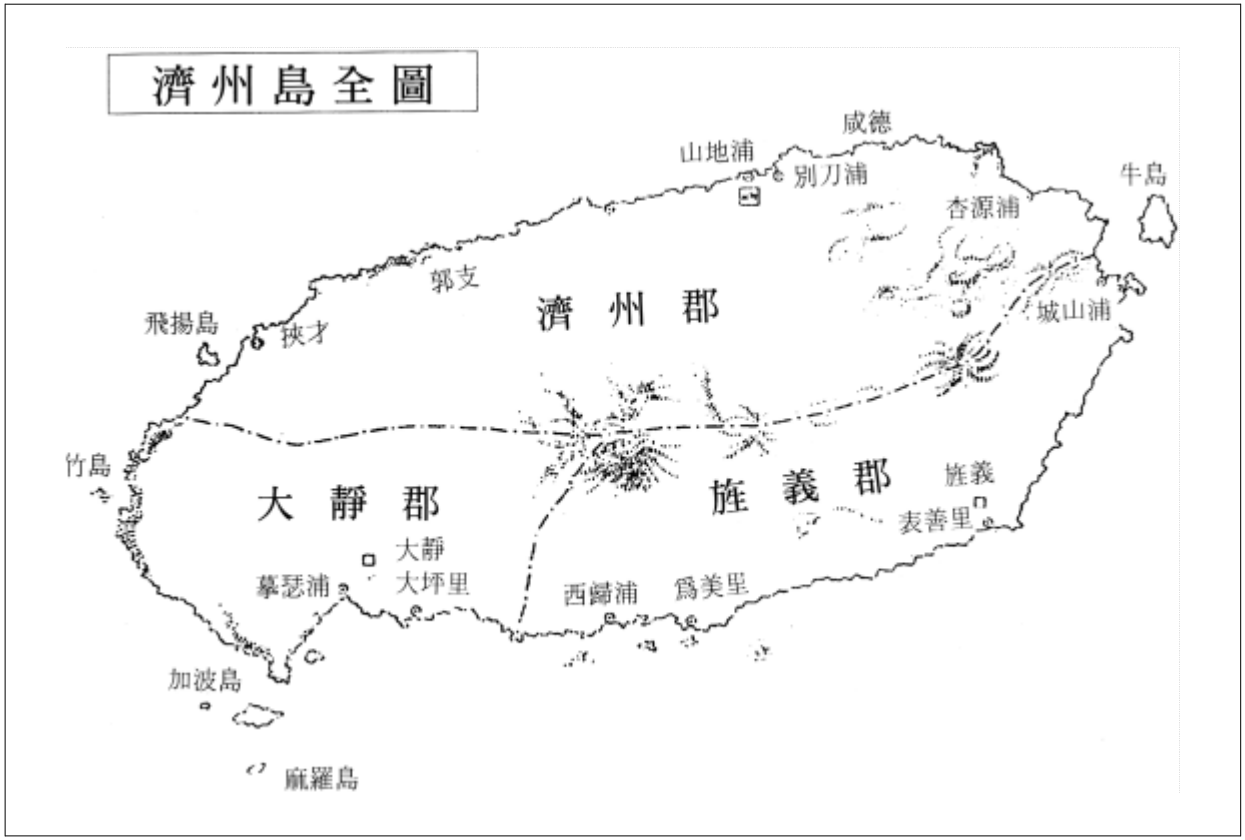
未開의 寶庫 濟州島 …… 163

濟州島의 地理的 硏究 / 桝田一二 …… 287

濟州島案內

青柳綱太郎

1905年


濟州島全圖
咸德
山地浦
別刀浦
牛島
杏源浦
郭支
濟州郡
城山浦
飛揚島
挾才
竹島
大靜郡
旌義郡
旌義
表善里
大靜
大坪里
摹瑟浦
西歸浦
爲美里
加波島
馬羅島

日帝때의 歷代 濟州島司

- 1915. 5～1945. 8 -

일제(日帝)는 1910년 8월 한국을 식민지화한 다음 한국내의 관제(官制)를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군제(郡制)가 시행되고 있던 제주도(濟州島)에도 1915년 5월을 기해 도제(島制)를 실시, 초대 도사(島司)에 이마루라 도모(今村 鞆)를 발령했다.

이후 해방되는 1945년 8월까지 10명의 일본인 도사가 부임했었는데 30년 남짓동안 식민지경영에 혈안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본도개발에 힘을 쏟았던 흔적도 남기고 있다. 제주항 건설·일주도로 개통 등 교통·체신분야와 농·수산분야에 특히 행정력을 경주했는데 특용작물로는 박하(薄荷)·면화(棉花)·제충국(除虫菊)의 증산이 강조되었고 그때 이미 「감귤재배」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행정관도 있었다.

역대도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姓 名	在 任 期 間
초 대	이마무라 도모(今村 鞆)	1915. 5.～1919. 5.
2 대	곤도 신지로(近藤晋二郎)	1919. 8.～1923. 3.
3 대	마에다 젠지(前田善次)	1923. 5.～1928. 7.
4 대	스즈키 효사쿠(鈴木兵作)	1928. 7.～1929. 12.
5 대	다나카 한지(田中半治)	1929. 12.～1931. 12.
6 대	다구치 테이키(田口禎熹)	1931. 12.～1935. 9.
7 대	후루카와 사다키치(古川貞吉)	1935. 9.～1940. 8.
8 대	사카모토 니고이치(坂木二五一)	1940. 8.～1943. 9.
9 대	오노 도라이치(小野虎市)	1943. 11.～1945. 5.
10 대	센다 센페이(千田專平)	1945. 5.～1945. 8.

目　　次

第 一 篇　總　　論 ····· 17
第 二 篇　地　　理 ····· 19
第 三 篇　交　　通 ····· 22
第 四 篇　島　　史 ····· 23
第 五 篇　島　　政 ····· 26
第 六 篇　人情風俗 ····· 28
第 七 篇　氣候 및 風景 ····· 35
第 八 篇　漁　　業 ····· 37
第 九 篇　農　　業 ····· 43
第 十 篇　商　　業 ····· 45
第 十一 篇　林　　業 ····· 49
第 十二 篇　外人布敎 ····· 50
第 十三 篇　在濟州日本人 ····· 52
第 十四 篇　新日本의 發展 ····· 58

<附　錄> 濟州島經營論

第 一　交通經營 ····· 61
第 二　漁業的植民 ····· 62
第 三　農業的經營 ····· 65

머 리 말

제주도(濟州島)는 한국 남쪽 전라(全羅)의 해상에 자리하는 한 섬으로서 수륙(水陸)의 생산물이 적잖고 이 때문에 주민들은 그 근면함이 본토인들의 게으름과는 전혀 같지가 않다. 생각컨대 우리(일본) 식민지중 적당한 하나의 부원(富源)이다. 만일 이 부원개발에 있어 알맞은 방법을 얻으면 생산물이 더욱 늘어나고 주민은 더 부지런해 질 것이다. 이는 단지 이 섬 주민의 행복을 더 하도록 하는 길일뿐 아니라 일·한(日韓) 양국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근거이다. 아오야기(靑柳)군이 이에 보는 바가 있어 한국 경영(經營)에 주력하는 한편 저술(著述)에 종사, 한국의 실정과 실험상의 의견을 세상에 소개한 것이 적잖은데 이 「제주도안내(濟州島案內)」도 그 하나이다. 나는 수일간에 걸쳐 한국을 편력(遍歷), 그 발길이 팔도강산의 태반에 이르렀지만 미처 발자국이 제주도에 미치기 전에 부득이 되돌아서게 되었다. 때마침 아오야기군이 이 책의 원고를 내보이면서 머리말을 써달라고 하는지라 읽어 봤더니 얻는 바가 매우 컸다. 이 책이야말로 실익유용(實益有用)한 업적이라 할만 하다. 그러나 책을 읽어서 이를 즐기는 것은 책 속의 일을 실행해서 얻는 즐거움만은 못 하는 것-아직도 함께 한국의 일을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소감을 기록하여 머리말에 대하면서 다소나마 그 책임을 다 하노라.

메이지(明治) 38년(1905) 9월　오사카(大阪)에서

모토야마 히코이치(本山彦一)

※ 모토야마(1871~1932)는 1889년 大阪每日新聞 相談役. 1903年 同社長에 就任하는 등 畢生을 言論人으로 마쳤다.

서 문

대개 선비가 뜻을 두어 총명한 지혜를 지녔다 하드라도 모름지기 많이 듣고 널리 배우는 것을 그 성취하는 도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찌 홀로 잘함에만 머물 것이리요. 마음에 얻어진 것으로 일을 처리하여 이 세상을 경륜하고 제도하여 후세에 드리워 준다면 그 학문은 후세 사람들이 위대하다 할 것이다. 아오야기 남맹자(靑柳 南冥子)는 일본사람이다. 한국에 머무른지 6년, 제주에 와서 소매 속에서 한 책자를 꺼내어 나에게 보였다.「제주도 안내기」였다. 지리·풍속·인정·물산(物産)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는데 자세하여 빠짐이 없었다. 만약 재주와 지혜가 쌓여져 있지 않고 경륜제세에 뜻을 둔 사람이 아니면 어찌 이와같이 능숙할 수가 있겠는가? 이 책은 부원(富源)을 개발하는 진귀한 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문을 요청 받고 글재주가 없다하여 사양할 것인가.

광무(光武) 9년(1905) 3월

제주목사(濟州牧使)

우정(羽亭) 홍 종 우 씀(洪鐘宇 序)

(번역자 주 : 홍종우는 1903년 1월부터 1905년 4월까지 제주목사로 있었는데 그에 앞서 1894년 2월 金玉均을 上海에서 암살한 刺客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序

일위대수(一葦帶水)를 사이에 두고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한반도는 이제야 현대의 대취향(大趣向)에 쫓겨 드디어 우리 세력 및 이익의 두 권역(圈域) 안에 들어왔다. 그들이 우리 세력 권내에 들어온 것은 옛부터 그 예(例)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제국(帝國:일본)경제의 팽창과 더불어 이를 우리의 이익권 내에 들어오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지금을 그 효시(嚆矢)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성대(盛代)에 태어나 팔짱낀채 그들의 보고(寶庫)를 열고 이로써 제국 경제의 팽창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으면 후세 천하의 비웃음을 어찌 할 것인가. 저자는 여기에 보는 바가 있다. 즉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들어간다는 목적을 갖고 우선 한국 근해에 있어서 우리 어업자들의 근거지인 제주도의 부원(富源)을 답사하여 널리 이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다. 경제적활동을 촉구할 수 있게되면 홀로 저자만의 행복은 아닐 것이다.

메이지 38년 3월 大阪每日新聞社에서

법학사(法學士) 기리우 유유(桐生悠悠)

序

제주도는 한국 남쪽에 있어서의 보고(寶庫)이니라. 이의 개척 식산(殖産)의 열쇠는 실로 야마토(大和. 주=일본)민족의 손아귀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헛되이 남해(南海)에 잠재우고 있으니 어찌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남명 아오야기(靑柳)군이 이에 보는 바가 있어 책을 펴내어 세인을 경성(驚醒)케 하려하니 나는 그 뜻이 작지 않고 시기가 가장 알맞음을 기뻐하여 권수(卷首)에 한 마디를 써놓는다.

메이지 38년 3월

奉天大決戰大勝利의 때에 서울에서

다나카 이쿠시(田中生誌)

自 敍

제주도는 반도의 남해상에 우뚝 솟아 마치 그 소속을 알 수 없는 듯한 고도(孤島)이다. 이주(移住)의 앞날이 바람직스럽고 그 발달·성공이 용이함을 우리가 단언(斷言)해도 거리낌이 없으며 더구나 이를 단행할 시기는 바로 현시점이다. 하늘이 준 일대보고(一大寶庫), 이를 계발(啓發)하면 그 이익은 그야말로 적잖은 것이다.

내가 메이지(明治) 34년(1901) 서울에 머물기 반년, 때마침 제주도민란(民亂)의 소식이 있어 벗과 함께 미복(微服)차림으로 목선에 탑승, 제주로 갔다. 민란은 이미 평정되어 제주에 10수일 체류, 민정(民情)·풍속등의 유래를 고찰하고 약간 그 정황을 조사하여 기록, 바구니 안에 감추어 두었다. 그후 나는 인연이 있어 체신성(遞信省)의 말단관리가 되었는데 미관(微官)인 게 다행, 올봄 공무로 이 고도를 찾아 그 산용수색(山容水色)을 벗 삼다가 지난 날 조사의 모자란 점을 보완, 편집하여 한 책자를 만들려고 한다.

내가 책을 편저함에 있어 재료를 오키다 킨죠(沖田錦城), 오오타 붕가이(太田文外)의 두 형에게 빌었다. 생각컨대 두 형은 나와 전후해서 제주를 방문, 친히 조사한 바가 있다. 이 책이 만일 세상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 나는 감히 그 덕을 두 형께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한 마디 하겠다. 내가 이 책을 공개하게됨은 조금도 이를 빌어 명리(名利)를 자랑하려함이 아니라 단지 본도의 부원을 세인에게 소개하여 동시에 세인이 본도에 건너가 사업을 시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 함이다. 독자께서는 이 책의 두찬소잡(杜撰疎雜)을 웃지 말지어다.

메이지 38년 9월
한국남쪽의 객사에서(於韓南之客舍)

남 명 생(南冥生) 씀

예언이칙(例言二則)

一. 한반도의 부원(富源)을 개척해서 경제적팽창, 국민의 새로운 지반(地盤)을 건설하는 것은 어찌 목하의 최대급무가 아니겠는가. 내가 이 책을 편찬하는 하찮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一. 메이지38년(1905) 3월「대제주경영(對濟州經營)」이라는 글을 한국목포신보(木浦新報)에 게재했다. 이제 일교(一校)해서 이를 부록으로 했다. 사견(私見)이 세론(世論)에 영향을 주어 경영의 자료로서 이바지하게 된다면 저자의 만족은 어찌 이보다 더 하겠는가.

第 1 篇 總 論

전라(全羅)바다의 남쪽 아득히 구름언저리가 다한 곳, 멀리 우리나라(일본)의 고토(五島)의 서북방에 위치해서 구름인듯, 산인듯, 물결 속에 보일듯 말듯 하는 큰 섬이 있다. 10만의 주민과 주위60리(里)의 넓이를 갖고 뭍에는 소·말·돼지·사슴이 많이 번식하며 또 콩·팥 등 농산물이 풍부하다. 바다에는 상어·도미·전복·해삼 기타 어족이 무진장 잡힌다. 이러한 해륙의 생산은 넉넉히 몇십만의 백성을 먹여살리기에 족하다.

백성들은 용감하지만 그 풍속은 순박하여 창을 열어놓은채, 문은 밀리는대로 맡겨버리고, 마을 전체의 꿈 안온한 남해(南海)속의 참다운 자유향(自由鄕)이다. 이 어찌 하늘이 내린 보고(寶庫) 濟州島라고 하지 않을 수 있으랴.

본도는 예전에는 탐라국(耽羅國)이라고 칭하고 오랫동안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었다. 환해고절(環海孤絶), 아득한 물결 속에 반도의 흥망성쇠를 남의 일 보듯하여 오랫동안 도내자치하(島內自治下)에 남의 지배를 피해 왔었다. 그러나 삼한(三韓)시대에 백제(百濟)의 시조 온조(始祖 溫祚)가 일어나 마한(馬韓)을 병탄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충청·경기도를 복속시킴에 그 세력이 사린(四隣)을 뒤흔들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됨에 탐라 역시 그 위풍에 따르게 되고 멀리 물결을 헤치며 공물(貢物)을 바치게 되었다.

백제가 멸망함과 함께 우리나라(日本)에 복속하여 사이메이제(齊明帝 주=594~661)때부터 지토제(持統帝 주=645~702)때에 이르기까지 조공(朝貢)을 끊이지 않고 번갈아 입조(入朝)하며 신속(臣屬)의 예를 취했었지만 고려말(高麗末)에 이르러 마침내 고려에 귀속케 되었던 한국에서는 제일 큰 섬이다.

일본고토에서부터 80리, 부산(釜山)에서 90리, 목포(木浦)에서 70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 형태는 타원형으로써 동서 약 20리, 남북 12리, 주위 60리로, 연안에는 비양도(飛揚島) 가파도(加波島) 우도(牛島) 기타 5, 6개의 작은 섬들이 점점 둘러싸여 있어 면적은 츠시마(對馬島)보다 훨씬 크다. 토지는 비옥하지도 않고 또 심하게 메마르지도 않는데 보리 콩 팥 등 산출이 왕성하여 매년 목포·산지등지로 수송하는 액수는 매우 많은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더하여 섬의 남쪽으로 뻗치고 있는 한라산중에는 교목이 울창하여 때로 도끼를 들고 산림에 들어가면 동량(棟梁)의 좋은 재목을 헤아일 수 없이 얻게된다. 또 산림중에 축류(畜類)의 번식이 왕성한데, 소, 말, 사슴, 돼지, 토끼 등이 가장 많으며 특히 제주마(濟州馬)라고 하면 소위 한산(韓山)에 있어서의 기북마(冀北馬)와도 같다. (주=冀北이란 古代中國 冀州의 북부지방을 말하는데 良馬의 産地로 유명함. 지금의 河北. 山西의 二省과 河南省東北部를 말함)

수년전까지만 해도 공마(貢馬)로서 경성(京城)에 엄청나게 수송되었다. 한라산의 중복(中腹)은 바로 본도천여(天與)의 대목장으로서 수천마리의 우마(牛馬)가 늘 무리를 이루어 노닐고 있다. 일단 인공을 가하여 목축을 성대히 일으킨다면 도씨(陶氏)의 부(富)를 꼭 못 이룰 바도 아니다.(주=陶氏란 陶朱公을 말하는데 春秋時代 越王句踐의 신하로 巨萬의 富者였음)

바다에는 수백의 어선이 종횡으로 내왕하여 어업의 이(利)가 큰데 더우기 근년에는 우리 어선들이 이 연안에 많이 출어하고 어기에는 어선이 폭주하기 수백척에 이르고 승무원도 천명을 밑돌지 않는다. 수확고 역시 수십만원을 웃돈다. 이는 참으로 천연의 일대보고로서 역시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별천지라 할 것이다. 연안은 극히 굴곡이 없고 또한 좋은 항만이 없다. 다만 성산포(城山浦), 서귀포(西歸浦), 산지포(山地浦), 방두포(方頭浦)등 3~4개의 정계장(碇繫場)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본도가 오래 본토 및 타국과 교통하지 않고 헛되게 바다속의 외로운 섬으로 폐

쇄되어진 큰 원인이다. 그렇다면 종래 세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한 한국본국으로부터도 도외시(度外視)되어질 정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濟州島가 있음을 알면서도 끝내 그 실정을 탐구할 수 없었다는 것과 비슷한 데가 있다.

이에 나는 조사시찰의 개관을 기록하여 세상에 제주도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한다.

이제야 우리(일본) 팽창적국민의 비약을 시도해야할 좋은 시기가 현실로 도래하였다. 제주도에 있어서의「신일본(新日本)」의 경영도 가까운 장래에 일대발전을 가져올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섬나라(일본)제국의 건아들은 아무쪼록 이 좋은 기회에 편승, 용진선구(勇進先驅)하여 부원(富源)의 개척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第 2 編 地　　理

높고 크게 절해(絶海)의 남쪽에 솟아 올라 그 수려(秀麗)함이 거의 신경(神境)에 이르고, 단엄(端嚴)함을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것이 바로 제주도의 한라산이다. 여맥(餘脈)이 비스듬히 사방에 늘어져 해안선으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온 섬의 어떠한 해변어촌이라 하더라도 이 산의 일부 아닌 곳이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한라산이 바로 제주도인가, 제주도가 곧 한라산인가를 의심케 한다. 애초에 한라산은 한국 제일이라고 칭해지는 백두산 다음으로 높은 고산으로, 반도의 척수골(脊髓骨)을 이루는 백두산계(白頭山系)의 지맥(支脈)이 비스듬히 사방으로 갈라져 전라도 바다에서 끝나고 그 여세(餘勢)가 바다로 가라앉아 무수한 작은 섬을 이루고 다시 절해의 남쪽에서 일대융기를 나타낸 것으로 직립(直立)이 8천척쯤 되는데 매년 5, 6월에 이르러도 하얀 백관(白冠)으로 장식됨

으로써 고상함을 풍긴다. 온산이 온통 암석으로 이루어지고 수목은 적지만 남면에는 전나무(檜), 떡갈나무(樫), 메밀잣밤나무(椎)등의 노목 대수가 울창하여 낮에도 아직 어두운 깊은 숲을 이루고 있다.

산중에는 약초가 많고 또 사슴, 멧돼지, 토끼 등 산짐승과 그밖에 풀어놓은 우마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항만이 부족함은 이것이 본도의 일대 결점이다. 본도는 원래 대양(大洋)중에 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굴곡이 극히 적고, 따라서 섬이 큰 것에 비하여 해안선이 짧은 것은 따로 유례(類例)가 없고 온 섬 안에 항만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곳이 거의 없다. 이는 자연이 준 현상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바이지만 주위에 양항(良港)이 없다는 한가지 사실은 오래도록 본도의 일대불행으로서 그 개발상 장애되는 바가 심히 적지 않다. 장차 식자(識者)의 고심(苦心)을 사야할 문제중의 하나가 반드시 이 한가지임을 확신해 의심치 않는 바이다.

그러나 굳이 그 항만다운 곳을 찾아본다면 정의군(旌義郡)의 성산포와 서귀포, 제주군(濟州郡)의 별도포 비양도, 대정군(大靜郡)의 모슬포등으로 백톤이하의 범선을 충분히 정박시킬 수 있다. 해저(海底)는 얕고 더욱이 파도를 피할만한 적당한 만형(灣形)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3백톤 이상의 선박등은 바다에 정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도는 한라의 고악(高嶽)이 첩첩하고 노목대수(老木大樹)가 울창함에도 불구하고 냇물이 몹시 적어서 겨우 주성(州城)밖에 2개의 시내를 볼 수 있을 뿐이다. 하나를 대천(大川)이라 하고 다른 하나를 조공천(朝貢川)이라고 부른다. 대천은 본도 제일의 큰 내로서 그 길이가 4~5리에 미친다. 또 섬 남부 정의군 서귀포부근에 두세줄기의 유수(流水)가 있다. 약간 큰 것도 그 길이가 2~3리에 불과하다. 그밖에 두서넛의 작은 시내가 있지만 거의가 내라고 이름 붙일만한 가치도 없다. 그런데 이들 내는 평시에 있어서는 물이 극히 적으나 비가 한번 왔다 하면 수량이 크게 증가해서 분류(奔流)가 넘치며 덩달아 다리가 하나도 없기 때

문에 쉽게 지나 다닐 수가 없다. 심한 경우는 비가 와서 개인 후 수일이 지나도 여객들에 불편을 느끼게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는 지세가 급경사(急傾斜)를 보이는 것과 하류(河流)가 심히 단거리인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내가 있는 지방에 있어서는 각각 다소 관개(灌漑)의 편(便)이 있어서 약간의 논이 이들 내를 따라 산재함을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주변연안에 점점히 작은 섬이 많이 있는데도 본도는 연안에 굴곡이 없기 때문에 그 부속군도도 곧잘 그 성질을 닮아 대양중(大洋中)에서 씻기고 있다.

城 邑 : 한라백봉(漢拏白峰)의 높다란 기슭에 의연한 한 도읍이 있다. 호수 1천, 인구 1만이라고 한다. 인가의 연기가 솟아오르고 닭·개의 짖는 소리 시끄러운데 달리 쉽게 이만한 곳을 볼 수 없는바, 이곳이 옛 탐라국의 왕도(王都), 지금의 제주부성(濟州府城)이다. 성내에는 관덕정(觀德亭), 망경루(望京樓), 제주루(濟州樓), 정원루(定遠樓) 공진루(拱辰樓)등 누정(樓亭)이 있어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유객(遊客)들의 눈을 끌고 있다. 이 곳에는 군아문(郡衙門)외에 온 섬을 통할하는 목사아문(牧使衙門)이 있으며 제주부(濟州府) 동남쪽 7리쯤 되는 곳에 정의군읍(旌義郡邑)이 있고 서남쪽 10리 된 곳에 대정군읍(大靜郡邑)이 있다. 모두가 군수아문(郡守衙門)이 있는 곳인데 정의군은 호수 2백내외, 인구 2천 남짓, 대정읍은 호수 1백여, 인구 6~7백이 있다. 어느곳도 군(郡)의 주읍(主邑)으로서 그 번화함이 부성(府城)에 버금간다.

그밖에 팔진(八鎭)으로서 조천(朝天), 화북(禾北), 별방(別防), 해방(海防), 수산(水山), 명월(明月), 애월(涯月), 서귀(西歸)등의 진읍(鎭邑)이 있다. 모두 해안의 요새를 차지하고 있다. 호수는 어느 곳도 1백에서 2~3백 사이이다. 이들의 진보(鎭堡)는 대체로 퇴폐해서 옛적 모양을 띠고 있진 않으나 오늘날에도 진보의 일부를 보존하고 있어 진사(鎭司)를 두고 있다.

第 3 編　交　　通

사람들이 만일 한번 본도의 땅을 밟게 되면 반드시 그 보행하기 어려운 악로(惡路)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생각컨대 본도는 옛적에 분화(噴火)의 유물인 불탔던 돌맹이가 산야해변(山野海邊) 도처에 쌓이고 막혀 도로의 양쪽 및 밭 주위 같은 곳은 모두 이들 돌무더기로 장벽(墻壁)이 쌓여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혹시 장벽이 붕괴될 때에는 용이하게 수습할 수가 없고 더욱이 그 도로 폭이 심히 고르지 못하여 보통은 2~3간이지만 넓은 곳은 20~30간에 이르는 곳도 있다. 그 모양은 마치 광야(廣野)와 같고 몇줄기 발자국이 실과 같이 드문드문 나있지만 그 기로(岐路)에서 헤매이게함이 몇차례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해안도로 등에 대한 것이고 중간산촌을 관통하는 도로는 도리어 돌맹이가 적고 가끔 작은 언덕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탄탄하다.

요컨대 본도의 도로는 극히 자연적으로 되어 있어서 주성(州城) 부근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공(人工)을 가한 길이 없고 다만 광야에 한줄기 맥로(脈路)를 뚫었을뿐인 모습인데 이 점에 있어선 도로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들길이라고 칭하는 쪽이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다른 섬과의 교통도 역시 불편하다. 시험적으로 현재 내왕하는 한선(韓船)에 타서 주성 북부 해변에 내릴려고 하면 망망 대해의 사나운 파도가 직접 이 해변을 덮침으로 아무리 일기가 맑고 미풍조차 해안을 씻어 없을 때라도 푸른 파도가 수십 척이나 되는 해안을 씻어 뱃사람의 어깨에 의지하지 않고는 스스로 발을 적셔 상륙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으로 보아도 얼마나 교통이 불편한가를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종래 각지와의 교통은 일본어선 및 한선의 내왕뿐이었는데 작년 9월 목표영사관(木浦領事館)에

서 경찰파출소를 설치하고 우체국에 수취소(受取所)를 개시시킨 이래 견고한 일본형범선(日本型帆船)에 의해 매월 2회씩 본도~목포항간을 왕복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래서 일본인의 제주에 대한 경영도 착착 진척을 보게 되었다. 지금 제주도부터 각지에의 이정(里程)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木浦까지 70里　　釜山까지 90里　　仁川까지 120里
五島까지 80里　　上海까지 150里　　下關까지 120里
大阪까지 170里

第 4 編　島　　史

본도 고대의 역사를 캐어보는 일은 가장 흥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준거(準據)할만한 적확(的確)한 서적이 없고 믿을만한 정확(精確)한 유물도 없다. 다만 겨우 도민구비(島民口碑)로 남겨진 것을 수집하여 고대를 추측・예상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지금 탐라지(耽羅誌)에 기술된 바에 의하면 예전에 삼신인(三神人)이 있었는데 땅에서부터 솟아났다고 한다. 제일 위를 양을나(良乙那)라 하고 다음을 고을나(高乙那)라 했으며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고 하였다. 날마다 거친 들판에 나가 수렵을 하고 가죽을 의복으로 삼고 고기는 먹었다. 하루는 자니(紫泥)로 봉해진 나무상자가 떠오는 것을 동쪽 해변에서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을 열어보니 그 안에 석함(石函)이 하나 있고 홍대자의(紅帶紫衣)의 사자(使者)가 따라왔었다. 함을 열어보니 푸른 옷의 처녀 3인과 망아지・송아지・오곡 등을 싣고 있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들은 일본의 국사(國使)이다. 우리 왕이 자녀를 낳았다. 서해(西海)중에 신자(神子) 3인이 내려와 즉시 나라를 열려고 하나 배필이 없음을 알고 이 3녀를 보내게된 것이다. 아무쪼록 빨리 배필로 삼아 대업을 이루도

록 하라면서 사자는 홀연히 흰구름을 타고 사라졌다.

삼을나는 즉시 세차(歲次)에 따라 이들을 아내로 맞았다. 오곡을 파종하고 송아지·망아지를 방목함에 마침내 모두 번식하게 되었다.

이래서 이 섬의 조상이 되었다. 생각컨대 이들의 소설(所說)은 용이하게 그 진위(眞僞)를 판정키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국통감(東國通鑑)의 기사에 의해, 또 여러 가지 유적과 더 나아가 현금의 풍속, 도민의 용모, 골격 등으로 점검·추론해 보면 크게 이 설이 유력함을 깨닫게 된다.

특히 주성 남문 1정(町)남짓 떨어진 곳에 한군데 고적(古蹟)이 있음을 확인하기에 이르러서는 이상과 같은 설을 더욱「사실적」이게 한다. 즉 남문 밖에 기(氣)가 약간 열리고 땅이 높고 주성(州城)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한 눈으로 푸른 물결을 내다볼 수 있을만한 곳에 한무리의 노송 울창하여 천고(千古)의 푸르름을 간직해있는 곳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 삼신인이 출현했다는 유적이다. 지금은 그곳에 하나의 사우(祠宇)와 배후에 한 기(基)의 소비(小碑)가 있다. 그 사우에는 삼성씨(三姓氏)를 새긴 편액(扁額)을 모시고 당내에 육패(六牌)를 안치하고 있다.

탐라시조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耽羅始祖 良乙那 高乙那 夫乙那)의 세패는 정면에 가지런히 늘어서 있고 그 동쪽에 탐라도내 고씨(耽羅徒內 高氏), 탐라성주 고씨(耽羅星主 高氏), 탐라왕자 고씨(耽羅王子 高氏)의 세패가 엄연함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 배후의 소패에는 표면에「三姓穴」이라 쓰고, 이면에는「崇禎後四年夏改立」이라고 새겨있다. 그 옆에 역시 비 하나가 있다. 표면에「徒內王子星主高氏 三兄弟埋安所」, 뒤에는「同治10年辛未5月」이라 새겨져있다.

이곳에서부터 일방이 2간남짓 되는 낮은 곳이 있는데 푸른 이끼가 깊숙하고 잡초가 길게 헝크러져 있는 그 속에 3개의 구멍이 있다.

천년이 지난 오늘 다만 수척(數尺)의 길이에 불과하지만 전해오기를 이것이 곧 본도의 개조(開祖) 양·고·부 삼을나가 출현한 옛터로서 도수(島守)는 매월 1회 이곳에 와서 제단를 설치하여 제례을 올리는 것을

관례로 삼는다.

사실이 약간 소설적이긴 하지만 굳이 터무니없이 허설(虛說)이라고 버리지는 말아야 할 일이다. 이는 아마도 뒷날 전문사가(專門史家)의 공찬(攻讚)에 맡겨질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삼성(三姓)이 本島를 처음 연 이후 오래도록 耽羅國이라 칭하여 독립의 지위를 지녀왔다. 이는 자연이 준 환해고절(環海孤絶)의 형세(形勢)와 항해에 어두운 본토인(本土人)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본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던 데에 기인한다. 이에 반하여 평소 노도(怒濤)에 익숙하여 거친 물결과 싸워온 도민들은 부지불식간에 항해술이 능하여 불안전한 고주(孤舟)를 조종하여 자유로이 대양을 횡단하고 물결 속을 출몰하며 대륙해안에서부터 황해의 파도를 타고 넘은 흔적이 있다.

이와같이 육지로부터는 떨어져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본도는 오랫동안 연파(煙波)에 갇힌채 반도의 흥망 변천을 타안시(他眼視)하며 장구하게 도내 자치하에 남의 견속(牽束)을 피해왔었다. 그러다 백제의 시조 온조(溫祚)가 일어나 마한(馬韓)을 병탄하고 전라남도에서부터 충청·경기를 엄유(奄有)하게되자 그 세력이 사방을 벌벌 떨게 했다. 이에 탐라도 역시 그 위풍(威風)에 휩쓸려 물결을 헤쳐 공물(貢物)을 바치고 신사(臣事)를 하기에 이르렀다. 생각컨대 이는 확실히 본도가 조선본토에 신사하게된 발단이 되었으며 이로부터 명백하게 조선의 속도(屬島)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섬이 일본과 교통하게된 것은 일본조정의 위무(威武)가 백제까지 빛나고 백제는 마침내 멸망 일보전의 시기였다. 즉 사이메이(齊明天皇) 7년(661) 츠누시(津主吉祥)을 당(唐)에 사절로 보내고 백제를 거쳐 돌아오도록 했는데 풍난(風難)으로 탐라에 표착하게 되었다. 왕은 크게 기뻐하고 구호를 해주기에 이르렀다. 그 아들 아통(阿統) 등 9명을 붙여보내며 방물을 헌상하였다. 그후 조공이 끊이지 않고 텐부천황(天武天皇, 在位 : 672~686)때에는 왕 및 왕자 구마기(久麻伎)에게 작위(爵位)를 수여하였다. 이때부터 왕 고여(姑如) 왕자 구마기가 교대로 입

조(入朝)하여 신속(臣屬)의 예를 취하고 일본조정으로부터는 사신을 파견하여 후히 이를 예우하였으나 그후는 전적으로 신라(新羅)에 속하여 지토천황(持統天皇 : 在位 687~696)이후는 조공을 끊고 고려 때에 이르러서는 반적(叛賊) 김통정(金通精)등이 탐라를 점거, 그 세력이 창궐하게 되었다. 고려는 원병(援兵)을 원(元)에 요청. 이를 토벌하여 대패시켰다. 이로써 원의 소유가 되었다. 원의 세조(世祖) 후비라이(忽必烈)가 무너짐에 이를 고려에 되돌리고 이조(李朝)를 섬기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생각컨대 오늘날의 도민을 본토민과 비교하면 비교적 표한매왕(慓悍邁往)의 기상이 풍부하고 불기독립(不羈獨立)의 열성에 두드러짐은 적어도 고대탐라시대의 옛모습이 남겨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第 5 編 島 政

탐라시대는 망막해서 도치제도(島治制度)를 알아 보기는 어렵다. 충렬왕(忠烈王)21년 을미(乙未)에 「濟州島」라 개칭하고 목사판관을 두었으며 26년 경자(庚子)에 동서도현(東西道縣)을 설치하였다. 현(縣)에 목관(牧官)을 두고 목사(牧使)로 하여금 첨절제사(僉節制使)를 겸하게 하고 판관(判官)으로 하여금 교수(敎授)를 겸하도록 하였다. 뒤에 1부3군으로 바꾸었다. 즉 제주부(군)(濟州府(郡)), 정의(旌義), 대정(大靜)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부에는 목사 판관 검률(牧使 判官 檢律)을 두고 군에는 군수를 두었다. 그후 몇 차례 변제(變制)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현존(現存)하는 것은, 제주부 성내에는 목사아문(牧使衙門), 재판소(裁判所), 군아문(郡衙門), 우체사(郵遞司)등이 있으며 대정, 정의 2군에는 각 군아(郡衛)를 설치하고 군수를 두었다.

목사는 1부3군을 감독하고 행정사법의 전권을 장악, 생살여탈(生殺與奪) 역시 목사의 손에 쥐어졌다고 해도 감히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위세 당당함과 옛날 일본의 다이묘(大名・역자 주=일본 전국시대, 광역에 걸친 지배영역을 가졌던 領主. 에도시대에는 知行 1만석 이상의 諸侯)와 다르지 않았다. 한국본토의 관찰사(觀察使)에 비하면 오히려 몇 가지 무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검률은 일본의 검사와 같은 자격을 갖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더욱이 형사에 관한 사항은 일단 모두 검률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군수는 일본의 군장(軍長)과 같은데 역시 구재판소(區裁判所) 판사와 같은 직권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도민의 형사상의 문제는 검률에게 호소하고 민사에 관한 사건은 군수에게 소송한다. 그리고 이들 양자의 심판에 불복하는 자는 다시 목사에게 공소(控訴)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목사는 마치 일본의 공소원장(控訴院長)과 같은 직권을 갖고 있다. 더욱이 목사의 선고에 대하여 다시 불복할 때에는 경성평리원(京城平理院)에 상소할 수가 있지만 지세(地勢)가 떨어져 있는 도민으로선 아직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목사의 봉급은 1년에 1만냥(2천엔), 검률・군수등은 4천5백냥(9백엔)이며 주사(書記)는 1개월 일본 돈으로 대략 14~5엔 안팎이다. 이들 관리의 봉급은 목사에 대해서는 전도(全島)의 수세금(收稅金)중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전도의 각세(各稅)는 겨우 6만냥을 넘지못한다고 한다면 매년 본도에서 경성탁지부(京城度支部)에 납입하는 금액은 겨우 2만냥내외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 본도의 관리등은 대부분 경성(京城)에서 매관(買官)을 한 자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부터 군수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돈벌이에만 전념하여 부호로부터 착취하기 위하여 자칫하면 억울한 죄명으로 옥에 가두고 돈을 받는 일 등이 예사였다.

원래 한국의 지방관리들은 그 관직에 상응한 금액을 정부에 납입해 관직 하나를 사고, 그리하여 그 납금(納金)을 임지의 부호로부터 착취하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있었는바 가령 2만엔 정도로 군수의 관직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면 1년이 되지 않고 원금을 되찾을수가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임지와 그 관직과에 상응해서 시세를 정했다는 것이다.

한인들의 속담에「부사직 3년이면 자손 3대가 잠만 자며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으로서도 가렴주구의 참상을 짐작할 수가 있겠다.

租 稅 : 수세(收稅)의 불통일(不統一)에 이르러서는 실로 놀라운 바가 있다. 목사는 수세(收稅)의 사무도 통할하여 도민일반에게 부담시킬 것을 국세(國稅) 및 호포세(戶布稅)의 2종으로 한다. 기타의 잡세(雜稅)는 제주민란이래 도민의 곤궁으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없게되어 당분간 면제하는 형편이다. 8~9년전까지는 정부의 편의와 도민의 편의에 따라 국세에 대신하여 공마(貢馬)를 하도록 했다. 즉 메이지 27~28년(1894~1895)경까지는 매년 섬 안의 양마(良馬)를 선택해서 모두 경성에 수송했었으나 30년경부터는 금전납(金錢納)으로 개정하고 현재는 이 제도를 취하여 공마료(貢馬料) 8천3백냥을 매년 경성정부에 납입하도록 되어있다.

第 6 編　人情風俗

제주도는 이 세상 밖의 별천지인 만큼 풍속등에 있어서도 심히 기이(奇異)한 점이 많고 관광자들로 하여금 취미를 느끼게 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이 섬에 상륙하면 남자는 대부분 짐승가죽으로 만들어진 가장자리 넓은 일본식모자 또는 두건 같은 것을 쓰고, 여자는 보통 머리묶는 법을 달리하여 처녀 신부라 하더라도 본토인과 같이 얼굴을 감싸는 일들이 없다. 나무통을 져서 스스럼없이 종횡으로 활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생각컨대 본도의 풍속은 일반적으로 강의박눌(剛毅朴訥)의 풍이 있다. 따라서 다소 야비스러운 점이 없는 것이 아니나 대체로 본토와 같이 인순고식(因循姑息), 우유부단(優柔不斷)치 아니하고 더우기 기개(氣慨)가 높고 남녀모두 근면역역(勤勉力役)의 미풍이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여자는 음울하지는 않고 심히 생산적이어서 해변에서는 돈벌이를

돕고 성내부근에서는 갖가지 공예를 하며 그밖에 밭을 갈고 우마를 끄는 등 한 가지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요컨대 본토에 있어서의 일방유타(逸放遊惰), 행락안면(行樂安眠)의 성향은 거의 이 섬에서는 볼 수가 없다. 모두가 근면역행(勤勉力行), 표한소박(標悍素朴)의 기상에 넘쳐 본토와 그 취향을 크게 달리하고 있다.

원래 본도는 조선에 있어서의 유배지로서 예전부터 어느 정도 지위있는 선비가 하루아침에 차질(蹉跌)을 빚어 문죄(問罪)되므로써 여생세월을 이 섬에서 보낸 이도 적지 않았었다. 그래서 섬 안에는 이들의 유자(遺子)가 많이 섞여있어 비교적 풍채가 점잖은 자가 많다. 그러나 천연이 주는 벽원고절(僻遠孤絶)의 형세는 교통의 불편을 낳고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적게해서 때때로 지방관들로 하여금 가정(苛政)을 베풀게 해 오랜동안의 폭정가법(暴政苛法)은 일반도민에게 마침내 씻을수 없는 원한의 정을 심어 그 반동으로서 일본을 경모(敬慕)하는 정을 일어나게 만들었다. 사가(史家)들이 말하기를 「(본도를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도(日本島)라고 함도 이러한 소식을 간추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여기에 괴이스럽게 생각되는 바는 도내에선 남자보다도 여자가 많이 낳는다는 것인데 본도 도처에서 여자의 수는 항시 남자의 수를 초과하며 거지라 하더라도 처첩(妻妾)을 함께 거느리지 않는 자 없다 함은 실로 기괴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제주근해는 해로(海路)가 험하고 멀어 자주 표류하고 침몰하는 일이 있으므로서 도민들은 남자 낳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자 낳기를 중히 여겼기 때문인 것이다. 만일 구석구석 도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 고을에 반드시 2~3개의 말방아간(挽臼場)이 있다. 아녀자가 2~3마리의 말을 사용, 방아노래(杵歌)를 부르며 돌아가는 모습 또한 기묘하다. 이리하여 매해 음력 8월15일(주=추석)에는 남녀가 함께 어울려 가무를 벌이며 좌우양대로 나뉘어 큰 줄 양끝을 끌어 승부를 내게 된다. 만일 중간에 끊기어 양대가 땅에 넘어지게 되면 관중은 크게 웃었다. 이것을 조리극(照里劇. 역자 주=照里戱)이라고 말한다.

도민은 일반적으로 경성을 귀하게 여긴다. 설령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성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관(仕官)의 소원을 이루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로 집사(執事)조차도 일본 순사와 같은 관직을 얻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언어에는 이언(俚諺)이 많고 난삽(難澁)해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데 선고후저(先高後低)의 언조(言調)의 억양은 우리 큐슈(九州)지방의 이언과 비슷한 바가 있다. 사람들은 많이들 장수한다고 하고, 분묘는 밭머리에 만들며 상혼(喪婚)의 예는 거의 본토와 다르지 않다. 술은 대부분 소주를 마신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만한 현상은 이 섬의 풍속이 일본의 그것과 혹사(酷似)하다는 사실이다. 그 눈에 띄는 것 두셋을 예시(例示)하겠다.

1) 남녀를 불구하고 모두가 짐을 등에 지어 본토와 같이 머리에 이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근면・역행(力行), 꾸밈이 없으며 본토인과 같이 빈들거리고 게으르는 일이 없다.
3) 여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안팎출입이 자유스럽다.
4) 일반적으로 여자가 활발・영리하여 본토와 같이 음울연약(陰鬱軟弱)하지가 않다.
5) 아궁이는 보통 본토와 같이 온돌식으로 하질 않고 특히 돌과 흙으로써 일본과 같이 조립(組立)한다.
6) 노동자 또는 어민 같은 사람의 경우 여자는 수건 따위로 뺨을 가리고 남자는 머리띠를 동여맨다.
7) 본토와 같이 후추를 좋아하지 않고 또 식사는 찬밥도 가리지 않는다.
8) 부인들의 바느질에 있어 그 운침법(運針法)이 일본과 동일하다.
9) 횃바람을 부는 습관이 있다.
10) 용모・골격이 일본인과 유사하며 특히 부인의 경우는 그림에

있는 야마토히메(大和姬・주=일본여성의 美称) 그대로이다.

이것 저것 찾아보면 일본에 혹사한 점이 더욱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확실히 반도에 있어서의 별천지이다. 누가 감히 조선의 고도(孤島)라고 할 것인가.

宗 教 : 오랫동안 인심을 수람(收攬)했던 백제 한창 때에 불교가 제주도에 파급되어 개종(開宗) 당시 정치상의 압박을 받아 이단사설(異端邪說)이 나도는가 하면 신도 중 어떤 이는 혹독한 법과 형별 밑에 살륙의 화를 입는 일도 적잖았는데도 불구하고 외딴 섬의 교도(敎徒)는 차츰 늘어 그 세력이 온 섬에 떨쳤다. 그 중에도 융성한 지방은 제주군으로서 당시의 주된 불사(仏寺)를 열거해 보면

존자암(尊者庵), 월계사(月溪寺), 수정사(水精寺), 묘련사(妙蓮寺), 문수암(文殊庵), 해륜사(海輪寺), 만수사(萬壽寺), 강림사(江臨寺), 보문사(普門寺), 서천사(逝川寺), 소림사(小林寺), 관음사(觀音寺), 안심사(安心寺), 곽지사(郭支寺), 원당사(元堂寺) 돈수암(頓水庵) 등 많은 물우(仏宇)가 있으며 또한 대정・정의의 2군에도 10여개소가 있다. 그러나 속계(俗界)의 풍파와 정치상의 압박등은 또한 이 섬에까지 미쳐 승려등은 불교의 뼈대인 내세(來世)에 무게를 두지않아 중생제도(衆生濟度)에 노력하지 않고 현재에 대처하는 안전과 성계(聖戒)를 지키는 자유를 얻음으로써 만족했다. 이럴 즈음 유학(儒學)이 기운차게 일어나, 불교는 유자(儒者)에 거의 짓눌렸지만 자세히 연구해보면 도민들에겐 아직도 일종의 종교심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제 그 현저한 것을 예시하면

일(日), 월(月), 성(星), 성(晟・주=晨의 誤植인 듯), 산신(山神),
수신(水神), 역려신(疫癘神)

제주도민은 이 열등한 야만적 신앙에 지배되어가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도민은 대체적으로 천연숭배이다. 일월성신(日月星晨)의 활동은 그

기괴(奇怪)하며 위대함이 사람의 힘이 미치기 어려운 데에 있음에 놀라 이들의 천연현상을 인간 이상의 대위력자(大威力者) 대활동자·대영물(大靈物)로써 숭배한 것이다. 산신·역려신·수신 등은 곧 그들의 신명안고(身命安苦)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백제 당시의 고상한 불교는 이제는 야만적인 종교로 화하여 천박한 종교를 도민에게 남겼다. 더구나 본토의 백성에 비하면 아직도 확실히 다소의 종교심과 원기를 보존하고 있다. 만일 일단 일본종교가로서 해외포교의 임무를 띈 자가 어학을 익혀 도도(渡島), 종교에 종사하면 도민은 반드시 감동하고 분발함이 있을 것이다.

敎 育 : 조선의 유교는 고려말로부터 이조 문종(文宗)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이 대단했으나 그 후에는 분식허례(粉飾虛禮)에 빠져 교학의 정신도 지리멸렬(支離滅裂), 거의 수습할 수 없게되어 금왕(今王) 35년(1898) 과거제(科擧制)를 폐지하면서부터 유교세력이 땅에 떨어져 향학교당(鄕學校堂)에는 찾아드는 사람도 없게 되었다. 더구나 제주도는 유배의 땅이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위·명망이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좌절되어 여생의 달을 이 섬에서 바라보게 되는 일이 많고 특히 경성정계(京城政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지사(志士)가 어쩌다가 이 섬에 도망해 와, 촌부자(村夫子)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남자가 당세(當世)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모름지기 야(野)에 있어서 영재(英才)를 키운다」는 기개(氣慨)를 보여 도민으로 하여금 형식적이기나마 석전(釋奠)의 예를 무겁게 여기기에 이르렀다. 도민의 작은 두뇌의 일부분은 유학의 생각으로 채워져있다. 때문에 오늘 도민의 대부분은 비교적 한문독문(漢文讀文)의 소양을 갖추고 있어 그렇잖은 사람은 매우 드물다. 특히 근래에 우리 일본재류인(在留人)들과의 친교의 도를 높여 일반적으로 일본어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목포에 사는 하라(原)모씨가 일본식 교육방법으로 도민의 머리를 일본류(日本流)로 개혁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36년(1899)봄 남에게 앞서 도도(渡島), 일어학당을 설립하고 계도·회유에

종사하기에 이르렀다. 일루의 광명이 첩첩한 한라산 준봉(峻峰) 기슭에 열려 성적도 크게 좋아지려고 하는데 목사 홍종우(洪鐘宇)와 학당 간에 불편한 관계가 생겨 드디어 일본인 퇴거명령이 내리게 되었다. 이에 군함 사이엥(濟遠)이 급거 출동하고 목포주재 일본영사가 출장, 홍목사와의 담판을 벌인 끝에 겨우 무사히 수습되었지만 그후 학당 경영에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목포영사관에서는 하라 교사를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학당사업은 이로써 크게 좌절되고 말았으니 퍽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후 섬으로의 이주자는 차츰 늘어 도민과 재류일본인과의 거래관계도 더욱 밀접해 짐에 따라 그들은 더욱 일본적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럴 때 일본교육가로 하여금 도내 주요한 곳에 일어학당을 설립토록 하여 외무성이나 그 밖의 기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그 성립·유지의 방법을 도모하고 정신적교육을 추진, 이로써 경영의 진가(眞價)를 걷우도록 바라마지 않는다.

婦人의 地位 : 한국 본토의 부인은 우유부단하고 안방이나 어둡고 깊숙한 곳에 숨어살며 전혀 염세적인 일생을 보낸다. 이는 여자의 재혼을 금하는 법령이 나오면서부터 여자는 어떠한 학대를 받는다 해도 지아비의 집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본토의 부인은 일단 시집가고 나면 쉽게 나돌아다닐 수도 없고 심한 경우는 일생동안 시집의 문밖 출입을 못하는 수도 있다. 어쩌다 외출하는 일도 있지만 교자(驕子)에 타거나 혹은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며 길에서 남자를 만나게 되면 도망치듯 길가로 피하는 것을 상례(常例)로 한다. 그런데 제주의 여인은 전혀 본토와 지위를 달리하여 오히려 여존남비(女尊男卑)의 양태(樣態)이다. 사람들이 만일 제주에 들리면 첫째로 놀라는 것은 부인이 활발·영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갖가지 노동에 종사하고 그 중에도 잠수(潛水)를 기가 막히게 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일본인이 도저히 따를 수 없다. 그들은 항시 잠수해서 천초(天草) 어개(魚介)를 채취, 시장에 내다팔아서 남편의 생

업을 도우며 편안한 생활을 영위한다.

衣食住 : 본도의 풍속은 대체적으로 순박하기 때문에 의식주(衣食住)같은 것은 본토와 같이 화사스런 폐단이 없다. 의복은 그 만듦새에 있어서 본토와 다른 게 없다. 수년 전까지는 도산(島産) 또는 육지에서 수입되는 무명·마직물(麻織物) 및 짐승가죽 등속 뿐이었지만 점차 본토 개화의 여파(余波)로 근래에 이르러서는 양금건(洋金巾), 표백금건류가 속속 목포 그 밖의 개항장(開港場)으로부터 수입돼오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재류일본인의 손으로 한창 판매되고 있다. 그래서 도민의 태반이 이것들을 입기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주성(州城)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벽촌에서는 도산(島産)의 무명·마직물 및 짐승가죽 따위를 입는 일이 많다. 식물(食物)은 섬 안이 주로 조·보리·콩·피 등을 상식(常食)하여 주성지방에 있어서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이들 잡곡에 삶을 맡기고 있으며 미곡(米穀)에 있어서는 섬 안에서 근소(僅少)한 생산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주성지방은 거의를 목포거류지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한다. 가옥 구조도 본토와는 다소 달라, 외벽은 돌로 쌓고 중앙에는 반드시 마루방을 두며 그 양쪽에 온돌방을 만든다. 그런데 주성지방을 제외하고는 사랑(舍廊)채가 있는 집이 극히 드물고 대문 같은 것도 흔히 볼 수가 없다. 지붕은 모두 띠를 매우 두텁게 덮어 커다란 밧줄로 그 위를 단단히 묶는데 이는 본도에 바람이 많고 매년 여름·가을의 교대기에 이르면 폭풍이 내습하여 지붕을 걷고 장벽(墻壁)을 부서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변소는 따로 집모양이 없이 단지 작은 돌을 외벽 옆에 쌓아올려 겨우 한 줄기의 나무를 가로로 걸친 것 뿐이며 그 안에서 돼지를 키운다.

農民의 富와 生活程度 : 현재의 유력한 재주자(在住者)를 조사컨대 제주부 성내(濟州府 城內)에는 일화 10만엔 이상의 자산을 갖는 자는 겨우 2~3명에 지나지 않으며 1만엔 내지 5만엔 정도도 40~50명뿐, 그 대부분은 무자산(無資産)이나 마찬가지로, 이들은 거의가 간단한 어업에 종사

하고 있다. 생활정도는 양반사회는 하루 7백문(文)정도, 중등사회 1일 3백문, 하류사회는 1백문 이내이다.

第 7 編　氣候 및 風景

한국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남방 인도양으로부터 흘러오는 난조(暖潮)의 영향으로 기후도 온난, 일본의 큐슈(九州)지방과 비슷하다. 또 북방의 한냉한 풍기(風氣)가 때때로 내습, 장려(瘴癘·주=기후·풍토 때문에 일어나는 전염성 풍토병)의 기(氣)도 흩어없앰으로써 공기는 매우 청량(淸凉), 별도로 풍토병이라 일컬을만한 것도 없으며 대양중에는 오랫동안 황진(黃塵)도 없고 산자수명(山紫水明)하여 도민의 체질은 매우 강건, 섬 안에는 80~90세의 노인도 별로 드물지 않다. 가끔 1백세를 넘는 고령자도 보이는데 이들은 천연의 힘에 덕을 보는 바가 많다고 않을 수 없다. 만약 양춘 3월, 꽃이 웃고 새가 노래하는 계절에 이 섬을 찾으면 소·말은 태평의 꿈에 물리고 꽃 사이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는 무사(無事)의 악보를 노래한다. 우러러보면 수려하기 비길 데 없는 한라의 고봉(高峰)은 유연히 흰 눈에 덮여 연하(煙霞)의 위로 솟아오르고 있으며 내려다보면 흰 돛대가 여기 저기 망망대해를 왕래하며 얼마만큼의 바다새가 떠있는 것을 보게되는 등 그야말로 그림 속의 경치가 아닌 것은 없다. 메마른 한반도 중에서 드물게 보는 낙원으로서「남해 속의 공원」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요컨대 본도의 기석괴암(奇石怪岩)이 풍부하고 산수(山水)의 묘(妙)를 함께 지니고보니 산용수색(山容水色)이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데 모자람이 없다. 섬의 남부지방에 두셋의 폭포가 걸려 있어 이제 참고로 도민들이 뽑은 제주십경(濟州十景·瀛州十景) 및 탐라팔경(耽羅八景)을 시와 더불어 소개한다. 단순히 경치만을 앎에 그치지 않고 본도의 풍속도 아울러 알게 될 것이다.

濟州十景(瀛州十景)

성산일출(城山日出), 사봉낙조(紗峰落照), 영구춘화(瀛邱春花), 정방폭포(正房瀑布), 귤림추색(橘林秋色), 녹담만설(鹿潭晩雪), 용연야범(龍淵夜泛), 고수목마(古藪牧馬), 영실기암(靈室奇巖), 산방불사(山房仏寺)

耽羅八景

● 공귤(貢橘)

甘酸齊結實, 聊以供君王, 遙想蓬萊殿, 恩頒箇箇香
(달고 신 것 모두 열매 맺어, 자못 임금님께 바쳐지네, 멀리 봉래전을 생각하여 보면, 낱낱이 그 향기를 나누어 주겠다.)

● 답전(踏田)

土性鹵無力, 踏而堅着根, 馬牛鞭旦叱, 如解牧人言
(토질은 척박하여 힘이 없어, 밟아서 뿌리를 붙게 하네, 말과 소는 채찍을 알아, 목동들의 말을 알아 차리는 듯)

● 직량(織凉)

女工織凉竹, 事半倍蚕桑, 不日圓如月, 縱橫手勢忙
(여공들은 양태를 짤 줄 알아, 누에치는 일보다 갑절의 효과, 한달 동안 노는 일 없이, 종횡으로 부지런히 손을 놀리네)

● 채복(採鰒)

危乎採鰒女, 臨海裸身投, 憐彼生涯苦, 仁人忍下喉
(위태롭구나 전복 따는 여인이여, 벗은 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생애의 어려움 가련하기만, 어진 이는 차마 먹지 못했네)

● 목자(牧子)

天閑歲貢馬, 牧子是爲功, 役賤人多避, 十居三四空

(궁궐로 바치는 세공마는, 모두 목자들이 공이로세, 천한 일이라 사람들은 피하니, 십호에 삼사호는 비어 있네)

• 답한(畓漢)

終歲耕而獲, 稟供何以堪, 雖云君子養, 玉食靡爲甘

(일년 내내 갈고 거두어, 바치는 일을 어찌 감당하는고, 비록 군자를 먹이기 위해서라 하나, 쌀밥이 달지는 않네)

• 저가(杵歌)

杵歌愁苦發, 月下女嬋姸, 如怨又如慕, 耽羅俗尙伝

(방아소리 괴롭게 들리지만, 월하의 여인은 아름답기만,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탐라의 풍속 전하여 오네)

• 급수(汲水)

偏苦終身役, 無如汲水軍, 負筒來傴僂, 鶉鵠勞其筋

(종신토록 괴로움을 당하는건, 물 긷는 군인과 같음이 없다. 곱추 같이 구부려 다녀야하니 메추라기 고니 같이 관절이 괴롭다)

辛卯仲禮下李體廷稿

第 8 編 漁 業

예로부터 전라(全羅) 바다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특히 제주도 근해의 풍어(豊漁)는 일찍부터 세인이 잘 아는 바이며 더구나 제주도의 연안어업은 근래 일본인의 손에 의해 상당히 개발되어져 있다. 한인은 풋나기 어업으로서 서툴어 항상 일본어민에 의해 사업을 시행함을 상례(常例)로 하고 있다. 일본인은 색다른 기계로써 솜씨 있게 어업을 하며 그 수확물을 염장(鹽藏)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본국에 수송한다. 어기에는 어선이 폭주(輻輳), 2백척에 이르는데 그 어법은 상어주낙(魚養繩), 돔주낙(鯛繩), 잠수기

(潛水器) 등으로 해산물 및 어선 집합상황을 약기(略記)하면 다음과 같다.

상어, 전복, 돔, 해삼, 김, 우뭇가사리, 미역, 고래, 다랑어, 방어, 삼치, 감태

□飛揚島

• 상어주낙 : 6월부터 8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 돔주낙 : 2월부터 4월까지 • 잠수기 : 1월부터 12월까지

□加波島

• 상어주낙 : 6월부터 8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 잠수기 : 1월부터 12월까지

□西歸浦

• 상어주낙 : 6월부터 8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 정치망 : 10월부터 12월까지 • 잠수기 : 1월부터 12월까지

□堂 浦

• 잠수기 : 1월부터 11월까지 • 정치망 : 10월부터 12월까지

□白濱港

• 잠수기 : 1월부터 12월까지 • 정치망 : 10월부터 12월까지

□方頭浦

• 상어주낙 : 6월부터 8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城山浦

• 잠수기 : 11월부터 11월까지 • 일본조(一本釣) : 6월부터 10월까지
• 나잠(裸潛) 5월부터 10월가지

본도 연안해산물의 풍요로움이 이상과 같다. 그런데 멸치어업은 근년에 이르러 대단히 발달, 특히 북안(北岸) 일대에서 성업을 이루고, 많은 도민의 독점어업이다. 어기는 음력 4~5월부터 9~10월에 이르는데 때로 겨울에 성어(盛漁)를 보는 일도 있다. 그 생산량은 적어도 2백만한근(韓斤)을 밑돌지 않으며 성어를 만나면 3백만한근에 오른다. 1한근은 일본의 20관(貫)으로 그 가격은 15~16량(兩)에서 20량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한다. 또 건포(乾鮑)는 본도의 귀중한 해산물의 하나로, 조선 각 연안 중에서도 이곳이 중요한 산지(産地)로 꼽히고 있으며 품질은 크고 양호하여 그 가격 또한 헐하지가 않다. 섬 안 전 연안의 부녀는 모두 잠수업에 익숙어 봄 여름에 이를 왕성하게 잡아 대부분을 경인(京仁)지방으로 수송한다. 큰 것 1백개가 대충 60량, 작은 것은 15량 내지 20량쯤으로 1년의 생산량 1천첩(貼·주=전복 1백개가 1첩) 안팎이라고 한다. 그 껍질은 모두 재류일본인의 손으로 나가사키(長崎), 오사카(大阪) 지방에 수송되는데 생산량은 3만한근(韓斤)내외, 1한근의 가격은 30량에서 35량의 사이. 미역도 또한 전복에 버금가는 산물로써 전 연안에 이것이 생산되지 않는 곳은 없어 그 시기가 되면 도민 모두가 이의 채취에 종사한다. 따라서 그 풍흉(豊凶)은 바로 본도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1첩 즉 1속(束)의 값은 34~35량으로 평안도, 충청도, 전라도 등에 수송하는데 그 생산량은 적어도 1만첩을 밑돌지 않는다. 우뭇가사리도 전 연안에 생산되는데 동해안 쪽에 많고 우도(牛島)는 그 중요한 산지이다. 그러나 품질이 좋지 않고 또한 건조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말똥과 같은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많다. 1년 생산량은 15만한근 내외인데 가격은 1백한근당 17~18량에서 25~26량 사이이며 그 태반은 일본인의 손으로 일본에 수송되고 그 일부는 한국인상인에 의해 부산·목포·인천 등지로 수송된다. 근래에 이르러 일본인의 출어자가 날로 늘어 어기에는 일본출어선이 폭주, 실로 2백여척이나 되며 어부들은 거의가 헛간을 갖추어 1단(団)은 20~30명으로 구성되는데 때로는 50~60명이나 되는

수도 있다. 가까운 장래에 이런 부류의 어부는 처자를 거느리고 영주적(永住的)시설을 마련, 완전히 이 방면의 이권을 획득하게 되리란 것을 의심치 않는다. 이제 이름 있는 어구(漁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飛揚島 : 비양도는 제주도의 서북쪽에 있으며 주위 1리 남짓, 일본어선의 주요한 근거지로서 만내(灣內)가 넓고 풍파의 우려가 없어 선박의 정박에 아주 편리하다. 봄에는 돔주낙(鯛繩), 여름에는 다수의 상어주낙(魚養繩)이 여기에 모여드는데 대저 상어잡이는 한국 바다에 있어서의 상어가 얼마나 많이 무리지어 사는지를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현재 통어자(通漁者)는 오이타현(大分縣)을 주로 하여 나가사키현(長崎縣), 야마구치현(山口縣)이 이에 따른다.

城山浦 : 성산포는 제주도의 동쪽 끝에 있어 우도(牛島)와 상대한다. 물이 얕아 큰 배는 정박할 수 없지만 어선의 정박에는 안전한 항구이다. 가을·겨울이 교차되는 계절에는 다수의 잠수기 및 우뭇가사리의 나잠(裸潛)이 모여드는 곳이다.

方頭浦 : 방두포는 성산포의 남배면(南背面)에 있어 여름에는 많은 상어주낙 배가 집합한다. 또 만(灣) 안에 많은 돌고래가 회유하며 가을에는 야마구치현의 어선의 근거지가 된다.

堂 浦 : 당포는 제주도의 동북쪽에 있는데 전복이 가장 많아 모든 시장에서 유명한 제주전복은 바로 이 부근에서 잡힌 것들이다. 지금은 잠수기의 남획에 맡겨져 있지만 예전부터 수확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산출량(産出量)이 많은가를 알 수 있다. 작금 하루의 수확은 1잠수기 1인당 평균 4~5관으로 본다. 그렇다면 1척에 평균 6인이 탄다고 하면 하루 수확 평균 26관, 한달동안의 취업일수를 15일로 칠 때 총수확 4백80관, 가격으로 1박40여엔을 얻게된다.

牛 島 : 우도는 제주도의 동쪽 끝 성산포와 마주 대하여 주위 3리 남짓, 경상·충청도 해상으로부터 본도에 항해하는 선박은 모두 이 섬 그림자를 항로의 표지로 삼았다. 서쪽은 성산포와 마주하여 그 사이가 좋은 항만을 형성하며 조류는 급하지만 수심이 깊고 암초가 없어 선박이 정박하기에 적당하다. 이 섬 주위의 해중에는 감태가 엄청 많아 오이타현(大分縣) 사람 마츠카와(松川)는 항상 다량의 감태를 이 섬에서 채취, 히젠(肥前) 이마리(伊萬里·주=현재는 佐賀縣 서부의 한 도시)로 수송해서 옥도(沃度) 제조의 원료로 하여 거액의 이익을 얻은 일이 있다. 또한 이 섬에는 다량의 우뭇가사리가 산출된다.

濟州島全沿岸의 天草(우뭇가사리) : 우뭇가사리는 전 연안에 걸쳐 자라지 않은 데가 없어 온 섬 연안의 부인들이 누구나가 나잠(裸潛)을 업으로 삼아 경쟁적으로 남획,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 번식할 틈이 있겠는가 의심을 갖게한다. 더구나 우뭇가사리는 그 육성이 매우 빨라 채취후 한물 때 사이 새싹이 돌아남으로 그리 쉽게 수익을 감퇴시키는 일은 없다. 작금 도내의 나잠 여자 하루의 수확은 아주 숙력자는 1인당 10~12관, 적은 경우는 5~6관이 보통이며 평균 8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島民의 멸치망대(網代·주=網主에게 배당되는 수익금) : 멸치망대는 도민 독점의 어장으로서 10명 내지 20명의 주식 조직이다. 원래 도민의 멸치어업은 제주도 생산물중의 제1위를 차지, 연안어업 수확의 70%는 이 멸치어업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생산액이 많은가를 알고 남는다. 그러나 일본의 어업인들은 이 유망한 멸치어업에는 하등의 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 왜냐면 도민은 그 중요한 각처에 있어서 전기와 같이 주식으로 이뤄진 망대장(網代場)을 점유하여 일본어민은 한 발짝도 그 어구(漁區)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완전독점의 지위에 서 있었다. 그 인습(因襲)이 오래되어 끝내 일본인은 멸치어업금제(禁制)와 같은 불행에 빠졌다.

그래서 일본어민들도 그 갈등을 두려워하여 감히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난 해(1904) 여름 성산포를 근거지로 하는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어민이 멸치어망을 갖고와 멸치어업에 종사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일대쟁투를 야기시켜 목사의 교섭이 되고, 일본인 주류(駐留)경관의 담판(談判)이 되어 끝내 어장을 구획해서 겨우 무사히 지냈다고 한다. 본디 도민의 멸치어법은 정치망(定置網)을 사용하는, 지극히 졸렬한 짓이고보니 어획량이 매우 충분치 못해, 만일 개선된 방법을 강구하여 일본어민의 난획(亂獲)에 맡긴다면 그 이익은 얼마가될지 그칠줄을 모를 것이다. 지금 도민의 멸치망대(網代)로서 저명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濟州郡 : 自浦 貴日浦 嚴莊浦 高內浦 郭支浦 錦城浦 貴德浦(歸德) 翰林浦 挾才浦 盃令浦 月令浦 終達浦 別防浦 平岱浦(坪岱) 杏源浦 武州浦 金寧浦 咸德浦 甘水浦 別刀浦

旌義郡 : 表善浦 方頭浦 城山浦

大靜郡 : 毛瑟浦(摹瑟浦) 沙溪浦

이상은 비교적 큰 것만을 열거한 것이지만 그 위에 작은 것도 10수개소 있다. 1개소 1어기의 수확은 8만한근을 밑돌지 않는다고. 더구나 제주군의 자포·곽지포·금성포·귀덕포·협재포·배령포·별방포·무주포·김녕포·함덕포, 대정군의 모슬포, 정의군의 표선포 등은 1어기 사이에 20만한근 이상의 수확지로서 유명한 곳이다. 작년 같은 때는 배령포에서 하루밤에 5만한근을 어획한 일도 있다. 물론 때로 흉어의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나 요컨대 제주 전도에 있어서의 어획은 3백만한근을 밑돌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들은 모두 땅에서 말린 다음 일본중매인의 손으로 오노미치(尾道·주=廣島縣의 남동부)·시모노세키(下關)·치쿠젠(공筑前)·치쿠고(筑後)·가고시마(鹿兒島)지방으로 수송된다. 현재 1백근(日本斤)의 가격은 3엔 20~30전 내외이다. 이제 제주 전 연안에서의 일본인 어업의 정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在濟州日本人漁業統計表

연　　도	헛간수	잠수기	상어주낙	돔주낙	일본조	나체단	승무인원
메이지 33년(1900)	11	18	25	30			457
메이지 34년(1901)	16	23	32	35	15	10	846
메이지 35년(1902)	18	23	40	45	20	12	1,007
메이지 36년(1903)	22	30	50	50	20	12	1,160

비고 : 잠수기 1척은 보통 9인승, 상어주낙(魚養繩)은 7인, 돔주낙(鯛繩)은 4인, 일본조(一本釣)는 4인, 나체단(裸体蟹=裸潛)은 20인승

이상에 따르면 일본의 출어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明治 37년(1904) 같은 때는 더욱 많은 수가 늘었지만 전국(戰局·주=1904~5년에 露日戰爭이 있었음) 때문에 해상에 위험이 많아 예상했던대로의 출어선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 明治36年中 日本人漁業의 漁獲高

  전복 6만7천5백근, 돔 6만근, 상어 7만5천근, 해삼 8만6천4백근

- 同 收益獲金

  전복 5만엔, 상어 9만엔, 돔 1만8천엔, 해삼 5만1천엔

第 9 編　農　　業

온 섬이 산으로 이루어지는 제주도는 평지가 매우 적고 그 대부분의 밭은 경사지에 있으며 논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쌀의 수확은 극히 적어 도저히 도민을 지탱할 수 없고, 때문에 도민의 상식(常食)이 조·보리등에 의존하게 됨은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본도에 있어서의 농민이란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에 살고 있으며 연안의 주민은 반농반어(半農半漁)의 모습이다. 이제 참고로 본도 지가를 살펴보건대,

- 제주해변의 밭 1석락(石落=15斗落·주=1두락〈마지기〉은 밭 1백평, 논의

경우는 1백50~3백평을 말함)의 가격은 20량에서 1백40~50량 내외

• 목장 개간의 밭 1석락(15마지기)의 가격은 50량에서 1백20량 내외. 1석락은 그 넓이가 본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는 하나 약 2반(反) 3묘(每久)로부터 2반 반(半) 정도로 1석락에서 조 15석 내지 20석을 수확하며 해변의 밭은 대부분이 맥작(麥作)으로 15석 내지 20석을 수확한다. 목장의 밭은 1년1작(作)을 넘을 수 없으며 하등지(下等地)는 격년(隔年)으로 경작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목장은 오늘날 완전히 자유개간에 맡겨져있어 양호한 일부의 밭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주인이 없어 남보다 먼저 파종한 자가 바로 그 1기(期)의 주인이 되는 상태로, 주민에 비해 경지가 얼마나 과대(過大)한가를 알 수 있다. 이제 그 농민에 대해 적어보건대 봄, 가을 두계절 외는 목축과 채신(採薪·주 땔감걷기)에 종사하며 비교적 부지런한 기상에 넘쳐있으므로 그 생활을 부유하게 한다. 생각컨대 암석이 층을 이루고 지미(地味)가 매우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잡곡은 풍부하며 그게 본도산(本島産)이라는 주석이 달려지는 것을 보면 도민이 얼마나 근면한가를 알 수가 있다. 도민의 부업으로 여기는 목축업에 이르러서는 주로 소·말·돼지등을 사육한다. 돼지는 주택부근에서 키우지만 말은 산야에 내보내 유목하다가 봄·가을 두 계절 이들을 사역할 때만 마구간에 끌어올 뿐 평소에는 이를 방사(放飼)하여 돌아보지 않는다. 때문에 한라산의 산허리에는 소·말이 삼삼오오 줄을 이루어 유목(遊牧)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단지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 머리나 배에 각종 낙인을 찍을 뿐이다. 이렇게 자유유목에 맡기고 목초나 잡곡을 주지 않아도 자연히 목축에 잘 어울리는 듯 그 번식력은 대단히 왕성하여 한산(韓山)에 있어서의 기북(冀北, 주=말의 명산지로 유명한 중국 冀州의 북부)의 섬이라고 해도 굳이 과언(過言)은 아닐 것이다. 일본재류인들은 때때로 소·돼지를 나가사키(長崎)지방으로 수송한다. 현재 제주도에 있어서의 목축의 생산량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소의 산출량 4만두
- 말의 산출량 2만5천두
- 돼지의 산출량 6만5천두

본도인구 10만에 비하면 목축이 이렇게 성하다는 것은 예상 밖이다. 현재 방사(放飼)로서 이 모양이니 만일 일본경험자가 일단 섬으로 건너가 인공을 가하고 목장을 일으키면 그 수익이 클 것이란 것은 알만하다.

닥나무(楮) : 농업의 부업으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닥나무 재배라고 한다. 닥나무는 전도 아무데나 다소의 생산량이 있어 도민 또한 제지(製紙)에 종사하는 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제조법이 졸렬하여 판로를 도외로 찾을 수 없고 단지 섬 안에의 근소한 수요를 충당함에 지나지 않는다. 재류일본인으로서 근래에 토지를 선택, 닥나무 종자를 고오치현(高知縣)지방으로부터 들여와 대규모로 재배하려는 계획이 있다.

고구마(甘藷) : 옛부터 본도에는 바람이 많아 매년 여름·가을의 환절기에 이르면 폭풍이 내습하기 때문에 농산의 수확이 전무상태에 빠져 그 참상은 보기에 딱할 지경이다. 그래서 3~4년 전에 비양도에 거류하는 일본인이 나가사키현(長崎縣)으로부터 다량의 고구마 종자를 구입해와 도민에게 그 재배법을 가르치면서부터 오늘날에는 거의 전도에 전파(傳播), 작년 같은 때는 비양도·가파도의 2~3개소에서 4~5만한근을 수확해서 성내(城內)로 상당량을 수송했으며 도민의 상식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第 10 編 商　　業

본도의 상업품으로서는 별나게 보자마자할 것도 없는데 공예품중 모자양태(帽子涼太)·망건(網巾)·빗(櫛)·골패(骨牌) 등은 전도적으로 판로를 갖

고 있으며 매년 경성(京城·서울) 인천지방으로 수송한다. 해산물도 또한 본도 상업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듯 연안에서 잡힌 어개(魚介)는 대부분 중매인의 손에 의해 도내의 각 시장에 운반되어 도민의 수요에 제공된다. 또 한녘으로는 목포·부산·인천 등의 각 거류지(居留地)에 수송되어 상업품으로서 상당히 이윤을 보고 있다. 주성(州城)안에는 하나의 큰 시장이 있는데 상설 점포도 많아 일용품 기타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의식주의 필수품으로부터 잡화에 이르기까지 교환 또는 판매된다. 그러나 공업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라서 상품은 모조리 외국으로부터 수입 않을 수가 없다. 10수년 전까지는 상하이(上海)지방으로부터 왕성하게 수입되었지만 근년들어 도민들은 목포·부산 등의 개항장으로부터 많은 일본식잡화를 수입, 멋지게 고객을 끌어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인의 상업상에서 말한다면 새로운 단골손님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지금부터 교통을 빈번히 하며 우리 일본인들이 섬에 건너온다면 그들의 구매력은 더욱 발달하고 수입화물의 액수도 따라서 증진하리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주된 것을 예거(例擧)하면

화금건(和金巾·주=광목), 석유, 성냥, 담배, 흰무명(白木綿)

본도내 일본인의 영업중 가장 번성하는 것은 잡화이다. 일본잡화가 도민의 기호(嗜好)에 잘 알맞음으로써 구매력이 왕성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현재 성내에 있는 두 곳의 잡화점은 도민의 수요에 따르지 못해 상당한 일본 잡화가 도민의 손으로 팔려지고 있는데 그 주된 상황(狀況)을 적시(摘示)해 보면,

陶 器 : 일본에서 수입되는 도기류가 갖가지 의장(意匠)에 공들이고 염가로 내다 팔기 때문에 판로는 날따라 증가하여 수요자가 매우 많다. 현재의 가격을 살펴보면,

• 사발 5촌(寸)=50문(文), 4촌 5분(分)=45문

- 막걸리잔(濁酒盞) 5촌=40문, 4촌 5(분)=35문
- 개량중반(改良中反) 3촌 5분=30문
- 사기장물잔(醬油猪口) 1개=15문
- 두꺼운 접시(厚小皿) 3촌 5분=20문

金 巾(광목) : 일본산 금건은 지질이 질기고 가격이 싸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도민의 기호에 알맞아 도민 의복은 모조리 이것을 쓰게 되었고 판로도 크게 확장, 주요한 시장에는 어디에나 집산(集散)한다. 따라서 장래가 더욱 유망하며 현재 수입되는 것은 독수리표(鷲印), 사슴표(鹿印)등 인데 독수리표는 20필(匹)에 85~86엔, 사슴표는 96~97엔이다.

이밖에 석유·성냥·담배·과자 등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기호에 따라 이를 팔고 있는데 그 매상(賣上)은 어느것이나 좋아 앞길이 유망하다고 할만하다.

또한 본도의 산물(産物)로서 일본중매인에 의해 매매되는 상품의 시가를 표시하면,

- **축 산(畜産)**
  - 생우(生牛) 1두 : 5관문(貫文)에서 20관문까지
  - 말 1두 : 10관문에서 12~13관문까지
  - 돼지 1두 : 1관문
  - 우피(牛皮) 1백근 : 20관문
  - 우골(牛骨) 1백근 : 6백문부터 7백문까지
  - 마피(馬皮) 1매 : 7백문부터 9백문까지
  - 녹비(鹿皮) 1매 : 5백문부터 7백문까지
  - 닭 1마리 : 1백50문
  - 계란 1백개 : 4백문

● 해 산(海産)

- 마른멸치(干鰯) 1백근 : 2관문
- 우뭇가사리(天草) 1백근 : 2관문
- 감태(搗布) 1백근 : 1관문
- 미역 1백근 : 4백문부터 5백문까지
- 전복(大) 10개 : 8백문부터 1관문까지
- 해삼(大) 10개 : 1백문부터 1백50문까지
- 김(布海苔) 1백근 : 3관 5백문
- 돔(鯛) 10마리 : 2관문
- 상어지느러미(魚養鰭) 1백문 : 189관문부터 20관문까지
- 방어(鰤) 10마리 : 2관5백문부터 3관까지
- 말린상어(干魚養) 1매 : 2백 50문
- 갈치(太刀魚) 1마리 : 15문
- 말린돌고래(干海豚) 1마리 : 10문
- 어유(魚油) 1두 : 1관2백문
- 소금 1섬(俵) 80근들이 : 8백문
- 전복껍질 1백근 : 2관 5백문부터 3관문

● 잡 곡(雜穀)

- 현미(玄米) 1두 : 8백문
- 백미(白米) 1두 : 9백문
- 콩 1두 : 4백50문
- 팥 1두 : 4백문
- 대맥(大麥_)1두 : 1백50문
- 밀(小麥) 1두 : 1맥50문부터 2백문까지
- 메밀(蕎麥) 1두 : 1백50문부터 2백문까지
- 피(稗) 1두 : 1백문
- 감자(芋) 1백근 : 6백문부터 8백문까지

第 11 編 林　　業

한라산은 북면은 암석으로 이뤄져있어 나무가 적지만 그 남면에는 떡갈나무, 모밀잣밤나무 등의 노목대수(老木大樹)가 울창하여 대낮에도 어두운 삼림을 이루며 그 밖의 잡목이 엄청나게 번무(繁茂)하여 다수의 사슴, 멧돼지, 토끼 등의 산짐승이 무리지어 살고있다. 일반 도민이 사용하는 연료는 물론 공예자(工藝者)가 필요로하는 빗, 뗏목 그밖의 재료는 모두 이 삼림중에서 벌채되며 그 수목은 거의 무진장이라고 할만큼 많다. 도민은 수십, 수백년래 난벌(亂伐)만 하고 번식시키질 않았기 때문에 운반이 편리한 곳은 민둥산이 된다. 현재 떡깔나무, 모밀잣밤나무, 낙엽송 등의 노목대수가 천연으로 번식하는 것으로부터 미루어보면 이들이 가장 이 땅에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주의하여 난벌을 금하고 지질을 조사해서 유망한 나무를 심어놓으면 천연의 훌륭한 삼림은 영구히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이 산림은 관유(官有)에 속하는지라 도민이 다소 많은 재목을 베어낼 경우에는 고목볼하(枯木拂下)의 명의 아래, 또는 일부분을 목사 또는 군수 등에게 뇌물을 써서 매수(買受), 벌채한 재목을 산에서 끌어내서 해안으로 운반하는데 가까워도 3리(12㎞), 멀리는 4~5리나 되기 때문에 다소 수출에 곤란을 겪는다. 그러나 본도는 노임이 저렴할 뿐 아니라 강건한 우마가 유목되고 있는 것을 이용, 적당한 방법으로 반출하여 이를 즉시 여순(旅順・주=中國遼東半島의 남서단에 있는 大連市의 일부인데 淸・日, 露・日전쟁 때 일분군이 공략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음) 방면에 수출하면 전후(戰後)의 공사 경영으로 그 이익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날 우리 재류일본인이 한라산삼림벌채권을 얻을려고 목포영사의 손

을 거쳐 하야시공사(林公使)에게 출원(出願)했으나 이미 선수를 친 사람이 있어 각하(却下)된 일이 있는데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등의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요컨대 이들은 적어도 대사업에 속하는 것-무자력(無資力) 무자본의 사람이 경거(輕擧)할 일은 아니다.

第 12 編　外人布教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도민이 가장 고뇌(苦惱)를 느끼고 가장 우려하고 가장 도민의 평화를 깨는 것은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 문제이다. 지난 메이지 34년(1901)의 제주민란(民亂) 같은 것은 그 원인이 바로 양교(洋敎·주=크리스트교)에 있다. 애초부터 제주도는 대원군 집정당시 프랑스선교사를 한성(漢城·서울)에서 참살(斬殺)한 때 이래 선교사를 좋아하지 않는 풍조가 왕성하여 아직도 포교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지금의 포교사(布敎師) 프랑스인 구마실(具瑪瑟)씨는 가령 다른 사람은 이를 개척·포교할 수 없다 해도 내가 어찌 신의 사랑을 위해 이를 개척, 포교치 못하랴고 광무(光武) 2년 즉 메이지 33년(1900) 12월 갑자기 섬에 건너가 크게 유도·포교에 힘썼으나 하나도 도민의 마음을 끌지 못하자 씨는 이(利)에 의해 유인하는 것이 득책(得策)임을 알고 이후 포교시 마다 금전, 물품을 베푸니 빈민과 무뢰한(無賴漢)들은 달포도 지나기 전에 교회당에 군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선교사는 죄악을 연마할 짐승 같은 클럽을 조직하기에 이르러 불신불의(不信不義)등 온갖 악덕은 이 회당에 감춰져 혹은 약탈을 하고, 혹은 강간을 하는 등 갖가지 범죄가 모두 선교사의 소매 밑에 숨어서 포박(捕縛)을 면했다. 이로써 교도·비교도의 당파가 생겨 일대혼란을 초래하는가 하면 피를 밟고 깃발

을 뺏는 참극을 보기에 이르렀다. 가련하게도 도민은 교도와의 쟁투 때문에 재산을 몽땅 잃어버린 자도 매우 많고 선교사를 증오하는 심정을 한층 더하여 도민에게는 일종의 양이적(攘夷的) 관념이 일어나고 또 국적시(國賊視) 하는 정념을 갖기에 이르렀다. 도민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한국을 멸망시키는 것은 선교사이다. 제주 같은 곳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창문은 열리고 대문은 밀리는대로 열려 온 마을의 꿈이 편온하며 꺼림칙한 죄의 명사는 좀처럼 들을 수 없었는데 저 선교사들이 도래(渡來)하면서부터 도민의 평화는 깨졌다. 때문에 선교사의 도래는 하등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단지 도민의 교의(交誼)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절규(絶叫)하며 일본인을 신뢰하는 정도가 더욱 깊어졌다.

선교사는 민란 후 한 때 서울로 철수, 변란으로 그들이 입은 손해금을 보상받아 오히려 부유한 처지가 되어 35년(1902) 봄이 지날 무렵, 다시 섬으로 가 가장 서교배척열(西敎排斥熱)이 심한 한라산 밑 서귀포를 본거지로 하여 밖으로 한국인 교도를 이용, 대리포교사로 삼아 배척의 중심지인 정의(旌義)지방으로 출장포교시켜 정의 및 제주부 성내 같은 곳은 이제 수백명의 교도를 얻게 되었다고. 게다가 이른바 교도란 것은 망나니들이며, 호구지책(糊口之策)에 궁하고 관계(官界)에 실망한 무리이며, 범죄에서 도망쳐 상처를 피하려는 무리이며 한 발자국 실수하면 도적이 되고 거지가 될 자들이다. 그렇다면 박애를 참뜻으로 삼아 평화를 희망하는 종교가라면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을 회개(悔改)토록 하고 박애의 정신을 갖도록 하여 평화의 백성으로서 안주시켜야한다. 그런데도 그들 선교사는 평화의 인민이 아니라 변란 발생의 인민으로, 평화의 파괴자로 만들려하니 그 어찌 위험하지 않은가,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도민을 위해 사뭇 그 고민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

第 13 編　在濟州日本人

일로전국(日露戰局)의 전개 이래 도도(渡島) 및 출어자(出漁者)가 날따라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국력발전의 결과라고는 하나 또 국가경제력 발전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연안에 있어서의 일본인 어업인은 매우 많고 그 밑바닥도 상당히 견고한 것 같다. 부근에 산재하는 각 도서 또한 어업인의 헛간이 안보이는 곳이 없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현황은 어떤가. 그것은 다음과 같다.

島名(地名)	헛 간 수	인　원
飛　揚　島	4채	80
加　波　島	2채	40
堂　浦	1채	20
西　歸　浦	3채	60
山　地　浦	1채	20
白　濱　港	3채	60
方　頭　浦	1채	20
城　山　浦	5채	100
杏　源　浦	2채	40
別　刀　浦	2채	40
郭　支　浦	1채	20
咸　德　浦	1채	20

● 濟州城內日本人在留者

• 호수=7 인구=32명(남 23, 여 9)

• 영업별 : 관리 2, 잡화상 2, 해산물중매 2, 과자상 1, 우편수취소 1,

여인숙 1, 매약 2, 뱃사람 4, 목수 1

일본인의 현황은 이상과 같은데 더구나 제주도가 남해상에 고립된 불행은 아직도 항행기선(汽船)의 모습조차 볼 수 없다는 데서 통상상(通商上)의 불리함이 이 보다 더할 것은 없다. 우리는 제주도가 개발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 실로 교통 및 통신사업의 불비(不備)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재류일본인 다수는 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잖이 골치를 썩혀왔는데 드디어 지난 36년(1903) 3월 재류일인 대표 마츠카와 미노루(松川實)외 2씨는 한통의 탄원서를 목포우체국장에게 제출해서 통신사업의 개시를 촉구하자 당시의 국장 아마노 후미고로(天野文五郎)씨가 친히 제주도의 정세를 시찰, 끝내 본성(本省)에 청하여 동년 9월 1일 우편수취소(郵便受取所)를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취급자로 하여금 목선 2척을 띄워 매월 2회 목포~제주도간을 왕복토록 했으므로 일본인의 제주도에 대한 경영도 착착 진척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일본인의 발전이 깊이 제주도 각방면에 미칠려고 하고 어업적·농업적 식민 또한 겨우 시작하려는 현금의 시세에 있어서는 월 2회의 범선 왕복쯤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이제 마츠카와씨 등의 우편수취소 설치에 관한 탄원서 및 수취소 개시 이래의 우편사무의 실적을 얻었으니 여기 실어서 참고로 한다.

日本郵便局設置願

당 제주도에 있어서의 본방인(本邦人·일본인)의 도래는 8~9년 전 이래 해마다 증가하여 근년에는 해륙에 종사하는 일본거류민의 수, 항상 1천3백을 밑돌지 않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곳은 한국 남쪽의 고도이고보니 일본인이 종사하는 일이 단지 어업뿐이라고 여겨지기 쉬우나 그 실제에 있어서 거류민(居留民)의 과반은

육상의 상업에 종사하고 있어 전도에 있어 일본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수익고(收益高) 1백여만엔의 연액(年額)도 또한 해륙이 반반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본국과의 통신기관이나 연락의 편(便)이 없어 어쩌다가 일본인이 왕복하는 어선이라도 있으면 이에 서신을 맡겨 적어도 반년의 세월을 소비하여 겨우 한가지 일을 치르는 형편입니다. 또한 때로는 위탁서신이 분실되는 일도 종종있으며 따라서 상업상에 관한 일체의 서신은 전무(全無)한 실정으로 상품시세의 높낮음등을 그때 그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시에 큰 손실을 입는 일이 적잖음은 물론, 멀리 고국에 있는 부모처자가 뜻밖의 흉보(凶報)에 접해도 3~4개월 후가 아니면 이를 알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실은 작년부터 한국우체사(韓國郵遞司)의 출장소가 설치되었지만 경상비 부족으로 집배인을 사용할 여지도 없어 도내의 배달은 이를 여행자에게 맡기는 일도 있는데 여행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서신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되돌아 오는가 하면 분실하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또 해외의 서신에 있어서는 한국기선의 기항이 매우 드물고 특히 매년 10월 이후 4월까지는 항해가 위험하기 때문에 기선의 편이 두절되며 어쩌다가 한국범선의 목포왕복이 있어 이에다 서신을 맡겨도 이 역시 무책임한 한국인의 일인지라 수십일을 허비 않을 수 없으며 분실에 대해서도 하나도 신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국기선 및 범선의 편이 있을 때 발신(發信)하려고 해도 우표가 결핍되는 일이 1년에도 여러차례 있어 그 불편하기란 참으로 심합니다. 이런 사정이고 보니 일본인의 발신은 부득이 현금을 첨부하여 이를 나가사키·목포·등에 도항(渡航)할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수 없는 불편한 상태인데 실제로 작년 11월중에 일본우편물 취급소 설치원(設置願) 2통과 기타 사신(私信) 3통을 모두 나가사키 경유(經由), 목포착(木浦着)으로 기탁, 그 후 취급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서신은 도중 어디에선가 분실한 것으로 보여 이번 목포에서 건너오신 오키다(沖田錦城)씨에 의해 처음으로 우리들의 소원이 아직도 귀소(貴所)에 도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 뜻밖의 일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겪는 실제의 사정으로 이 섬에 사는 1천여 일본인이 항상 입는 불행인 바, 마땅히 이를 살피시와 조속 취급소를 설치해주시도록 이 섬에 사는 일본인 대표들이 연서(連書)하여 이에 출원(出願)합니다.

메이지(明治) 36년(1903) 3월 24일

本籍 大分縣速見郡豊岡町 4-12番地
當時 韓國全羅道濟州島城內七星洞住 平民
漁業兼商業 松 川 實

本籍 高知縣長岡郡大津村17番戶
當時 韓國全羅道濟州島城內七星洞住 平民
貿易商 吉 田 束

本籍 滋賀縣犬上郡彦根町9番戶
當時 韓國全羅道濟州島城內州司洞住 士族
新聞通信員 原 吉 丸

木浦郵遞局長 天野文五郎 殿

이제 수취소 개설 이래 우편사무의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通常郵便物數

稅　別	36년 自　9月 至 12月	自 1月 至 4月	自 5月 至 8月	自　9月 至 12月
발　송	627	496	402	595
도　착	960	998	772	1,079

登記郵便物數

발　송	10	20	48	10
도　착	6	16	36	18

小包郵便物數

발　송	4	2	1	6
도　착	2	2	6	9

郵便換取扱口座數

발　행	42	75	38	38
지　불	3	9	16	5

郵便換取扱金額

발　행	1,047,620	6,036,872	824,290	1,551,050
지　불	92,510	434,087	1,016,281	202,190

郵便貯金取扱口座數

예 입(預入)	17	10	1	19
환 불(換拂)	1	0	0	0

郵便貯金取扱金額

예 입(預入)	51,750	16,520	300	53,600
환 불(換拂)	7,000	0	0	0

郵船出入回數

출 항	8	8	10	8
입 항	8	8	10	8

郵便行囊發着數

발 송	9	8	12	8
도 착	8	8	10	8

제주도 재주(在住) 일본인의 상태는 대략 이상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조선의 것이든, 누구의 것이든 그것은 굳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일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한 천지는 바로 일본인의 새로운 고향이다. 실정에 어두운 정론가들이 공론(空論)에 사로잡혀있는 동안, 무교육의 어부·용감한 상인은 오히려 이러한 절해고도까지 용진(勇進)해와서 말 없는 가운데 제국적(帝國的)개척의 실적을 올리려 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제주도를 찾은 것은 지금부터 4년 전 바로 제주민란(民亂)의 당시이다. 오늘에 와서 그 당시의 일본인의 상태와 비교하면 순차적으로 도도자(渡島者)도 늘고, 거래도 발달하고, 특히 어업적 경영에 있어서 그 발달이 가장 현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듯 일본인의 증가에 따라 각종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해져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발전의 정도는 실로 헤아리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재주민(在住民·일본인)의 일부는 자치적민단(民團)의 설비를 희망, 우편수취소취급인(郵便受取所取扱人) 이이즈카(飯塚照雄) 외 2~3명이 총대(總代)가 되어 주의서(主意書)를 작성하여 불원 목포영사의 손을 거쳐 외무대신(장관)에게 품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第 14 編　新日本의 發展

설왕설래(說往說來)하면 제주도는 유리(遺利)가 산과 바다에 충만한다고 해도 군이 지나친 말은 아니다. 서양인들은 일찍이 군침을 참을 길 없어 한 선교사가 단신 섬으로 건너와 개척의 소임을 맡을려고 했으나 불행하게도 저 민란을 만난 때문에 도민과의 감정이 썩 좋지않아 포교상(布敎上)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 더구나 기운(氣運)은 이제야 겨우 열려, 일본인을 환영하여 탐리(貪吏)의 수렴(收斂)을 원망, 동정을 일본에게 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정세에 편승함이 일본인의 특색이라고는 하나 제주도는 유리(遺利)가 많고 장래가 매우 유망하다고 전해지자 목포지방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은 새로 얻은 발전지(發展地)를 향해 속속 밀려들어, 혹은 좋은 기회를 잡으려 하고 혹은 시찰·순유(巡遊)를 시도, 이 신천지를 향해 깃발을 내세우려고 꾀하는 자가 매우 많아 이제는 전도에 재류하는 일본인이 4백명에 오른다. 이 즈음에 당국의 지도가 제대로 되면 이 고도(孤島)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이권은 앞으로 더욱 부식(扶殖)되어 그 경제적 범위를 확장할 것은 분명하다. 본도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대다수는 어부로서, 육상경영자는 극히 적어 겨우 30명 내외의 상인이 커다란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니 잡화상으로부터 곡물소매상에 이르기까지 은연한 세력을 뻗치고 있다.

생각컨대 제주도는 생산물이 엄청난 어업지로서, 농업지로서, 그 전도는 매우 유망하다. 더구나 절대(絶大)한 천연의 이원(利源)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헛되게 불경제(不經濟)에 맡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어찌 우리들이 팔짱을 끼고 이를 간과(看過)할 것인가. 실제로 내가 시찰한 바에 따르면 지난 36년(1903)에 있어서는 어업상의 수입액(收入額)은 무

려 20만엔 이상의 거액에 올랐으며 기타 육상 잡화등의 매상(賣上)도 매우 양호하며 한달 평균 2백50엔 이상으로 그 이윤의 거대함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 일본 및 한국 각 거류지의 여러 상인들이 일단 이 섬에 이주하고 혹은 출장점을 판견하여 이른바 일본적잡화점포를 진열하기에 이르면 그 판매구역은 더욱 확장되어 유익한 사업의 하나가 되리란 것은 의심할 바 못된다. 근래에 우리 당국에서는 제주도에의 이주(移住)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란 것을 알게되어 경찰관파출소를 마련하여 재류일본인을 보호하고 그밖에 경영에 커다란 편리를 도모해주고 있다. 재류일본인의 비교적 대사업으로서 장래가 유망한 것은 마츠카와(松州實)씨의 감태를 이용한 옥도(沃度) 제조사업이다. 그는 오이타현(大分縣)의 사람, 일청(日淸) 전쟁전 홀연히 본도에 건너와 잠시 신문의 통신원으로서 도세(島勢)를 조사·시찰했었는데 유리(遺利)가 산해에 충만함을 보고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 끝내 이곳에 머물러 부원(富源)의 개척자가 되었다.. 4~5년 전부터 옥도제조회사를 히젠이마리(肥前伊万里)에 세워 제주도 감태를 수송, 왕성하게 옥도를 제조하면서 커다란 이익도 얻었지만 지난 36년(1903) 여름 불행히도 제조회사가 화재를 만나 수만엔의 손실을 입으면서부터 한때 사업이 중지상태에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요컨대 이런 종류의 일본사업가가 와서 자본을 들여 일반 사업을 시도한다면 이 섬은 그야말로 놀라운 힘을 갖고 그 산출력(産出力)을 증대, 크게 한 몫 보게 할 것이다. 남자가 태어나면 사방에 뜻이 있다. 대거 몰려와서 이 부원을 개척, 산과 바다에 충만하는 유리(遺利)를 주워 우리 상품의 공급자가 되고 제2의 새 고향을 건설하여 이로써 국익(國益)을 도모할 것을 바라 맞이 않는다.

濟 州 島 經 營

(附 錄)

第 1 章 交通經營

第 2 章 漁業的 殖民

第 3 章 農業的經營

第 1 章　交通經營

해운(海運)의 편리 여부가 통상무역의 소장(消長)에 지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논할 필요가 없다. 제주도가 지세(地勢)에 있어서 교통기관 발달의 동력을 부여하는 바 모자라서 마치 20세기의 경쟁에서 동떨어진, 하나의 선경(仙境)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제주도는 결코 재래(在來)의 제주도가 아니라, 한국 연안의 교통은 날마다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또 더욱더 이의 흥륭(興隆)을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원래 제주도는 천산물(天産物)이 풍요로운 곳임으로 이들 산물을 집산(集散) 수송할 수륙교통사업의 발달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정책에 있어 목하 초미(焦眉)의 급선무이다. 그리고 제주도 연안 항만의 수심(水深)은 선박의 정계(碇繫)에 적당 하지만 아쉽게도 본도의 항만에는 하나의 굴곡(屈曲)도 없어 조금만 풍파가 심하게 되면 그 위험은 실로 말할 것이 못된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본도의 상황을 조사해서 그 경영시설에 착수하려면 우선 항만의 축조에 유의(留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각컨대 제주도를 한국의 현상(現狀)에 일임하여 이를 경영, 진보시킬 가망이 있으면 우리는 굳이 수긍(首肯) 않을 것 아니지만, 현재의 한국은 본토 그 차제도 힘겨워,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이 천외의 고도 또한 바로 우리 일본인의 손으로 개척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문화를 이끌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일본인 외에 그 경영·지도에 나설 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 일본인을 크게 생각하는 바가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일본인이 우유부단하여 한 사람이 일어나 제주도를 하루라도 빨리 개척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아직도 교통시설의 다급하고 절실함을 주장하는 바를 듣지 못했다.

생각컨대 이는 우리 국민이 우유부단한 것도 틀림 없지만 애당초 당국자가 지도에 있어 적절치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지나간 일을 우리는 책망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면 쫓아오는 사람을 내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경영을 오히려 뜻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백년의 이해(利害)를 통찰(洞察)하여 국가백년의 대계를 세운다는 입장에 서면 자본을 공급하는 방법도 어찌 마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가. 바라건대 우리의 유지들이 내 말을 수용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제주도에 새 항로(航路)를 열어 한국 연안의 각 항로와 연락하는 한편 일본을 향한 직통항로를 개통하여 모두 함께 이 신선로(新線路)를 보호·발달시킬 것을 제주도 경영의 앞날을 위해 기대해 맞이 않는다.

第 2 章　漁業的 殖民

한국은 이제야말로 우리 세력 및 이익의 두 권역(圈域)안에 들어왔다. 천재일우의 호기(好機)를 만난 우리 일본은 마치 「워터루」 전승(戰勝) 뒤의 영국처럼 경영의 알맞은 위치에 있고 한반도를 적응(適應)시켜 서서히 동양의 패권을 장악하는 대계(大計)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 대계를 확립함에 즈음하여 우선 우리 국토의 과잉한 국민을 몰아 한국으로 이식(移殖)시켜 이로써 건전한 경제적 지반을 창설함이 급무(急務)라는 것을 절규(絶叫)해서 맞이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일본의 인구는 4천8백만으로, 더구나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는 50만 명이라고 한다. 이 비율은 해마다 증식해 가면 1백년 뒤에는 1억 이상의 인구를 보게된다는 것이 결코 일장(一場)의 몽상(夢想)이 아닐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땅이 비좁고 사람은 많으니 민족 팽창의 소리는 자연의 결과로서 절규

되어진다해도 또한 부득이할 것이다. 일청전쟁(日淸戰爭)이나 일로(日露) 전쟁 같은 것은 그 이면에 숨은 원인을 털어 내면 모두가 이 민족팽창의 소리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팽창의 좋은 기운(機運)은 바로 지금 도래한 것, 우리 일본인은 대거 몰려가서 반도의 부원(富源)을 개척하여 경제의 팽창에 힘쓰지 안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여기에서 한국바다에 있어서의 하늘이 준 대보고(大寶庫), 제주도를 향해 이주적(移住的) 어업의 급무를 말하려는 것이다.

옛부터 전라도의 바다는 해산물이 풍요하고 특히 제주도 연안의 어업은 풍부한 천연의 이원(利源)이다. 우리 나라 어업자로서 남일본(南日本)의 오이타(大分), 야마구치(山口), 나가사키(長崎), 구마모토(熊本) 등의 어민은 매년 이 근해에 출어하는 자가 적지 않다. 참고로 봄·여름이 교차하는 성어기에 목포로부터 배를 띄워 진도(珍島), 소안도(所安島)를 거쳐 제주를 찾아 일장기(日章旗)가 나부끼는 어선이 수십 척이나 정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일본어선이 이 근해에 내왕하는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근해의 어업은 거의 일본인어업자에 의해 경영되는데 그 출어자가 해마다 어업권을 계속하기 때문에 영업자나 당국자 모두가 번잡을 이루어 이 근해 출어자 대부분은 일단 부산 또는 목포에서 다음과 같은 통어면장(通漁免狀) 교부의 수속을 한다.

이 서장에 수수료를 첨부, 영사의 증명을 받아 해관장(海關長)에게 제출하면 해관은 배의 뱃머리에 번호를 부기(附記)하여 성가신 수속을 마친 다음 비로소 출어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우리 일본의 대한제반권력(對韓諸般權力)은 안전하게 획득되어지고 있으므로 모름지기 신속하게 어업자의 어업권을 고정(固定)시켜 일체의 형식적 번잡을 피하면서 어업의 경영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동시에 토지의 소유권을 얻어 한반도 내 아무데나 거주할 수 있고 자유를 얻게되면 일본 출어자들은 진도·소안도·제주도의 적당한 위치에 적응하여 어업적 이주(移住)의 풍조가 왕성해질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일본출어자의 유력한 근거지인 만큼 현재도 야마구치, 오이타·나가사키·구마모토 등의 어업인이 20여개소의 헛간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대개가 일정기간의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한 어기가 끝나면 곧바로 귀국해버리는 식의 이른바「여행적 어업」에 속하기 때문에 귀향(歸鄕)후는 자칫하면 도민들에 의해 파괴당해 매년 어기간(漁期間)의 헛간을 신축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단기간의 단순한 어업조직으로는 비교적 다액(多額)의 경비를 들여서 근소한 수익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 만일 하루아침에 불행하게도 불어(不漁)를 맞게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아 다음해 출어의 용기를 잃어버리는 자도 또한 적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일대어촌(一大漁村)의 건설이다. 이것이 그 부원을 개척하고 근거를 고정시키는 최선책으로서 제주도 경영의 첫째 요의(要義)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그 어촌은 일본어촌과 꼭 같은 시설을 하고 어업인은 가족을 거느려서 영주적 각오를 확고히 하여 제2의 고향으로서 도민과 서로 어울리고 서로 도와서 농사의 발달, 목축의 개량에 정진(精進)해야 할 것이다. 도민의 농업법은 매우 유치하여 관개(灌漑), 배수(排水) 기타 재배·수확의 방법에 있어서도 극히 불비(不備)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더구나 도민은 실제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일본어업자로하여금 어업을 하는 한편 이들 사업에 종사토록 하면 그 어업이나 농업과 관련해서 상업이나 공업, 운조업(運漕業) 등이 자연이 왕성해져 제주도는 부르지 않아도 반드시 개명인(開明人)들이 군침을 흘리는 곳이 될 것이다. 이야말로 그 부원을 개척하여 실력을 기름과 동시에 일본인의 이득을 증진시키는 까닭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일본의 식자(識者)들이 일찍부터 한국바다에의 통어민(通漁民)으로 하여금 이주적어업에 종사케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논하고 그 실행을 도모하려는 계획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뻐할만한 현상이다.ㅐ

치바현(千葉縣)에서는 지난번 수산시험장의 현지시찰 결과, 동 현연합

회(縣聯合會)로부터 마산포(馬山浦)에 동현 어민 10여호를 이주시켰고 오이타현(大分縣)에서는 동현 수산조합의 사업으로서 역시 어민이주계획이 있다. 후쿠오카현(福岡縣)에서도 어업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자가 있어 그 일부는 이미 거제도(巨濟島) 장승포(長承浦) 수산조합 갑지(甲地)에 배치되었다고 들린다. 오카야마현(岡山縣))에서도 또한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자가 있으며 그 밖의 각현(各縣)의 계획도 적잖다고 하는데 이야말로 대세에 편승할 좋은 기운(機運)이다. 우리 일본의 관계자들은 모름지기 빨리 제주도를 향해 어업적식민(殖民)의 한 신생면(新生面)을 열 것을 권해 맞이 않는다. 이 하늘이 준 대보고야 말로 바로 야마토(大和・주=일본)민족의 열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第 3 章　農業的 經營

사람들이 만약 제주도를 찾아가 부성(府城) 교외를 지팡이 짚고 찾으면 여기 저기 흩어진 돌맹이 때문에 그「농업적 제주」로서는 도저히 돌아볼 것도 없지만 이것은 단지 한라산 북부의 반면(半面)으로서 그 남부 반면 경사지에 있어서는 옥야(沃野) 10리(里), 경작할만한 토지가 적잖지만 아직도 헛되이 이를 황무(荒蕪)인 채로 내버려둬 부원을 개발하지 않고 또 농업상에 있어서의 제반 시설은 크게 한국 본토에 뒤지는 감이 있다. 이는 필경 도민의 대부분이 즐겨 수확이 많은 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인데 어떻든 본도의 부원을 유감없이 개발시킬려면 그 농업의 진작(振作)은 어업에 버금 가는 급무임을 믿는다. 제주도에 있어서 농업을 진직시켜 십분 농산의 부(富)를 이르킬려면 농업의 경영, 모름지기 그 면목을 일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종래 도민의 농업법이란 극히 유치해서 논에 있어서는 관개(灌溉) 배수(排水) 모두를 자연의 흐름에 맡겨

거의 인공을 가하는 일이 없으며 밭에 있어서는 방목하는 소, 말 때문에 황폐화 되어 자칫하면 수확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농민들은 한 번도 개선에 뜻을 둔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개중에도 보리 및 콩 같은 것은 매해 왕성하게 각 지역에 수송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다면 일단 이에 개량을 가하면 그 수확증진의 가망이 여유작작함은 의심할 바 못된다. 장래 개척을 필요로 하는 경작지에 이르러서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통계를 뽑아낼 수도 없지만 제주목사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대강 2~3만 정보의 가경지(可耕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차(大差)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개간지의 과반(過半)을 경작하여 쌀, 보리 이외에 목축, 양잠, 과수재배 기타 적당한 농사를 경영하게 되면 그 이익은 지금보다 훨씬 증대되리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畜 産 : 농업의 일부분인 목축은 본도에 있어서 장래가 유망한 사업이다. 한라산록(漢拏山麓) 자연의 대목장은 좋이 산업의 보도(寶島)를 이룩하기에 충분한 천혜(天惠)의 행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어떤 한촌(寒村)에 이르러서도 소규모 목장이 없는 곳은 없고 소·말·돼지 등이 엄청나게 길러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천연에 적합한 기후풍토가 얼마나 번식에 큰 힘이 되는가를 알게 되었다. 이제야말로 축산물의 필요는 날로 늘고 있어 일본에 있어서는 공급이 불충분한데도 수요는 사정없이 증가하여 그칠줄 모른다. 고기 및 젖은 음식물로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점점 그 수요는 늘어 털 및 가죽은 직물(織物) 기타의 공업용으로, 뼈와 발톱의 자잘한 것에 이르기까지 농공(農工)기타의 용도로 제공된다. 수요의 대강이 이러한데 오늘날 일본 내지(內地)의 축산으로는 도저히 그 수요를 충족 할 수가 없어 버터, 밀크류를 비롯 생축(生畜) 수골(獸骨) 모직(毛織) 등에 이르기까지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이 그 액수가 대단하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일본국내에서의 공급이 매우 모자람을

우려하여 얼마만큼의 목축장을 설치하여 해외의 우량종을 수입·번식해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불하(拂下)하고 있다. 그러니 일본 목축가가 일단 섬으로 가서 목수(牧獸)를 개량하고 사료를 선택해서 목축의 일에 종사하는 자가 있으면 의외의 우량종 산출지(産出地)로서, 일본의 일대공급지로서 장래의 발달을 상상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만일 이들의 경영에 대해 속속 일본에서 과잉을 이루는 인구를 보낸다면 좋이 10만의 우리 동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일본 내지에서는 인구 증가가 급속하여 4천8백만의 인구는 탄환흑자(彈丸黑子·주=탄환이나 사마귀와도 같이 작은 땅)의 소제국(小帝國)에 넘쳐 경전(耕田) 이미 다하고 심산유곡(深山幽谷)으로부터 벽해추빈(碧海陬濱)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땅도 경작하지 않은 곳은 없으며 한 푼의 이(利)라도 홈착거리지 않음은 없다. 이렇듯 눈앞에 먹을 식료조차 결핍하니 아무쪼록 이들 부원의 개척에 향해서 분투하지 않을 수 없다. 현하의 좋은 시기를 방치해서 만일 공론(空論)에만 집착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크게 미워하리라.

南鮮 寶窟 濟州島

大野秋月

1911年

序　文

신영토의 진운(進運)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母國志士들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멀리 떨어진 벽지의 땅에 이르러서는 이를 답파해서 탐구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제주도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음은 역시 이 때문이리라.

여기에 마침 나의 친구 슈우게츠(秋月)군이 본도를 1년남짓 실사하고 그 견문을 탐구, 기록하여 '南鮮의 寶窟 제주도'라고 이름붙여 이를 세상에 내놓았다.

지세와 연혁 풍속 인정 명승 고적에서부터 각종 생산품과 그 생산액 등, 적어도 본도에 관한 여러 기사들이 정밀한 수자와 놀라운 관찰을 통해 웅대한 필치로 명쾌하게 서술되었다.

만약 본도에 대하여 착안하는 이로서 이 책을 일독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 바 여기 조그만 소감을 적어 서문으로 가름하는 바이다.

辛亥孟冬
在嶋

村田凌雨 적음

備　考

본도에는 옛부터 실측한 완전한 지도가 없었다. 본도는 저자 자신이 실사한 약식도이기 때문에 위치·굴곡 오류가 많아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 정확을 기하느라고 했다. 장래 실측지도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 그 오류를 정정하려고 한다. 이를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부락은 저명한 것만을 기록하고 그 밖의 것은 생략했다.

大野秋月 씀

緖　言

耽羅志에 의하면 世宗17년(西紀 1435년) 崔海山이 본도 목사로 있을 때에 관청에서 불이 나 문적(文籍)들이 몽땅 회진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관청에서의 발화는 이때만이 아니고 목사가 바뀔 때마다 그 재임중에 문서가 불 타 한가지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게 상례였다고 한다. 따라서 본도의 사적(事蹟)을 고찰하기란 難事中의 난사이다.

본도의 三姓시조 자손들은 심히 보잘것 없을 뿐만 아니라 元朝治下 때부터 간신혹리(奸臣酷吏)들이 잇따랐으나 군계(群鷄)중 일학(一鶴)이라고 할까, 본도흥망의 발자취를 더듬어 풍속 인정 기타 제반상황을 기록, 耽羅志라고 이름지었다.

작가불명이라고 하나 나는 목사 李元鎭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본다. 그 연대를 캐어보건대 바로 2백여년 전에 해당한다. 그 후 1894년(明治27년)경 洪鐘宇가 본도 자사(刺史)(註 : 地方官)일때 역대 목사와 판관들을 서술하였다.

耽羅志가 처음 상재(上梓)되므로써 관부(官府)의 재액을 면해서 다행히 지금까지 2, 3개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 책은 본도의 '秘書'로서 타인이 볼 수가 없고 다만 성망가(聲望家)들의 진장(珍藏)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누가 감히 전사(伝寫)할 수 있으랴. 겨우 明治43년(1910)경부터 '비서'의 범위를 벗어나 세인으로 하여금 등사하도록 허용케 되었다. 그리하여 나의 친구 大山씨 사본으로 나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그 내용은 문장이 난잡하고 간간이 착오된 곳도 있고 더욱이 '魯魚混淆(글씨의 오류를 이르는 말)의 오류와 글의 전도(顚倒)도 많아서 쉽게 독파

하기가 어려워 이를 일본어로 번역하기로 했다. 그러나 앵무새 소리내듯 반복하기도 무익함을 인정, 약 1년반동안 친히 실사·견문한 바를 병록(倂錄)하여 스스로 참고자료로 삼기위해 원고를 정리해 나갔다.

마침내 원고가 완성됨에 이르렀는데 이를 다만 비장해두기보다는 오히려 본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그릇으로 삼고 또한 천부(天賦)의 보굴(寶窟)을 개척하는 방편으로 삼는다면 그 이익됨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권유에 따라 서툰 글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상재하여 강호(江湖)에 반포케 되었다. 불비한 점, 오류된 기사는 뒤에 보정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부록의 지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마디 할 필요가 있겠다. 즉 본도에는 옛날부터 실측의 지도가 없었다. 도내 각처에는 여러 사람의 약식도와 같은 것은 있었지만 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갖가지 고심끝에 이 지도를 제작하는 바이다. 이는 오늘날 존재하는 본도 지도중 가장 정확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서의 서술에 있어서 大山씨 그밖의 여러분의 원조를 얻어 크게 이익된 바 많았음을 삼가 이에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권말에 열기한 명사들의 소전(小傳)은 사진설명으로 가름하고자 한것일뿐 뛰어난 인재가 많음은 이뿐만이 아님을 밝혀둔다.

明治44년(1911)孟冬3日

於長風吟海若躍城山麓　大野秋月 적음

목 차

Ⅰ. 總 論 ····· 77
Ⅱ. 地 勢 ····· 77
Ⅲ. 沿 革 ····· 80
Ⅳ. 風 俗 ····· 85
Ⅴ. 山 川 ····· 90
Ⅵ. 島嶼 (附) 産物 ····· 98
Ⅶ. 名勝 (漢拏의 奇峰, 瀛室의 千佛, 三姓穴의 松風, 嘉樂의 淸流, 都近의 銀鮮, 牛島의 觀月, 城山의 奇石, 天帝淵瀑布, 山房山의 眺望) ····· 102
Ⅷ. 古 蹟 ····· 113
Ⅸ. 學 校 ····· 125
Ⅹ. 官 衙 ····· 127
Ⅺ. 併合後의 제주도 ····· 128
人口. 職業別 比較表 ····· 128
通信機關 ····· 129
金融機關 銀行·郵便局·金融組合 ····· 131
本島産物 陸産·海産 ····· 134
五日市場 地名 場日 物品時價. 勞動者임금 ····· 139
本島발전의 近況·搬入화물對照表·城山浦搬出入화물對照表 ···· 141
島內里程表 ····· 145
槪 說 附天與椎葦(표고)山 ····· 145
附 錄 名士의 활동상황 ····· 155

Ⅰ. 總　論

본도는 본래 탐라국(耽羅國)이라고 불렀다. 그후에 이르러 제주(濟州)라고 개칭했다. 오늘날 전도를 나누어 3개군(郡)으로 한다.

○**제주군** : 본도의 북반 전부를 관할한다. 군아(郡衙)는 성내에 있다. 탐라지(耽羅志)에 가로되 동쪽은 정의현계(旌義縣界)에 이르기를 80리(里), 서쪽은 대정(大靜)현계에 이르기를 81리, 남쪽은 바다에 이르기를 1백20리, 북쪽은 바다에 이르기를 1리, 해남(海南)의 관두양(館頭梁)과 떨어지길 9백70여리 운운하고 있다.

○**정의·대정**의 2군은 남반부를 이분하여 통할한다. 정의군은 남반부의 동쪽 즉 법환리 이동(以東)으로서 읍내에 군아가 있다. 탐라지에 가로되 동쪽은 제주경계까지 35리, 북쪽은 제주경계(한라산)까지 20리, 서쪽은 대정현계까지 95리, 남쪽은 바다에 이르기 15리 운운

○**대정읍** : 읍내에 군아가 있고 남반서부를 관할한다. 지에 가로되 동쪽은 정의현계까지 57리, 남쪽은 바다까지 10리, 서쪽은 제주경계(지금의 고산리)까지 37리, 북쪽은 역시 제주현계까지 32리 운운

Ⅱ. 濟州島의 地勢

본도는 전토(全土)가 자갈투성이의 화산암으로 되어있다. 그 토양은 바로 제3기층에 속한다. 본도 중심인 6천5백58척(呎)의 고봉 한라산의 꼭대기는 동경1백26도32분 북위33도26분에 있다. 산맥도 동서로 뻗어있는데 동은 우도의 동단, 동경126도56분에 그쳐있고 서는 죽도(註 : 차귀

도)에 이르러 동경1백26도2분에 그쳐있다.

섬의 모양은 마치 고구마를 뉘여놓은 것과 같이 동동북으로부터 서서남으로 경사되어 있다. 섬의 극남(極南) 마라도(馬羅島)는 북위33도8분에 점재(點在)해서 북단 즉 제주군 무주리(月汀里)의 해안, 북위33도32분 50초에 그쳐있다.

도내의 지세는 바로 철(凸)자형을 이룬다.

중앙에 한라산봉우리가 솟아있을뿐 다만 이것의 여파라고도 볼 수 있는 원추형 오름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이들 산악사이는 모두 평원으로서 대개가 목장 또는 밭이다. 목장에는 잔디가 나고 밭에서는 조, 보리, 피(稗), 콩, 팥 등이 산출된다. 산악이 가파르기 때문에 하천이 적고 이 때문에 논이 있는 곳은 정의군 서귀포 및 그 부근 고성리. 제주군 명월리 및 두모리 부근 그리고 대정군 가파도 등이다. 도민일반은 조 및 보리를 상식(常食)한다. 미식(米食)을 하는 이는 열 손가락을 꼽기도 어렵다고 한다.

본도의 성립은 매우 오래된 것 같진 않지만 옛적에 해저의 분화로 해서 성립된 것으로, 토양의 함몰로 대륙과의 연결이 끊겨 고도(孤島)로 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직접적인 증거로는 전토(全土)가 화산암으로서 화강암 등 경질(硬質)의 돌이 없고 또 광물도 전혀 산출되지 않는다.

전도의 산악은 모두 원추상을 이루고 산꼭대기에는 분화구가 있는데 여기에 물이 고이는 일은 극히 드물다. 다만 한라산 정상에 있는 둘레 약 20町남짓의 지소(池沼)만은 사시(四時) 물을 저장하고 있다.

그러한 간접적 증거로서는 본도에는 대륙에서와 같이 들짐승이 없다. 때때로 산돼지(猪)닮은 것이 있어도 가축인 돼지가 뛰쳐나가서 야생의 것 같이 되었다. 그래서 엄니(牙)가 없는 것이다.

사슴과 노루가 있는데 이것들은 옛날에는 가축이었으나 나종에는 야생으로 되어버렸다.

식물원과 동물원(園囿)에 군록(麋鹿)과 같은 것을 키우는 일은 중국 고

대로부터의 풍속임을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

맹자도 가라사대 균록택택(麋鹿澤澤)이라고 했던가.

그밖에 야생의 우마는 본디 목장에서 뛰쳐나간 것임에 분명하다.

조류에는 기러기, 오리, 들칠면조, 흑두루미, 꿩, 가마귀, 참새, 종달새 등등이 있다. 이것들은 대륙으로부터 건너온 것이다.

그런데 만일 토지가 함몰해서 고도로 되었다면 그 지형은 해안선이 반드시 초생달모양을 이루는 게 상례이다. 그렇지만 본도의 경우는 도리어 초열흘달과 같은 모양인 타원형을 하고 있다. 이는 중앙에 분화해서 토석이 붕괴했기 때문이 아닐까.

도내의 여러 촌락들은 한라산을 둘러싸고 건설돼 있다. 그래서 모양은 마치 산허리에 복선(複線)을 그린 것 같은 형국이다. 즉 하나는 해안선이며 다른 하나는 고지대 순환선이다. 해안선에 사는 사람은 반농반어를 하고 있고 고지대 순환선에 사는 사람은 농업을 주로 하고 또 목우마를 부업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크게 나누어 본 것 뿐으로 꼭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본도의 기후온도는 혹서(酷暑)때 95도(F)를 오르는 일이 드물며 극한(極寒)때 30도(F)를 내리는 일이 적다. 또 북반부와 남반부를 비교해보면 남반부는 온난해서 풍우광폭(風雨狂暴)의 도가 북반부보다는 적다.

마치 일본남해안(태평양쪽)과 일본해안(동해쪽)과 같은 차이가 있다. 더욱이 북부는 대륙과 가깝기 때문에 도내 제일의 도시가 이곳에 건설된 것이다. 도내의 도로는 해안선을 제1도로로 한다. 몹시 험악해서 보행때 곤란하다.

겹겹이 쌓인 예각(銳角)의 암석은 걸어갈 때마다 사람의 발에 상처를 입히려 한다.

제2도로는 제주군아(郡衙)로부터 대정군아로 통하는 것과, 정의군에 통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길들은 도로라고 부르지도 못할 것이지만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름이 붙여진 것 뿐이다. 다만 발자취

를 남긴다고 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산허리를 돌아 들판을 지나고도 암석의 돌기(突起)는 해안선보다 적기 때문에 보행 또한 용이하다고 하겠다.

제3도로는 각 부락교통을 위하여 발자취를 남긴 것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제주 성내의 바로 뒷면에 있는 곳이 서귀포이다. 그 사이의 통로는 한라산 동쪽 칠부능선 쯤을 넘어간다.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기 때문에 두절되곤 한다. 이 길은 약11리쯤 된다.

Ⅲ. 濟州島의 沿革
(耽羅志에 의함)

본도는 구한(九韓)중의 첫째로서(홍기(弘記)에 구한(九韓)을 열거하는데 탁라(毛羅)는 그 4번째이다) 혹은 탁라(毛羅)라고 칭하고 혹은 탐라(耽羅)라고 칭하며, 혹은 탐모라(耽牟羅)라고도 한다.

전라남도의 바다가운데 있는데 부원(副圓)이 4백여리(응당 5백여리로 만들만하다)이다.

처음 고을나(高乙那) 양을나(良乙那) 부을나(夫乙那)의 3형제가 있어 그 땅을 나누어 갖고 그 거소를 도(徒)라고 이름붙였다.(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도(都)라고 되어 있다 : 이하 같음) (제주성내(濟州城內)에 일도리(一徒里), 이도리(二徒里), 삼도리(三徒里)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필경 3인의 거소를 도(徒)로 명명한데 기인하는 것이리라)

신라가 융성할 때 고후(高厚) 고청(高淸) 및 계(季)(季의 名은 未詳)가 바다를 건너 조공을 바치자 신라왕은 크게 기뻐하여 각각 호를 내렸다. 후(厚)는 성주(星主)라고 부르고 청(淸)을 왕자(王子)라고 불렀으며 계(季)를 도내(徒內)라고 불렀다. 이에 국호를 내려 탐라라고 불렀다.

그후 백제를 섬기게 되었다. 문주왕(文周王) 2년(西紀 476년) 병진세(丙辰歲)에 탐라국 사자를 맞아 은솔(恩率)을 삼았다. 동성왕(東城王) 20년(西紀498년) 경신세(庚申歲)에 탐라국이 직공(職貢)을 바치지 않음에 따라 친정(親征)을 해서 무진주(武珍州 : 지금의 광주)에 이르렀다. 탐라국주가 이를 듣고 사절을 보내어 죄를 빌매 즉시 정벌을 중지하였다.

백제 의자왕이 망함에 따라 신라문무왕 원년(서기661년) 임술세(壬戌歲)에 탐라국주 좌평(佐平)(은솔좌평(恩率佐平)은 백제의 관명(官名)임. 백제, 그 왕(王)을 봉해서 좌평(佐平)으로 함) 도동음률(徒冬音律) 항복하여 습복하기에 이르다.

고려 태조21년(서기938년) 무술세(戊戌歲), 탐라국주는 태자말노(太子末老)를 보내어 내조(來朝)토록 했다. 그래서 성주(星主) 왕자에게 작(爵)을 내렸다.

숙종(肅宗)10년(서기1105년) 을유세(乙酉歲)에 탁라(乇羅)를 고쳐 탐라군으로 하다.

의종(毅宗)때에 강등하여 현(縣)으로 삼고 영(令)을 두었다. 고종(高宗)때에 부사(副使)를 두었다.

원종(元宗)8년(서기1267년) 정묘세(丁卯歲)에 초적(草賊) 문행(文幸)이 난을 일으키자 부사 최탁(崔托)이 병을 일으켜 이를 치었다. 11년 경오세(庚午歲)에 반적(反賊) 김통정(金通精)이 삼별초(三別抄)를 거느리고 진도(珍島)에 웅거(雄據)하다가 다음해 신미년(辛未年)에 내침하였다. 성주 고인조(高仁朝) 왕자(王子) 문창우(文昌祐) 등이 이를 주청, 3년을 넘어 계유세(癸酉歲)에 왕이 김방경(金方慶)등에 명하여 원의 병사들과 합하여 이를 토벌 평정하였다.

다음 갑술세(甲戌歲)에 원으로부터 초토사(招討使)를 설치하다. 충렬왕 원년(서기1275년) 을해세(乙亥歲)에 원이 다시 탐라라고 칭했다. 2년 병자세(丙子歲)에 원은 군민총관부(軍民總官府)를 두고 3년 정축세(丁丑歲)엔 원은 동서에 아막(阿幕)을 세워 소·말·낙타·나귀·양 등을 방목시켰다.

달로화적(達魯花赤)을 파견, 이를 감독케 했다.

10년 갑신세(甲申歲) 원은 총관부를 개혁 탐라군민안무사(耽羅軍民安撫使)를 두었다. 20년 갑오세(甲午歲)에 왕이 원에 참조(參朝)하여 청하고 탐라로 돌아왔다. 원의 승상(丞相) 완택(完澤)등이 주(奏)하고 황제가 그 취지를 받들어 예(隸)를 돌려보내 주었다.

21년(서기1295년) 을미(乙未)에 탐라를 바꾸어 제주로 하고 목사판관을 두었다. 26년 경자세(庚子歲)에 동서에 도현(道縣)을 설치했다.(현촌(縣村)은 귀일(貴日)<지금의 上·下貴里인가> 고내(高內) 애월(涯月) 곽지(郭支) 귀덕(歸德) 명월(明月) 신촌(新村) 함덕(咸德) 김녕(金寧) 호촌(狐村) 홍로(洪爐) 예래(猊來) 산방(山房) 차귀(遮歸) 등이다. 대촌(大村)에는 호장(戶長) 3인을 두고 또 성상(城上) 1인을 두었다. 중촌(中村)은 호장(戶長) 2인, 소촌(小村) 1인)

(구기(舊記)를 살펴보면 신라(新羅)에서 고후(高厚)를 봉(封)했을 때에 촌(村)을 두었다가 고려(高麗) 의종(毅宗)때에 다시 나누어 현(縣)을 두었다. 원종(元宗)때에 평별초(平別抄)를 통합하여 일주(一州)로 했다. 이에 이르러 다시 현촌(縣村)을 설치했다. 서로 현촌(縣村)이 되는 연대는 상세치 않음)

이 해 원의 기황후(奇皇后)가 다시 구마(廐馬)를 방목했다. 28년 임인세(壬寅歲)에 원은 군민만호부(軍民萬戶府)를 세웠다. 31년 을사세(乙巳歲)에 재차 우리 쪽에 돌아오다. 충숙왕(忠肅王) 5년 무오(戊午) 초적(草賊) 임용(任用) 엄복(嚴卜) 등이 병사를 일으켜 난을 일으킴에 왕자(王子) 문공제(文公濟) 등이 병사를 일으켜 이를 주살(誅殺)했다. 다시 원의 말을 들어 관리를 두었다. 공민왕(恭愍王) 11년(서기 1362년) 임인세(壬寅歲)에 원의 목자(牧子)가 원에 주청, 다시 만호부를 두었다. 원은 부추문(副樞文) 아(阿) 불화(不花)로써 다스리도록 하였다. (아(阿) 불화(不花)는 본국의 적예(賊隸) 김장노(金長老)와 주(州)에 이르러 만호부(萬戶府)를 협공하다. 박도손(朴都孫) 즉시 바다속으로 침몰)

16년(서기1367년) 정미(丁未) 원 망하다.

대명(大明)의 태조(太祖)가 즉위함에 이르러 주(州)는 재차 명(明)에 복속케 됐다. 원의 목자는 거치르고 살생을 수없이 함에 김유(金瑜)등이

목자를 침에 이르러 왕이 지금의 본국에 주청했다. 관서로부터 목자가 키우는 말을 헌상하는 일을 여전히 계속토록 청하고 황제가 이에 따르다. 18년 기유세(己酉歲)에 비로소 김(金)을 받들어 세세(世世) 안무사(安撫使)로 삼았다.

21년 임자세(壬子歲)에 석가(石加) 을비(乙碑) 초고도(肖古道) 보개(甫介) 등이 스스로 동서합적(東西哈赤)이라 칭하고 관리를 죽였다. 왕자(王子) 문신보(文臣輔) 그 동생 신필(臣弼)을 보내어 주문(奏聞)했다. 2년이 지난 갑인세(甲寅歲)에 왕은 도통사(都統使) 최영(崔瑩)을 파견, 합적(哈赤)을 토벌하고 김중광(金仲光)으로 하여금 만호 겸 목사로 삼았다. 7년 신유세(辛酉歲)에 비로소 판관을 설치했다. 본조(本朝)는 이로 인해 태조 6년(서기1397년) 정축세(丁丑歲)에 만호부를 고쳐 목사겸 첨절제사(僉節制使)로 했다.

공정왕(恭靖王)2년(서기1400년) 경진세(庚辰歲)에 판관으로 하여금 교수(敎授)를 겸하도록 했다가 태종(太宗)원년 신사세(辛巳歲)에 다시 안무사 겸 목사를 설치했다. 2년 임오세(壬午歲)에 성주(星主) 고봉례(高鳳礼) 왕자(王子) 문충세(文忠世) 등은 성주왕자(星主王子)의 호(號)는 참칭(僭称)이 될만하다 하여 이를 고쳐 성주(星主)를 좌도지관(左都知管)으로 하고 왕자(王子)를 우도지관(右都知管)으로 하였다.

8년 무자세(戊子歲)에 동서아막(東西阿幕)을 고쳐 감목관(監牧官)을 두었다. 13년 계사세(癸巳歲)에 따로 교수를 두었다. 16년 병신세(丙申歲)에 안무사 오식(吳湜), 계(啓) 등 정의·대정의 두 현을 세웠다. 세종10년 술신세(戊申歲)에 감목관을 고쳐 판관으로 이를 겸직토록 하였다.

25년 계해세(癸亥歲)에 안무사로서 목사지감목사(牧使知監牧事)를 겸하도록 했다. 27년 을축(乙丑) 좌우(左右)의 도지관(都知管)을 고쳐 읍인유식자(邑人有識者)의 위로 삼다. 노산(魯山)2년(서기1454년) 갑술세(甲戌歲)에 안무사로서 목사지감(牧使知監)을 겸하도록 했다. 세조12년(서기1466년) 병술세(丙戌歲)에 안무사겸 감목사를 바꾸어 진(鎭)을 설치했다. 병마수군절

제사(兵馬水軍節制使)로서 목사를 겸하고 판관으로 감목절제도위(監牧節制都尉)를 겸하도록 하였다. 예종(睿宗)의 원년 을축세(乙丑歲)에 다시 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를 겸하고 판관으로 절제도위감목관을 겸하도록 하였다.

• 진영(鎭營)

정의·대정의 2 현을 설립하다.

정의현 및 대정현 : 명의 태종16년 병신세(丙申歲)에 안무사 오식지(吳湜之)는 한라산 남해안 2백여리의 땅을 나누어 그 동쪽을 정의현, 서쪽은 대정현이라고 하였다.

• 관원(官員)

제주 목사, 판관, 교수(敎授), 심약(審藥), 검률(檢律), 일역(日譯) 훈도(訓導) 각 1인

심약은 전적으로 위생업무를 맡고 검률은 정치를 엄히 한다. 일역 훈도는 해항(海港)에 있으며 성화년간(成化年間)에는 이미 심약이 설치돼 있었다. 검률에는 홍치(弘治) 11년 무오년(戊午年)이래 조정으로부터 사람이 파견하지 않게 되었다.

• 읍명(본도의 도명(島名)인듯)

탐라(耽羅), 탁라(乇羅), 탐모라(耽牟羅), 동영주(東瀛州), 제주(濟州)

• 성씨(本島在民의 姓氏임)

본주의 고(高) 양(良)(良은 뒤에 梁으로 고침) 부(夫), 문(文)(처음 보성군(寶城郡) 복성현(福城縣) 사람. 來• 의 자(子), 고씨(高氏)있음, 그 자손은 고씨에 버금하여 왕자가 된 자 있음) 정(鄭), 김(金), 이(李), 문(文), 안(安), 현(玄), 함(咸), 양(楊) (함께 현(縣)에 속함) 김(金), 이(李), 박(朴), 임(林), 유(兪), 주(周), 조(趙), 송(宋), 정(鄭), 홍(洪), 서(徐), 최(崔), 오(吳), 차(車), 지

(池), 한(韓), 마(馬), 황(黃), 백(白), 남(南), 모(牟), 허(許), 장(張), 임(任), 변(邊)(함께 딴 곳에서 오다) 조(趙), 이(李), 석(石), 초(肖), 강(康), 강(姜), 정(鄭), 장(張), 송(宋), 주(周), 진(秦)(元朝의 代에 오다) 양(梁), 안(安), 강(姜), 대(對)(雲南으로부터 오다) (大明이 처음으로 雲南을 평정했을 때 梁王의 가속을 거느려 州에 안치하다)

Ⅳ. 본도의 풍속일반
(耽羅志 譯出)

본도민은 딴곳과 교통할 기회가 없음으로 해서 대체로 완우(頑愚)하다. 진취(進取)의 기백이 없고 극히 비린(卑吝)하다. 종래부터 관존민비(官尊民卑)의 폐단이 심하고 일견 겸양한 듯하지만 실은 그렇지 못하다. 탐라지(耽羅志)에 풍속은 치검(痴儉)하고 예양(禮讓)이 있다고 한 것은 피상적인 견해이다. 흔히 말하는 바 풍속은 치검하고 새집(茅屋)이 많고 백성들은 짚신을 좋아하고 딴 것을 신는 일은 거의 없다.

또 다듬이질을 하지 않고, 다만 여인들은 나무절구로 찧기만을 한다. 모든 것을 등으로 지고 머리에 이는 법이 없다. 길에서 벼슬아치(官人)를 만나게 되면 여인은 즉시 달아나버리고 남자는 길가에 부복한다(내가 보기엔 지금은 이런 풍속은 없다)

민간에서 흔히 쓰는 속된 말(俚語)은 난잡하고 대륙과 다소 다르다. 음절은 앞이 높고 뒤가 낮아(先高後低) 알아듣기 어렵다. 풍토록에는 토착민의 어음(語音)은 가늘고 높으며 찌를 듯하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상(喪)은 백일(百日)에 복(服)을 벗고 밭머리(耕地가장자리)에 분묘를 만든다. 혹은 3년상을 행하는 자 있다. 지리를 생각하는데 복서(卜筮 : 길흉을 점치는 것)을 사용치 않으며(지금은 땅에 대해 점치는 정도) 또 부도(浮

屠)의 법을 쓰지 않고 흔히 음사(淫祀)를 숭상한다. 산, 숲, 내, 못, 구릉, 분토(墳土), 목석 모두에게 신이 있다고 믿어서 제사를 마련한다. 매해 초하루부터 상원(上元)(15일)에 이르기까지 남녀무당(巫覡)과 함께 신당을 차려 역귀를 쫓는다. 즐거이 장난삼아 꽹과리와 북을 치며 여염집에 나서면 사람들은 모두 다투어 전곡(錢穀)을 바치고 이를 모신다. 또 2월 초하루 귀덕리와 김녕리 등에서는 12본의 목간(木竿)을 세워 신을 맞아들여 제사를 지낸다.

애월리에 있어서는 차형(槎形)의 말머리 비슷한 것을 구해서 물들인 비단(彩帛)으로 장식하고 말이 뛰노는 시늉으로 신을 즐겁게 했다. 15일이 되면 그치는데 이것을 연등(燃燈)이라고 부른다. 이날엔 배타는 것을 금한다. 또 봄 가을 두 계절에는 광양당(廣壤堂) 차귀당(遮歸堂)에 군중들이 모여 주육(酒肉)을 갖취놓고 제사를 지낸다.

또 지방에는 사갈(蛇蝎 : 뱀과 전갈) 오공(蜈蚣 : 오공·지내)가 많은데 회색빛을 띤 것이 있으면 바로 이를 차귀의 신으로 삼아 금하여 이를 죽이지 않는다. 풍토록에 이르되 몹시 귀신을 숭상하고 남자무당이 많다. 남의 재화를 물리쳐 재산 갈취하기를 흙만지듯이 한다. 명월삭망(名月朔望) 칠월칠일에는 반드시 살생(殺牲 : 신에 바치는 짐승을 죽임) 음사를 한다.

사냥과 고기잡이는 망고(網罟 : 그물)를 사용치 않고 고기는 낚으며 짐승은 구덩이 등을 이용 나포한다. 늑대, 이리, 호랑이, 표범, 큰곰, 곰, 여우, 토끼, 부엉이, 까치등속은 없다.

기후에 대해서는 봄 여름은 구름과 안개가 짙어 심히 어두컴컴하여 칙칙하다. 섬의 동서 양끝과 같은 곳은 중앙부에 비하여 비바람이 많아 바람없는 날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을과 겨울에 이르러서는 점차 안개가 걷히고 습기가 가신다. 한기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곤충, 모기, 파리 등이 죽지 않는 것도 있다.

섬사람들은 요절(夭折)하는 이가 적어서 많이 장수한다. 악역(惡疫)의

유행은 천연두 외에는 들어보기가 드물다. 화류병자는 적지 않다고 한다. 예로부터 산남보다 산북지역이 건강한 사람이 많다고 한다.

매년 8월 15일에 남녀가 무리지어 노래하고 춤춘다. 이들은 좌우 2대로 나뉘어 큰 밧줄을 잡아당기며 승부를 겨룬다. 만일 중단해서 양쪽이 땅에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구경꾼들은 박장대소한다. 이를 '조리희(照里戲)'라고 말한다. 이날엔 또한 추천(楸千)(註 : 그네를 鞦韆 또는 楸千이라고도 한다) 및 포계(捕鷄)의 놀이도 한다.

고려 문종 12년에 문하자(門下者)로부터 탐라의 땅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다는 주청이 들어왔다. 주기(州記)에 가로되 토질이 부조(浮燥)하기 때문에 밭을 가는데는 반드시 우마를 달리게 하여 이를 밟도록 했다. 2, 3년 연작(連作)하면 곡식이 여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부득이 새 밭을 일구어야 한다. 공은 많이 들이지만 거두는 것은 적은 셈이다. 곤궁한 백성이 많은 이유이다. 오늘날에도 파종했을 때에는 우마로 밟도록 한다. 동문감(東文鑑)에 가로되 이 땅에는 난석(亂石)이 많고 또 水田(논)이 없다. 다만 해마다 보리, 콩, 조 등을 심을 뿐이다.

예전에 탐욕하고 포악한 자가 있어 날이 갈수록 밭두덕을 잠식함에 따라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게 되었다. 김구(金坵)란 이가 그 때 판관이 되어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물었다. 그리하여 돌을 모아 울타리를 쌓도록 가르쳤다. 이로써 백성들이 심히 편익을 얻게 되었다.

구혼자(求婚者)는 반드시 주육(酒肉)을 갖추어서 기다린다. 납채자(納采者)도 또한 그렇게 한다. 혼인날 저녁에는 사위가 주육을 갖추어 마누라의 부모에게 고한다. 취후(醉後)에는 바로 방에 들어간다.

본도는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다. 옛날 사람들은 스님도 집을 장만하고 처자를 키웠다. 동냥을 하는 자라도 여느 사람과 같이 처첩(妻妾)을 양육했다.

축첩(蓄妾)의 풍속은 오늘날에도 크게 유행하고 있다.(2~3인의 첩을 거느리지 않는 자가 사내 행세를 하는 사람 가운데 드물다.) 공사물(公私物)을 운반

하는 배는 해로가 험하기 때문에 때때로 표몰(漂沒)하고 그래서 사망하는 자도 끊이질 않는다. 그러므로 이곳 사람들은 여자 낳는 것을 중히 여긴다.

풍토록에 가로되, 육지와 무역하는 토호(土豪)는 아주 적었기 때문에 식력(食力)이 부족한 자는 전곡(田穀)으로 먹어 살았다. 그리하여 청주(淸酒)는 아주 귀하였다. 이곳 사람들은 도처에 조를 심어 소주를 빚었다. 탁주를 음용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소주를 좋아함은 고래로부터의 풍속과 같다. (絶小土豪, 貿陸地, 而食力不足者, 食田穀所以淸酒絶貴) 또 가로되 오래 노역의 일을 하는데는 모두 여자를 쓴다. 혹은 2~3인, 혹은 4~5인이 함께 한 절구를 찧는데 반드시 상저(相杵)의 노래(절구 찧은 노래)를 한다. 음조가 몹시 어렵다. 여마(旅磨)의 노래(연자방아 돌리면서 부르는 노래) 역시 그렇다.

주기(州記)에 가로되 경성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임관(任官)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선비(士人)에 뜻을 둔 사람은 모두 관아의 집사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며 경직(京職)의 귀함을 알지 못한다. 풍토록에 가로되 품관(品官)이 낮은 미천한 자도 모두 조정의 귀인(貴人)과 교제를 맺는다. 호사(豪士)는 진무(鎭撫)되기를 바라며 다음은 여귀(旅歸), 다음은 서원(書員)인데 각각 그 이(利)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모두 뇌물이 따르는 법이다. 청렴(廉義)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강(强)으로 약(弱)을 제압하고 폭(暴)으로 인(仁)을 위협하는 관원들의 탐욕함이 심하였다. 청렴한 이들이 있어 백성이 그 혜택을 바랐지만 그들은 이들의 우둔함을 웃는다.

권근(權近)이 목사 이원항(李元恒)을 보내면서 처음에 가로되 탐라는 해중에 있어 비로소 신라때부터 해마다 직공(職貢)을 바쳐 우리 부용(附庸)이 되었다. 고려 때에 제주목을 두었다. 국가는 이에 따라 정신(廷臣) 중에서 문무(文武)의 재략(才略)이 있고 위풍(威風)도 두드러진 자를 골라 이를 목(牧)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 회오리바람 때문에 끝없이 아득한 뱃길에서

수백 리를 놀라운 파도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풍속은 유별나서 병졸은 날쌔고 백성은 시끄럽다. 기뻐할 때는 사람 비슷하지만 성낼 때는 짐승 비슷한 바가 있음에 이들을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 운운.

본도는 본래 불교가 성했었으나 이조(李朝)가 일어나자 폐멸(廢滅)해버려서 오늘날에는 하등 통일된 종교가 없다.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명치 34년 : 1901년) 기독교 소동이 있 후로는 그 신자로 볼 만한 자가 없다. 교회당은 제주성내에 1개소 정의군 서홍리에 1개소 있고 구주인(歐洲人) 2명이 출장해 있으나 그 번창하지 못함이 대단하다.

지금은 본도 민심을 총람(總攬)할 만한 종교의 가장 필요한 시기에 속한다. 2년전까지 성내에 정토종(淨土宗) 승려가 파출돼 있었다고 하나 그 사업실적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요컨대 본방(本邦)(日本) 승려의 파출 목적은 한민(韓民)구제에 있지 않고 일본이주자를 본위로 한 것이다. 우리 불교(일본불교)가 조선국외로 쫓겨난 지 5백여년이 되는데 그 당시 정부는 종래의 악폐에 비추어 승려를 사민(四民)(註 : 士農工商)의 밑으로 놓았다. 그 때문에 백성들 또한 불교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단지 혐오 하열(下劣)한 것으로 치부, 이것을 받드는 자는 상대 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케 되었다. 이러한 때문인가 불타(佛陀)의 원만하신 대자비도 오래도록 그들과는 절연(絶緣)되기에 이르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종에는 불교의 이름만 들을 뿐, 마음 속에 모멸의 염(念)을 낳게 되는 오늘이 되었다. 본디 불교와 승려는 별개의 것으로서 승려의 품성 여하에 따라 교의(敎義)에 경중(輕重)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뜬 구름이 밝은 달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달의 본체에 하등 관계가 없음과 같다. 그러나 세인들은 이 이치에 많이 어둡고 중이 미우면 가사(袈裟)마저 밉다고 하는 인정적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유식한 자 적고 어리석은 자 많음은 고금이 동일하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불교승려는 하등 식견이 없고 불조(佛祖)의 본의를 망각해서

오로지 자기 뜻만 세우고 자기 이익만 주로 해서 어리석은 백성을 현혹하고 영리를 탐하려고만 하고 있다. 확고히 자신있는 자는 없고 천학(淺學), 과문(寡聞), 아첨만 일삼을 뿐이다. 개관(槪觀)컨대 파계무참(破戒無慚), 품성하열(品性下劣)해서 하등의 덕성이 없다. 이같은 자들을 아무리 다수 파견한다 하더라도 조그만한 선도 감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어찌 개탄않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신도자는 아직 종교로서 볼 자격은 결여되어 있지만 불가피하다면 그것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고득종(高得宗)이 홍화각(弘化閣)의 기(記)에 가로되 북은 거해(巨海)를 베개로 삼고 남은 숭악(崇岳)에 대한다. 집집에 귤유(橘柚)있고 곳곳에 명마있다. 의종12년 안무사 조동의(趙冬義)가 성내로 들어와 보고 가로되 탐라의 험난함은 공전(攻戰)이 멀리 미치지 못하는 바라고 했는데 사실 선박의 기항지가 없는 게 그 까닭이다.

주기(州記)에 가로되 섬을 석벽으로 두루고 험준한 바위를 바다에 늘어놓으면 배는 들어가서 머무를 수 없고 다만 하구에 석보(石堡)를 설치해서 적을 방어할 뿐이다.

V. 저명한 산천
(제주군의 部)

한라산은 본도의 중앙에 높이 솟아 있는 고산으로서 조선 제2의 준봉이다. 예전부터 산령심담(山嶺深潭)은 백성들이 외경하는 표적이 되고, 그 곳에 신령이 있다고 해서 노래와 시로 그 위덕(威德)을 찬양하고 그 풍경을 서술함으로써 신의(神意)를 위로하고 혹은 기도하고 혹은 하소연했다. 이것은 바로 인정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한라산에 관한 시문 역시 적지 않아서 여기에 2, 3개를 초록(抄錄)한다. 산이름이 기인하는 바는 그 봉오리가 몹시 고준(高峻)하기 때문인데

탐라지(耽羅志)에 가로되 한라라고 하는 것은 운한(雲漢)(註 : 銀河)을 잡아 당기기(拏引) 때문이며 혹은 두무악(頭無岳)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원산(圓山)이라고도 부르며 혹은 부악(釜岳)이라 이름붙이기도 하였다. 그 정상에 못이 있어 저수기(貯水器)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해 오는 바에 의하면 예전에 대정에 정조도인(正鳥道人)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 나무 사이로 봉오리에 올라가 큰소리로 외치자 운무(雲霧)가 사방을 막아 지척을 가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5월(음력)인데 아직 눈이 쌓여 있고 8월에도 눈이 내릴 때가 있다고 한다. 풍토록에 가로되 한라의 절정에서는 엎드려 남극노인(南極老人 : 별의 이름)도 볼 수가 있다고 한다. 그 주(註)에는 다만 한라 및 중원(中原 : 中國)의 남악(南岳)에 오르고서야 이 별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등절정시(登絶頂詩)
판관 김치(判官 金緻)

石磴穿雲步步危　돌비탈길 구름을 뚫고 위태로운 걸음으로 오를 수 있음은
雨餘天氣快晴時　비온 뒤 천기가 말끔히 개인 때라야
山高積雪經春在　산이 높아 봄이 지나도 눈은 쌓여있고
海濶長風盡日吹　바다가 넓어 긴바람이 종일토록 불어댄다
鶴駕不迷玄圃路　학을 타면 신선의 텃밭 길을 잃지 않아
鳳簫猶待赤松期　봉소를 불며 오히려 적송자를 기다린다
從今欲試飡霞術　이제 와서 노을을 먹고 사는 술법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면
歸去人間莫恨遲　인간으로 돌아갈 길 늦음을 한탄하지 말아야지

등고시(登高詩)
목사 이원진(牧使 李元鎭)

漢拏山作望鄕坮　한라산이 고향을 바라보는 대가 됨직하여
天下登高獨莊哉　천하에서 제일 높은 곳을 오르니 홀로 장괘하다
五嶠曉光鰲戴出　큰 자라가 아침 햇빛에 이고 나온 신선산
二湖秋色鴈拖來　기러기 날아드는 가을 빛 물든 두 호수
分衿卽是三年別　이별하여 온지 벌써 삼년이 되었으니
落帽休辭九日杯　중양절에 산에 올라 놀자는 말 접어두어라
今夕勝遊応不忘　오늘밤 승지에 노닌 일은 응당 잊지 못하여
異時魂夢幾多回　훗날 꿈 속에서 몇 번이나 돌이켜 볼런지

제영실(題瀛室)(在於山上)
김판관(金判官)

萬壑杉松一逕幽　잣나무 소나무 가득한 조용한 오솔길을
每逢佳節暫遲留　매양 가절을 만날 때마다 잠깐 머문다
峰頭怪石羅千佛　산 머리에 괴이한 바위는 천불을 벌려놓은 듯
岩底淸泉到十洲　바위 밑의 맑은 샘은 십주를 찾아온 듯
直下洞天騎白鹿　흰 사슴을 타고 막바로 골짜기를 내려오면
笑春仙子跨靑牛　푸른 소를 탄 신선은 나를 향해 웃음짓는다
飄然迴出人間表　표연히 인간세상으로 돌아나오면
自此仍成汗漫遊　이 때부터 땀에 베인 놀이가 이루어진다

영실우우(瀛室遇雨)
어사 이경억(御史 李慶億)

踏遍仙區載醉歸　신선의 땅을 두루 돌아보고 취하여 돌아올 때
萬林烟雨暗霏霏　온 숲은 비연기가 아득히 번져있다
山神與我応相戲　산신령은 나와 더불어 마주보며 장난치니

莫把簑衣被繡衣　도롱이 옷으로 어사의 옷을 덮지 말게

답상반등(踏霜攀登)
추월거사(秋月居士)

錦霞靄雲覆礁嶢　비단 같은 안개 노을 구름이 돌비탈을 덮고
白雲如帶遶山腰　흰 구름은 띠와 같이 산허리를 둘렀는데
充分秘色滿郊外　짙은 비취색은 들에 가득 덮혀 있고
全嶽丹楓自艶妖　모든 바위의 단풍은 스스로 요염하다

삼의양악(三義讓岳), 주(州 : 濟州 城內를 말함. 이하 같음) 남 약 1리 반에 있다.

표악(表岳 : 남쪽 2里 남짓), 황악(荒岳 : 동남쪽 약 2리 반), 반응악(盤凝岳 : 同上), 지기리악(之奇里岳) 답인악(踏印岳) 독악(禿岳) 운남로악(雲南路岳), 사미악(思美岳), 도전악(倒轉岳 : 이상은 모두 동남쪽 3리 반 이내에 있다) 열안지악(悅安止岳 : 남쪽 2리 남짓) 어승생악(御乘生岳 : 남쪽 3리 못미처 산령(山嶺)에 못이 있음, 예전부터 이 오름 밑에서 승마(乘馬)를 익힘,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짐) 장올악(長兀岳 : 동남쪽 5리 못미처에 있음)

옛 속담에 가로되 사봉(四峰)이 일봉(一峰)이 되어 최고로 높았다. 그 산봉오리에 농지(瀧池)가 있어 직경 50보(步) 정도 되는데 그 깊이는 재어볼 수가 없다. 만일 사람이 떠들게 되면 운무가 사방에 일어나고 풍우가 거칠어지게 된다. 가뭄 때는 비를 비는데 효험이 있다. 그 가장자리엔 바다조개(海蛤)의 껍질이 있는데 해조가 그 조공(鳥貢)을 갖고 와서 놓고 간 것이라고 한다. 이를 공조(貢鳥)라고 부른다.

한라산 역시 이러하다. 통산(洞山 : 남쪽 약 3리 못미처에 있음)이 대강 99통(洞)이 있다고 전한다. 고고산(高古山), 발산(鉢山), 적악(赤岳), 활천산(活泉山), 노노객악(勞老客岳 : 모두 서남쪽에 있음), 사라악(紗羅岳), 화

북악(禾北岳 : 동쪽 약 1리 반의 오름, 바닷가에 있는데 석봉기초(石峰奇峭)), 원당악(元堂岳 : 동쪽 약 2리 남짓 산상(山上)에 못이 있는데 귀지(龜池)라고 부른다. 물위의 풀과 거북이·자라(藾藻龜鱉)가 있으며 크게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음), 입악(笠岳 : 동쪽 6리. 봉오리에 연지(蓮池) 있음), 도원악(道圓岳), 고내악(高內岳), 수산(水山), 곽지악(郭支岳), 판포악(板浦岳), (모두 서쪽에 있음) 기악(箕岳 : 동남 4리 산모양이 키와 같음) 삼미악(三美岳 : 동남쪽 4리 남짓), 흑악(黑岳 : 서쪽 5리 남짓 봉오리가 평평히 넓고 좌우에 계곡이 있음) (내가 보건대 모두 원추형 산으로 계곡있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만 있기에 기록해 둠) 소독악(小禿岳 : 남쪽 2리, 봉오리에 못있음), 저악(猪岳), 대랑악(大朗岳 : 종달리(終達里)에 있는 산임 높이 8백척) 장악(獐岳 : 동남쪽 7리) 용두산(龍頭山 : 서쪽 반리 약, 북록(北麓)은 바다에 임하고 그 모양이 용두(龍頭)와 같음. 비스듬이 농연(瀧淵) 및 포구(浦口 : 只港), 어촌(漁村)을 내려다보기에 아주 좋다) 용두(龍頭 : 주(州) 서쪽 약 1리 못 미처에 있음. 북록은 바다에 임하고 용두와 같음. 그 위는 평평해서 앉기에 족함. 석세(石勢)도 몹시 기괴하고 조망(眺望)이 매우 좋다.)

• 정의군(旌義郡)의 산악

한라산은 3郡에 걸쳐 있으므로 특기할 것은 없지만 이를 바라보건데 그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은 정녕 일본의 후지산(富士山)과 비슷한 바가 있으나 그것은 본군(本郡) 이동(以東)에서 바라볼 때에 한한다. 이것이 한라산을 제주후지(濟州富士)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성불악(成佛岳)은 군의 북쪽 약 2리(이민은 이 산에 있는 한 샘에 의해 목마름을 견디어 낸다). 수성악(水城岳 : 북쪽 약 1리 남짓. 산령애환(山嶺崖環)이 성벽(城壁)과 같고 그 가운데 못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성산(城山 : 성산포(城山浦)에 있음 산령(山嶺)은 갱(坑)임) 탐라지(耽羅志)에 가로되 석벽 깎아 세운 것이 고리와 같고 성자(城子)와 같으며 높이는 1천여장(余丈). 돌을 뚫고 사다리를 놓아 올라가야 한다. 가운데 평평하게 넓은 곳 10리 정도가 있다.

제성산(題城山)
추월거사(秋月居士)

奇岩怪石異形山　기이한 바위 이상한 돌 이상한 모양의 산
削立千尋摩碧漢　천길이나 깎아 세워 푸른 은하수를 어루만진다
左右擁萬頃滄海　좌우에는 푸른 바다가 둘러 있고
百船朝出夕陽還　모든 배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온다

수정악(水頂岳 : 군(郡)의 북쪽 4리에 있음. 그 봉오리에 큰 못이 있으며 깊고 밑이 없음). 수악(水岳 : 군(郡) 서쪽 5리에 있는데 봉오리에 농(瀧)있음. 그 깊이 측량할 수가 없음. 가물 때 비오기를 빌면 효험이 있다), 성판악(城板岳 : 군(郡) 서쪽 6리에 있으며 석벽(石壁)이 성판(城板)과 같고 폭포가 있다. 섬사람들은 여기서 목욕하는 풍습이 있다.)

• 대정군(大靜郡)의 산악

산방산(山房山)은 사계리(沙溪里)의 해안에 있다. 속담에 한라산의 한 봉오리가 떨어져 나와 여기에 솟아났다고 전한다. 본도 10경의 하나로서 조망이 특히 좋다. 남쪽은 파란 물결에 맞닿아 절벽을 깎아 내린 것 같고, 위에는 큰 석굴이 있다. 예전에는 스님이 있었고 굴안에 방을 마련했었는데 그 때문에 굴암(窟庵)이라고 불렀다. 맑은 우물이 있고 굴속의 암벽으로부터 물방울이 떨어진다. 그 남쪽엔 석혈(石穴)이 있는데 암문(暗門)이라고 부른다. 동서 50여척, 그 북쪽에 큰 구덩이가 있는 바 그 깊이가 몇 척인지 알 수 없다.

산방굴사(山房窟寺)
이원진(李元鎭)

巨靈留異迹　큰 신령은 괴이한 자취를 남겨
高釋覓祇囿　높은 스님이 절을 지었네
地設山梯級　지형은 사다리 같은 계단
天開石室門　하늘은 돌문을 열려
臥賞懸乳液　누어서는 떨어지는 물을 맛보고
座壓出雲根　돌에서 솟아나는 구름을 눌러 앉아
流跳旃檀海　멀리 인도쪽 바다를 바라보면서
忘歸到日昏　날이 저물어도 돌아갈줄 모르네

• 하 천

본도의 하류(河流)는 대개 고갈돼서 항시 하상(河床)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나 한 번 비가 많이 내리면 갑자기 홍수가 되어 들판의 우마를 떠돌다 빠뜨리게 한다. 오늘날 유수(流水)가 끊이지 않는 곳을 들어보면 제주군 우면(右面 : 지금의 涯月邑) 동쪽 고내(高內)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조공천(朝貢川), 혹은 도근천(都近川)이라고 하는 내의 상류를 무수천(無愁川)이라고 한다. 높이 10여척의 폭포가 있다. 여기서부터 유수는 땅속을 통하여 복류(伏流)하는데 약 1리쯤 내려가 돌 사이로 솟아오른다. 하류에 심연(深淵)이 있다. 그 못 안에 수달과 같은 것이 잠복한다. 이놈이 변신하는 요술이 있어 때때로 보물로 변하여 사람이 가까이 옴을 기다려 못 안으로 끌어 들인다고 전한다. 무수문(無愁門)에 이르면 석벽이 기묘하고 천공(天工)이 만든듯한 절묘함을 보인다. 본도 명승지의 하나인데 시가 있다.

이원정(李元禎)

登高南岳擧深觴　남산에 높이 올라 술잔을 들고
川上歸來興更長　냇가로 돌아올 때 흥이 절로 인다
滿眼黃花如昨日　눈에 가득한 황국화 어제와 같아
一樽仍作兩重陽　한 동이 술로 중양절을 맞는다

소가래천(小加來川)은 대정군 중문리에 이르러 물이 땅 속으로 스며 절벽 위로 솟는데 현애(懸崖) 20여척의 폭포가 된다. 풍치가 좋고 하류는 굴곡이 많은데 화순리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하류에는 은어 및 전어가 나온다.

홍로천(烘爐川)은 정의군 서귀포에서 바다로 떨어져 말류(末流)는 대폭포(大瀑布)가 된다. 높이가 36척으로 용소를 천지연(天池淵)이라고 부른다. 양안(兩岸)에는 수목이 울창하고 천년고목이 있다. 흰 모래와 푸른 못의 아늑한 아름다움은 피서의 호적지(好適地)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음은 애석한 일이다.

이 천지연과 그 하류, 바다와 만나는 중간에선 대전(大鱣 : 큰 전어)가 산출된다. 큰 것은 3근 남짓된다고 한다. 남한 제일의 선경(仙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이 한번쯤 한가히 유람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조천(藻川)은 서귀포 동쪽에 있는데 30척 이상 되는 폭포가 떨어진다. 한라산 남쪽 어귀 삼매양악(三梅陽岳)에서 발원하며 수원에는 큰 못이 있고 수초(水草)가 자란다. 유역에는 논이 많다. 생각컨대 논이 많은 것으로 해서 이 부근을 본도제일로 친다. 수류(水流)가 끝나는 곳은 수십 척의 단애 위인데 거기서부터 급전직하하여 대폭포가 된다. 그러나 그 경치는 천지연의 경승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예전에는 이곳을 정방연이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천제연이라고 부른다.

정방폭포(正房瀑布)
김수익(金壽翼)

雷動飛泉海作淵　우뢰 소리에 샘이 날고 바다는 못이 되어
怳然光景浩無邊　황홀한 광경은 넓어서 끝이 없다
更看壁上靑蓮白　다시 절벽 위를 올려다 보니
閣筆銀河落九天　이 태백이 여산폭포에서 붓을 던진 듯

이원진(李元鎭)

絶壁懸崖捲彩霞　높다란 절벽에 채색안개 걷히고
忽看飛瀑掛天涯　날으는 폭포가 하늘 가에 걸려 있는 듯
銀河直瀉滄波外　푸른 바다 밖으로 은하수가 쏟아지니
欲放仙翁入月槎　신선 늙은이가 반달배를 띄워봤으면

Ⅵ. 도서(島嶼)의 분포 및 산물

본도의 부속 도서에 대하여 예전에는 추자도도 포함했었다. 대체로 지계속도(地界屬島)를 논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정사상(政事上)의 구획과 지리상의 분포가 그것이다. 추자도를 본도의 소관이라고 했던 것은 전자에 의한 것임과 같다. 추자도는 추자열도로 이루어지는데 토지구성의 모양, 및 열도배치의 상태는 전적으로 본도와 같지 않다. 그래서 지질상 및 지리상으로 보아 완전히 구별된다.

지금 역시 후자에 의하여 잠시 이를 접어둔다.

우도(牛島) : 연평리(演坪里)라고 칭한다. 둘레가 약 4리인데 7개 부락

으로 나뉜다. 본도의 최동단에 위치해서 정간(灯竿)의 설비가 있다. 광달(光達)거리는 6해리. 우도는 해산물로 유명해서 전도 산액의 약 3할을 낸다. 주된 것은 미역(藿), 우뭇가사리, 감태, 전복, 해삼 등이다.

금로도(金路島) : 다른 이름을 조도(俎島)라고 한다. 섬의 상부가 가늘고 길며 평탄한 데서 일본어부들이 붙인 이름이다. 또 미리(美里)의 난바다 2해리에 있는데 조선인 집 2호가 있다. 그 연안에는 전복 기타 우도 연안과 비슷한 산물이 나지만 풍부하지 못하다. 둘레 1해리.

삼도(森島) : 보목리(甫木里)에서 4분의 3해리 떨어진 바다에 있음. 이전에는 나무가 많이 있었으나 베어버려 지금은 민둥섬이 되었다. 섬이름은 그때 입목(立木)이 있었던데 기인한다. 다소의 잡목과 참대가 아직 남아 있다. 둘레 약 1해리

문도(蚊島) 및 훤도(萱島) : 서귀포 앞에 있다. 문도(蚊島)는 바다건너 1해리 남짓에 있고 훤도(萱島)는 썰물 때에 육지와 이어진다. 조선인 2호가 살고 있다. 둘레는 모두 1해리 약(弱).

호도(虎島) : 법환리(法還里) 앞바다 1해리에 있는데 둘레 1리 약(弱).

이상의 4개 섬은 사방이 절벽으로 칼로 깎은 듯 해서 등반하기가 어렵다. 겨우 한 구석에 발판을 만들어 승강에 이용하고 있다. 산물은 전복 해삼 등인데 보잘 것 없다.

형제도(兄弟島) : 또는 서도(鼠島)라고 한다. 사계리 서쪽 산방산 밑에 두 개의 암초로 되어 있는 기형석(奇形石)이다. 쥐가 많기 때문에 서도란 이름이 붙여졌다. 섬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암초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믿어진다. 둘레 약 1백간(間).

가파도(加波島) : 모슬포 앞 즉 로니브루프곶의 약 2해리 남짓 난바다에 가로 놓여있는, 편평하게 보이는 섬이 곧 가파도이다. 둘레 약 1리유

(里有) 10정(町), 전도가 전부 토양으로 암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선인 93호 일본인 1호가 있다. 그는 어업자 요시무라(吉村忠兵衛)씨이다.

잠수기선의 근거지로서 섬의 동북부에 있다. 이 섬부근은 암초가 많아 용이하게 접근할 수가 없다. 명치(明治)28년(1895년) 남양환(南洋丸)이 침몰했었다. 이어서 명치43년(1910년) 8월 20일 영국 동양함대의 기함(旗艦) 베드폴드호, 장갑순양함(裝甲巡洋艦 : 9천5백여톤)이 좌초된 일이 있었다. 그밖에도 선박 등이 조난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러므로써 항해자가 특히 주의를 요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산물은 쌀, 보리, 조, 기타 농작물 등이며, 해조류, 멸치, 전복 등도 적지 않게 산출된다.

마라도(摩羅島 : 馬羅島) : 가파도 남쪽 5해리에 있는데 조선인 8호가 산다. 이 섬 부근은 조류가 급격하기 때문에 교통이 극히 불편해서 왕래객이 없다. 산물은 주민의 식용으로 제공되는 보리·조 등이며 또 해산물 등이 여느 섬과 비슷하게 산출된다. 그러나 그 액수는 매우 적어 이익에 눈독들이는 상인들이지만 역시 왕래하는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시험삼아 가파도 남단에 서서 남쪽바다를 바라본다면 드넓은 창파를 건너 멀리 돌무더기 투성이인 암초가 솟아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라도이다. 둘레는 25정(町)에 불과하다. 그 사이에 흐르는 조류는 도도하게 마치 대하(大河)와도 같다. 하얀 파도가 일어 연기와 같이 감돌고 비말은 안개와 같이 올라 마치 무지개가 뜬 것 같은 모습이다. 그 세찬 모습이 마치 큰 폭포에 비유할 수 있다.

조류의 속도는 8~10해리라고 한다. 해저의 깊고 얕음이 일정치 않고 때로는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기 대문에 해도에도 이 사이의 항행은 금하고 있다. 어쩌면 그 장관은 밀물, 썰물이 한창일 때 보는 것이 좋다. 보는 이는 반드시 몸에 털이 솟아나고 피부에 좁쌀방울이 생기지 않을까. 이 섬은 천험(天險)으로 인계(人界)와 격리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오직 연구에 몰두하거나 발명탐구를 해야할 사람들이 살 만

한 곳이다.

죽도(竹島・註 : 遮歸島) : 본도의 최서단에 위치한 무인도이다. 다소의 조・보리가 산출된다. 본도에서 유일하게 닻을 내릴 수 있는 곳이다. 둘레는 14町 남짓, 가을철에 큰상어(方言 : 모도리)선박이 많이 정박한다.

비양도(飛揚島) : 협재리 앞바다 1해리 남짓에 있는데 이곳 역시 닻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예전에 한라산이 분화를 일으켰을 때 날라와서 이루어진 섬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전해진다. 조선인이 22호 있다. 큰상어어업선의 근거지인데 가을 9월에 왔다가 12월에 떠나간다. 둘레 30정(町) 남짓으로 원형인데 섬 북쪽에 소만(小灣)이 있어 작은 배의 정박에 편리하다.

이 섬에 대해서는 지질학상 특기할 만한 것이 있다. 일본내지에 유례를 볼 수 없는 화산형상이 그것이다. 그 3방향은 병풍을 세워놓은 것과 같은 산이며 한 방향에 열린 계곡이 있다(현재 인가가 들어서 있는 곳). 이 계곡은 옛날 분화시에 용암 때문에 파괴되어 용암이 여기서부터 유출된 흔적인 것이다. 이같은 화산을 마안형화산(馬鞍形火山)이라고 부른다. 지금 프랑스 오벨르지방에 있는 사화산 중에서 많이 발견된다. 본도 내에서 이같은 화산을 찾으면 매우 많다. 종달리에 있는 대랑악(大朗岳), 와산리(臥山里)에 있는 성불악, 송당리에 있는 기악(箕岳) 등 헤아릴 수가 없다. 용암류의 경사는 5도 내지 10도에 불과하다. 비양도의 용암류 같은 것은 해저에서 멀리 북쪽으로 1해리 남짓이나 흘러간다. 이 부근엔 자갈들이 쌓여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그러나 大만조시에는 2백톤 미만의 기선은 그 위를 능히 통과할 수 있다. 섬 안에 목장이 있는데 우마 합해서 1백20여 두가 있고 목축 성적은 매우 좋다.

육산물로는 조・보리・콩・팥・사탕수수・고구마 등이 있고 해산물로는 해초 및 어류가 있다. 그밖은 여느 섬과 다르지 않다.

Ⅶ. 명　　승

본도의 경승지는 손꼽을 여유가 없지만 교통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들기 어려워 불행히도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주의 명승을 말하는 이가 없다. 나는 명승의 불우함을 오래 통탄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특히 그 경승지를 서술함으로써 미지의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음을 도리어 경승지의 본의로서, 본인이 불행하다고 애석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위해서는 다행한 일로 속인치사(俗人痴士)들 때문에 조화(造化)의 소아(小兒)가 천혜의 미관을 일조에 더럽히고 파괴하게 되면 한탄않을 수 없음을 모르는가. 그러나 고의(故意)로 그 경승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신선도 그 뜻을 용서해주지 않겠는가.

한라산의 기봉(奇峰) : 본도 중앙에 솟아있어 높이 6천5백58척. 운무(雲霧)가 항시 출몰하고 그 사이에 기봉이 모습을 나타냈다 숨었다 한다. 절정은 암벽이 깎아지른 듯 솟아있고 가운데는 움푹 들어가 큰 못을 이루고 있다. 이곳을 백록담이라고 부른다. 맑은 물이 고이고 있는데 면적은 약 1백항(項)이다. 옛 어른들이 전하기를 수중에 괴물이 있는데 왕년에 한 장부가 물속을 헤엄치다 바로 한쪽 발을 물리어 잃었다고 한다. 혹은 말하기를 거대한 도룡뇽이라고도 하고 혹은 용이 있어서 비오기를 빌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또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고도 한다. 본인이 생각컨대 도룡뇽설이 맞는 것도 같다. 그는 양서류 중의 유미류(有尾類)에 속하는 동물인데 수중에 산다고 한다. 모양은 도마뱀과 비슷하고 두 쌍의 다리가 있다. 길이는 6척 이상에 이른다. 어릴 때는 몸 쪽에 아가미가 있으나 성장함에 따라서 폐장(肺臟)으로 호흡하기 때

문에 아가미는 쇠퇴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된다. 계곡 수중에서 낳는데 또 큰 도룡뇽(大山椒魚)도 있다. 하코네야마(箱根山) 등에서도 발견되는데 검은 빛깔을 하고 사지에 발톱이 나 있다. 이것을 혹은 예어(鯢魚)라고도 부른다.

일설에 이무기(鮀龍) 타어(鮀魚)라고도 한다. 본강(本綱)에 이르되 타어는 강호(江湖) 중에 살며 형상은 수궁(守宮 : 蜥蜴의 별명·도마뱀) 또는 능리(鯪鯉·註 : 穿山甲)따위와 비슷하다. 길이 12장(丈) 정도로 등과 꼬리에 함께 비늘이 있다. 곧잘 기(氣)를 토해서 운우(雲雨)를 일으킨다. 이것이 용과 같다는 이야기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알 바 없는데 감히 세상 식자들에게 그 판단을 맡긴다.

근래 각지에서 한창 상미되는 칙백나무(眞柏)의 분재는 이 산의 8~9부 능선에서 채취된다. 또 전나무·회양목 등의 진목(珍木)이 많다. 올해 같은 경우 채취자가 심히 적지 않음으로 해서 경찰서에서는 그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감상을 위한 한두 그루의 채취는 막지 않는다.

정상에 오르는데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제주성내로부터이며 다른 하나는 서귀포로부터이다. 성내로부터 올라갈 때는 7리, 서귀포로부터는 5리면 도달한다. 길은 험준해서 쉽게 등반할 수가 없다. 만일 시도하고 싶으면 4, 5일분의 양식을 갖추고 야영 준비를 하고 가야 한다. 계절은 5월부터 11월 초순까지로 한다. 우선 그 노정에 대하여 말한다면 성내로부터 3리간은 고지대라고 부를만한 고원인데 작은 오름이 있고 밭이 있고 걸음마다 높아짐으로 뒤를 돌아보면 안계가 넓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산록을 설화동(雪花洞)이라고 부른다. 멀리 기봉을 바라보면 괴암이 중첩해서 마치 곧 추락할 것 같고 깊고 고요한 계곡엔 물소리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기서부터 선경에 들어간다. 길은 아직 험하지 않은데 약 20정(町) 가면 조선인 가옥 2호(雪花洞內)를 왼쪽에 볼 수가 있다. 잠시 여기서 쉰 다음 등반을 할 일이다. 여기서 약 15町은 잡목림으로 아직도 고령(高嶺)의 모습을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잠

시 후 삼림대로 들어간다. 졸참나무·모밀잣밤나무 등이 주로 많은데 밀림은 낮인데도 오히려 어둡다. 이미 하계(下界)와 같지는 않다. 발밑은 축축해서 천년 묵은 이끼가 끼어 있어 미끄럽다. 잠시 허리를 쉬고 계곡을 내려가면 준정(峻程)2리 쯤으로 삼림대는 그친다. 이곳이 7부능선이다. 여기서부터 상부는 계곡사이에 모밀잣밤나무가 있어도 그밖엔 관목이 약간 있을 뿐 한자도 안되는 제주조릿대지대를 이루고 있다. 거암사이에 떨어지는 물을 떠서 목을 추기고 앞을 쳐다보면 기봉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 바로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험로양장(險路羊腸), 일곡구곡(一曲九曲) 절벽이 코에 와 닿는데 발밑에 구름을 밟고 정상에 이른다. 사방을 바라보면 망망한데 구릉과 작은 언덕은 모두 평탄하여 그 경계를 알 수 없다. 바로 왕자의 우월함도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서부터 백록담으로 내려가 다시 광물·식물을 채취해 뒤의 연찬의 자료로 삼는다면 그 보람이 과연 적지 않을 것이다.

서귀포로부터 오르면 2리반쯤 가서 후지타(藤田)씨의 표고재배장(3호헛간)에 이른다.

여기서부터 2리반쯤 가면 절정에 이른다. (표고재배장은 모두 삼림대(森林帶) 안에 있다.) 길이 험난함은 양쪽이 비슷하다. 5월 초순에 오르면 무수한 철쭉은 노을로 물들인 것과 같고 기화진목(奇花珍木)은 그대가 고르기에 달렸다.

10월하순부터 전산의 홍엽(紅葉)은 비단결과 같아 난주(煖酒)의 객을 기다린다. 삼복(三伏)의 고열(苦熱)을 싫어하는 이는 바로 겨울에 준비해서 오르는 것이 좋다. 널따란 바위는 이끼로 된 자리를 마련하여 맞아준다. 조석으로 바빠 조그만 시간도 갖지 못하는 이도 때로 지팡이를 끌고 산령(山靈)에 접하는 것은 또한 그럴싸하다.

영실(瀛室 : 靈室)의 천불(千佛) : 한라산의 서부 팔부능선에 있어 이곳을 한라의 영실이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여기에 존자암(尊者庵)이라고

부르는 사찰이 있었다. 본도에서도 이름있는 영지이다. 전에 이 동굴 중에서 석상이 활동해서 스님이 수도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 있었음을 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속설에 전하기를 수행동(修行洞)이라고도 이른다. 동굴 내에 새겨진 불상은 어느시대에 누구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다만 영구(靈區)의 이름만이 남아 있고, 찾는 이 없다고 하지만 그 영이(靈異)함에 있어서는 이상한 게 없다.

존자암은 그 후 서쪽 기슭 약 9리 쯤된 대정군으로 이전되었다. 절 동쪽에 맑은 샘이 용출한다. 약 백보쯤 가서 복류(伏流)한다. 생각컨대 지금의 상정광리(上淸光里) 땅이 아닌가 싶다. 존자암에는 저명인사가 찾아오는 일이 적지 않아 이에 관한 시가 있어 증표로 삼는다.

예존자암(詣尊者庵)
이경억(李慶億)

尊者知名寺　존자암은 유명한 절로 알았는데
荒凉半洞墟　절터가 황량하기만 하구나
千年古塔在　오랜 세월 옛 탑이 서 있고
一室數椽餘　자그마한 집 한 채 뿐
海客經過少　섬 나그네 지나다니는 이 없고
蠻僧禮法踈　만승은 예불하는 법도 모르네
秋霄望南極　가을 하늘 남쪽 노인성 바라보니
塵慮已全除　속세의 근심 이윽고 온통 사라지네

또 그 풍치가 고상하고 품위 있음은 실로 이곳이 선경 중의 선경으로 암석의 기괴함은 필설(筆舌)이 미치는 바가 아니다. 묘의산(妙義山・註 : 일본 군마현(群馬縣)에 있는 화산군(火山群). 기암괴석이 유명하다.)의 기묘함에 미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삼성혈의 송풍(松風) : 여러분들이 지금 산저포(山底浦・註 : 현재의 산지(山地))에서 배를 내리고 성내로 들어옴에 있어 통과하는 문이 북문이다. 이곳을 뒤로하여 읍부(邑付)에 이른다. 그리하여 잠시 쉰 다음 먼저 뭍에 가까운 곳에도 별로 인가가 없는데 도리어 울울창창한 노송림을 보았음을 상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반드시 삼성혈이라고 대답하리라.

삼성혈이란 무엇인가. 지금은 노송이 바람에 소리내는 것을 듣게 되지만 옛날 옛적 지금으로 부터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 옛날 본도에 인류가 아직 발자취를 보이지 않을 때 3인의 신인이 땅 속에서 솟아 올라왔다.

스스로 제일 위를 고(高)씨, 가운데를 양(良)씨, 막내를 夫씨라고 이름붙여 서로 결의하여 형제가 되었다. 이 섬의 동방에 신국(神國)이 있어 성왕(聖王)이 나와 이를 통치하였다. 그래서 3씨의 신인(神人)이 나왔으나 배필이 없음을 통탄하였다. 온 세상의 것은 모두 짝이 있는 바 배우자(伉儷)가 없으면 그 위업이 어찌 자손에게 전해질 것이냐고 재조와 미모를 갖춘 궁녀를 뽑아 이에 칠진만보(七珍萬寶)를 곁들이고 3척의 배에다 실어 순풍을 따라 가도록 했다. 3씨는 이를 거두어 은혜에 눈물지었다. 그후 얼마간의 세월이 흘러 이들은 도민의 선조가 되었다. 도민들 역시 3씨가 솟아나온 구멍을 성지(聖趾)로 여겨 이를 존숭(尊崇)해 왔는데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이 영역(靈域)은 4면이 약 8町쯤 된다. 중앙에 세 구멍이 있는데 비(碑)를 세워 이를 전한다. 3씨가 숨진 뒤 역시 이곳에 묻었다.

삼성혈이라고 새긴 비석은 崇禎後 4년 丙辰歲 여름에 고쳐 세웠다고 조각돼 있다. (본인이 생각컨대 崇禎은 淸朝思宗의 연호로서 그 元年은 日本後水尾천황 寬永 5년(서기 1628년), 干支론 戊辰. 崇禎은 17년으로서 弘光으로 改元했다. 丙辰은 丙子의 誤字일까). 또 徒內, 王子, 星主 3형제 埋安所의 비가 있는데

이는 同治10년 辛未 5월 즉 明治4년(1871년)에 세운 것이다.

삼성혈은 남문을 나서서 약 8町 거리에 있다. 明治44년(1911년) 봄 길을 고치고 문을 세우니 참배하기에 편리하게 되었다. 3개의 혈 있는 곳에 3씨의 묘가 있고 조선인이 1호 살고 있다. 꽃과 물을 올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요즘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자는 의논이 있는데 그 움직임은 매우 축하할 일이다. 세류(世流)의 격파(激波)에 떠도는 자는 경승지의 퇴폐함을 모른다. 어찌 그 장탄식(長歎息)을 견딜소냐 지사(志士)는 다행히 三氏를 찾는도다.

訪三姓穴(방삼성혈)
秋月居士(추월거사)

初開本島有三姓　　태초에 이 섬은 세 성씨가 개벽했는데
君臨幾歲得民情　　임금 노릇하고 백성을 심복 시킨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由來變轉向誰問　　변천되어 온 일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고
古英雄跡只傳名　　옛날 영웅들의 이름만 전할 뿐이네

가락천(嘉樂泉)의 청류(淸流) : 제주 성내에 있는데 큰 암석 사이로 솟아난다. 예전에 성내에는 음료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이곳을 이용해 살았다. 이 청류를 산저천(山底川)이라고 부른다. 물이 흐르기 약 1町 남짓으로 큰 물이 되고 물은 매우 깊고 맑다. 은어가 여기서 난다. 유수통로(流水通路) 위에 성벽을 걸치고 석교(石橋)를 만들었는데 모양이 아치형을 닮았다. 이것을 홍교(虹橋)라고 부른다. 명조 가정(嘉靖)연간에 축조된 곳이다. 물 흐르는 가장자리에는 몇 그루의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러나 잡초가 우거져서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아직도 몇 년 후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산저에는 이르는 곳마다 샘이 솟고 있어 지금 이것을 수축한다면 혹서 납경(納涼)의 적지가 될 것이다. 조선인들은 여름철에 여기서 멱감기를 즐긴다. 예전에 목사가 영은정(泳恩亭)을 세워 천류(泉流)의 덕을 기렸다. 정자는 지금도 있는데 청조 가경(嘉慶)연간에 건조된 것이다.

도근천(都近川)의 은선(銀鮮) : 도근은 지금은 동고내(東高內)로 만들어졌다. 내의 상류를 무수천(無愁川)이라고 부른다. 그 풍경은 산천의 部에 약술하기로 하는데 본도 제일의 대하로서 맑은 물이 항시 도도하게 흐른다. 그 흐름이 바다에 닿는 곳에 동고내리(東高內里)가 있다. 연안의 풍치 역시 헤아릴 만하다. 시험삼아 길가 나무밑에 잠시 앉아 물흐름을 보라. 한 자를 넘는 은어가 팔팔 뛰노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인들은 이것을 그물로 잡아 올리는데 한번에 수십 마리를 걷어올릴 수가 있다. 맛은 매우 좋다. 동고내는 성내 서문을 나서 약 1리 반이면 이르는데 명월리 협재리 등을 거쳐 대정군에 이르는 큰길가에 있다.

본도에는 모든 내에 다 교량이 없이 걸어서 건너게 되어 있는데 이 내 역시 그렇다. 돌을 가지런히 깔아 건너기에 편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건너서 중류에 이르게 되면 물이 격류를 이룬 곳, 발 밑에 많은 은어가 유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3寸 내지 5寸에 지나지 않지만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놀랠 지경이다. 이 부근엔 또 뱀장어와 피라미 종류들이 적지 않다.

우도(牛島)의 관월(觀月) : 우도는 본도 내에서 유명한 한 구역으로서 제주군에 속한다. 동쪽으로 약 11里(육로 10리, 해상 1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 지세를 보면 남쪽에 7백척의 단애가 깎은듯 솟아 바닷가에 북쪽을 향해 경사돼 있고 약 30町 정도로 그친다. 동서 약 18町인데 그 가장 높은 곳에 정간(灯竿)관사가 있다. 관사 좌우에 연이어진 고지는 길게 기복이 있고 요철(凹凸)이 있어 마치 용이 몸을 서린 모양과 같다.

가운데 구릉은 우뚝해 있어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과 같다. 거닐다 멈추면 천안(天眼)을 빌리지 않고라도 만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흰 구름이 발 아래 내려옴에 마치 뗏목을 탄 듯하다. 어찌 즐거움을 달리 찾으리. 본디 이 섬은 관월의 경승지이다. 중추의 달이 그중 가장 아름답다. 맑은 하늘에 한 조각 구름도 없고 석양이 먼 아지랑이 속으로 떨어지면 달은 먼저 동해의 끝으로 떠 오르려 한다.

거친 파도가 험한 바위에 부딪쳐 눈보라같이 됨은 마치 금산(金山)이 무너지는 것과도 비슷하고 쳐밀어오는 굵고 가는 물결은 마치 금룡(金龍)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닮았다. 도도한 물결소리 윙윙거리는 바람소리는 궁녀의 무악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 한몸, 이미 계수나무 밑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어찌 새로이 고니에 탈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달구경하기 좋은 경승지가 어디냐고 물으면 반드시 우바수테야마(姥捨山, 註 : 棄老傳說에 의해 생긴 것으로 소외된 자가 老後를 보내는 곳)을 꼽는다. 과연 모사산(姥捨山)의 달(註 : 공상 속의 달)이 좋긴 하다. 그러나 아직 우주의 달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

췌마(揣摩)사이에 있는 경대산(鏡臺山)을 앞에 두고 고양이 뺨만한 논두렁 위에 비치는 달그림자를 감상한다는 것은 만리창해를 앞뒤로 하고 탄악(呑岳)의 파도를 좌우로 하여 하늘로부터 퉁소 소리를 들으며 너와 나가 함께 달 속으로 들어가 우주를 월화(月化)하여 이를 감상하는 그 웅대함에는 비할 수가 없다.

우도는 한가을 뿐 아니라 사시 어느 철이건 좋다. 태양이 출몰하는 광경 또한 뛰어나게 우아스럽다. 달을 즐기는 일 뿐만이 아니라 한 번이 장관에 접하는 이는 나의 말이 맹랑하지 않음을 알게 되리라.

성산(城山)의 기석(奇石) : 고려원종 11년 庚午歲(1270년)에 金通精이 성곽을 지금의 성산에다 구축하고 호(濠)를 파 성채를 갖추어 모반했다. 요새가 견고하고 정병(精兵)들이 표독하고 날래어 당시의 島主인 星主

高仁 등이 이를 정복할 수가 없어 이를 조정에 주청했다. 3년이 지나 원종 順孝王이 金方慶 등에게 명을 내려 원나라 병사와 함께 이를 토벌 평정하였다. (그 당시 원은 아직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雄起하면서 남송을 병탄(倂呑)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성채를 부수고 호를 메워 초적(草賊)들로 하여금 재차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성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이곳을 명포(皿浦)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이 이름이 그 만형(灣形)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또는 산봉우리의 요소(凹所) 때문에 붙여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성산은 우도와 마주하여 1리 남짓 떨어져 있고 3면은 바다에 접해있으며 절벽이 마치 칼로 깎은듯 직립해 있다. 서쪽에 면한 한쪽에 성산포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 동네사람들은 많이 일본어를 해독하는데 매우 능숙하다. 성산은 태고적 분화를 한 유적인데 산봉우리 전부가 화갱(火坑)인듯 하다. 그 사방을 잇따라 둘러싸고 있는 암석은 동북쪽이 낮고 서쪽이 높다. 바다에 면한 동남북의 3면에 뾰쪽뾰쪽 서 있는 기석은 끝이 날카로와 톱니와 비슷하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곳을 거악(鋸岳) 또는 거기(鋸崎)라고 불렀다. 항해자들의 좋은 목표가 돼있다.

그 산의 기묘한 모습은 멀리 많은 산을 압도해서 맨먼저 눈에 띈다. 이것을 서쪽에서 바라보면 그 암석의 괴이함이 실로 언필(言筆)로 표현하기 어렵다. 누가 이 기묘함에 놀라지 않을 것인가. 그 일단을 살핀다면 산 중턱에 돌기둥이 땅을 뚫은 듯 5丈余 길이나 된 것이 2개나 거암에 놓여 있는데 마치 법사(法師)가 갓 쓴 모양과 비슷하다. 파란 이끼는 의복을 입은 듯하고 둘러쳐진 쑥덩쿨은 꼭 가사(袈裟)를 걸친 것과도 같다. 풍류객 무라다(村田新八)씨는 이곳을 서행암(西行岩)이라고 명명했다. 바위는 바로 하산하는 모습이며 부르면 당장이라도 대답할 듯하다. 그밖에 동굴이 있고 발자국 비슷한 것도 있으며 병풍과 같은 솥모양의 것도 있다.

도사리고 있는 모습은 용과 같고 웅크린 모습은 호랑이와 같다. 달려

가는 것은 말과 같고 엎드려 있음은 소와 같다. 화를 내는 것은 사자와 같고 또 大黑(註 : 불교의 수호신인 大黑天. 七福神의 하나이기도 하다)과 같이 웃는 것도 있지만 걱정을 하듯 슬퍼하듯 춤을 추듯하는 것 등 형용하기 어려운 천태만상이다.

성산포의 기묘함은 또한 혼자만이 기묘하다고 해서 기묘해지는 게 아니다. 이를 기묘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서 기묘하게 되는 법이다. 세상에 기인이 있어야 기적(奇蹟)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기인이 아니면 함께 기묘함을 말하지 말지어다. 기적은 항시 있는 것이지만 기인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성산포는 그 기인을 기다리기 오래 되었는데 이제야 기인이 와서 그 기묘함을 알게 되었도다. 이리하여 기묘함은 이로부터 더욱 기묘하게 되리라.

천제연의 기폭(飛瀑) : 서귀포에 있는데 서귀포는 본도 남쪽 연안의 중앙에 위치해서 제주성내의 바로 뒷편에 해당된다. 부락 소재지는 거의 높은 지대가 다하는 곳에 해발 60~1백척정도의 단애(斷崖)에 바다를 향해 있다. 천제연의 폭포는 바닷가에 접한 서귀포하구를 약 7町 정도 거슬러 올라간 곳에 걸려있다. 높이 56尺 폭 4間 남짓으로 하수 청정하고 봄의 꽃, 가을의 단풍은 그 빛깔이 폭포수에 반영하여 마치 산을 지키는 여신이 비단을 짜는 것과 비슷하다. 양측에는 갖가지 풀과 노목이 울창하고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뛰어난 운치가 넘친다. 그 용소를 천제연이라고 부른다. 넓이는 50평 남짓, 깊고 푸르며 항시 깨끗하게 맑아서 온갖 풍경이 한 곳에 모아지고 있으며 주위의 기경(奇景)은 그늘을 수중에 드리운다. 그래서 이곳을 속진(俗塵)을 벗어난 선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땅은 변두리에 놓여진 위에 통로의 편리함도 없어서 시문, 서화를 즐기는 소객(騷客)은 물론 일반인들도 별로 찾아오지 않는다. 공연히 신선경으로 여겨지고 괴물의 소굴로서 조선인들 때문에 외경되고 있다. 폭포 속에는 잠용(潛龍)이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라

치면 몰래 엿보기도 하고 수중에 떠오르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길이는 멀리서 보고서 9척(韓尺=日本尺으로 1尺7寸)정도라고 하나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크게 가물 때에는 여기서 기우제를 올리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본도에는 4개의 폭포가 있다. 무수천 상류, 서귀포 동쪽 천지연, 중문리의 폭포 및 천제연이 그것이다. 그 장관이 아늑하고 고상함은 함께 귀를 기울이기에 족하다고 하나 지금 유일하게 천제연폭포를 말하고 있는 것은 딴 것들이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도에 놀러오는 이는 한번쯤은 반드시 찾아보지 않으면 안될 만한 곳이다.

산방산의 조망(眺望) : 이 산은 대정군아의 남쪽 1里 남짓한 곳의 바닷가에 있는데 산의 형태는 주발을 엎어 놓은 것과 비슷하다. 속설에 전하기를 옛날에 한라산의 한 봉우리가 이곳으로 날라와 생겼다고 한다. 온 산이 돌더미가 첩첩한 암산으로 이루어졌다. 높이 약 8백尺정도이다. 바다에 면해있는 남쪽으로부터 올라가는 것이 좋다. 대강 5町 정도 가면 동굴이 나오는데 옛날에 이 동굴 안에 암자가 있었다고 해서 굴암(窟庵)이라고 부른다. 맑은 샘이 절로 솟아나 흘러내린다. 여름철에 이곳에서 손을 씻으면 그 차가운 정도가 살갗을 에는 것과 같다. 사방이 적막하고 청아하다. 마치 영불(靈佛)이 자리하신다든지 혹은 위인이 복택(卜宅)하는데 적당하다고 하겠다. 남해의 창파는 파란 논밭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비슷한데 가파도 마라도는 지척의 거리에 있다.

모슬포 바닷가 멀리 해중에 돌출해 있음은 거인이 큰 팔을 뻗어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또 용이 구슬을 잡으려는 것과도 같다. 맑은 날 달이 뜬 밤 비오는 아침, 눈이 내리는 저녁 그 어느 것이 그 아름다움을 더 보탤 수 있을손가. 시인, 화공(畵工), 문사(文士), 학자들이 다행히 한 번 이곳에 와 놀아보면 그 기능에 반드시 신의 힘이 더하게 될 것을.

본도의 경승지는 다만 이것들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으

뜸된 것만 들고 그밖의 것은 생략했다. 예전에 십경이라 했고 오늘날엔 구경이라고 하는데 그 일경을 들지 않음은 겸손함에 불과한 것이다. 관객들은 이를 양해해 주기 바란다.

Ⅷ. 고 적(古跡)

세상 모든 것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본도의 고적과 같은 것은 겹치고 걸쳐 가는 곳 마다에서 발견된다. 철벽석성(鐵壁石城)도 그 당시에 있어서는 만대불변할 듯이 보였지만 시간의 대사(代謝)는 쓸데 없이 천이(遷異)를 일삼아 수백년 후의 오늘에 있어서는 견고한 것은 겨우 그 잔해(殘骸)를 남기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이름만 남기고 있는 것도 드물다. 그 유적을 보고 그 이름을 들으면서 사색하고 당시로 되돌아 갈 때는 단장(斷腸)의 느낌이 없을 수가 없다. 지금 그 한두 가지를 초록(抄錄)코자 한다.

제주성(濟州城) : 지에 쓰여있기를 석축 둘레 5천4백89尺, 높이 11尺(이 尺은 韓尺임, 이하 같음)이다. 성중에는 물이 없고 가락천(嘉樂泉)이 성외에 있으므로써 따로 겹쳐서 성을 쌓았다. 성중 사람들은 이를 떠다가 사용하였다. 가정(嘉靖) 44년 을축년(西紀1565년) 郭屹 목사때에 동성을 축조하였다. 가악천은 지금 동성안에 있다. 또 동·서·남 삼문과 남북에 수로의 문이 있다.(소위 虹橋라고 부른다) 2門의 격대(擊臺) 27의 타첩(垜堞) 4백4본의 대재(大材)가 있다. 三姓氏가 살았던 땅이라고 한다. 생각컨대 3형제의 末孫은 이때에 이미 서인(庶人)이 되었던 듯 하다.

정의성(旌義城) : 지(誌)에 가로되 태종16년(서기1416년) 丙申歲(明의 成宗 永樂14년) 안무사 吳湜이 이를 위해 한라산 남쪽에 폭 2백여里의 땅을 개척토록 해서 동을 정의, 서를 대정이라고 하고 함께 현감을 설치하였

다. 성벽은 돌로써 쌓았는데 둘레는 2천9백86척이고 높이는 13척이다.

대정성(大靜城) : 세우기는 정의성과 같다. 지(誌)에 가로되 석축 주위는 4천8백90척, 높이는 17척 4촌이다.

기(記)에 가로되 전라도 중에서 토지의 넓이, 인물의 많기로 제주는 그 절반이 되는데 이곳이 탐라국이다. 한라산이 그 중앙에 웅거하고 주(州)는 산의 북쪽에 있다. 산의 동서는 모두 90里가 된다. 남쪽은 또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길에서 숙박하고 간다. 관청의 격문(檄文)도 또한 며칠 후에나 도착한다. 더욱이 한 관아의 이목(耳目)만을 갖고서 편협되게 시중의 폐단을 살피기에는 이 또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吳公이 들어와 제주를 안무함에 있어서 전체를 3분하여 서에 대정을 두고 동에 정의을 두어 읍을 삼았으나 각각 변두리에는 사람이 없는 곳이 있다.

정의는 산 남쪽으로 약 80~90里 쯤 떨어진다. 안무사 鄭相國이 순시해서 진사(晋舍)에 이르러 말하되 이곳이 좋으니 여기에 현을 세우자고 했다. 태수 宋公暹이 이를 백성들에게 물어보자 백성들은 모두 기뻐 순종했다. 이 사실을 위에 전문(轉聞)하자 병부(兵部)가 이를 옮기도록 해서 3읍의 백성들을 사역에 썼다. 바로 목판관(牧判官)을 명하고 崔公致廉으로 하여금 감독토록 하였다. 崔公은 땅의 후박(厚薄)을 재고 고저를 헤아리며 도용(徒庸)의 양을 가늠하여 명령을 엄히 베풀고 일을 근면하게 하도록 했다. 가옥을 높여 3문을 만들었다. 그 성터는 2천5백20척, 높이는 13척 쯤 되었다. 癸卯(永樂 21년 : 1423) 정월 9일에 시작해서 13일에 마쳤다. 일솜씨가 매우 신통했다. 鄭相國이 와서 궐(厥)이 이뤄진 것을 보았다. 본인(崔公을 가리킴)도 역시 따랐다. 낙성에 즈음해서 본인에게 명하기를 그 시말을 기술해서 후세에 전하라고 하였다.

대정 정의의 성지는 지금의 군아(郡衙)가 되었다. 수풀 우거진 노목, 칡덩쿨 얽힌 성벽, 무너진 잔벽은 석양을 받아 빨간데 지금은 옛날을

그리워할 뿐 이 또한 고혈(膏血)을 뜯어낸 자취임을 생각할 때 누군들 감개없다고 할 것인가.

조천성(朝天城) : 조천에 있는데 석축 주위 4백28척7촌, 높이 9척1촌, 동쪽에 문이 하나 있을 뿐이다. 이것이 곧 방호소(防護所)이며 수전소(水戰所)의 하나이다. 성중에 조천관(朝天館), 주구(廚廐), 군기고(軍器庫)가 있다. 또 동성 위에는 쌍벽루(双碧樓), 연북정(戀北亭)이 있다. 시문, 기사(記事) 전해지는 게 적지 않다.

御史 趙誠立(어사 조성립)
路入瀛洋兩腋輕　　신선 사는 물가로 접어드니 두 발이 가벼워져
冷然笙雚引三淸　　시원한 피리소리로 삼청동으로 인도한다
回首劫灰飛已盡　　머리를 돌려보니 겁회가 다 날아가고
碧桃花下防安生　　푸른 봉숭아꽃 밑에서 안기생을 찾는다

애월성(涯月城) : 애월리에 있는데 석축 5백49척, 높이 8척 남서 2개 문이 있다. 그 안에 방호소 수전소가 있다. 성중에 군기고가 있으며 객사가 있다. 전선 1척, 군사 1백18騎, 포수 28명을 갖추고 있다. 맑은 물이 성안에서 솟아오른다.

명월성(明月城) : 명월리에 있으며 방호소, 수전소가 있다. 석축 3천20척, 높이 8척, 동남서의 3개문이 있다. 시냇물과 같은 용천이 있다.

正德5년 庚午년(西紀 1510년) 목사 張公이 왜선이 비양도에 접근해옴에 이 성을 축조하고 성장을 두어 이를 지키도록 했다. 전선 1척, 1백3騎를 두었다.

李元鎭(이원진)
暮投孤舘駐旅行　　저물녘 객관에 여장을 푸니

古戍蒼茫枳棘平　　옛 수자리에 가시성 평평하다
都統余威風捲海　　도통사의 위엄으로 바닷바람 걷히고
侍郎遺蹟月臨城　　평장사 유적이 있는 성엔 달이 비치네
天低碣石陰霏合　　하늘가 비석에는 비 내려 아득하고
地壓扶桑霽旭生　　땅 끝 동쪽에선 아침해 솟아오른다
八詠陰候今不見　　팔영 음후를 지금 볼 수 없으니
碧紗籠下淚沾　　푸른 비단 창 밑을 눈물이 적신다

별방성(別防城) : 별방리에 있으며 석병(石塀) 둘레 2천3백90척, 높이 7척. 동서남에 문을 세웠다. 방호소로서 성북에 대변청(待變廳), 군기고(軍器庫)가 있다. 正德5년 목사 張琳이 왜선이 우도에 접근함에 김녕리방호소를 이곳으로 옮김으로써 별방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李元鎭(이원진)

城壓鰲頭上　　성은 큰자라의 머리를 눌러 있고
樓浮蜃氣中　　공중에는 신기루가 떠 있네
三山身已到　　삼신산에 와서 보니
四海眼仍空　　사방이 넓은 바다 뿐
碣石猶堪踣　　비석은 넘어져 발에 밟히고
扶桑直欲窮　　동쪽 바다는 아득하기만
何時搏九萬　　언제면 구만리를 날아갈
正待負鵬風　　붕새를 기다릴 수 있을런지

화북포에 수전소가 있다. 전선을 중부 및 좌우로 나누고 각 1척을 갖추다. 병사 1백80명, 포수 87명을 상비(常備)로 했다.

어등포(魚登浦)수전소는 지금의 행원리에 있었다. 전선 1척, 병사 1백4명

포수 23명. 예전에 별방의 북성 밖에 있었던 것을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화북에 선장 3명을 두고 조천, 어등 2포를 합하여 좌방(左舫)이라 부르고 애월·명월은 우방(右舫)에 속한다. 선장 각 1명이 있다. 健入里·金寧里·伐浪浦·朝貢浦의 4수전소는 폐했다.

수산성(首山城) : 수산리에 있는데 석축 1천1백64척 높이 16척, 좌우에 문을 두었다.

李元鎭(이원진)

古城城上駐 騑　　옛성의 성 위에 말을 멈추니
客裏光陰接校衣　　세월은 흘러 9월이 됐네
渡海已傷迷北望　　바다 건너 온 뒤 북쪽길 아득하고
隔山那思向西歸　　산이 막혔으니 서쪽으로 돌아갈 생을 어찌하리
霞開日道扶桑近　　안개 걷히면 해가 뜨는 부상이 가까웁고
霜滿天津折本稀　　서리 내린 하늘엔 두물다
却憶塔羅初放牧　　옛날 탐라초에 방목할 때를 생각하면
獨摩瀧釰一長啼　　홀로 용검을 어루만지며 울움을 짓네

서귀성(西歸城) : 주위 8백25척5촌, 높이 12척으로 서귀포에 있으며 정의성과 이 성에 성장 각 1명씩을 두었다.

열운포(閱雲浦)에 수전소가 있었는데 사병을 합해서 85명, 전선 1척이 있다. 지금의 신산리가 이곳이다. 예전에 오조리(吾照里)에 두었다가 이곳으로 옮겼다. 서귀포수전소는 양병(兩兵) 합해서 1백5명, 전선 1척이 있다. 선장은 두 곳에 각 1명씩 있다.

동해성(東海城) : 지금의 순창리(順昌里)에 있다. 주위 5백척, 높이 8척

차귀성(遮歸城) : 차귀포에 있다. 석축 2천4백66척 높이 22척. 위의 두 성에 장 각 1인씩 있다.

李元鎭(이원진)

雨後瀛州氣像新　　비 개인 뒤 영주에 날씨가 말끔하여
獨登城上岸編巾　　편건을 쓰고 홀로 성 위에 올랐네
北望大陸三分水　　북쪽을 바라보니 육지에는 세 갈래 강
西望中原一點塵　　서쪽을 바라보면 티끌 같은 중원
田父築垣防馬吃　　농부들은 담장을 쌓아 말을 방목하고
野翁持酒酹蛇神　　백성들은 술을 들고 뱀에게 제사한다
卽今竹島風波少　　지금 죽도에 바람이 평온하여
無事將軍醉錦茵　　아무일 없으므로 장군 금곤에 취한다

이상 두 성은 역시 방호소였다.

모슬포, 새포(塞浦), 우포(友浦)는 수전소로서 유명하다.

수전소의 설비는 각 지역이 비슷하다. 다만 병사에 다소가 있을 뿐이다. 선형은 집배(屋形船)와 비슷하나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으리라.

죽도(竹島)는 고전장(古戰場)이다. 지(誌)에 이르되 태종6년(1406)7월에 왜적이 내침하자 정의로부터 전함을 내어 대항했다. 안무사 李元恒, 判官 陳遵 등이 병선을 거느리고 와서 이를 치니 적들은 즉시 퇴각하였다. 왜선의 내침은 이뿐이 아니다. 고려 충혜왕 2년 정의로 쳐들어오고 다음해에도 7백여척이 침공했다. 충정왕 3년(서기 1351)에 귀일(貴日)에, 공민왕 원년(서기 1352)에 우포(友浦)에 8년에 태촌(太村)에 신우(辛禑) 2년(서기 1376)에도 대거 내공(來攻)했었다. 그후 태종 원년에 곽지에 4년에는 고내 및 명월에 6년에는 죽도(遮歸島) 8년에 조공천(朝貢川)에 18년에 우도, 우포, 차귀 등지를 침범하였다. 또 문종원년(서기 1451년)에도 침공하였는데 안무사 이명겸(李鳴謙)이 이를 쳤다. 왜선은 전후 8회에 결쳐 쳐들어왔으나 한번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섬 주위에 석벽이 바다 속까지 늘어서 있어 그야말로 천위(天爲)의 험(險)을 이루어 적선이 정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탄

식하기를 예전에는 천험(天險)으로 해서 백성이 태평했는데 오늘날엔 천험으로 해서 주민이 궁핍해지도다. 화복은 꼬은 새끼줄과 같도다. 어찌 마음대로 정해질 수 있는 窮達(窮하고 영화로움)이 있을손가.

수산(首山) : 지금은 水山으로 쓴다. 서남쪽에 평지가 있어 고려 충렬왕 3년에 원의 塔羅花赤(達魯花赤이라고도 쓴다)이 와 이곳에서 소, 말, 낙타, 당나귀, 양 등의 목장을 개설했다. 이것으로 본도 방목의 시초가 되었다. 이는 서기 1277년의 일이었다.

삼성혈(三姓穴) : 중복되는 것 같지만 지금 高麗史記를 인용코자 한다. 기(記)에 이르되 처음에 이 섬에는 사람이 없었다. 三神人이 용출해서 지금의 산 북쪽 기슭에 진(鎭)을 세웠다(구멍이 있고 이것을 毛興穴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그 곳이다. 제일 윗사람을 良乙那. 다음을 高乙那 막내를 夫乙那라고 했다. 3인은 거친 두메에서 수렵을 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고기를 먹었다.

하루는 동아줄로 봉한 나무상자가 물결에 흘려 동쪽 바닷가에 당도함을 보게 되었다. 이것을 뜯어보니 안에 돌상자가 있었고 홍대자의(紅帶紫衣)를 입은 한 사람의 사자가 따라 왔었다. 함을 열어보니 청로의(靑露衣)를 입은 여인 3인과 망아지, 송아지, 오곡의 씨가 있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자인데 우리 임금이 이들 3녀를 낳고 가로되 서해 中岳에 신의 아들 3인이 내려와 마침 나라를 열려고 하나 배필이 없으므로 신(臣)이 3녀를 모시고 가서 좋도록 짝을 지어서 대업을 이룩토록 하라고 명하셨다고 말하고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사라져버렸다. 3인은 모두 나이에 따라서 나누어 이들 여인을 취하였다. 땅이 비옥하고 맑은 물 나오는 곳에서 활을 쏘고 터를 잡았다. 良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일도(一徒)라고 부르고 高·夫 兩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이도(二徒)·삼도(三徒)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도의 이름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오곡을 뿌리고 마소를 키우니 날로 부유하게 되었다. 15대의

손 고후(高厚), 고청(高淸) 및 계(季) 3인이 배를 만들고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에 가 숙박하게 되었다. 마침 신라가 번성할 때인데 마침 객성(客星)이 남쪽에 보임에 태사(太史)가 상주(上奏)하여 가로되 이국(異國)사람이 내조(來朝)할 조짐이라고 하였다. 과연 후(厚)가 찾아오니 왕이 이를 칭찬하고 星主라고 칭했다. 그 像(별)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붙인 이름인데 그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과 같이 했다. 淸을 칭해서 王子라고 했고 季에겐 徒內라는 호를 지어 주었다. 읍호를 탐라라고 하사하게 된 것은 탐진에 숙박하여 신라에 조공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각자에게 보개의대(宝蓋衣帶)를 하사하고 그들을 보내었다. 이로부터 자손이 번창하고 신라를 삼가 받들게 되었다.

백제에 있어서는 高를 星主로 삼고 良을 王子로 했으며 夫를 徒內로 했다. 뒤에 백제에 승복하는데 星主·王子의 호를 고쳐 좌평(佐平)이라고 했다. 사자(使者)는 은솔(恩率)이라고 하였다. 신라 백제가 망하게 되자 탐라국주는 태자 말로(末老)를 보내어 고려에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다. 이래서 태조는 星主·王子의 작위(爵位)를 내렸다(태조원년은 일본의 延喜18년(918)이며 治世11년).

삼성혈을 세 번이나 기술하지만 싫증이 안나는 것은 본도 비조(鼻祖)의 성지(聖地)인 까닭으로, 그 정밀함을 바라기 때문,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칠성동(七星洞) : 성내의 한 구획으로서 알려지고 있지만 그 이름이 생겨난 유래를 아는 사람이 적다. 지(誌)에 이르되 칠성도(七星圖) 석축(石築)의 유적이 있다. 삼성신(三姓神)이 나와 삼도(三徒)를 분점함은 북두(北斗)의 형태를 모방하여 이를 분할한 것이며 각기 칠성도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다. 칠성이란 북두의 칠성에서 취한 것이다.

서산(瑞山) : 지(誌)에 이르되 고려 목종 6년(서기 1003년) 6월 이 산이 해중으로부터 솟아올랐다. 산에 4개의 구멍이 있고 빨간물이 용솟음치

기 5일간이나 됐는데 그 물이 그치자 모두 와석(瓦石)이 되었다고 한다. 대학사(大學士) 전공지(田拱之)를 보내서 이를 자세히 관찰하도록 하였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산이 처음에 솟아나자 운무회명(雲霧晦暝) 땅이 움직이는 게 천둥·번개와 같았다고 한다. 대략 7주야를 지나서 비로소 활짝 개었다고 한다. 산 높이가 백余丈, 주위가 40여리나 되었다. 초목은 없고 연기가 그 위를 덮었다. 이를 바라봄에 유황이 나오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접근하지 못했으며 전씨 등은 몸소 산밑으로 내려오고 그 형태를 그리며 나아갔다.

내가 생각컨대 순창리 서쪽 해안에 솟아있는 민둥산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빨간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용암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봉봉(烽燧) : 예전에 본도 연안 각지의 전망이 좋은 봉우리, 언덕에 불을 올려서 외국선박의 내항을 두루 알렸다. 이로서 즉시 전도에 알려지게 하는 것이다.

즉 갑지(甲地)에 배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가장 가까운 봉수(烽燧)에서 좌우의 을지(乙地) 봉수소에 알리기 위하여 봉화를 올렸었다. 이리하여 병(丙)·정(丁)으로 순차적으로 불을 가지고 서로 알렸다. 그 봉수소 배치상황은 별지 그림과 같다.

각 봉수소에는 감관(監官) 1인과 망한(望漢)이 있었는데 망한이란 선박 내항을 감망(監望)하는 자이다.

홍화각(弘化閣) : 이하 각(閣), 누(樓), 정(亭)이라 부르는 것은 모두 건조물을 말하는 것이다. 홍화각은 제주 성내에 있다. 이조 세종 장헌왕16년(서기 1434년) 甲寅 8월7일 前공조참판(工曹參判) 益陽 崔公海山이 명을 받아 안무사 겸 판목사가 되어 제주에 부임하고 다음해에 이 각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르되 자기가 각을 세운 것은 경치를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며 또 유관(遊觀)을 위한 것도 아니다. 즉 성화(聖化)의 덕이 백성에

게 널리 미쳐지길 예전에 관공(關公)의 덕의 가르침 같이 되게 함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이름을 지었다.

영주관(瀛州館) : 북성내에 있는데 즉 객사대청(客舍大廳)이다.

관덕정(觀德亭) : 홍화각 남쪽에 있다. 정통(正統)13년(서기1448년) 무진(戊辰)년에 목사 신숙청(辛淑晴)이 건조한 것인데 그 후 38년을 지나 성화(成化)16년 경자세(庚子歲)에 목사 양찬(梁瓚)이 이를 수리하였다. 제액(題額)에 가로되 제주는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특히 성화(聖化)를 입고 이로써 가르치고 통치를 한다. 문사무비(文事武備) 골고루 갖추지 않는 것이 없다. 안무사營 남쪽에 사청(射廳) 한 구역이 있는데 바로 사졸(士卒)들을 훈련시키는 곳이다. 예전에는 집들이 작아서 추위와 더위를 모두 감싸주지 못해 사람들이 모두 유감으로 여겼다. 그때 안무사 신공(辛公)이 부임한 이듬해인 무진세(戊辰歲)에 일을 계획하고 좋은 때에 유수(遊手)를 모집하고 재화와 도기(陶器) 기와를 모아 돌을 쌓고 대(臺)를 만들어 신정(新亭)을 그 위에다 세우니 이를 관덕정이라고 했다.

또 기(記)에 이르되, 바로 주(州)는 해중에 있고 땅의 넓이는 거의 5백리. 주민이 8~9천호나 되는데 목마 수만여 필에 물산이 풍요로움은 딴 군·주의 갑절이나 되었다. 또 일본국과 서로 이웃하여 이를 방어할 대책은 실로 번잡하고 어렵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컨대 관덕이란 말은 논어에 군자는 다툴 곳이 없다. 반드시 활을 쏘든지 항시 겸손하고 부하에게 권하여 마시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군자일 것이라고 되어 있다. 同亭은 무예연습장임으로 활 쏘는 자의 행위가 君子然함을 일컬어 붙인 이름이다.

본도는 외침에 고통받아온지 오래이기 때문에 당시에 있어선 무비(武備)를 엄히 하는 것을 감히 마다하지 않고 州民은 모두 활 쏘고 말타기에 열심이었다. 일단 倭寇가 침입하면 三邑의 군중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常山(註 : 옛 中國의 天子가 수렵하던 곳)의 勢를 만들고 수륙에 걸쳐 보

기병(步騎兵)이 사력을 다하여 싸움으로써 적의 목을 베고 부모처자들을 편안케 하려고 분발했다는 것은 결코 허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달로화적부(達魯花赤府) : 안무사영(按撫使營), 주성(州城) 북쪽의 위에 고관부(古官府)의 유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 터일 것이다. 고려 충렬왕 때에 원의 탑라적(塔羅赤)이 소와 말들을 싣고 와 방목을 했는데 이로써 많이 번식하게 되었다. 그 후 원은 탑라화적부 및 총관부를 설치하고 고인조(高仁朝)로 하여금 총관을 삼았다. 또 군민 안무사를 두고 탑라적을 달로화적이라고 칭하였다. 또 고인조를 안무사로 삼았다. 갑오세(서기 1294년)에 원에서 탐라를 고려에 예속시키고 그 다음해 새로이 제주라고 개칭하였다. 처음 조임(趙任)으로 하여금 도장초사(都將招使)를 삼고 최역(崔瑒)을 목사로 지남익(池南翼)을 판관으로 삼았다. 정유세에 채득공(蔡得公)으로 하여금 방어사(防禦使)를 임숙(林叔)을 萬戶 도지휘사(都指揮使)로 임명하였다. 경자세에 원의 태후가 구마(廐馬)를 방목하고 인조의 동생 수좌(秀佐)로 하여금 성주(星主)로 삼고 공제(公濟)를 왕자로 삼았다.

고정의(古旌義) : 지금의 수산 및 고성 부근의 지명이다. 원의 목자 합적(哈赤)이 만호부(萬戶府)를 이곳에 두었다. 그후 오식(吳湜)이 삼읍으로 나눌 때 현을 두고 아침저녁 경비를 맡게 했다. 가끔 풍해가 심하고 오곡은 여물지 않았으며 더구나 왜구는 빈번하게 침입했다. 세종 5년(서기 1423년), 당시의 안무사 정간(鄭幹)이 조정에 건의해서 현을 진사(晋舍)로 옮겨 그로부터 스스로 민정을 베풀었다. 진사는 오늘날의 정의군청 소재지이다.

본도에 있어서 고적이라고 기록할 만한 것은 아직도 수십 종이 넘는다. 너무 번잡한 곳을 꺼려 한가한 곳을 찾는 연유이다. 그러나 또 한마디 해야할 것이 있다. 이미 연혁에 들었던 김통정이라고 칭하는 호적(豪賊)이다. 김은 어느 나라에서 낳았는지를 모른다. 성명을 갖고 볼 때 조선인이라고 하지만 혹은 중국인이라고도 하고 혹은 일본인이라고도 한

다. 본도의 수비장졸(守備將卒)들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기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김통정이란 이름은 본도의 관민으로 하여금 벌벌 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습복(慴伏)시켰다. 7백년 후의 오늘에 있어서도 아직도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악마를 항복시키려 한다. 바로 우리 귀상관(鬼上官)의 이름이 감히 계림팔도(鷄林八道)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아이들도 그 이름만 듣고도 울음을 그치게 한 것에 비길만 하다.

김통정은 본도를 공략하기 위하여 진도에 본부를 두고 삼별초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내침했다. 이들은 상륙하자 파죽지세로 여러 땅을 빼앗고 성을 구축하였다. 삼별초는 먼저 제주 서남쪽 4리 남짓된 곳(애월부근의 땅)에 축성하였다. 이곳을 뒤에 고토성(古土城)이라고 불렀다. 둘레는 5리에 이른다. 고려 원종(서기 1265년) 때에 삼별초를 방어하기 위하여 순효왕(順孝王)은 시랑(侍郎) 고여림(高汝林) 등을 보내어 병 1천기(騎)를 주어 탐라를 지키도록 했다. 그 당시 본도 연안에 축성을 했는데 이를 고장성(古長城)이라고 부른다. 동 12년에 다시 김방경(金方慶)을 보내어 삼별초를 진도에서 공격, 이를 격파하였다. 김통정은 그 패졸들을 거두어 몰래 바다를 건너 역습해 와서 귀일촌에 상륙, 성을 구축하였다. (귀일촌은 지금의 상·하귀리이다) 이를 강파성(釭波城) (註 : 지금의 항파두리)이라고 부른다.

김방경 등이 진공하여 이를 뿌리뽑았다. 千戶 윤나실(尹那實) 등으로 하여금 민병 4백기와 관군 1천명을 주류시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진으로 돌아갔다. 김통정은 후퇴하여 애월성에 웅거했다. 그때 관군민병 등이 어쩌지도 못하여 마침내 원에 청하여 병사를 합쳐 공격하고 이를 패주시켰다. 이로부터 본도는 원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애석하게도 정사(正史)에 이를 전하는 바가 없다.

쾌남아의 진퇴, 사생은 소상하지 않고 다만 신화적 구비(口碑)가 남아 있을 뿐이다. 오늘날 그가 축성한 터를 살펴봄에 결코 한 덩이의 초적(草賊)이 아니었음을 믿게 된다. 그때 정사(政事)의 퇴폐함을 분개한 나머

지 이를 혁신하겠다고 스스로 그 임무를 맡아 거병(擧兵)한 것인지도 모른다. 예전부터 혁신을 기도하여 성공을 하면 왕후가 되고 불행히 실패하면 적명(賊名)을 남겼도다. 장자(莊子)가 제후의 문(門)에 인의(仁義)있는가 하고 조소(嘲笑)를 한 것도 이유없지는 않도다.

주의 무왕은 성왕이라고 전해오지만 그는 군왕을 남겨 이를 대신케 했었다. 만일 무왕이 불행해서 주(紂)때문에 패하고 그 뜻을 얻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어찌 오늘날 그의 성명(盛名)이 있을 것인가. 재를 훔치는 자는 참수되고 나라를 빼앗는 자는 왕이 된다. 도적질에 있어서는 한가지지만 어찌 그 이름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고. 김통정은 본도를 공략하고도 아직 민재(民財)를 침노하지 않았다. 그 뜻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정 또한 범배(凡輩)가 아니다. 내가 그 뜻을 거룩하게 여기고 적명을 입게 된 것을 가련하게 여긴다. 그가 만일 천년 후에라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명복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문헌으로 증명하기엔 부족하니 가볍게 속단할 일은 아니다.

본도의 고적은 그 밖에 아직도 樓, 閣, 軒, 亭, 倉庫 등으로 기술할만한 것이 수십 개소나 남아있다. 소위 창고란 무기 병량(兵糧) 등을 저장하는 곳인데 지금 이를 상세하게 말함은 번다할 뿐 별도 도움이 될게 없다. 요컨대 본도에 있어서는 외침을 막기에 급하고 그 준비는 제반상태에 비하여 매우 완전에 가까왔다. 이때문에 전력을 경주한 흔적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세한 것을 바라는 이는 耽羅誌를 열람하도록 할 것.

Ⅸ. 學　　校

예전부터 학교제도가 있었고 유학이 대단히 융성하였다. 제주, 대정, 정의에는 공부자(孔夫子)의 묘가 있는데 이를 대성전(大成殿)이라고 부른

다. 건축규모는 장대함을 극한다. 생각컨대 그 숭배함이 결코 소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학교 또는 향교라고 불렀다.

제주의 향교는 예전에 가락천(嘉樂泉) 서안 뒤에 있었으나 임오세에 목사 김태정(金泰廷)이 이를 성 동남쪽으로 옮겼다.

조선태조 이성계 즉위 원년(서기 1392년)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다. 세종 장헌왕(莊憲王) 17년(서기 1435년) 학교를 재축하였다. 세종 헌장왕 11년(서기1466년) 봄 완산(完山) 이공(李公) 의응(義膺)이 절제사의 명에 따라 처음으로 문묘에 배알하였다. 그 허물어짐에 통탄하고 분연히 이를 새로이 할려고 마음먹고 모든 것을 판관들과 의논하였다. 교수관(敎授官) 문소(文紹), 조동(朝董) 등이 분주히 경영에 종사했다. 사상(使相) 역시 틈나는대로 친히 돌아보고 지휘하였다. 오래지 않아 제기와 제상 위판(位板) 등의 기구를 모두 갖추니 주내 父老자제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이 모두 사상이 내려주신 것이라 하여 그 공을 기렸다.

嘉靖13년(서기 1534년) 침상공(沈相公) 연원(連源)이 본도에 부임하고 동년 15년 명륜당을 세우고 스스로 서문을 써 가로되 소위 명륜이라 함은 이윤(彝倫)을 강명(講明)하는 것이다. 전해오기를 삼대의 학은 모두 인륜을 밝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움의 길은 이를 넘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 본원은 효제에 있을 뿐이로다. 만일 효제의 실을 잘 거두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이당에 올라 아침 저녁 음송(吟誦)을 한다고 해도 이익됨은 없다고 했다. 이로부터 학업이 한창 일어나고 목사 침연 이경억(李慶億) 등이 이를 장려하였다. 서쪽엔 명월리에 월계정사(月溪精舍)를 두고 동쪽엔 김녕리에 김녕정사를 세워 지방민 가운데 학식있는 자를 시켜 훈장으로 삼았다.

정의 대정 읍내에서 각 1개의 향교를 두어 함께 자제를 교육하였다.

오늘날 제주성내에는 보통학교 농림학교가, 그리고 정의 성내에는 보통학교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공립학교이다. 기타 큰 부락에는 반드시 학숙(學塾)이 있어 자제를 지도하고 있다. 이 향학같은 것은 옛날 향교와 같은 것인데 교수방법 교과서들은 모두 예전의 일본의 寺小屋(註 : 서

당)식이지만 없음보다는 낫다. 그러나 한학에 심취하고 이를 숭경(崇敬)한 결과는 그 언사만 쓸데없이 장대(莊大)하여 그 행위와는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인지라 그 폐단이 미치는 바 깊고 넓었다.

X. 官　衙

明治43년(서기 1910년) 8월 29일 조선황제는 나라를 들어 조선의 통치를 위촉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로써 폐퇴(廢頹)사회의 뒤를 이어 모든 악폐를 폐지하고 선정에 주력 그 혜택이 널리 사방에 퍼지도록 하였다. 이어서 10월 1일 관제의 개혁을 단행, 통감부를 총독부로 고치고 당시 육군대신·육군대장·寺內正毅백작이 대명을 받들어 이를 맡게 되었다. 본도의 관아 중 재무서는 군청에 병합되고 재무주사의 직은 군서기로 하여금 이를 맡게 했다.

공소(公所) : 제주군에는 제주군청 구재판소, 경찰서, 우편전신국 등이 있다. 공소로서는 제주병원, 학교조합, 수산조합출장소, 광주(光州)농공은행지점, 금융조합 등이 있다. 제주성내는 본도의 수부답게 제반설비가 허술한 데가 없다.

정의군에는 정의군청, 성산포에 각각 순사주재소가 있다. 정의, 서귀, 성산 3개소에 우편소를 설립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아직 발표되지는 않고 있다.

대정군에는 대정군청 및 순사주재소가 있다. 하모슬포는 우편소건립의 예정지이다.

제주군에는 순사주재소를, 明治44년(서기1911년) 여름에 김녕리에, 가을엔 조천 명월 두 곳에 증설하였다.

경찰서의 주임무는 보안·위생 두 가지이다. 이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기를 바란다면 주재소를 증설하여 산재(散在)制度에 의하지 않아야 한

다. 경찰서를 개밋둑(蟻塔)과 같이 한다면 그 얻을 수 있는 바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 가츠라기(葛城)서장이 보는 바가 있어 순사파출소의 증설을 결행했음은 크게 우리들의 뜻에 맞는 바이다. 그러나 본도에는 겨우 5~6개의 주재소가 있음은 참으로 어두운 밤에 별과 같은 것일 뿐, 더욱 더 그 증설이 바라지는 바이다.

XI. 併合後의 제주도

지금부터 기술하는 숫자는 明治44년(1911년) 10월 1일 현재의 것으로 모든 관서의 조사 및 저자자신이 실제로 답사해서 조사한 것으로 거의 정확에 가까운 것을 의심치 않는다.

• 본도조선인호수

군 명	호 수	남 자	여 자	인구계
정 의 군	7,629	18,780	19,181	37,961
대 정 군	6,215	13,391	13,740	27,131
제 주 군	21,211	51,814	53,930	105,744

• 조선인 직업류별

종 별	원 수	종 별	원 수
관 공 리	48	공 업	652
상 업	8,421	일 용 가	15,975
농 업	9,963	잡 업	13,588
어 업	37,885	무 직	84,304

비고 : 무직업 중에는 가족의 자제, 부인으로써 호주의 직업을 도와주는 자가 포함됨, 불량한 건달만은 아니다.

• 일본내지인 이주민표

연도 / 류별	明治 42년(1909)	同 43년(1910)	同 44년(1911)
호 수	79	129	145
남 자	157	301	370
부 인	102	152	179
계	259	453	549

다시 44년도분만을 군별로 나타내면

류별 / 군별	호 수	남 자	여 자
제 주 군	105	229	142
정 의 군	31	75	17
대 정 군	9	64	20
계	145	370	179

류별 / 직별	호 수	인 원	류별 / 직별	호 수	인 원
관 공 리	20	24	농 업	2	3
교 원	5	5	작 부		6
상 업	34	33	예 기		1
공 업	7	7	여 급		3
어 업	18	39	여 관	3	3
노 동	42	31	이발, 기타	3	3
요 리 업	3	3	무 직	4	380
의 사	4	4	총 계	145	549

비고 : 가족의 부인 소아 등은 무직 안에 포함시킴

• 통신 기관

제주우편전신국은 제주성내에 있고 그 보조기관으로서 대정 정의의 군청소재지에 우체소가 있어 격일로 성내를 왕복한다. 즉 우편물 운반을 위해 우체부가 甲日에 제주우편국을 출발했다가 乙日에 同局에 돌아온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군청소재지 사람들은 격일로 우편물접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지역에 사는 사람은 1개월에 6회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다.

우편물의 배달구역은 제1구~제3구로 나눈다. 제1구는 시내외 즉 局소재지이고 제2구는 시외중부 즉 우체소소재지, 제3구는 연안 각지로 한다. 연안 각지는 明治43년 여름까지는 매월 3회 집배했으나 현재의 국장이 이를 6회로 개정했다. 그 6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본도 제3구 우편물 집배를 동회(東廻)라고 하는 것은 우편국의 동부연안부터 배달, 수집함을 말하며 서회는 그 서부연안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동회집배 6일 16일 26일 • 서회집배 1일 11일 21일

대개 이상과 같이 정해있지만 전도를 한 사람이 집배하기 때문에 소포, 우편물 등의 용적 중량이 큰 것이 동쪽에 많을 때는 서쪽으로 출발하는 날에도 동쪽으로 시작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 그러므로 지연될 때에는 10일 이상을 경과하게 되고 더 나아가 다음 편이 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지방인사가 기묘하다고 여기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즉 전신이 보통우편물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로 그것이다.

지금 갑지로부터 본도 연안 을지에 타전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전신이 別便으로 배달되지 않는 한은 제주우체국으로부터 보통 우편 배달부에 의해 배달되기 때문에 그 집배원이 동부로부터 집배를 시작할 때에는 수신인의 손에 도달되기까지에는 적어도 7~8일간이 요한다. 만일 비가 많이 올 때에는 12~13일도 걸린다. 그 사이에 보통 우편물이 서쪽으로 돌아 배달될 때에는 전신보다도 빨리 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본도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부산기선회사 아니면 목포항운회사의 기선편에 의한다. 부산으로부터 내항하는 것은 3일을 넘기지 않고 도착하며 목포로부터 오는 것은 2일이면 온다. 부산기선은 1개월 평균 7회 2분의 1, 목포항운회사 선박은 똑같이 5회 6분의 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부산기선도 왕복 모두 착선하기 때문에 15회꼴이 된다.

• 금융기관

본도에는 고정돼 있는 자금을 거치(据置)했다가 융통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상인들은 필요에 따라 송금받고 각기 활용하게 된다. 그 송금방법은 거의 우편환, 전신환, 은행환 등에 의거한다. 금융기관으로는 첫째로 광주농공은행제주도지점, 제주우편전신국, 지방금융조합 등이 있다. 다음에 이를 상술한다.

광주농공은행 제주도지점 (明治44년(1911) 8월말 현재)

(1) 금은(金銀) 출납

입금 534,038円,835　출금 533,782円,790　계 1,107,821円,625

(2) 예 금

	이 월 고	예 금 액	지 불 액	현 재 액
당좌예금	3,055円240	39,462円710	37,653円850	4,864円100
소액예금	5,786,540	72,841, 060	64,494,130	14,133,470
별단예금	271,960	14,676, 300	14,509,410	438,850
계	9,113,740	126,980, 070	116,657,390	19,436,420

(3) 현재예금고

일 본 인	12,052円,540
조 선 인	7,383,880

(4) 대출고

	이 월 고	대 출 액	반 감 액	현 재 액
연부상환대부	4,275円000	500円,000	250円,000	4,525円,000
정기상환대부	5,800,000	-	-	5,800,000
대 부	44,857,000	20,255,000	13,830,900	51,281,100
계	54,932,000	20,755,000	14,080,900	61,606,100

(5) 대부금사용별

	연부상환대부		정기상환대부		대 부		계	
	구좌수	금 액	구좌수	금 액	구좌수	금 액	구좌수	금 액
농업자금	4	4,025,000	4	4,800,000	20	15,733,000	28	24,558,000
공업자금	1	500,000	1	1,000,000	2	1,208,200	4	2,708,200
상업자금	·	-	-	-	135	34,399,500	135	34,399,500
계	5	4,525,000	5	5,800,000	157	51,340,700	167	61,606,100

(6) 환

	구 좌 수	금 액
발 송	143	26,402円,390
접 수	297	88,894,480
계	440	115,300,870

(7) 대금징수어음

	구 좌 수	금 액
제주성내	149	29,735,960
타 소		1,000,000
계		30,735,960

(8) 이 자

	기 간	최 고 이 자	최 저 이 자
예금이자	1개년	(연리) 7步	6步
	6개월	6步 5厘	5步5厘
	3개월	6步	5分
	당좌일보	1錢3厘	1錢
	소액일보	1錢5厘	1錢3厘
대부이자	보통대부일보	6錢	4錢
	연부상환일보	(年利) 1割2步	1割
	환대월일보	1錢	8分
비 고	보통민간대차	(연리) 3割	(연리) 1割8分

⑼ 환거래지명

京城, 龍山, 仁川, 釜山, 元山, 群山, 木浦, 大邱, 草梁, 金泉, 平壤, 寧辺, 博川, 鎭南浦, 沙里院, 海州, 開城, 公州, 忠州, 春川, 江景, 全州, 羅州, 古阜, 南原, 光州, 榮山浦, 筏橋浦

• 제주우편국(43년도 수불고)

과 별	구좌수	수입금액	과 별	구좌수	지불금액
자금수령액		26,200,円000	통신관리국에의 납부액		40,030円,000
통신관리국부터의	1,992		임시지불액		820
자금수령액		43,730,000	환지불액		70,938,350
환발행액	993	30,124,620	외국환지불액		702,830
징수금수입액	330	4,603,832	징수금지불액		11,400
저금예금액		3,893,730	저금지불액		3,613,752
대체저금수입액		3,111,415	대체저금지불액		1,099,075
세입금수입액		16,803,150	세출금지불액		12,220,170
국고금수입액		49,990	합 계		128,617,397
임시금수입액		98,055			
합 계		128,614,992			

비고 : 42년도 취급금액

수 입 액	78,745円233	지 출 액	78,751,円885

• 우편어음 貯金 32口座 9円700 • 증권어음 21口座 4円200

• 제주금융조합

기본금 1만円을 비치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농업상 필요한 소자금을 융통 해주는 조직으로서 농업금융상 중요한 기관이다. 그 대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주군	8,133円
정의군	250円

대정군	510円
계	8,893円

• 금융현상

본도에 있어서의 금융은 이상과 같은데 정화(正貨)의 수입은 현재의 유통고에 대하여 대단히 고율임에도 불구하고 정화는 항시 모자라고 자금융통상 민간에 있어서는 대단히 고율이자의 대차가 행해진다. 이에 대하여 明治 42년 봄 농공은행 제주지점은 그 괴이한 현상에 대하여 예의 조사를 실시한 바 그 원인을 사실과 비슷하게 인정하게 되었다. 그 보고서에 가로되 정화유출고는 본디가 정확한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으나 은행, 우편국 여러 상인, 그밖의 손을 거쳐 본도에 유입되는 정화는 적어도 6萬円 내지 7萬円 이상이 된다.

그렇다면 본도에 있어서의 정화의 유통고는 격증할 터이나 사실은 그렇지 못함은 무슨 까닭일까. 달리 정화가 유출되는 길이 없을 수 없다고 보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기선편마다 귀중품이란 명목아래 정화 1천円 내지 1천 5, 6백円씩 반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금 이것을 연액으로 계산할 때 16~17만円의 고액에 오른다. 이에 농공은행지점은 그 구제책으로서 무수수료송금환의 취급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그 유출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그 근절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로써 또 다른 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유출고는 연액 5만円 내지 6만円을 내리지 않으며 그 유출지의 주된 곳은 산지포, 조천포에 있는 것 같다.

• 본도 산물

明治42년(1909) 이후 3개년 평균 수확고를 나타낸 것임.

보리	99,602,000斤

조	25,911,900斤	
벼	645,000斤	
콩	378,040斤	
팥	291,750斤	
메밀	55,000斤	
고구마	37,450斤	
버섯	12,000斤	
면화	8,333斤	
五倍子	2,500斤	
綿苧	108,000斤	
楮皮	5,000斤	
網巾	1,200円	2,500개
笠子	8,500円	5,700개
凉太	20,000円	102,000개
宕巾	24,000円	6,000개
빗	3,000円	50,000개
綿布	1,800円	3,000反
麻布	4,000円	6,500反
漁具	3,500円	
과일	230円	
감물(柿澁)	300円	
소체		
牛皮	2,500枚	
馬皮	300枚	
牛骨	150,000斤	
소	3,000두	
말	3,500두	

돼지	75,000두	
닭	100,000마리	
달걀	500,000개	
돔	20,000斤	
상어지느러미	25,000斤	
마른전복	50,000斤	
오징어	2,000斤	
해삼	56,500斤	
마른멸치	4,300,000斤	
締粕(기름을 짜고 난 멸치 찌꺼기)		605,000斤
우뭇가사리	650,000斤	
미역	250,000斤	
소금	65,248,800斤	
전복껍질	20,000斤	

본도 해산물에 대해서는 앞날이 매우 바빠지고 어획방법의 개선 및 기도해야할 사업이 많다. 다만 멸치어망만은 다소 잘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잡히는 어족은 단순히 열기되는 것만은 아니다. 삼치, 방어, 참치, 가다랭이, 茅渟, 도미, 뱀장어, 전어, 돌고래, 청새치, 송어, 문어 方頭魚, 어랭이, 조기, 볼락, 농어, 콩미리 등 여러 어족이 연안도처에 유영한다.

대정군 대평리 송항(松港)에서 하라다(原田助市)씨가 사용하고 있는 立網과 같은 것은 사계절 언제나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큰 敷網을 갖고 삼치 가다랭이, 참치 등을 낚는다면 더욱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를 실험한 이가 없다.

오늘날 일본내지로부터 오는 어업자를 보면 도미 一本釣를 하는 이마리구미(伊萬里組)라 칭하는 단체가 있다. 야마구치(山口)縣 阿武郡 椿鄕 후지야마(藤山甚吉) 시로가네(白銀若松)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 19척의 어

선을 띄워 겨울철에서 초여름까지 본도연안에서 조업할 뿐이다.

멸치, 해조류 같은 것은 본도 토착민이 독점하는 것인데 다만 그 어획채취한 것을 사 모으는 데 불과하다.

원래 본도는 유형지로 세상에 알려진 지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상업지로서의 제주도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생각컨대 刑期를 살고 남은 몸은 不毛의 땅에서 벌레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으로 그 부정(不貞)함과 함께 어우릴 바가 못된다하고 더욱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실정을 알 수 없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본도에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일로전쟁 후인데 그 전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주자들의 목적은 토지개발, 산업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관서의 수요에서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관아소재지인 성내에만 모이게 되었다. 이런 때에 산업상 목적에 착안해서 도내 깊숙이 들어온 자는 일한물산회사지점이 성산포에 개점하고, 츠키야마(築山懋)씨가 하모슬포에 뿌리를 내린 것 뿐이다. 제주성내는 목사가 재임하는 곳으로 전도의 수부(首府)이다. 더욱이 본토와의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건조물의 설비, 지리적 관계로 해서 통감부시대에도 모든 관서를 이곳에 두었다.

내가 생각컨대 사람은 유리한 땅에 옮겨살고 관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바 본도의 모든 기관은 멀지않아 동부로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 시험삼아 본도 중앙부에서 북에서 남으로 한 선을 긋고, 그 동·서 兩半部의 산물을 비교하면 7대3의 비율이 되나 그 지리에 있어서는 선박의 출입, 육지와의 교통이 월등히 서북쪽에 있다. 여름철 모든 상인들의 맹렬한 활동은 항시 동부에서만 행해진다. 지금 만일 통신기관을 동부로 설치하게 된다면 성내거주 상인의 대부분은 모두 동부로 이주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제주성내는 상업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상업상 필수기관인 통신기관이 이곳에만 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민활하지 못하고, 큰 불편을

느끼고 있을 여러 상인들에 대해서는 동정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여기에 明治42년(1909) 이후에 수출한 산물을 비교해 볼까 한다.

품 명	1909년		1910년		1911년 10月末日	
	수량(근)	가격(円)	수량(근)	가격(円)	수량(근)	가격(円)
마른멸치	4,500,000	126,000	2,500,000	92,500	6,000,000	186,000
멸치찌꺼기	730,000	18,250	500,000	19,000	58,000	14,675
마른전복	48,000	36,000	50,300	40,240	50,500	41,000
마른해삼	50,000	37,500	60,000	48,000	62,000	50,000
상어지느러미	20,000	24,000	20,200	23,500	30,600	35,355
우뭇가사리	350,000	28,000	900,000	81,000	700,00	55,950
미역	300,000	7,500	250,000	8,120	275,000	7,000
김	50,000	3,500	45,000	3,150	50,000	3,250
표고	625	481	2,618	2,252	3,856	3,355
조선인이 채취한 표고	2,500	1,000	4,630	2,100	4,000	1,895
계		282,231		319,835		398,480

이상은 본도산물의 주된 것만으로 기타 세공품 곡류 등의 수출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 단순히 천연산물만을 제시한 것은 이주를 바라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이의 참고로 삼고자 하는 작은 뜻에서이다.

• 시장상황

본도 각지에 互市場(5일장)을 개시(開市)한 것은 지금부터 수년전의 일이다. 그 창시자는 제주군수 윤원구(尹元求)씨인데 그는 이를 육지부의 예에 따라 유로써 무를 바꿀 것을 목적으로 도민의 편의를 위해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시장은 성내와 기타 2~3곳을 제외하면 발달을 보지 못했다. 여기 거래 시장의 지명, 개시일 및 경황을 제시하겠다.

군 명	지 명	시 일	1년간 거래액(円)	번한기에 있어서의 1개월의 거래액(円)	
				번	한
제주군	성 내	2, 7	22,600	3,200	500
	조 천	2, 7	12,000	1,400	300
	삼양리	1, 6	4,800	800	150
	김녕리	1, 6	2,000	350	70
	세화리	5, 10	2,000	300	80
	명월리	1, 6	1,500	170	50
	애월리	5, 10	1,500	150	50
	두모리	2, 7	1,200	200	10
정의군	정 의	1, 6	1,500	200	30
	효 동	3, 8	800	100	10
	수 산	5, 10	1,000	100	30
	서의리	2, 7	600	70	30
대정군	대 정	1, 6	800	90	40
	창천리	2, 7	600	80	20

• 노동자 임금

종 별	양	일본인	조선인	종 별	양	일본인	조선인
목 수	日	1円 500	円 750	표구사	日	1円500	1円000
미 장 공	日	1 700	750	지게꾼	日		500
석 공	日	2 000	800	차마료(借馬料)	日		1,000
톱 질 꾼	日	1 700	1 000	홑옷바느질	1枚	200	
지붕전문 목수	日	2 000	1 500	겹옷·솜옷바느질	1枚	400・500	
인 부	日	1 000	500	홑옷세탁	1枚	500	040

• 일용품 시가(44년 7월 중)

품명	수량	단위	가격		품명	수량	단위	가격	
			円					円	
上白米	1	斗	2	300錢	식염	1	升		20
中白米	1	斗	2	000	된장	1	貫		800
下白米	1	斗	1	950	간장	1	升		400
겉보리	1	斗		500	석유	1	箱	上3	500
밀	1	斗		450				下3	000
콩	1	斗		500	설탕	1	升		130
팥	1	斗		550	달걀	1	個		006
밀가루	50	封	3	200	明太	1	枡		600
숯	1	貫		095	멸감	1	締		500
성냥	1	包		035	松八分板	1	坪	2	200
洋金巾	1	疋	8	400	松六分板	1	坪	1	600
和金巾	1	疋	7	700	杉四分板	1	坪	1	600
紡績絲	1	玉		150	杉材	1	才		120
棉花	1	斤		080	淸酒	1	升		700
打綿	1	斤		400	仝上竝酒	1	升		450
洋紙	1	卷	2	500	麥酒	1	打	2	500
韓紙	1	枚		020	사이다	1	打	1	400
美濃紙	1	枚		005	燒酒	1	升		500
半紙	1	帖		50	朝鮮燒酒	1	升		250
쇠고기	1	斤		200	못	100	匁		200
돼지고기	1	斤		200	朝日(담배)	1	箱		950
도미	1	貫		300	大和(담배)	1	箱	1	360
전복	1	貫		330	敷島(담배)	1	箱	1	700
닭	1	羽		200	파이렛	1	箱	2	000
					하니비	1	箱		400

• 시장출품종류

본도 각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물품은 대개 일정해서 특별히 시장지명을 들어 기술할 만한 것이 없다. 다만 성내시장만이 딴 곳과 다른 것은 반출품이 엄청 많다는 것이다. 그 품명은 다음과 같다. 그밖엔 일정하여 포백(布帛)을 주로 한다.

보리(本島産), 밀(本島産), 팥(本島産), 조(本島産), 岡米(本島産), 콩(本島産), 참깨(本島産), 소금(本島産), 생선, 마른 고기, 薪炭(本島産), 성냥(日本 및 中

國産) 綿布(각지산), 麻布(본도 및 朝鮮 內地. 상등품은 中國産), 洋金巾, 和金巾, 朝鮮紙, 조선과자 陶器(日本 및 조선산) 및 기타 잡품. 어디서나 비올 때에는 개시하지 않는다.

• 본도발전의 근황

세상 사람들이 본도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본도민 역시 세상상황을 알지 못한다. 백년을 하루 같이 구체제를 고치지 않고 본도에 순무(巡撫)의 임무를 띠고 오는 목사도 역시 쇄양(鎖攘)함을 능사로 삼았다고 여겨진다. 그들의 치적이 어떠한가를 보라. 즉 誅求(誅求) 가세(苛稅)하고 민력을 낭비하였으며 수뢰하고 당상에 앉아 사사로이 형을 과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흔적은 역력해서 도민의 뇌리에 심각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관리에 대한 태도에 이를 명확히 나타낸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구 한국관리가 수백년에 걸쳐 행해온 통폐이기에 홀로 본도 목사만을 책망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그 꾸짖임을 피해서는 안된다.

본도민이 지식 및 생활정도에 있어서 육지에 비하여 심히 열등한 것은 교통의 편이 두절됐던 때문임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도내의 물품은 딴 곳에 나가는 일이 없고 딴 지방 물건이 도내로 들어오는 일도 없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은 다만 도내에서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서 무역의 길이 열리지 못하고 시무(時務)를 알지 못하고 밤낮 행동하는 바는 어떻게 해서 가혹한 관리의 손에서 벗어날까를 생각하는 것 뿐이었다.

세상이 나아짐에 따라 문명의 이기는 이 야만스러운 섬도 버리지를 않고 작은 기선이 부정기적으로 기항하는 일도 있다. 이어서 明治 42년(1909년) 봄 부산기선회사가 정기기항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목포항운회사의 기선 역시 정기 항행해서 제주~목포 간의 연락을 꾀하게 됨에 따라 본도에 출입하는 인원, 화물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금년은 바로 42년도의 갑절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에 이를 대조해 본다.

● 반입화물(단 44년(1911) 상반기분임)

품 명	1909年		1910年		1911年	
	수 량	가격(円)	수 량	가격(円)	수 량	가격(円)
석 유	2,709箱	7,580	3,470	12,200	3,000	8,825
설 탕	298俵	2,815	398	3,692	253	2,377
성 냥	718箱	3,254	1,000	5,825	1,095	5,760
담 배		9,470		11,925		5,998
보리가루	302袋	908	410	1,225	255	762
청 주	2,820升	1,900	7,000	3,082	3,200	1,496
金 巾	1,220疋	7,330	226	14,205	1,490	10,535
간 장	54樽	330	85	585	65	470
쌀	1,179俵	6,544	1,994	13,619	1,120	9,375
맥 주	79箱	790	95	935	90	876
통조림	200升	250	350	375	100	310
팥		30		58		16
콩 류		55		70		30
마 포	182個	6,484	205	8,648	130	4660
건 포	3包	350	5	830	4	560
면 포	236包	9,216	378	17,070	240	11,046
철제품		337		700		2,061
도 기		53		120		186
유리그릇		94		169		150
신발류		150		270		200
약 품		260		375		350
탄 솜	200斤	40	500	100	300	63
풀 솜	7斤	32	20	42		
재봉사		135		132	50	366
의 복		20		69		130
소 채				170	400	95
청량음료수	20箱	90	35	156		245
목 재		695		800		500
못	100斤	15	300	45		68
아연판	50枚	60	90	108		
납	200斤	25	500	55	300	36
주 철						

품 명	1909年		1910年		1911年	
	수 량	가격(円)	수 량	가격(円)	수 량	가격(円)
식 료 품		300		575		440
된 장	1,000斤	60	1,800	117	1,500	105
洋 傘		235		832		452
양 초	33箱	53	76	122	52	110
洋 傘	35束	241				
창 호		3,260				2,780
洋 紙		1,332		1,500		996
잡 품		855		4,106		6,112
計		65,623		104,806		78,541

● 반출화물

품 명	1909년		1910년		1911년	
	수 량	가격(円)	수 량	가격(円)	수 량	가격(円)
牛 皮	101束	905	165	4,100	1,207	
牛 骨	5,000斤	45	28,000	253		2,514
活 馬	300頭	4,300	253	4,301	103	
凉 太	130,000個	9,000	150,000	10,385	86,000	2,115
月 梳	70,000個	700	83,500	999	50,000	6,020
잡 곡		180		953		500
대 두			30,000斤	900	66,000	1,912
맥	12,000斤	244			15,000	1,692
표고버섯	2.452斤	1,020	5,078	3,050	4,856	450
계 란	360,090個	2,165	514,000	2,684	358,000	3,775
건 온					197,000	3,148
약 재		250		140		4,340
생 어		228		687		75
입 자	28箱	800	60	1,700	38	473
干 魚	28箱	290	50	375	38	1,150
잡 품	36箱	160		600	28	
계		22,287		31,126		

비고 : 본표의 반출입화물은 기선에 실어 산지·조천으로부터 출입하는 화물을 나타낸 것으로 반출물 중 보리 쇠뼈 산말(活馬)은 범선 적재이다. 이 표를 가지고 본도 출입화물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일본·조선인의 소범선으로 출·입하는 화물은 이 중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안 각지에 출입하는 화물은 모두 알 수가 없지만 그 중 성산포로부터 출입한 화물 중에서 明治43년7월부터 44년8월31일에 이르는 14개월간에 출입한 것을 게재했다. 그 이전을 소급해 가면 더욱 알기가 어렵다.

• 성산포 출입 화물

반입				반출			
품명	수량	가격(円)	출발지	품명	수량	가격(円)	행선지
도기	400근	25	통영	마른멸치	47,534근	1,0552	마산
韓紙	600매	6	〃	콩	14,640근	399	〃
계		31		팥	10,250근	208	〃
마른멸치	8,000근	200	하모슬포	메밀	5,600	56	〃
콩	5,000근	200	〃	참깨	2,000	65	〃
계		400		오뭇가사리	5,549근	333	〃
조	60,000근	2,700	백빈	계		2,113	
계		2,700		마른멸치	74,400근	2,049	목포
목재	520재	25	하관	찌꺼기(締粕)	36,880근	922	〃
가마니		690	〃	우뭇가사리	31,393근	2,573	〃
남비	25근	2	〃	미역	2,321근	223	〃
계		717		전복껍질	260근	11	〃
석유	20상	70	마산	계		5,778	
성냥	5상	25	〃	선철	15,600근	234	하모슬포
간장	250승	60	〃	백미	3,750근	225	〃
계		155		간장	250근	45	〃
가마니	12,620근	2,524	부산	된장	150근	17	〃
선철	9,443근	150	〃	청주	240근	75	〃
숯	400근	5	〃	가마니	1,250근	25	〃
목욕가마	256근	12	〃	계		621	
석탄	40,000근	86	〃	마른멸치	1,636,656근	40,514	부산
성냥	1상	5	〃	겉보리	9,360근	390	〃
어구		34	〃	콩	880근	30	〃
백미	12,000근	620	〃	메밀	720근	27	〃
전나무판자	5평	5	〃	조	20,000근	900	〃
아연판	50매	60	〃	우뭇가사리	52,838근	2,868	〃
된장	100근	10	〃	計		44,729	
간장	100승	7	〃	마른멸치	243,524근	5,865	하관
잡품		367	〃	찌꺼기 (締粕)	53,579근	1,421	〃
계		3,885		우뭇가사리	650근	22	〃
백미	7,450근	560	산지포	상어지느러미	148근	35	〃
청주	333승	133	〃	멸치기름	7,200근	98	〃
맥주	32타	80	〃	전복껍질	1,760근	35	〃
설탕	300근	29	〃	계		7,476	
담배	165근	325	〃	합계		60,717	
잡품		514	〃				
계		1,641					
거룻배	1척	13	목포				
도기	1,000근	90	〃				
백미	7,500근	450	〃				
휘발유	100근	12	〃				
잡품		35	〃				
계		600					
합계		10,127					

비고 : 산지, 조천의 2개소로부터 출입하는 화물의 행선지 및 출발지는 부산, 목포를 주로 하고, 그 밖은 별로 말할 게 없다.

성산포로부터 출입하는 화물은 기선, 범선, 어선에 의해 운반되기 때문에 행선지 및 출발지가 다수 있다.

• 이정표

도로가 험악한 것은 조선일반의 通弊로서 유독 본도만을 책망할 일은 아니지만 본도 도로의 경우는 딴 곳보다 유달리 험악하다. 조선의 1리는 일본 1리의 10분의 1로 환산된 것이지만 본도에는 따로이 1리라고 부르는 산법이 있다. 즉 일본식 18정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를 재어보니 25정 안팎이 된다. 그러므로 이를 36정을 1리로 환산하려고 하면 속칭 리수에 7을 곱한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모처에서 모처까지 6리라고 한다면 즉 7을 곱해서 4리7정여라고 알아두는 것과 같다. 지금 게재하는 이정표는 통신관리국 발행 '管區便覽'에 따른 것이다. 이 편람은 속칭 2리를 1리로 한 것인 바 50정을 1리로 보아 대차가 없을 것이다.

지금 그 실례를 적어 보겠다.

예전부터 제주성내에서부터 대정군청에 이르는 이정을 도내에서 19리라고 했었다. 그러므로 일본리정으로 하면 9리반이라고 불러 왔으나 明治43년(1910) 가을 헌병대의 실측으로 13리弱이 됨을 알게 되었다. 제주우편국에서 사계리 해안까지 가설된 전선주와 대정군청에 이르는 약 1리반의 지점에서 나뉘는 그곳에 세워진 전주에는 '460'의 표를 찍었다. 각 전주와 전주의 거리는 45간인데 그럴 때 이곳은 2만6백55간 즉 9리20정15간이 된다. 그러나 전주는 똑바르고 도로는 굴곡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에 나타내는 이정표는 군청소재지를 기점으로 한 것이다.

• 개 설

이제야 鷄林八道(조선을 가리킴)는 우리 일본천황치하에 들어와 있으나 유독 전남의 제주도만이 그 혜택을 덜 입고 있음은 무슨 까닭일까. 흔히 말하기를 절해에 점재하는 일개 불모지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모의 땅은 반드시 불모하지만은 않으며 풍요의 땅 역시 홀

• 제주군

지 명	이정	지 명	이정	지 명	이정	지 명	이정
일 도	1	도 남	1	연 동	1	영 평	2
이 도	1	공 북	1	삼 양	2	내 도	2
삼 도	1	오 라	1	회 천	1	함 덕	4
건 입	1	아 라	1	상 가	5	북 촌	4
용 담	1	고 성	3	애 월	5	평 대	8
노 형	1	구 엄	4	납 읍	5	선 흘	5
도 평	2	중 엄	4	어 도	5	귀 덕	6
외 도	2	신 엄	4	어 음	6	수 원	7
해 안	2	수 산	4	곽 지	6	한 림	7
봉 개	2	장 전	4	금 성	6	상 대	7
거 노	2	소 길	4	신 촌	3	동 명	7
다 호	2	금 덕	4	대 흘	4	서 명	8
인 나	2	하 가	5	와 흘	4	상 명	7
광 영	3	고 내	5	조 천	3	월 정	6
상 귀	3	교 내	4	악 천	10	(구무주)	
하 귀	3	저 지	8	용 수	10	송 당	7
인 동	8	판 포	10	차 귀	11	행 원	7
덕 용	8	두 모	10	덕 천	6	(구실등)	
협 재	8	조 수	9	동 복	5	한 동	8
분 영	9	청 수	10	김 영	5	세 화	9
금 악	8	금 등	10	종 달	10	대 임	7
월 영	8	상 도	8	월 평	1	우 도	陸10海
별 방	10	도 두	1	도 조	2		1
영 남	1	오 라	1	용 강	1		

• 대정군

서 광	2	상 창 천	2	감 산	2	상천	3
덕 수	1	화 순	3	사 계	1	인성, 안성, 보성	4
광 청	3	광 평	2	창 천	2	상·하모슬포	1
동 일 과	2	도 원	3	중 문	4	도순	4
서 일 과	2	가 파 도	5	동 예	3	월평	4
신 평	1	하 예	2	상 문	3	영남	5
영 낙	2	상 예	3	대 포	3	강정	5
무 능	2	색 달	3	하 원	3	회수	4

• 정의군

지 명	이정	지 명	이정	지 명	이정	지 명	이정
읍 내		가 마	2	신 풍	2	수 산	3
서가마	1	안좌거	2	난 산	3	성 산	4
표 선	2	토 산	2	삼 달	3	오 조	4
세 화	3	하 천	1	신 산	2	성 읍	1
동가마	1	신 천	2	온 평	3	시 흥	4
고 성	4	신 의	5	상 효	6	호 근	7
온 천	1	동 미	6	서 효	6	효 돈	7
수 망	5	동 보	5	신 효	6	서 귀	7
한 남	4	보 한	4	하 효	6	법 환	7
예 촌	4	의 귀	3	토 평	7	서 호	8
동 의	4	서 보	3	보 목	6	서 홍	7
서 의	4	서 미	4	동 홍	7	조 도	7 (육 6 해 1
우 미	6	신 예	6				

• 제주성내로부터 각지에 이르는 이정

지 명	이 정	지 명	이 정	지 명	이 정	지 명	이 정
조 천	해 5리	성 산	육 12해26리	정 의	8 리	대 정	13리
비양도	해17리	서 귀	산도 10	추자도	30 리	목 포	96리
부 산	186 리	하 관	230리	대 도	170리	장 기	

로 풍요하지만도 않는다. 만일 그것이 좋은 시설을 얻게 되면 인공으로 천연을 조장하여 식산(殖産)이 융성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그대로 방치해서 개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일강변의 옥토라고 하더라도 역시 더욱 풍요해지지는 않으리라. 천험이란 인력으로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는 것으로 토지의 비척(肥瘠)은 인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허황한 일이 아님으로 제주도 역시 결코 버려버릴 땅은 아니다.

본도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음은 실로 그 천험(天險) 때문이다. 이

천험으로 해서 곧잘 대륙과 교통이 차단되고 오늘날에도 더욱 격세의 觀이 있다. 이를 자연계에 비추어 보면 북미해안에서 약 5백해리나 떨어져 있는 페르뮤다스도는 폭풍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동식물이 끊임없이 그에 따라 수송되어 이 섬의 것들은 언뜻보아 아메리카종의 조류(鳥類) 식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가라파고스제도는 남미해안에서 비슷하게 5백해리가 떨어져 있으나 이곳은 적도 무풍지대下에 위치함으로써 항시 미풍도 일어나지 않아 그 섬의 조류는 57종 중 38종이 그 섬 특유한 것이고 기타 19종 중 1종을 제외한 그밖의 것은 대섭수조(大涉水鳥)라고 한다. 이 가라파고스군도는 대소 20여개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그 위에 현존하는 조류를 검사해 보건대 대략 비슷하다지만 각 섬은 모두 다소 그 종류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조용하고 무풍인 상태가 불과 몇 해리로써도 곧잘 그 교통을 차단시킴이 페르뮤다스 군도의 5백해리 이상인 것은 이들에 대한 교통의 편, 즉 폭풍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제주도가 대륙과의 교통차단상태에 있고 그 영향을 적게 받는 것도 또한 이와 비슷하다. 본도 주변의 바다는 폭풍이 특히 많고 조류(潮流)가 급격한데 그 위에 선박이 정박할 항만도 부족하여 연안에는 암초가 많고 용이하게 접근하기 어려움은 오늘날의 제주도라는 실정을 만든 참다운 원인이기도 하다.

본도의 토양이 조송불모(粗鬆不毛)하다고 함은 이를 개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옛부터 일본인 중에서도 토지개발에 노력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만 일개 좋은 어장으로서 그들 동업자들 사이에 알려졌을 뿐이다.

明治 27년(1894) 봄 備後國沼隈郡田島町에 사는 아라카와(荒川留重郎)씨가 단신 어선을 이끌고 제주군 비양도에 상륙했었던 것이 일본인 제비(製肥)업자의 첫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山口縣萩町 요시무라(吉村與三郎)씨(作故)가 잠수기 어선을 이끌고 도착, 대정군 가파도에 근거지를

꾸미게 되었고 이어서 九州五島에 사는 미야케(三宅道次郎)씨가 역시 잠수기 어선을 끌고 와 전복 해삼을 잡을 목적으로 제주군 행원리에 창고를 설치하였다. 그 후 잠수기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도래한 이는 하라다(原田助市)씨, 나카무라(中村淸左衛門)씨 시미즈(淸水金次郎)씨 등이 있다.

본도에 기항한 최초의 기선은 蒼龍, 顯益 및 光濟로서 明治 42년 봄부터 부산기선회사에서 정기항행을 개시하였다. 목포항운회사 역시 이를 배우게 되었다. 이때문인지 본도에 출입하는 화물, 여객 및 거주자의 수는 격증하였다.(앞의 표 참조) 이제 그 변천이 현저했던 것을 든다면 순사주재소가 경찰서, 우편수취소가 우편전신국으로 변하고 일본인호구수가 배증한 것, 또 제주 병원 및 학교의 설립, 광주농공은행지점의 개점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여러가지 사업이 대소할 것 없이 모든 진보의 한 단계를 높였다.

본도 산물의 산액에 있어서도 해마다 증가한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로서는 어구의 개량, 어획방법의 진보, 황무지개간 산림경영 등이 그것들이다. 황무지를 개간한 결과 쌀과 잡곡을 수확하고 산림경영의 결과 표고버섯을 채취하고 식림을 장려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어업에 있어서는 수산기수(技手)를 초빙하여 그 방법을 강습하였다. 그러나 한탄스러운 바는 농사상의 경영 및 목축업에 있어서 경영자를 보지 못 한 점이다. 표고 재배는 明治39년(1906년) 이요(伊豫)사람 후지타(藤田寬二郎)씨 등이 東瀛社를 조직하여 이에 종사한 것을 처음으로 친다. 그런데 이 업은 벌채 후 3개년을 경과 하지 않으면 이를 채취하지 못한다. 오늘날 동영사는 藤田씨의 단독 영업으로 움직이고 있다. 처음 41년에 있어서의 채수고(採收高)는 6백 25斤, 가격 4백80円에 불과했으나 해를 따라 증수하여 오늘날엔 수천 근을 반출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이들 업자는 계속해서 들어와 한라산 일대가 모조리 표고밭으로 바뀌어진 느낌마저 있다. 한라산의 삼림은 대략 5만정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

어서의 표고버섯 재배장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치	경영자 씨명	보 수
한라산 남	藤田寬二郎	1,601정보
한라산 동	共同事業 益田三郎	200정보
한라산 동	西鄕武十	800정보
한라산 서	林茂一郎	450정보
한라산 서	德永榮助	700정보

이상의 재배장에서 채수될 수 있는 예산고(豫産高)는 3만근을 넘을 전망이다.

본도의 해산물에 이르러서는 거의 무진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만일 이것을 의심스럽다고 본다면 시험적으로 정교한 어구를 사용, 숙련된 기수를 갖고서 제조에 종사시켜 보라. 일이 잘 될 때에는 그 소득이 건온체조(乾鰮締槽)(기름을 짜고난 마른 멸치)로서 1천만근 이상이 되며 우뭇가사리 등에 있어서는 1백만근을 내리지 않는다.

그 어획하는 상황을 보면 방진망(方陣網)을 가지고 멸치떼를 포위, 점점 그 그물을 좁혀가다가 마침내 대바구니를 사용, 그 속으로부터 움켜올린 것을 떼(筏)위로 내려 일정장소로 운반한다. 이것을 저울로 잰 다음 마른멸치 제조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쓴다. 그 떼를 저어오는 데도 조선인 일류의 느긋함을 보여 긴 담뱃대를 입에 물고 유연히 노를 좌우로 흔들며 천천히 물가로 온다. 참으로 봄날에 느릿 느릿 노니는 모습과도 같다. 이를 육상에 있어서 보건대도 1동의 상옥(上屋)이라도 있지 않다면 비 올 때에는 그 대부분을 부패시키게 된다.

매년 5월 말일부터 6월 중에는 우기가 됨으로 강우가 특히 많으나 그래도 4백만근 이상 어획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여기서 말하는 斤量은 製造高를 말한다).

해조류인 미역, 우뭇가사리, 감태 등이 대단히 번성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조선인이 채취할 뿐 일본인이 채취하는 일은 없다. 감태는 옥도(沃度)의 원료이다. 앞서 일한물산주식회사에서 옥도를 제조하였으나 반출세 및 반입세가 고율이기 때문에 매년 손실을 면치 못하여 마침내 제조를 중지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도에 패류 및 일반어족이 번식되는 상황은 달리 유례를 많이 볼 수 없는 일이다.

본도의 육산이 빈곤한 것은 음료수를 얻기가 어려운 때문이다. 육지에 개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땅이 척박하고 황무하여 하루아침에 경작의 이득을 얻을 수는 없다. 때문에 최초의 이주자는 비교적 음료수가 부족하지 않은 해안을 택하고 천연산물을 채취코자함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다. 그러나 개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천 혹은 유수에 의존하지 말고 천수를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한다면 이같은 곤란은 용이하게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전부터 본도 토양이 척박한 것은 경작을 함에 있어서 조그만 시비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떠한 토지라 하더라도 비료를 치지 않고 매년 좋은 수확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본도가 목장으로서 유명한 것은 이미 앞에 말한 바와 같다.

조선인은 옛 관습을 고수하는 데 충실할 뿐 목우마의 개량발달을 전혀 기도하지 않은 채 예전부터의 소마(小馬)에 만족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 우마를 산출할 것인가를 연구하지도 않는다. 물론 이것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더욱이 단시일 안에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 내지(일본본토)에 있어서의 우마의 발달도 역시 이러했지만도 국가의 힘에 의해 오늘을 이루어 논 것이다. 우리 제주마 역시 이런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 개량시키기가 어렵다고 본다. 지금 이의 개량을 꾀하는 자 있다면 10년을 가지 않고서 면목을 일신해서 크게 되리라.

본도의 일은 모두가 개량돼야 발달할 수 있는 것 뿐이다. 개량과 발전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발언을 하지만 실제로

는 이를 실행하고 실현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금이다. 자금 있는 자는 이행하지 않는다. 요컨대 눈앞의 이익만 쫓고 백년의 대계를 꾀함은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에 아름다운 구슬이 적고 와력(瓦礫)이 많음과 같이 견식을 갖춘 사람이 적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적잖다. 눈 먼 사람에게 지도자가 필요함과 같이 정부는 이런 실명자들의 선도가 되어 이들을 이끌어 발전의 결실을 올리지 못한다면 누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함에 있어서는 관민일치의 방침을 정하여 드디어 할 일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가 본도 2백 50方里의 개발안에 대하여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려 한다.

첫째 : 본도를 개방해서 모국과의 교통을 편리하게 할 것.(즉 관세징수를 취급하는 기관을 둘 것)
둘째 : 도내 요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항만을 수축할 것.
셋째 : 도내 통로를 개수할 것.

이러한 일을 해나가면 모든 일이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이런 일은 본디 동시에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그 선후가 있을 수 없다.

만일 부득이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를 따진다면 이같은 순서에 따라할 뿐이다.

별항에 게재하는 '天與의 椎茸山'은 이 업계의 효장(驍將)이라고 할 후지타(藤田寬二郎)씨의 말을 들은 것인데 저자가 앞서 동씨를 찾아 들었던 바를 다음에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옮겨 업계에 알리고자 하는 것은 덧없이 열쇠만 쥐고서 보고의 소재를 모르는 이를 위해 알리려는 작은 뜻에서이다.

• 天與의 椎茸山 藤田氏의 말

제주도의 육상사업 중 가장 유리한 것은 한라산 일대의 울창한 대삼

림을 이용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약간 아전인수격이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바이기에 지금 그 유리한 점을 지적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본도는 기후가 온화하고(거의 구주북부와 비슷하기 때문에 내지인이 이주하기에는 가장 적당하다) 한라산 일대의 대삼림은 약 5만町步 남짓쯤 된다. 그 나무들은 표고재배에 가장 알맞은 서어나무가 10중 7을 차지하고 다음은 졸참나무가 많다. 소위 천혜의 표고산이라고 말함도 굳이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표고재배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유례가 많지 않은 유리한 점이 있다. 그것은

①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표고 菌系의 발육이 대단히 양호하다는 점
② 매년 봄·가을 두차례에 걸쳐 표고버섯재배시기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못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
③ 조선인이 수년전부터 표고업자에 고용되어 있으므로써 내지인과 친숙케 되어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임이 몹시 싸다는 점. 즉 하루 1인 24~25전 정도이고 보통 노련한 사람도 30전 이하이다.
④ 산의 구배(勾配)가 완만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쉽다는 점
⑤ 겨울철에는 다소 적설이 되지만 삼한사온으로 즉시 녹아버리기 때문에 일하는 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⑥ 각지와의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운임도 싸져서 대판에도 長崎에도 반출하기가 쉬워진 점
⑦ 삼림을 벌목하는 데 나무값이 대단히 싸다는 점.

앞에 말한 바와 같은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점에서 우리들은 39년(서기 1906) 이후 그 경영에 힘쓰고 있으나 산액도 오늘날에는 6~7천근쯤 된다. 명년 이후에는 1만근 이상에 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경영자도 그 후 속속 건너와서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들을 들어보면

면 적	경영년월	현 별	씨 명
1600정보	明治 39년	愛 媛 縣	藤田寬二郎
800정보	42년	大 分 縣	仲野幾太郎 外 1명
200정보	42년	福 岡 縣	田中尙敏
700정보	42년	大 分 縣	德永榮助
500정보	43년	岐 阜 縣	林茂一郎
500정보	44년	大 分 縣	石松助藏
합계 4,300정보			6명

이상 말한 것 외에도 새로이 사업을 일으키고자해서 동업자들이 속속 건너오고 있는 처지인데 이는 참으로 반가운 현상이다. 앞으로 이 보고는 세월을 거듭할수록 개방될 운명에 놓여 있다. 내지의 표고업자들도 하루 빨리 一衣帶水의 본도로 와서 이 유망한 보고의 열쇠를 잡고서 자원 개척사업에 나서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文責 在 著者)

부 록

名士의 활동상

두 아라카와(荒川)씨는 동향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제반사업에 대하여 異身同體나 다름없었다. 이래서 어느 쪽이든 한쪽을 말하게 되면 서로 그 반쪽이 비슷하게 됨을 인정케 된다. 그러므로 토메주우로오(留重郎)씨에 대해 먼저 말하고 이치타로오(市太郎)씨에 대해선 뒤에 설명하려 한다.

옛말에 가로되 여자와 어린아이는 키우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키우기 어려운 것은 단지 이것만이 아니다. 가까이 있으면 익숙해지고 멀리 있으면 원망하게 됨은 조선인의 常道라고 한다. 옛날의 어리석음은 솔직했던 일이지만 오늘날의 어리석음은 속인다는 것이 참으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말함이로다. 본도는 예전부터 왜구에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인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고 유전적 성벽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지만 수년 전 혹은 수십년 전이라면 모르지만 일본인들이 이곳에 상륙하여 오늘날의 기초를 닦은 그 공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아라카와 도메주오로오(荒川留重郎)씨는 빙고(備後)國(註 : 지금의 히로시마《廣島》현의 동부) 沼隈郡田島町 사람이다. 그 성질이 침착하고 대담하며 눈빛은 별과 같이 빛나서 사람을 쏘는 듯하다. 본도에서 일본인들이 여러가지 사업을 기도한 바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 실패했는데 홀로 그만은 견인자중(堅忍自重)하여 오늘날의 성취를 가져오게 됨은 그 이유가 없지도 않다. 明治27년(1824) 4월 원양어업을 목적으로 어선을 거느리고 본도 연안을 정찰, 마침내 제주군 비양도에 상륙했다. 그 정찰결과는 비료제조사업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우선 이를 시험해 본 바 과연 뜻과 같이 되었다. 이에 따라 비양도의 근거지를 對岸의 협재리로 옮겨 이에 전념하였다. 동 34년 여름 제비지장을 곽지리 및 함덕리에 설치 스스로

는 곽지리, 협재리를 주관하고 이치타로오(市太郎)氏는 함덕리를 주재케 했다. 사업이 날로 번성하고 이익도 점점 좋아짐에 따라 일본식가옥의 사무실을 만들었다. 이것이 본도에서의 일본가옥의 효시가 되었다. 본도 연안에 있어서 순수 일본가옥은 다만 이 2호 뿐인데 도내를 시찰하는 일본인으로서 이 두 집을 보고 방문하지 않거나 혹은 쉬고, 묵어가지 않는 이는 없는 형편이다.

본도에 있어서의 모든 일은 그가 관여하지 않는 게 없다. 그는 본도 기업가의 선배이다. 본도가 오늘날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 동력에는 그의 힘이 가해진 바 대단히 크다고 하겠는 바 그 예를 하나 둘 들어보겠다.

제비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明治34년(1901) 기독교 선교사의 횡포로 해서 도민이 크게 격앙하여 기독교도를 몰살하고 말겠다는 형세로 이들 교도들을 붙잡아 헤일 수 없이 죽였다. 전도에 시체가 겹겹이 쌓이고 길에도 뒹굴었다.

그때의 제주목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재해가 미치는 곳이 헤아릴 수도 없었다. 이때 荒川씨가 한 계책을 생각해냈다. 이를 일본령사(在목포항)에게 급히 보고하여 일본군대의 위력에 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진무(鎭撫)하기 어렵다고 여겨 군함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며칠 뒤에 濟遠艦이 내항하여 소요는 마침내 가라앉게 되었다. 이때의 참사자는 5백 수십 명이며 이를 야소교소동(註:天主敎亂)이라고 부른다. 그 후에도 그는 본도의 안녕과 교육 기타 공공의 사업에 예의 진력, 결실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찰서 설치 일본어학교의 창건 등 그가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굳이 그 공을 자랑하지 않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그의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지마 이치조(田島市造)씨는 시모노세키(下關)市 유수의 실업가이다. 明治 43년(1910) 봄 전 수산조합출장소장 오오타 주우로(太田十郎)씨는 병세가 악화, 재기불능케 되자 뒷일을 田島씨에게 맡기고 갔다. 그는 그 뒤를 이어 정성껏 직무를 수행하고 직언으로 기혐(忌嫌)을 피하지 않고

어업자들의 편익을 간절히 도모하였다. 사를 버리고 공에 임하는 데 용감하였다.

옛말에 이르되 한 고을이 모두 착하다고 해도 모두 착한 것이 아니며 한 고을이 모두 악하다고 말해도 모두 악한 것은 아니다. 한 고을의 착한 사람이 이를 착하다고 하고 착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악하다고 하여 비로소 선해진다고 했다. 사람은 '八面玲瓏'(어느 방면으로 보아도 아름답고 투명하다)할 수는 없으나 그의 경우는 얼마쯤 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본도의 발전지도에 관해서는 열기(列記)하는 諸氏들이 모두 이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이를 모두 기술하기는 번잡하므로 공공적 사업의 업적에 대해서는 위의 글을 통람(通覽)했으면 싶다.

아카호(赤穗宇三郎)씨는 기협가(奇挾家)로서 성격이 호탕하다. 아침에 천금을 얻었다가 저녁에 이를 잃어도 헌 짚신을 버린 것 같은 느낌조차 갖지 않는다. 明治 41년(1908) 부산기선회사의 대리점을 창립하여 부산, 목포 및 연안 각지와의 정기항행을 개시하였다. 본도 교통상에 일대발전을 촉구한 데에는 그의 힘이 크다.

교통기관의 완전 여부는 곧 문화적 구획이 되는 것인데 본도가 오늘날의 상태에 있음은 역시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는 동 44년 여름 부터 성산포에 정기기항을 실현시키려고 본사에 왕복하기 수차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론(正論)으로 마침내 이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赤穗씨는 고오베(神戶)市 熊內에서 태어났다. 불혹의 나이에 모자람에도 여러가지 경력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풍족하다. 이 모두 渡島 이전의 일인지라 지금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나카가미 도라기치(中上寅吉)씨는 이키노구니(壹岐國) 勝本町 사람이다. 성질은 溫順謙讓하고 寡默實踐型이다. 明治37년에 처음 본도에 와 성산포를 근거지로 삼았다. 그 후 몇 해 동안 실패를 거듭, 소득은 적고 손실이 많았으나 어려움이 닥칠수록 용기백배하는 강렬한 의지는 마침내 그 뜻을 관철시켜 오늘을 이루었다. 약한 부녀자를 돕고 어린 것을 지

키는 것이 그의 성질이다. 버들가지가 눈에 꺾이지 않음과 같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

후자타 칸지로(藤田寬二郎)씨는 향리를 남해의 松山市에 두고 있으며 육군출신으로 일로전쟁 때에는 그 공이 적지 않았다. 明治38년(1905) 본도에서 표고버섯 재배경영을 목적으로 東瀛社를 만들었다. 이보다 앞서 37년 8월 본도 고문관이었던 가미야(神谷卓男)씨(朝鮮總督府 서기관)가 조선정부로부터 본도에서의 식산흥업의 권리를 얻고 이를 후지타(藤田寬二郎) 모치즈키류우타로(望月龍太郎), 이모모기 료오조(五百木良三) 3씨에게 양여하였다. 3씨는 이로써 東瀛社를 조직하고 표고재배업을 일으켰다. 39년 이후는 藤田씨 獨營사업으로 나서서 오늘날엔 업계의 샛별이 되고 있다.

그는 소위 시대적인 재주꾼은 아니다. 자질이 장중(莊重)하고 독실하여 스스로 신중함이 도내에서 으뜸이다. 39년 10월 東瀛학교를 일으켜 선인(鮮人)교육에 힘썼다. 생도 수십 명 서적문구 등을 급여하고 학업을 장려하였으며 품성도야에 진력하였다. 41년 9월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이에 합해졌다. 그는 앞서 일본인회장으로 천거되어 이주자의 복지를 도모, 일본인회를 학교조합으로 함에 따라 다시 조합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렇게 인심을 모았던 것이다.

忙中閑日月이 있음으로써 영웅이라고 한다면 閑中에 閑 있음을 어떻게 일컬을 것인가. 어려운 일은 도리어 잘 되고 쉬운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칼날이 눈 앞에 번뜩이고 총칼이 좌우에 날으는데 백만의 대군을 질타하면서도 시가를 읊음으로써 사생의 경지에 초연한 맹장군도 연일 無爲閑日月 중에 무료함을 참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여기 閑中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천하를 경륜하는 그릇이 못된다. 정(靜)은 동(動)의 주가 되고 한(閑)은 망(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번(繁)은 순(純)에서 일어나며 난(亂)은 치(治)에서 싹트는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만한 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만한 사유가 있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機微가 잘 통하지 않을

때에는 일마다 사람 뒤에서 눈을 부릅뜨지 않을 수 없다.

야마구치 겐조(山口源藏)씨는 미에(三重)縣 志摩 사람이다. 비슷한 바를 옛사람에 구한다면 晏子가 그에 가깝다고나 할까. 그는 한 사람의 경정가(經政家)이다. 그는 일찍이 한국경영은 당장의 급무이기에 관민이 함께 이에 대처하여 도한자가 나날이 많아지고 있다지만 선진자의 뒤를 쫓는데 그쳐 아직 개척의 실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분연히 일어나 한국물산회사를 창업 스스로 그 지배인이 되고 明治39년4월 12명의 건아들을 사원 등에서 선발, 이들을 거느리고 본도에 상륙하였다. 성산포에 주거를 두고 본점을 개설하여 옥도 통조림, 멸치찌꺼기(締粕)제조공장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음료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겨우 2개월만에 7명의 사원이 각기병(脚氣病)을 얻어 부득이 귀국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역시 이 병에 걸려 사지(四肢)의 자유를 잃었으나 죽음으로써 본사의 성공을 기하여 나머지 사원을 격려, 기초가 겨우 튼튼해지려는데 41년 1월 병이 악화, 의사의 권고에 따라 뒷일을 도미나리 한조(富成判三)씨에게 위임하고 귀국하였다. 下關에 머물며 치료를 하는 한편 다시 본사 감독의 임무를 맡았으나 10월에 이르러서도 병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는데 富成씨가 위독하다는 전보가 날아옴에 병든 몸을 무릅쓰고 황급히 渡島하게 되었다. 이 무슨 천명인지 富成씨는 이미 작고해 있었다. 잔무를 정리한 후 오오야마 도미히라(大山富平)씨를 지배인대리로 정하고서 재차 귀국하였다.

그 후 어떤 집안의 재정정리 위촉을 받았으나 그 중임을 맡기엔 힘이 부족함을 두려워한 나머지 물산회사 지배인직을 사직했다. 약 1년반만에 정리가 끝난 후 41년 9월 한국물산회사를 일한물산주식회사로 개칭, 본점을 下關市에 설치하고 성산포에서 이전의 회사사업을 계승해서 '지점'으로 삼았다.

明治43년 8월 일한합병 후로는 모든 사정이 전과 같지 않고 여러 사업

들이 모두 혁신을 요하게 되었다. 본도에서의 사업 역시 혁신을 해야하겠기에 그 영구적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44년 10월 본점을 본도로 이전키로 결의하고 12월에 단신으로 먼저 渡島하였다. 그가 어떠한 포부를 갖고 있었는지 그 내막은 자세히 알지 못하나 멀리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것부터 먼저 챙기듯이 우선 사내 정리업무의 혁신을 단행하고 어구를 개량하였다. 한편에선 일·선인공동의 식산합명회사를 조직 스스로 대표자가 되어 총독부에 신청하는 등 疾風이 塵土를 감아올리는 듯 했다. 얼마없어 공동어업시장을 경영하여 성과를 거두는 등 본도에서의 공공사업, 위생, 교육, 식산 등 제반사업에 있어 그 면목을 일신하고 이채를 띄우면서 여러분을 대하려 하고 있다. 무릎꿇고 기다려 볼 일이다.

後　序

壯麗輪煥의 큰 건축물에 대하여 지니는 관념은 다만 그 외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뿐, 깊이 이를 탐구하여 그 미관을 이루는 소이(所以)와 그것들을 보지(保持)시키는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 어찌 건조물에 대해서 만일까. 국가에 대한 일도 또한 이와 같다. 우물을 파서 마시고 땅을 갈아 밥을 먹는데 제덕(帝德)이 무엇이 있을까고 말하는 따위도 고금이 똑 같다.

우리 제주도의 오늘이 있음도 역시 이와 같다고 하겠다. 구한국시대부터 渡島하여 오늘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있지만 그 덕이 우러름을 받지 못하고 그 이름이 죽어 잊어버려진 사람 적지 않다. 본도제비사업의 시조라고 할 마츠카와 미노루(松川 實)씨의 경우도 이와 같다. 가령 그 공명이 전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요했던 행위는 천지와 함께 무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굳이 한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컨대 '無名의 名', '無功의 功'이야말로 '최대한의 공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히 여기에 후서로서 기록하는 바이다.

明治45년 孟春

秋月居士

南鮮之寶窟 濟州島 끝

未開의 寶庫 濟州島

1923年

머 리 말

우리 제주도는 바다에도 뭍에도 무진장의 대보고를 지니고 있으면서 뜻 밖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이를 소개할만한 출판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 것을 통절히 느꼈다. 그래서 본도의 각방면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최신의 여러 자료를 기초로 한 기사를 얻어 고대신화로부터 인정·풍속·교통·통신·교육·종교의 상황 등 그 대보고를 포용하고 있는 축산·임업 및 양잠·면화·일반농사·수산 등의 개요를 기술해서 이를 널리 세상에 알리고 소개하여 내외 자본가를 대대적으로 영입하여 미개의 대보고를 개척하고 싶은 것이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많은 분이 본도를 알고 잇따라 이 대보고의 실황을 전해주신다면 편자의 바람은 그 이상 없겠다.

編者 씀

大正12年(1923) 여름

濟州島에서의 詠歌

文學博士　黑 板(구로이타)

오고나서 보면 듣기보다 높은 漢拏山
잇따른 산기슭에 소와 말
삼성혈의 산들바람에
한여름 잊게되는 濟州島

濟州島, 겨우 하루밤의 묵음이지만
어찌 잊을 수가 있을손가
우아한 모습의 한라산
그 중에도 정다운 人心

濟州島, 갯가의 파도는 거칠지만
산에는 표고 바다에는 전복
잇따르는 밭에는 조와 보리
그 중에도 밀감의 뛰어난 맛

目　　次

1. 總　說 …… 169
2. 地　理 …… 171
3. 氣　象 …… 178
4. 沿　革 …… 180
5. 風　俗 …… 183
6. 區　劃 …… 188
7. 都　邑 …… 193
8. 交　通 …… 195
9. 通　信 …… 197
10. 官　廳 …… 199
11. 敎　育 …… 213
12. 宗　敎 …… 218
13. 産　業 …… 221
　1) 普通農事 …… 224
　2) 水産業 …… 232
　3) 林　業 …… 243
　4) 畜産業 …… 252
　5) 養　蠶 …… 260
　6) 棉　作 …… 263
　7) 工　業 …… 267
　8) 商　業 …… 268
14. 財　政 …… 270
15. 金融經濟 …… 272
16. 結　論 …… 283

1. 總　　說

남선의 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주도란 어떤 곳일까. 풍광이 명미(明媚)하고 기후온화, 천산물(天産物) 풍부한, 하늘이 준 낙원이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한 번 실지 유람을 권하고 싶은 곳이다.

京釜本線 大田에서 나눠져있는 호남선을 남하하여 종점 목포역에서 기차를 버리고 제주행 朝郵기선에 올라 보통 날씨면 13시간으로 제주의 수도, 제주항에 도착한다.

부산으로부터 제주행을 타면 40시간쯤을 요한다. 지도를 보면 조선반도로부터 아득히 남쪽으로 떨어진 바닷가운데에 달걀이나 감자를 굴려 놓은 것 같은, 커다란 섬이 보이는데 그것이 곧 낙원이다.

세상에는 제주로 가는 것을 마치 가장 사랑하는 처자식과 생이별이나 하는 것과도 같이 두려워해서 섬을 찾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목포에서 겨우 하루 밤, 부산에서는 두 밤으로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으므로 사랑하는 마누라와 이별의 잔을 나눌 필요도 없다.

단지 가을·겨울에는 서북풍이 세차기 때문에 제주항에 상륙할 수 없어 섬의 동쪽 끝. 성산포에서 상륙해야만 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매우 드물다.

이 섬은 반도의 남단과 큐우슈(九州)의 고토(五島)열도와의 중간에 있어 五島까지는 약 1백마일, 바람이 적당한 날에는 범선으로도 단 하루 밤에 갈 수 있다. 섬의 크기는 일본의 이키(壹岐), 쓰시마(對馬), 오키(隱岐), 사도(佐渡)의 네 섬을 합친 만큼의 면적이다. 즉 동서 20里, 남북 10리, 해안도로 64리라고 일컬어진다(註 : 1리=4㎞). 또 이밖에 추자열도도 본도의 치하에 들어가며 우도, 가파도, 마라도(馬羅島), 비양도 등 대소

37개 정도의 부속도서를 지녀 면적 1백20평방리, 인구 20여만을 헤아리는 방대한 섬이다.

이 섬은 면적이 넓을 뿐 아니라 기후는 사계절 온화하여 산 이외에는 겨울에도 눈이 내린다고 할 정도가 못 된다. 토지는 비옥하고 임야는 매우 넓으므로 임업에도, 목축에도, 농사경영에도 매우 유망하며 또 사면환해이기 때문에 각 방면으로부터 조류를 따라 수천만의 어족이 모여옴으로 어장으로서도 반도에서 손 꼽을 정도. 해안에는 무진장이라고 할만큼의 전복 소라나 미역 우뭇가사리가 번무(繁茂)하고 있어 「天與의 樂土」란 애기도 황당무계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이 섬의 결점이라고 할만한 것은 해안선이 아주 단조로와 연안의 굴곡이 모자라기 때문에 적당한 묘지(錨地)를 갖춘 좋은 항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섬의 부원(富源)을 개발하려면 첫째로 항만의 수축부터 덤비지 않으면 안된다. 당국에서 불원간에 대대적인 항만수축계획을 세우려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후하며 풍토하며 도민의 용감민첩한 사실, 근면소박한 미풍 등등이 대자연의 부원을 개척하기에 적당한 요소가 너무도 많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고장 사람들로 하여금 침을 흘리게하는 보고란 무엇일까.

1. 소·말·돼지는 10여만 마리, 섬이 바로 그 목장이며 그 중에도 소·돼지의 육제품가공업은 장래 가장 괄목할만한 대자원을 풍부히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版圖 내에서 비길 바가 없다는 것.
2. 헤아릴 수 없는 어족이 섬의 모든 주위에 몰려와 패류(貝類)나 조류(藻類)가 무진장 번식하는 천연의 대어장이란 것.
3. 웅대한 대삼림지를 소유하고 있어 임업 경영에 절호의 토지라는 것
4. 한라산의 중턱에는 광대한 삼림이 있어 표고재배업에 가장 유망하다는 것

5. 어류, 패류의 통조림업, 沃度제조업, 멸치粕공장, 조개단추공장 등으로 세상 사람이 착안하고 있다는 것
6. 감귤재배지로서 전조선중 유일무이의 호적지라는 것
7. 면화·양잠·약용작물재배지로서 적지가 아닌 땅이 없다는 것
8. 양계·양봉은 천혜적생산이 풍부하며 그 생산물 판매상의 地利를 갖춰 그 산업적 가치는 전조선에 견줄 바가 없는 호적지라는 것.

이 밖에 헤아려보면 여러 유망한 부원은 가는 곳마다 널려있어 그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미지의 蓬萊島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자. (註 : 蓬萊는 中國傳說에 있는 三神山의 하나로 東海中에 있어 仙人이 살며 不老不死의 땅으로 여겨지는 靈山. 여기서는 濟州를 가리킴)

2. 地　　理

이 大蓬萊島는 우라시마 타로(浦島太郎)처럼 거북의 등에 타지 않아도 쉽게 안전히 건널 수 있는 곳이다.(註 : 浦島太郎은 거북의 등을 타고 바다 속의 龍宮을 찾아 갔었다는 일본 동화의 주인공).

위도로는 후쿠오카(福岡)市로 부터 약간 북쪽, 이 섬의 중앙에 솟아있는 한라산의 정상은 동경 126도52분, 북위 33도22분으로 일본의 북구주에 해당된다. 한라산은 표고 6천7백85피트로 반도 제2의 고산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본도의 원야는 이 거대한 산의 광막한 기슭으로, 대목야나 삼림조영지도 모두 이 산의 대사면에 있다.

이 산의 정상에는 백록담이라고 불리우는 분화구 자욱이 있어 연중 물이 고이고 산신령이 못 속에 숨어 있다고 전해진다. 도민들이 오랜가뭄으로 곤란받을 때는 목사에게 부탁 제단을 마련하여 빌므로써 비를 내리게 했다고 한다.

산정으로부터 1리쯤 사이는 분재로서 귀중하게 여겨지는 眞柏지대로, 분재를 즐기는 사람들은 바위굴 집에 머물면서 眞柏 채취를 하는 것이다. 眞柏帶의 바로 밑은 躑躅帶(진달래밭)로 한 그루의 크기가 직경 2間이나 되는 것이 수십정보나 펼쳐있어 눈이 번쩍 뜨일만한 장관을 이룬다. 5~6월께의 등산자들은 이 대화단이 눈 앞에 펼쳐질 때 누구나가 놀라운 소리를 지른다. 그 밑 1리쯤에는 樅地帶(전나무밭)인데 제주 특유의 뗏목(테우)의 재료는 전나무의 통나무를 쓴다.

그 밑 약 2리 안팎의 나비는 대삼림지대로서 자작나무 졸참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의 거목이 울창하여 낮에도 아직 어두워 도민의 도끼가 미치지 않은 곳이 광대한 면적에 이른다. 이 지대 안에서 동·남·서의 삼면은 표고재배지로서 세상에 알려져 현재도 일본인 자본가 십수명이 표고를 재배하고 있다.

이 삼림지대를 내려가면 옛날의 관영대목장지인데 미래의 대목야와 삼림조영지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목장지로부터 해안선에 이르는 산의 모든 주위의 대완사면은 수백년 전부터 도민의 노력에 의해 개척된 大沃野로 본도의 남면에 기울어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개용수의 어려움 때문에 논이 될 수 없는 아쉬움은 있으나 보리·조의 주요작물을 비롯 고구마·면화·약용식물·감귤류 등의 적당한 재배지가 되고 있다.

본도의 해안선은 굴곡이 매우 적어 천연의 良港을 구할 수 없는 게 천추의 한이다. 제주항 같은 곳은 항만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 단지 別刀·서귀포·성산포·모슬포·추자항 등 몇몇 항만에 어느 정도의 인공을 가하면 상당한 상항(商港) 또는 어항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라산의 外周나 해안선을 따라 점점이 산재하는 여럿의 소독립산은 한라산을 제왕으로 하여 그 주위에 群臣百官이 정중하게 늘어선 형태로서 그 산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즉 그 대소나 높낮이는 있지만 모두가 철확(절구)형으로 정점에 소분화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또 이 섬의 하천은 거의 말라있어 비 올 때 이외는 유수를 보기 드물다. 산으로부터 흐르는 물은 모조리 지하수가 되어 해안선에 이르러 용천으로 솟아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온 섬이 화산암으로 이뤄져 암반이 엉성한 때문에 지표로 흐르지 않는 것이다. 평상시 물이 흐르는 곳은 제주면의 都近川, 左面(中文)의 小加來川, 右面(西歸)의 江汀川·洪爐川 정도이다. 이들 하천에는 은어·장어 등이 풍성하여 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침을 흘리게 하고 있다.

여러 하천의 지하수로서 해안용천이 되는 것은 도민의 집중과 커다란 관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민의 대다수는 해안선을 따라 모여들어, 한 부락 7백, 8백이라는 대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들 대부락은 주로 음료수의 풍부에 기인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산간부락쪽은 땅이 척박하다는 것과 이 음료수의 관계로 해서 인구가 적으며 신탄업(薪炭業)이나 목축업을 겸하고 있다. 옛날엔 삼림에 불을 질러 나무를 태운 터에 메밀이나 보리·담배 등을 심어 생활했었지만 지금은 이런 화전이 금지 당하고 있는 이들 주민은 낮은 곳에 고인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적은 것은 위장이 튼튼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有人 부속도서 서넛을 소개해 보자.

1) **추자도** : 上島·下島·橫干島·秋浦島등의 군도로 이뤄지는데 이들 섬마다에는 하나 또는 여러개의 부락이 있으며 상도의 동쪽에 면한 곳은 바다가 깊고 灣入되어 있어 좋은 묘지를 이루고 있다. 풍파 때문에 기선이 제주항에 입항할 수 없을 때는 이곳에 피난토록 되어 있다. 또 이 항구는 어업의 근거지가 되어 있다.

2) **우 도** : 본도의 동쪽 끝 성산포와 바로 이웃한 섬으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마치 소가 드러누워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 섬

의 全周는 4리(약 16㎞)나 되며 남녘 한 구석에 등대가 있다. 패조류가 풍부하며 또 고구마의 산지이다. 본도와의 사이의 水道는 기선의 피난지로 되어 있다.

3) **가파도** : 본도의 서남쪽 약 2해리(註 : 1해리는 1,852m)에 위치하는 편평한 작은 섬으로 주위 약 1리, 주민 1백호. 해산물이나 고구마의 산지로 이섬 부근에는 암초가 많고 조류가 급하여 옛부터 많은 선박이 조난한 일이 있다. 明治28년(1895)의 南洋丸 침몰, 明治43년(1910)의 英國旗艦 베트폴드호(9천5백t) 침몰 등으로 항해자를 떨게 하고 있다.

4) **마라도**(馬羅島) : 가파도 남쪽 약 5해리의 해상에 고립한 작은 섬으로 주민 12~13호뿐. 도민의 음료수가 바닥 났을 때는 높은 곳에 화톳불을 피움으로써 가파도민에게 긴급을 고하여 급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 섬의 한쪽 구석에 등대가 있다. 가파·마라 두 섬 사이의 水道는 유명한 難所로 한사리 때 조류가 거칠게 되면 마치 큰 폭포와도 같이 하얀물결이 파란을 이루고 飛沫이 충천하여 안개를 뿌려대는 광경을 빚어낸다.

5) **비양도** : 본도의 西北岸 협재리 앞바다 10數町(註 : 1町은 약 1백9m)에 위치하는 이 섬은 옛날 한라산의 대분출 때 날라와서 솟아올랐다고 전해진다. 이 섬은 주위 30町, 주민 30호이며 섬의 중앙이 절구 모양으로 움푹 패어 옛날의 분화를 말해주고 있다. 이 곳은 어업의 근거지로, 협재리와의 사이의 水道는 기선의 피난지가 되어 있다.

제주도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1. 한라산을 비롯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소독립산은 한결같이 원추형을 이루어 그 중앙에 분화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는 것.
2. 대소 많은 하천들이 거의 유수를 이루지 않고 지하수로서 해안에 나타나 용천으로 흘러 나온다는 것
3. 도민의 음료수는 해안의 간조선상에서 이를 떠올리도록 되어 있

다. 산간촌의 주민들은 이 맑은 음용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고여 있는 좋잖은 물을 마시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4. 이상과 같이 음료수 관계가 주인(主因)이 되어 주민의 대다수는 해안을 따라 대집단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
5. 전도가 화산의 용암으로 덮여있고 그 암석은 많은 공허를 지니고 있다. 주민은 이 돌을 주택이나 도로, 밭의 경계로 이용하여 성벽 대용으로 하고 있다.
6. 해안선의 암석도 그 거친 것을 만지면 아플듯한, 서로 들어 맞지 않는 암석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이 해저까지 연장되어 미역감태 등의 알맞는 부착면을 제공하며 또 패류·어류의 좋은 서식처가 되고 있다.
7. 바위투성이의 곳곳에 10정이나 20정 내지는 1리나 기다랗게 이어진 모래톱이 있다. 이 모래는 조개껍질이 많이 섞여 있으므로 도민들은 이것을 경작지에 신고가 토질개량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이 큰 모래사장은 멸치曳網의 알맞는 어장이 되어 있다.
8. 전도의 경작지는 모두 화산회로 이뤄지는 검고 가벼운 토양이다. 맑은 날이 오래 계속될 즈음의 농부의 얼굴은 흑인 이상으로 이 회토로 검게 되어 있다. 그런 토질이므로 파종후 우마로 밭을 밟도록 하여 발아를 쉽게 하고 있다.

<附　記>

名勝古跡

본도는 중앙에 한라의 수봉(秀峯)이 우뚝 서 있고 연안에 괴암기초(怪岩奇礁)가 있어·가는 곳마다 풍광이 명미한 낙원이지만 교통이 불편한

때문에 문인묵객(文人墨客)이나 풍류의 인사를 맞는 일이 적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제 잠시 이를 소개해 보자.

1) **한라의 기봉**(奇峰) : 이 산은 해발 6천7백척 이상이나 되어 산자수려, 어디로 부터 봐도 그 고상한 모습에 변함이 없는 것은 富士山을 방불케 한다. 그 절정에는 높이 수백 척의 단애가 있어 그 한가운데에 백록담이라는 못이 있어 천고(千古)의 물을 가득히 채우고 있다. 못 속에 鮫龍이 숨어 있어 큰 비가 내리려고 할 때는 승천한다고 전해진다. 산정 부근에는 분재로서 널리 알려진 眞柏(칙백나무)이 있고 그 밑쪽으로는 철쭉(진달래)의 대화원이 있다. 그 사이에 수백 종을 넘는 고산식물이 꽃을 피워 아름다움을 겨루고 있다.

2) **三姓穴의 松風** : 제주성밖 수정 남쪽에 노송이 울창하게 하늘을 덮은 숲이 있다. 이곳이 옛날 三神人이 출현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古跡으로 많은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러 온다. 소나무는 천년의 푸르름을 먹음으며 성내 및 부근의 바다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풍광이 아름다운 곳으로 봄 가을의 좋은 계절에는 이 땅을 찾는 손이 적지 않다.

3) **龍淵 夜泛** : 제주성밖 용담리에 있다. 이 내의 상류는 大川(한내)라고 일컬어 바다로 향하는 곳으로 水力은 수십척의 암벽을 종단하여 여기에 수십척의 심연(深淵)을 이루고 있다. 냇물은 맑고 깨끗하며 여름 가을에는 양안(兩岸)에 각종 꽃이 만발하여 그야말로 기승(奇勝)의 이름에 어울린다. 풍류의 선비들은 작은 배를 중류(中流)에 띄워 술잔을 기울이고 시음(詩吟)을 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한 여름 밤 편주(扁舟)를 중류에 띄우면 현낙(絃樂) 소리는 암벽에 메아리치고 백어(白魚)는 연못에 뛰놀고 밝은 달이 동산에 떠오르는 등 시심을 자아내게 한다.

4) **城山 奇岩** : 고려 元宗11년(1270) 김통정 등이 성산에 성을 쌓고 호를 파서 성채를 구축하고 반항했다. 당시의 도주인 星主 高仁 등이 이를 정복할 수 없어 3년이 지난 다음 원의 병사와 공모하여 이를 평정

했다고 한다. 이때 성채를 부셔서 다시는 그곳에 의지할 수 없게 했다. 이 산은 삼면이 바다에 면하며 수백 척의 절벽이 깎아지른 듯이 서 있고 중앙은 함몰되어 있다. 이것이 분화구이며 그 주위의 암초수는 99峯을 이루어 있다고 한다. 그 안에는 용이 으르렁대는 게 있으며 호랑이와 닮은 것도 있으며, 달리는 말 같은 것, 성내는 것, 웃는 것, 잠 자는 것 등, 실로 백태(百態)의 기승(奇勝)이 있다.

5) 天帝淵의 飛瀑 : 서귀포 서쪽에 있는 소천의 중류에 있는 비폭으로 높이 72척 너비 3장, 현애(懸崖)로부터 심연에 떨어지는 냇물은 맑고 깨끗하며 봄의 꽃, 가을의 단풍은 선녀가 짜놓은 비단과 같고 여름에도 오히려 추위를 느끼는 곳이다. 이 용소를 天帝淵(또는 天地淵이라고 한다. 譯者 註 : 필자는 西歸浦 天地淵과 中文 天帝淵을 同一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이라고 하여 못속에는 교룡(鮫龍)이 숨어 있어 비가 내리려고 하면 수면에 떠올라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아마도 이는 교룡(蛟龍)이 아니라 대만(大鰻)이 서식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잘못 전하는 것으로 최근에 6관(註 : 1관은 3.75kg) 안팎의 대만을 가끔 잡은 일이 있어 현재 제주도청의 표본실에도 보존되고 있다. 요즘에는 이 낙차의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일으키고 문명적 시설을 해보고 싶다고 떠들고 있다.

6) 山房山의 眺望 : 대정읍 남쪽으로 1리 남짓의 해안에 솟아있는 독립산이다. 옛날 한라산의 한 봉우리가 이곳에 날라온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온 산이 겹쳐진 암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초(奇礁)가 솟아올라 바다를 향한 곳은 그야말로 다시 없는 조망을 이룬다. 산은 표고 8백척이며 중턱에 대동굴이 있어 僧이 살면서 굴암(窟庵)이라고 호칭했다. 맑은 샘이 이곳에서 솟아 오르는데 그 차거움이 살을 에는 느낌이다. 비 오는 아침, 달 뜨는 저녁에 시심을 불러 일으킨다.

7) 竹島의 古戰場(註 : 遮歸島) : 太宗6년(1406) 7월 왜구가 배를 이끌고

정의로부터 내습했다. 안무사 이원항(李元恒) 판관 진준(陳遵) 등은 병선으로 맞아 이를 치자 왜구는 퇴각했다. 이 섬 전주(全周)는 석벽이 높이 솟아있어 천험의 땅이다.

제주 대정 정의의 삼성 외에 조천·명월·별방·화북·어등포(행원리)·수산(수산리)·서귀(東海)·서귀리·모슬포 등에 진(鎭) 또는 수전소(水戰所)라고 하는 해안방비의 소성채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황폐했다.

3. 기　　상

본도는 중앙에 해발 6천5백척의 고봉이 있고 이 고봉을 분수령으로 하여 남제주와 북제주로 나눠져 있다. 북제주의 경사는 완만하고 남제주는 약간 가파르다. 또 동·서부에 비하여 평지도 많으므로 기상도 북과 남, 동과 서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섬 전체의 면적은 일본의 일현과 비슷하여 온대로부터 한대에 걸친 기후이지만 대체적으로 온난하다. 그리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해양의 조절을 받아 한서의 차가 적다. 또 풍우의 변화가 많고 청우한란(晴雨寒暖)의 작은 순환이 있음은 마치 육지부의 삼한사온과 비슷하다.

본 기사의 자료는 제주읍내에 있어서의 간이관측에 의한 것인데 북제주의 1월의 평균온도는 섭씨 5.2도로 최저로 영하 2.9도까지 내려가는 일도 있지만 8월의 평균기온은 섭씨 27도 내외로 최고 35도 이상 오르는 일은 매우 드물다. 특히 남제주의 지청소재지 서귀포에서는 1월에도 최저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없다.

또 북제주와 남제주는 대개 섭씨 3도의 차가 있다. 그래서 남제주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일이 드물지만 북제주에서는 12월 3일부터 뒷해 2

월 28일까지가 결상기(結霜期)이다.

눈은 두세 번 내리지만 지상적설이 한치 남짓 되는 일은 드물다.

강수량은 연간 1천3백77미리 내외로 예년 6월께부터 증가, 7·8·9월에 이르며 10월에 들어서 줄어든다. 북제주보다 남제주쪽 우량이 많은 게 보통이다. 이는 풍향과 산맥과의 관계에 따른 것인데 한편 제주도의 남북 해면은 구로시오(黑潮)해류의 영향을 받는 일이 적잖은 것 같다.

바람에 있어서 연간 최다풍위는 북풍과 북동풍으로, 북서와 남서풍동남풍이 이에 뒷따르며 남풍은 매우 드물지만 대체적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북풍 또는 북동·동남의 두 바람이다.

겨울철의 북북서풍과 여름철의 남서풍과는 제주의 계절풍(monsoon)이다. 그리고 제주는 해도이기 때문에 초가을께부터 태풍(typhoon)의 내습을 피할 길 없다. 더구나 그 세력은 상당히 맹렬하다. 조선 다도해의 농무(濃霧)는 유명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선박이 입는 피해는 적잖다. 해운업자들에게 있어서는 難所이지만 본도는 다도해에 접근해 있지만 다행히 농무는 다도해에 비하면 아주 적다.

본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지방과의 기상을 대조해 보면 별표와 같다.

	제주읍내	釜山	木浦	京城	下關	長崎	大阪	和歌山	鹿兒島
평 균 기 온	16.0	13.5	13.1	10.8	15.1	15.7	14.4	15.5	16.6
평균최고기온	18.7	17.4	17.5	16.3	18.8	19.5	19.7	20.2	21.5
평균최저기온	12.6	9.9	9.8	5.9	12.1	12.6	10.7	11.6	12.5
연 강 수 량	1,377.3	1,449.9	1,035.2	1,152.1	1,677	1,921.6	1,378.7	1,415.2	2,236.3
연 증 발 량	1,122.5	1,433.3	1,356.1	1,138.8	1,869.9	1,288.4	1,304.7	-	1,289.6
폭 풍 일 수	72	118	177	18	90	91	78	39	57
쾌 청 일 수	88	95	50	70	36	45	45	39	55

비고 : 기온은 섭씨. 우량은 粍(밀리)를 나타냄.

이를 개괄해 보면 본도의 기상은 다음의 몇 항목에 귀착한다.

1. 본도는 남쪽의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온은 조선반도의 평균 온도보다 높을 뿐 아니라 때때로 난류가 연안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갑작스레 기온이 높아지는 일이 많다. 이 경우에는 남 또는 남서의 풍향으로 기압이 난류를 밀어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때때로 서북의 강렬한 풍향으로 변화하는 일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갑자기 기온이 저하하여 몽고의 한기를 본도로 직송한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 이 현상은 겨울철에 많다.
3. 북제주와 남제주의 기상상의 차이는 현저하다. 즉 온도에 있어서 평균 3도의 차가 있으며 남제주는 우량이 많고 결상(結霜)이 없으며 강설도 적다.

4. 연　　혁

본도는 옛날에 탐라국이라고 했고 또 모라(毛羅)·탐모라(耽牟羅)라고도 쓰여 있다. 전해지는 바로는 옛날에 3神人이 있어 長을 良乙那, 次를 高乙那, 셋째를 夫乙那라고 하며 날마다 야외에서 유렵(遊獵)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고 있었다. 어느날 자니(紫泥)를 바르고 봉해진 나무상자가 바다 위에 떠올라 동쪽 해변에 이르렀다. 상자를 열어보니 푸른 옷의 처녀 세 사람과 송아지 망아지 오곡(五穀) 등을 실고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이다. 그 從者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자이니라. 우리 왕이 세 딸을 낳았다. 서해에 신인을 내려 직시 나라를 열려고 하는데 배필이 없다. 이 세 여자를 보내온 사연인즉 조속히 배필 삼아 대업을 이루도록 하라고 말하고는 사자는 구름을 타고 홀연히 사라졌다. 三乙那는 곧 연령 순서대로 장가를 들어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송아지

망아지를 키워 끝내 이를 번식시켰다. 이들이 본도민의 조상이라고 한다. 지금의 제주성내 남문밖 數町이 되는 곳에 三姓穴이라는 고적이 있다. 구릉지에 위치하여 성의 안팎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노송이 울창하여 천고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다. 이 땅이 3신인이 출현한 곳으로 현금의 사우(祠宇)는 모두 개수되어 그 안에는 6牌를 모시고 사우의 배후에는 3신인 출현의 고혈이 있어 청태(靑苔)에 덮여있고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태고의 모습을 헤아리게 한다.

이렇듯 三姓氏가 개국하면서부터 탐라국이라고 칭하는 독립국이 되었지만 백제의 시조 온조(溫祚)가 일어나서 마한을 병합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충청·경기를 다 덮치자 그 세력이 사린(四隣)을 눌러, 탐라 또한 그 위풍에 눌려 공물을 바치며 신사(臣事)했다.

그 후 백제에 복종하여 周文王 2년 탐라의 사자를 보내어 예를 차리고 은솔(恩率)로 삼았다. 東城王 20년 탐라가 공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친정(親征)하여 武珍州(지금의 光州)에 이르렀다. 탐라국왕이 크게 두려워하여 사죄하자 곧 정벌을 중지했다. 백제가 망하자 신라 文武王 원년 탐라의 좌평(佐平) 은솔이 항복하여 신라에 복속(服屬)했다. 고려가 일어나자 太祖 20년 탐라왕이 태자 末老를 입조(入朝)시켰다. 그에따라 星主 태자에게 작(爵)을 하사했다. 肅宗 10년에 처음으로 탐라를 군으로 하고 毅宗 때 군을 현으로 내려 영을 두었고 高宗 때 부사를 두었다.

元宗8년 초적(草賊) 문행(文幸)이란 자가 난을 일으킴에 부사 최탁(崔托)이 병을 일으켜 이를 토벌했다. 11년 반적(反賊) 김통정이 삼별초를 손에 넣고 진도에서 침략을 자행했으나 등려(登麗)가 이를 평정할 수 없어 3년을 넘긴 다음 방경(方慶) 등 원의 원병을 얻어 이를 토벌했다. 뒷해 원이 초토사(招討使)를 두었다. 忠烈王 원년 다시 탐라라고 호칭했다. 2년에 원이 다시 군민총관부(軍民摠管府)를 두고 3년에 동서아막(東西阿幕)을 세워 소·말·낙타·당나귀·양을 방목하고 달로화적(達魯花赤)을 보내어 이를 감독케 했다. 10년 원은 탐라에 안무사를 두었다. 20년 왕이 원에 청하여

탐라로 환원되다. 원의 승상(丞相) 완택(完澤) 등이 임금의 뜻을 받들어 머슴들을 되돌리다. 21년 탐라를 제주로 개칭하고 목사 판관을 두었다.

忠肅王5년 초적 용엄복(用嚴卜) 등이 난을 일으키자 왕자 문공제(文公濟) 등이 이를 토벌했다. 恭愍王11년 원의 목자(牧子)가 청하여 다시 만호부(万戶府)를 두었는데 16년 원이 망하고 명의 太祖가 즉위하기에 이르러 명에 속했다. 그 때 원의 목자가 거칠고 살상을 자행하여 김유(金庾) 등이 이를 토벌, 목자들이 기르던 말을 헌납했다. 18년 비로소 金을 받들어 世世 안무사를 두었다.

淸祖太祖의 10년 만호부를 목사 겸 절제사로 삼다. 恭淸王2년 판관으로 하여금 교수(敎授)를 겸하도록 하고 16년 안무사 오식계(吳湜啓)가 한라산 이남의 땅을 분할하여 대정·정의의 2현을 두었다. 世宗 10년 감목관을 개정하여 판관을 겸하도록 하다. 太宗16년 대정·정의 및 제주를 군으로 하고 각기 군수를 두었다. 光武10년 목사부가 폐지되고 목사의 이름도 이에 소멸되었다. 그 후 전라남도에 예속됐다가 明治43년(1910) 8월 일·한이 병합되고 10월에 조선총독부를 두게 되었고 大正3년(1914) 3월 대정·정의 2군을 제주군에 합병했다.

추자도는 본디 靈岩郡에 속했다가 뒤에 제주목사청의 지배아래 들어갔으며 집강사령(執綱使令)을 두었다. 뒤에 완도군에 속했다가 大正3년 3월 군 폐합때 제주군에 합쳐 大正4년 도제를 실시, 군수를 폐하고 도사를 두어 경찰서장을 겸무토록 했다.

大正3년 여름 인류학자 도리이 류우조(島居龍藏)가 본도를 시찰하고 제주보통학교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본도민의 혈통은 절반 일본인이다. 三神人의 배필에 관한 신화나 그 용모, 골격 및 기질 등으로 부정할 수 없는 여러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2. 古史記에 수록된 바로는 垂仁천황이 그 충신으로 하여금 常世國으

로 홍을 구하러 보냈다고 되어있다. 이 귤을 얻고 11년만에 귀조(歸朝)해보니 천황은 이미 붕어(崩御)하고 있었으므로 귤을 왕릉에 올리고 자진(自盡)했다고 한다. 이 기사의 상세국은 全鮮에서 귤이 생산되는 곳은 제주뿐이니 본도로 추정된다.

3. 본도민의 목축방법 및 마구수피(馬具獸皮)로써 만든 외투모(外套帽)를 착용하는 풍습은 원시대에 몽고의 목축업자를 도래시켰던 확증으로 실지로 내가 몽고지방을 탐험했을 때 목격했다.

또한 본도는 옛부터 국사범의 유형지가 되어 또 중앙정계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지사들이 도망자가 되어 본도를 은둔장소로 삼아왔는데 그 자손이 본도민의 혈액과 섞여 용감기민한 풍토를 양성시켰다고 볼 수가 있다고 大正12년 8월 쿠로이타(黑板) 동경제대 교수가 내도 때 강연한 바 있는데 島居씨의 전기 二說과 꼭 같은 내용이다.

5. 풍　　속

본도는 바다 위에 고립한 별천지이므로 인정·풍속·언어 등은 조선반도와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리라. 산쪽의 농민이 머리에 개가죽의 이상한 두건을 쓰고 개가죽의 외투를 입은 모양은 얼핏 보아 표한동몽(慓悍獞蒙)의 인종 같이 보이지만 접촉해보면 유순하고 지둔(遲鈍)한 야인이다.

일반 도민은 국어(日本語)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고 남녀 모두 내지인(일본인)과 쉽게 친해지며 길에서 부인을 만나도 육지 사람과 같이 길을 비키는 일도 없으며 처녀 신부라 해도 천으로 얼굴을 덮든지 하지 않는다. 또 짐을 머리에 이는 일이 없으며 작은 것은 바구니에 넣어서 들고 큰 것은 등에 진다. 또 여자가 외출할 때는 가진 물건이 없어도 작은 바구니를 끼고 다니는 기풍(奇風)이 있다.

남녀 모두 근면하며 해촌의 하층부인은 나체로 바다에 잠수하여 전복 소라 해조류를 채취하는 기능을 갖는데 그 민첩한 작업이나 체격의 보통을 넘는 발달상에 놀라게 될 것이다. 해촌의 부녀자는 11~12세경부터 해녀질을 연습하기 시작, 18~19세에서 한몫을 하게 된다. 산촌으로부터 어촌에 시집 온 사람도 역시 해녀 연습을 하게된다.

몇 해 전 어떤 일본인이 추위 속에 갈매기를 쏘아 그것을 붙잡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어 진퇴의 자유를 잃었을 때 세 사람의 해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다에 뛰어들어 그를 건져올렸지만 일본인은 끝내 얼어죽고 말았다.

이들 해녀는 제주의 해안이 좁다고, 경상남·북도로부터 강원·황해·함경 여러 도로부터 支那海(중국해)까지도 출가하게 되었다. 그럴 경우 남자는 배를 젓는다든지 취사나 애기보는 일까지 맡았고 여자는 태왁 밑에 망사리를 달고 감연히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다.

또 도민들이 타지방과 교통하는 데는 선박을 사용했지만 항해술에 익숙치 않았으므로 표류·溺沒이 잇따르는 형편이었다. 이런 일이 원인이 되었는지, 사내아이를 낳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는 풍습이 있어 여자의 수가 항상 남자보다 많아 축첩(蓄妾)의 풍습이 널리 퍼졌다.

또 본도는 관존민비(官尊民卑)의 풍습이 왕성하여 하잘 것 없는 시골의 비관(卑官)이라 해도 이를 얻으면 거들먹거리는 경향이 있다. 옛날엔 매관(賣官)의 폐풍(弊風)이 왕성하여 일단 군수의 지위를 얻으면 자손까지 번창한다고 전해져 지금도 小吏가 되고 싶어하는 풍습이 있다.

또 도민은 옛부터 귀신을 모시며 남녀 무당이 많이 있어 남의 병을 고치고 재액(災厄)을 물리친다면서 밤낮으로 북장고를 치고 괴상한 주문을 외우며 춤과 함께 귀신에게 기도하는가 하면 장병자(長病者)는 약수를 마시고 무당의 주문을 기뻐하는 풍습이 있다.

또 조상의 분묘를 소중하게 여기는 미풍이 있다는 것은 육지부방면과 다름이 없다.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풍광명미(風光明媚)한 곳에 분묘지를 구하기 위해 시체를 가매장한 채로 여러 해를 보내고 또 장사날

이나 시간, 방향, 장소를 정하기 위해 여러 달씩 허송하는 일도 있다. 이런 경우 시체가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 목관의 안팎에 송진을 바른다고 한다.

조혼(早婚)의 폐습도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14~15세의 소년이 20여세의 아내를 맞는 일이 흔하다. 초등교육을 받으면서 장가 들며 중등교육을 받는 자의 대부분은 기혼자이다. 이런 일이 신체의 발달이나 뇌의 발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줌은 물론이므로 학교방면에서는 조혼의 폐단을 교정(矯正)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민들은 옛부터 막걸리를 마시는 일이 없이 조로 만든 소주(燒酒)를 위 아래 사람들이 함께 마시고 있으므로 자연 그 양조법도 능숙하다.

이 섬에 와서 진기하다고 느껴지는 게 두셋 있다. 그것은 마을의 네 구석에 커다란 롤러식 돌방아를 말이 끌도록 하여 빙빙 돌면서 일종의 구슬픈 기성(奇聲)을 내는 일(譯者 註 : 말방아와 말방아 끄는 소리), 또 다른 하나는 밭에 조를 파종한 후 30~40두의 우마를 서너명의 농부들이 몰아세우며 괴이한 노래를 부르며 밭을 밟는 일, 끝으로 하나는 뗏배에 타서 원시적인 뜰망으로 「자리」라고 하는 작은 고기를 건져올리는 일로, 이런 풍습을 볼 때엔 태고적의 유풍을 헤아리게 한다.

附・巫堂의 祈禱

또한 본도의 무당에 대해서 한 마디 하건대, 그 기원은 알아내기 어렵지만 이미 수백년 전부터 각종의 화복길흉을 귀신에게 기도했던 것은 분명하다. 약 30년 전 경찰령으로 무당을 직업으로 삼는 자는 우민을 현혹하고 공안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하여 기도를 엄금했지만 각지에 산재해 있는 무당들은 생활에 쪼들려, 경찰관의 눈을 피하여 남 모르게 기도의 의뢰에 응하고 있었다. 大正2년(1923) 신촌리의 愼某가 서울(京城)의 일본인 某와 상통하여 숭신조합(崇神組合)을 구성, 제주지부의 조합원

이 약 2백에 이르고 있다.

무당은 독립된 직업으로 보통사람들로 부터는 천시 당하여 대개는 자손에게 그 직업을 계승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도중에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 옛날엔 매해 입춘의 날에 목사청에 모여들어 1里洞으로부터 검은 소 한 마리씩을 바쳐 목사 및 도민의 안녕 행복을 빌고 더불어 농작물의 풍요를 산신해신에게 빌었다.

무당의 복장은 보통 조선옷이지만 위는 소맷부리의 아랫쪽을 꿰매지 않은 삼옷을 입고 남자무당은 그 위에 「셥」 또는 「쾌자」를, 여자무당은 「손」 또는 「쾌자」를 입는데 옷감은 홍견(紅絹) 또는 명주를 쓰는데 무당의 빈부에 따라 차가 있다.

무당이 귀신에게 기도할 때 바치는 공물을 정화수(井華水)라고 하여 일반사람들이 떠가기 전에 새벽에 떠온 음료수와 「大米」라고 하는 백미를 올린 다음 떡·밥·미나리·생선·쇠고기 등을 상에 늘어놓고 선향(線香)에 점화하는 것이다.

1회의 기도에는 1~6인까지의 무당이 남녀 혼합돼 있어도 무방하다. 또 기도시간은 1주야로부터 1주일에 걸치는 일도 있다. 연일연야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아 현재로선 밤 12시 이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많다.

기도를 의뢰한 사람으로부터의 무당에 대한 보수는 빈부와 본인의 뜻에 따라 일정치 않지만 1인 1주야 1~2円 사이로 음식과 숙박은 의뢰자의 부담이다. 또한 무당은 3일 전부터 재계목욕(齋戒沐浴)해서 상가에는 가지 않으며 어조수육(魚鳥獸肉)을 먹지 않고 소·말·개·고양이 등의 시체도 만지지 않는다. 그 밖에 부정한 물건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기도의 주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질병평유(平癒)의 기도

공손히 산신귀신에게 기도하나이다. 바라옵건대 강신(降神)하시옵소서.

또한 석존왕(釋尊王)에게 기도하오니 불도(佛道)로부터 가호(加護)하시옵소서(무악(舞樂))

※ 이 때 악기·북·징 등을 치고 춤 추며 삼배를 한 다음

제주면何里 何某 何月何日부터 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어 귀신불도에 기도를 바치오니 치유해 주시옵소서(무악)

문전(門前)의 신, 저택(邸宅)의 신이여 공동의 힘으로써 이 병자를 살려 주시옵소서(무악)

일월성신(日月星辰) 및 칠성군(七星君)에게 기도하나이다. 바라옵건대 강림하시와 환자의 고뇌를 제거해 주시옵소서(무악)

산신해신 공동의 가호로 병자의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무악)

2) 가옥신축의 기도

공손히 산신귀신에게 기도하나이다. 바라옵건대 강림하시와 가호하소서. 또한 석존왕 불도의 법에 의해 가호를 내리시옵소서(무악)

성조대신(成造大神)에게 기도하나이다. 목신 안에 악마의 신이 있으므로 악신을 퇴거시켜 이 집안 대대의 자손은 오래도록 행복을 보지(保持)하고 오래도록 지속되기를(무악)

가옥이 부서지지 않도록, 또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加言夢(가언루)를 내리시옵소서(무악)

3) 사자(死者)에 대한 기도

전언은 앞과 같음(무악)

사자의 영혼은 속히 극락세계로 가시옵소서. 이 집으로 오려는 악마는 속히 퇴거토록 하소서(무악)

이 집안에 다시는 이런 화가 오지 않도록 하고 행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무악)

4) 春節(舊正月)의 기도

전언은 앞과 같음(무악)

何面何某 何歲를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불도와 함께 올해의 가호를 내리시옵소서(무악)

일가의 안녕행복을 내려주시옵소서(무악)

6. 區　　劃

본도의 해안선을 돌며 시찰하는 데는 대강대강 살펴 7~8일, 천천히 보면 2~3주를 필요로 한다. 목장이나 삼림이나 한라의 절정을 탐험하는 때는 더욱 많은 날자를 요한다. 그러나 도읍이나 항만은 일주도로에 잇따르고 있고 관청이나 학교, 공장도 이 연선(沿線)에 있음으로 시찰하기에는 지극히 편리하다.

본도 행정상의 구획으로는 13면으로 나누어져 면장 이하 吏員을 배치하여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섬 일주를 하는 여행자를 위해 右廻順으로 각면의 개요를 적어보기로 한다.

■ 제주면

본도의 首都 제주성내에 있는 면으로 본도 중앙에 위치한 大面이다. 앞엔 바다가 펼쳐있고 뒤는 한라의 꼭대기에 이른다. 너비 16·5方里, 인구 4만1천6백55를 헤아리며 일본인 3백70, 중국인 20명이 있다.

성내는 면의 중앙이 바다와 접하고 커다란 요지(凹地)에 의해, 3면은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위에 대성벽으로 둘러져 동서남북에 루문(樓門)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철폐되었다. 남문 밖에는 삼성혈의 고적이 있으며 서문 밖에는 공자묘가 있다. 성내에는 도청·병원·형무소·경찰서·은행·학교 등이 있어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있다.

면의 지형은 남으로 부터 북에 향해 완만한 사면을 이루어 藏元山·蟻項·御來峯 등의 小連山이 있고 禾北川 大川(漢川) 都近川(外都川)이

있으며 도근천에서는 은어가 생산된다.

항만은 제주·별도·도두의 3항이 있는데 제주항은 상항(商港)으로 기선·범선의 내왕이 빈번하지만 해안의 만입이 없어 기항하기에 곤란하다. 별도·도두의 2항은 어항으로 어선 50 내지 1백척을 계류할 수 있다.

■ 新右面(현 애월읍)

성내로부터 서쪽으로 5fl(20㎞)의 거리에 본면의 중심지인 애월리가 있다. 면의 너비는 13方里余, 인구 2만2천2백이다. 애월리는 기선의 기항지로 면사무소·경관주재소·보통학교 등이 있으며 또한 어선의 근거지이다. 이 곳은 애월진이 있었던 곳으로 해상의 경비를 맡았었다.

본면은 제주면의 서쪽에 접하여 남으로부터 북을 향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獐岳·火岳·季岳 등의 소독립산이 있다. 下貴·錦城의 두 하천이 있으며 下貴·高內의 두 어항이 있으나 良港은 아니며 郭支里는 멸치어장으로서 알려지고 있다.

■ 舊右面(현 한림읍과 한경면)

애월리로부터 일주도로를 서쪽으로 2리(약 4㎞)쯤 가면 舊右面 明月里에 이른다. 명월리는 명월진이 있던 곳으로 면의 중심이 되어 있다. 본면은 10.6방리, 인구 2만9천인데 면사무소는 明月里에, 경관주재소는 翰林·高山 양리에 배치되어 있다. 부속도서로 비양도·죽도(遮歸島) 등이 있는데 죽도는 차귀진이 있던 곳으로 고성장(古城場)이라고 전해진다.

본면은 본도의 서부를 차지하는, 한라산 기슭의 종점으로 면작지(棉作地)로서 알려지고 있으며 해안에는 해조류·조개류가 풍성하다. 협재·한림·신창 등에는 통조림공장이 있다.

■ 大靜面

본면은 구우면의 배후쪽, 본도의 남서단을 점유하며 면적 5.6方里, 인구 1만3천여가 된다. 대정읍은 옛날 군읍의 소재지로 지금도 면사무소·

보통학교가 있지만 차츰 쓸쓸해지고 있어 지금은 오히려 해안의 모슬포에 기선이 기항하고 일본인도 다소 거주하여 물자의 반출입이 빈번, 이 부근 번영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

부속도서로 가파·마라(男羅) 두 섬이 있어 해산물이 풍성하며 마라도에는 등대가 있다. 이 부근은 항해자들이 難所로서 두려워하는 곳으로 옛부터 조난선이 많은 곳이다.

■中 面(현 안덕면)

본면은 모슬포의 갑각(岬角) 동쪽으로부터 화순항을 포함한 지역으로 면적 6.8방리, 인구 8천2백이다. 본면 화순만과 직면하는 곳에 산방산이라는 명산이 있다. 기암이 바다에 면하여 솟아있으며 중턱에 암굴이 있어 맑은 샘물이 용출하고 있고 산 아래엔 문묘가 있다.

이 산 앞에 형제도라고 하는 두 작은 섬이 있어 방어 어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만은 평퍼짐하여 겨울철 큰 선박들이 풍파를 피하는 호적지이다. 감산리에는 면사무소·경관주재소가 있다.

■左 面(서귀포시와 합병되기 이전의 중문면)

중면의 바로 동쪽에 인접한 남서 일부를 점유하여 중문리는 면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면적 9.4方里, 인구1만5백여가 된다. 중문리에는 높이 50척의 懸瀑(天帝淵)이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강정천에는 은어가 풍성하여 호어가로 하여금 침을 흘리게 한다. 중문리를 흐르는 小加來川과 더불어 수류를 이용하여 관개용수로 삼아 논이 만들어지고 있다. 강정리 배후의 公空山의 분화구는 바다 밑까지 뚫어져 있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右 面(서귀포시로 합병되기 이전의 서귀읍)

본도 남부의 중앙지에 있어 북쪽은 한라산 꼭대기에서 濟州面에 접하고 있다. 정상 이하 2리 사이의 삼림대는 표고재배지로서 알려지고 있다.

본면의 중심지는 서귀포로서 도의 지청 기타 여러 관서 학교가 있으며 항만은 萱島(새섬?)가 전면을 가리고 규모는 작지만 선박의 기항에는 안전하다. 어선의 근거지로서 차츰 번영의 징조를 띄어오고 있는 것은 기뻐할 일이다.

이 곳 서쪽에 접한 洪爐川에는 천지연이라고 하는 大懸瀑이 있는데 장래 이 수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일으키고 제빙, 전등 등의 사업을 경영하게 된다면 더한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곳 동쪽 數町에 정방폭이란 것이 있다. 진의 시황제가 불로불사약을 구하도록 보낸 徐福이라는 신(臣)이 이 곳을 지나갔다고 전해진다.

본면은 감귤·면화 양잠의 적지로 장래에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또 다랑어·가다랭이·돔 등의 어장으로서 장래성이 있는 곳이다.

■ 西中面(현 남원읍)

서귀포 동쪽 3리(12㎞)에 의귀리(衣貴里)라는 농촌이 있다. 이 곳이 본면의 중심지로, 면사무소·경관주재소 등이 있다. 본면은 면적 12방리余 인구 1만1천6백을 갖고 있으며 본면의 서북쪽 삼림대는 표고재배지로서 俎島 및 그 부근은 어패류의 饒産地이다. 또 위미리(爲美里)는 기선의 임시 기항지로 통조림공장이 있다.

■ 東中面(현 표선면)

西中面 의귀리로부터 동쪽 3리에 성읍리(城邑里)가 있다. 이 곳은 본면의 중심지로서 옛날엔 정의읍이라고 칭하여 군청소재지였지만 군 폐합 후 눈에 띄게 쓸쓸해졌다.

본면은 면적 8.8방리, 인구 7천9백여이며 성읍리에는 면사무소·보통학교·경관주재소·문묘 등이 있지만 음료수 사정이 좋지 않으며 그밖엔 발전의 요소가 적다. 본면 해안에는 표선리(表善里)가 있다. 이곳은 기선의 기항지가 되고 있다.

■ 旌義面(현 성산읍)

성읍리로부터 동쪽으로 3리 떨어진 곳에 고성리(古城里)가 있다. 또 그 동쪽 반도 위에 성산포가 있다. 본면의 면적는 7방리, 인구 1만1천5백여이며 고성리에는 면사무소·보통학교가 있다. 성산포는 기선기항지로서 본도 동단의 소도읍을 이루어 어업근거지로서, 또 조개단추, 통조림 등의 공장지로서 장래 세인이 눈 여겨둘 만한 곳이다. 또 오조리(吾照里)에는 숭어, 장어의 양어장이 있다.

■ 舊左面

본면은 본도의 동북쪽 일대의 땅과 円周 4里의 우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면적 12방리余, 인구 2만2천2백여가 된다. 김녕리는 면의 중심지로서 경관주재소·우편소·보통학교의 소재지이며 기선이 항시 기항하고 어업지로서 알려지고 있다.

면사무소는 평대리(坪岱里)에 있고 하도리(下道里)에는 별방진(別防鎭)의 고적이 있으며 월정리(月汀里)는 멸치어장으로 유명하다. 우도는 고구마의 산지이며 또 해조류·조개류가 풍부하다. 김녕의 남동쪽에 비자의 큰 숲이 있는데 면적 29정보, 4천그루의 수림을 이루고 있으며 금벌지로 되어 있다.

■ 新左面(현 조천읍)

김녕리로부터 서쪽으로 3리(12km) 가면 조천리에 이른다. 이 곳은 본면의 중심지로서 경관주재소·보통학교·면사무소 등이 있고 기선의 기항지가 되고 있다. 또 자력(資力)이 있는 조선상인이 많다고 한다. 본면의 면적은 9.9방리, 인구 1만6천여이며 함덕·북촌의 양리는 멸치·조개류의 어업지로서 알려지고 있다. 또 조천은 朝鮮帽(망건)의 산지이기도 하다.

■ 楸子面

본면은 제주항에서 북쪽으로 28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上島·下島·橫干島 등의 군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면적은 겨우 5방리, 인구 3천4백으로 제주본도의 큰 부락 하나에도 못미칠 정도이다.

추자항은 수심이 깊고 만입이 발달하여 양호한 묘지(錨地)가 되어 있으며 또 어업근거지로서 유명한 곳이다. 대서리(大西里)에는 우편소·경관주재소·소학교 등이 있으며 춘추 두 계절에는 어선이 모여들어 상당히 번창하기도 한다.

7. 都　　邑

본도는 독립된 소천지(小天地)로 물자의 집산, 상선의 내왕, 기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도시를 이룰 요소가 없으며 단지 섬안에 4~5개의 소도읍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

1) **제주성내** : 섬안의 수읍(首邑)으로 북부 중앙의 해안에 면하여 제주항이 있으며 기선·범선의 내왕이 빈번하고 시내는 상점이 즐비하다. 도청·법원지청·형무소·우편국·은행·농업학교·보통학교·소학교 등이 있고 잡화·피륙·조선모자·도기·철물·우마·어류·곡물류의 시장(오일장)이 매달 6회씩 열려 원근의 남녀가 모여들어 거래를 한다. 조선상인 1년간의 거래액은 1백수십만円에 이르며 일본상인은 그 8분의 1에 이른다고 한다. 성내에는 耶蘇(크리스트)교회당·本願寺·布敎所·普天敎寺院이 있으며 남문 밖에는 三姓穴의 고적(古蹟)이 있는데 장차 수도·전기·축항 등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엔 더 한층 번영하게 될 것이다.

2) **조　천** : 성내에서 동쪽으로 3리 떨어진 곳에 있어 조천진의 소재

지로서 앞은 해만(海灣)에 이어지고 있는 경승의 땅이다. 조선상인 중에는 자력이 있는 자가 많아 해산물·곡물류·우마·조선모자의 시장이 열리며 또 범선으로서 이들 상품을 육지방면으로 반출한다.

3) **김 녕** : 조천에서 동쪽으로 3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인구 3천여. 우편소·경관주재소·보통학교 등이 있고 어업지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 조선상인은 범선을 마련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해산물·곡물·우마 등을 싣고 육지방면에 반출·판매하며 도민의 수용품(需用品)을 구입하여 귀항한다.

4) **성산포** : 본도 동쪽 끝의 반도상에 있으며 항만은 내외 둘로 나눠져 있다. 외항은 기선기항지가 되며 내항은 물이 얕아 거선을 수용할 수는 없다. 이곳은 기선기항지가 되고 또 어업근거지가 되어 일본·조선상인이 집중, 조개단추·통조림·粗製沃度의 공장지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에는 세관출장소·우편소·소학교·경찰관주재소 등이 있어 상당히 번영하고 있다. 장차 축항의 목적을 다하게 되면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다.

5) **서귀포** : 이곳은 남제주의 중앙에 있어 예전엔 얼마 안되는 주민만이 사는 한촌이었지만 大正5년에 도의 지청을 개설한 이래 경찰관주재소·등기소·우편소·학교 등이 속속 설치되었다. 한편 본항은 어업근거지로 적당하기 때문에 각처로 부터 황돔 주낙(延繩漁業)의 발동기선, 그 밖의 어선이 모여들게 되면서 부터 눈부신 발전을 보게 되었다. 지금은 통조림공장·조개단추공장도 갖게 되었다.

6) **모슬포** : 이 곳은 본도의 서남쪽 모서리에 있는데 앞에 항만을 감싸고 뒤에 모슬봉을 업어 형승(形勝)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곳은 일본인 최초의 이주지로 우편소·경찰관주재소 등이 있으며 통조림·조개단추공장도 있다. 또 침몰기선인양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곳의 상인은 상권의 확장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본도산

달걀의 6할을 이 곳으로부터 반출하며 반입화물의 가격도 성내보다도 저렴하다고 한다. 또 일본출가자도 많은 지방으로 이 사람들로부터 송금되어오는 액수는 부근 일대에서 매달 1만円을 밑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7) **한　림** : 이 곳은 섬의 서북해안에 있다. 앞에는 비양도어장이 있으며 부근에는 협재, 수원(洙源) 등의 어촌과 접하여 면화판매소가 있으며 기선의 기항지이기도 하다. 최근에 우편소의 설치를 보았다. 비양도에는 봄·여름에 60~70척의 어선이 모여듦으로 자연 이 곳의 번영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 장차 조면(操綿)공장 등의 설치를 보게되면 더 한층의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8) **추자항** : 上島의 항만 가장자리 大西·永興 양리는 유명한 어업근거지가 되어 봄·가을 두 계절에는 많은 어선이 집중하는데 근년에 지방비보조를 받아 방파제를 축조한 후부터 항구내 선박의 계류가 매우 편리해졌다. 이 곳에는 우편소·경찰관주재소·소학교 등이 있으며 또 기선의 기항지 및 피난항으로서 항해자들이 중요시하는 良港이다.

8. 交　　通

본도의 도로는 지금까지 암석이 노출되고 돌멩이가 도처에 뒹굴고있어 인마의 통행에 매우 곤란했고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곳도 없었지만 관민 모두가 길이 험한 것에 무관심인 상태였다. 특히 도내 하천의 거의는 평소는 말라 있어 건너는데 곤란은 없지만 일단 강우가 있으면 도하불가능이 되어 교통은 완전 두절되는 것이다.

그런데 明治45년(1912년)부터 大正2년(1913)에 걸쳐 도민에게 부역을 과하면서 일주도로의 개수를 시행함으로써 다소 옛날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하천에는 교량이 없어 여객은 말에 의해, 하물은 짐꾼에 의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때까지의 주된 도로로써는 성내를 기점으로 해서 성산포로 통하는 것, 정의읍으로 통하는 것, 대정읍을 거쳐 모슬포로 통하는 것, 연안 각마을을 통해서 섬 안을 일주하는 것, 그리고 한라산의 중턱을 횡단하여 서귀포에 통하는 것 등 4~5개의 노선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도로로써의 자격은 없다고 할 정도이다.

그래서 당시의 군당국은 경찰서와 협력해서 일주도로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성내의 市區개정을 단행, 지방비의 보조와 도민의 부역환산금으로 大正3년(1914) 3월 기공, 大正6년까지 3년간의 계속사업으로서 노선이 통하는 곳은 무조건 기부토록 하면서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했다.

이 영단(英斷)에 의해 일주도로는 완성하고 차마의 왕래도 매우 편해졌지만 그 때 가설한 교량은 겨우 2~3개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우로 하천이 범람할 때는 여전히 교통이 두절될 뿐 아니라 지금은 도로도 크게 황폐했으므로 신속히 도로를 개수함과 동시에 전도의 도로선의 하천에 교량을 가설하여 교통의 불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도외의 교통에 있어서는 幾百千年의 오랜동안 취약·불완전한 조선선박으로 우마 및 해산물을 싣고 육지방면으로 왕복했다. 그 사이 난파·침몰도 많고 어선의 표류·전복도 빈발했다.

지금부터 30년전 본도인 이종문(李鍾文)이 인천의 堀力商會와 교섭, 연안항행의 기선 1척으로 한 달 한 번의 부정기항로를 열었지만 도내에 피난항이 없고 연안에 암초가 많아 항해가 불안전한 위에 수지도 맞지 않으므로 3년뒤 끝내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여러번의 변천이 있었으나 大正2년(1913) 이토(伊藤)해사과장이 본도를 시찰, 도일주항로를 개설한다면 그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아 목포를 기점으로 하여 본도를 일주하는 것 2척, 부산을 기점으로 하여 본도를 일주하는 것 2척으로 매월 8회의 정기편을 마련하여 조선우선(郵船)회사로 하여금 이 항해를 맡도록 했다.

그 후 목포항로 2척에 6회, 부산항로는 1척이 6회로 줄어 한때 기선 교통의 쇠퇴를 보았지만 大正11년(1922) 가을부터 제주상선회사가 발족, 부산~제주간 항로를 연데 이어 대판직행의 항로를 개설했고 그위에 합명회사 아마가사키(尼崎)기선부와 제휴하여 대대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차 본도의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면 우선 항만수축계획을 세워 안전한 선박의 묘지를 마련, 조난의 액(厄)으로부터 모면하고 항해업자의 위구(危懼)의 念을 제거하므로써 항로의 안전을 기하는 일을 첫째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말뿐으로 상부의 보조만을 믿었던 모양인데 앞으로의 방침으로서는 자력을 主義로 하여 상부의 보조는 자력이 미치지지 않는 점을 동정에 기대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믿는다.

9. 通　　信

인류가 생존해 가는데 있어서는 고립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어떤 시대에도 통신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고, 국가나 사회가 발달하면, 정치에도, 군사에도, 상업에도, 통신의 필요가 점차적으로 늘어 신속확실한 통신을 바라게 된다.

일본도 예로부터 구두(口頭)통신이나, 봉화통신을 했던 시대가 있었고, 문서로 통신을 하게 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고, 도쿠가와(德川) 時代(1603~1867)에는 「히카꾸야(飛脚屋. 파발꾼)」이라는 것이 있어 各藩(註 : 지금의 縣에 해당됨)과 江戶(註 : 東京)를 왕래했었다.

조선의 경우는 明治9년(1876) 부산에 일본우편국이 설치된 때부터 수많은 변천이 있어, 明治39년(1906) 7월 구한국정부의 우정(郵政)을 모두 일본 체신성의 관할하에 두고, 43년(1910) 합병과 동시에, 총독부에 인계되어지고, 산간벽지에도, 통신기관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은 없고, 조선을

통털어 6백여개의 우편국이 있을 정도로 성황을 보기에 이르렀다.

우리 제주도에 있어서는, 明治36년(1903) 9월 1일, 처음으로 제주우변수취소가 설치되어, 일본식 범선에 의해 목포와 매달 2회 왕복을 했고, 38년(1905) 6월 수취소를 폐지, 목포우편국제주출장소를 없애고, 40년(1907) 1월 제주우편국이 창설되었고, 39년(1906) 10월부터는 우편환저금(郵便換貯金)과 한국국고금(韓國國庫金)의 사무를 시작해 41년(1908) 3월에 국고금 보관사무는 폐지되었다.

明治39년(1906) 10월 처음으로 전신사무를 개시하여 육지와의 통신을 보다 빨리 하기에 이르렀다. 제주-성산포간은 육상선으로, 그리고 해저선에 있어서는 거문도로부터, 더 나가 高興郡의 연안에 이르러 육상선과 접속되고 있다. 그 다음부터 5년간은 日本文만 취급했지만 44년(1911) 7월부터 諺文(한글) 전보도 취급하게 되어 내선인(註 :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 다 편리를 보게 되었다.

해를 넘겨 大正4년(1915) 6월, 제주-성산포간, 제주-모슬포간에 전화전신이 개통되었고, 같은 해 12월 제주-서귀포간에도 똑같이 전신전화의 개통을 보았다. 뒷해인 5년(1916) 김녕리에도 똑같이 개통하기에 이르러 한층 더 편리하게 되었고, 大正 12년(1923) 가을에 한림우편소 개설과 동시에 전신사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현재 도내의 통신기관은 제주우편국외에 김녕, 성산포, 서귀포, 모슬포, 한임, 추자도의 6개소에 우편소가 설치되어 소장 이하 직원이 통신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제주의 우편국은 국장이하 사무원이 2~3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통신사무의 급증과 함께 판임(判任) 3명, 사무원 8명이 현재 인원으로, 국사(局舍)도 협소하여 개축의 필요가 요망되고 있다.

장래의 통신사무는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그 발전상을 예상해 보자.

1. 유선전신도 현재보다 아주 장거리에 통신할 수 있게 되고, 전화는 좀더 넓게 관민간에 이용하게 될 것이다.
2. 우편도 기차나 기선을 이용하는 외에 자동차보다 더 나아가 비행기를 이용하는 일도 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3. 금전의 송달, 저축의 편의는 물론 연설담화나 가무음곡(歌舞音曲)도 집에 있으면서 자유자재로 전화로 즐길 수 있게 되리라.
4. 본도도 우편국의 증설, 전신전화의 개설, 해저전선의 증설, 무선전신의 신설, 도로의 대개수, 항만의 대수축에 의해 육상통신도 자동차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무선전신 가설의 문제는 당국에 의해 확정되어 가까운 시일내에 기공할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장래 통신상의 일대 혁신을 기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10. 官　　廳

1) 제주도청

본청의 前身은 문헌을 얻을 수 있게 된 이후로 약 7백~8백년을 경과하고 있다. 고려 肅宗王때 군을 두었던 것을 시작으로 그후 현령부사, 군민총감부, 군민안무사, 군민만호부, 첨절제사, 목사 등 많은 기관이 설치되고, 또 그 주권자도 고려조, 원, 명, 이조 등으로 옮겨졌다.

明治25년(1892) 日本黨과 事大黨이 충돌한 결과의 대개혁에 즈음하여, 제주, 대정, 정의의 3군을 놓고 군수를 배치하여 목사로 하여금 통할하도록 했다. 明治39년(1906)에 목사를 폐지하고, 군수는 전라남도관찰사에 속해 있었지만 大正2년(1913)에는 대정, 정의 2군을 제주에 합쳐 大正4년(1915) 4월 도제실시와 함께 군수를 폐지하고 도사를 두었다.

明治39년(1901)의 보호정치 이전의 정치는 실로 단순한 것으로서, 관하 국정의 전부는 목사, 군수의 손아귀에 있어, 인민들이 땀 흘려 얻은 것을 관리들이 주구(誅求)하여 배를 채우는 것이, 흡사 꿀벌들은 꿀을 만들고 인간이 이를 채취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

그 당시의 세무행정은 주구의 손이 극도에 달해 경찰행정의 손은 관권옹호를 위해 움직여 인민의 복리증진 같은 것은 약으로 하고 싶어도 없었다. 그래서 인민측에서도 반감이 높아져, 표한(慓悍)한 도민의 성질과 함께 어울려 상당히 대담한 직접적 행동으로 옮긴 일도 많다. 우리 文化 10년, 즉 1백10년전 이래의 민란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嘉慶18년(1814) 집정을 원망한 윤광종(尹光宗) 등이 난을 일으켜 관헌을 체포하고 관청을 불살랐다.
2. 同治3년(1864), 화전에 과세한 사실을 원망하여 강제첨(姜悌僉) 등이 화전민란을 일으켜 관부를 불사르고 이 때문에 관헌들은 상해를 입었다.
3. 光緖16년(1891), 목사의 실정에 대해 원성을 높이고, 김지(金志)가 수괴가 되어 폭민이 성내에 침입, 관부를 불살랐다.
4. 建陽元年(1896), 관제개정에 대해 반대의 민난이 일어 관부를 불사르고 관리들을 사상케 했다.
5. 光武2년(1898), 濫稅救弊를 명분으로 한 방성칠(房星七) 등의 난이 일어 폭민들이 대거 성내에 침입, 관부를 부수고 문서상자를 불태웠다.
6. 光武5년(1901), 천주교의 난이 있어 관부를 불태우고 관헌들이 크게 박해를 받았다.
7. 隆熙3년(1909), 고승천(高承天) 등이 세제에 대해 원한을 품어 폭민 다수가 관청에 이르러 폭행을 했다.
8. 동년 강유검(姜瑜儉) 등이 세제에 불평을 하면서 화전민 다수를 이

끌고 성내에 침입, 소요를 일으켰다.

이상과 같이 부패한 전횡정치를 제거하고 근대정치의 혜택을 입도록 하게 된 것은 일본의 보호정치 이래로 明治39년(1906)의 사법권의 분리는 군수의 권력을 깎고 그 위에 경찰권의 분리에 의해 군수의 횡포를 막고 양민으로 하여금 편안케 하기에 이르렀다.

일한합방에 이르러 모든 정무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조장행정(助長行政)의 형식도 내용도 충실해졌고 현행과 같은 완벽한 제도가 됐다.

지금 도제의 개략을 살펴보면 도사밑에 서무(庶務), 권업(勸業), 재무(財務)의 3과를 두고 과장이하 속(屬), 기수(技手), 고원(雇員)을 배치하여 도사의 보조기관이 되고 있다. 또한 서귀포에 도의 지청을 두고 속으로 하여금 지청장에 임명하고 있다. 또한 도사는 경찰서장을 겸하여 검사업무도 보고 있다.

2) 제주도경찰서

조선에는 경찰이라는 명칭은 없었지만은 형사, 경찰의 일은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다. 中世시대에는 재판, 경찰, 감옥의 업무가 혼합제로 되어 있어, 관찰사·군수는 이 일을 겸하고 있었다. 30년전 쯤에는 순라졸(巡邏卒)을 두고, 부령(不逞)의 무리들을 체포하고, 태형(笞刑)을 가하여 방면하고 있었다. 이즈음의 목사, 군수는 절대의 권력을 지녀 마음대로 경찰권을 조작하여 사복(私腹)을 채우고, 가렴주구를 일삼아, 뇌물이 공공연히 나돌고 백성은 도탄의 괴로움에 신음하고 있었다.

明治27년(1894) 본도에 경무청을 두고, 明治37년(1906) 光州警務顧問의 소속으로서 제주분파소를 두었다가 明治40년(1907) 10월 목포경찰서제주분서를 두었다. 41년(1908) 10월 경찰서로 승격, 순사주재소 3개를 설치하여 경부이하 30명 될락 말락한 경찰관으로 전도의 경찰사무를 처리했는데, 현재는 서장인 경시(警視)이외에 경부(警部)이하 33명의 경관이 서에 있다. 각지에 경찰관주재소 15개를 갖고 순사부장이하 3명내지 4명

의 순사를 배치하고 있다.

현재는 크게 변하여 부정주구의 관리가 있으면은 체포·투옥하므로서, 오리간관(汚吏奸官)을 완전히 뿌리뽑고, 도적이 공공연히 다니는 등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고, 백성의 생명·재산은 보호되며 일단 전염병이 유행하면 방역대를 조직하고 사지에 임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화재가 일어나면 소방대를 지휘하여 水火의 난도 마다 안했다.

또한 종두(種痘)의 실시, 전염병예방주사의 뒷바라지로부터 청결법에 관한 일, 의생약종상·火藥銃砲에 관한 일, 종교상의 단속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뒷바라지를 하고 있고, 도로·교량·항만의 일, 권업교육의 장려에 이르기까지, 불면불휴로 헌신적으로 폐하(註 : 일본 천황)의 신민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본서 창립이래 두세 가지 특기할 만한 일이 있었다. 하나는 明治42년(1909) 2월 대정군신평리 고승천(高承天)이 수괴가 되어 폭동을 일으켜 큰일이 날 뻔했는데, 대정주재소 康순사의 공으로 수괴 3명을 체포·총살해서 무사할 수 있었다.

大正7년(1918) 10월 仙道敎徒 김연일(金連日)이 수괴가 되어 부락민 수백명을 인솔, 좌면(중문면) 중문리주재소를 습격·방화하여 주재경관이 일시 피난하였지만은 응원경관의 협력에 의해 폭민을 진압했다.

大正9년(1920) 7월 구좌면 종달리에 콜레라환자가 발생하여 사망하고, 다음으로 김녕리에 이르러 구좌면 전역에 확산되었고 8월 초순에는 하루에 새로운 환자가 2백명을 넘어, 그 세력은 燎原의 불길처럼 번져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다.

다음에는 제주면삼양리, 신좌면(조천), 서중면(남원) 신흥리에 잇따라 발생하여, 신우면(애월) 동중면(표선)을 침범, 좌면(중문)에 옮겨갔고 추자면에 이르러 10월에 들어서야 병세가 점차 쇠약하여 하루에 수명의 새로운 환자를 내는데 지나지 않았다가 11월에 들어서서 완전히 종식됐다. 그 구역은 우면(서귀포)을 제외하고 12면에 걸쳐 76개마을을 침범하여, 환자 총

수가 9천4백34명, 사망자가 4천1백34명의 놀라운 수를 나타냈다.

3) 제주법원지청

구정부시대에는 관찰사나 군수가 재판하는 권리를 가져 뇌물의 다과에 의해 시비를 판단하는 등 전횡편파(專橫偏頗) 불공평한 판결을 내려 비법(非法)의 패소를 원망해 봐도 탐욕이 끊일줄 모르는 관리들은 개의치도 않고 위압을 자행함에 한 마디의 불평도 할 수가 없었다.

옛날의 민사재판은 관할을 정하지 않고, 또 재판확정의 때가 없었다. 또한 집행기관이 없으므로 패소한 자는 다른 군수에게 소(訴)를 제기하여 뇌물로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다른 군수에게 재소, 동일 사건을 2~3 군수의 판결을 받아 쟁의를 계속하는 등, 끊일줄을 몰랐다.

또 뇌물에 의해 채무를 변상하지 않은 자는 채무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한편 채무자의 친척으로부터 금품을 제공토록 해놓고는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착복한 예가 많았다.

또 실지검증을 요하는 경우는 극한극서의 계절에는 절대로 출장하는 일이 없고, 기후가 알맞는 봄·가을까지 기다리게 했다가 출장하여 주지육림(酒池肉林)의 유락(遊樂)에 탐닉하고 이를 출장가는 곳의 부락민들에게 부담시켰다.

또 형사재판에서는 불응위율(不應爲律)이라는 형조가 있어 특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벌하므로, 그 범위는 매우 넓다. 예를 들어 금전을 저축하는 자가 있으면 군수는 항시 이에 눈을 밝혀 조그마한 과실이라도 찾아내면 시비곡직을 가리지 않고 구금, 뇌물이 관의 성에 찰 때까지는 석방시키지 않았다.

또 피고를 신문할 때는 반드시 고문, 족쇄나 수갑을 사용하고 몽둥이로 구타하여 자백을 강요하였다. 만약 고문 전에 뇌물을 상납하면 즉시 고문을 중지했다. 뇌물이 전혀 없든지, 혹은 적으면 지독한 고문을 하므로 마음에도 없는 자백을 했다.

그런데 시대는 변하여 明治28년(1895) 7월 재판소구성법이 생겨 민사·형사소송법이 규정되고 제1심은 군수, 제2심은 관찰사, 제3심은 경성平理院에서 심판하게 되어 옛날의 무서운 악폐는 일소되었다.

그 다음 해에는 관찰부를 폐지하고 목사를 두어 제2심을 담당케 했다. 明治39년(1906) 목사를 폐지하여 제주재판소를 설치, 제1심은 군수가 겸임하고, 제2심은 관찰사가 겸장했다. 이때 내지인(일본인)을 법무보좌관으로 하여 재판사무를 지도했다.

明治40년(1907) 일한조약에 의해 사법제도가 개선, 일신되어 재판소구성법을 공포하고 삼심제를 채택, 사법 관리를 일본으로부터 초빙하여 개선의 결실을 보았다.

明治43년(1910) 합병에 의해 총독부재판소를 설치하고 45년(1912)에 제주구재판소는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이라고 개칭되어 1천원을 초과하지 않은 재판사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을 취급하게 되어 大正2년(1913) 公事事務를 취급하게 되고 大正5년(1916) 부동산등기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大正12년(1923)에 호적령이 실시되고 각면의 민적사무를 감독·지도하게 되었다.

4) 제주형무지소

본소는 목포형무소에 속하여 大正10년(1921) 제주성밖 동쪽 2丁이 되는 곳, 높고 건조한 지대를 택하여 신축에 착수, 동년 7월부터 旣決·未決의 남녀를 구금했다. 현재는 소장이하 직원이 약 30명, 조선인 남자 1백10명, 여자 3명의 미결수를 수용·구금하고 있다. 죄명은 대부분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절도죄가 다수를 점하고, 이에 뒤따르는 것은 상해죄와 정조(貞操)에 관한 범죄이다.

강·절도 범죄자의 대다수는 육지방면으로부터의 이송자로써, 본도내의 범죄자는 모두 30명 내외로 강도죄로 수용된 자는 전무하며 단속관리는 남자는 간수, 여자는 여감으로 단속에 나섰고, 남녀는 엄격히 감방

을 구별하여 서로 마주보는 일도 없도록 했다.

수인(囚人)의 보건에 대해서도 慈惠醫院長(현 제주의료원)에게 촉탁하여, 매일 내소해서 진료를 맡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휴무할 정도는 없고, 일반의 건강상태는 극히 양호하다.

또 교회교육(敎誨敎育)에 관해서는 교회사로 하여금 매일 집회적으로 교회담화를 시킴으로써 개과천선토록 노력하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도 교회를 베풀어 불상을 갖추어 회오(悔悟)의 念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또, 일상의 생활에 대해서는 침식 모두가 규율생활을 존중하여, 근면의 미풍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힘을 다하고 공업교육과 더불어 오로지 개선에 노력하고, 개청후 불과 2년만에 가출옥의 허가를 받아 방면된 사람도 수명있다. 개과를 확인받아 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수에 이르고 있는 것은 기뻐할 일이다.

현재 시설하고 있는 작업은 쿠루메가스리(久留米絣·日本 久留米지방에서 짜는 木綿) 조개단추, 指物(머리 장식품), 亞鉛, 蒿細工(보리짚가공) 및 耕耘의 6종으로 久留米絣工이 최대수를 점하고 조개단추, 장식품이 이에 따르며 기타는 아주 소수이다. 久留米絣는 직물회사로부터 방직교사가 오고 재료·기계까지 전부 갖고와서 일을 시키고 있다. 조개단추는 본도산 소라의 껍질을 이용하는데, 수요가 엄청 많아 제품은 대판 방면으로 내보내고 있다. 장식품은 일반 가구나 건물류(建物類)로 쓰여 도외로 나가는 것은 얼마 안된다.

작업은 될 수 있는대로 토지의 생산물을 이용하여, 家內工業으로서 자본을 요하지 않고,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을 습득시키면 본인이 출옥후에도 편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현재 적당한 것을 조사중이다.

출옥후 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상의 감화를 줌은 말할 것 없이 선량한 방법이므로, 적당한 작업을 습득토록 하여 출옥후 올바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도계발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다. 또 출옥자에 대해서 사회 사람들이 따뜻한 동정을 보내며 이를 돕고 이를 지도하여 건전한 국민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기관으로서 성미회(成美會)라는 것을 설립하여 각종 출옥자 구제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5) 濟州慈惠醫院(현 도립제주의료원)

본원은 大正元年(1912) 10월, 지금의 부지에 본관과 전염병실, 施療(무료진료)患者의 진료소를 신축하고 옛 조선건물을 개조해서 병실로 삼아 개원했다. 당시의 도민은 문명적인 의술을 가지고 진료하는 별다른 설비는 없고, 도민의 생명은 의술의 소양이 얕은 의생의 손에 맡겨졌고 민간인들은 극히 무지하여서 하등의 근거도 없는 미신에 의해 환자를 다루어 왔다. 예를 들어 무당을 집에 불러들여 중환자의 머리맡에서 몇 날 밤씩이나 계속해서 북을 치고,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한다든지, 또 약수라고 하는 하등의 약재적 가치도 없는 보통의 물을 환자에게 마시게 하여 더욱 중태에 빠트리게 한 다음, 병원에 진료를 의탁하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합방이래 각 도에 자혜병원을 배치토록 한 결과 본원도 개원을 한 이래 10여년의 성상(星霜)을 거쳐 문명적인 의술을 베풀게 되었다. 그래서 漢法醫나 민간의 미신적 요법에 비해서 탁월한 효험이 있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지방민의 뇌리에 새겨져 해마다 취급환자의 수는 증가, 大正11년도(1922)에 있어서는 약 6만의 환자를 취급했다. 이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지방민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는가를 헤아리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漢法醫의 요법이나 민간의 미신적인 요법이 여전히 세력을 부리고 있는 것은, 필경 교육의 소양이 모자라는 탓으로 위생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참다운 이해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원의 설립 당시는 무료치료인 시료(施療)에 중점을 두어 원내에 시료부를 두고, 또 의원으로 하여금 지방을 순회케 해서 환자의 진료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위생사상의 개발과 환자의 치료를 맡았었다. 지금도 그 취지에는 하등의 변경은 없지만은 해마다 소요증가, 약품재료류 등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가 다액에 이른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의 증가와 시료부의 절약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에 있다.

본원은 종래 의사 4명이 정원이었지만은 작년 7월 의관 1명, 의원 1명이 증원되어 내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시요부로 분과하여 지방민의 생업이 한가한 때에는 순회진료를 행하고 있다. 그밖에 경찰서, 형무소, 농업학교, 소학교, 보통학교의 촉탁의를 겸하고 수인 및 각 학교의 건강보존과 재판의의 일까지 맡고 있다.

6만 가까운 환자의 약 반수는 시료환자로써, 이들 환자를 취급하는 총 경비는 약 4만円에 달하는데 환자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겨우 1만円도 되지 않으므로 차액인 3만円은 국고의 보조로 유지하고 있다. 이 숫자를 보더라도 얼마나 정부가 지방민의 병고구제에 뜻을 두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 조선인들이 무료진료의 큰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보이는 일없이 당연한 일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무지의 소치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또 收價환자에 대해서도 도민의 재산정도를 생각해서 다른 자혜의원과 같이 규정의 징수는 할 수 없으므로 조선인 환자에게는 전부 감액하고 있다. 요컨대 수입을 규정이 허가하는 한 싸게하여 다수의 환자에게 진료를 베푸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원은 최근 증축할 예정이었지만 행정정리의 영향을 받아 연기한 것은 유감이다. 생각컨대 현재의 부지는 매우 협소하여 장래 확장의 여지가 별로 없어 완전한 설비를 갖추고 동시에 다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상 편리한 고조(高燥)하고 급수에 편리한 넓은 토지를 선택하여 이전 신축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대사업은 지방관민의 열렬한 후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6) 제주도측후소

본도에 있어서의 기상관측은 대정읍 마라도(현 馬羅島)와 제주면 건입리(健入里)의 두 등대, 그리고 제주도청에서 간이기상관측을 하고 있었지만은, 제반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데에는 이들 관측으로는 유감스러운 점이 많을 뿐 아니라 본도의 위치는 조선반도 및 일본에 있어서의 기상변화를 아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기상에 관한 정보기관 설치 의견이 정해져 총독부는 大正 11년(1922)말부터 현 위치, 즉 제주성밖 북문 부근의 성벽의 한 구석 땅을 골라 공사에 착수, 大正 12년(1923) 4월 공사를 준공하고 동 5월에 사무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측후소의 업무는 일반 기상의 관측을 행하고 기후를 조사하는 외에 일기예보와 폭풍경보의 발포신호를 게양하는 것이다. 그 설비로서 청사는 벽돌造 2층건물과 단층건물 각 1동 외에 判任官宿舍, 助手小使宿舍를 마련하여 여기에 기상관측을 하기 위한 모든 기계를 설비하고, 또한 머지않아 地動관측을 하기 위한 지동계 설치의 계획이 있다. 또 정확한 시각의 통보를 받기 위해 무선전신(수신만)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폭풍신호주는 무선전신주를 건설할 때에 한 쪽의 전주에 이를 겸용토록 할 계획이다.

본도는 수산산업 또는 항해업자가 다수 있어 해상의 위협을 예지하는 일은 조난예방상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육상의 농업, 임업, 표고재배업, 면업, 양잠 등 모든 산업은 기상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본 측후소의 설치는 도민생활에 상당한 행복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7) 산림과 출장소

본도의 한라산은 표고 6천7백척 이상이나 되어 그 中腹이상에는 천연의 대삼림이 있으며, 그 면적이 광대한 것이지만, 옛날에는 전도에 걸쳐 대삼림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도

민 인구의 증가에 다라 화전·야화(野火)·개간에 난벌까지 겹쳐 삼림의 면적은 현저히 축소되고 이제는 겨우 1만7천여 정보의 입목지를 남기기에 이르렀다.

산림과출장소는 大正10년(1921) 봄, 본도에 신설된 것으로, 그 사업으로서는 이 삼림의 수목을 벌채시켜 본부의 수입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어린 나무를 식부하여 조림을 하는 것이다. 현재의 한라산의 中腹 이상의 면적은 실로 2만7천6백89정보나 되어, 자작나무·졸참나무를 주로 하는 삼림은 1만4천5백17정보, 구상나무를 주로 하는 입목지는 2천8백23정보, 무입목지가 1만3백19정보 정도가 된다.

지금 본도 임목을 삼림식물대에 따라 살펴보면 난·온·한의 3대의 식물을 포용, 매우 수종이 풍부하여 전 조선중 가장 삼림식물이 많은 곳이다. 이 삼림지대는 토질이 비옥하고 우량도 많아 식물의 성장에 가장 알맞다.

자작나무, 졸참나무를 주임목으로 하는 材積 2백47만여 尺繣(註 : 1尺繣는 12立方尺)을 갖는 입목지대, 즉 면적 1만4천5백정보의 목재를 50년간에 벌채해서 이를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1개년의 벌채량은 약 5천尺繣로 이외에 구상나무를 주임목으로 하는 2천8백정보의 입목지대는 한라산 정상에 존재하는 관계상, 국토보안의 의미에서 아주 소량의 벌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1개년 약 5백 尺繣의 벌채량이다.

이상의 벌채목은 산림과의 직영으로 벌채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에 의해 일부는 공매하고 그 외는 수의계약에 의해 입목불하를 하고 있다. 그 주된 용도는 지방민의 신탄재(薪炭材)와 표고재배업의 자목(資木)으로서 불하하고 있다.

大正10년(1921)에는 1만3천여원의 수입을 얻었고, 동 11년에는 1만2천2백여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그 용도는 用材·신탄용·표고資木이다.

또한 조림사업에 관해서는 전술한 불하에 의해 벌채한 그루터기를 경신하는 것과 현존하는 무입목지 1만여 정보의 조림 등 두 가지로 나

눠지고 있다.

벌채 그루터기의 조림은 현존목의 약 20%를 모수(母樹)로 해서 남겨두고, 이로부터 떨어지는 종자를 갖고 자연력에 의해 어린나무를 키워 갱신할 계획이다.

무입목지의 조림은 50년간에 걸쳐 모든 조림을 끝낼 계획으로 1년에 약 2백정보의 면적으로 조림하여 大正11년(1922)부터 착수하여 그 면적은 10정보였지만 大正12년(1923)에는 1백50정보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요하는 수종은 약 2정보의 묘포(苗圃)를 마련하여 養苗中인데 전부 조선송이다.

본도 임업의 장래에 있어 사실상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의 3요건일 것이다.

1. 임업지와 농목지와의 이용구역을 결정할 것.
2. 민유조림을 적극 장려할 것.
3. 야화를 절대적으로 제한할 것.

또한 한 마디 덧붙일 것은 본도의 기후 및 토질로부터 추산하여 삼나무나 편백의 조림을 적지에 시행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8) 수산제품검사소

본소는 大正7년(1918) 정의면 성산포에서 개청되었지만, 부산-본도간의 朝郵기선이 항로를 변경하여 제주항을 중계지로 한 때문에 大正10년(1921) 4월 제주로 이전했다. 본소 설치의 목적은 수·반출의 수산물의 품질에 일정한 엄밀 검사를 하여 조악부정(粗惡不正)한 상품을 시장에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산물의 성가(聲價)를 높이고 생산자의 영원한 이익을 기도하려는 것이다.

지금 수산제품 검사의 개황을 말하건대, 금년은 전년도의 재계불황에

이어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대중국환의 시세가 부진하면서도 차츰 안정된 것과 일자(日資)배척의 기세가 줄어든 탓으로 수산제품의 수출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과 내지(일본)에 있어서는 식량문제의 영향을 받아 통조림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직물업계의 부활로 해조류의 시가가 올랐으므로 수산물은 다소 활기를 띠었다. 단지 어패류는 미가(米價)의 점락(漸落)과 북해비료에 밀려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 외에는 전년도에 비해 검사수량에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수검품(受檢品)의 개요를 말해보자.

식량건제품 : 수검수 51개로 전년보다 17개 증가했다. 이는 건복(乾鰒)의 출하가 많아진 것과 상어지느러미가 새로 출하한 때문으로 해삼과 건복은 본도산은 모양이 크므로 건조에 많은 날짜를 요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건조 불충분으로 불합격의 원인은 이에 기인한다.

식용통조림 : 검사수는 2천5백4개로 전년보다 2백28개가 증가됐다. 이는 금년도는 4개소의 공장증설에 의한 것으로, 본도산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열등한 것은 공장설비의 불완전과 기술의 졸렬에 기인한다.

비　료 : 금연은 겨우 3백22개로 전년보다 1백64개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기후에 제한을 받아 조선인의 식용젓갈류로 제조된 때문이다. 본품은 점차 개량되어 가고 있다.

해　조 : 전년은 우뭇가사리, 앵초(櫻草)의 수검은 있었지만 금년도에 전무인 것은 해녀조합에서 공동판매에 부쳐 우도방면에 집하시켜 부산방면에 일본선박으로 이송시킨 때문이다.

본도에서는 대중국무역품인 해삼, 건포, 상어지느러미와 같은 중요제품을 내놓고 식량통조림에도 전복, 소라, 삼치, 장어 등의 통조림을 내놓고 있다. 해조류로는 우뭇가사리, 海蘿, 銀杏草, 櫻草, 小凝菜를 내놓고, 비료는 멸치찌꺼기, 말린멸치 등 다량의 생산을 보고 있다. 본도산

은 식량건제품을 제외한 제품은 일반 시세에 있어서 2~3할 저렴한 것이 유감스럽다. 이는 기술의 유치함과 공장의 불완전, 중매의 부정 수단 등에 원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장래엔 개량을 위해 지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9) 종묘장 제주지장

제주지장은 본디 총독부모범장목포지장의 출장소였지만 明治45년(1912) 4월 전라남도제주지장으로 개편되면서 사업을 확장, 성내 삼도리(三徒里)로부터 大正2년(1913) 7월 성밖 동문동(東門洞) 삼천서당(三泉書堂)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사업은 주로 본도의 풍토에 적응하는, 농업상의 시험·조사·연구를 하며 작물의 재배에 관한 모범을 보이고 종묘의 배부, 보리·콩의 증식계획에 수반하는 원종전(原種田)의 재배를 실행하고 있다. 또 나아가서는 강습·講話·기타 실지 지도를 하고 있다. 지장장을 도사가 겸무하고 技手 3인이 또한 겸임하여 논 9畝 밭 3町5反 남짓을 갖고 있다.

작물재배·농구·비료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한 시험성적은 도종묘장 보고에 게재, 각 면·학교·독농가 등에 배포하여 참고토록 하고 있다. 특히 감귤의 연구 조사, 고구마 시험, 대맥의 순계 선택, 면화의 선종, 육지면 시험성적은 일반농민의 주의를 환기시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날로 늘고 있다. 그 밖에

수도(水稻) : 試驗　　면화 :　　試驗
대두(大豆) :　〃　　감저 :　　〃
맥·소맥 :　〃　　소채(蔬菜)　: 〃

농산의 개량증식은 우량종자 등을 얻어 이를 증식하는 것을 가장 첩경으로 여기는 것은 구차한 설명이 필요없다. 본지장은 이런 시각에서 사정이 허용하는 한 종묘를 육성 또는 구입한 위에 일반 희망자에게 유

상 또는 무상으로 배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보리·벼·콩·조·밭벼·소채·고구마 등 다양을 배부했다.

또한 견본원을 마련하여 소채를 온실재배하여 일반농민에게 마음대로 종람(縱覽)토록 하여 농업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장차는 이를 확장하여 한층 권위있게 하고 專務技手를 두어 각종 시험과 감귤묘의 양성을 실행할 예정이다.

11. 교　　육

본도는 육지부와 멀리 거리를 두고 있으며 문화의 중심과 떨어져 있지만 유교는 옛부터 성하여 고려말로부터 이조 문종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왕성하였다. 제주성내의 공자묘는 이태조 이성계시대에 세워졌고 그 후 대정·정의에도 설립되었지만 거의가 허례수식(虛禮修飾)에 흘러 교학(敎學)의 본지(本旨)는 沒却(沒却)되고 향교에는 門前雀羅(註 :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문전에 참새를 잡는 그물을 칠 정도로 쓸쓸하다는 뜻)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본도는 옛부터 중앙정계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정치적 실각자가 도망쳐 와서 여생의 달을 바라보면서 시골 선비로 행세, 도민의 자제를 교육시켰기 때문에 독장문필(讀長文筆)의 보급은 비교적 순조로왔다.

明治36년(1903) 봄, 즉 지금부터 20년 전 목포의 하라(原) 某가 도민을 계발하는 데는 교육이 빠르다는데 착안, 본도에 와서 일어학당을 세워 자제 교육에 종사했으나 당시 목사 홍종우(洪鍾宇)씨가 천주교를 깊이 믿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기획을 불쾌하게 여겨 피차간에 분쟁을 일으켜 목포영사관은 原교사를 소환, 학교경영이 한때 좌절했다. 그 후 明治40년(1907)께 보통학교·농림학교·소학교 등이 잇따라 세워졌고 대정·정의에도 보통학교를 설립, 최근에는 이상스러울만큼 발달하여 관공립학

교만으로는 만족치 않고 사립학교·개량서당 등이 속속 증설, 일찍이 볼 수 없는 대성황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1) 鮮人(한국인) 교육

선인(鮮人)의 초등교육 기관으로 공립보통학교·사립학교·개량서당, 그 밖에 구식 한문서당이 지금도 다수 존속하고 있다. 이 한문서당은 오늘날의 교육의 안목에서 보면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이들 서당 교사들 중에는 완미(頑迷)하기 그지없어 신교육 시설을 향해 악의에 찬 선전을 하고 공립학교에 화살을 돌리는 일이 있다는 것은 민소(憫笑)를 금할 수 없다. 그들은 국가사회란 무엇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제2의 국민을 양성할 것인가, 또 사상의 선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는 전혀 무관심이다.

공립보통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종래 3면1교제를 실시했지만 도민을 계발하는 데는 교육을 보급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여 大正12년(1923)에는 학교 5개교 외에 4개교의 증설을 단행했다. 大正14년도까지는 1면1교의 실현을 예기하고 또한 수업 연한 6년의 학교를 4개교로 하면서 동시에 여자학교를 증설, 2학급제의 1개교를 설립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본도 공립학교는 합계 9개교, 34학급, 교원수 42명인데 유자격자와 무자격자가 반반씩이며 아동총수는 2천4백99명, 총경비 12만円의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 濟州公普校 : 제주성내에 있으며 明治40년(1907) 창립. 현재는 9학급 외에 부설학교 2학급 교원 10명이 있는데 大正12년(1923)에 교실 4개를 증축하고 大正13년도부터 2학급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朝天公普校 : 신좌면 조천리에 있으며 大正9년(1920) 창설. 현재 학급수 4개 외에 부설학교 2학급을 갖고 있으며 大正12년 유지들의 기부금 2천5백20円을 보태여 2교실을 증축한 본면의 사람들은 資力도 충실한데 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계속적으로 기부금을 갹출, 최근에 와

서 설비상으로 면모를 새로이 했다.

■ **舊左公普校** : 구좌면 김녕리에 있으며 大正12년(1923)에 창설. 교사는 4교실을 신축하여 교원 3, 2학급 외에 부설 1학급을 더해서 개교했다. 면민은 교육열이 왕성하여 김녕리민만으로도 9천7백50円의 거액을 이 신설교에 제공했다.

■ **城山公普校** : 정의면(성산읍) 고성리에 있으며 금년 새로이 신설됐다. 교사는 4교실을 신축하고 2학급 외에 1학급을 더하여 교원 3명이 있으며 면민은 7천7백50円이라는 거액을 이 신설교에 제공했다.

■ **旌義公普校** : 동중면(표선) 성읍리에 있으며, 明治44년(1911) 창설. 현재 4학급 외에 부설 1학급과 교원 5명이 있으며 大正12년(1923) 도의 계획으로서 5천円의 기부금을 가지고 2교실을 증축하기로 되어 있다.

■ **西歸公普校** : 大正9년(1920)에 창설되어 현재 5학급을 갖고 교지는 높고 건조하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을 선택했다.

■ **大靜公普校** : 대정면의 옛 읍내에 있으며 明治44년(1911) 창설. 현재 4명의 교원에 4학급을 갖고 大正2년(1923)도에 3천5백円의 대수선 공사를 시행키로 되어 있다.

■ **舊右公普校** : 구우면(한림)명월리에 있으며 大正7년(1918) 사립보통학교로서 인가를 얻었다. 그 위에 大正12년(1923)에 공립으로 이관되었다. 현재 교원수 4, 학급 3 외에 부설 1학급이 있다. 본년도의 사업으로서 기부금 5천7백50円을 더하여 2교실의 신축과 3교실의 대수선을 단행했다.

■ **新右公普校** : 신우면(애월) 애월리에 있으며, 大正12년(1923)에 신설된 것으로서 교원 4명이 있으며 3학급 외에 부설 1학급이 있고 7천2백50円의 기부금으로 2교실의 신축과 2교실의 수선을 단행했다.

위 9개교 외에 大正13년도(1924) 예산과 서중면민의 기부금 5천円을

갖고 西中面(南元) 남원리에 서중공립보통학교를 신축중인데 오는 10월부터 개교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2~3년간에 도민의 교육열이 높아진 때문에 각 면에는 개량서당이 속속 증설되어 공립학교에 수용할 수 없는 과잉아동을 수용하여 공립보통학교와 비슷한 교육을 베풀고 있다. 그 경비는 수업료와 관내구민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지만, 설립의 기초가 박약하여 때때로 흥폐(興廢)의 변화가 있는 등 유지가 곤란하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는 수개 리의 공동경영으로 하여 상당한 기본금을 적립, 그 이자로서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주공립농업학교 본교는 제주성내에 있으며 본래는 간이농업학교였지만, 大正9년(1918) 10월 공립농업학교로 승격하여 수업연한 2년이었지만 大正12년(1923)도부터 3년으로 연장되고 또 大正11년(1922)도에 2교실을 증축하고 잇따라 大正12년도에 1교실을 증축, 기타 부속건물을 신축·개축을 하고 부지도 확장하여 종래의 면목을 일신했다. 현재는 교장 이하 6명의 교유(教諭)에 생도정원 1백50명, 실습지·밭·논·산림을 합쳐 1천8백여평, 경비 1만8천6백여円으로 일반 농업상의 지식·기능을 가르치는 외에, 수산과를 증설하여 본도 실업 발전의 급선봉을 맡고 있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다.

또한 개량서당 수는 합계 47, 교원수 1백7, 아동수 3천4백32명을 헤아리고 있지만 그 중에는 기본금을 가지고 기초가 든든한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지가 곤란한 곳이 많고 한편으로 교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마땅치 않은 것도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의 교육기관도 결코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視學制度를 실시하여 감독을 엄중히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는 일이 긴급하다고 생각된다.

2) 내지인(일본인) 교육

본교육은 내지인이 본도에 이주한 후에 기원을 이루어, 우선 제주성내에 明治39년(1906)에 재류일본인회의 이름으로 소학교를 창설했던 것을, 明治40년(1907) 3월 학교조합립으로서 심상(尋常)소학교로 됐던 것인데, 현재는 제주심상고등소학교로 되어 있다. 그 후 서귀포·성산포·추자도에 각 1교씩 설립되어 지금은 4개교 6학급, 교원 8명, 아동 1백30명, 경비 1만2천4백円 정도로, 본부로부터 1학급당 1천円,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백50円의 국고보조가 있으며 지방비로부터 1학급 3백円, 1학급이 증가될 때마다 1백円의 보조를 받고 그 나머지는 소수의 학교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있다.

■ **제주심상고등교** : 明治39년(1906)에 거류 내지인이 창립, 明治44년(1911) 조합립으로 되어 45년에 고등과를 병설, 현재는 3학급 70여 아동을 지니고 있으며 大正2년(1923)에 2교실 증축과 교원 사택을 신축키로 결정하여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 **서귀심상교** : 우면(서귀포) 서귀포에 있으며 大正6년(1917) 2월에 창립, 교사는 舊官有建物을 개조하여 현재 2학급 35명의 아동을 지니고 있다.

■ **성산심상교** : 정의면(성산) 성산포에 있으며, 大正7년(1918) 2월에 창립. 某民家를 매수해서 교사로 하고 현재 1학급 15명 정도의 아동을 보유하고 있다.

■ **추자심상교** : 추자면 대서리에 있으며 大正8년(1919) 6월에 창립. 현재는 1학급 10명 정도의 아동을 보유하고 있다.

12. 종　　교

조선의 종교는 옛날에는 불교가 매우 왕성해서 일본으로 전해진 불교도 조선을 경유해서 도래할 정도로 조선각지에 불교에 속하는 대가람(大伽藍)의 사원은 있지만 그 종교상의 세력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옛날에는 불상이나 경전을 조선으로부터 일본황실에 헌상했을 정도였지만은 지금은 거의 쇠퇴해서 그림자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도에서는 제주면 아라리 한라산의 中腹에 臨濟宗에 속하는 관음사(觀音寺)라고 칭하는 一寺를 보유하고 승려 수명이 있기는 하나 포교상의 세력은 미약한 것이다. 그래서 도민의 사자(死者)가 생기는 경우, 혹은 省墓의 경우에는 하등의 불교상의 형식을 밟는 일을 볼 수 없으며, 또 승려의 포교 연설등 민중을 감화·선도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볼 수가 없다.

단지 본도에 이주해 있는 내지인을 위해 제주면 삼도리에 본원사포교소가 있어 내지승 1명이 주재하여 내지인들의 포교에 종사하는 한편으로 형무소의 교회사(敎誨師)를 겸무해서 수인(囚人)의 감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장래는 다수의 조선인을 상대로 해서 크게 포교에 노력해서 심령계의 개척에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부터 약 30년전에 본도에 들어온 천주교는 제주성내에 교회당을 마련, 우면 서홍리에 예배당을 만들고 프랑스인 선교사 1명씩을 주재시켜 포교에 종사, 신도의 증가를 도모했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2년전, 본교에 있어서 커다란 쟁난이 있었다. 그 즈음에는 외국인은 치외법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나쁜 일을 하는 도민이 있다 해도 천주교 신도가 되어 외인 선교사의 그늘에 숨어서 그 죄를 면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민중 불량한 무리들은 사기·절도·간음 등의 죄악을 마음대로 저질러, 그

행위가 악화돼서 횡포를 이루고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자 일반 양민은 천주교도를 증악(憎惡)하는 마음이 강렬해져 드디어 대정면 李才秀(이재수)(在守)·강휴백(姜休伯)·오대현(吳大鉉) 등이 수괴가 되어 수백 명의 민중을 이끌고 대정을 출발, 명월·곽지의 각리를 거쳐 성내에 밀려들었다.

성내의 신도들은 사방의 성문을 닫고 자구책을 강구했다. 성밖의 공격자들은 성벽의 주위를 포위해서 음료수의 수송로를 차단, 성내에 발포하면서 위협했다. 성내의 부인은 여러 날의 포위에 음료수가 바닥나 드디어 성문을 열었던 바, 도민들이 일시에 쇄도하여 6백명의 교도를 살륙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프랑스군함 1척·일본 군함 1척이 내항하고 한국정부 또한 진영대(鎭營隊) 1개 중대를 파견하였지만 이미 폭도를 진압한 후였다.

그후 천주교도는 그 수가 감소하고, 프랑스인 선교사도 타지로 전근하여 현재 2백명 정도의 신도를 보유하며 조선인 목사 1명이 주재하고, 년 2~3회 외국인 선교사가 내도해서 순교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에 미국계에 속하는 장노파(長老派)의 耶蘇敎(기독교)가 들어왔다. 이 파는 최근 매우 왕성하여 신도는 속속 증가하고 예배당도 차츰 증설되었다. 제주성내에 굉장한 예배당을 신축하는 외에, 제주면 삼양리, 신우면(애월) 금성리, 대정면 모슬포, 좌면(중문) 중문리, 동중면(표선)성읍리, 신좌면(조천) 조천리의 7개소에 예배당을 마련, 신도 합계 4백80~90명을 헤아렸으며, 목사 3명이 예배당구역을 분담하여 열심히 포교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부대사업으로서 제주면 삼도리, 대정면 모슬포에는 서당을 마련, 신도의 아동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영국계에 속하는 耶蘇敎(기독교)로서 7일안식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세력은 미미한 것으로서 신우면 애월리와 중면(안덕) 사계리에 교회당을 갖고 신도는 겨우 40명 정도, 목사는 없고 전도사만이 포교에 종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비상한 세력으로 신도가 격증하면서 막강한 세력을

보유하게 이른 것은 普天敎이다. 이는 종교로서 공인된 것은 아니고, 유사단체에 머무는 것이다. 그 기원은 약 20년전 吽跺敎라는 것을 전북 정읍의 강증산(姜甑山)이라는 자가 선도교(仙道敎)로 고쳐 자기 직업이 의사인 것을 기화(奇貨)로 하여 신자를 의술을 갖고서 그 종교를 믿으면 어떤 난치병도 즉시 치유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우민을 끌어들였다. 강증산은 교조(敎祖)가 됐지만 몇 해전 병사하여 그 高弟 차경석(車京錫)이라는 자가 이를 이어 받아 포교에 종사하고, 조선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갖가지 책략을 부리며 신자를 끌어 들였다.

大正2년(1913) 경상북도 사람 김연일(金蓮日)이란 자가 본도에 와서 신도들을 모으는데 부심했다. 그 선언하는 바는 「國權回復」에 있으므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도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였다. 즉 大正7년(1918) 10월 좌면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부락민 수백 명을 이끌고 습격, 주재소에 방화했지만 응원 경찰이 급히 달려와서 폭민들을 해산시켰다.

그런데도 그 후로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면 고위고관을 수여한다고 설득하면서 사령(辭令)을 내보낸다든지, 이 교를 믿으면 자손이 번창하여 일가가 행복을 향유하게 된다고 감언이설로 우민을 기만하여 금은재산 사취(詐取)를 일삼아, 본도 경찰서에서도 십수회에 걸쳐 간도(奸徒)를 검거하였지만 비밀리에 교묘히 법망을 피함으로써 전교도의 전멸을 꾀하기까지에는 이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민 중에 재산을 착취당해 무일푼이 된 자도 다수 있다.

차경석은 당국이 주목하는 바를 간취(看取)하여 이름을 普天敎로 고치고 내용을 개선한 것 같이 위장하면서 우민회유·금전흡수에 노력하고 있다. 大正11년(1922) 성내에 眞正院正敎部를 두었다가 금년 3월 승격해서 眞正院이 되었다. 장용견(張容堅)이 원장이 되고 문창래(文昌來) 이하 4~5명이 간부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신도 수만이라고 칭하고, 신도로부터 빨아들인 금품을 본부에

보낸다고 하지만 의문의 눈으로 보아지고 있다. 앞으로 본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문명적 지식을 보급하여 우민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지 않으면 안된다.

13. 산　　업

남조선해양중의 대고도(大孤島)를 「숨겨진 보고(寶庫)」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산업발전의 천연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 三姓에 관한 신화를 기록한 속에 3인의 여자와 망아지·송아지 그리고 오곡의 씨앗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본도 인류의 생활이 최초로부터 농업을 생활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것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시시대의 인류의 서식에 있어 생활의 요구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노력했었다는 것은 다툴 필요가 없는 일이다. 본도도 교통상 완전고립의 위치에 있어 자급자족을 위해 천연을 이용하고 각종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병합전후부터 문명적 시설이 현저히 진보한 때문에, 산업상에 있어서도 장족의 발달을 이루있고, 천연요소의 이용도 차츰 합리적·과학적으로 되어왔던 것이다.

태고적 도민의 주소는 음료수가 풍부한 토지에 집중하여 가옥은 산록일대의 대삼림을 난벌하여 온 것으로서, 의복은 개가죽이나 소가죽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겨울철 이외의 의복은 麻(삼)류의 섬유를 손으로 짠 것을 사용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식물(食物)은 오곡 중의 조·보리를 조방적(粗放的)으로 경작해서 얻은 것과 야생식물의 유아(幼芽)를 먹고 6축, 즉 소·말·양·돼지·닭·개 등의 가축의 수육을 주식으로 했다.

불완전한 어로에 의해서 어패류를 포획해서 부식물로 했다고 생각되므로 주식물은 경작에 의해서 수확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본도의 지층은 제3기층에 속하지만 점토질을 지니고 있는 곳은 적어서 대개는 화산회와 오랜 세월을 거친 전토(塡土)등이 용암사이에 전충(塡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빗물은 침투해서 지하수가 되어 해안에 분출하고 있으므로 육지방면과 사정을 달리하여, 논은 적고 밭으로서 경작해 왔던 것이다.

본도의 면적을 용도에 의해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산야 : 5만6천7백98 정보, 官民有合算.
논 : 8백95 정보, 1호당 2畝半
밭 : 10만4천31 정보, 1호당 2町8反6畝
대지 : 2천1백70정보, 1호당 5畝.
목장 : 6만8천3백95 정보, 1호당 1町8反8畝.
계 : 23만2천3백53 정보.

밭 가운데는 휴한지라고 해서 2~3년 내지 5~7년간 경작을 휴지(休止)하는 토지가 있다. 그 면적은 거의 4만 정보에 가까운 것으로 자연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비경제적인 방법이다. 그 휴한하는 이유는 토지를 휴양시킴으로서 지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이는 경작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에 다름아니다. 그래서 현재의 농업은 집약적 농업을 설득하기보다도 이런 휴한지를 줄여서 끝내는 전 경지가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길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써, 도민에게 근면을 장려함과 더불어 도외로부터도 농민을 이주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장 휴한지가 많은 중간지대에 부락을 조성케 하려면 당장 직면하는 것은 음료수의 문제가 있지만 지하수를 이용한다든지, 또 한라산 中腹으로부터 인수하는 일은 경비의 다과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엔 장차 가장 유망한 육지면의 재배, 또 뽕나무밭의 설치, 감귤재배 등을 업으로 하는 훌륭한 낙원을 가는 곳마다 조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해서 비로소 집약적 농법으로 진보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 믿는다.

우마목축의 상태는 우리나라 판도안에서 유일하게 특이하며 참다운 목축은 본도에 있어서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옛날부터의 주생산은 목축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행정의 주체는 목축의 관제를 마련하여 우마는 국유로 하여 본도가 원, 혹은 명, 혹은 이조에 예속되었을 당시는 유일한 헌공품은 우마였다. 60여년전 목축관제를 폐지하여 우마를 민유(民有)로 이양할 당시의 국영목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6만여 정보에 달했지만은 실제로는 섬이 곧 하나의 커다란 목장으로서 민가는 그 안에 점재하여 분담하는 목부였다. 住家경지는 돌담으로 둘러싸인 외에 지표는 우마의 자연방목에 충당되어 가축수가 많기로는 소·돼지는 조선의 작은 「道」와 백중하든지 혹은 능가했다. 말은 전 조선의 3분의 1을 보유하였고 소는 일본의 10여현을 제외한 다른 도·부·현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은 가축분포의 조밀도의 정도를 헤아리기에 넉근하다.

이상의 가축 대자원의 이용·판로·가공업 등이 기획화된다면 목축은 장래 해산물과 함께 본도의 주요산업이 되리란 것은 구차한 설명이 필요없다. 가축자원의 절대성은 참으로 장차 희망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돼지의 가공업, 양계생산물의 1백만 반출의 실현이 가까운 장래에 섬의 산업을 채색하며 조선 관계업계의 물가를 좌우하기에 이를 것이다.

바다에는 무한의 어족이나 풍부한 패조류가 우리들의 포획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로는 어로방법의 유치함과 어항의 불완전 때문에 어획고도 적고 처리방법도 유치하여 염건어(鹽乾魚)의 산출도 적다. 그러나 장래 안전한 어항이 수축되는 그날에는 어법의 진보와 어울려 현재의 수배에 달하는 산출액을 보게 되리란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 공업으로서는 수산제조업, 즉 통조림·조개단추·멸치찌꺼기 등 두서너 가지 외에는 거의 볼 만한 것이 없다. 단지 수공업으로서 조선帽·조선빗·신·양말·요업품 등 몇 가지가 있을 뿐으로 그 이외에는 보잘 것 없다.

상업도 표고·마른전복·해삼·상어지느러미 등 너댓개의 외국무역품을 제외하고는 도내외의 수급을 충당하는데 지나지 않는 형편이다. 장래 물자의 반출·입항으로서 설비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도내 각 방면의 발전과 더불어 반출품의 격증을 보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

현재 본도의 산업의 발달 정도는 어느 것이나 유치하여 겨우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정도에 멈춰 있으므로 자금을 가진 실업가를 맞아 비로소 그 보고는 열릴 수 있는 것이다.

1) 보통농사

본도는 경지가 풍부하여 1호당 反別도 따라서 많다(전남의 1町2反步에 비해서 본도는 2町2反步). 또 그 경지의 전부가 밭이므로 전작(田作)을 주로 하여 해안지방에서는 반농반어이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많다.

경종조직(耕種組織)은 자본적으로도 노력적으로도 매우 조방(粗放)하여 지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화전지대, 목장지대 및 평지부 즉 해안지대로 나눌 수 있다. 화전지대는 가장 조방(粗放)하여 목장지대에서 해안지대로 이름에 따라 집약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耕鋤(밭갈이)는 일반적으로 재래의 가래를 쓴다는 것이 육지방면과 큰 차이는 없지만 토양에 돌·자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밭갈이는 곤란한 쪽이다.

파종은 어떤 특종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살파(撒播)이다. 그 방법은 매우 재미있게 되어 있다. 즉 밭갈이 한 후 종자를 살포하여 흙을 덮고 진압하는 것이지만 그 진압법은 우마 수마리 혹은 십수마리를 밭

가운데 끌어들여 하나의 기점으로부터 나가면서 질서있게 밟도록 하여 이를 진압토록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나무 가지 등을 모아서 묶어 소로 하여금 끌게 하여서 복토(覆土)하는 것이다.

단지 고구마는 묘상(苗床)을 마련하여 2척 내외의 수렁에 삽묘(揷苗)한다. 소채류(蔬菜類)는 일반적으로 4척 정도의 수렁에 시비(施肥)해서 살파한다.

비료는 그 종류가 매우 적다. 농가 일반에 사용되는 것은 靑刈大豆(청대콩), 해초, 木灰, 人尿, 廐肥 등이며 기타 마른멸치, 멸치찌꺼기 등을 조금씩 시용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생산되는 어비(魚肥)는 搾粕(멸치에서 油·水分을 빼낸 것) 5천관 마른멸치 2만5천관 내외이지만 오늘날의 농민경제상태로는 구입·시용할 정도가 못된다. 겨우 마른멸치를 자가비료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출·판매하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다. 또 변소는 옥외에 돌담을 둘러 돈사와 접속해서 있는데 인분은 돼지 사료로 제공되는 한편 인분만으로 비료로 이용하는 습관이 있지만 근대에는 조금씩 비료통을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특수비료로서 貝砂(貝砂)를 채취하여 밭에 시용하는 곳도 있다. 또 본도의 비료해조는 주작물인 보리·조의 도복(倒伏)을 막고 그 열매의 품질을 높이는 특효가 있다. 또 청대콩의 재배는 옛부터 농민 사이에 널리 시행되어 그 시용이 본도에서 첫째, 지력은 이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윤재법(輪栽法)은 산간부와 평지부가 크게 달라, 산간부로부터 평지부에 이름에 따라 집약되어 휴한지가 적다. 동일 작물을 매년 단작(單作)하는 것은 2만정보 내외로 조·겉보리·면·밭벼·콩·팥·밀·쌀보리·메밀·稗·大麻·고구마 등이다. 또 동일작물을 매년 혼작하고 있는 것은 1천5백정보 내외로, 일정한 순서대로 2종 이상의 작물을 재배한다.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제 1식	면	겉보리・면	겉보리	-	-
제 2식	콩	겉보리・콩	겉보리	-	-
제 3식	조	겉보리・조	겉보리	-	-
제 4식	조	콩	겉보리・조	콩	겉보리
제 5식	조	밀	조・고구마	-	-
제 6식	조	콩	보리	조	-
제 7식	팥	겉보리	보리	조	휴한
제 8식	조	휴한	휴한	조	휴한
제 9식	밭벼	휴한	휴한	휴한	-
제10식	면	휴한	휴한	휴한	-
제11식	밭벼	조	휴한	휴한	-
제12식	밭벼	휴한	휴한	휴한	-
제13식	메밀	휴한	휴한	휴한	-

이 표의 제1식에서 제5식까지는 비교적 집약으로 거의 휴한하는 일이 없지만 제6식 이하는 차츰 휴한도가 늘어 심할 경우는 5년이나 10년만에 밭갈이하는 것도 있다. 작물의 종류도 粗放농업에 알맞는 메밀・피・조・콩과 같은 것이 대부분이며 목장지대로부터 산간에 들어감에 따라 제8식 이하의 조방법이 행해지고 있다. 휴한중은 잡초가 우거질대로 놔두어 경작하는 일없이 우마를 방목하는 곳과 새(띠)를 키워 지붕잇기와 또 도롱이의 재료로서 수확하고 있다. 화전지대에 들어서면 점점 원시적 농법으로 자연에 맡겨 재배불능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거주하는 자도 있다.

본도의 농가호수는 3만6천4백여호 이지만 대개는 자작겸 소작농으로, 대지주 및 순소작농이란 것은 극히 적다. 부의 정도는 균일하여 토지・분배가 잘 되고 있는 것은 본도의 독특한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부의 정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출가인이 7천내지 2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일반조선인과 달리 저축심이 풍부하여 갖고

돌아오는 돈과 송금액이 연간 수십만円이라고 한다.

여기서 보통 농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농업은 본도에 있어서의 산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의 성쇠는 바로 본도 일반경제에 지대한 관계를 미치게 되므로 始政(註 : 일제합병)이래 농업개량에 대해서는 여느 산업보다 비교적 많은 경비를 투자했다. 여러 방면의 시설장려를 유감없이 실행하는데 주력, 농법의 개량·증식을 도모한 결과 근래에 많은 진보를 보고 면모를 새롭게 했지만 아직도 지도·장려가 철저치 못한 것, 또는 계발·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적지 않으므로 수년 전부터 각종 시설계획을 정하여 이의 증수·계발에 주력하고 있다.

麥 作 : 보리는 본도 농가의 식료품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것이다. 그 作付면적은 2만6천정보를 오르내리며 평년생산량이 30여만석에 오른다. 실로 도민의 생명이라고 할 만한 것이므로 이의 우량종 보급을 도모하여 大正6년(1917)에 개량증수 5개년계획을 마련, 大正11년에 그 위에 제2차계획을 세우는 한편 재배법·수확·調製乾燥 등의 개선을 서둘면서 품질의 향상·수량의 증가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종전엔 보리의 반출·판매 등이 없었지만 점차적으로 자가용 일부를 제외해서 도외로 내보내 농민의 경제를 돕고 있다. 특히 본도에 유명한 「濟州倍取」라는 겉보리가 있는데 내지의 우량종 이상의 것으로 「조선제일」이라고 할 만큼 품질·수량 모두가 우수하다. 이는 종묘장지장에서 재래종으로부터 순계선택된 것으로 현재 총작부면적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大豆作 : 본도에 있어서의 재래콩은 품질이 매우 빈약하고 소립(小粒)이다. 이의 개량과 재배면적 확장의 여지가 대단히 많으므로 大正8년에 증수 5개년계획을 세워, 전남에서는 콩재배와 면작이 상충되고 있으나 본도에서는 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재배확장과 개량·증식을 도모, 적극

장려한 결과 우량종인 「赤殼/端川黑皮」등의 작부면적이 확장되고 산출량도 현저히 늘었지만 기후풍토의 관계상 북선지방과 같은 우량종을 얻을 수 없다. 현재는 작부면적 5천4백정보에 생산량 3만석 내외에 이르고 있다. 大正12년도(1923)부터 제2차계획을 세워 大正17년까지는 8만석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종묘장지장에서는 내지 각 현으로부터 우량콩을 끌어들여 시험중인데 가까운 장래에 본도에 알맞은 장려품종이 결정될 것으로 되어 있다.

栗 作 : 조는 본도 농작물 중에서 겉보리에 다음가는 주요작물로 도민은 1년의 3분의 1은 조를 상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작부면적은 2만9천정보, 생산량은 3만석 이상을 웃돌고 있다. 재래품종은 15종 이상이나 되지만 우량품종인 「青味實强突種」 같은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이의 보급을 도모하면서 불량품종을 제거하고, 그 대신 우량종 「무코다마시」를 재배시켜서 수량의 증가와 품질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도외로의 반출이 성행하고 최근에는 내지까지 나가는 실정, 겉보리와 더불어 농업경제를 돕고 있다.

甘藷作 : 본도의 기후풍토는 양호하여 고구마에 알맞으며 수량도 적잖다(5개년 평균 反當 3백관). 종묘장지장의 시험결과는 「元氣種」이 가장 좋음으로 종묘를 육성·배부, 이의 보급을 도모함과 함께 저장 및 가공법의 지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 장족의 진보를 보아 작부면적 4천정보에서 생산량 1천만관에 이르러 농가의 경제를 돕고 있는데 다른 식물(食物)이 없이도 전 도민을 60일간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보리·조·콩 등 고가로 팔 수 있는 다른 곡숙류(穀菽類)의 절약을 도모하고 생체로 도외에 매년 10만円 가까운 반출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의 가공법 장려를 위해 지주회(地主會)와 함께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한 大正11년도(1922)부터는 대만에서 薯切器(切干機)를 공동구입하

여 제조(註 : 切干 고구마)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하나의 산물로서 도외에 반출시킬 방침이다.

水稻作 : 본도의 논면적은 겨우 8백94정보로 연평균 7천석 내외의 생산으로 도외에 반출된다. 그런데 도민의 관혼상제용으로 1년에 3~4회 식용할 정도이므로 본도 산업정책상으로는 중요시할 만한 것이 아니다. 또 논의 개간도 당분간 가망 없는 상황이다. 본도 조성의 골자인 현무암은 열구(裂口)가 종횡으로 나 있어 강수는 암반 밑 깊은 곳을 지나 지하수가 되어 하천은 물이 흐르지 않으며 냇가에서조차 용수(湧水) 또는 지표수를 보는 일은 드물다. 용수는 대개가 하구 또는 해안 가까운 구릉 밑에 있어 이를 논에 이용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상태이므로 인가가 해안에 집중, 경작거리가 멀고 따라서 조방적인 농업이 시행되는 것이다.

陸稻作 : 벼는 매우 적지만 밭벼(陸稻)는 밭 면적이 넓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재배되고 있다. 그 작부면적이 3천8백정보, 생산량 1만석 내외에 이르고 있다. 도민은 상식하지 않고 관혼상제용으로 즐겨 쓴다. 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엔 종묘장지장에서 우량종을 배부했지만 올해부터는 증수계획을 세워 재배면적을 확장시킬 방침이다.

<附　　記>

감귤재배

조선에 감귤이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본도는 옛부터 이의 재배가 성행하여 제주십경의 하나로 일거될 정도이다. 그 종류도 아주 많아 12종 이상이나 되며 그 전래의 역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고증의 재료가 없으므로 그 연대를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본도의 문헌에 비추어 보건대 5백년 이전부터 재배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종래의 종류로 영리적 재배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 둘 있지만 내지의 우량종 온주, 네블, 하밀감(夏蜜柑)이 처음 재배된 것은 13년전 미네(峯)某, 박영효(朴泳孝) 양씨에 의해 시도되고 그 후 島技術員의 조사·연구 결과 좋은 성적을 올려,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계획을 수립, 大正9년(1920)부터 매년 7천~8천본의 우량종을 내지로부터 끌여들어서 재배하고 있는데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 현재 一段步 이상의 우량종 재배자는 3명이며 성내의 홍씨는 1段5畝步로 순익 3백円을 올리고 있다(12年生). 그런데 현재 내지로부터 조선에 반입되는 감귤은 농무국의 조사에 따르면 연액 88만円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조선의 토지에서 감귤을 생산하는 것은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래를 전망컨대 수용(需用)은 더욱 많아지며 그 판로도 조선반도뿐 아니라 만주, 시베리아, 지나(中國)과 같이 광대한 구역에 고객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호적지인 본도가 감귤의 부업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안성맞춤인 것은 본도의 지리적 상태 및 경제적 요소는 경사지의 이용과 토지·노력이 값싼 점에서 내지의 감귤 생산지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더구나 재배에 적합한 남쪽 및 동남쪽에 있는 토지는 족히 30정보 이상이나 있어 년중 서리가 내리지 않는 천혜의 토지이다.

본디 감귤은 열대지방 원산의 아열대 과수이므로 한기에 대한 대항력이 약하여 기후가 한랭한 지방에 있어서는 재배가 곤란하다. 따라서 감귤재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수용쪽에서는 완전 무제한으로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한의 구역에서 무한의 수용을 충당시킨다는 것은 본도의 사명이 크다는 연유이다. 그래서 본도를 이상적 적지라고 하는 까닭은 내지의 저명한 산지와 천연요소를 비교해 보건대 하등 떨어지는 점이 발견되지 않고 내지와 백중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감귤재배에 필요한 기온은 어느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안에서 될 수 있는대로 높아야 하는데 내지산지의 5개년 평균기온과 비교해 보면 본도 평균의 16.6℃에 대하여 본도보다 온도가 낮은 산지는 대판부의 泉南·泉北, 와카야마(和歌山)의 해안, 나가사키(長崎)의 西彼杵, 야마구치(山口), 구마모토(熊本), 고오치(高知), 애히매(愛媛), 시즈오카(靜岡)의 諸縣郡이다.

우리나라 감귤 분포의 상태는 대부분 바다에 면한, 난류가 초래하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 온난지이다. 그런데 영리적 재배구역의 북한(北限)은 거의 등온선 14도와 일치하고 있지만 최저기온의 비교로부터 보아도, 본도에 난류가 흐르고 있다는데서 말해도 본도는 호적의 범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우량에 있어서도 똑같이 백중하는 처지로 유명한 감귤산지는 1천5백밀리 내외인데 본도는 1천3백밀리 내외이다.

풍향에 있어서는 북풍이 많다는 것은 가고시마(鹿兒島), 나가사키(長崎), 사가(佐賀), 와카야마(和歌山), 오사카(大阪), 야마구치(山口), 히로시마(廣島)의 諸縣이며 서풍이 많은 곳은 나가사키, 오오이타(大分), 시즈오카, 에히메의 諸縣, 남풍은 고오치, 후쿠오카(福岡)교오토의 여러 지방이며 본도는 북풍과 북동풍이 많고 북서 및 남서풍이 이에 잇따르고 남풍은 드물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매서운 한풍이라는 데에 귀착한다. 이 한풍은 잎을 떨어뜨리고 나무가지를 고사시키기 때문이다. 본도의 남부는 이 무서운 북풍의 피해를 입는 일은 극히 적을 뿐 아니라 별다른 방한방비를 안해도 훌륭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또 토성에 대해서 한 마디 한다면, 내지의 저명한 산지는 모두가 경사진 역토(礫土)이다. 본도는 사화산으로 이뤄져 모암(母岩)은 현무암으로, 토양은 그 풍화에 의해 이뤄진 것과 화산회로 이뤄지고 있어 아주 적지이다. 본도 남부의 5개면은 역질양토(礫質壤土)가 풍부하므로 가장 알맞은 것이다. 바라건대 내지·조선의 자본가가 본도에 와서 이 사업

을 경영하게 되길 기대해 볼 뿐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제주로부터 에도(江戶 : 東京)까지 밀감선이 뜨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2) 수산업

본도는 조선반도의 남단과 큐슈(丸州) 고토(五島)열도와의 중간해상에 고립된 큰 섬이지만 연안의 만입굴곡은 매우 적어서 면적이 큰데 비하여 해안선은 짧아 겨우 연장 1백5마일에 불과하다. 연안은 높다란 흑색 화산의 용암으로 둘러쌓여 곳곳에 모래사장을 볼 수도 있으나 대체로 항만은 부족하다. 이따금 항만이 있긴 하나 암초가 항구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선박출입에 위험을 느껴 적당한 피난항이나 어선의 근거지가 될 만한 모항(母港)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본도는 대만 남서쪽에서 흘러내린 난류가 오스미(大隅)해협 서쪽에서, 본류에서 분리된 지류가 연안을 씻고 쓰시마(對馬)해협을 향해 흘러가는 곳으로부터 난류를 따라 참치나 가다랭이 등의 난류어족을 우리연안으로 유치해 온다. 또 삼치 고등어 멸치와 같이, 난조를 좋아하지만 또한 한조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족들도 많다.

조석간만의 차는 다도해 방면보다도 적어서 겨우 5, 6척의 차로, 창조(漲潮)는 서쪽으로, 낙조(落潮)는 동쪽을 향해 흐른다.

또 하천은 모두 작고, 유역도 길어야 4리, 짧아도 1리 정도이다. 대부분 평시는 유수를 볼 수가 없고 지하수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강우시의 탁수는 때때로 해수를 혼탁시켜서 멸치 등의 어획을 쉽게 하는 바가 있으나 연안의 굴곡이 없는 점과 하천의 수량이 빈약한 때문에 이들 일시적인 혼탁은 바로 맑아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어족의 체류기를 짧게 만든다.

본도 어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해조류나 패류 그리고 소수의 정착어를 제외한 외에 회유어류는 일단 본도 연안으로 내유해서 어민들에게 풍어의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기쁨일

뿐, 얼마안가 흉어에 한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필경 해안선의 굴곡이 빈약한 것과 도서가 적은 것, 해수의 혼탁기가 짧기 때문에 어족의 체류기를 짧게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도의 연안은 화산암으로 덮여서 이것이 해저까지 멀리 뻗어 있기 때문에 미역 감태 등 유용조류에 양호한 부착면을 부여하고 거기다 조류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들 해조류 번식에는 천혜의 장소가 되고 있다. 또 이들 해조류의 번식과 함께 전복 소라 등의 패류는 절호의 번식지를 확보, 전선(全鮮) 중에서도 굴지의 패류산지가 되고 있다.

일찍이 요시무라(吉村)씨가 지금부터 20여년전 비양도 부근에서 잠수기선으로 2시간만에 4斗들이통 10개 이상의 전복을 잡고서 처리가 곤란해 포획작업을 쉰 채 가공에 종사한지 수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후 이 길보를 듣고 내지인(일본인) 잠수업자들이 속속 밀려와 남획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섬에서 산출되는 수족은 멸치·고등어·전갱이·참치·가다랭이·방어·넙치·삼치·도미·황돔·흑돔·갈치·옥돔·저립·청새치·조기·숭어·붉돔·볼락·놀래기·성대·갯장어·상어·은어·뱀장어·오징어·전복·왕새우(닭게)·소라 등이며, 해조류에는 미역·감태·우무가사리·도박·톳·모자반·김 등이 있다.

이제 주된 어업만을 기술해 볼까 한다.

■**멸치어업** : 본도에서 생산되는 멸치는 정어리·샛줄멸·눈통멸 등인데 그 중에서도 정어리 등이 가장 많이 잡힌다.

매년 무리를 지어 섬 동쪽으로 헤엄쳐 들어와 여기서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하나는 북안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남안을 따라 서하해간다. 샛줄멸은 4, 5월에, 눈통멸은 6, 7, 8월에, 정어리는 8, 9, 10월경에 잡힌다. 속칭 치어의 포획은 가장 적고, 중간치 멸치가 가장 많으며 큰 멸도 때에 따라선 풍어를 이룬다.

이래서 북쪽 연안은 어기도 일정해서 다소 어군의 내유가 있으나 남쪽 연안은 풍향이 일정치 않아 때로는 수년 동안 전혀 어획을 보지 못하는 일도 있다.

도민들은 연안에 石提를 구축, 만조 시에 들어온 것들을 미명에 횃불을 밝혀 「족바지」로 건져 올렸었는데, 내지인이 들어와서 마른멸치를 사들이게 됨에 따라 차츰 규모가 큰 어구를 사용하게 되고 마침내는 상당한 발달을 가져와 본도 어업의 으뜸을 점하게 되었다.

그 가장 성대했던 시기는 明治40년(1907)경에서 5, 6년간으로 연안 곳곳에 내선인이 멸치搾粕工場을 건설했었으며, 大地曳網이라든지 大型防陣網, 旋陣網 등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일본인 자본가는 조선인 어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어업을 하도록 해서 어획물을 대신 취득, 이것을 搾粕비료로 제조해서 내지로 이송했다. 추자도민들은 젓갈류를 많이 제조해서 육지 방면으로 다량 판매하였다.

유명한 어장은 곽지・함덕・김녕・월정 등이다.

■ **도미어업** : 도미는 본도 연안 도처에서 풍부하게 산출되고 있으나 도민들은 종래 이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었다. 근년에 내지 통어선이 본어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선어운반업자가 석유발동기선을 본도로 보내어 쉴새없이 선어를 빙장(氷藏)해서 내지로 이송하기 시작함에 따라 어가가 급속히 앙등하고 도민어업자도 속속 도미延繩어업을 개시하게 되고, 당국의 傳習장려와 어울려서 오늘날과 같은 융성을 이루게 되었다. 도미의 몸체는 4백돈중에서 7~8백돈중까지의 것이 많고, 드물게는 1관 이상짜리도 있다. 어기는 연중 이루어지지만 성어기는 5, 6월 두 달 및 9, 10월 두달이다.

一本釣와 延繩(주낙)을 함께 사용하지만 연승이 가장 많고 어획물은 내지로 선어인채 이송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조선인 중매인이 어업자

와 특약 매수하여 조선반도의 유명도시로 빙장수송, 판매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이 때문에 도민들의 밥상에는 도미를 구경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 **황돔(連子鯛)어업** : 황돔도 연안각지에서 생산되는데 도민들은 보통 연승어선으로, 내지인은 석유발동기선으로 거룻배(傳馬船) 7, 8척을 싣고서 본도 서귀포를 근거로 하여 멀리 난바다로까지 출어, 연승어업을 하고 있다. 어획물은 선어수송업자의 손으로 내지로 빙장수송된다. 어기는 4, 5월 두 달과 9, 10, 11월 3개월을 성어기로 한다.

■ **자리 어업** : 본도의 특산물로서 큐슈(九州), 시코쿠(四國)연안에 나는 것과 동일하다. 도민들은 보통 「자리」라고 부르는데 직경 9척 정도의 四手網(뜰망)으로 떼배(筏船)를 사용해 많이 어획한다. 그런 모습은 아주 원시적이어서 구경꾼들에게는 진기하게 보이기도 한다. 어기는 남안은 4월에서 10월까지, 북안은 6월에서 8월까지인데 도민들은 날로든, 염장으로든 이것을 가장 기호한다. 산촌주민들은 이를 젓으로 담아 일상의 반찬으로 하고, 또 채소저림류 젓갈로 혼용하는 것이 습관이기도 해서 그 풍흉은 민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다.

■ **고등어 어업** : 고등어의 치어 5~6寸짜리는 멸치와 섞여 흘러들어 오는데, 초기에는 그 수가 적지만 8, 9월경에는 그 양이 많아져 도리어 멸치가 소량으로 섞이게 될 정도로 된다. 성어기는 가을 9월경부터 봄 2월경까지, 어화(漁火)로 밝히는 외줄낚시(一本釣)로 어획된다. 이 경우는 전갱이나 갈치와 혼획되는 일이 많다. 도민들은 날것으로 판매하는 외에 염장(鹽藏)을 하기도 한다.

■ **삼치 어업** : 본도 연안일대에 내유하지만 추자도 방면이 주산지이다. 어기는 4, 5, 6월과 9, 10월 2기로서 어법은 曳繩釣를 주로 한다. 대부분 선어로 내지에 이송된다.

■ **저립 어업** : 이 고기는 우도, 가파도방면에서 많이 생산된다. 섬의

漁業傳習船이 처음으로 염장갈치를 미끼로 하여 曳繩釣를 사용, 많이 어획하고서부터 도민이 모두 이 방법을 습득 활발히 어획하게 되었다.

성어기는 9, 10, 11월의 3개월간이다.

■ **옥돔 어업** : 본도 연안에 많이 나며 5, 6, 9, 10월의 4개월간이 가장 활발하다. 一本釣와 연승을 함께 사용하며 일부는 날것으로 팔지만 대부분은 배를 갈라 말리는 「開鹽乾」으로 해서 훌륭한 제품을 내기도 한다. 구우면(현 한림읍·한경면) 연안의 도민들이 이런 방법에 가장 익숙해 있다.

■ **조기 어업** : 옥돔과 함께 본도에 많이 생산되는데 주로 一本釣를 사용, 연중 어획하며 「鹽開乾品」으로 육지 방면으로 판매된다.

■ **갈치 어업** : 전도에서 많이 생산되지만 특히 남서안에 많고 몸체가 5척 정도되는 대형이 많다. 漁火一本釣로 낚아올리는데 염장해서 육지로 수송된다. 어기는 주로, 여름, 가을경이다.

■ **상어 어업** : 상어는 종류가 많아서 귀상어, 흉상어 등이 있는데 주로 내지통어의 연승선에 의해 어획된다. 비양도 防道浦 서귀포 등지를 근거로 해서 먼 바다로까지 나아가 조업한다. 어기는 4월부터 10월에 걸치는데 지느러미는 말려서 지나무역품으로, 고기는 염장해서 육지 방면으로 팔린다.

■ **청새치** : 旗魚, 油魚라고도 부르는데 본도 남안에 흘러 들어온다. 내지통어선은 서귀포를 근거지로 연승으로 어획하는 외에 날카로운 작살로 포획하기도 한다.

■ **가다랭이·참치·방어** : 曲建網으로 잡기도 하고 또 曳繩釣로도 잡는다. 주로 남서해안에서 생산되는데, 가파도, 서귀포방면에서 많이 난다. 염장해서 내지로 이송된다.

■ **은어·뱀장어** : 도내 하천에서 산출되는데 주로 일본인 낚시꾼이 投網 또는 穴釣로 어획한다.

■ **오징어** : 일반 오징어, 꼴뚜기, 물오징어 등이 있는데 북서, 북동쪽에서 많이 잡힌다. 어기는 5, 6, 7월경이며 야간에 조획(釣獲)한다.

■ **전복 어업** : 본도 전 연안에서 많이 산출된다. 본래 해녀가 裸潛漁業으로 많이 채취했고 내지인은 잠수기를 사용, 많이 어획하고 있다. 그 결과 남획에 빠져들어 생산액은 감소하고 있다. 도민들은 염건(鹽乾)으로 해서 육지로 반출하며 잠수기 어업자는, 일부는 명포(明鮑)로, 일부는 통조림으로 만들어 판매한다. 그밖에도 날것으로 석유발동기선에 의해 阪神지방으로 직송,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도 하다.

■ **소라 어업** : 전 연안에서 많이 생산된다. 해녀에 의해 한창 채취될 때에는 말려서 육지로 반출되지만 대부분은 통조림업자에게 팔려서 통조림제품으로 내지, 부산방면으로 반출된다.

■ **미 역** : 본도 전연안에서 양산되는데 해녀에 의해 채취된다. 채취기는 3월에서 8월까지이며 건제(乾製)로 육지방면에 많이 팔려 나간다.

■ **우뭇가사리** : 본도 연안중 성산포, 우도방면에서 가장 많이 나고 품질도 우량하다. 내지 寒天제조업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어 많이 반출되고 있다. 채취기는 5월에서 8월까지이다.

■ **감 태** : 본도 연안 도처에서 산출되지만 해류의 속도가 빠른 가파도, 우도방면이 가장 많다. 大正4년(1915년)에서 8년(1919년)까지 내지인 옥도제조업자가 경쟁적으로 매수해서 연액 30만円이나 산출된 적도 있었으나 유럽전란의 휴전과 함께 전혀 부진하게 되었다.

어획물의 처리법에 대해서는, 교통의 불편, 설비의 불완전과 육지와 격리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몹시 유치하다. 어획이 많은 경우는 보람없이 부패되거나 또는 눈앞에 어군을 보고서도 포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멸치는 착박(搾粕)공장이 설비되고, 도미는 염장외에도 빙장이

되어 내지로 이송되었다. 내지인의 통조림공장 개장으로 전복, 소라, 어류 등의 통조림제조가 성행하였다. 그리하여 도미·전복의 粕漬(찌꺼기저림), 갯장어 상어의 어묵을 만든다든지, 목자만(目刺鰻)을 만들고 가다랭이꽃고기(鰹節), 말린오징어와 젓을 만드는 등 근자에 와서 현저하게 제조법의 진보를 보게 되었다.

■ **착박 제조** : 멸치어업은 최근에 몹시 쇠퇴해진 결과 예전과 같은 성황은 볼 수가 없지만 조천·함덕·월정·김녕·곽지·성산포·추자도 등지에선 계속해서 공장을 설치, 연간 5~6만관을 산출하고 있다.

■ **통조림 공장** : 大正元年(1912년)경부터 성산포와 건입리에서 통조림 제조가 행해져서 오늘날까지 15~16개소의 공장이 있어서 전복, 소라 등의 통조림을 만들고 있다.

■ **잠수기 어업** : 이 어업자는 합계 13척이 있는데 행원·성산·서귀·모슬포·추자도를 근거로 전복은 명포로 만들고, 해삼은 「마른 해삼」으로 만들어 나가사키(長崎)로부터 지나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 전복은 말려서 阪神지방으로 직송하게 되었다.

■ **조개단추(貝釦) 제조업** : 이 업은 한때 왕성하였으나 무역부진때문에 현저히 생산액이 감소하게 되었다. 현재는 합계 9개소의 공장이 있고 연산 45상자를 제조하는데 불과하다.

원료는 소라를 주로 하고 大阪·和歌山 지방으로 송출하고 있다.

漁 業 組 合

1) 월정리어업조합

大正5년(1916년)에 창설된 조합으로 어업권 2개를 갖고 있으며 기본금

등 2천5백円을 적립, 어획물 공동판매와 조난구휼을 시행하는데 성적이 우량하다.

2) 추자도어업조합

추자도 일원의 조합으로서 大正7년(1918년)에 설립되었고 조합원은 1천6백명, 어업권 12건을 소유하고 있다. 어획물공동판매, 필수품공동구입, 조난구휼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3) 제주도해녀어업조합

이 조합은 섬 일원을 조합지구로 하여 조합원 8천2백명, 大正9년(1920년)에 창립되었다.

본부를 제주면 삼도리에 두고 각 면에 12개의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다시 출가해녀의 보호감독을 위하여 부산에 출장소, 목포·여수에 임시출장소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조선해조주식회사의 주식 1천주를 인수(1만2천5백円 불입)했는데 그 시설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동판매사업** : 조합원의 어획물공동판매소를 지구내 연안 각리에 1개소씩 부산·목포에 양 출장소를 두어 지부원 감독하에 공동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2) **조난구휼사업** : 조합원 조난의 경우에 상당한 구휼을 맡아 하고 있다.

(3) **조합원숙사** : 경남·배 또는 내지방면에 출가하는 해녀의 숙사를 부산목의 섬에 설치, 여기에 숙박해서 출어준비를 시키며, 또 귀도시에는 체재소로 이용시키고 있다.

섬으로서의 水産上施設

(1) 어업전습(漁業傳習)

明治44년(1911년) 본도에서 어업전습을 개시한 이래 3백명 이상의 수득생(修得生)을 냈으나 그중 96명은 사망, 기타 이유로 감소하고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이는 2백여명이 된다. 이들 수득생은 자기 어선, 또는 남의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본도 어업개발의 선구자로서 일반에게 모범을 보이며 개량어선어구를 보급하는데 다대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어업전습생의 양성방법은 처음엔 4개월 정도였으나 점차 연장해서 10개월간으로 하였다. 전습선은 4척으로, 1척에 5명의 전습생을 수용, 교사 1명이 승선하여 교양임무에 나섰었다. 지금은 1척으로 감소했는데 그 과목은 도미, 황돔의 연승(주낙), 도미, 갈치, 상어, 삼치, 저립, 방어 등의 一本釣와 磯建網등이 있다.

(2) 개량어선의 보급계획

현재 본도에서 개량어선으로 延繩一本釣에 종사하는 것은 4백척 이상에 이르며 어업전습수득생을 중심으로 하여 개량어선 장려자금 규정에 따라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그 금액은 1척에 1백円 정도였으나 지금은 3백円까지 대부해서 4년賦로 상환시키고 있다. 대부를 받은 자는 76명에 달하고 있다.

(3) 이주어촌

추자면 대서리에 30호를 이주시킬 예정이었으나 현재 12호의 이주를 보게 되었다. 이곳에는 소학교, 의료기관, 경찰관주재소, 우편소도 있고 기선의 기항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다.

성산포는 내지인 거주자가 30호 있고, 세관출장소, 우편소, 소학교 등이 있다. 통조림, 조개단추, 옥도 등의 제조공장이 있고 목포, 부산 양선의 기선기항지이기도 해서 음료수가 풍부하고 이주지로선 적당한 곳이다.

이주호수는 50호 예정인데 도미, 황돔, 상어, 삼치 등 延繩一本釣의 이주를 환영하고 있다.

서귀포는 내지인이 50호 거주하고 있는데 해마다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도지청, 우편소, 등기소, 경관주재소, 소학교, 보통학교 등이 있으며 공의도 있다.

통조림공장 잠수기업자도 있고 내지통어자가 때때로 집합하는 곳이기도 하다. 도미, 황돔, 상어, 청새치, 방어, 가다랭이, 삼치 등 延繩一本釣 어업자 이주에 적합한 곳이다.

(4) 해조 개딱기(磯洗)

풀가사리(海蘿)의 발생구역의 암석을 소제하면 해조의 번식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비의 보조로, 소구역에 대하여 철저한 개딱기를 실행시키고 있다.

(5) 수산제조 강습강화(講習講話)

도청의 技手가 연안부락민을 모아 수산제조상의 여러사항을 강화(講話)하고 일반어민에 대하여도 제조상의 지식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제조강습은 煮干鰛, 目刺鰛, 鰯鹽乾魚(마른오징어), 염장어, 미역, 淡菜, 櫻乾 등으로 현재의 수득생은 2백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6) 어선피난항의 수축

본도에는 적당한 피난항이 없어 유감이었는데 大正6년(1917년) 지방비 보조 4천円으로 濟州面別刀港을 수축하고, 大正7년(1918년)에는 추자항에 지방비보조 5천円을 투입, 방파제를 수축하였다.

그런데 이 섬은 연안의 굴곡이 없고 바람과 파도가 강렬하기 때문에 피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도내 수개소에 어선피난항을 수축하는 일은 일반인민이 통절하게 열망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그 주된 경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요청, 목하 각각 계획중에 있다.

제주항은 본도 수부(首府)에 속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적어도 5백톤급의 기선정박에 알맞고, 어선 1백척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쪽 암초를 기초로 하여 방파제를 구축하고 다시 동쪽으로 돌제(突堤)를 내어 항내를 상당한 깊이로 준설하려 하고 있다.

성산포항은 서쪽 만내의 얕은 곳을 준설하여 호안(護岸)공사를 시행하며 계선장(繫船場)을 만들고 항구에 있는 암초를 제거해 간조시에도 어선 등의 출입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서귀포항은 모도(茅島)와 하구와의 사이의 얕은 곳에 대조면(大潮面) 2척의 높이로, 동쪽 입구 부근에 있는 암초를 기초로 해서 방파제를 구축, 부근 암초를 제거하여 하구 일대를 준설하고 호안공사를 시행해 선박정박을 용이하게 하려 하고 있다.

모슬포항은 만내의 암초를 제거하고 서쪽 암초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방파제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양도는 남쪽 얕은 곳을 준설하고 서쪽과 동쪽의 암초를 기초로 동·서 양면에 방파제의 수축을 시행코자 하고 있다.

(7) 어부림(魚付林)의 설치

본도 한라산 중턱 이하에는 한결같이 수목을 볼 수가 없고, 특히 연안지방은 전혀 수목을 볼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어부림을 설치해 어류를 연안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멸치의 어획이 심히 감소하게 된 것은 수림의 남벌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봐도 좋다. 그래서 본도 연안에 어부림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 매년 5정보씩(1개소 1정보씩) 식림해서 10개년에 50정보에 이르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주도 해녀의 총수는 1만여명,
노도 솟구치는 거칠은 날에도
천길의 바다를 집으로 삼아
채취한 보배는 1백만兩
제주도 해산물을 세어보며는
미역 우무가사리 조개 해삼
도미와 상어랑 참치 가다랭이
세상에도 드문 보물섬.

3) 임 업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섬의 임야면적은 7만정보로서 도서나 부락산을 합칠 때에는 8만3천정보를 보유, 본도 전면적의 약 40%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국립의 대목장을 건설하여 그 면적이 전도의 절반을 점했었다는데 임야의 대부분이 목장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삼림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우마가 짓밟게 되고 거기에다 남벌폭채가 심해진 결과 지금과 같은 광막한 초생지(草生地)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중 山場(國馬 放牧場)은 금산(禁山)이 되어 충분히 수목이 보호·금양(禁養)되므로써 수목이 번성하여 울창한 천연의 미림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大正3년(1914년)에 임야 구분조사에 착수, 甲種要存 한라산 국유림외 7개소, 2만5천여 정보의 국유림을 조사해 大正5년(1916년) 3월에 종료하였다. 그 후 大正8년(1919년) 임야정리조사가 시행되어 大正10년(1921년) 外業만을 종료하고 동 11년 12월에 사정(査定)을 공시, 이로써 본도 임야 소유별 경계의 확정을 보게되었던 것이다.

임야면적은 다음과 같다.

甲種要存國有林	2만7천3백정보
乙種要存國有林	1백25정보
第1種不要存林	8백30정보

第2種不要存林	2만6천3백정보
계	5만4천5백여정보
민유림	2만8천3백여정보
합 계	8만2천9백여정보

본도 삼림식물대는 북위 34도8분 이남, 동경 1백26도10분 이동에 위치한 곳에 있어 난류의 영향을 받아 기온은 평균 16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앙에 솟아있는 한라산은 해발 6천척의 고봉으로 정상에 올라감에 따라 기온은 현저하게 내려가 수직적으로 난대로부터 한대식물이 분포되어 있다.

해안지대에는 까마귀쪽나무, 우묵사스레피, 다정큼나무, 호랑가시나무, 아왜나무 등 난대 남부의 특징식물이 번성하고, 조록나무, 후박나무, 사스레피나무, 비쭈기나무, 枳殼·동백, 참대, 담죽 등은 해안지대로 부터 해발 1천척 이하의 지대를 차지해 천연경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보다 위쪽 지대에 있어서는 시시각각 임상이 변화하는데 자작나무, 물참나무, 윤노리나무 등을 주목으로 하여 벚나무, 주목(朱木), 회화나무, 굴거리, 진달래 등이 번성하며 해발 4천척 부근에 있어서는 물참나무의 순림(純林)을 이룬다. 그리고 차례로 제주전나무, 진달래, 향나무 등의 수가 늘고, 산정부근에 있어서는 이들의 순림을 형성, 한대 남부의 임상을 나타내고 있다.

본도는 제3기 사화산으로 추자도·성산포를 제외한 그밖의 전부가 현무암으로 이루어졌다. 정상에 분화구가 있어 물을 담아 두었다가 영골(嶺骨)이 사방으로 뻗고 모암(母岩)은 도처에 노출되어 있고 토질은 화산회가 풍화된 이색조송(異色粗鬆)한 양토(壤土)로서 돌·자갈이 많지만은 지층은 깊고 지미(地味)가 좋은 곳이 많다.

하천은 영골사이를 일직선으로 바다에 뻗어간다. 상수는 모암의 틈새를 통해 내려가고 해안선에 이르러 해수의 압력으로 해안에 용출하는 수가 많다. 아주 드물게 수맥이 지상으로 나타나 용출하는 곳도 있다.

본도는 수종이 풍부하고 지미가 양호하기 때문에 갑종요존림과 하천의 유역은 울창한 천연림을 형성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유림은 일부 성림지(成林地) 치수(稚樹)발생지를 제외하면 한눈으로 봐서 끝없는 초원지를 이루어 우마의 방목지나 채초지가 되고 있다.

국유림은 전에는 금산으로서 산감을 두어 보호금양(保護禁養)을 해왔으나 始政後(日政후) 서귀포에 삼림보호구가 설치되어 삼림간수를 두었다. 좌면(중문면) 중문리의 4개소에 감시소를 설치, 경찰관헌을 배치하고 일반국유림의 보호를 맡도록 했다.

大正7년(1918년)에 감시소를 폐지, 북부삼림보호구를 설치해 남북 모두 삼림주사 각 3명을 배치하여 충분한 보호감독을 해오고 있다. 이후 大正10년(1921년) 산림과 출장소가 설치되어 국유림의 시설경영에 나서고 있다.

예전부터 농·어·축산을 산업의 주업으로 삼고 삼림은 도리어 문화의 장해물과 같이 보임으로써 임정이 이릉(弛綾)됨과 동시에 임지는 우마의 유린에 맡겨지고 화전을 해서 큰 나무들을 불살라버리고, 폭경을 자의로 하니 금산이나 일부 사유림을 제외한 곳은 심히 황폐하여 평소의 신탄수용(薪炭需用)조차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일한합병이후 임정이 점차 회복되고 식림사업이 시작되게 됨에 따라 당국의 장려는 도민들의 자각과 어울려서 매년 조림면적의 확장을 보게 되었다.

大正10년 도청에 임업기술원을 배치하고 일반 임업의 장려지도에 임하게 했다.

임업의 시설

⑴ 조림계획의 수립

11개년 기한의 제1기 조림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8백년이래 목장으로 사용해 현재 우마 6만여마리를 방목하고 있는 지대에 당장 조림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전, 기타의 장소를 골라 식림을 장려하고 있다. 그 실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成林地	2,048정보
成林地	53,479정보

제1기 계획예정 면적은

초년도	241정보	723,000본
2년도	321정보	965,000본
3년도	402정보	1,206,000본
4년도	563정보	1,688,000본
5년도	723정보	2,171,000본

이하 점진주의를 취하여 완성을 기하고 있다.

⑵ 면 묘포(苗圃) 사업계획

조림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각면에서 묘포를 경영, 소요 묘목의 공급을 꾀하고 사영(私營)묘포의 장려와 함께 수묘 수급의 원활도 기하고 있다. 그런데 면에서 묘포를 직영한 경험을 거울삼아 大正10년도(1921년)부터 위탁을 시켜 경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초년도	1평	610,000본
2년도	5,217평	260,000본
3년도	5,120평	603,000본

4년도	7,167평	843,000본
5년도	9,202평	1,084,000본

⑶ 사영묘포 경영장려

면 묘포는 면유림 식재수묘와 사영묘포 생산수묘의 부족을 보충, 수묘수급의 원활을 꾀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사영묘포를 장려하고 우량한 수묘를 얻어 수용에 충족토록 장려하고 있다.

大正8년(1919년) 이후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大正8년(1919년)	359,685본
大正9년(1920년)	1,909,000본
大正9년(1921년)	573,200본
大正11년(1922년)	147,000본
大正12년(1923년)	147,150본

⑷ 죽림(竹林)조성 장려

기후가 따뜻하고 지미비옥한 본도는 죽림경영의 이상지이지만 강풍이 많아 방풍설비가 없기 때문에 우량한 죽림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재 죽림의 개량에 곁들여 방풍설비의 장려를 하고 있는데 제1기 5개년계획을 세워 4町7段步의 이상죽림의 조성을 꾀하고 있다.

⑸ 면모범림(面模範林), 학교림의 식재장려

	旣造林地		
면모범림	17개소	152정1904	94정1304
학교림	6개소	85정2223	41정0400
국유림	212개소	1, 382정5300	

면모범림과 학교림은 기념식수를 해서 해마다 신식(新植)과 보식(補植)을 하고 있으나 면유림은 임야조사 시행에 있어서 부근 부락민의 공동

목야로서 그 권리를 면에 귀속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방목장이 될 면유림에 대해 적당한 계획을 세워 조림을 시행시킬 예정이다.

⑹ 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정공업상황

椎茸	자작나무	4,500斤	15,750円
椿油	椿樹實	1,140升	2,280円
竹細工	破竹・矢竹	282,820個	79,612円
挽物	벚・조록나무 회화나무	8.200個	2,318円
旋盤	벚・자작나무	2,600個	2,210円
剝物	때죽나무	3,400個	2,380円

이상은 大正12년(1923년)의 생산 상황인데 표고버섯(椎茸)이 연산 5만 근을 올리는 것도 가까운 장래의 일이라고 믿어진다.

본도 임업의 장래에 대하여 개설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탄용재의 자급자족을 꾀한다.
② 임산공업의 발달을 꾀하고 특히 조선에서, 본도 독특한 표고버섯 재배사업의 발달 및 생산증수를 기한다.
③ 수원(水源)을 함양해서 경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킨다.
④ 방풍을 활용하여 농경지 피해를 감쇄시키고 식량의 증수를 꾀한다.
⑤ 어부림을 조성해서 어족의 집중과 번식을 꾀한다.

<附　記>

표고버섯 재배업

본도 한라산의 삼림대는 해발 약 4~5백척 이상에서 절정에 이르기

까지의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예전부터 삼림중에 방화하는 습관이 있어서 화전을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해 왔다. 또 원나라에 지배되던 때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 방목장으로서 삼림을 벌목, 삼림지대를 침입했던 것도 큰 요인이 돼서 삼림면적은 심히 협소해지고, 지금은 해발 1천5백척 이상의 땅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최근에 삼림당국의 단속과 장려에 따라 삼림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삼림조영을 꾀하는 자도 속출하게 된 것은 매우 경하할 만한 일이다.

표고버섯 재배구역은 동남부의 화전 윗쪽으로서 그 면적은 실로 5천여 정보를 차지하고 있다.

한라산 삼림대의 수종은 표고資木인 자작나무·졸참나무의 번식으로 보충되고, 바람에 꺾이고 난벌되는 수목에 자연발생하는 표고는 극히 우수해서 본래 원주민들은 이것을 채취해 햇볕에 말려 시장에 반출하곤 했다. 그후 후지타(藤田寬二郎), 모치즈키(望月龍太郎), 가미야(神谷卓男)씨 등이 크게 내다보는 바 있어 인공재배에 의한 椎茸(표고)業을 경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제주 유일의 특산품으로서 유망하다는 데 착안, 明治38년(1905) 이들에 의해 창립된 동영사(東瀛社)에 의해 착수된 것을 효시로, 39년 11월에는 이 사업에 노련한 다나카(田中長嶺)씨 등을 초빙, 여러가지 어려움과 싸우면서 시험을 거친 결과 매우 유망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42년 9월 당국의 인가를 거쳐 사업을 더욱 확장했는데 가토(加藤藤大郎)외 1명, 마수다(益田三郎)외 3명, 도쿠나가(德永榮助)외 1명, 하야시(林正助)외 1명, 다케우치(竹內信太郎), 기쿠치(菊地謙讓)외 1명 등이 연이어서 인가를 얻어 사업에 착수하였다.

더 나아가 45년에는 마스다(益田三良)외 3명이 경영하던 것을 가바시마(樺島久次), 사토(佐藤段平), 양씨로 사업이 계승되고 하야시(林正助)외 2명은 서상용(徐相龍)씨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몇 년동안 견실하게 경영해오다가 후지타(藤田寬二郎)외 2명 및 사이고(西鄕武) 등은 소작제도를 만들어 연산

십수만 근을 웃돌아 유리한 사업으로 세인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大正8년(1919)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특산물로 편입이 되고 다시 시업안(施業案)을 제시 장려되기에 이르렀다.

그 재배법을 보면 벌목후 3년째의 가을부터 차츰 수확을 시작하여 그 후 3년간 정도는 한창 산출이 되는데 그로부터 생산은 차츰 떨어져서 10년째 쯤되면 그 나무의 생산은 없어지게 된다. 벌목은 매년 10월경인데 나무의 양액상승(養液上昇)의 일시적 휴지(休止)를 잘 살펴 일제히 도끼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익숙한 벌목공도 하루 20그루 정도밖엔 자르지 못함으로 1천그루를 잘라내려면 하루 50명으로 절단된다는 얘기인데 1개년의 벌목수를 1주일 정도로 끝낸다. 그 해는 그냥 지내고서 다음해 4월경부터 장마철까지 사이에 입목(入木)이라고 해서 가지를 짤라내고 높이 1척 7~8촌 정도에 침목(枕木)을 세운다. 동시에 도끼로 거리 5촌 정도로 나무표피에 병형(絣形)으로 깊은 홈을 낸다. 그리고 입목(笠木)이라고 해서 나무가지들을 남목(枏木)위에 얹힌다. 이 갓모양의 입목은 가뭄이 심할 때는 차양용으로, 비가 많이 올때는 비막이가 되며 서리나 눈이 올 때는 그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골목(楬木)의 의복 구실을 해주는 것이다.

벌목후 3년째에는 골목 아랫쪽의 풀을 베어주고 또 입목을 알맞게 조절하면 가을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표고버섯이 소량 산출한다.

4년째가 되면 장목법(長木法)을 쓰는데 앞에 말한 벌목의 위치는 그냥 둔다. 단목법(短木法)이란 그 긴 골목을 길이 3~4척 정도로 통나무인채 잘라내고 같은 크기의 못을 파서 빗물을 담아 그 속에 넣은 뒤 1주야를 지내고서 인부가 못속에 들어가 나무토막으로 절구(切口) 부근을 4~5차례 두들겨준다. 이같은 타목(打木)과정이 끝나면 천연입목 즉 입목(立木)의 밑으로 운반해서 우목(牛木)이라고 하는 가로 누인 나무에다 양쪽으로 받쳐 세운다.

이 작업은 4년째의 4월 상순으로부터 秋子(가을표고) 발생전 40일까지

에 종료된다.

장목법의 골목도 역시 이 무렵의 비온 뒤에 그 위치 그대로 타목을 해주면 된다. 타목후 1주일째 되면 표고균의 발아가 시작된다.

장목법은 전적으로 기후에 지배되는 대신 오래 표고가 발생하는 장점이 있으며 단목법은 강우를 기다리지 않고도 못 속에 놓아두면 타목이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조절이 가능하긴 하나 그 대신 생산기간이 짧고 벌목후 7~8년으로 끝내게 된다.

수확한 표고는 너비 2간, 길이 8간 정도의 새(띠)로 인 건조실에서 뜨거운 숯불을 피워놓고 선반위에서 「에비라」라고 하는 기구에 넣어 불짐으로 말려진다.

대략 1주야 정도로 건조를 끝내고 일정한 상자속에 넣어서 판매하게 된다.

표고버섯 사업 중에서 가장 기술을 요하는 일은 벌목시기를 어긋내지 말아야 할 것과 건조(焙乾法)하는데 불 조절을 잘하는 것 등인데,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山師(표고버섯 재배기술자)라고 불려지게 된다.

포장을 한 표고는 서귀포에서 기선편으로 대판에 이송되고 대판회사에서 위탁판매에 붙여져 중국으로 수출된다.

금년 시세는 중등품 1백근에 3백50円이라고 한다.

표고버섯은 북은 북해도에서부터 남은 대만, 조선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산출되지만 가장 알맞은 곳은 따뜻한 저지(低地)이다. 그중에서도 고산보다도 부락림이 좋고 서북쪽보다는 동남에 면한 쪽이 좋다.

그러나 부락림은 재목용이나 신탄용으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높이 2천척 이상의 고산에서 용재 기타 용도에 운반 불편한 곳이 표고재배지로 지목된다.

현재 표고버섯은 해외수출의 호조와 본국에서의 수요 등으로 해서 가격은 점차 앙등하고 있으나 난벌의 결과 표고資木의 결핍을 가져와

생산이 차츰 줄고 있는 것은 매우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도의 삼림은 바람이 센 곳이기 때문에 목재의 중심이 부패해서 공동(空洞)이 됨으로 딴 用材에는 적합치 않음으로 표고버섯 재배에 이용하기가 가장 알맞다.

더우기 삼림수목의 약 80%는 자작나무여서 표고자목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업자들은 절약적 벌목을 해서 오래 이 사업을 계속토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4) 축산업

본도 농민 3만명의 생활에 우마는 그 농사법 관계상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밀접하기 보다는 차라리 기초적 관계를 우마가 갖고 있고, 그 위에다 우마돈계(牛馬豚鷄)의 생산은 농민금융경제를 도와주는데 다대한 영향을 준다.

본도의 농업조직은 주축농법(主畜農法)에 속하는 것으로 본도의 인구밀도는 희박하지만 가축의 분포는 내지(일본) 조선에 볼 수 없을 정도의 조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본도의 축우수는 약 4만두로서 꼭 전남축우의 3분의 1, 전조선축우의 37분의 1에 해당하는데 충북·전북과 같은 작은 도에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또 내지의 道府縣에 비교해 보면 본도보다 축우수가 많은 곳은 히로시마(廣島) 의 9만4천, 오카야마(岡山)의 8만6천, 가고시마(鹿兒島)의 7만2천, 시마네(島根)의 6만8천, 야마구치(山口)의 6만4천, 쿠마모토(熊本)의 6만2천, 오오이타(大分)의 6만1천 에히메(愛媛)의 4만8천, 후쿠오카(福岡)의 4만6천, 돗도리(鳥取)의 4만2천등 10개縣에 지나지 않고 다른 道府縣은 모두 본도 이하이다.

더우기 조밀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육지부의 축우는 농가 8호에 대해

1두꼴이지만 본도에서는 농가 1호에 대하여 1두 이상의 비율이다.

이 밖에도 말이 약 2만두 있는데, 말이 많은 것은 실로 전조선 최고로써 전조선마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닭은 약 5만마리, 돼지는 약 4만마리 이상으로써 이들 4종의 주요 가축은 그 수에 있어서 실로 타지방에 비하여 발군의 상태이지만 그 형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비를 이루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가축중 우마의 연혁에 대해서는 흥미있는 전설이 있어서 딴 지방과는 특별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앞서 조선농학계의 거목인 혼다(本田)농학박사는 조선은 그 자체가 일대목장이고 각 농가는 각각 자기가 부담하는 목부들이라고 갈파한 바 있는데 제주도야말로 이러한 말이 가장 노골적이므로, 그리고 극도로 응축시킨 곳이 아닌가 여겨진다.

(1) 畜 牛

본도 축우의 원조는 그 형질과 역사적 관계로 부터도, 동물고고학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되는 바, 육지부의 선우(鮮牛)와는 저절로 그 모양을 달리 하고 있다. 우학의 권위인 獸疫血精製造所長 모치즈키(望月)씨가 본도 우학의 연구에 착수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규명이 되리라고 본다.

본도 축우의 사양(飼養)은 전적으로 방목을 하는 것인데 몽고풍의 극히 조방한 방법이다. 따라서 축우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보호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번식이 드물고 사양관리도 드물며 이용도 드물기 때문에, 엄밀히 비판할 때 가축이라는 말은 하기 어려울 만큼 거칠은 관리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두수는 자연번식상태 그대로, 토지가 허용하는 한 증식돼 왔으나 그 형질로 보면 일반적으로 열등하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조선우는 사역용(使役用)으로 가치있는 종류로 인정돼 왔으나 대체로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그 중 남선의 산우는 가장 떨어지는데 본도 산은 다시 더 떨어진다. 그러면서도 해안부에 목장도 없이 사사(舍

飼)를 해서 가축으로서의 관리를 받고 있는 소 가운데는 육지산우를 능가하는 우수한 것이 많다.

이상으로 번식사양관리의 개선에 따라 본도산 우의 개선가능성은 풍부하다고 본다. 저항력이 강하고 산우장 형성상 우월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사를 하면서 그 위에다 현재와 같은 방목을 한다면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유일한 사료원이라고 할 목장은 황폐해서 초질과 초생이 모두 불량한데 여기다 4만여 축우와 2만의 마필이 다투어 풀을 뜯고 있으며, 특히 말의 입은 해부학적으로 예리해서 풀뿌리 밑에서 짧게 뜯어먹는 관계상 초생을 해치는 일이 목우의 경우보다 심한 편이다. 즉 현재의 사료, 다시 말하면 초생량을 갖고서는 우마 6만두를 포용하기에는 심히 무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우기 기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동일 목장에 방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말의 영양은 양호하지만 소는 영양불량이어서 피하에 앙상한 뼈를 나타내 보이는 것은 분명히 우마의 소화기가 해부학적으로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도의 소는 일반적으로 체구가 왜소하고 늦게 성숙하며 살이 잘 찌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 육질은 반드시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 사역용으로는 조교(調教)관계상 본도 이외의 곳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코뚜레(鼻環)를 채우지 않는 습관이 있으므로 본도의 경우와 같이 가벼운 사역 이외에는 적합치가 않다. 도외에 나가서 하는 사역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본도의 산우는 대부분 절대성을 지니지만 현재의 항만교통상태로 보아 활우(活牛)의 반출이 극히 곤란한 점은 농가경제로 보거나 국가경제면에서 보거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다만 가장 희망있는 것은 통조림 원료고기로서의 이용이다. 고기는 대부분 우이기 때문에 통조림고기로서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의 축우문

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 관헌이 감독하는 완전한 쇠고기 통조림공업을 일으켜 축우 이용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
2. 사사를 장려하고 방목에 제한을 가하면서 목장, 채초장, 휴한경지, 노변 등을 가리지 않고 소유한지에 목초재배를 보급해서 사료의 개선충실을 기한다.(장려할 만한 목초는 瓜子金, 각종 크로바, 자도윗켄, 알프알파 등)
3. 번식용 종모우(種牡牛) 외의 것은 전부 거세해서 열등의 혈통을 감소시켜 나갈 것.
4. 농가의 사우(飼牛)는 전부 목우로만 해서 생산력 증대에 힘쓸 것.
5. 진드기의 박멸책을 강구하고 열성 전염병 혈뇨증을 방지할 것.
6. 우적제도를 확립할 것

이상 6개항은 축정상의 기초사항이지만 이에 부수해서 가축시장의 개설, 축산교육의 보급, 사양관리의 개선 강습(講習), 강화(講話), 품평공진회 등 일반적인 축산행정도 벌여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여러 문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원의 증치(增置), 주택의 보급을 꾀하고 축산조합의 활동을 촉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점차 개량을 해 나간다면 본도의 소는 체질이 강건, 제질(蹄質)이 견인하고, 조식조야(粗食粗野)의 관리에 잘 견디며 성질 또한 온순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도는 훌륭한 산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⑵ 양 계

본도의 닭은 질서있는 개량을 가하지 않고, 생산능률도 빈약하여 재래종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지만은 본도 산업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계란의 연액 반출고는 2백만개, 금액으로 4만円에 달함으로써 표고버섯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부산을 유일한 시장으로 삼고 있는데, 품질이 통일되지 않은 점, 알이 작은 것(小粒), 판매상의 결점이 있는 점 등으로 충분한 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도내에서 개량종 닭의 혈통을 가미해 상당히 우수한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지방은 동중 정의 방면, 모슬포 방면, 그리고 성내 부근 등이다. 전자는 10여년전 정의보통학교장 미네(峯萬藏)씨가 나고야(名古屋)코칭을 갖고 들여와 부근에 이를 공급했기 때문에 양계의 숨은 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내지인 이주자의 침몰 군함의 유류품에서 나왔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량계의 퇴각잡종으로서 수에 있어서 총 닭 수의 약 2할 정도를 점하고 있다. 이는 매우 잡스러워 통일성을 결하고 있다. 알은 중립(中粒)을 조금 밑돌지만 수는 가장 많다. 성내 부근의 것은 잡박부통일(雜駁不統一)인데다 수는 도저히 전자에 미치지 못한다.

다른 지방은 전부 재래종 닭인만큼 앞으로 크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도 산란은 현재 그 시장인 부산에서 가장 성가(聲價)가 떨어지고 있으나 본도에 있어서의 사료는 좁쌀을 주로 하고 방사를 하기 때문에 알은 작지만 품질은 전선 육지부 및 내지산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일반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앞으로는 통일된 대립란(大粒卵)의 생산을 장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도 산업 중 양계는 농가 필수의 부업임과 동시에 전도 유망한 천혜의 이점을 갖고 있다. 즉,

1. 기후가 온화해서 양계에 적합하다는 것.
2. 사료로서의 동・식물질, 광물질이 함께 풍부하고 타지방보다 월등히 저렴한 점.

3. 이용되지 않은 한지가 광활하다는 점.

이상은 생산상 얻기 어려운 천혜임과 동시에 부산·대구 등 큰 시장에 직수출할 수 있는 독특한 편리가 있다.

현재 본도의 잡박계에는 명고옥(名古屋)코칭계가 많다. 특히 조야관리에 견뎌낼 수 있는 강건한 종류이다. 앞으로의 양계는 알만의 생산으로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육질이 좋은 육계의 생산공급이 유망하다.

앞으로 목표로 하는 시장은 대판이지만 이 지방은 또한 각란(殼卵)을 좋아하는 풍습이 있으므로 명고옥코칭 로드아일랜드레드 등을 장려종으로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므로써 난형이나 난질에 있어서도 통일적으로 개량을 하므로써 성가를 높여 나갔으면 한다.

다음에 장려 요령을 적어볼까 한다.

1. 명고옥코칭 로드아일랜드레드 등 2가지 장려품종 이외의 혼입을 피할 것.
2. 종계, 종란의 공급을 싼 값에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
3. 재래잡계의 추방과, 축우와 같은 거세를 보급시킬 것.
4. 농가부업양계, 학교양계, 가정·경찰·양계청년회의 사업에 양계를 추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급증가를 꾀할 것.
5. 축산조합의 종금부화장(種禽孵化場), 위탁종계장 등을 마련할 것.
6. 1호의 양계수는 6~10마리를 제1기 계획으로 할 것.
7. 계란의 품평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
8. 계란, 육계의 발송선에 있어서의 위탁판매 혹은 공동판매 사무를 개시할 것.
9. 계란, 생계는 종용 이외에는 중량거래를 개선할 것.
10. 大正 15년(1926)이후 소립란(小粒卵)의 반출금지를 시행할 것.

大正 15년까지에 3만 농가에 평균 숫탉 1마리 암탉 7마리씩 명고옥코칭 및 로드아일랜드레드종을 보급시켜 제1기 계획을 완료해 24만마리에 달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생산계를 20만마리로 하고 한 마리의 산란 1백50개, 1개 15돈쭝의 중립란으로서 연산액 3천만개, 중량 45만관, 이 생산가격은 실로 1백35만円에 달한다.

이중 도내 소비액을 5백50만개, 도민 1인평균 20개로 봐 4백만개, 모중란(毛重卵)소비 1백50만개로 쳐서 차감 반출액을 2천4백50만개, 즉 36만7천5백관, 1관 2円50전으로 쳐서 91만8천7백50円을 계란 반출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더우기 해마다의 폐계를 반수 12만마리, 1호 평균 6백돈쭝으로 해서 7만2천관, 1관 3円씩 22만6천円, 계 1백14만4천7백50円의 거액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

또한 닭똥을 이용하게 되면 연액 건분 2백40만관의 귀중한 비료를 얻을 수 있다. 1호 평균 80관의 건계분이 새로운 비료로서 이용되게 되며 농작물의 증수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본다.

축산동업조합은 이에 크게 착안해서 大正12년 아이치현(愛知縣)으로부터 명고옥코칭의 어린 종계를 1천수백円을 투입, 2백수십마리를 반입, 각각 종계로 나누어 주고 13년도부터 조합의 종금장 및 인공부화장을 신설, 대규모의 종계 종란의 공급을 기획하는 한편으로는 판매개선을 위하여 관계방면을 각기 조사하고 혹은 발송지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서두르고 있다.

⑶ 馬

본도의 말은 육지보다 수나 형질에 있어서 우수하지만 선마의 수용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수용이 많은 승만용(乘輓用)으로서 내지마(內地馬)와 같은 대형으로 개량하는 일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굳이

판로를 구한다면 탄광지에 있어서의 갱내작업마, 등산용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밖에 본도를 떠나서는 수용범위가 좁기 때문에 본도의 말은 소극적 가축이다.

(4) 양 돈

돼지는 4만마리나 된다. 앞으로 당국의 장려방침에 따라 바크샤종을 갖고서 개량할 방침이다. 본도는 도처에서 고구마 재배가 왕성하며 粟, 겨(糠), 해안방면의 어설잡어(魚屑雜魚) 등을 이용하면 사료도 곤란할 정도는 아니다. 육로의 교통이 트이고, 짐차가 통할 수 있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장려는 어려울지 모른다.

주로 연안지방에 체운(體暈) 20관~30관 정도의 바크샤잡종을 식용으로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론 돈육가공업을 일으켜 점차 돼지의 개량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5) 양 봉

본도 양봉의 기원은 40~50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래종의 사양수는 겨우 5백여군에 지나지 않는다.

또 근자에는 개량종, 특히 이타리아종계, 잡카니오랑종계, 잡종 브리티슈종계 등 잡종이 반입되어 현금에는 꽤 양봉열이 왕성해지고 있다. 그래서 거의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이도 나타나고 있다. 본도가 양봉에 적합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첫째로 기후가 온화한 것, 둘째로 유밀기(流蜜期)가 긴 것, 셋째로 월동기가 짧고 월동이 용이하다는 점, 넷째로 밀원(蜜源)의 종류가 많은 것 등은 유리한 점이다.

바람이 센 것은 유일한 결점이다. 대체로 밀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양봉의 위험률 즉, 실패의 정도는 육지부 보다는 훨씬 유망하다. 주된 밀원식물은 봄의 운태(蕓苔) 기타 십자과(十字科)식물, 자운영(紫蕓英), 먹구슬메, 밀, 면화, 감, 참깨 등인데 특히 메밀산액이 가장 많으므로 장차 어

느정도 장려지도를 한다면 상당한 꿀의 산액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축산조합을 찾아 들어보니,

소가 5만에 말이 2만, 돼지와 닭이 6만에다 그밖에 계란이 2백만

5) 양 잠

본도의 잠업은 어느 시대로부터 행하여 졌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그 기원은 실로 멀리 이조초부터 뽕나무의 식재가 행해진 듯 하나 자세한 기록은 없다. 이조말기에 이르러 현저하게 쇠퇴하여 양잠은 진보개량의 흔적도 없이 겨우 가치없는 삼면잠(三眠蠶)을 사육하는데 그쳐 따로 훨씬 좋은 잠종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하물며 하추잠(夏秋蠶)과 같은 것은 전혀 꿈도 꾸지 못하였던 것이다.

일로전쟁의 경종(警鐘)으로 동양민이 잠을 깨게 되자 당시의 한국정부는 산업입국의 근본취지에 입각해서 나아갈 제일보로써 잠업장려의 방침을 세우고 각계 각층이 이의 개량보급에 힘썼으나 본도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다시 병합 후 明治45년(1912년) 총독부 훈령에 따라 잠업장려의 대방침이 지시되고 잠업시설 10년계획이 세워진 후 매년 급격한 진보를 보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본도의 기후는 육잠에 알맞아 뽕나무는 4월 상순에 움이 트고 11월이 되어도 여전히 생육하여 고지 중부지대와 같은 곳은 한여름에도 84~85도를 오르지 않으므로 하추잠의 사육에 적합하다. 또 토지 및 노동력이 모두 풍부하기 때문에 잠업경영상 실로 천혜의 땅으로서 딴 잠업지에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곳은 아직도 장려의 초기단계에 불과해서 그 경영이 유치함은 부득이한 사정일 것이다.

뽕나무의 식재는 이조초기에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듯 많은 고건축물에 상재(桑材)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오래된 뽕나무의 낡은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와 함께 곳곳에 들뽕나무가 산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조말기에 이르러 정치가 이완되고 국정이 쇠퇴함에 따라 회복의 기운은 보이지 못했으나 일한합병 후 잠업장려에 힘씀으로써 오늘의 성황을 보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상전(桑田) 면적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구입본수	3,766	105,900	139,950	114,221	111.470	193,870
상전반별	6.2	13.9	20.6	37.5	54.2	71.3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계
400,000	136,240	48,360	8,000	10,000	미정	1,285,167
82.4	83.7	86.7	86.7	53.1	미정	53.1

위의 표를 보면 과거 10년간에 있어서 상전의 면적은 약 9배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경지면적과 대비해 볼 때에 아직도 상전증식의 여지는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본도의 경지는 총계 9만1천정보로, 밭은 9만1백정보이다. 이를 상전면적과 비교해 보면 겨우 1천분의 1 즉, 1厘의 비율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전선의 1分1厘, 내지의 1割7分에 비한다면 그 여지가 많음을 알 수가 있다.

양잠은 역대 농민들에게 장려되었으나 이조말기에 와서는 비정(秕政)이 속출해서 농민들은 안심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되었고 마침내 유타(遊惰)의 악폐로 빠져들어 양잠과 같은 유리한 사업도 점점 쇠퇴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합병당시에는 겨우 3石 남짓의 견산액(繭産額)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런데 총독부의 장려책에 힘입어 잠업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당하여 大正3년(1914년)에는 잠업기술원이 배치되고 다음 4년에는 恩賜授産蠶業傳習所가 제주에 개설되어 양잠중심인물의 양성에 힘쓰고 大正7년에는 잠업조합이 창설되고 잠업장려를 조장하게 되었다. 稚蠶共

同飼育所의 설치, 건견장(乾繭場)의 설치 등 십수년동안 극력으로 진흥책을 쓰고 각종 시설을 구비한 결과 5백여石의 산견액(産繭額)을 보게 되었다. 이는 당국의 지도장려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본도가 잠업상 많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大正 원년에는 3石7斗의 근소한 산액을 올렸으나 大正 2년에는 5백46石의 산견액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상전반당 수견액(收繭額)은 8斗1升으로 내지의 1石1斗8升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전선의 반당 4斗5升에 비하면 본도의 호적지다운 면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도민들은 예전부터 견포(絹布)를 쓰는데 특히 매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많은 견포를 입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산견의 많은 부분은 자가용으로 공급돼 왔으나 大正2년에 간이건견장을 배치하고 大正4년에는 건견장을 설치하여 고치의 공동판매를 장려하였다. 大正11년에는 다시 대규모 건견장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산견장려에 나서고 있다. 즉 大正2년에 겨우 3斗8升의 판매수량을 나타내던 것이 大正12년에는 1백2石을 판매하게 된 것만 보아도 분명히 그 성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조시대에 탁수야상(拓樹野桑) 등을 사용, 재래종 삼면잠(三眠蠶)을 사육해 왔었으나 大正 원년 일본종 및 석십이매(昔十二枚)를 12蛾씩 2백호 농가에 배포해서 사육을 꾀해 본 결과, 그 성적이 우수함을 알게 된 후 매년 개량잠종을 희망하는 자가 늘어남에 따라 재래 삼면잠은 마침내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후 춘잠종(春蠶種)은 大正9년 日支1代 교잡종을 사육하게 되자, 견질에 있어서나 수견량에 있어서나 또 예전에 비하여 월등함을 알게됨으로써 大正11년에는 전부 교잡종을 사육하기에 이르렀다. 大正 원년에는 사육호수 2백9호에 대하여 춘잠 12枚을 사육했었으나 大正12년에는 1천5백34호에 대하여 1천3백45枚의 잠종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본도 농가호수 4만호에 양잠호수는 2割5分이 되는데 내지의 3할에 비하면 더욱 장려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본도의 양잠지는 신우면·구우면·우면·서중면을 주산지로 하고 기타 각면에서 부분적으로 양잠경영을 하고 있다.

大正12년도의 성적은 사육호수 9백50호, 잠종 掃立枚數 7백90매, 산견액 3백55石余, 공동판매액 1백2石余, 그 가격은 7천4백55円에 이르고 있다.

본도와 같은 천혜적 양잠지에 관민이 협력하여 잠업장려에 힘쓴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현재 호수의 3할이 양잠을 경영, 각호 상전은 3畝半을 보유, 1호 평균 1枚半의 잠종을 사육한다고 보아 大正22년에는 양잠호수 1만2천호 상전면적 4백20정보, 잠종 1만8천枚, 산견액 5천4백石, 그 가격은 37만8천円의 거액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 면 작(棉作)

본도 면작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중국으로부터 조선에 면화가 도래한 것은 14세기 중엽의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5백70여년전 晋州人 문익점(文益漸)이 경남 산청군에서 처음 재배하고 점차 전조선으로 분포해 갔다고 한다. 이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본도의 면화도 육지로부터 도래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으로부터 약 4백년전 본도 서남부에서 재배해 그 면적이 1천정보, 산액 50만근 내외로 수용을 충족시켜 왔다. 그후 급격한 보급도 없이 明治37년~38년경부터 내지인 어업자가 본도로 들어옴에 따라 도민은 내지식 어로를 영위함과 동시에 어구용 면사(綿絲)의 수용이 증가해 作付反別이 1천2~3백정보로 보급되었으나 그 종류는 수확량이 적은 재래면이었다.

그런데 明治37년 목포의 대안에 와카마쓰(若松)府尹이 처음으로 육지면의 시작(試作)을 꾀해 좋은 성적을 거둔 결과 도내일원에 이것이 장려됨과 동시에 明治43년 제주종묘장지장에 비로소 육지면의 시작을 하게 된 것이 본도 도래의 최초로 친다. 그 성적이 꽤 좋았기 때문에 大正3년 도내에 육지면의 장려를 꾀함과 동시에 섬 서북부(신우면·구우면)를 일원

으로 하는 면작조합을 설립해 도와 함께 극력 장려·보급에 힘썼으나 일진일퇴의 양상을 보여 어떤 때는 육지면의 재배가능을 단념해 한때 1백정보 내외로 국한되어진 때도 있었다.

그런데 道당국은 국가정책으로서 면화의 장려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 제2기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大正7년 본도에 道技手를 주재시켜 시작조사를 하게 하고 상당한 성적을 올리게 되었다. 大正8년에는 전조선을 능가하는 반당 1백60근이라고 하는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됨으로써 면작 조합의 구역을 확장하여 도일원으로 하여금 각면을 통해 시작포(試作圃)와 모범작포(模範作圃)를 설치, 기술원과 조합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지도를 하게 했다. 또 재배법의 개선과 증수를 꾀하고 더불어서 공동판매소의 증설, 농민은 육지면작이 가능함과 대항작물에 유리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작부반별 8백여정보 생산고 1백12만근, 작인수 6천을 헤아리기에 이르렀다. 반면 재래면은 해가 갈수록 쇠퇴하여 겨우 일부 지역에만 남아있는 형편인데 그것이 근절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원래 육지면은 열대식물인데도 온대와 한대의 경계선까지도 생육이 가능하다. 본도는 그 중간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온에 있어서 하등 모자람이 없다 하겠다. 또 경지면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광대해서 농가 1호당 2町2~3反步이기에 아무리 면작을 장려한다 하더라도 타작물과의 충돌은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토질에 있어서도 모암(母岩)은 화산암이기 때문에 양토(壤土), 사질양토(砂質壤土), 역질양토(礫質壤土), 사토(砂土), 역토(礫土), 전토(塡土), 점토(粘土) 등 면작지대인 육지방면과 다른 점은 없다.

다음으로 일반 식물에 필요 불가결한 수분에 대해서도 육지방면의 강수량에 비하여 큰 차는 없다(1년 평균 1천3백~4백㎜). 강수의 회수는 본도가 육지보다 많다. 이 회수가 많은 것이 본도 면작의 생명으로서 화산암은 물의 침투작용이 심해서 수분의 보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한해(旱害)에 걸리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여러 점으로 해서 본도는 면작의

천혜의 지대라고 말할 수 있다.

본도의 산업장려 시책상 도민의 생활향상과 함께 일용품의 반입이 격증하고 있는데 비해 섬 생산품의 도외반출 액수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도민생활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면화와 같이 가격이 높은 생산품을 낸다는 것은 장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본도의 면화업에 대한 시설사항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작부반별의 확장에는 연차 계획을 수립, 기정(旣定)의 확장에 힘쓰고 있다.
2. 종자는 자가용종자의 채취를 독려하며 신재배자에게는 무상배부를 하고 있다.
3. 재배법의 지도
   1) 파종시기를 놓치지 말도록 할 것.
   2) 파종의 휴폭(畦幅)을 지키도록 할 것.
   3) 종자를 회뇨(灰尿)에 섞을 것.
   4) 정확하고 깊게 경서(耕鋤)작업을 할 것.
   5) 퇴비·해초(海草)·목회(木灰), 過燐酸石灰 등의 비료를 장려할 것.
   6) 종자의 경중선택을 지도할 것.
   7) 摘芯除贅芽를 극력 실천할 것.
   8) 제초·솎아내기·중경(中耕)·배토(培土) 등 손질을 잘할 것.
   9) 수확전에 비에 맞지 않도록 할 것.
4. 모범작포의 설치
   면작의 합리적 재배법을 시행, 현지에서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5. 시작포의 설치
   면작의 적부를 조사해서 그 실적에 따라 면작보급을 꾀하고 있다.
6. 모범마을의 설치

면작개량을 철저히 실시하고 향당에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7. 강습강화회의 개최

면작에 관한 일반적 지식기능을 전수시킴으로써 지방의 선각자를 양성, 이 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기하고 있다.

8. 공동판매소의 설치

생산면화의 판로를 원활히 하며 경작자의 복리증진을 꾀한다.

9. 시찰단의 조직

면작선진지를 실지로 시찰하여 신지식을 얻도록 함으로써 이 사업의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품평회 개최

立毛(밭에서 자라는 작물)품평회를 개최, 경쟁심을 환기하고 일반재배법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11. 기상의 관측

도내 주요지점 3개소에 간이관측소를 설치, 면작과 기상과의 관계를 조사, 참고토록 한다.

그 밖에 농구나 비료의 공동구입, 청년회 시작포 설치, 병충해 예방구제, 足踏繰棉機의 배치, 間混作의 폐지 선전비라의 배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장래 희망 사항으로는

1. **작부반별의 확장** : 현재의 8백정보를 앞으로 5~6년중에 5천정보, 8백만근으로 늘려, 2백만円으로 올리게 하고 싶다.
2. **휴한지 전환** : 휴한지를 이용해서 타작물을 전환시키고 그 자리에 면작을 보급시키고 싶다.
3. **파종법의 개선** : 맥작의 2尺條播를 장려해서 보리의 간작(間作) 실행을 꾀하고 싶다.
4. **조면(繰棉)공장의 설치** : 조면공장을 설치해서 경작자 상호간의 이

익증진을 기하고 싶다.

제주도 면의 됨됨이 二百万 기후풍토에 알맞아
한라산 기슭은 눈(雪)의 꽃 녹아서 다시 추겨주는 四万戶

7) 공 업

본도의 공업은 아직도 유치한 단계에 있어 거의 보잘 것 없는 것이 유감이다. 지금에 있어서는 자급자족을 할 정도의 옹기제조나 기와굽기, 호미를 만드는 주철로(鑄鐵爐)도 있고 기직(機織)과 죽세공 朝鮮櫛 등도 가정공업으로 영위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직(手織)기계로 양말도 제조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간단한 기계를 응용한 소공업이 흥성해질 기운이 싹트고 있다.

공업 원료로서는 소량의 특수농작물과 일부 수산물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전복·소라를 통조림 원료로 하고 그 껍질을 조개단추 원료로 하고 있는 것이다.

본도에서는 금속이나 비금속광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때때로 동철(銅鐵)을 함유한 광석이 있지만 빈약해서 공업으로서 경영하기에는 부족하다.

공업동력으로서의 전력을 공급할 수력은 서귀포의 천지연 폭포외에 1개소와 신우면 금덕리, 신좌면 교내리에 각 1개소씩의 수류가 있다. 천지연폭포는 낙차 72척, 항시 10개 이상의 수류가 있고, 해안에서 겨우 5租丁의 거리에 있다. 다른 1개소는 낙차 1백척 이상이 되지만 바로 해안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이용하기는 어렵다.

또 북부에 5~6개의 수류가 있으나 낙차는 겨우 20척 내외로서 이것을 2~3개리 지점에 인용한다면 낙차 1백척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4개소 모두 이용되지 않고 있다.

공장은 어느 것이건 소규모로, 직공수 4~5명 이하, 20명 이상 있는

곳은 없다.

그 종류와 투자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円

공 장 별	개 소	투 자 액	생 산 액
수산물통조림공장	16	79,000	108,540
조개 단추공장	3	10,000	12,800
기타(鑄鐵・寫業・製襪・酒造)공장	17	40,000	70,830
합 계	36	129,000	192,170

위 공장에서 사용될 罐材・석탄 같은 것들은 내지와 부산에서 가져오고 있다.

가정공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기직 ○ 冠物 ○ 이蓆 ○ 藁工
○ 죽세공 ○ 指物 ○ 金銀眞鍮細工 ○ 操物

산액은 90만円을 웃돌지만 대부분이 자가용 또는 鮮內地에 반출되는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제품은 조잡하고 그 모양도 천편일률이어서 특히 개량진보의 흔적을 볼 수가 없다.

다만 朝鮮冠物(갓 등)은 꽤 성해서 大正10년경에는 반출액이 30만円에 이른 적이 있다.

그 원료는 우마모, 대 등을 사용하며 그 제품은 꽤 정교한데 북선, 간도, 시베리아 방면에까지 거래되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여러가지 관계로 해서 15만円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8) 상 업

본도의 상업은 종래 소규모의 임산물(표고버섯) 수산물(明鮑・해삼・상어지느러미) 축산물(소가죽・계란) 등과 같이 도외로 반출하는 것을 제외하면 단순히 20만여 도민들의 수급에 충족하기 위한 거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영세하였음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근래 조우기선(朝郵汽船)과 제주상선의 선편, 대판직행의 항로가 트여서 반출입물자의 집산도 꽤 활발해지므로써 상거래도 상당히 활기를 띠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종래에는 반출·반입이 모두 부산에 6할, 목포에 4할 정도로 한정돼 있었으나 大正12년에 대판항로가 개시되면서 대판과의 상거래가 시작되어 점차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업에 무언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다.

본도로부터 반출되는 것은 수산물인 통조림·조개단추·明鮑·해삼·미역·우뭇가사리·冠物(갓 등)·牛皮·蓆類 등 약간 가공한 것과 원료 그대로인 것들인데 매년 1백만円 내외의 반출액을 보이고 있다.

옥도원료인 搗布灰 같은 것은 歐洲대전을 계기로 그 부산물인 加里를 화약에 이용하며, 옥도를 외상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막대한 액수에 달해 도내에서 맹렬한 매점(買占)경쟁이 이루어 졌었다. 이로 인해 연액 30만円까지 달했으나 전란이 끝남과 함께 격감해서 근근 3만円 내외로 떨어졌다.

반출물 중 농산물은 조·보리·메밀·고구마 등인데 그밖에 특작물로서 實棉과 蠶繭, 임산물인 표고버섯·약초, 수산물로는 선어·鹽乾魚·말린멸치·搾粕·생전복·해삼·우뭇가사리·미역·銀杏草·櫻草해태·搗布灰 등이다. 축산물로는 生牛·牛皮·계란, 가공품으로 冠物·통조림·조개단추 등을 주로 하며 蓆類·竹細工·양말 등도 있다.

주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반입물자도 증가해 종래의 자급자족도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요 반입물은 白米·碎米·보리가루·棉布·담배·성냥·석유 등인데 그중 석유·설탕·과자류·약재 등은 점차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열의 왕성은 문구류의 반입을 늘렸고 일상용품으로서는 도기·남비·솥·곤로·洋燈 등 가정기구를 주로 한다. 또 고무신·양산·모자 등 장구품에서부터 白粉·향유(香油) 등

화장품도 점차 증가해 오고 있다. 특히 근년에는 고무신의 수요가 급증해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사용하기에 이르러 매년 10만켤래의 반입을 보게 되었다. 기타 잡화류로는 건축용 재목·철재 등도 상당히 반입되고 있다. 그 가격은 1백만円 내외이지만, 매년 10만円 내외의 증가를 나타내어 반입초과가 되고 있다.

이들 반입물자는 각지의 점포에서 거래되는 외에 시장과 행상거래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다. 시장은 제주성내·삼양리·조천·세화리 등으로 정기적으로 개시되어 그 거래액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제주시장은 음력 2·7일에 열려 각종 물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14. 財　　政

본도에 있어서의 세제의 기원 연혁은 자세한 舊文簿가 光武2년(1898) 이병휘(李秉輝)목사 시대에 일어났던 민난 때에 모두 소실되어 버림으로써 징수에 관한 장부 또는 인민들에게 불리했던 기록들은 물론 장부다운 것들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耽羅誌 기타 참고서라든지 舊 吏族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본도 세제의 기원을 상세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도의 목장제도과 조공제도의 연혁에 대한 개요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본도 목장의 기원은 멀리 고려조말 忠烈王 때에 본도를 탐라국이라 칭하고 원에 예속되었을 때 원으로부터 군민총관부를 두어 본도를 통괄하고 牛馬驢羊을 목양한 것이 본도에 관영 목장이 있게 된 시초가 되었다.

또 그후 본도가 고려에 귀속케 되고 제주라 부르고, 忠烈王 21년에 목사 판관을 두어 통치시키면서 우마제를 집행, 연공(年貢)을 올리게 했었다.

그후 이조개국 2년 太祖때에 전도를 측량, 전결(田結)을 정한 사적(事

積)이 있다. 전결을 이를 원전(元田)이라고 칭하는데 이 토지로부터 大豆 2백석을 상납시킨 일이 기술돼 있다. 개국 103년에 大同(男子生存稅) 廈俸과 緣役(官公署建設夫役)등이 있었으며 또 구습에 의하여 징수되는 考와 債戶籍債口文(買買手數料) 浦口主人例納(港整理員의 納稅) 牛馬出陸債 出船記債 등이 있었다. 전자는 貨物납세며 후자는 금납이었으나 이들 이외에도 각종 부과주구(賦課誅求)는 절해의 고도인 관계로 폭정은 용이하게 행해졌다. 목사 판관이나 리족(吏族)들은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면 각종 명목 아래 부과징수를 행했던 것이다. 국세의 성질을 갖는 것은 공제(貢制)를 취해 세입세출의 예산방법도 없었던 것이다.

개국 503년에 조세제도에 개혁이 가해지므로써 악정은 혁파되고 물납제를 바꾸어 금납제로 하였다. 그 신세목은 洞布稅·海稅·船稅·庖稅·烙馬稅·官有地稅 등인데 그후 세정제도는 일층 정리 혁신되어 洞布稅는 戶稅로 되고 海稅는 漁業稅가 되었으며 庖稅는 屠場稅가 되었다.

烙馬稅는 말의 수출세인데 원래 1두에 90文씩 징수했었으나 뒤에 폐지되었다. 이윽고 차츰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신세를 공포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도에는 지금까지 세법다운 것은 없었기 때문에 민유지에는 거의 과세가 되지 않았었다.

大正5년 토지대장이 실시되면서 비로소 지세가 부과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본도에서 지세라고 불리는 것은 그 종목이 많다. 즉 土原稅·加耕稅·場火稅외에 公土稅·田結白米稅 등이 있고 모두 국유지 소작료적인 과세에 다름 아니다. 이는 본도 독특한 세사(細絲)가 있다.

도민들은 驛屯賭收入을 場稅라고 말하고 있으나 육지방면에선 볼 수 없는 것이다.

본도에서의 大正11년도의 공과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 고 세 입	75,474円	지방비수입	81,446円

학 교 비	73,016円	면 비	41,316円
합 계	271,312円		

1호당 평균 6円78전 비율로 되어 있다. 즉 주세(酒稅)는 지세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민들은 주로 소주를 기호하고 있으나 본도는 그 원료인 맥속(麥粟)의 가격이 싸고 또 그 양조비가 적고 원료도 풍부하기 때문에 소주의 양조방법에 한층 지도개선을 가한다면 장족의 진보를 가져와 도외로 반출, 상당한 성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본도 생산물인 고구마를 가지고 가고시마(鹿兒島) 소주와 같은 양조법을 전습시킨다면 세원함양상 유망할 뿐만 아니라 도민경제에도 간과할 수 없는 생산을 보일 것이다.

도민의 납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달하여 점차 양호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또 면장이하 긴장된 노력들을 발휘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지난날과 같은 체납자도 나오지 않고 결손처분의 흔적도 근절되기에 이른 것은 매우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15. 금융경제

대체로 본도는 조선의 남단에 있고 해양중의 한 고도이기 때문에 주요산물도 자동적으로 수륙양종으로 구별된다.

육산물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보리 267,210석, 조 292,256석, 쌀 29,015석, 면화 62,864근, 고구마 10,610,321관, 우, 마 51,577두, 계란 3,000,000개, 鮮人帽, 凉太, 網巾, 宕巾 130,000円 등이다.

수산물은 魚介類 800,000円, 해초 50,000円이 그 중요한 것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본도의 금융경제는 대체로 위의 해륙산물의 풍흉이나 가격

의 등락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만이 아닌, 노동자의 내지로부터의 송금이나 소위 제주명물인 해녀의 도외출가 등도 1년에 30만円 내외에 달할 것이므로 섬의 금융경제를 논하는데는 역시 이것들을 경시할 수가 없다.

요컨대 본도의 금융경제는 육산물이 주로 되느냐 해산물이 앞서 가느냐, 그것은 별문제로 하고, 이것이 발전하려면 수륙산업의 개발에 힘씀과 동시에 도외출가 문제 등도 상당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된다.

1) 경 제

[大正4年 : 1915] 너무 옛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허튼소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서는 歐洲戰亂 이후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술해 볼까 한다.

大正4년에는 전년의 凶作不猟의 영향을 받아 본도 경제는 실로 피폐곤궁의 극에 달했었다. 도대체 제주에는 섬에 거지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왔으나 그 해에는 거지 아이가 문전운집한 형편이었다.

지금도 우스개 소리로 전해 오는데 그해에 어떤 봉급생활자가 제주도로 전근하고서 조선집을 빌었었는데 매일매일 거지떼가 득실거려 못참았었다고 한다. 그래서 집주인과 상의하고서 대문을 관청 현관식으로 개조한즉 그때부터 거지떼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大正5年 : 1916] 그러나 세상일이란 흥망성쇠가 따르는 법. 다음 5년에는 유럽대전 덕택에 지금까지 비료로서 밖엔 써먹지 못했던 감태(搗布·沃度의 원료)의 시세가 점점 상승해 연간 반출액이 10수만円을 웃돌게 되었다. 거기다가 전년의 보리·조 농사도 먹고 남을 만큼 풍작이었기 때문에 거지같은 것은 아주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大正6年 : 1917] 차츰 경기가 좋아진 제주는 새해에 접어들면서 감태시세가 더욱 상승, 점점 호경기를 보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서 수삼년

침체상태에 있던 표고버섯과 鮮人帽의 상황도 활기를 띠어 본도의 경제는 아주 좋아지게 되었다.

[大正7年 : 1918] 감태의 상황은 전년정도는 아니었지만 농작물은 풍작을 이루었고 수산물 가격도 올라가는 한편, 거기에다 李太王의 서거로 白笠(喪帽)이 불과 2~3개월 사이에 17~18만円어치나 반출되어서 한때는 5円지폐와 고구마가 없는 집이 없다(당시엔 고구마도 크게 보급 되었었다)고 하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였다. 확실히 민간경제의 最高潮期에 있어 토지도 大正3년경에 백평에 15円하던 것이 1백円으로 급등하기도 했다.

[大正8年 : 1919] 부귀영화가 돌고 도는 것은 정한 이치여서 제주에도 호경기가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이 해에는 가뭄과 폭풍우 때문에 농작물의 수확은 3할 정도 감수하고 감태도 너무 많이 끌어 모으고 부정행위 등도 성행했기 때문에 경기도 없어졌다.

鮮人帽는 너무도 잘 팔렸던 탓에 큰 탈은 없었다.

[大正9年 : 1920] 참담한 역풍은 바로 불어왔다. 9년 봄 갑자기 내지를 휩쓴 경제공항은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대체로 별천지로 여겨져서 별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여기에 미증유의 참사가 일어났다. 그것은 虎列刺의 내습이 였다. 동년 7월 중순경 제주동북부의 한 어촌에서 발생한 虎疫은 한달 남짓 사이에 전도로 만연했다. 환자는 1만명을 헤아리고 사망자도 수천명에 달했다. 3개월 동안은 완전히 교통차단이 되고 모두가 전전긍긍, 무위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위생비, 의약비 등에 소비된 금액이 실로 수십만円을 웃돌고 그 참담한 양상은 마치 최근의 관동대진재와도 같았다. 이 때문에 경제계의 타격은 실로 深甚한 것이었지만 다행히 농작물은 보기드문 풍작을 보였다.

[大正10年 : 1921] 전년에 풍년의 영향을 받은 점과, 해초류의 騰貴 및 鮮人帽 등의 호황 등이 가미되고, 여기에 특기할 일은 전년도 부터 불어나기 시작한 내지출가가 올해 들어 더욱 늘어 수천명에 달했다. 이

로 인해 이들이 송금하는 액수도 10만円의 거액에 달해 도내 경제를 대부분 회복되었다.

[大正11年 : 1922] 해산물의 증수와, 더욱이 그 시세가 좋아진 점, 그리고 수년래 장려되어 온 면화등의 풍작으로 경제계는 건실한 상태로 호전되었다.

요컨대 大正4년에 본도 경제는 그 피폐상이 극에 달했었고 그후 歐洲戰亂의 영향과 도민들의 각성 및 금융기관의 활동 등으로 점차 경제력은 회복되었다. 大正7년엔 그 최고조에 달했다.

大正8년에 약간 쇠퇴 징조를 보였고 大正9년에는 외부 세계로 부터의 타격과 虎列刺의 충격으로 실로 참담한 양상을 보였으나 年來 축적되어 온 재력과 불패의 정신인 제주기질의 발휘로 10년부터는 재차 順路를 회복, 11년에는 대부분 건실한 상황으로 돌아섰다.

물가에 대해서 보면 본래 본도민은 경제사상이 발달돼 있는 결과 일용잡화등은 육지방면에 비하여 저렴함과 동시에 도내의 생산물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품 목	단 위	년 도 별			직업별		임 금	비 고
		大正4年	大正7年	大正12年				
精 米	1석	18円00	31円00	33円00	大工	內 詳	3円50 2円50	
大 麥	〃	4円80	11円00	15円50	左官	內 詳	3円50 2円50	
粟	〃	6円50	11円50	15円50	石工	內 詳	3円80 2円70	
棉 花	10근	79	1円90	2円80	人夫 詳		1円00	
大 豆	1석	7円00	8円00	12円50				
牛	1두	13円00	48円00	60円00				
馬	〃	110円00	25円00	35円00				
鷄 卵	100개	円90	1円50	2円30				
麥 酒	1打	2円70	4円15	5円20				
日本酒	1升1打	7円70	18円50	27円00				

●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제주지점

본행은 조선산업의 개발 진작을 위하여 큰 사명을 가진 특수 금융기관으로서 大正7년에 발포된 제령에 의하여 지금까지 각각 분립돼 있던 농공은행을 합병하고 그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여 동년 10월 새로운 통일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즉 이 지점은 광주농공은행 제주지점으로부터 일체의 영업을 인수받아 다대한 기대속에 설립되었던 것이다.

설립 이전에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만큼 업무개시 후에는 대단한 발전을 기하고 장래에 있어서도 상당한 발전을 하리라고 기대되고 있다. 본점은 경성에 설치돼 있고 지점은 주요지방에 분포되어 있으며 파출소(派出所)를 합해서 57개의 점포를 갖고 있다. 동경과 대판에는 사무소를 설치, 채권의 발행 등 중요한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

<업무의 내용>

식산은행의 업무는 조선식산은행법에 의해 규정돼 있는데 대강 다음 4개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산업금융 : 산업금융은 공공금융업무와 함께 이 은행의 기본사명인데 그 대부는 30년이내 연부상환(年賦償還) 또는 5년이내 정기상환, 사채권의 응모 또는 인수 방법에 의한 것인데 연부 및 정기상환대부는 담보로서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財團 또는 어업권(정기상환 대부금에 한함)등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농업자 또는 공업자 20인 이상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시에는 무담보로서 정기상환 대부를 해줄 수 있다.
2. 공공금융 : 공공금융업무로서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30년 이내의 연부상환 또는 5년 이내의 정기상환방법에 의한 대부, 금융조합, 어업조합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산업에 관한 법인에 대하

여 같은 방법으로 30년 이내 연부상환 및 5년 이내 정기상환방법에 의한 대부 등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두 무담보대부이다. 또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응모 또는 인수도 한다.

3. 상업금융 : 즉 보통은행업무로서 농공은행 시대로부터의 연혁에 따라, 금융계의 필요에 의하여 겸영하는 것이다.

그 영업과목은 대부, 당좌대월(當座貸越) 및 여러 어음할인등의 3종이 있다. 또한 제령의 규정에 따라 조선산업상 필요한 화물을 담보로 한 대부·국채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대부환 하물(荷物)환 예금 및 地金銀 유가증권의 보호예치등 업무를 취급한다.

4. 저축 : 조선에 있어서의 저축심의 함양은 목하 시급한 상황이며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본행은 근검의 미풍을 진작하는 방법의 하나로 大正8년이후 이 업무를 취급해 왔는데 그 종목은 보통저금, 식산적금, 정기저금, 거치(据置)저금 등이다.

본행이 이상과 같은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은 상업금융에 있어서는 예금 및 차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그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금융, 공공금융, 기타 단체에 대한 대출등의 자원은 주로 채권발행으로 하고 있다.

<창립이래의 업무일람>

예금과 貯金高 및 대출고를 통계적으로 제시해 본다.

● 預 金

단위 : 円

기 별	보통예금	저축예금	합 계
大正7년 10월 1일 舊농공은행으로 부터 인계	64,811	-	64,811

기 별	보통예금	저축예금	합 계
동년 하반기	71,214	-	71,214
大正 8년 상반기	83,722	-	83,723
大正 8년 하반기	86,110	-	86,110
大正 9년 상반기	94,282	5,000	99,282
大正 9년 하반기	96,436	10,000	106,436
大正10년 상반기	120,401	10,371	130,772
大正10년 하반기	144,826	10.881	155,707
大正11년 상반기	146,518	16,607	163,125
大正11년 하반기	161,425	19,918	181,343
大正12년 상반기	175,768	26,615	202,383
大正12년 하반기	171,508	32,066	203,574

• 제주금융조합

이 조합은 明治 40년 7월 3일에 설립되어 다음해 41년 3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당시의 조합장은 전 대정군수 채균석(蔡龜錫)씨로 이사는 호리우치(堀內光芳)씨였다. 채조합장은 大正6년 4월 임기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동년 총회에서 현조합장 홍종시(洪鍾時)씨가 대다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그는 동년 5월에 취임하였으며 이사는 大正4년 2월에 경질되어 현이사 바바(馬場五郎)씨가 취임하였다. 설립 당시의 조합업무는 다음과 같다.

• 대출고

단위 : 円

기 별	산업대출고	상업대출고	합 계
大正7년 7월 1일 舊농공은행으로부터 인계	34,159	52,503	86,662
동년 하반기	41,125	44,424	85,549
大正 8년 상반기	34,829	47,295	82,124
大正 8년 하반기	54,941	68,426	123,367
大正 9년 상반기	95,641	37,563	133,204
大正 9년 하반기	122,704	37,354	160,058

기 별	산업대출고	상업대출고	합 계
大正10년 상반기	133,069	21,922	154,991
大正10년 하반기	119,699	15,168	134,867
大正11년 상반기	117,314	16,200	133,514
大正11년 하반기	107,694	30,306	138,010
大正12년 상반기	108,972	49,086	158,058
大正12년 하반기	105,465	50,942	156,407

가. 농사자금의 융통

나. 위탁판매 및 공동구입

다. 농사의 개량 및 부업의 장려 기타

이상 업무 외에 화폐정리업무도 보았다.

大正3년 12월 10일 본조합의 정관이 개정된 결과 조합업무는 다음과 같이 변경 확장되었다.

가. 조합원은 1인당 1구좌 10円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질 것

나. 조합원, 비조합원의 예금을 취급할 것

다. 필요시에는 농공은행(殖産銀行)으로부터 차입금을 내어 대부자금으로 충당할 것

이에 따라 금융조합의 운전자금이라고 하면 기본금 大金 1만円에 한정되었으나 이 개정 이후로 운전자금은 증가해 조합업무도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大正7년 11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럭 저럭 도민의 경제개선이나 산업개발을 위하여 불리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으나 개정의 결과 도민의 금융기관으로서 극히 적절하고 또한 유력한 것으로 되어 최근 수년에 걸쳐 대단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조합은 설립된지 벌써 16년이 경과하지만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업무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에 금융조합이 설립되어서도 3~4년 동안은 선인사이에 머리를 깎은 사람은 관공리 및 일부 학생과 죄수로 있다 돌아온 자 정도고, 학교의 생도도 20세 전후의 상투를 튼 어른(처자가 있는 학생)이 적지 않았다. 소위 양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당시에도 위대한 세력을 보유, 실로 존대폭려(尊大暴戾)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그래서 보통인민을 대하는 것도 마치 특수하층민에 대한 것과 같은 모양이었으나 세상 사람들은 별로 개의하지 않는 듯 했다.

통화는 사실상 엽전본위로, 은행권이나 보조화 등은 엽전의 9할내외의 시세로 통용되었으나 그래도 아직 이의 수수는 원활하지 못했다. 물가 같은 것도 쌀 1斗에 80~90錢. 계란 1백개에 40~50錢 하는 파격적인 시세였다.

당시 그들은 금융조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고 하니 마치 관이 설치한 금화장(金貨場)정도로 밖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다만 저리의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 외엔 아무런 목적도 이상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를 받아 일단 조합의 문턱을 나서고 나면 길가 사람들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조합의 취지를 선전해 본다고 노력한들 마이동풍, 아무런 감응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래서 가입자중에는 인격이 비열한 자, 투기적 상인이나 사행심 많은 자가 적지 않았다. 거기에다 조합관계법규나 정관 등에 적응되지 않는 점이 많아서 조합의 발전상 불편 불리한 점이 있었으나 조합직원의 노력과 상사의 지도감독 등으로, 법규 등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서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다음에 업무 개시 이후의 성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고자 한다.

조합은 조합령이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경제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면 조합은 조합원의 집합체로서 그 조합원의 공존공영을

년도별	년도말현재 대부금	同예금	이익금	조합원수	출자불입	비 고
明治41	6,147	-	853	173		
明治42	7,017	-	1,501			
明治43	7,075	-	1,734	334		
明治44	8,994	-	1,214	354		
大正 1	12,982	-	1,837	492		
大正 2	13,707	-	1,314	622		
大正 3	13,497	142	521	426	558	
大正 4	10,162	2,234	237	312	921	
大正 5	9,250	2,395	233	334	1,344	
大正 6	13,930	3,587	△728	439	1,723	△는 손실
大正 7	26,551	4,171	235	558	2,327	
大正 8	68,576	16,514	359	645	6,060	
大正 9	80,736	25,942	2,123	650	6,802	
大正10	110,495	39,233	3,625	757	8,755	
大正11	135,346	83,493	4,539	948	12,158	
大正12	171,154	106,586		1,004	13,888	12년도는 6월말 현재

거두기 위해 조직된 금융기관이므로 조합이 발전한다면 즉 조합원의 경제가 개선되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복리가 증진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앞으로 10년동안에 다음과 같은 계획을 실현시켜 보고자 한다.

가. 본조합 구역내의 호수는 약 3만1천1백50호이므로 그중 1할인 3천 2백명을 조합원으로 증가시킬 것.
나. 출자금 1인 3구좌 이상을 갖도록 하고 10만円 이상으로 하고 싶다.
다. 각종 예금을 32만円 이상으로 할 것.
라. 각종 대부금을 50만円 이상으로 할 것.

마. 생업 및 부업은 도의 장려방침에 따라 그 진보발달을 위해 노력할 것.

바. 조합에 촉탁의를 두고 조합원의 보건상 유감없도록 할 것.

사. 사상의 선도, 선량한 풍속 습관의 조장에 힘쓰며 동시에 교육을 융성토록 할 것.

2) 금 융

전항에서 대략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키로 한다.

가. 금융기관의 종류

- 조선식산은행 제주지점
- 제주 금융조합
- 서귀 금융조합
- 모슬포 금융조합
- 성산포 금융조합
- 개인 금융업자

본도에는 대금전업자(貸金專業者)는 없다. 그 이유는 도민의 경제사상이 비교적 발달해 있기 때문에 고리의 금전은 별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검약적이어서 덮어놓고 돈을 빌린다든지 낭비를 하지 않는 까닭이다. 우선 민간의 고리로서 도내에 흩어져 있는 돈은 약 3백70口○88,000円 내외로 생각된다.

다음에 금융업자의 금리를 들어본다.

금융업자명	이 율				비 고
	장 기	담보대부	신용대부	市長貸付	
식산은행지점		日步4錢	日步4錢		
제주금융조합	연1할4분	日步4錢2厘	日步4錢7厘		
서귀금융조합	연1할5분	日步4錢5厘	日步5錢		
개 인 대 금	연2할5분	日步9錢2厘	日步9錢9厘	日步16錢6厘	

16. 결　　론

본도를 미개의 대보고라고 해서 최근 각 방면의 자본가들이 주목하게 된 것은 본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정책을 위해서도 실로 기뻐해 마지 않을 일이다.

아무쪼록 장차, 견실하고 재력이 모자라지 않은 실업가가 속속 도도(渡島)하여 농업에, 임업에, 목축업에, 또는 수산업에, 각자 경험있는 방면을 향해 확고부동한 계획을 세워 각종 산업의 발전을 기도(企圖)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발전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대개수와 항만의 대수축, 무선전신의 가설 등 교통통신의 여러 기관이 완비된 다음에는 내부적 각종 산업의 개발과 맞물려 한층 생산물의 가공과 대대적인 도외 수·반출을 기하여 도내 부력증진을 꾀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도민들은 전등을 사용하고 수도물을 마시며 해륙교통의 문명적 기관을 완성 이용하며, 각지에 번영된 내선인합동의 문화적 소시가를 조성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일대 낙원지다운 이상향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각 방면에 걸친 계획사업의 대요(大要)를 약술함으로써 앞으로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 산업의 대개발

○ 농산물의 수확 증가를 기획하고 도외로 많이 반출할 것. 중간부락을 증대시켜 휴한지를 이용, 목축·임업·면작 등의 대대적 경영을 할 것.

○ 면작의 대대적 보급을 단행, 大正17년도까지 예정작부반별의 완료를 기할 것.
○ 조직(繰織)공장 설치 계획을 세워 大正13년 8월 자본금 5만円의 합명회사를 조직, 실행단계에 들어갔음.
○ 감귤원의 조성을 극력 장려해 내지품(일본산품)의 반출방지를 기하고 금후 1~2년 사이에 기존묘목의 식수를 완료할 것.
○ 식림경영자를 환영,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것.
○ 표고버섯 재배업을 장려할 것.
○ 목우를 장려하고 재래의 열등우의 대거세를 단행할 것.
○ 牛肉의 통조림업을 계획하고 생우의 반출을 꾀할 것.
○ 개량양계를 장려하며 재래계의 반출을 대대적으로 실행할 것. 계란반출조합을 설치해서 생산란의 공동판매를 행하기로 하고 부산에 출장소를 설립하였음.
○ 이주어민을 장려할 것.
○ 근해(난바다)어업의 장려를 꾀할 것.
○ 통조림업자의 트러스트를 실행토록 할 것.
○ 수산물의 가공무역품 제조를 장려하고 대중국무역을 지도할 것.

■ 어항의 대수축

금후 수개년에 걸쳐 도내 6~7개소의 어항을 대수축할 계획을 세우고 제1기 계획으로써 다음 여러 항을 수축코자 함.

- 제주항(일명 산지항)
- 성산포항
- 서귀포항

본건에 대해서는 도민의 열렬한 희망을 달성시키고자 港灣期成同盟會와 같은 것이 설립되고 도당국은 물론 본부에 있어서도 깊은 동정을

나타낸 끝에 경비긴축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예산을 계상코자 하고 있음은 본도개발을 위해서 무한한 기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전기사업의 계획

제주성내에 화력에 의한 전등회사를 세우기 위해 大正13년도에 창립총회를 열고 자본금 20만円, 5만円 불입의 주식회사를 발족, 주식은 만주(滿株)가 됐음으로써 곧 공사에 착수, 오랜동안의 숙원이 이루어질 날도 머지 않을 듯하다.

제주성내에 전화를 가설하는 문제도 숙의되어 이미 60구좌 이상의 가입신입수를 받았는 바 민간은 물론 모든 관헌들에게 다대한 편익이 베풀어질 것이다.

도내 3~4개소 폭포의 낙차를 이동해 전력을 일으켜 제빙(製氷), 조면(操棉) 기타 여러 공업에 운용토록 하고 전등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 수도계획

도민의 음료수 개선을 꾀하고 제1기 계획으로 다음 2개소에 간이수도를 부설코자 한다.

- 제주성내
- 서귀포

■ 도로의 대개수 단행

도내연안 일주도로와 대정 정의로 통하는 도로의 대개수를 단행, 첫 사업으로 일주도로중 다음 도로의 대개수를 함으로써 자동차운행에 의한 교통상의 일대 혁신을 실행하고자 한다.

- 제주성내 성산포간 11리
- 제주성내 한림간 8리

■ 교통통신에 관한 계획의 실현

朝郵 이외의 기선회사의 기항이 날마다 증가해 육지방면 및 내지와의 연락항로가 긴밀히 되고 있고 물자반출입의 직거래를 함으로써 여객의 왕래에도 지대한 편익을 주도록 할 것.

大正13년도에 제주성내 부근에 무선전신국 공사가 착수되어 준공과 동시에 사업이 개시케 되어 일반 민중도 이를 이용할 날이 눈앞에 다달았다.

■ 이민과 출가에 대한 계획

도외로부터의 도내이민을 장려하고 중간부락의 조성과 이주어촌의 조성을 기할 것.

도민을 내지 및 선내 각지로 출가시켜 노임의 유입을 꾀함으로써 도민경제의 완화를 계획할 것.

출가자에 대하여는 현재 대판시 및 그 부근에 1만명 이상의 도민이 활동하고 있어 고용주 측의 호평을 받아 해마다 반입금액이 수십만円을 웃돌고 있는 형편이다.

또 경남 기타 여러 도의 연안에 출가한 해녀도 수천명에 달하고 그들이 보내 오는 돈도 수십만円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 출가자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가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일이 도당국의 가장 중요한 시책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濟州島의 地理的 硏究

(1930年代의 地理·人口·産業·出稼 狀況 等)

桝田一二

1933年

本道地方行政名의 變遷

※ 본서에 나타나 있는 1930년대의 행정지명(行政地名)과 현재의 그것을 대조한 것임.

30년대 명칭	현 재
濟州面	濟州市
新左面	朝天邑
舊左面	舊左邑
旌義面	城山邑
東中面	表善面
西中面	南元邑
右面	西歸浦市
左面	西歸浦市(中文)
中面	安德面
大靜面	大靜邑
舊右面	翰林邑·翰京面
新右面	涯月邑

목 차

「濟州島地理的硏究」해설 …… 高野史男 …… 291

濟州島의 地域性 素描 …… 305

濟州島의 畜産 …… 334

濟州島 海女 …… 358

濟州島人의 內地(日本) 出稼 …… 382

濟州島의 聚落 …… 427

잊을 수 없는 濟州島 …… 469

桝田一二의 濟州島 硏究

- 地誌學의 한 典型 -

다카노 후미오(高野史男)

Ⅰ. 일본의 근대지지학(近代地誌學)과 지지학파(地誌學派)의 형성

중국에서는 옛부터 왕조(王朝)가 바뀔 때마다 그 왕조의 정당성(正當性)을 설명하는 역사와 그 왕조가 지배하는 국토의 실태를 파악해서 통치에 활용하는 지지(地誌 : 地理誌・△△傳 등이라고 한다)가 편찬되는 것이 항례(恒例)였다. 일본에서 나라(奈良)시대에 고사기(古事記)・일본서기(日本書紀)가 편찬됨과 더불어 전국으로부터 「풍토기(風土記)」를 제출시킨 것도, 이러한 중국의 예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이를테면 중앙정부의 필요에서라는 목적의 지리・지지가 아니라 순수한 근대적 학문으로서의 지리학・지지학에 대해서 말한다면 19세기 초부터 독일・불란서 등에서 근대지리학이 점차 발달했다. 그것이 일본에 들어온 것은 19세기 말로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일이었다. 국립대학에 전문의 지리학과 지리학강좌(지리학교실)가 설치된 것은 1908년(메이지 : 明治 41년)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문학부가 최초이며 이어 1919년(다이쇼 8년), 그리고 세 번째가 1929년(쇼와 4년) 도쿄 문리과대학(東京文理科大學)이었다. 2차대전 이전의 일본의 근대지리학은 이 세 대학의 지리학 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그 연구를 발전시켰다.

이 세 번째로 발족한 지리학교실로서의 도쿄 문리과대학이 우리의 마수다 이치지(桝田一二) 선생의 활동의 거점이 되었던 것이다(필자에게는 쇼와 초기 이 도쿄 문리대의 학생 시대에 지도를 해주신 은사인데 학설사적 입장(學說史的 立場)에서 기술(記述)해야하기 때문에 마수다를 포함한 모든 인물에 대한 경칭은 생략한다). 도쿄 문리대는 그 전신(前身)이 도쿄고등사범학교였다. 이 학교는 일본의 교육자 양성의 중심기관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있었던 것으로, 각종의 전문교과(專門敎科)가 있어 그 졸업생은 전국의 사범학교·중등학교의 교사로서 지방마다에서 지도자로써 활약했다. 그들은 당시까지 미숙(未熟)했던 일본 근대과학의 교육 및 연구의 기초를 세우고 그 발전을 위해 공헌했던 것이다. 도쿄고등사범의 지리역사과는 교수로서 당시의 일본 최고의 학자를 갖추어, 연구면(硏究面)이나 교육면에서도 결코 대학에 뒤지지 않는 수준에 있었다. 따라서 구제국립대학(舊制國立大學)에 지리학 교실이 설치되었을 때, 교토대·도쿄대학에 이어 도쿄고등사범을 계승한 도쿄문리대가 제3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29년 도쿄문리대 지리학 교실이 발족할 당시부터 주임(主任)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실을 주재(主宰)한 것은 다나카 케이지(田中啓爾) 교수였다. 다나카는 일본에 있어서의 과학적 근대지리학(지지학)의 창시자라고도 할만큼, 이 도쿄문리대 지리학교실 졸업생 및 그 밖에 다나카의 직접 지도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후의 일본 지지학(지리학)을 짊어졌던 인재를 속속 배출했다. 뒤에 다나카의 후계자로서의 아오노 도시로(靑野壽郞)가 일본 근대지지학의 금자탑(金字塔)이라고도 할만한 「일본지지학 전 12권」(1967~80)을 편찬·간행할 수가 있었던 것도 이들 전국의 지지학 연구자를 조직화(組織化)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지지학자 마수다와 다나카 케이지에의 사사(師事)

마수다는 1885년(메이지 28) 도쿠시마현(德島縣)에서 태어나 1915년 도쿠시마현사범학교를 졸업했다. 향학심이 강했던 마수다는 수년 후에 상경(上京), 1923년 도쿄고등사범 지리과 야마자키 나오마사(山崎直方)·다나카 케이지(田中啓爾) 두 교수 밑에서 조교로 근무했다. 이로부터 마수다의 지리학 연구자로서의 길이 시작된다. 뒷해인 24년 난관(難關)인 중등교원 검정시험(지리과)에 합격, 그 위에 연수를 쌓기 위해 도쿄고등사범 연구과(지리학)에 들어가 29년 3월 이를 마친 다음, 그 해 4월부터 발족한 도쿄문리대 지리학 교실에 정식 조교로써 채용되었다. 이래서 마수다는 다나카교수 밑에서 학문적인 지도를 받음과 동시에 그 성실한 인품으로 해서 교실의 모든 사무를 거의 혼자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교실의 연구·교육의 환경을 정비했다. 그 위에 다나카교수의 야외순검(野外巡檢)에는 반드시 마수다의 모습이 있었으며, 학생들은 실제 여러 가지로 마수다의 학문적 지도를 받았던 것이다. 이런 체제는 다나카가 1947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마수다는 1953년 3월까지 도쿄문리대에 근무한 다음 퇴임, 동년 4월부터는 릿쇼(立正) 대학에 근무하게 되었다.

이 때 이미 장기간에 걸쳐 릿쇼대학 지리학교실의 창설·지도에 관여하고 있던 다나카는 전임교수였으며 마수다는 재차 다나카 밑으로 부임했던 것이다. 릿쇼대학에서는 정식으로 전임교수가 되어 1974년 정년퇴직때까지 근무, 동년 12월 사망했다. 은사 다나카 사망의 불과 1개월 전의 일이었다. 대학에서의 마수다교수의 학생에 대한 지도는 성심·친절을 다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마수다는 그 학문에 있어서 다나카의 영향 아래 한결같이 그 근대지지학을 충실히 승계했지만, 그것은 그 지지학의 방식이나 태도의 문제일뿐, 실제의 조사·연구에 있어서는 전혀 독자의 훌륭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 그 최대의 것이 「제주도연구(濟州島硏究)」이다.

Ⅲ. 제주도 연구에로

마수다가 어째서 제주섬을 연구 필드로 선택하게 되었는가고 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잡지 「地理」(4권 11호)에 1959년에 집필한 「잊을 수 없는 제주도」에 자세히 들어나고 있다. 처음 찾은 것은 1930년 마수다가 35세의 여름의 일로, 이 때 다나카 교수와 동행하여 약 1개월간 조선반도 전역을 돌아봤는데 그 귀도(歸途), 홀로 목포로부터 배로 제주도 산지항으로 건너가 거의 1주일간 체재하면서 섬의 대부분을 살폈다. 2년 후인 32년에도 다시 단기간 도도(渡島)하여 전번에 보다 남긴 일부지역을 돌았다. 그 후 마수다는 제주도의 「지리적 재미」에 붙들리고 말았다. 또 어느 지리학자도 본격적인 조사나 연구를 해보지 않았던 이 섬을, 마수다는 이야말로 하늘이 자기에게 내려준 필드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주도연구에 몰입(沒入)하게 되는 것이다.

1933년(마수다 38세)부터는 제대로운 개획을 세워 5년동안 매년 40일씩 총 2백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상당히 대담한 기획으로, 바쁜 공무(公務)의 틈바구니에 그만한 시간을 쪼개낼 수 있는가, 더구나 지리학계의 관심이 만주(滿洲 : 중국 동북부)나 중국대륙 본토·동남아시아 등으로 기울어지고 있던 이 시기에 제주도 같이 지극히 한정된 하나의 섬 조사에 집중적으로 정력을 소비한다는 것이 적당한가, 또 원거리이며 장기 체재의 비용 조달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마수다는 만난을 무릅쓰고 30대부터 40대까지의, 아직은 체력·기력 모두가 충실해있던 이 시기, 거의 모든 것을 제주도에 투입할 것을 결심하고, 그 거의가 계획대로 실행되었던 것이다. 1933년 여름의 약 40일간의 조사, 34년 여름 「기미가요마루(君代丸)」으로의 도도(渡島), 35년 겨울·여름 두 번의 조사, 36년·37년·38년 여름의 조사 등등

1930년의 첫 도도로부터 헤아려 38년까지 합계 8회에 이르는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렇듯 1930년대 거의 전부에 걸쳐 오로지 제주도에만 집착한 마수다의 「우직(愚直)」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태도가 있었기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제주도 연구가 이뤄졌으며, 이것들은 지리학계에 있어서 지금은 외국이 되어버린 한 지역의 상세한 지지적 연구로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일게다.

① 「濟州島」. 헤이봉샤(平凡社)백과사전 제10권(3백쪽) 1933. 9.
② 「濟州島의 地理的 特性에 대해서(강연요지)」. 지리학평론 9-6, 1933. 8.
③ 「濟州島海女의 地誌學的 硏究」. 오오츠카(大塚) 지리학회 논문집 제2집 1934. 6.
④ 「濟州島에 있어서의 畜産의 地理學的 硏究」. 오오츠카지리학회 논문집 제3집, 1934. 3.
⑤ 「濟州島의 地域性素描」. 「지리학」(古今), 1934. 12.
⑥ 「濟州島의 人口移動에 關한 地理學的 硏究-主로 內地出稼에 對해서-」(강연요지). 지리학평론 1-1, 1935. 1.
⑦ 「濟州島人의 內地出稼에 대해서」. 오오츠카지리학회 논문집 제5집, 1935. 12.
⑧ 「濟州島人口移動에 關한 地理學的硏究-主로 濟州島의 內地人(日本人)에 대하여-」(강연요지), 오오츠카지리학회논문집 제5집, 1935.12.
⑨ 「濟州島의 聚落에서 본 地域性」(강연요지), 오오츠카지리학회 회보 12호, 1936. 7.
⑩ 「濟州島南北斜面의 地理的 對比」(강연요지), 지리학적 평론 13-6. 1937. 6.
⑪ 「濟州島聚落의 地誌學的 硏究(第1報). 「지리(오오츠카지리학회) 2-1, 1939. 1.
⑫ 「濟州島聚落의 地誌學的硏究(第2報)」, 「지리」 2-2, 1939. 4.
⑬ 「잊을 수 없는 제주도」. 「지리」(고금) 4-11, 1959. 11.

(이상 ①~⑫는 학회지 등에 인쇄공표된 논문. ⑬은 2차대전 전의 조사에 따른 회상기(回想記)).

1940년대 이후 제주도는 제2차대전의 전화(戰禍)를 입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전쟁 중에는 지역의 조사연구 같은 것은 할 수 없었다. 전쟁 후에는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특히 1948년의 「제주도 4·3사건」, 50년의 「6·25 조선 전쟁」 등이 잇따라 일어나 섬의 상황은 크게 변동했고 현지 조사도 불가능했다. 그 후 도내의 사회·경제정세가 전전(戰前)과는 확연히 다르게 크게 발전했지만 전대(前代)의 실정을 아는 사람들도 적어져, 문헌이나 그 밖의 것도 별로 많지 않다. 따라서 마수다 논문의 존재는 말하자면 「옛 시절의 제주도」를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단서를 주게되는 것이다.

Ⅳ. 마수다의 제주도연구의 특징

다음에 이들 마수다논문에 대한 학문적인 평가에 대해 논술해보자. 당시의 지리학(지지학) 연구의 주요과제란 것은 지상(地上)에 있어서의 인문·사회 현상의 지역적 분포, 그리고 그들 존재지역(存在地域)의 자연환경 조건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전기 마수다 논문 가운데서 ①②는 제주도에 대한 개설(槪說) 내지 총론적인 것, ⑤는 여행기적(旅行記的)인 문장이지만, 말할 것도 없이 여러 곳에 마수다 독특의 날카로운 지리학적 관찰이나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② 안에서 제주도의 취락은 화산도가 그러하듯 강우(降雨)가 모두 침투하여 지하수화해서 해안 가까이에 용천(湧泉)이 되고 있다는 것에 기인(起因)하여 거의 임해취락(臨海聚落)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한 위에, 중심지인 제주성내에서 용천으로부터 석유초롱(石油罐)으로 시민 주거구까지 음료수를 운반해다가 파는 물장수라는 장사가 생겨나, 그 물의 가격과 운반거리, 그래서 시가지 가격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 ⑤에서 김녕(金寧) 등 섬의 북부해안 각지에서 볼 수 있는 패각(貝殼)이 부서진 세사(細砂)로 이뤄지는 사구대(砂丘帶)가 있지만 겨울에 특히 강한 북서풍에 의해서 내륙쪽으로 불리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써 탁월풍(卓越風 : 계절적으로 일정기간에 부는 회수(回數)가 가장 많은 풍향의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해상의 선박에서 관찰하므로써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이 탁월풍의 방향에 대해서는 섬 북동부의 세화리(細花里)로부터 남서방향의 송당리(松堂里)에 이르는 내륙지역에 수령 3백년 이상이 되는 비자나무의 광대한 순림지대(純林地帶)가 있는데 이 비자의 큰 나무들은 어느 것이나 남남동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현재의 기후학(氣候學)에서 말하면 「편형수(偏形樹)에 해당되지만 당시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있지 않은 용어로, 마수다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탁월풍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들은 마수다가 탁상에서 배운 추상적 이론으로부터가 아니라 날카로운 현지관찰로부터 자연지리적 원리를 똑바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Ⅴ. 마수다논문의 학문적 평가

마수다의 제주도 연구의 본격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논문을 예거한다면 ③의 해녀, ④의 축산, ⑦의 내지(일본)출가, ⑪⑫의 취락연구 등 4개 분야의 것이다(다른 ⑥⑧⑨⑩은 짧은 강연요지이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제주도로서는 가장 현저한 지리적 현상이며 그때까지 일본은 물론 조선반도 각지를 살펴본 마수다에게 있어 제주도에 대한 과제를 끄집어낸다면 이것 이상의 테마는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1. 해녀와 축산

우선 해녀에 대해서는 당시의 일본 전국의 분포를 제시하여 그 가운데

서 제주도 해녀의 강한 독자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 위에 당시의 섬 해녀의 반농반어(半農半漁) 등의 생활상황, 섬 안에서의 지역적 분포, 어획물에 대해서 기술한 후 19세기 이래의 도외출가(島外出稼-조선반도 본토 및 일본)에 대해서 상세히 쓰고 그 경제적 의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섬의 해녀에 대해서 조선반도 본토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히려 「위지왜인전(魏志倭人傳)」 등에 등장하는 큐슈(九州) 부근의 왜인의 존재와도 결부되는 남방해양민 잠수어업자(南方海洋民潛水漁業者)와의 관련을 생각케 되는데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지리학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다음에 축산에 대해서는 제주도 특유의 광대한 화산산록(山麓) 초원의 방목적지(方牧適地)와 결부되는 목우목마(牧牛牧馬)의 지역적 분포, 사양방식의 역사적 변천, 축산무르이 도외 이출(移出)과 그 경제성, 축산으로서의 양봉(養蜂) 등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 내지출가(內地出稼)

그러나 마수다가 가장 힘들여 조사연구한 것은 「제주도인의 내지(일본) 출가」의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마침 이 출가가 1924년께로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1934년경까지 계속되어 제주도 전도에 대해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던 시기에 해당되어 마수다도 이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수다는 34년 여름에는 오사카(大阪)-제주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기미가요마루(君代丸)」에 승선하여 도항선(渡航船)의 실제(實際)를 경험하는 등, 이 문제의 현실에 깊이 파고들어 조사를 하고 있다. 즉 출가자의 출가선(出稼先) 지역별 분포, 도내의 출가자 출신지별 분포, 출가선에서의 종업직종(從業職種) 구성, 출가자의 성별·연령별·교육정도별, 도내에서의 직업 및 세대상황별(世帶狀況別) 구성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 또 출가이동의 계절(월별) 조사를 실시하여

도내 농업의 계절적 번한(繁閑)이라는 농가노동 수급이나 농가경제와의 관계 분석, 더욱이 출가현상의 급증 요인의 고찰(考察)도 행하고 있다.

마수다 조사의 1933년 현재 통계로는 제주도로부터 일본으로의 출가자는 연간 남녀 합계 2만9천명을 넘어 당시의 도내 인구 약 20만의 15%나 되었다. 이 출가가 섬에 끼친 영향은 심각하여 경제적으로는 다액(多額)의 현금 수입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반면으로 생산연령층의 대량 유출(流出)에 의한 노동력 부족·노임의 고등(高騰)·농가경제의 파탄을 결과하게 되고 또 도회적 풍조(都會的 風潮)나 전염병을 갖고 들어오게 했다. 출가의 득실(得失)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둘째로, 너무도 급격한 인구 유출은 제주도의 사회기반을 부스게 될지도 모르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도정(島政) 당국은 점차 출가의 억제를 도모하게 되어 1933년으로부터 34년에 걸친 조사로는 도항(渡航-出稼) 출원자(出願者)의 70%가 출도(出島) 금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때문에 1934년 이후에는 출가가 연간 9천명 이하로 차츰 감소해서 정체(停滯) 상태였던 도내 재주(在住) 인구도 약간씩 늘어 1943년경에는 약 32만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대량 출가현상은 제2차대전의 격화, 1945년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전쟁 직후의 혼란(제주도 4·3사건, 6·25조선전쟁) 등도 있어 전후(戰後)엔 소멸했다. 제주도의 출가현상이란 것은 1920년대로부터 30년대에 걸친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주로 깐사이(關西) 방면, 특히 오사카시(大阪市)에 건너가 살게된 제주인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본 거주 조선인의 거의 50~70%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일본 전국적으로는 지금도 재일(在日) 조선인 가운데 제주출신자(2세, 3세 포함)는 약 20%나 된다고 하며 일본의 각계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것도 이 일시기의 출가현상의 시대를 넘어선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에도 이 마수다 논문은, 그것이 없어서는 얻을 수 없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취락(聚落)

마수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문이 있다. 그것은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것이다. ⑨도 그 하나이지만 그것은 서설(序說)이며 ⑪⑫가 본격적인 논문으로 둘로 나눠져 있지만 모두가 하나의 것이다. 그 내용은 삼다도(風多·石多·女多)로서의 제주도에서 강풍을 막기위해 돌(黑色玄武岩)을 풍부하게 쓴 벽이나 담, 독특한 형태의 초가지붕 등 내풍구조(耐風構造)를 갖는 지붕형태, 가옥구조, 그리고 물을 얻기 어려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비 올 때 빗물이 잎사귀로부터 가지에, 가지로부터 줄기에로 흐르는 것을 모아서 음료수로 하는, 독특한 가옥 주변의 채수림(採水林)의 문제, 괴촌(塊村)·산촌(散村) 등 갖가지 취락 형태와 그 분포상황, 취락입지(立地)와 생활용수 취득의 관계, 그리고 용수(用水) 근대화의 문제 등이다.

더욱이 마수다가 추구한 것은 단순한 현상파악이 아니라 이들 취락의 형성과정이었다. 도민의 족보(族譜)를 자료로 해서 취락의 성별(姓別) 구조, 그 본관 등 조상의 출신지, 조선반도 본토로부터 제주도로의 도래(渡來) 시기, 그 후의 도내에서의 이동 등, 이들 문제를 일부 지역이긴 하나 추구(追求)해서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 전도적으로 취락이동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구심적(求心的-높은 토지로 향하는 것) 이동과 원심적(遠心的-해안지대의 낮은 토지로 향하는 것) 이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그 지리적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이는 그때 그때의 사회경제조건에 요인(要因)이 있어, 산간지역에서의 화전경작(火田耕作)의 금지, 해안도로 등 교통의 발달이나 교역(交易) 경제의 영향, 해녀어업이나 출가에 의한 가계(家計) 경제의 변화 등과 관계되는 것을 마수다는 논하고 있다. 2차대전 후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가 그 저서 「濟州島」(1966년 東大출판회)에서 양촌(陽村)·산촌(山村)·해촌(海村)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변동 문제로서 논술하

고 있는 것을 마수다는 이미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취락 연구에 있어서 덧붙여두고 싶은 것은 마수다가 ⑬의 「잊을 수 없는 제주도」 속에 자신의 제주도 연구논문의 리스트를 작성, 그 속에 「제주도 취락구성 요소로부터 본 지리학상의 2, 3의 문제」(「지리학평론」. 1937. 6)라는 것을 기입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재(實在)하지 않음으로 어딘지 마수다의 착각으로 여겨져 의문이 남는다.

VI. 마수다의 「제주도연구」의 의의

이상과 같이 마수다가 상세하고도 조심스러운 현지조사로써 얻은 것은 탁상에서 생각해낸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현지가 마수다에게 직접 가르쳐준 지리의 이법(理法)이었다. 이것은 마수다가 제주도라고 하는, 어느 정도 폐쇄적(閉鎖的)인 하나의 고도(孤島) 사회를 「지리의 실험실」로서 취급했다고 하게될 지도 모르겠다. 지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물리나 화학과 같이 어떤 닫혀진 실험실 속에서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다. 야외(野外) 그 자체가 실험실이며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간을 포함해서 실험재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마수다가 제주도의 「지리적 재미」에 붙들렸다고 했지만, 마수다는 제주도라고 하는 타로부터 불리된, 또 크기에 있어서도 알맞은 실험실을 얻어서 만족하리만큼 지리의 실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땅(자연환경)과 사람(주민) 사이의 결부에 관한 기본원리의 갖가지 표현방법을 보았다. 이는 제주도가 땅과 사람과의 결부를 극히 직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토지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수다의 연구는 당시의 지리학(지지학)의 수준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이지만 이는 그 당시 제주도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어, 자료의 획득 등에 있어 현지의 행정·관헌 등 권력측으로부터 많은 편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마수다 개인의 작업만으로는 도

저히 이만큼 상세한 데이터는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마수다는 현지조사에 있어서 식민지 지배하의 제주도민에 대한 시점(視點)은 냉철한 관찰자일뿐 차별적인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욕심을 말한다면 마수다의 제주도연구에서는 섬의 농업에 관한 역사가 약간 모자랐다고 느껴지는 점, 또 당시 수도(首都) 제주시가의 중심부 상점가(商店街. 당시 「제주긴자(濟州銀座)라는 호칭조차 있었다)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섬의 농업이 「인습적 조방농법(因襲的粗放農法)으로 자급자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⑤ 제주도의 地域的 素描)는 상황으로, 별로 마수다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는 것, 제주 중심 시가지의 발달도 다른 문제에 비교해서 언급할 정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약 30년 후인 1970년 전후로부터 제주도에는 한국 본토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난지원예(暖地園藝)·관광산업·도시화 등의 면에서 눈부신 발전이 일어났다는 것으로도 더욱 느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마수다로서도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었다.

마수다는 제주도연구에 일단 매듭을 지은 다음, 2차대전 후에는 주로 도쿄 및 주변 근교지대의 도시화현상 등으로 연구대상을 옮기고 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에너지를 붓고 전력투구(全力投球)했던 제주도에 대해서는 생애의 최후까지 「제2의 고향」이라고 하면서 애정과 그리움을 지니고 있었다. 전쟁 후인 1971년 76세로서 염원(念願)의 제주도 재방문을 이룩한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고 있었다. 단지 최후까지 유감스럽게 여겼던 것은, 젊은 시절 심신을 다 바쳤을 만큼의 제주도의 지지(地誌)에 관한 자료·사진 특히 마수다가 전도를 빠짐없이 돌면서 어렵게 작성한, 용천(湧泉) 등 수자원 소재지(水資源 所在地) 7백개소 이상을 기입한 귀중한 지도(5만분의 1) 외에 2차대전 종전(終戰) 직전에 육군참모본부에 참고자료로써 제출한 것을 종전 때 군관계 중요서류와 함께 일괄 소각

처분된 일이다. 마수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의 제주도 조사자료의 가장 주옥(珠玉)을 이루는 부분이 영구히 사라졌다는 것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한국의 「희망의 별」로써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제주도에 있어서 수자원은 그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마수다의 수자원 분포도가 만일 존재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섬에 있어서 중대한 구실을 하게될 데이터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1996년 6월 26일

桝田一二(文學博士) 약력

1885년 도쿠시마(德島)에서 출생. 도쿠시마사범학교, 도쿄고등사범학교 졸업. 오잉(櫻蔭)학원, 도쿄문리과(東京文理科)대학 등에서 교편을 잡고 1974년 릿쇼(立正)대학 문학부 교수에서 정년퇴직. 동년 12월 3일 사망.

(번역자 주 : ① 이 귀중한 수자원지도 2매가 마수다 선생의 영식 마수다 요시로(桝田淑郎) 박사에 의해 소중하게 간직되다가 지난 2005년 2월 16일 국립제주박물관에 기증되었음을 밝혀둔다.

② 故 다카노 후미오 교수는 東京文理科大學에서 桝田선생에게 師事했으며 일본지리학계의 저명한 학자로 「韓國의 濟州島」도 출판한 바 있다.

濟州島의 地域性 素描

1

제주도를 찾는 것을 헤아려보니, 이번으로 네번째이다. 처음은 쇼와(昭和) 5년(1930) 8월, 다나카 게이지(田中啓爾)선생을 수행하여 총독부의 가토 캉카쿠(加藤灌覺)씨의 안내로 약 1개월간 전 조선반도를 답사하고 난 귀도(歸途), 홀로 목포로부터 제주에 건너가 약 1주일간 섬의 남동부의 3분의 1을 빼고 약 1백60㎞의 해안지대와 남단의 서귀포로부터 한복판에 솟아있는 한라산(1,950m) 꼭대기를 훑으고 북안의 제주성내로 내려가 섬을 떠났던 것이다.

이 방도(訪島)로써 섬에 한없는 애착을 갖게 된 것은 조선반도부의 산촌·어촌·농촌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남북조선어에 능통한 가토씨의 안내에 따른 답사의 인상 때문에 반도부와 현저히 다른, 섬이 갖는 많은 지역성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에 있다.

그래서 그 뒷해에도 방도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쇼와(昭和) 7년(1932)의 여름, 만주국(滿洲國)으로 출장명령을 받아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주로 건너가 지난번의 나머지 3분의 1의 해안지대를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두 번 다 업무상 여행의 심심풀이인 단순한 개관(槪觀)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세번째로 방도(訪島)한 것이 쇼와(昭和) 8년(1933)의 8월. 물론 섬이라고는 하나 면적은 1천8백40평방㎞로 카가와(香川)현의 면적과 비슷하며 이즈오오시마(伊豆大島)의 20배(圖1-1 참조)에 해

당되므로 왕복일수를 합쳐 불과 1개월간의 답사로는 상세한 조사를 할 수 있을 리없었다. 더군다나 여관이 각기 40여㎞나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나 교통기관의 불비 등도 조사에 적잖은 불편을 주었다. 그 결과 펴낸 것이 「濟州島海女의 地誌學的硏究」(大塚地理學會 論文集 第2輯 下, 昭和 8년 11월)와 「濟州島에 있어서의 畜産의 地理的硏究」(同 第3輯, 昭和 9년 7월)의 2편이다. 방도의 경로가 세 번 모두 목포로부터이며 또 시기도 똑같이 무더운 8월이다. 올해는 「봄의 제주도」를 기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가을에도 또한 확실하게 예정짓기 어려움으로 할 수 없이 다시 여름을 택한 것이다. 그런만큼 여름에 있어서의 제주도에 대해서는 우선 중요한 점을 관찰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어느 지역의 지역성의 연구, 지지(地誌)의 연구 등은 계절적으로 편향된 조사여서는 안된다. 특히 산업방면의 농업지리, 토지이용의 상태 등은 사계절에 걸쳐 세심한 관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건기

<그림 1> 濟州島와 伊豆大島의 면적 비교

(乾期)·우기(雨期)로 나누어진 지방에서는 적어도 두 계절의 상태를 봐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도 필요한 일로, 더우기 수년에 걸쳐 관찰한 결과가 아니면 정확한 논술을 진행시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할 수 없이 단기간의 조사로써 마무리 짓는 것도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오사카(大阪)로부터 제주도로 가는 기선에 편승하기로 했다. 오사카에는 섬사람들이 매해 수만 명씩이나 출가(出稼)하고 있기 때문에 오사카~제주간에는 직통항로가 특별히 있다. 월 6회의 정기선은, 1의 날의 오사카출항이 아마가사키(尼ヶ崎) 기선회사의 「기미가요마루(君代丸)」, 6의 날의 출항이 조선우선회사(朝鮮郵船會社)의 「京城丸」으로 각각 3회 출항하고 있다. 그래서 매월 1일과 16일에는 가장 많은 출가자들이 그믐과 중순의 월급날 현금을 지니고 귀도한다는 것이다. 그 선편을 골라서 8월 1일 오사카축항(大阪築港) 잔교(棧橋)의 아마가사키 기선 「第2君代丸」(919t)의 손님이 되었다. 그것은 이번의 방도 목적이 섬의 농업·교통·인구 등을 테마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환송해 주겠다고 멀리 고오베(神戶)로부터 나온 다니자키(谷崎)군이나 동생부부 등과 함께 자동차로 오사카축항 잔교의 매표소(賣票所)에 내린 것이 출항 10분전인 하오 3시50분이었다. 내리자마자 입구에서 서성거리던 나에게 「마스다(桝田) 선생이시죠」라고 말을 걸어오는데 약간 놀랐다. 이어 「제주도공제회오사카지부(濟州島共濟會大阪支部)의 후지이(藤井)주사님이 지금까지 줄곧 기다리시다가 잘 말씀해달라」시더라고 전한다. 내지어(內地語=일본국내어)는 능숙했지만 액센트 등으로 해서 기선회사의 조선인 사원임을 알 수 있었다. 수일전 선박관계로 공제회(共濟會)에 조회했더니 후지이주사의 이름으로 친절히 회답해 주신 위에 오사카에 도착하면 곧 전화해달라고 번호까지 알으켜 주었다. 그 사람이 마중 나와 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의 감사편지에 8월 1일 선박을 골라주도록 첨언해 두었던 것이다. 그 공제회 사무소는 히가사나리구 나카미치(東成區

中道)에 있어 축항까지는 꽤나 멀다. 더운데 전화해서 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항 직전에 기선회사의 전화로 인사나하고 배에 탈 작정이었다. 그러나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주었다가 부득이한 일로 조금 전에 돌아갔다는지라 고마움과 미안스러운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매표장에는 이젠 손님의 그림자도 없다. 조선인 사무원이 뒷치닥거리를 하고 있다.

겨우 표를 손에 넣고 잔교(棧橋)로 달려가 가까스로 뛰어오르자, 내지어에 능통한 조선인 보이가 선실로 안내해 준다. 그야말로 출항 직전에 달려든 것이다. 선실은 12엔의 상등표(註=特等)로 분발했지만 무어라고 하기 어려운 냄새가 코를 찌른다. 짐을 내려놓고 갑판 위로 뛰어나갔다. 4시! 배는 조용히 안벽(岸壁)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환송객이 많이 서 있는 잔교에도 나를 견승해주는 사람을 빼고는 일본인같이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이미 제주도에 온 것 같은 기분이다. 배는 오사카~제주 직항이다. 손님으로서 섬에 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주인이다. 이 배는 마치 제주도의 일부가 절단되어 해상을 떠다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아마도 조선 안을 잇는 항로의 선박에는 이러한 정경은 있을 리 없을 것이다.

육지와 배, 전송받는 사람과 전송하는 사람. 서로 나누는 이별의 인사인듯 난데없는 고성이나 기성(奇聲), 이런 분위기 속에 서 있는 나도 또한 어느새엔가 섬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졌다. 이 소란스러움도 차츰 가라앉고 배 안이 조용해질 즈음에는, 배는 거울과 같이 고요한 해변을 가르며 곧장 하리마나다(播磨灘)를 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었다. 맑게 게인 저녁하늘에 추고쿠(中國・註=廣島등 일본서부지방 5현)지방은 보라빛으로, 옅은 남빛으로, 그리고 아와지(淡路), 시고쿠(四國)의 산들은 석양을 받아 다색(茶色) 또는 주홍색으로 반짝거려 그야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이었다.

이 배의 선객 정원은 3백65명이지만 출가자정원(出稼者定員)으로서 6백

85명까지는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번 항해의 손님은 5백63명이다. 이 가운데 특등실 손님은 7명, 그 중 겨우 두 사람만이 일본인-나와 또 한 사람은 올봄 고마자와(駒澤)대학을 졸업한 가바시마(樺島) 학사이다. 처음엔 그마저 제주도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실로 2對 5백61이었다. 그 밖에 이동경찰관으로 오사카부경찰서 사상계의 O씨, 오사카축항수상서(大阪築港水上署)의 W씨와 제주도의 순사(註=경찰관)가 모두 화복(和服=일본 고유의 옷)으로 승선근무를 하고있다. 배는 직행을 해도 제주의 산지항에는 나흘만에야 도착한다니 시간거리로는 고베~대련(神戶~大連) 사이보다도 멀다.

한편 하등(下等=보통선실)의 운임은 오사카로부터 섬의 상륙지가 되는 열다섯 개의 항구, 어디나 모두 6엔인데 식사가 달려있으니 이렇게 싼 운임은 일본제일, 아마도 세계 제일일 것이다. 손님은 젊은이가 많아 17~18세로부터 30세 전·후가 대부분이다. 개중에는 상투를 땋아 말꼬리로 짠 듯 관을 쓰고 턱수염을 기른 사람이나 노파도 있다. 또 사람머리의 3배나 될 듯한 바가지(干瓢=태왁)와 나무를 등글게 꼬불린 테두리에 걸린 망사리 등을 곁에 두고 젖먹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사람 등 보기에도 혈색이 좋고 튼튼한 몸매의 젊은 여자들도 여기 셋, 저기 다섯씩 보인다. 그들은 휴대품이나 햇볕에 그을린 혈색좋은 튼튼한 몸으로 해서 출가해녀의 귀환자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밖에도 겨우 걸음마를 하는 젖먹이를 데린 부부의, 가족 모두가 돈벌이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 해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창백한 얼굴의, 여공으로 보이는 처녀와 청년도 있었다. 5백63명의 손님 중 어린이의 무료손님이 80여명이나 된다는 것으로 보아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이 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일찍이 나는 화교(華僑)들의 출가에 관한 기사를 읽은 일이 있지만 그 때의 모습을 바로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선실 안은 옆으로 드러누울만한 공간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통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갑판이나 짐짝 위 할 것 없이 빈 자리가 있는 곳, 그늘

이 있는 곳엔 마구 드러누워 있는 상태이다. 새벽, 브릿지로부터 내려다 본 갑판 위는 대단히 불결해져 있었다.

특등선실은 고물에 가까운 갑판 위에 있었다. 여자 손님은 겨우 한 명으로, 그녀는 20세 될락말락한 젊은 남자의 수발을 받고 있었다. 그 젊은 남자는 출가했다가 아내가 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중이라고 했다. 부인이 완쾌하면 또 일하러 가겠느냐고 들었더니 다신 안가겠다고 한다. 그는 목수이고 그녀는 방적공(紡績工)으로 맞벌이를 했었다. 특등 손님은 7명이며 달리 이동경찰관이 셋이 있어 모두 10명이 머리를 맞대고 두 줄로 자면 팔굽과 팔굽이 스칠 정도로 답답하다. 그래도 다다미 위에서 잘 수 있는 것은 12엔을 분발한, 덱 패센저(3등선객)의 배액을 지출한 덕택, 돈의 힘은 부처님만큼이나 빛이 난다고 하는데, 정말로 고맙게 여겨졌다.

배는 뒷날 정오께 석탄을 싣기 위해 시모노세키(下關)항에 잠시 기항했다. 가는 길에는 언제나 석탄을 싣기 위해 기항하는 것 같았다. 시모노세키에서 섬의 양반 김두현(金斗鉉)씨가 승선, 이 선실은 합계 11명이 되었다. 내가 「시모노세키로부터 제주도까지의 운임은 얼마나 되지요?」하고 물었더니 「12엔50전」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들은 오사카에서 시모노세키까지 무임인 외에 50전의 환불이 있어 간밤부터의 세 끼니를 그저 대접받은 셈이 된다. 보통선실도 6엔50전이라고 한다. 판~제간(阪~濟間)항로는 그야말로 출가자들을 위한 특별선임이란걸 알 수 있다.

이 특등실의 입구로부터 2m쯤 떨어진 고물 맨 끝에 양쪽을 떼묻은 두터운 돛과 같은 천으로 막은 어두운 구석이 있다. 그 안에는 주위를 양철판으로 둘른, 관(棺)크기의 상자 두 개가 세로 나란히 놓여있다. 그 앞에 선향(線香)을 세워 참외와 하귤(夏橘)을 올리고 그 곁에 삼베로 만든 관(冠=두건)과 각반(脚絆=행경)을 친 서른살쯤의 남자와 너덧살 위의 남자가 버들고리에 걸터앉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얼른 죽은 사람을 넣은 영구(靈柩)란 걸 알아차렸다. 그때부터 나는 시중 그의 행동에 주의

를 기울였다. 남자들은 식사 때마다 취사장으로부터 김이 무럭무럭 나는 따뜻한 밥을 얻어다가 올리고 있었다. 선향의 연기도 끊이는 일이 없었다. 앉아서 조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 젊은 남자가 모시고 있는 관은 그의 장인 것으로 모슬포까지, 또 한쪽은 모친의 유해로 서귀포까지 각각 운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장의 얘기로는 항해 때마다 영구가 없을 때가 없다. 올 4월엔 일곱 개나 되는 영구를 실었었는데 그 운임은 보통 승선요금의 5배라는 것이다.

한편 동승한 김두현씨의 말에 따르면 상주의 마관(麻冠)은 두건이라고 하며 각반은 행경이라고 한다. 부모의 죽음에 즈음해서는 3년간 상복을 입고 근신하며 또 대중이 모이는 집회장소에 나가는 것을 삼가하는 것을 예로 한다. 또 복상(服喪)에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것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먼저 죽음으로 죄가 많다고 하여 그 상주는 8개월만 복상한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늦은 경우에는 3년간 복상한다. 유해는 정성껏 토장(土葬), 봉분을 만들고 주위에는 방형(方形)으로 돌담을 쌓는다. 그 면적은 보통 1백24평방척으로 하며 3천평방척까지 허용되고 있다. 분묘 주위에는 육지(조선반도부를 섬에서는 보통 육지라고 부른다)에서는 볼 수 없는 돌담이 있다. 이는 방목우마들에 의한 훼손을 막기 위함이다. 매년 8월 1일에는 출가선(出稼先)으로부터 일부러 귀생하여 묘지의 풀을 베고 돌담을 고치며 청소를 해서 망인을 추모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출어중 익사하여 유해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추석을 맞아도 분묘밑에 유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쓸쓸해 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딱할 지경이다. 이렇듯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는다 해도 경비를 아끼지 않고 고향으로 모시는 것이다. 한편 모셔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매장(假埋葬)했다가 기회를 얻어 발굴원(發掘願)을 제출한 후에 유해를 모셔온다. O형사는 언젠가 오사카에서 4년만에 발굴된 유해가 납화(蠟化)되어 있는 것을 모시고 온 일도 있다고 말한다. 3년상까지는 매년 명일(命日)에 계(조선에서는 상호부조적 자치조직을 말함)의 전원을

초청하여 술이나 떡을 대접한다. 또 계원들도 반드시 조문을 가는데 그 때에는 양초 1본씩을 갖고 가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빚을 내는 한이 있어도 3년상까지는 이 예법을 어기지 않는다. 잇따라 둘이나 상(喪)이 났을 때는 파산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조상에 대해 제사의 풍습을 깊이 하는 그 효양은 정말로 미점(美點)이지만 너무도 형식에 흐른다면 오히려 근본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자손이 풍요로이 번영하여 비로소 조상의 제사도 끊이지 않고, 길이 조상에 대한 효양이 되는 것, 여기에 형식에 얽매인 인습이 폐지돼야 한다는 것을 보게된 것이다.

오사카를 출항해서 사흘째 아침에는 관을 모시고 있는 남자의 눈두덩이 모두 부어오르고 눈은 침침하여 빛이 없다. 불면불휴의 정성을 알만하다. 배는 순풍과 조류를 타서 제주도의 산지항에는 예정보다 수시간 빨리, 사흘째의 오후 10시에 입항하게 되었다. 모슬포에는 나흘째의 저녁, 서귀포에는 닷새째의 정오에 입항한다고 한다. 이 사이 두 사람의 청년은 상주로서의 봉사를 목적지까지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2

사흘째의 오후 4시께에는 섬의 동쪽 끝인 성산(城山)이 그 특색있는 자태를 나타내고 얼마없어 그 왼쪽 가까이에 해녀로 특히 유명한 우도(牛島)가 떠오른다. 모두가 익숙했다. 이상하리만큼 반가운 마음이 치밀어 오른다. 우도를 뒤로 하고 세화리(細花里) 난바다에 이르렀을 때의 우현(右舷) 일대에 전개되는 섬의 경관은, 한라산의 동쪽으로 뻗은 그 사면에 가까스로 경사를 알아 볼 수 있는 화산다운 우미한 선, 그 옷자락같이 펼쳐진 아름다운 산 기슭에 옹기종기 모인 중대가리와 같은 기생화산군. 그 일대는 교토대(京都大)의 나카무라(中村)교수가 남쪽의 영주산(瀛州山)에서서 아름다운 원추형화산 75개를 헤아렸다고 보고했던 지역이다. 그러

나 나는 지금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있는 북쪽 해상에서 더구나 배의 마스트 위에 서서 살피며 그것을 세었던 것이다. 유명한 에트나화산은 기생화산이 1백개를 헤인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제주도에 있어서는 전도 거의가 한라산과 그 사면(斜面)으로 이뤄지고 있어 새까만 현무암 용암이 해안에까지 이르러 깎아세운 듯한 단애가 해면을 향해, 어떤 곳은 자연의 흐름 그대로 바다로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대소, 실로 4백에 가까운 화산이 아름다운 갑형(甲型)이나 원추형을 이루어 대부분이 3백m 이하의 지대에서 그 산기슭을 감싸고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제주의 화산활동이 왕성했던 시대에는 벌집과 같은 수천의 화구로부터 용암이 흘러 화산탄(火山彈), 화산력(火山礫) 등을 분출시켰으리란 것이 상상된다. 그래서 소원추화산이 많기로는 우리나라(註=한일합병시대) 제일로, 그 특색있는 경관은 달리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장관이다. 또 그 모체라고도 할 수 있는 주봉 한라산은 조선 제2의 고봉(高峰)으로 아스피테(Aspite)형 화산에 속하며 화산활동이 왕성한 시기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염기성(鹽基性)의 현무암 암장(岩漿)이 다량 흘러내려 만들어진 극히 편평한 원추체이다. 그 모양은 마치 삿갓을 덮어놓은 것 같아 원산·원교산·두무산(円山·円嶠山·頭無山) 등의 이명(異名)이 있다. 이 화산형태는 독일에서는 순상화산(楯狀火山 : Schild Vulkan)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그 형상이 잘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주위의 경사는 극히 완만하다.

배는 서회(西廻)로 15개항에 기항해서 귀환자를 내리고 동시에 도항자를 태우면서 거의 2주야로 섬을 일주, 동단의 성산포항을 마지막으로 섬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열다섯의 기항지 중 거룻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항구는 단 하나도 없다. 57만엔을 투입한 섬의 앞 현관(玄關)인 본도 제1의 축항, 산지항조차도 거룻배 없이는 상륙할 수가 없다. 겨울의 북서강풍이 불어닥칠 때에는 부산과 목포에서 오는 정기선도 착부(着埠)할 수가 없어 정월명절에 쓸 물건이 「나나쿠사(七草, 註=음 1월 7일의

<그림 2>

명절)」를 지내서야 겨우 하역, 쓸모없게 돼버린 일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나쁠 때는 해안 가까이 올 수 없어 며칠이나 해상을 헤매는 일이 적잖았다는 것이다.

배는 섬의 최초의 기항항 김녕(金寧)의 앞바다, 약 1㎞ 해상에 정박, 거룻배가 오는 것을 기다려 80여 명의 손님을 하선시키고 짐을 내리기 위해 1시간반 가량 소요했다. 해안에는 띠로 덮은 낮은 민가가 선충(船虫)의 등딱지와 같이 밀집하여 취락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회반죽으

로 다진 기와집 2동이, 지도로 봐서 학교와 주재소(경찰관파출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2동은 땅에 엎드린 것과도 같은 제주도의 민가에 비해 사뭇 불균형이다. 해변 모래밭은 흰옷이나 갈색옷을 입은 출영객으로 가득해진다. 여기 호수는 3백73호 중 내지인(일본인) 2호, 인구 1천7백2명 중 내지인이 6명이다. 취락의 동쪽에는 하얀 천을 널려놓은 것과 같은 일련의 순백의 해안지대가 가로놓여 있다. 이것이 김녕의 패각(貝殼) 분말로 이루어진 사구대(砂丘帶)인데 북서로부터 남동으로 내륙을 향해 길게 뻗쳐있는 모양은 해상으로부터가 아니면 뚜렷이 볼 수가 없다. 그 면적은 50여 정보에 달하며 그 뻗치는 방향에 따라 이 지방에 부는 탁월풍(卓越風)의 방향을 뚜렷이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모래언덕은 매년 평균 약 40m 정도의 속도로 내륙으로 진행, 바람이 불어가는 곳에 위치한 취락은 모래언덕 아래 매몰돼버린 것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당국은 사방공사(砂防工事)에 고심하며 식림에 애쓰고 있다. 또한 이밖에 도내 2백50㎞의 해안지대에는 북안에 월정리·함덕리·협재리(月汀里·咸德里·挾才里) 남안에는 표선리(表善里) 등의 훌륭한 패사구(貝砂丘)의 발달을 보여 그 총면적은 6백정보나 되며 모래언덕의 이동발전의 발향이 어느 것이나 이 지방 탁월풍의 방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배는 김녕 서쪽 15㎞의 조천(朝天)에 다시 입항, 거룻배로 귀환자 수십명을 상륙시키고 도항자 20여명을 태웠다. 여기 호수는 내지인 5호, 인구 13, 조선인 6백80호 인구 2천7백45로 옛부터 반도에 있어서의 많은 국사범(國事犯)이 유형되었던 곳이라고 한다.

동경 139도45분의 도쿄로부터 126도10분의 제주도에 오면 현저히 저녁이 길다. 저물어서 얼마 안되는 오후 10시 조금 넘어 드디어 제주의 수부(首府) 제주읍에 도착했다. 배는 조용히 산지항에 닻을 내렸다. 부두의 빛나는 등불은 이즈오오시마(伊豆大島)의 모토무라(元村)에 가까와졌을 때의 느낌이었다. 기적을 듣고 해안에 몰려드는 흰옷의 도민들 수가 점

점 늘어난다. 여기는 섬 가운데서 전등을 갖고있는 유일한 시가지이다. 산지에 축항이 만들어져 있어 거룻배로부터 직접 상륙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난날엔 거룻배로부터 남자(이 남자를 하루라고 했다)의 어깨에 업혀 얕은 여울을 해안까지 건너지 않으면 안되었다. 승선 때, 남게 될까 두려워한 손님들은 「하루」에게 특별히 팁을 주는 등 앞다투어 거룻배에 타기도 했기에 부녀자들의 도항 때의 고생스러움은 각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 위에 표를 무제한으로 팔았기 때문에 「하루」에게서 외면 당한 손님은 다음 선편 때까지 여러날을 허송해야 했다. 때문에 겨우 한 집밖에 없었던 여관은 언제나 붐볐다고 한다. 그런 일로 해서 도청사람들의 권유로 해변에 개업한 것이 내가 언제나 묵는 M여관이다. 나는 여기서 상륙했다. 또 한 사람의 내지인 손님 가바시마군도 상륙했다. 또 출가귀환자의 과반수도 상륙했는데 그들의 화물은 검사관의 엄중한 검사를 받았다. 나는 친절한 노인부부가 경영하는, 그것도 항구를 막바로 눈 아래 내려다 보이는 여관에 자리를 잡았다. 뒷날아침까지 하역으로 시간을 보낸 군대환(君代丸)은 나머지 귀환자와 새로운 30여명의 도항자를 싣고 8시께 아침 햇볕을 등에 받으며 출항했다. 저 두 개의 영구도 상주인 두 젊은이와 함께…….

3

제주도의 명물은 돌과 여자와 바람이며 이것을 「제주도의 삼다(三多)」라고 한다. 이 섬에 와서 첫번째로 느끼는 것은 돌이 많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라고 할까, 섬 전체에 30~50㎝ 정도의 돌은 보통이고 큰 것은 수~수십m, 그 위에 커다란 암반이 용암이 흐른 그대로의 것도 있다. 화전(火田)의 폐해로 황폐화된 이 섬은 표고 6백m 이하는 모두 불태워진 것과도 같이 나무가 거의 없다. 그 때문인지 한층 바위들이 돋보인다. 얼핏 봐서 황량한 사막의 경관이다. 그러나 그 황량한 경

치 속에 사람과 자연의 조화도 드러난다.

이 바람이 센 섬에서는, 특히 겨울쯤엔 집에서 헛간까지 가는 새에도 날릴 것 같은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 쇼와 7년(1932)의 방도(訪島)때도 8월 2일부터 대폭풍우로 상륙하자 마자 사흘동안 외출도 못하고 완전히 「통조림신세」가 되었다. 여관의 양철지붕은 날라가고 기와지붕으로부터 비가 새어 끝내는 가장 바람이 덜한 곳에 계셨던 대구의 하라 복심법원장(原覆審法院長) 부처의 방에 경성대학의 하나무라(花村) 교수, 광주의 요시다(吉田) 지방법원장, 그 밖의 일행들과 함께 피난했던 일이 었다. 지난해 8월 2일부터 4일까지에 걸친 태풍으로, 3일 오후2시의 관측으로는 최대풍속 북북동 36.1m의 맹렬한 태풍의 내습을 받았다. 제주측후소의 보고에 의하면 「작년 8월 3일에도 맹렬한 태풍의 내습으로 비바람이 강해 피해를 입었다. 2년 연속해서 같은 날에 태풍이 온다는 것은, 8월 3일이 전남의 액일(厄日)이다」. 올해도 체재중인 8월 7, 8일 이틀동안 맹렬한 태풍의 내습을 받았다. 도쿄에 살아서 지진에 의한 가옥의 진동에 익숙한 나도, 7일 저녁의 강렬한 진동에는 드디어 한밤중에 다른 방으로 피난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웃의 조선인 가옥을 보니 그야말로 조용했다. 이 호우, 이 열풍(烈風)을 알맞은 휴식이나, 서느러워서 좋다는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인가는 아주 낮게 하여 벽은 돌아가면서 돌을 쌓아올려 그 안쪽에는 점토를 바르고 지붕은 띠로 덮여있다. 그리고 그 지붕은 육지의 지붕보다 훨씬 굵고 든든한 줄을 사목격자형(四目格子型)으로 촘촘히 얽어있다. 이 사목격자는 해안 가까운 바람이 강한 곳일수록 촘촘히, 줄은 굵은 것 같다. 더욱이 이 집의 주위는 보통 1~1.5간(間) 높이의 돌담으로 둘러져 있어 내풍적 구조로 되어있다. 더구나 이 석재는 쉽게 주위, 아니 바로 옆을 파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연계로부터 받은 오랜 시련과 그 환경으로부터 키워져온 문화는, 내지(일본)로부터 직수입한 양철지붕의 목조가옥이나 2층집은 오히려 적

응성이 모자라 대폭풍우가 많은 자연적 환경에 대해 참담한 광경을 드러내며 또한 토지에 부조화인데 비해, 섬 고유의 민가가 아무리 봐도 어울리는 것같이 느껴졌다. 이 돌담이나 지붕에 애착을, 그리고 아름다움조차 느끼는 것이다.

돌담은 단지 인가뿐이 아니라 밭에도 논에도 있으며. 무덤에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 때문이라기보다 우마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섬에는 4만9백24두의 소와 2만2천2백50두(1931년 12월말 현재)의 말이 원시적인 연중방목으로 방사되고 있다. 당국은 축적면(畜籍面)의 수로 목우 6만두, 목마 4만5천두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수는 전조선 우마의 36%강이 되는데 목마는 북제주, 목우는 남제주가 각기 탁월한 상태이다. 이 점에서도 특수한 지역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돌담은 우마의 침해를 막기 위해 주거로부터 논과 밭으로 확장되고 한라산에 돌담이 그물처럼 치어져 있지만 그 길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지껏 계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돌담에 지켜지면서 밭 9만3천9백49.2정보, 논 9백57, 1정보 합계 9만4천9백6.3정보의 경지가 펼쳐져있다. 지형·지질의 관계상 관개용수가 귀한 이 섬에서는 논이 겨우 전 경작지의 1%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대부분이 한라산 남사면인 남제주의 해안지대에 있다. 한편 남부지역에서는 쌀의 2기작까지 가능한 고온지역이 있다. 농가 1호당 평균경지는 28.31반보(反步)로 내지의 10.9반보에 비해 무려 2.6배강의 광대한 경지를 갖고 있다. 이들 넓은 경지도 인습적 조방(粗放)농법과 부녀자들이 노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농산물은 자급자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전도 인구 약 20만의 상식인 조가 14만9천1백8석, 대맥(大麥) 26만1천8백90석, 수도(水稻) 1만2백34석, 육도(陸稻) 1만4천5백76석이 그 주된 식량작물이다. 또 바람과 한발(旱魃)에 견디는 작물이 주가 되어 육지면(陸地綿) 등의 재배도 근년들어 활발히 장려되고 있지만 반당 수익률이 높은 면화는 바람에 약한 때문 예상수익이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 밖에 박하·제충국(薄荷·除虫菊) 등 내지로부터의 이입종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연적 제약을 받는 이들 공예작물에는 도내에 있어서도 적·부적이 있어 그 분포상으로부터 몇 개의 부지리적 단원(副地理的 單元)을 결정하는 알맞은 요소가 될 것이다.

섬의 주풍(主風)이 북 또는 북북서풍이란 것은 제주측후소의 다이쇼(大正) 13년(1924)부터 쇼와 7년(1932)까지의 9년간의 통계 및 패사구의 이동방향 등에 의해서 관찰된다. 더욱이 재미있게 관찰한 것은 이 무수목(無樹木)의 산록지대에 보기드물게 비자의 큰 숲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좌면 한동리의 남방 약 8㎞ 지점, 기생화산 저악(猪岳)의 동녘 기슭에 45정보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을 천연기념물 조사를 위해 내도한 경성대(京城大)의 모리(森)교수를 수행하여 볼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수령이 모두가 3백년 이상의 것으로 1933년 12월의 조사에 따르면 나무는 모두 2천7백98본, 모리교수에 의하면 그 수령과 총생(叢生)에 있어 세계 유일일 것이라고 한다. 이 3백년 이상의 큰 나무가 모두 남남동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지방의 3백년간의 탁월풍의 방향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아닐까. 모리 교수 일행이 숲을 답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도청의 아리요시(有吉)산업주임의 안내로 저악에 올랐다. 그것은 일대에 군립하는 기생화산과 이 부근에 있어서의 경작풍경을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위에 부수확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눈아래 전개되는 비자림의 분포상태와 탁월풍에 의한 큰 나무의 규칙적인 일정방향에의 경사, 그리고 바람 불어오는 쪽의 외측일대 나무가 중간(中幹) 이상이 고사(枯死)하여 빗자루를 세운 것과 같이, 그것이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현상이 점감(漸減)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외측림이 열풍에 대한 방풍의 희생으로서 고사하고 있는 상태를 확연히 인정할 수 있었다.

4

여자. 섬에는 여자가 많다. 제주는 「여호도(女護島)」(註=여성만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중국에서 유래된 상상의 섬) 라고 한다.

섬의 성별 인구구성을 다이쇼 14년(1925)과 1930년의 국세(國勢)조사 결과에서 살펴보면

단위 : 명

	남	여	여성과잉수
1925. 10. 1	95,437	109,757	14,320
1930. 10. 1	96,206	112,111	15,905

즉 남자 1백명에 대해서 여자 1백16명으로 일본의 남자 1백대 여자 99명강(1930)과는 현저히 틀리다. 이것은 위 두 번의 조사 때 우연히 여성이 많았던 게 아니라 제주의 인구통계에서 얻을 수 있는 한의 것으로 살펴봐도 해마다 남녀의 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차이를 낳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랄 수 있는 출산·사망에 대한 1922년부터 1931년까지의 10년간 통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남	여
출 생	100	93.7
사 망	100	82.2
차 감	0	11.5

이것은 매년 평균인구 100명에 대해 여자는 11.5명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어째서 섬의 여성이 남자보다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는 것일

까. 어째서 남자의 출산율이 높고 그 사망률이 높은가. 그것은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어떤 의학자는 남자가 많이 태어나는 것은 모성의 체격이 부성보다 우수한 경우로, 그것은 부성의 허약에 의해 그 부성이라야 할 남자수의 감소를 두려워해서 남자가 많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이법(理法)에서 말한다면 제주도엔 남자가 적고 여성이 많은 셈이 된다. 따라서 그 결점을 보충하려고 남자가 많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또 여자의 체격이 남자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도 남자가 많이 태어나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 위에 남자의 사망율이 높은 것은 어업을 주로 하는 도서에 있어서는 출어중의 조난 등도 이유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어업에도 여자가 종사하는 나체잠수어업(裸體潛水漁業)이 대부분이란 것을 생각하면 이 이유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제주도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현저히 많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생리상으로 흥미로운 문제이다.

이와같이 여자가 현저히 많은 것은 제주도가 갖는 지리적 사정 및 사회적 현상 등 여러 요소의 종합적 결과로, 그 이유의 속단은 섣불리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근년 남녀수의 현저한 교차(較差)는 출가까지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도인의 혈통이 절반이 일본인이란 것은 섬에 전해지는 삼신인(三神人)의 아름다운 부부의 신화나 섬사람의 용모·골격 기질 등이 육지와 현저히 다르고 특히 여성이 지니고 있는 용모·풍습 등은 육지의 조선인보다 한층 일본인에게 가깝다고 느껴진다.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지삼십팔, 제주도건치연혁(卷之三十八, 濟州島建置沿革)의 항에 「고려사고기전(高麗史古記傳)」이라고 해서

> 태고(太古)적에 이 곳에는 사람도 생물도 없었는데 3명의 신인(神人)이 땅으로부터 솟아 나왔는바 [이 현주 주산(主山)인 한라산 북쪽 기슭에 모흥(毛興)이라는 굴이 있는데 이 곳이 바로 그

때의 것이라고 한다.] 맏이는 양을나(良乙那), 둘째는 고을나(高乙那) 셋째는 부을나(夫乙那)라고 하였다. 이 세 사람은 먼 황무지에 사냥을 하여 그 가죽을 입고 그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하루는 자주빛(紫色) 봉니(封泥)로 봉인을 한 나무 상자가 물에 떠 와서 동쪽 바다가에 와 닿은 것을 보고 곧 가서 열어 보았더니 상자 속에는 돌함과 붉은 띠에 자색 옷을 입은 사자(使者)가 따라 와 있었다. 돌함을 여니 그 안에서 푸른 옷을 입은 세 명의 처녀와 각종 망아지와 송아지 및 오곡(五穀) 종자가 나왔다. 그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의 사신(使臣)인데 우리 나라 왕이 이 세딸을 낳고 말하기를 '서쪽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산에 하느님의 아들 3명이 내려와서 장차 나라를 이룩하고저 하나 배필(配匹)이 없다'고 하면서 나에게 명령하여 이 3명의 딸을 모시고 가게하여 이 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이 3명으로 배필을 삼고 나라를 이룩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그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3명은 연령에 따라서 세 처녀에게 장가들고 샘물 맛이 좋고 땅이 건 곳을 택하여 활을 쏘아 땅을 점치고 살았는데 양을나(良乙那)가 사는 곳을 첫째 서울, 고을나(高乙那)가 사는 곳을 둘째 서울, 부을나(夫乙那)가 사는 곳을 셋째 서울이라고 하였으며 이때 처음으로 오곡을 심어서 농사를 짓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길러서 목축을 하여 날이 갈수록 부유해 가고 인구가 늘어 갔다.

(註1) 鎭山은 漢拏山 1950m, 섬의 最高峰
(註2) 東海浜이란 현재의 旌義面 溫平里, 舊稱 延婚里

이 신화가 어느 시대에 시작해서 어떤 기록에 처음으로 실렸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여간 제주성밖의 남방 1㎞ 남짓에 삼성혈(三姓穴·毛興穴)이라고 불리우는 구멍이 있어 그곳에 삼신인을 모시는 삼성사(三姓祠)라는 성지(聖地)가 있는 것은 사실로, 섬사람들은 이 일을 굳게 믿고 내지(일본)을 가리켜 「어머니 나라」라고까지 칭하면서 일종의 반가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글 안에 「일본국사(日本國使)」라고 되어있는데 역사적

사실의 정도는 전문가의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가 일본·조선 두 지대의 중간에 위치하여 이키(壹岐)·츠시마(對馬)의 여러 섬이 일·선 교류상의 징검돌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던 만큼, 크지는 않지만 옛부터 북구주연안 및 고토(五島)의 어민등이 출어중에 포착하여 섬사람이 되고 또 섬사람과의 사이에 자손을 남겼으리란 것도 부정할 수 없다.

8월 19일(일요일) 새벽에 아침 이슬의 길을 밟고 삼성사를 참배하기 위해 정면의 건시문(乾始門) 앞에 섰다. 삼성사(<그림 1-3> 참조)는 한라산의 완만한 기슭 들판에 있어 소나무 숲 너머로 바라다보이는 산은 산뜻하게 아름답고 바로 밑에는 성벽에 둘러싸인 섬의 수읍 제주의 성곽가가 보이며 그 앞에 펼쳐진 코발트색의 깊은 바다로부터는 쉴새 없이 선들바람이 불어오는, 경승이 좋은 위치에 있다. 사당은 수백년이나 된 노송 2백여그루의 숲 속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기도

<그림 1-3> 三姓穴 및 濟州城附近의 地形

하다. 사당의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 경내는 깨끗이 청소되어있다. 사당을 지키는 사람은 고씨성으로 이 신인의 자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인데 마침 부재중인지라 순박하면서도 고집 세게 보이는 늙은 하인의 안내로, 통역에는 보통학교 훈도인 강영춘(康寧春)군의 신세를 졌다.

본전(本殿)은 기와지붕을 회반죽으로 단단히 다져 동향으로 세워져 있다. 그 배후에는 다시 돌담으로 둘러싸인 1백50평 정도의 아름다운 잔디에 덮인 지역의 중앙에 간단한 울짱이 있다. 그 속에 직경 1m 정도의 약간 패인 세 개의 구멍이 있다. 그 곁에는 양·고·부 삼신인을 표시하는 돌이 동쪽부터 연장순으로 놓여 있었다. 여기로부터 다시 북쪽의 신실통문(神室通門)을 통해 본당에 안내되었다. 본전은 정면 너비 6間, 안길이 3間으로, 정면을 향해 오른쪽부터 탁라시조부을나, 탁라시조고을나, 탁라시조양을나(乇羅始祖夫乙那, 乇羅始祖高乙那, 乇羅始祖良乙那)의 삼신인 위패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남향으로 삼신녀의 위패라는 것이 늘어서 있었다. 허가를 받고 사진을 찍은 다음 이곳을 떠났다. 건시문 밖의 기이한 형태의 석불(돌하루방)이 우리들을 전송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얼굴생김새, 그밖이 매우 유사하다고는 하나 그래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주인과의 얼굴에서는 이 차이를 거의 잊게 할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이 광대뼈의 돌기가 적다는 것이나 눈이 덜 치켜올라갔다는 등을 생각해봐도 좀처럼 설명하기는 어렵다. 아무튼 제주도의 남녀는 육지의 남녀보다 밝고, 특히 여성이 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라고 도청사람이나 이곳 일본인들은 말한다. 그래서 제주인은 어느 시대에나 정치적으로 특수한 취급을 받으며 조선반도부의 사람들로부터는 이인종시(異人種視) 당하고 자기들 자신도 또한 육지사람에 대해 외국인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이런 것은 아베(安倍能成)씨도 「탐라만필(耽羅漫筆)」에서 지적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도 「이어난삽선고후저(俚語難澁先高後低)」라고 되어있지만 카토(加藤灌覺)씨도 제주의 언어는 특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5

한편 풍속(風俗)에 이르러서는 여러가지 점에서 육지와 다르다. 오히려 일본에 가까운 것이 있다.

첫째로 제주도여성은 육지 여성에 비해서 활동적이다. 집 밖에서 농업에 종사함은 물론, 어업 그 밖의 노동에도 종사한다. 특히 부인의 나체잠수어업인 해녀는 섬의 명물이라고도 할만한 것으로, 육지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해녀가 제주에는 해녀어업조합원만으로도 무척 많아 8천8백62명(1932)에 이르러, 전국 해녀의 40% 남짓을 차지하는 상태이다. 조합원 이외의 해녀 어업에 종사하는 해녀까지 합산하면 실수(實數) 1만5천여에 이르러 전국 해녀의 54% 남짓을 점유하게 된다. 이들 해녀는 섬 주위 2백40㎞의 임해취락(臨海聚落)의 여자만이 아니라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중산간 지대의 여자까지도 민첩한 해녀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명물인 해녀는, 섬 전체에 분포되고 있다.

이들 1만5천여의 해녀 가운데는 단순히 도내에서 해녀어업에 종사할 뿐 아니라, 농한기에는 대안(對岸)의 전라·경상남북도는 물론 강원도로부터 북으로는 물이 차거운 함경북도까지, 서로는 황해도까지 진출, 오랫동안 등한(等閑)히 해왔던 연안어업권을 제주도해녀조합의 이름으로 획득하는 등 제주해녀의 독점적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으로는 고용계약에 의해, 멀리 동경부(東京府)를 비롯 치바(千葉), 시즈오카(靜岡), 미에(三重), 도쿠시마(德島), 고오치(高知), 가고시마(鹿兒島), 나가사키(長崎)의 여러 현(縣)에 이르고 있다. 이 제주해녀는 저임금과 장시간 조업이 인기를 끌어 종전 일본의 「나무통 해녀(註=일본해녀들은 태왁 대신에 나무통을 썼기 때문 '樽がつぎ海女'라고 했다)」 어장에 진출하여 그 수는 실로 1천6백명, 그 위에 반도부 출가해녀를 합치면 5천78명(1932)명이 된다. 이들 해녀들의 우체국을 통한 송금만도 실로 1백10만엔에 이른다. 더구나 그녀들은 11~12세경부터 잠수하는 연습을 쌓아 17~18세에는 제

구실을 하는 해녀가 되어 40세를 넘길 때까지 일을 계속한다.

해녀의 조업은 노련한 자를 앞세워 간조(干潮)를 따라 일에 나가, 만조(滿潮)를 타고 돌아온다. 그 새 배는 쓰지 않고 몸과 어획물을 담는 망사리 1개를 바가지(태왁)의 부표에 의지하여 4~8발(1발은 약 1.5~1.8m)의 수심(水深)을 약 1분간 단숨에 잠수하여 일하는 것이다.

또 어업에 관한 것으로 아주 원시적인 어선이 있다. 그것은 일본에서 반입한 삼나무의 통나무, 길이 2간반쯤의 것 10여본을 짜맞춰, 그 위에 바다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난간을 가로 세로 걸친 뗏목(註=테우)이다. 그 어선에 몇 사람이 타서 바다로 나가 뜰망을 내려 자리를 잡는 것이다. 예전엔 제주에 풍부했던 제주전나무를 짜서 배를 만들었었지만 벌채가 금지된 오늘날엔 반입삼목(杉木)의 통나무로 바뀌고 있다. 또한 1933년말 현재의 뗏목수는 제주읍 55, 신우면(註=애월) 70, 구우면(한림) 28, 좌면(중문) 18, 우면(서귀) 15, 서중면(남원) 24, 정의면(성산) 70, 구좌면 70, 신좌면(조천) 50, 계 4백척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 여자는 육지 여자와 같이 머리에 물건을 이지 않는다. 육지 여자는 물동이를 머리에 얹으며, 그 밖에 액체·고체(液體·固體)를 가리지 않고 커다란 짐까지도 머리위에 얹어서 길을 간다. 이 모습은 육지에서의 독특한 모습이지만 제주도 여자는 결코 머리에 물건을 이지 않는다. 물동이로 물을 나를 때는 1두(斗)들이 정도의 입이 작은 허벅을 바구니(물구덕)에 담아 그것을 륙색과 같이 짊어진다. 그 바구니 밑바닥에는 작은 대발이 붙어있어 땅에 내려놓고 쉴 때 등에 허벅이 안정되어 물이 쏟아지지 않게 되어있다. 이 풍습은 돌맹이 많은 비탈길을 날라야 하고 더구나 물이 귀한 섬에서 상당히 멀리 운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자연히 생겨난 방법일 것이다. 틀림 없이 일지역성(一地域性)이다. 또 바구니가 있는 것은 기후가 따뜻한, 대가 풍부한 지역이란 것도 외면할 수 없다. 이와같이 제주도에 와서 부인이 물 깃는 모습을 보면 섬사람인가, 육지에서 온 사람인가, 곧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한편 가벼운

것은 바구니에 넣어 겨드랑이에 끼고 나른다. 이것도 육지에선 볼 수 없다. 길을 걸을 경우에도 대개 바구니를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며,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체면치레로 갖고 다닌다. 마치 모던걸의 핸드백과도 같이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가장 주의를 끄는 것은 부인의 옷차림이다. 조선인은 백의족(白衣族)이라고 일컬어질만큼 하얀 옷을 입는 것이 습관이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색옷, 특히 감물을 드린 적갈색(赤褐色)의 것(註=갈옷)이 많이 쓰인다. 그것은 흰 베옷에 비해 3배의 내구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복과 평상복장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는 일본식이다. 또 바느질에 있어서도 육지에서는 바늘을 안쪽으로 향해 사용하지만, 섬에서는 일본과 같이 운침(運針), 바느질하는 것이 보통이며 더구나 그 솜씨가 좋기로는 조선 제일이라고 말해진다. 어린이 업는 법도, 육지부인은 일본과 틀린 독특한 방식인데 이 점도 섬의 부인들은 일본인과 꼭 같은 방법을 취한다.

6

이상과 같이 제주에는 일본계통에 속하는 갖가지 문화계통이 엿보이지만 한편 몽고계통에 속하는 문화형태가 있는 것도 외면할 수가 없다. 그 하나는 산간지대의 화전민(火田民)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복장이다. 그것은 머리에 개털로 만든 이상한 모양의 두건을 쓰고 개털외투를 입고 있다. 모자는 쇠털을 풀로 고정시킨, 차양이 넓은, 두터운 것으로, 아주 가벼운 것이지만 탄환조차 관통되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다는 것이다. 보기에도 야만스러운 토인 같은 풍모이지만 접해보면 그야말로 유순하고 소박한 야인이다. 그런데 도리이(鳥居)박사는 이 복장과 조제법은 몽고계라고 말하고 있다.

유수(流水)가 귀한 제주에 있어서는 수력을 동력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주봉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치는 방사형 계곡도 보기드물게 하구에서는 유수를 볼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은 학갈류(涸渴流)

이다. 실로 물의 혜택이 없는 섬이다. 일본의 산간지방이나 조선에서도 호남평야 지방에서는 계류에 수차(水車)를 걸어 그 동력을 제분(製粉)이나 정곡(精穀)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제주에는 단 하나의 수차도 없다. 그래서 정곡용으로 일종 독특한 마력(馬力)에 의해 빻는 돌방아(註=말방아)가 있다. 몽고등지에서 볼 수 있는 방아와 비슷한 것이다. 돌방아는 직경 2m 남짓, 두께 70~80㎝의 큰 것이다. 석재(石材)는 섬에 풍부한 현무암이 이용되고 10여호가 공동으로 가장 편리한 위치에 방아를 마련, 이를 순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또 제주도는 기후적으로 혜택을 받아, 대밭이 가는 곳마다 있는가 하면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밀감의 생산, 쌀의 2기작, 숨부기의 군생(群生)을 볼 수 있다.

온돌은 육지만큼 월동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돌의 설비는 있다. 그러나 그 구조가 다소 달라져 있다. 특히 육지에서는 취사용의 불을 온돌에 유효하게 이용하는 구조이지만 섬에서는 취사장은 별도로, 온돌의 아궁이가 반드시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료로서 말똥을 이용하고 있는데 섬에는 약 10만두의 우마가 방목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를 자유로이 얻을 수 있다. 여름에 여행하면 농가의 앞마당에 모아진 말똥을 말리기 위해 널려있는 것을 보게 된다. 또 장터에서는 이것을 상품으로서 거래하기도 한다. 그런데 말똥을 사용한 온돌은 보온이 잘 되며 온도가 알맞기 때문에 호평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에도 또 나무가 귀한 몽고와 말똥, 우마가 많은 제주도의 말똥과 연료라고 하는 유사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섬사람의 상식인 조(粟)의 재배에 있어서도 이 지방 독자의 답압농법(踏壓農法)이 행해지고 있다. 여기는 우리나라(註=일본과 한국) 유일의 건조농업지역으로, 조 파종후 밭에 10수마리 내지 수십 마리의 말을 몰아놓아 씨앗의 발아를 위한 보수(保水)의 답압(踏壓)을 하는 것이다. 한편 방법은 다르지만 북만주 평야 및 몽고지방에도 비슷한 건조농업이 행해지고 있다. 그것이 언제 어디로부터 전해졌는가, 또는 섬사람 독자의 창법

인가는 별도로 해서 이상과 같이 대륙계 문화와의 유형이 인정된다. 더우기 제주도가 원구(元寇=1274년에 몽고군이 일본에 쳐들어간 일)의 일본내습 때 기항지가 되었다든지, 가끔 정치적으로 대륙의 지배하에 속했던 과거를 갖고있는 일등으로 해서, 그때 이입(移入)된 것 중에서 자연에 적합한 것이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흥미 깊게 관찰했다. 이상의 여러 점이 일본과 반도부, 그리고 대륙과의 3지역 사이에 개재(介在)하는 점이성(漸移性)의 나타남이다.

7

섬 아가씨가 파라솔을 지니기 시작했다. 또 겨드랑이에 지녔던 바구니가 핸드백으로 변해간다. 면(面)마다 두부집이 생겼다. 조선초신이 고무신으로 바뀌었다. 이 무슨 변화냐고 섬의 고로(古老)들은 말한다. 정말 대단한 변화이다.

매년 2만명 가까운 섬사람들이 오사카 경유로 일본에 돈벌이 간다. 그 도항상황을 다이쇼 11년(1922)부터 쇼와 8년(1933)까지의 12년간 통계에 따르면, 1922년에는 겨우 3천5백2명이었던 게 점증이라기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1933년에는 2만9천2백8명으로 8배 남짓이 되었다. 일본 재주자(在住者)는 실로 4만7천2백72명에 이르러 일본출가조선인 총인구의 33% 남짓에 이르고 있다. 이래서 1934년 4월말 현재로 남자 2만9천5백62명, 여자 2만6백99명, 합계 5만2백61명으로 그중 오사카재주자(大阪在住者)는 3만7천9백38명에 이르러 전체의 75%강을 점유하고 있다. 그 밖에 교오토(京都) 2천2백8, 효오고(兵庫) 2천63, 도쿄 1천7백1, 와카야마(和歌山) 1천5백83명의 순위로, 미야자키(宮崎), 돗토리(鳥取), 이시카와(石川), 도야마(富山), 군마(群馬), 도치기(栃木), 이바라기(茨城), 야마가타(山形), 이와테(岩手), 오키나와(沖繩)의 10현을 제외한 33현에서 북은 홋카이도(北海道), 가라후토(樺太=사할린), 남으로는 대만, 남양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분포는 긴키(近畿)에 가장 많고 이어 기타큐슈(北九州), 도오카이도(東海道), 산요도(山陽道)의 순위로 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제주도인의 이동경로는 산요(山陽), 사코쿠(四國) 방면으로는 물론 큐슈로 옮기는 사람조차도 오사카를 경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판제직통(阪~濟直通)으로 운임이 싼 기선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인의 일본출가는 메이지(明治) 40년(1907) 전후부터 발단하고 있다. 당시 제주로 가는 일본 통어자(通漁者)가 있어, 그 어선, 어구 어법 등이 대단히 우수한 것을 본 섬사람들이 어법견습을 위해 어선에 승선, 자발적으로 도항한 것인데, 그 수는 말할 것도 없이 얼마 안되는 것이었다.

1914년 구주대전(歐洲大戰)의 발발과 함께 오사카 방면으로부터의 직공모집을 계기로 피동적인 권유로 출가가 이루어졌다. 잇따라 다이쇼 7~8년부터의 일본공업계의 진흥과 함께 노동자의 수요가 격증하여 기타큐슈(北九州)의 탄광 및 공업지대, 더우기 한신(阪神)공업지대에 출가하는 도항자가 차츰 증가해 갔다. 더군다나 한신(오사카·고베) 지방에 현저한 도항자의 증가를 보게되었다. 이에 이르러 1922년 아마가사키(尼崎) 기선회사는 오사카~제주도간의 직통항로를 열고 이어 동13년 조선우선(朝鮮郵船)주식회사도 또 동 항로를 경영하기에 이르러 정기취항, 항해때마다 만원의 성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쇼와 4년(1929) 1월에 이르러 제주출신의 오사카거주 고일파(大阪在住高一派=高順欽)가 움직이는 기업동맹인 조합이 출현, 용선(傭船)을 운항하다가 동년4월에 가고시마우선(鹿兒島郵船)과 제휴했다. 이 때문에 삼파전(三巴戰)의 경쟁이 되어 10엔 전후였던 판제간(阪~濟間) 운임은 드디어 3엔까지 덤핑, 치열한 승객쟁탈전을 벌였다. 그 위에 1930년 11월 섬출신으로 오사카에 사는 좌익분자들이 동아통항조합(東亞通航組合)을 설립하여 용선인 「후시기마루(伏木丸) : 1천3백t」을 취항시키는 등으로 백열적(白熱的) 경쟁을 연출했다. 이러한 일로 해서 1931년 3월 복목환(伏木丸)은 운항정지가 되고 전기 3사는 운임을 6엔50전으로 협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동아통항

조합 간부가 오사카에서 좌익운동의 전위(前衛)로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섬의 치안상 요주의로 단정, 당국이 1932년 10월 이후 엄중히 단속하고 탄압한 것과 재정핍박의 궁지에 몰려 1933년 12월 1일부터 운항을 중지했다. 그러나 간부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책동중으로 그 결과에 예민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다.

이래서 복목환 폐항(伏木丸 廢航)에 의해 현재는 조선우선(朝鮮郵船)의 경성환(京城丸 : 1천39t), 아마가사키(尼崎)기선회사의 「기미가요마루(君代九, 9백19t)」의 두 선박이 운임도 8엔, 16엔(1934년 8월 15일까지는 6엔, 12엔)으로 협정하여 출항일도 전자는 6의 날, 후자는 1의 날에, 오사카로부터 교대로 매월 3회씩 취항하고 있다. 또한 제주로 갈 때는 석탄을 싣기 위해 시모노세키(下關)에 기항하지만 돌아올 때는 직항이다. 따라서 섬의 출가자들은 우선 오사카에 들어갔다가 다음으로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게이한신(京阪神)의 땅(註=京都·大阪·神戶)은 일본 공업의 일대핵심이기 때문에 많은 제주출신 출가노동자가 소화되게 되는 것이다. 출가노동자의 연령은 1934년 4월 현재의 조사에 따르면 15~20세 7천7백28명, 21~25세 1만2백6, 26~30세 9천2백44, 31~35세 6천9백23, 36~40세 4천7백83명으로, 15~40세의 가장 활력있는 청장년 합계가 3만8천8백84명에 이르러 출가총수의 78%를 점유하고 있다. 직업별 인구는, 35업종 기타 중에서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방적공 6천6백33, 고무공 5천9백64, 철공 3천9백91, 유리공 2천9백27, 자유노동 3천2백63명으로, 특히 여자의 특색은 방적공(紡績工), 고무공, 재봉공 등이며 해녀는 그 중에도 가장 특색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땅은 비옥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경지는 9만4천9백6정보, 농가1호당 평균경지는 28.31반보로 일본의 2.6배강의 넓은 경지를 갖고 있으며 그위에 전 조선 제일의 양호한 기후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농업은 풍요로와 섬 전체로는 육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궁핍한 사람도 적고 또 거지 같은 것도 볼 수 없다. 섬 전체가 유

복한 생활을 하며 섬사람 본래의 생활정도에서 보면 아직 많은 인구 수용의 여지를 남겨있어 결코 인구포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출가가 많다는 배경에는 피동적으로 유도되어 호황시대에 출가하고 이로써 얻은 파격적인 소득과 출가에 의한 보다 나은 생활, 귀환자들의 도회지 생활에 대한 예찬, 또 한편으로는 기선회사들의 경쟁에 의한, 경제를 무시한 엄청 싼 선박운임과 승선하기만 하면 반드시 노동자의 대수요가 있는 오사카항에 상륙할 수 있는, 도항의 용이성이 부채질 하고 있다.

그 위에 제주도인은 본디가 근검간소한데다 "제주도의 조선인은 결코 노동쟁의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모토로 해서 출가지에 있어서의 신용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섬에 출가자를 위한 공제회를 만들어 일본도항자의 소개, 숙박소·주거의 편의 알선, 근검저축의 장려, 위생사상의 보급 등에 노력, 오사카부히가시나리구(大阪府東成區)의 나카미치(中道)에 그 출장소를 마련하여 이들 사업을 추진한 것이 오늘의 성황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제회의 조합원이 되려면 섬을 나갈 때 1엔의 회비를 납부하면 되는데 조합원 이외는 일절 도항을 허가하지 않기로 되어있다. 섬으로부터 출가하는 자는 ① 민적등본(民籍謄本) ② 출가허가증 ③ 제주도공제조합원증 ④ 준비금의 네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번째의 민적등본은 수속만 밟으면 누구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 두번째의 출가이민허가증은 일본에서의 생활방도만 확실하면 즉각 교부된다. 제3의 회원증은 1인당 1엔을 납부하면 된다. 제4의 준비금은 1인 10엔 내지 15엔이 필요한데 이 검사는 오늘날에는 거의 행하지 않고 있다. 소지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제한이 없다. 또 출가이민허가증은 제주경찰의 본서 외에 열다섯의 분서에서 고시된 일정한 요일에 교부키로 되어있다. 이 허가증 교부일인 금요일에는 도항허가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인원수가 대단하여,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현상이다.

도항의 성황기는 섬의 농어업의 단경기(端境期)인 1~4월의 4개월이다.

1933년도는 3월의 도항자가 5천6백28명에 이르렀다가 5~7월에는 감소하여 거꾸로 귀환자의 수가 늘어나는데 9월에는 다시 증가하여 2천9백74명에 이르고 있다. 3월만큼 많은 수는 아니다. 이들 1933년도 출가자들의 우편에 의한 송금액만도 86만엔에 이르고 있다. 가장 액수가 많았던 1928년에는 1백30만엔이나 되는데 이 돈은 거의가 가격표기로 현송(現送)하는 것으로, 직접 소지하고 돌아간 금액을 합산한다면 배액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조합장, 우편소장 등의 말에 따르면 섬의 통화의 90%까지가 일본지폐(조선의 지폐로는 조선은행의 兌換券)가 유통하고 있다. 경성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보통 가게에서는 1백엔이나 되는 일본지폐 뭉치돈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섬에서는 어디에 가도 손이 베어질듯한 새 일본지폐가 눈에 띈다. 섬사람들은 오랜 관습으로서 현금은 거의 은행같은 데에 예금하지 않고 단지에 넣어서 보관하든지, 자기 허리춤에 단단히 동여맨다는 것이다. 출가이민이 섬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이렇듯 큰 것으로 이에 수반하는 섬의 노동력 부족, 전원(田園)의 황폐 등 많은 폐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말하기로 하겠다.

이번 필자가 방도한 8월은 출가이동기에서 보면 아주 한산한 달이긴 하지만 추석 지낼 조(粟)의 제초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귀환자는 매년 상당수에 이른다. 방도때 사흘 밤낮을 귀환출가자들과 침식을 함께 한 것은 제주인을 보다 잘 알고 또한 출가자들의 생활을 살피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탈고에 즈음하여 못 다한 점을 사과함과 더불어 방도 때마다 연구에 필요한 여러 자료제공 등 갖가지 편의를 주신 다구치 도사(田口 島司), 미우라(三浦)내무주임, 다테노(立野)기사, 다치바나(立花)·아리요시(有吉)산업주임, 김근시(金根著)씨, 마수다(桝田義美)씨, 이케다(池田) 보통학교 교장, 야마다(山田)·사토(佐藤)두 부장, 수기모토(杉本) 순사부장, 최병묵(崔炳默)씨 그 밖에 각읍면 관·민 여러분께 사의를 표한다.

(쇼와 9년 9월 2일)

濟州島의 畜産

제주도는 조선반도의 남서단, 목포로부터 1백42㎞ 남쪽 해상에 가로놓여 있는 일대화산도이다. 섬은 동서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형으로, 동서 80㎞, 남북 40㎞, 주위 2백㎞ 남짓의 해안선을 갖는 조선 제1의 큰 섬이다.

본도는 행정상 제주·신우(애월)·구우(한림)·신좌(조천)·구좌·우(서귀)·좌(중문)·중(안덕)·대정·서중(남원)·동중(표선) 및 정의(성산)의 12면을 포괄하여 도제를 실시, 도사가 관할하는 자연적인 일지리적 단원(一地理的 單元)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 제주도에 있어서의 축산, 특히 소·말·꿀벌 등에 대해서 섬의 위치·지형·지질·기후 등의 자연지리적 여러 인자(因子) 및 인문지리적 여러 요소의 종합성의 영향에 의해 어떠한 지역성을 본도에 초래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통계상에 나타난 제주도의 牧牛·牧馬에 있어서의 지역성

제주도의 축산상의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51회帝國統計年鑑·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 쇼와 5년 ≪1930≫ 현재)로부터 도도부현별(都道府縣別) 소·말의 통계를 갖고 <그림 1-4>의 전국에 있어서의 1930년의 도도부현별 말의 두수밀도도(頭數密度圖) 및 <그림 1-5> 소의 두수밀도도를

註 : 꿀벌도 편의상 축산에 포함해서 취급하기로 했다. 또한 양돈·양계·양잠도 일괄해서 본론을 구성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소·말·꿀벌에 대해서 논하고 그 밖은 할애해서 다음 기회에 논술하기로 했다.

작성했다.

<그림 1-4>에 있어서 특히 주의를 끄는 점은 조선반도부의 말의 밀도가 가장 적다는 것이다. 이에 버금가는 것은 추우고쿠(中國)지방 및 깅키(近畿)지방으로, 동북지방의 야마가타(山形)현을 제외한 각현, 관동지방의 이바라기(茨城)·치바(千葉) 및 큐슈(九州)의 각현은 비교적 많은 제3계급의 밀도구를 이루고 오키나와(沖繩)현은 15.9두의 최대밀도를 지녀, 제1계급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오키나와에 이어 11.8두로 전국 제2의 조밀지역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선반도부가 최희소지역(最稀少地域)을 이루고 있는 것은 현저한 대조가 된다.

<그림 1-5>의 소의 밀도도는 전자와 같은 간격비율로써 구분하고 그 위에 상위(上位) 1계급을 더하여 6계급으로 구분했다. 소와 말의 밀도도가 현저히 다른 점은 말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희소지역에 속하는 조선반도부가 소의 밀도에 있어서는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역의 거의가 등밀도(等密度)의 제3계급에 속하는 비교적 고밀도의 분포구를 이루고 있다. 또 북해도, 동북의 각현이 희박한 제5계급의 희소지역을 이루어 말의 경우에 희소지역에 속한 추우고쿠·깅키(中國·近畿) 지방에 많다. 특히 추우고쿠·시코쿠·큐슈의 환세토나이카이(環瀨戶內海) 각현이 11~15두로 제2계급의 조밀지역을 이루어 큐슈지방은 소·말 모두가 밀도가 대체적으로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제주도의 소의 밀도는 22.7두로 절대 최대의 밀도구가 되어있다.

이상은 양(量)에 관한 통계적 사실로, 단순히 양에만 관점을 둘 때에는 말은 전국 제2위, 소는 제1의 밀도를 지니는 셈이 되어 조선반도부에도 내지(일본)에도 볼 수 없는 조밀지역을 이루어, 따라서 우마 모두가 탁월한 지역으로서 축산상 특색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4> 道府縣別 1㎢당 말의 밀도(1931년)

<그림 1-5> 道府縣別 1㎢당 소의 밀도

濟州島의 牧牛·牧馬의 분포

1. 소의 분포

제주도에 있어서의 소의 두수는 <표 1-1>과 같이 4만9백24두(숫소 1만9천7백13, 암소 2만1천2백11두로 숫소에 비해 암소가 현저히 많다)로 전 조선 축우의 30%강에 해당된다. 소의 분포(<표 1-1>, <그림 1-6> 참조)는 보편적으로 전도에 보급되고 있지만 굳이 분포상의 소밀(疎密)을 찾는다면 (1) 남제주중앙부(우면·좌면·서중면) (2) 동부지역(정의·구좌면), (3) 서부지역(구우면·대정면)에 많고 (4) 북제주중앙부에 적다.

그 중에서도 최대밀도를 갖는 것은 남제주의 우면이 1평방㎞에 34두, 이어 서중면이 30두, 정의면 28두, 대정면 27.5두, 구우면 27두, 구좌면 26.5두의 순위이며 최소밀도구는 북제주의 구우면 9.6두, 제주면 9.9두, 그리고 신우·동중의 두 면은 모두 본도의 평균밀도 이하이다. 농가호수 1백호에 대한 소위 사육호수비율은 평균 50, 최고비율은 남제주동중면의 82, 중면의 80, 대정면의 67, 서중면의 58, 우면의 51, 좌면의 49 등등으로, 남제주지역이 북제주지역에 비해 사육호수비율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크다.

(1) 남제주중앙부

목우에 있어서 최대밀도와 사육호수의 최고비율과를 갖는 이 지역중, 특히 그 중앙에 위치하는 우면이 가장 뚜렷하다. 우면은 한라산의 남사면 중앙에 위치하여 표고 1,950m의 산정부로부터 0m의 해안지대까지 내려간, 띠모양의 지대로 도내에서도 산정부터 해안에 이르는 최단거리의 지역으로 겨우 15㎞, 따라서 경사도는 비교적 크다.

<표 1-1> 제주도에 있어서의 소·말의 사육호수와 그 비율, 두수, 밀도

(1931년 12월말 현재)

면	면 적 (㎢)	馬				牛			
		사육호수	농가100호에대한사육호수	두수	1㎢당밀도	사육호수	농가100호에대한사육호수	두 수	1㎢당밀도
濟州	250.4	1,226	20	1,813	7.3	2,003	34	2,485	9.9
新右	204.2	1,504	35	3,127	15.3	2,480	57	3,658	17.9
舊右	164.1	973	14	2,422	14.7	3,257	47	4,434	27.0
新左	154.0	1,035	35	2,373	15.4	947	32	1,467	9.6
舊左	195.0	229	6	3,395	17.4	1,642	40	5,182	26.5
右	140.4	742	26	1,299	9.3	1,752	51	4,748	33.9
左	145.3	726	35	1,667	11.5	1,036	49	3,598	24.7
中	106.0	288	17	1,150	10.9	1,341	80	2,321	22.0
大靜	88.0	385	15	776	8.8	1,699	67	2,424	27.5
西中	189.0	511	25	2,155	11.4	1,231	58	4,705	30.0
東中	136.2	317	22	868	6.4	1,174	82	2,777	24.2
旌義	109.7	358	15	1,205	10.9	1,140	78	3,115	28.3
合計	1,886.3	8,294	21	22,250	11.8	19,732	50	40,924	21.7

이 지역은 배후에 한라산의 최고부를 끼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4월경까지 탁월한 편북(偏北)의 찬바람을 막아, 도내는 물론 전 조선중 가장 온난지구를 이뤄 후쿠이학사(福井學士)의 En_2 아리아케(有明)지구에 속하며 해양성 기후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는 지역이 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북제주의 1월의 평균기온 5.2℃에 대해 우면의 서귀포에

서는 항상 2~4℃ 정도 높아 최저가 영하로 내리는 일이 없다. 다구치 도사(田口 島司)의 말에 따르면 「해안지대는 무결상(無結霜)으로 잡초는 한중(寒中)에도 아직 푸르름을 나타내며 1월엔 완두콩, 유채의 개화를 보게 되며 일본의 동위도(同緯度)지역에서는 3월말에 꽃을 피우는 미나리과 식물 등의 따스함으로 해서 연중 방목이나 조방적목축에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특히 도내에는 가장 결핍하기 쉬운 우마의 음료수가 비교적 풍부하다. 또 연회천·효돈천(淵外川, 孝敦川) 상류의 산간지대 표고 6백m의 높은 지대에 폭포가 걸려 있고 각처에 용천, 유수가 있다. 또 산꼭대기의 화구 안에는 깨끗한 물이 고인 화구호 백록담이 있어 실제로 답사 때 소 31두, 말 9두가 호반에 내려가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섬의 해안지대를 빼고는 아주 물이 귀한 지역이면서도 전술한 바와같이 풍부한 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목초가 풍부하다는 것 등이 제주지역의 목우의 밀도를 크게 하고 있다. 인접하는 좌면·서중면도 위치·기후·음료수 사정상 동일한 요소가 있어 우면과 더불어 남제주중앙부의 조밀지역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같은 이유에 의한 것이다.

⑵ 동부지역

제2의 조밀구(稠密區)에 속하는 동부지역의 정의·구좌면은 어느 것이나 고려조에 본도 최초의 관설우목야(官設牛牧野)로서 천미장·황태장(川尾場·黃泰場) 등이 설정된 지역으로 일찍부터 목장에 호적한 지역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 지역의 혜택 받은 기후를 구성하는 자연지리적 여러 조건은 남제주남부의 지역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라산정으로부터 동쪽해안까지 39㎞로 2배 이상의 너비를 갖는다. 따라서 경사는 가장 완만하고 용암류 및 화산분출물질로 이뤄지는 들판의 완경사부(緩傾斜部)에 광대한 원야를 점유하는 지역으로, 전도 제1의 방목지 면적을 갖

고 있다. 특히 구좌면 서부의 해안에 이르는 동서 10㎞, 남북 10㎞ 남짓의 삼각형의 광대한 용암원(熔岩原)은 도내의 표고 2백m 이하의 지역에서는 보기드문 목야이다.

더구나 정의면의 북경(北境)에는 완만한 경사의 일대원야(一大原野)가 있어 여기에 구악(狗岳) 3백537m, 비치산(飛雉山) 3백49m 대석액악(大石額岳)·민악(民岳) 3백747m, 아부악(亞父岳) 3백10m, 고악(高岳)·좌보악(左甫岳) 3백51m, 영주산(瀛州山) 3백25m, 용와악(龍臥岳)·대왕산(大王山) 1백45m, 두산(斗山) 1백45m 등을 비롯 무수한 토로이데형(Tholoide Type) 기생화산이 있다. 전도에 3백40 남짓의 기생화산이 있지만 이 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으로, 나카무라(中村)학사는 영주산에 올라 아름다운 원추산 75개를 헤아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은 국부적으로 겨울의 편북탁월풍을 막는 방풍구릉이 있어 겨울의 방목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 구우면의 목야가 대장밀집적(帶狀密集的)으로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대정면은 소단위 목장의 집합으로 이뤄지는 분포형태를 갖는 등 각자가 특색을 지니고 있다.

⑶ 서부지역

이 지역의 사면의 위치는 동부지역과 전혀 달리 북서 및 남서로 경사하여 비교적 북풍이 부는 지역이지만 주봉 한라산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다는 점은 동부지역에 버금 간다. 또 구우면에는 동부지역의 구좌면보다도 나은 광대한 목야가 도을동(道乙洞)을 중심으로 해서 표고 1백m로부터 3백m의 낮은 곳에 완경사로 펼쳐져 한쪽에선 다이쇼 15년(1926년) 면내 옹포리(瓮浦里)에 다케나카(竹中) 통조림공장이 창설되어 축우의 경제적인 판로가 자극된 것도 최근의 축우 증가와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⑷ 북제주 중앙

이 지역에 목우가 적은 것은 연중 방목을 주체로 하는 조방목축(粗放

牧畜)의 관계상, 편북탁월풍에 직면해서 겨울의 방목은 불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우사(牛舍)를 필요로 하는 기후적 제약이 있다. 또 반도부에 면하고 있어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 섬 속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큰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도도 높고, 경지가 발달되어 있어 농경과 방아를 돌리는 데에 말의 노동력을 빌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목마가 비교적 많다. 한편 지형·지질 등의 관계로 음료수가 귀하다는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이 지역에는 축사를 갖추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이 남제주의 연중 방목형과는 다소 모양을 달리하고 있다.

2. 말의 분포

제주도에 있어서의 말은 <표 1-1>에 따르면 2만2천5백두(그 중 숫말 1만10두, 암말은 그 1.2배 남짓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많다)로 전 조선의 말 총수의 40%강에 해당된다. 그 분포상태는 <표 1-1> 및 <그림 1-7>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북제주에 많고 남제주에는 적다. 이 점, 목우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해서 북제주에서는 제주면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이나 평균밀도 11.8두 이상으로, 동부의 구좌면이 최대밀도를 이루어 신좌면·신우면·구우면의 순이다. 남제주의 모든 면은 평균밀도 이하로, 좌면·서중·정의·중면의 순으로 감소하는데 동중면이 가장 적어 6.4두이다.

이것을 사육호수의 전 농가에 대한 비율상으로 보면, 사육호수는 소의 비율의 2분의1에도 미치지 않아, 가장 비율이 높은 북제주의 신우·신좌 및 남제주의 좌면이 각 35%이며 나머지는 극히 낮다. 단지 통계상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표 1-1>의 통계는 사육자의 신고에 의한 집계로, 사육자는 과세가 두려워 될 수 있는대로 두수를 적게 보고하고, 1~2두의 소유자에 있어서는 보고를 고의로 해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이 원야(原野)에서 연중 방목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소유의 우마가 확

실치 않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통계보다도 더욱 많은 것으로 보아져, 당국은 목우 6만두, 목마 4만5천두로 예측하고 있다.

우마소유자에 대해 제주도농회(濟州島農會)에서는 축산할(畜産割)로서 매년 1두에 대해 5전을 납부토록 하고 동시에 우마적(牛馬籍)의 등록을 시키고 있다. 그 통계가 <표 1-1>이다. 그러나 종래 두수할납금(頭數割納金)을 위해 허위의 보고를 하는 자가 많다. 이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1932년부터 우마소유자로부터 축산할로써 마리 수에 관계없이 매년 55전을 납부토록 함과 동시에 소유의 전 우마를 등록하여 그 소유권이 공인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우마사육 호수가 종전보다 감소하는 일 없이 신고두수는 훨씬 증가, <표 1-1>의 쇼와 6년도(1931)를 한도로 하여 실수에 가까운 우마수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마통계 변화는 매우 흥미 깊은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표 1-1>은 기초통계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제주도의 牛馬牧畜의 特異性

우마사육의 양식에 대해서는 그 성질 형태상으로 대개 세 종류를 생각할 수 있다. 즉 ① 연중 방목 ② 계절적 방목 ③ 축사사육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①의 연중방목의 형식이 주체이다.

1. 목 장

제주도의 목우마는 고려 충렬왕(忠烈王) 3년 정축세(丁丑歲)에 비롯됐다고 전해진다. 원(元)의 달로화적(達魯花赤)이 소·말 수십두를 이끌고 지금의 신좌면 조천리 부근에 상륙, 같은 해 도내에 1소장(所場)부터 10소장에 이르는 목장 10개소(그림 1-8)를 설정하여 말을 방목했다. 한편 소목장으로는 1소장 안에 황태장(현재의 구좌면 덕천리 부근?), 현재의 정의·

동중면 경계의 천미천 연안의 10소장 부근의 천미장·모동장(川尾場·毛洞場 : 大靜面九億里 일원)을 설정하여 방목을 시작한 것이다. 이후 여기에 감목관이 두어져 그 밑에 우감·마감(牛監·馬監) 등 제관(諸官)이 있어 직접 목자를 지도하면서 관우마를 사양관리, 양우(良牛)·준마(駿馬)를 생산했다. 나중에 관우마를 농민에게 배부, 현재는 거의 민유가 되고 있다. 현재 섬의 주봉 한라산 주위의 표고 2백m~3백m로부터 경사변이선(變移線)에 해당하는 표고 6백m의 지점에 이르는 산복(山腹)의 대상초지(帶狀草地)는 폭이 좁은 곳은 4㎞, 넓은 곳은 8~10㎞ 남짓이나 펼쳐져 있다.

관목시대에 설정된 면적 6만정보의 목장 터에 윗쪽의 삼림지대와의 경계에는 상장성(上場城), 아랫쪽의 중간지대와의 경계에도 하장성(下場城)이라고 불리우는 돌담이 구축되어 있어, 우마의 타지역 침범을 막았던 것과 같이 그 흔적을 지금도 남겨있다. 또한 관목시대의 목장은 현재까지도 계승되고 있다.

<그림 1-8> 濟州島에 있어서의 1660년대의 官營목장 분포 (宣祖 33년)

제주도의 토지이용형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하천침식작용(河川浸蝕作用) 등 개석(開析)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화산의 사면을 들판의 해안으로부터 해안지대(표고 0~200m, 최완경사부로서 토지이용도가 최고율의 지역), 중간지대(200~약250m, 약간 경사도가 높은 半耕·半牧지대), 산간지대(350~600m, 방목지대), 삼림지대(600m 이상의 급경사지대)의 4지대가 한라산의 주봉을 둘러싸서 특색있는 타원환상(楕円環狀)의 토지이용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도내 12면의 행정상의 각면경계는 중앙의 한라산정을 축으로 하여 방사상(放射狀)으로 해안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각면 모두 앞에서 말한 4지대를 포함, 각기 면내에 목장지대를 갖고 있다. 더욱이 그 공통성은 섬의 지질이 모두 흑색의 현무암 용암, 화산쇄설물(火山碎屑物) 30~50㎝ 크기의 현무암 각력(角礫) 및 화산탄·화산회 등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어 화산암력(火山岩礫)의 보편적 분포가 본도의 일대 특색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 부지리적 단원(副地理的 單元)으로서의 지역성을 특색지우는 것은 그 위치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사면의 방향과 그 4지대의 넓이 등이 축산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2. 방목과 돌담

섬의 수읍(首邑) 제주성내를 떠나서 해안지대의 환상도로를 여행할 때, 노상에서 만나는 우마의 수는 길 가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다. 하물며 해안지대보다 중산간의 수직적인 횡단도로를 선택할 때는, 노상·휴경지·방목지역에서 목격되는 우마의 무리는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인가는 물론 경지 등은 모두 높이 120~130㎝ 정도의 돌담으로 둘러싸 우마의 침입을 막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경작지 안에 있는 돌을 줏어서 그 주위에 쌓아올린 것으로, 딴 데서 일부러 날라오지 않아도 될만큼 화산력(火山礫)이 분포한다. 그것은 대촌선상지(大村扇狀地)의 돌맹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야말로 본도가 갖는 일대이관(一大異觀)이며, 섬사

람의 생애의 싸움은 돌을 줍고, 돌을 쌓으면서 살고, 조상들도 또한 이를 되풀이한 감이 있어, 진정 제주가 지닌 특색 있는 경관이다. 환상도로의 전장(全長) 160㎞ 남짓은 양쪽을 돌담으로 연이은 경관으로 해서 「소만리(小萬里)의 장성(長城)」이라고 할만 하다. 여기를 자동차로 달릴 때, 방목된 우마의 무리가 자동차에 놀라, 도망칠 곳을 잃고 수 마리 또는 수십 마리가 흙먼지를 날리며 허둥대는 모습은 결코 진귀한 것이 아니다.

3. 방목과 목초

제주도의 목축은 대부분 연중방목이지만 일부 승마·역용(役用)에 사역하는 것은 사역시(使役時)에만 축사에서 돌보던가 주거 가까이에 방사하여 사료는 맥강(麥糠) 등을 줄뿐이다. 애마가들이 보리, 콩 등을 주어도 처음에는 얼핏 먹을려고 않고, 가열(加熱)된 식품은 투여되지 않는다. 본디 야초가 중요한 사료로, 목초는 해안지대, 중간지대에서는 작완두(雀豌豆), 개자리, 견속(犬粟), 견피(犬稗), 작피(雀稗), 방동사니, 그 밖의 야초가 주종을 이룬다. 재배사료로는 두다(荳茶 : 자콜), 콩, 팥, 크림송크로바, 루사흰싸리(白萩) 등이 있다. 산간지대에서는 초등(草藤), 띠, 콩, 팥, 달맞이꽃, 시추(著萩), 만엽(万葉), 들싸리(野萩) 등이 주로, 일본 및 조선 본토와 같이 벼나 피(稗)를 사료로 대용하는 일은 없다.

4. 연중방목과 번식품종

제주도 소의 품종은 남선우(南鮮牛)와 비슷한 체격으로, 대체로 왜소하지만 저항력이 강하고 또 용암, 사력(砂礫)의 산야를 오르내리기 위해 발힘이나 제질(蹄質)이 강인하며 더구나 성질은 온순, 조방사육에도 잘 견디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말의 품종은 「포코」에 속하는 순조선마(純朝鮮馬 : 일설로는 몽고계와의 잡종)로, 소와 마찬가지로 용암, 자갈 등이 널려있는 들판을 자유로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발, 발굽이 강하고 자갈투성이의 험한 길도 잘 걸으며 연일 비바람에 시달려도 병에 걸리는 일은 드물다. 더우기 갈증에 견디는 힘은 다른 마종보다 뛰어나며 바위나 자갈 위에서도 쇠발굽이 없이 사역(使役)에 잘 견디는 특성을 갖춰있다. 단지 체격이 왜소하여 보통 103~120㎝ 정도의 것이 가장 많아 그 때문에 부담력(負擔力)은 일본 말의 3분의1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말하자면 연중방목이기 때문에 겨울철의 사료 부족과 관리 불충분, 그 한편으로 진드기 등의 폐해에 따른 영양부족과 열성종우마와의 교미의 결과 등등이 열성을 조장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방목에 즈음해서는 혼목·입합목(混牧·入合牧)에 있어서 우마의 소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키토(隱岐島)에서는 귀를 자르지만 제주에서도 또 이표(耳標)로서 귀를 자른다든지 낙인을 찍으므로써 식별하고 있다. 또 새끼소나 새끼말은 성우마에 의해 그 소속이 결정케 된다. 연중방목·입합목에 있어서의 종우마 선택은 어려운 일로, 품종향상을 도모하는 한 방법으로써 열성숫소나 말의 도살 및 거세를 장려하고 이를 실시한 이래,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그 후의 숫소의 거세실시 성적은 <표 1-2>에 표시하는 바와 같이 최초 7년간에 4천3백14두에 이르며 숫소 총수의 22%강에 상당하고 있다.

본도의 말은 부담력이 작은 결점이 있다. 그 때문에 전국 제2위의 산마지역(産馬地域)이면서도 부담력이 큰 말을 필요로 하는 근대에 있어서는 극히 경쟁적 가치가 낮아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외로의 반출이 매우 적다. 다이쇼 13년(1924년) 이전의 통계는 얻을 수 없지만 1924년의 「4두」라는 숫자에도 반출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으로의 반출선은 오사카·동경 방면의 고오시엥(甲子園), 하마데라(浜寺) 유원지, 도시마

<표 1-2> 제주도에 있어서의 숫소 거세통계 (제주도축산조합)

년차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합계
두수	1,060	794	549	693	439	635	144	4,314

<표 1-3> 제주도산 말의 반출

단위 : 두・엔

연차	두 수	금 액	반 출 선
1924	4	128	大阪
1925	8	224	大阪
1926	19	416	北九州
1927	10	227	大阪
1928	74	1,932	大阪, 忠南, 寶城, 羅州, 珍島
1929	139	3,753	全北, 咸平, 羅州, 木浦, 珍島
1930	74	2,658	京城, 咸平, 珍島
1931	246	4,905	新義州, 咸平, 光州, 珍島
1932	483	5,299	木浦, 長興, 寶城, 東京, 珍島
합계	1,080	19,562	

<표 1-4> 제주도산 소의 반출선별반출두수 (제주도청 조사)

년차별	일 본 내 지			조 선 본 토			합 계			가격 (엔)
	암	수	계	암	수	계	암	수	계	
장려후 1922	-	-	-	?	?	71	?	?	71	1,562
장려후 1923	-	-	-	422	135	557	422	135	557	15,317
1924	126	50	176	345	172	517	471	222	693	20,097
1925	25	1	26	218	305	523	243	306	549	16,470
1926	-	-	-	103	62	165	103	62	65	1,690
1927	-	-	-	139	197	336	139	197	336	9,744
1928	-	-	-	191	874	1,065	191	874	1,065	34,090
1929	-	-	-	26	626	652	26	626	652	20,212
1930	-	-	-	-	288	288	-	288	288	9,792
1931	-	-	-	6	318	324	6	318	324	11,988
1932	-	-	-	38	1,438	1,476	38	1,438	1,476	57,670
누계	151	51	202	1,488	4,415	4,822	1,639	3,346	6,078	

엥(豊島園) 등 여러 곳에 있어서의 어린이 승마용으로, 북구주에는 탄광(炭鑛)지대에 있어서의 궤도마(軌道馬), 갱내작업용으로서의 반출이다. 반도부로의 반출은 온순성이 높이 평가되어 교통 불편한 지역의 교통기관으로서, 또 벽지, 고지의 농사용 및 운반용으로서이다. 섬 안에서는 승용, 역용, 건조농업에 있어서의 조 파종의 답압용·말방아끌기 등에 이용하고 있지만 말 총 두수의 30% 정도가 계절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축우는 말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가 높아 농경우·육우로서 반출되는 것이 차츰 증가하고 있다. 또 특히 일본으로의 반출은 최근 11년간에 불과 202두인데 반해 조선본토로는 그 20여곱절이나 반출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5. 質보다 量의 축산

전술한 바와 같이 본도의 우마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노동력 부족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표 1-5>에 따르면 본도의 경지면적은 일본의 2.5배 남짓이 된다. 더구나 지형·지질의 관계상 도내의 하천은 대부분 학갈천(涸渴川 : 乾川)이다. 따라서 음료수는 바닷가의 용천이나 유수(奉天水)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취락의 대부분은 집촌으로서 바닷가에 편재하고 노동력도 현저히 편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농반어가 많고 그 위에 섬의 풍습으로서 농업노동의 주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있어 1년의 태반은 해녀로서 바다에서 일하고 섬 밖으로 돈벌이 나간다. 또 남자도 인구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2만여가 오사카, 그 밖의 지역으로 출가한다(본디 출가는 일반적으로 노동력이 남아도는 지역이 출가지역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본도의 인구이동현상은 노동력 부족의 상태에 있어서도 더욱 왕성하게 출가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詳論하기로 한다.).

<표 1-5> 농가 1호당 평균경지 (1930년)

지종 / 지방	논(反步)	밭(反步)	계	목장(反步)	합계
내 지	5.5	5.4	10.9	-	10.9
조 선	5.8	10.4	16.2	-	16.2
제 주 도	0.25	28.6	28.31	18.8	47.11

이와같이 토지에 대한 노동력은 부족하고 편재하기 때문에 통경거리(通耕距離)가 길어 취락부근의 경지 이외는 통경거리에 반비례해서 토지의 농업생산성은 저하한다. 경종농업(耕種農業)의 양식은 아주 조방해서 파종과 수확 외는 경지(耕地)·중경(中耕)·시비(施肥)를 하는 일이 드물어 지미(地味) 소모가 막심, 토지이용생산은 1년 1경(耕)보다 10년 1경이 된다. 그래서 이 휴한지에 우마를 방목하여 무관리(無管理) 아래 방사하기 때문에 종우마의 선택이 없는, 야교미(野交尾)에 의한 자연번식이라는 데서 증가하여 전국에서 손꼽는 두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떨어져 경제적 가치가 낮은 우마를 다수 소유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국은 광막한 목야, 휴한지의 이용과 품종의 개량·향상에 고심하고 있다.

꿀 벌(蜜蜂)

제주도의 양봉의 기원은 한일합병 후의 일로 메이지 43년(1910년) 완도군으로부터 정의면에 재래종 3군(群)을 옮긴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또 양종벌(사이프리안 및 이탈리안種系 잡종)은 다이쇼 8년(1919)에 서귀포 가와자키 모(川崎某)가 일본으로부터 반입한 것이 최초로 여겨지고 있다.

본도의 양봉은 온난한 해양성기후의 혜택을 받고, 특히 남제주는 중앙에 솟아있는 조선 제2의 고봉 한라산의 남사면(南斜面)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따뜻하여 사계절을 통해서 양봉에 적합하다. 이에 더하여 지형·지질의 관계상 밭이나 목장이 많은 관계로(<표 1-5> 참조) 밀원식물(蜜源植物)이 풍부하여 좋은 결과를 올리고 있다. 이것이 중산 지식계급의 부업에 대한 의욕을 자극, 다이쇼 12년(1923)부터 3년간에 걸쳐 기후(岐阜)현으로부터 황금종(黃金種)벌 1백46군을 공동구입했다. 이후 더욱 견실한 발전을 이루어 <그림 1-9>(濟州島畜産組合 조사자료에 의해 작성)와 같이 1920년에 불과 15군이었던 것이 1931년에는 실로 2천9백59군을 갖는 발전상을 보이게 되었다.

꿀벌의 분포는 남제주에 많아 그 중에도 남제주 중앙부의 우면 및 좌

<그림 1-9> 제주도에 있어서의 꿀벌의 분포 (1931년 12월말 현재)

면이 가장 탁월한데 북제주에는 적다. 우면에 많은 것은 양봉업 발생의 땅이며 또한 기후조건이 양봉에 적합하고 밀원이 풍부한 데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기후는 이미 「목우」 편에서 지적했듯이 본도 제일의 온난기후로 겨울에도 아직 완두, 유채, 동백, 시호 등의 밀원이 있다. 특히

동백은 방화림(防火林)의 목적으로 집집마다 주위에 심어져 있어 호근리·서호리·서홍리·동홍리·하효리·신효리 등에서는 어디서나 동백에 둘러싸인 특색있는 경관을 이루고 있다.

밀원이 되는 주요식물의 분포는 해안지대에서는 주로 자운영(紫雲英)·유채·운태봉앵소(蕓苔捧櫻蘇 : 봄 가을 2종)·먹구슬나무·감귤류(溫州蜜柑·金柑·唐金橘·乳柑)·복숭아·벚나무·면화 등이 있다. 또한 감귤류의 생산은 조선에서는 제주도에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서귀포 북서쪽 2㎞지점에 감귤원이 많다.

중간지대에는 메밀·결명·크림송클로바·콩·팥 등이 있다. 더우기 산간지대에서는 9월부터 12월 중순에 이르는 건조기에 양질의 꿀을 저장하는 향유(香薷)가 밀생하여 자홍색의 꽃을 달아 마치 노오비(濃尾)평야(註=일본 岐阜·愛知 두 縣에 걸친 광대한 평야)의 총총 이어진 자운영밭을 보는 것 같다. 또한 일본 및 반도부에 있어서의 꿀의 최성기는 봄으로, 양봉가의 가장 중요한 계절이 되어있지만 제주도는 전연 상반된 계절의 향유의 꿀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 밖에 삼림지대에는 밤·싸리·덩굴풀 등이 있으며 삼림지대의 상부에는 철쭉밭이 펼쳐져 있다.

이상의 밀원의 분포는 해안으로부터 불과 15㎞ 사이에 있어서의 2천m의 수직적인 변화에 의해 계절적으로 해안지대로부터 산간지대에로 1년중 계속하여 꿀을 딸 수가 있어, 가장 경제적인 양봉의 이동이 행해지게 된다. 양봉가는 해안지대의 개화기가 끝날 즈음부터 벌통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전하여 10수일간의 천막생활을 하면서 벌통을 관리한다. 개화기가 중간지대로 내려감과 함께 벌통을 옮겨 산간지대 거주자(표고막사리)에 위촉하여 보수로서 꿀을 나눠주던가, 꿀을 양자간(兩者間)에서 절반(折半)한다. 12월말에는 해안지대에 내려와 남제주에서는 2월말, 북제주에서는 3월말까지 월동한다. 서귀포 같은 데서는 따뜻하기 때문에 벌통입구를 좁히는 정도로 월동한다.

이와같은 양봉의 조건이 비슷한 우면에 인접한 좌면을 자극하고 나

아가서 서중면에 전해져서 드디어 <그림 1-9>와 같은 꿀벌의 분포를 보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북제주에서는 향유초로부터의 채밀(採蜜)을 위해 표고 6백m의 관음사까지 이동해간다. 본도 최초의 꿀벌 반입면인 정의에 현재 그 분포가 전무한 것은 이 지역의 6~7월에 걸친 농무(濃霧)에 의한 악조건과 가장 저평지대(低平地帶)이기 때문에 밀원기의 편중과 부족에 기인한다.

세계의 주요 양봉국에 있어서의 인구 1천명당 벌통 수는 미국 33상자, 독일 24, 소련 17(1925년), 제주도 17, 일본 2, 조선반도 4.4상자(1927)의 비율이다. 쇼와 6년(1931) 제주도의 꿀 생산고는 4만9천78근, 그 전해인 1930년에는 4만8천9백97근으로, 부산 및 오사카 방면에 반출하고 있다.

한편 1930년에는 4백70군의 종봉(種蜂)을 천진(天津)에 수출하기도 했다.

제주도에 있어서의 축산의 地理的 意義

이상 제주도에 있어서의 축산의 지리학적 관점으로부터 제주도가 갖는 지역성의 일면을 연구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축산의 분석학적 해부와 지리학적 고찰이 진행됨에 따라 제주도 내부의 부지리적 단원(副地理的 單元)의 결정인자로서 축산이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 일로 해서 다음 사항이 주된 현상으로서 요약된다.

1. 본도의 축산 속에서 우마는 질보다 양에 있어서 전국에서 보기 드문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 특성은 위치·지형·지질·기후 등의 자연지리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끼치며 더우기 인문지리적 여러 요소와의 종합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목 시대에 있어서의 목야가 개방되어도 그 제도를 전승시킨 것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섬을 둘러싸는 개방된 광막한 목야이며 또한 방목지대의 아랫쪽에 펼쳐져있는 광막한 휴한경지(休閑耕地)였다. 현재 농가의 1호당 농

목지는 일본의 4~5배이지만 그 이용에는 방목이 최적이다. 더구나 휴한경지 및 경지의 각 개인의 소유구(所有區)를 방목된 우마의 침해로부터 막기 위한 돌담을 만드는 데도 화산력(火山礫)이 가는 곳마다 분포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온화한 해양성기후와 수직·수평의 양면으로 펼쳐진 목장은 우마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해서 기후적으로 받는 번식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2. 우마는 습성으로서 집단적으로 목야지 안을 이동하지만 혼목으로부터 그 소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귀를 자르는 이표(耳標)가 쓰이며 최근에는 낙인등도 사용되고 있다.

3.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연중방목은 종우마의 선택도 없이 야교미(野交尾)에 의해서 수는 증가했지만 질은 떨어졌다.

4. 낙도라는 격절성(隔絶性)으로 해서 최근까지 우마의 반출에 의한 감소는 적고 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5. 용천수에 의한 음료수의 편재(偏在)는 집촌형 취락을 해안지대로 편재시켰다. 따라서 노동력도 현저히 편재하고 반농반어가 농업노동력을 더욱 삭감시키고 있다. 그 위에 남자는 도외로의 출가에 노동력이 흘러, 토지 이용도도 쇠퇴, 휴한지는 방목에로 더욱 더 이용되고 있다.

6. 연중 조방목과 목야의 형태·지질 등의 자연적 환경은 우마의 각력(脚力)이나 제질(蹄質)을 강인하게 하여 험한 도로나 연일의 비바람에도 잘 견디며 또한 갈증도 잘 참아내고 성질이 온순한 위에 조악한 사양을 견뎌내는, 장점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들 장점은 체격의 왜소, 부담력의 빈약 등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소는 육우로서 개량되어 시장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서 장래에 제주도는 우창(牛倉)으로서 중요시 될 것으로 생각된다. 축산의 생산분포는, 소는 남제주, 말은 반대의 북제주가 탁월하다.

7. 양봉은 시작되어 아직 얼마 안되지만 자연지리적 호조건에 힘을 입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남제주는 양봉에 적합하며 전국에

서도 손꼽는 위치에 있다.

8. 제주도의 자연적인 남북성은, 축산에서도 나타나 남제주에 소·꿀벌, 북제주에 말이 각기 뛰어나다.

이상의 인자는 얼마없어 다른 인문적 여러 현상의 구명(究明)과 함께 부지리적단원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을 집필함에 있어 항상 지도를 해주신 다나카(田中啓爾)교수에 대해 삼가 심사(深謝)함과 더불어 현지에 있어서 갖가지 자료와 조사의 편의를 주신 제주도사 다구치(田口禎憙)씨 제주도축산조합기사 다테노(立野角之助)씨 전 제주농업학교 교유(敎諭) 이치노미야(一宮正則)씨, 도청 여러분, 하기와라(萩原駒藏)씨, 고오(鄕末雄)씨, 그 밖의 도내 유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쇼와 9년 4월 20일/濟州島에 있어서의 地理學的硏究)

濟州島 海女

제주도의 여성이 이른바 해녀로서 나체잠수어업(裸體潛水漁業)에 종사하는 것은 희귀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섬의 여성이, 또 바닷가의 여성이 처녀로서 활동하는 것은 그 환경으로 봐서도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에 있어서도 「아만도(蒼海人)」 또는 해인(海人), 혹은 해사·해녀·단부(海士·海女·蜑婦) 등의 문자가 고문서에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옛부터 남녀 모두가 나체잠수어업을 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해녀는, 여성이 회화(繪畵)나 시가(詩歌)에 인용한다는 데서, 또 잠수어업상으로도 한층 흥미있는 일이라는 데서 여성이 주체로 여겨진다. 따라서 오늘날 일반적 관념으로 「해인」이라면 물에 잠수하는 여성을 연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남녀의 나체잠수어업자가 전국 각지에 분포(<그림 1-10> 참조)하고 있다. 쇼와 6년(1931)의 전국잠수노동자 통계에 따르면 나체잠수어업자의 본업, 부업자의 합계는 4만5백38명, 이 가운데 남자가 종사하는 이른바 해사(海士)가 1만8천7백63명, 해녀가 2만1천7백75명이다. 해녀가 해사보다 3천12명이나 많다. 또 분포에 있어서 해사는 오키나와(冲繩)현 7천19명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하며 해녀는 제주도에 있어서 8천8백62명으로 전국 해녀의 40%강을 점유하고 있다. 서남일본에 있어 류큐(琉球)의 해사와 제주의 해녀가 특히 많고 더구나 서남의 한계점(<그림 1-10> 참조)에 있다는 것이 뚜렷한 현상이라고 않을 수 없다.

이 제주해녀의 수는 1932년 8월 현재의 제주해녀조합원수이지만 조합원 이외의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해녀를 포함하면 1만5천여나 되어 전국 해녀의 54%로서 제주해녀가 단연 발군이다. 더구나 제주도는 옛날

<그림 1-10> 전국에 있어서의 나체잠수어업자의 분포

부터 조선지방으로서 동일행정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부에 있어서 한 사람의 해녀도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조선여성이 일반적으로 농거적(籠居的), 비활동적 여성이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제주여성만이 해녀어업에 종사하고 그 수가 많은 것은 조선지방에 있어서 제주도만이 갖는 독자의 지역성이며 극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海女의 環境으로서의 제주도

1. 위치의 특색

제주도는 동경 126도10분부터 126도58분, 북위 33도12분부터 33도34분에 가로놓여 있는 일대고도(一大孤島)이다. 특히 그 관계적 위치가 제주도해녀를 지역 매김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닐까. 본도는 조선반도의 남서단인 목포로부터 1백42㎞ 떨어진 바다에 떠 있어 북쪽은 조선의 다도해(多島海)에 면하고 동쪽은 츠시마(對馬)와 나가사키(長崎)의 고토열도(五島列島)에 상대하여 거의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며, 거리적으로는 조선반도의 남부해안지방과 기타큐슈 연해지방과는 거의 등거리로 일본 본토와 반도부에 접근하고 있다. 또 남해의 도서가 지니는 해양성기후상 반도부와는 다른 독자의 지역성을 갖고 있다. 본도의 면적은 조선에 속하는 3천3백남짓의 도서중 최대의 것으로 약 1천8백31평방㎞에 이르며 우도 이하 13개의 작은 섬(거의 무인도)를 합치면 1천8백57·2평방㎞로 카가와(香川)현의 면적과 엇비슷하다.

대만의 남방으로부터 사츠낭제도(薩南諸島)의 서쪽에 이르러 분기한 쿠로시호(黑潮)의 지류는 제주본도의 남동부를 씻고 유로(流路)를 북동으로 돌려 츠시마해협으로 향한다. 그 지류인 수 많은 해안조류가 제주도

를 싸고 흘러 연안 일대는 매시 2~2해리의 유속을 이루고 있다. 또 조석간만의 차는 1.8m나 돼 만조시에는 동쪽으로부터 서쪽에, 간조시에는 그 반대의 유로를 잡는다. 이와같이 해양에 지배된 본도는 조선반도부와는 기후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특히 해조류 및 조개류의 번식에 영향을 주는 바 커서 해녀어업에 있어서 난류와 조석간만의 차 등이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지형 개관(地形槪觀)

제주도는 거의 전부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타원형의 화산도로, 중앙으로부터 약간 남서쪽에 있는 주봉 한라산 1,950m가 왕좌와 같이 솟아 있고 그 산기슭을 둘러싸듯 분화한 소원추화산(小圓錐火山)은 마치 종(鐘)의 돌기물처럼, 그 수는 지도상으로도 3백40여나 된다. 나카무라(中村)학사는 약 3백으로 계산하고, 하라구치(原口) 학사는 3백을 넘는다고 개산(槪算)하고 있다. 더우기 분화후 용암이나 화산사토(火山砂土) 등으로 매립되어 지상에 나와있지 않은 많은 소원추화산이 있다는 것도 추찰(推察)된다. 생각컨대 화산활동이 왕성했던 시대의 제주도는 벌집과도 같이 수많은, 수천의 화구로부터 용암이 흘러 화산탄, 화산력을 분출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현재 소원추화산이 많기로는 달리 구해볼 수 없는 장관이다.

또 주봉 한라화산은 아스피테(Aspite)형 화산에 속하는, 세계에 많이 분포하는 형식의 화산형태이며 화산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유동성이 풍부한 염기성(鹽基性)의 현무암 암장(岩漿)이 많이 넘쳐 흐르면서 만들어 낸 극히 편평한 원추체이다. 그 형태는 마치 삿갓을 덮은 모양으로 원산(円山)·원교산(円嶠山)·두무산(頭無山) 등의 이명(異名)이 있으며 독일어로 순상화산(楯狀火山·Schild Vulkan)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으로 그 형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사위(四圍)의 경사는 극히 완만하며 중복

(中腹)에서는 2도~3도의 완경사이다.

이 편평한 화산추는 주로 용암의 누층(累層)으로 구성되며 용암은 바다에 이르러 단애를 이루든지 또는 자연의 흐름 그대로 바다에 매몰(埋沒)되고 있다. 그래서 그 용암층은 서귀리 북서쪽의 연외천(淵外川)의 침식계곡에서 두꺼운 것은 5~77m, 엷은 것은 1m 내외를 이루고 있는 것이 관찰되며 이런 상태는 전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러한 하층의 용암은 해중에 매몰되어 연안에 있어서는 비교적 평탄한 암반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전 해안선 2백40㎞의 80% 남짓은 흑색현무암의 극히 수평적이고 단조로운 암석해안을 이루고 있다. 그 사이에 가까스로 단조로움을 깨는 것은 패각의 분말로 이루어지는 사구해안(砂丘海岸)으로 북사면의 김녕리·함덕리·금능리, 남사면의 표선리 등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본도가 갖는 특수한 경관이다. 특히 북사면에 현저한 현상이다.

한편 섬 안은 분출된 용암이나, 그 부서진 직경 수m로부터 보통 30~40㎝의 돌덩이로 온통 덮여 표고 6백m 이하는 거의 수목이 없는 그야말로 암석도(岩石島)이다. 이 때문에 하천은 우기에는 범람하지만 빗물의 대부분은 화산사력(火山砂礫)의 하층을 복류(伏流)하여, 남사면의 송천(松川)·연외천(淵外川)·창고천(倉庫川 : 이들도 극히 수량이 적다)를 제외하고는 건천(乾川·Wadi)이다. 복유수(伏流水)는 해안에 있어서 용암의 말단부에 용천으로 솟아나기 때문에 빗물의 유수(奉天水)를 음료수로 하는 산간부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해안에 거주하고 있다. 이 해변취락의 주민은 자연히 반농반어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半農半漁와 해녀의 특성

제주도에 있어서의 반농반어의 형태는 일본의 그것과 현저히 사정을 달리하고 있다는 데에 독자(獨自)의 지역성이 인정된다. 다시 말해서 일

본의 반농반어의 주체는 대개의 경우 남자는 어업을 주체로 하고 부녀자는 농업노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통성(一般通性)이지만 제주도에 있어서의 어업이란 남자가 주체가 되어 종사하는 어로가 아니라, 포패채조(捕貝採藻)를 주로 하는 전용어업으로, 부녀자가 대부분 이를 맡고 또 사실상 농업노동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 집안의 경제의 지지력이 본도에서 오직 부녀자의 두 어깨에 있다고 해도 된다. 이 부녀자들이 종사하는 포패채조(조개 잡이와 해조류 채취)의 어법은 가장 원시적인 나체잠수업으로, 이들 부녀자가 이른바 해녀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연안 1백24개리에 거주하는 부녀자의 거의는 12~13세 때부터 천해(淺海)에서 연습을 시작, 15~16세에 이르러 한 몫을 하는 해녀가 된다. 이 시대를 특히 유생해녀(幼生海女)라고 칭하고 있다.

제주해녀는 한서(寒暑)를 가리지 않고, 농한기와 어기를 노려 조업한다. 그 복장은 목면제(木綿製)의 내의와 같은 것에 백 또는 흑색의 속옷만을 입은 간단한 것으로 때로는 속옷만 걸친 경우도 있다. 기구는 태왁이라고 불리우는 부표와 이에 달려있는 망사리로, 패류의 채취에는 쇠로 만든 20~25㎝ 정도의 빗창을 휴대하고 해조류 채취에는 낫을 사용한다. 잠수하는 최고심도(最高深度)는 120심(尋 : 1심은 5~6尺)이지만 4~5심을 보통으로 한다. 1회의 잠수시간은 1분 내지 1분30초로, 그것을 연속적으로 60번쯤 한 다음 뭍에 나와 불에 쬔 다음 다시 물에 들어간다. 하루에 이런 동작을 3~4회 되풀이한다. 바닷가까지는 걸어서 가며 태왁을 왼쪽 어깨에 걸쳐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에 낫이나 빗창을 들고 해변에 내려가 태왁을 복부에 대고 헤엄쳐 목적지로 나가면서 조업을 한다. 피로해지면 태왁에 몸을 의지하고 물결 사이에 떠있는 채로 쉰다. 일본해녀는 보통 나무로 된 부표(浮桶)를 사용하지만 이 점이 사정이 다르다. 한편 채취장이 멀 경우에는 십수명이 한 무리가 되어 섬 특유의 뗏목이나 작은 배에 타서 떠난다.

잠수심도가 깊을 경우엔 일본의 이세(伊勢)해녀나 그 밖의 해녀는 보

통 3관내외의 분동어망추(分銅漁網錘)를 빌어 잠수한다. 이 경우 해상에는 사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다가 거친 날에는 조업을 할 수 없다. 그래도 조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기리」라고 해서 1명 내지 2명의 해녀에 작은 배 1척, 사공 1~2명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해녀는 어망추가 없어도 깊은 곳까지 잘 잠수하고 또 파도가 높고 거칠어도 조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조업일수가 길어진다. 이 해녀들이 만약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전 정도의 값싼 물안경을 2엔50전 내지 3엔 것과 바꾼다면 더한 수압에도 견디고 보다 깊이, 보다 장시간의 조업에 종사할 수 있어 한층 능률적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고급 물안경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해녀는 내한력(耐寒力)에 약하여 추운 때는 한 달에 겨우 1주일간 조업하는데 반해 제주도에서는 15~20일의 내한노동력이 있다. 이것은 일본의 해녀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점이다.

도내해녀의 分布

쇼와 7년(1932) 8월 현재에 있어서의 각리별 제주도해녀조합원수의 통계를 갖고 분포도(<그림 1-11> 참조)를 작성하여 그 상태를 관찰하면, 그 분포가 육상의 경지·해안지형·기후·수온·조류·조석간만(潮汐干滿)등에 현저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1) 동부해안지대 즉 구좌면 및 정의면을 포함하는 지역에 가장 많다. 이어 (2) 북서부해안지대의 구우면, (3) 남부해안지역이 되며 (4) 북부해안지역은 가장 적다.

1. 동부해안지대

해녀의 최대수를 갖는 구좌면 및 정의면은 합계 3천3백81명에 이르러 전체의 42%를 점유하고 있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은 것은 구좌면의 연평리(우도)로 5백13명에 이르며 그 밖에 종달리·하도리·정의면의 시

흥리·오조리·고성리·온평리 등으로, 즉 우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안 일대의 지역이다.

우도는 종달리 동쪽 1해리 정도의 해상에 가로 놓인 작은 섬으로, 주위 약 12㎞, 섬 안에는 천진(天津)·후해(後海)·비양(飛揚)·고수(古水)·삼양(三陽)·주흥(周興)·전흘(錢屹)의 7동으로 연평리를 구성하고 있다.

인가는 4백30여호, 해녀조합원 5백13명으로 1호당 평균 1명 이상이 된다. 더구나 우도 근해는 조선 제1의 해조류 산지로서 우뭇가사리·미역·감태 등의 양질의 것이 다량 생산되는 것으로 뛰어나며 특히 천진동(天津洞)으로부터 비양동에 이르는 남동해저에 최우량종이 생산된다. 그것은 용암류만으로 이루어지는 섬으로 급한 단애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갑자기 깊어지고 또 해저가 암반이기 때문에 모래를 둘러쓰는 일이 없어서이다. 그리고 이 지역의 해녀가 10발이나 되는 잠수능력을 갖는 것도 태어나면서부터 깊은 바다와 익숙했기 때문이다. 이들 해조류의 산액은 전 제주도의 2분의1에 이르며 우뭇가사리는 최우량품인 울산산(蔚山産)을 능가할 정도로, 가격도 또 타지방산에 비해 20% 정도 비싼데도 상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사들인다.

우도에 있어서의 잠수기기어업의 창시자인 요시무라구미(吉村組)는 일찍이 성산포를 근거지로 하여 채조업에 종사했는데 기계선 12척, 운송선 5척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변에는 30여동의 창고를 건설하고 끝내는 부지가 좁을 정도의 풍어를 구가했는데 이 남획으로 어장이 황폐화된 것과 나잠해녀의 이익을 착취한 일 등으로 해서 기기선(器機船)의 입어는 금지되었다. 현재로서는 각기 해녀조합에서 전용어업권을 갖고 좋은 어장으로 부활, 해녀의 대집단지역을 이루게 되었다.

2. 북서부해안지대

제2의 조밀지역인 북서부해안지대의 구우면(한림)은 비양도를 중심으

로 하는 일대의 해안지역이다. 비양도는 유사(有史) 이후의 분화에 의한 것으로, 해저의 암반은 오래지 않아 해조의 생육에 호적, 미역·감태·우뭇가사리·모자반 등 각종 해조류가 풍부하며 미역은 도내 제1의 양질의 것이다.

3. 북부해안지역

북안(北岸)의 신우면(애월)·제주면·신좌면(조천)의 해안에 해녀가 적은 것은 해저암반이 비교적 평탄치 못한 것과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이 해저를 교란시켜 해조류에 모래가 덮인다는 정착상 불리한 조건도 있고, 뭍에는 비교적 넓은 가경지(可耕地)가 있다는 데서 농목업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인문적으로는, 이 지역에 일찍이 육지방면으로부터 원류형(遠流刑 : 流配)에 처해져 도래한 반도귀족이나 그 자손이 많아 그 영향을 입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예로부터 미역은 제주도에 있어서 중요한 식료이며 시장 상품으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특히 본도에서는 산모에게 먹이는 미역국은 없어서는 안될 「약조(藥藻)」로서 중히 여겨지고 수요와 시장가치가 높기 때문에 옛부터 어업권이 시끄러워 일찍이 이를 둘러싸고 정의면 시흥리와 구좌면 종달리 간에 10년에 걸쳐 계쟁(係爭)한 일도 있다. 이런 일로 해서 이웃마을에 시집간 여자도 혼인 후에는 친정쪽 어장에 접근 못하도록 할 만큼 포패(捕貝)의 어업권에는 종래부터 관대한데 반해 채조어업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중했다. 1933년 8월 현재 채조전용어업권을 갖는 리는 해변 1백23개 리중 북사면에서는 제주면의 화북·삼양, 구우면의 수원·고산, 구좌면의 서김녕·동김녕·월정 등, 남사면(南斜面)에서는 중면(안덕)의 감산, 좌면(중문)의 색달·중문·강정, 우면(서귀)의 법환·호근·서귀·동홍, 서중면(남원)의 신례, 동중면(표선)의 세화 등 극히 몇몇 지역에 불과하다(<그림 1-2> 참조).

漁獲物과 漁期

미역

미역은 쇼와 7년도(1932)에 마른 것으로 63만8천근이 생산되어 산지에서 근당 14전부터 18전까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주산지는 정의·동중·구좌·대정·구우의 여러 면을 포함한 동안과 서안이 많고 다른 곳도 거의 엇비슷하다. 채취는 조류와 수온의 관계로 동안이 가장 빨라 3월 1일부터 개시, 동중면에서는 3월 10일, 제1회 매상고는 무려 2만근에 이르고 있다. 동중면으로부터 정의·대정·구우로, 동으로부터 남동·남서로 어기가 옮겨져 서부의 대정에서는 5월 상순이 최성기(最盛期)로, 일본의 나루토(鳴門)미역의 어기와 거의 같은 시기가 되며 동안보다는 약 2개월 늦어진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북안으로 옮겨져 11월 30일의 금채기에 이른다.

우뭇가사리

연산 15만근, 구좌면 연평리가 35%, 하도리가 9% 그 합계 6만8천근이 주축을 이룬다. 그 밖에 전도에 걸쳐 생산되지만 가격에 있어 차이가 있다. 연평리 것은 평년작으로 1백근당 약28엔, 1933년은 30.5엔이었는데 통상적으로 30엔 이하로 내리지 않는다. 조선우뭇가사리의 주산지인 울산에도 떨어지지 않는 양질의 것이다. 하도리산은 20~26엔, 그 밖의 것은 15~20엔이다. 연평리에서 우량품이 생산되는 것은 온 섬이 평탄한 용암도로 그 해안은 단애가 깊고 해저가 비교적 평평하다는 자연적 호조건 때문이다.

감태

제주도 특유의 것으로 켈프(Kelp·註=불에 태운 재로 搗布灰라고도 하는데 沃素의 원료)로 해서 연산 1백2만7백90근, 감태는 제주연안에 있어서 가장 풍부한 해조류인데 수요와 시장의 시세에 따라 생산은 신축자재(伸縮自在)이다. 최우량품을 내는 곳은 우뭇가사리의 지역과 거의 일치하여 구좌면 하도리로부터 정의~동중면 표선리에 이르는 관내로, 그 밖은 표착감태이다.

필자가 1932년 8월 1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폭풍우 직후에 남동해안을 통과한 일이 있는데 그때 온평리·신천리 등에서 많은 리민들이 표착한 감태를 열심히 주워 모으는 것을 봤다. 켈프는 1백근 80전 정도로 옥소회사(沃素會社)가 사들인다. 표착감태의 제품비율(步留)은 이틀째가 59%, 사흘째 39%, 나흘째 28%, 닷새째 27%, 엿새째 26%, 이레째 25%, 여드렛째 19%, 아흐렛째에는 현저히 감소하여 8%, 열흘째는 7%라는 비율로 감소한다. 또 제품비율(步留=가공했을 때의 원료에 대한 제품의 비율)은 계절에 따라 달라져 있어 3월부터 8월에 이르는 봄·여름 때가 비율이 높다. 정제옥소(精製沃素)는, 조선옥도주식회사(朝鮮沃度株式會社)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도쿄의 일본옥도주식회사(日本沃度株式會社), 흥영옥도주식회사(興永沃度株式會社)의 것은 오사카본점(大阪本店)이나 기후(岐阜)의 오오가키제약회사(大垣製藥會社) 등으로 이송하고 있다. 근간 제주해녀조합에서 옥소제조공장(沃素製造工場)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풀가사리(海蘿)

어기는 8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4월 30일로 끝난다. 연산 2만2천1백25근(1932), 연평·대정·가파 등이 주산지이다. 「도박」은 착생면의 암반이 평평하다는 것과 더구나 최대간수면하(最大干水面下) 2척이 번식상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이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전기 지방 등이다. 판로는 원조(原藻)인채 목포경유로 오사카에 보내진다. 김은 암반관계 때문에 적어 겨우 도내 수요를 채우는 데 지나지 않는다.

청각(海松)

1백근당 6엔 정도로 염물(鹽物)로써 대구(大邱)에 몽땅 반출된 다음 대구시장을 거쳐 조선반도 각지에 보내진다.

소라

소라는 1년중 잡는데 해조류 가격에 정비례해서 오르내린다. 그것은 해조류가 값이 좋을 때는 자연 채조가 주가 되기 때문에 포패(捕貝)가 적어 시장의 소라도 품귀되기 때문이지만 연산 1백74만6천3백근, 불어시(不漁時)에도 1천상자(1상자는 1백50근) 이하로 내리지 않는다. 1931년의 통조림 호황시대에는 1천2백상자, 1932년에도 똑 같이 약 1천2백상자를 생산하고 있다. 해녀가 잡은 소라는 산지에서 중매인에게 넘겨지는데 가격은 1근에 1전8리로부터 3전5리로, 평균 2전이다. 그래서 시황이 활기를 띠어 중매인이 경합할 경우에는 3전5리쯤 된다. 최근 남획한 결과, 소라가 작아져 다이쇼 15년경(1925) 50돈중 관(缶)으로 20개 이하의 것은 없었는데 최근 35~40개로 되었다. 그래서 당국은 40개 이하의 작은 것은 매매를 하지 말도록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소라의 크기가 작아진 원인은 남획도 그 하나이지만 그 위에 우수해녀의 출가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그 때문에 깊은 곳에서는 기계로 잡게 되어 한 개에 50돈중의 것을 잡는 일도 쉬워졌다는 것이다. 또 통조림업자는 그 원인을, 해조류쪽이 고가로, 소라잡이의 이익이 적기 때문에 소라를 쳐다보지도 않으며 익숙치 못한 해녀들이 포패하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전복

전복의 가장 좋은 어장은 미역과 일치한다. 그것은 전복이 미역을 먹이로 하기 때문인데 정의·대정·우면·구좌면 등이 좋은 어장이다. 어기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9월 15일에 끝나는데 최성기(最盛期)는 보리수확후의 농한기인 7~9월의 3개월간(미역은 3~5월, 우뭇가사리도 5월

이 최성기로 그 뒤에는 채취 않는다)으로 연산 21만5천5백근, 전도 아무데서나 생산된다. 특히 우량한 전복의 산지(産地)는 동으로 정의, 서로 대정에 이르는 산남지역의 해안이다. 한편 산지(山地)인 북부해안지역은 바위가 거칠어 부적(不適), 청각 같은 것도 남부해안의 것에 비하면 심히 꼬부라지고 있어 얼마나 거친 바위인가를 관찰하게 된다. 미역도 역시 거친 파도에 문질러져 발육이 불량하다.

가격은 북제주 것은 소립(小粒)으로 낮아 1근당 16전, 남제주 것은 알이 굵어 25전 안팎이다. 그 제품비율(步留)이 좋은 것은 성산포, 서귀포, 모슬포 등의 것이다.

대정은 전도산액의 10%, 성산포는 9%를 점유하며 주로 명포(明鮑=익혀서 말린 것)를 만들어 1백근당 2백50원으로부터 3백원의 시가를 형성한다. 북제주의 것은 소건(素乾 : 날로 말린 것)으로, 명포에 적합치 않을 뿐 아니라 제조해도 상품가치가 없다. 소건포(素乾鮑)는 1백50엔 안팎이다. 소건 이외에 최근엔 보일드통조림으로 제조하여 4다스들이 상자당 16~17엔이 되고 있다. 만주사변(滿洲事變)후 만주에 명포를 수출 못하여 타격을 받고 있는데 만주국의 독립과 명포무역의 장래는 크게 기대되고 있다. 또 소건의 반출선은 조선반도 각처에 걸치고 있어, 군산·목포·대구·경성 등이 주이며 대부분은 대구시장을 거쳐서 전 조선에 보내진다.

이상과 같이 도내 연안에서 조개류·해조류 채취에 종사하는 해녀는 약 1만명에 이르며 그 어획고는 28만엔에 미치고 있다.

出稼海女

제주해녀는 도내 본고장에서 나체잠수어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녀로서의 도외출가는 인구이동상 크게 주목할 만한 현상을 이루고 있다.

제주해녀의 출가는 40년전인 메이지 28년(1895) 경상남도 부산부 목도

(釜山府牧島)에 출어한 것이 처음이다. 그 이후 해마다 증가했는데 쇼와 7년(1932)까지의 해녀출가상황을 보면

	출가해녀	송금액
1929년	4,310명	불명
1930년	3,860명	908,000엔
1931년	3,950명	687,350엔
1932년	5,078명	1,100,000엔
<내역>	내지 1,600명	
(1932년)	조선 3,478명	

에 이르고 있으며 해녀에 의한 수익금은 실로 1백40만엔의 거액에 달한다.

<그림 1-14> 濟州島出稼海女의 分布 (1932년)

<그림 1-15> 제주해녀의 츠시마에 있어서의 출가분포

그 분포는 가장 근거리인 전라·경상의 각 남도와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츠시마(對島)가 가장 많다. 특히 전년인 쇼와 6년에는 함경북도에까지 진출(10명)해서 조선반도의 일본해안 전역에 걸쳐 있다.

또 황해사면(黃海斜面)이 일본해사면에 비해 해녀의 출가가 비교적 적은 것은 암석해안이 많지 않은 외에 조석간만의 차가 몹시 커서 해안어장에 적합치 않은 때문이며 황해도에 약간 많은 숫자를 보이는 것은 황해사면 특유의 해안지형을 갖고있기 때문인 것이다.

한편 내지에의 출가해녀들은 츠시마가 가장 많으나(그림 1~15 참조), 그밖에 분포된 각 부·현(府·縣)은 그 차가 작고, 더구나 태평양 연안의 모든 현에 편재되고 일본해연안에 전무한 것은 반도부인 일본해 연안 전역에 걸쳐 출가해녀의 분포가 보이는 것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출가는 어기를 좇아 출어하는 것이지만 해류에 의한 수온관계로 남선(南鮮)의 어기는 빠르고 북선은 늦다. 또 일본해연안은 빠르고 황해연안은 늦다.

출가는 매년 2월경부터 시작되는데 우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비교적 근거리로 출어해 점차 북쪽으로 옮겨 8월말을 한도로 귀도해 가을걷이에 종사하게 된다.

출어방법으로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츠시마(對馬) 등 지방에는 대부분 5톤의 범선으로 출어한다. 배에는 보통 해녀 12~15명이 타며, 나이는 17~30세 까지가 많아서 가장 능률 높은 해녀들인 것이다.

그밖에 선장 1명 사공 1명 내지 2명이 승선해 6개의 노로 해녀도 함께 저으면서 식료품과 그밖의 물건도 준비해 간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조업중인 때는 같은 배안에서 생활하며 음료수, 식량 연료 등은 그곳에서 보충한다.

또 기선편으로 황해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등지로 출어한 사람은 그곳에서 함께 집을 빈다든지 해안에 오두막을 지어 조업중에는 거기서

간단한 생활을 하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저축한다.

기선에 의한 내지(內地=일본 본토)에의 출가는 츠시마를 제외하곤 모두가 오사카(大阪)를 경유하여 출가한다.

오사카와 제주도와는 특별한 경제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조선우선(朝鮮郵船), 아마가사키기선(尼崎汽船), 가고시마상선(鹿兒島商船) 등이 경쟁적으로 여객을 실어 날으고 도중에 모지(門司) 시모노세키(下關) 등지는 기항을 하지 않고 가장 값싼 운임으로 도판(渡阪)을 시켜서 다시 목적지로 기선편이나 철도로 출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활약해 온 이세(伊勢)의 분동(分銅)해녀를 점차 쫓아내어 발전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제주해녀의 특색은 이세해녀나 그밖의 일본해녀와 비교해서 임금이 싸고 능률이 비교적 높다는 데 있다.

제주해녀는 조업시에는 태왁으로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분동을 사용하지 않고도 깊이 잠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동해녀와 같이 해녀배나 사공이 필요없다. 따라서 채취비용이 상당히 싸진다. 전에 경상남도의 방어진(方魚津)이나 울산군의 포항(浦項 亭子里) 등지는 50년전부터 이세해녀의 어장이었으나 메이지 28년의 제주해녀 진출이래 거의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연안지방에서는 해류관계에 의한 수온이 한여름의 7월에 평균 18.6도, 8월에 21도, 즉 7, 8월에도 겨우 20도 안팎이기 때문에 이세해녀(三重縣二見幡豆崎에 있어서는 7월이 29.2도, 8월 26.5도)는 1개월 조업중 겨우 1주일밖에 견뎌내지 못하는데 반하여 제주해녀(조선 남해안에서는 7월이 22.8도, 8월 22.7도)는 15일간의 조업을 견뎌낼 수 있고 하루의 취업시간에 있어서도 제주해녀가 월등히 길다. 결국 조업시간이 길고 임금이 낮다는 여러 조건 때문에 점차 이세해녀들은 축출을 당해 1929년 이후 이세해녀는 조선반도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조선반도에의 出漁와 入漁權

예전부터 조선연안의 주민들은 어업에 관해서는 가장 냉담해서, 더구나 바다밑 패조류에 대해서는 거들떠보는 이도 없었다. 하물며 반도부의 부녀자들은 오랜 인습에 따라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나잠해녀어업과 같은 것은 육지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연안어업에 대한 전용어업권의 설정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풍성한 어장을 향해 타지에서 자유로이 진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연안주민이 겨우 그 어업이권(利權)에 대하여 눈을 뜨고 어업권을 문제삼기 시작한 때에는 이미 제주해녀들은 전 조선에 진출하여 확고한 지반을 갖고, 다이쇼 4년 조선어업령 제정에 즈음해선 제주해녀어업조합의 이름으로 조선 전 연안의 해변어장에 입어관행보존등기(入漁慣行保存登記)를 하고 조합으로서 입어권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때문에 특정인에 주어지는 어업권과는 달리 조합이 입어권을 갖고 있어서 영원한 조합원인 제주해녀는 입어를 해서 반도인이 버려버린 어업이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내지의 출어해녀는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가 많다. 내지에서 제주해녀의 출가지로 가장 오래된 곳은 도쿄부(東京府)의 미야케지마(三宅島)로 메이지 36년(1903) 김녕의 사공 김병선(金丙先)씨가 해녀 수명을 데리고 출가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후 그곳에서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김씨는 매해 다수의 해녀를 거느려 출가하게 되었는데 1932년 8월 현재로 미야케지마츠모타무라 미이케우라(三宅島坪田村 三池浦)에 대정면과 구좌면 사람 2백40명이 나와 있다.

또 시즈오카현 가모군 니시나무라(靜岡縣賀茂郡仁科村)나 다가타군(田方郡) 미에현미나미무로군(三重縣南牟婁郡) 치바현 아와군(千葉縣安房郡) 등지에도 진출해 있다.

가고시마현(鹿兒島縣)에의 출가는 구마모토인(熊本縣人)으로서 구우면(한

림면)고산리에 거주하는 아카미(赤見)씨가 제주해녀를 가고시마(鹿兒島)에 보내고 싶다는 오랜 희망을 1927년에 이르러 실현시키고, 3명의 해녀를 출어시킨 것을 시초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32년 8월 현재로 출가해녀는 90명에 달하고 있다.

고오치현(高知縣)의 해녀는 1928년 가고시마현에의 출가도중에 아키군(安芸郡)에 표착된 데서 시작되어 그후 수년에 걸쳐 2백30명의 많은 수가 출가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아키(安芸)에서 반타군(蟠多郡)으로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도쿠시마군가이후군 시시구이(德島縣海部郡 宍喰)에 까지 진출했는데 시시구이(宍喰)에서는 1백60명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원격지로 온 해녀의 대부분은 어기에 따라 통어(通漁)하는 사람들로서 그 땅에서 해를 넘기는 이는 극히 드물다.

제주도해녀의 地理的 意義

이상은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지역성의 한 요소가 되는 제주해녀에 대한 지지학적 연구의 일단을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으나 요컨대 절해의 고도적 위치와, 용암의 탁월한 해안지형 및 해저지형, 그리고 환해양(環海洋)의 자연적 여러 요소 등은 본도의 여성으로 하여금 원시적인 전용어업으로서 조개와 해조류를 따는 해녀어업으로 유도해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에 있어서의 해녀의 분포

① 현재 일본에서의 해녀의 분포상(分布上) 남서일본에 있어서 한계선

을 이루고 있는 점.

② 오랜 기간동안 조선과 동일행정지구에 있으면서 제주해협을 경계로 해서 해녀의 분포가 반도부와 명료한 한계선을 이루고 있는 점.

③ 조선반도에서는 전무인데 반하여 제주도는 해녀의 분포가 단연 월등하고 더우기 전국적으로도 최대 조밀지구를 이루어 반도부와는 분포상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점.

2. 도내의 해녀 분포

① 동해안지대가 가장 조밀하며 북서부 해안지대가 그 다음이고, 남부해안지역, 북부해안지역으로 차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해안지형 및 해저지형·조류·풍향 등에 현저하게 지배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② 해녀어업은 예전부터 본도의 해변취락에 있어서의 여성의 중요한 부업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 전용어업권이 각리에서 제정되어 왔었다.

3. 출가해녀의 出稼地

① 반도부 사람들이 관심없이 장기간 버려져왔던 반도부의 해변을 좋은 어장으로서 출가·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경상남도 연안에 진출한 일본의 이세(伊勢) 해녀등을 축출하고 다시 북진하여 일본해연안 각도로 진출, 황해연안지대의 평안남·북 양도를 제외한 각도에 출가했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② 조선반도 각도의 해변어장 입어권에 관해서는 제주해녀어업조합의 명의로 입어관행보존등기를 행하고 영원히 본도해녀의 출가지가 확보되도록 미리 못박음으로써 장차 반도에의 출가가 보증되고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③ 내지에의 출가는 고용관계가 주체를 이루는데 지금까지 해당지역 해녀·어부를 갖고있는 지역 가운데 도쿄부(東京府)·치바(千葉)·가

나가와(神奈川)·시즈오카(靜岡)·미에(三重)·도쿠시마(德島) 고오치(高知) 가고시마(鹿兒島)·나가사키(長崎)의 각 현에 진출해 1933년도에는 아오모리현 시모키타반도(靑森縣下北半島)에 까지 출가계약의 성립을 보기에 이르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가고 있다.

④ 출가해녀의 분포상 특색은 제주도의 대안지역 즉 남선이나 츠시마(對馬)에 가장 많고 거리와는 거의 반비례해서 감소하고 있다.

⑤ 출가해녀는 반도부에선 일본해연안 전역에 그 분포를 볼 수 있는데 반하여 내지에서는 일본해연안은 전무하고, 태평양연안에만 편재되어 있음은 분포상 현저한 상위점(相違點)이라고 하겠다.

⑥ 1933년에는 내지의 일본해연안지방에 출가어장 조사를 위해 출장을 간 것으로 보아 새로운 지역을 개척, 앞으로 5~6년 사이에는 분포도상 출가해녀의 급격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⑦ 제주도의 해녀어업의 발생에 관해서 본도 독자적인 자연발생인가, 혹은 츠시마(對馬), 고토(五島) 등 내지해녀의 영향에 의한 모방발생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후일의 연구로 미룬다.

끝으로 본 논문을 기록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지도를 베풀어주신 다나카(田中啓爾)교수에 대하여 여기에 삼가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지에서 여러가지 자료와 조사의 편의를 주신 제주도사 다구치(田口禎憙)씨, 그리고 도청의 여러분, 제주해녀어업조합의 이사 김근시(金根蓍)씨, 주임 마수다(桝田義美)씨, 제주전기주식회사 전무취체역 하기와라(萩原駒藏)씨 김병생(金丙生)씨 김조현(金祚鉉)씨 김승옥(金承玉)씨 기타 도내 유지 여러분께 사의를 표한다.

(쇼와 8년(1933) 8월/濟州島海女의 地誌學的硏究)

濟州島人의 內地出稼

쇼와 7년(1932) 이래 제주도에 대한 지지학적(地誌學的) 연구를 마음 먹고 그 결과를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도 또한 그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이 문제의 대략은 1934년 11월 동경제국대학에서의 일본지리학회 총회에서 발표하고 그 요지는 「지리학평론」 쇼와 10년(1935) 1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제주도에 있어서의 인구이동문제에 관해서는 출이동(出移動) 입이동(入移動) 및 도내간 이동 등의 경우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출이동 중에서도 주로 내지출가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제주도인(이하 본도 재적 조선인을 가리킴)이 최근에 내지출가가 현저한 사실은 뜻있는 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이다. 그것은 조선인의 내지출가는 해마다 증가일로를 거듭하고, 경제적 사회적 중요문제가 되어 몇년 전부터 당국에 있어서도 반도부출이민(半島部出移民)의 동향전환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본도인의 내지에의 이동이 그 증가의 중요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조선인의 내지출가 총수에 관해서는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내지 재주(內地 在住) 조선인은 다이쇼 14년(1925) 12월말 현재 13만3천7백10명이라고 되어있으나 출가자수에 대하여는 발표된 바가 없다. 또 내무성 보안과에서도 극비로 붙여져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비율은 나타내기 어려우나 「조선인의 인구현상」 중의 내지도항자항에는 「내지재주 조선인수는 지리적 관계상 남선지방의 사람이 많고 북선지방 사람은 국경을 넘어 만주(滿洲) 시베리아쪽으로 나가는 수가 많다. 남선지방 중에도 전라

남도, 그중에도 제주도사람이 다수를 점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순이며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사람들도 적지않다.」고 되어있다.

한편 제주도인의 내지출가수는 1934년 4월말 현재로 5만53명으로, 그중 남자가 2만9천3백65명 여자가 2만6백88명에 달하며 전도 총인구의 25%에 이른다. 이는 조선에 있어서의 내지출가의 중요한 한 지역을 형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도의 사회상 경제상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제주도인의 내지출가분포, 공급지역 출가지에 있어서의 종사직업, 출가자의 소질, 출가계절과 농업노동배분, 출가자의 추이와 그 조장성(助長性) 등을 합쳐서 이들 출가이민의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논술하고, 그럼으로써 본도인의 내지출가는 본도가 지니는 지역성의 중요요소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구명하고자 한다.

제주도인의 內地出稼地域과 그 供給地域

1. 제주도인의 내지출가지역

1934년 4월말 현재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의 내지출가지역별통계를 갖고서 분포도(<그림 1-16>)를 작성해보면 매우 흥미있는 분포현상을 나타낸다. 즉 치바현 이서(千葉縣 以西)의 동해연안 제현(東海沿岸 諸縣) 남서일본의 깅키(近畿) 및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연안, 그리고 기타큐슈에 많고, 동북일본 오쿠리쿠(北陸) 및 산잉(山陰)의 일본해편에는 적다. 그러나 얼마 안되지만 북은 북해도, 가라후토(樺太), 남은 대만, 남양에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전혀 제주도인이 없는 곳은 오키나와(沖繩)·미야자키(宮崎)·돗도리(鳥取)·이시가와(石川)·도야마(富山)·군마(群馬)·도치기(栃木)·이바라기(茨城)·야마가타(山形)·이와테(岩手)의 10개현이다.

<그림 1-16> 제주도인 出稼先 (1934년 4월말 현재)

분포상 편재성이 현저해서 가장 조밀한 집단구는 ① 깅키구(近畿區) ② 동해연안구 ③ 산요구(山陽區) ④ 기타큐슈구(北九州區)의 4개 지역이다.

깅키구(近畿區)는 출가자총수의 88%강을 점하며 그 중에는 오사카부내(大阪府內)가 가장 많아서 그 대부분이 오사카시내 재주자로서 3만7천9백38명에 달하며, 이는 출가총수의 75%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는 교토부(京都府)의 2천3백8명 효고현(兵庫縣)의 2천63명, 와카야마현(和歌山縣) 1천5백83명의 순으로, 게이한신(京阪神)을 중심으로 한 깅키(近畿)의 여러 부현(府縣)에 그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동해연안구에서는 도쿄의 1천7백1명이 최대이고, 그밖에는 현저하게 감소된다. 그리하여 비교적 근거리에 있고 인정 풍속 언어 등 생활양식이 유사한 조선반도부에는 극히 적으며 다만 특수노동이고, 반도부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나체잠수어업에 특수기능을 갖고 있는 제주해녀만이 현저하게 진출하여 1932년도에는 3천4백78명이 출가하고 있다.

딴 노동에서 출가자수는 거의 문제되지도 않는다. 이는 유사한 경제사정에 놓여있는 조선인의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본도인에게는 그 출가진출의 여지가 없는 것이 큰 이유인 것이다. 내지출가자의 대부분이 오사카를 핵심으로 한 대도회지, 특히 한신(阪神)공업지대에 그 대부분이 편재 집중돼 있는 것은 분포중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지출가자 공급지역

전기 내지출가자 공급지조사를 위하여 제주경찰서를 비롯, 관내 애월·외도·한림·고산·모슬포·중면·중문·서귀포·서중·동중·성산포·세화·서김녕·조천·삼양의 15개 경찰관주재소(<그림 1-17> 참조)의 협조를 얻어, 1934년 4월 현재의 각 관하 12면1백62개리에 관한 조사를 했다.

내지출가자(<그림 1-18>)는 대략 섬의 서반부 즉 제주읍서부 신우, 구

우, 대정, 중면, 좌면, 우면에 많으며 동반부인 서중, 동중, 정의, 구좌, 신좌 및 제주읍 동부에는 적다. 그중에서도 출가자의 집단구는 ① 제주성내의 중심구 ② 한림중심구 ③ 서귀포중심구의 3개 핵심구가 두드러진 지역이며 희소구로서는 ④ 표선중심구를 들 수 있다.

① 제주성내 중심구

제주성내의 일도·이도·삼도·용담·도두의 여러 마을 및 비임해(非臨海) 중간지대인 영평·도남·노형 등 여러마을에서 각각 5백~9백명의 출가자를 내어 본적인구에 대한 출가자비율(그림 1-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적인구의 50~60% 이상을 나타내며 연동, 영평리에서는 72%에 달하기도 한다.

그래서 출가자를 내지 않고 있는 세대는 연동 8세대, 영평리 12세대로, 도남리의 경우는 겨우 2세대인 것이다.

이와같이 제주성내 및 성내주변부 농촌에 많은 것은 성내는 본도의 수읍으로 인구 1만여명의 도내 제일의 인구집단구로서 자유노동자 또한 많고, 다른 한편으론 농가호수가 7천6백16호나 되므로써 마을마다 농가 1호당 평균경작면적의 최소지역으론, 예전부터 다른 면에 비하여 자작 및 자작겸소작농(自作兼小作農)이 많은 곳이다.

더욱이 내지출가지로서 가장 오래되고 제주도출가추이 항목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이쇼 8년(1919) 오사카 가네부치(大阪鐘淵) 방적공장으로 부터의 직공모집권유원의 최초 상륙지로서 모집지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농촌지역(環農村地域)이었다.

당시 본도의 환상도로(環狀道路)가 조성되기 시작하긴 했으나 공작물이 완성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불연속적 도로에서의 교통은 말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목포·산지(木浦·山地)간 항로 외에는 도외로의 연락항은 없었고, 물론 본도연안 주항선(周航船)도 없었으며 자동차는 1대도

볼 수 없었다.

이와같이 교통이 불편한 당시에는 제주성내 및 그 교외구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는 응모할 수도 없고, 타지역에의 문서에 의한 권유는 출가열(出稼熱)을 환기하는데 그칠 뿐 지지부진하여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후 다이쇼 12년(1923)에 환상도로가 우선 서쪽으로 개통되어 남제주의 서귀포에 이르고, 이윽고 동쪽으로 이어져 성산포에 달하고, 그후 남동해안지대를 거쳐 서회선과 서귀포로 연결되었다.

승합자동차가 섬에 출현한 것은 다이쇼 14년(1925) 11월이며, 자동차도 또한 도로준공순위가 도로의 가치성에 따라 결정된 것처럼 성내를 기점으로 서편 56㎞의 모슬포까지 통하고, 이어서 동쪽 44㎞의 성산포로, 다시 남제주의 서귀포를 기점으로 한 서쪽 36㎞의 모슬포를 통하여 서반주선(西半周線)이 연결개통된 것이다.

② 翰林중심구

출이민의 제2의 집단지역은 북서부의 구우면, 특히 한림은 그 핵심지역이다. 각리마다 2백~3백명의 출가자를 보내어 출가비율이 21~30%에 이르렀는데 고산리에서는 32%에 달했다.

이 지방이 집단을 이루게 된 이유는 전기 핵심지역에 비교적 근접하고 환상도로의 제1기개통과 최초의 승합자동차 운행지역이며 다케나카(竹中) 통조림공장을 비롯하여 제빙공장이라든지 그밖의 다른 공장의 건설은 부근주민에게 공장노동의 체험과 내지출가에 관한 자료청취의 편의를 제공, 인접지로부터의 자극 등에 의하여 전자에 버금가는 내지출가선진지가 되었다.

한편 도내에선 보기드문 주민의 진추성 과감성 근면성 등이 이곳을 집단지구로 만들었다. 또한 도내제일의 인구조밀기구로서, 구내(區內) 1평방㎞당 1천7백98명의 큰 밀도를 지니고, 호당경지면적은 제주읍에 다음가는 협소구역인 점 등이 더욱 출가를 조장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③ 西歸浦중심구

행정상 우면(右面)에 속하는 구역으로, 각리마다 1백~3백명 남짓한 출가자를 보내고 있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법환리(法還里)는 3백30명 남짓, 하효리는 2백명 이상을 송출했으며, 비율에 있어서 호근리는 35%에 이른다.

이 지역은 도내 제일의 자연적 양항(良港)인 서귀항을 갖고있고 특히 당국이 내지인이주어촌의 창설에 즈음하여 제1차로 선정된 곳이다. 내지인 56호 61세대를 포함하는 제주성내 다음의 내지인거주자 집단지역인 것이다.

어기에는 내지통어선(內地通漁船)이 항내를 메워 크게 활기를 띈다. 그때문에 내지인과 접촉, 내지 사정의 청취에 용이한 환경을 갖게되고 직·간접으로 내지도항을 유발하게 되었다. 특히 환상도로의 개통과 함께 남제주의 승합자동차 기점이 되고 도지청(島支廳)이 있다는 것 등도 출가촉진의 원인이 되었다. 판제(阪濟)항로가 개항되면서 남제주 최초 유일의 기항지로 된 사실도 출가자유도(誘導)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表善중심구

섬의 남동부를 차지하는 출가 희소지역으로 행정상으로는 동중면(東中面) 및 정의(旌義)의 북동부를 제외한 지역이다.

동중면은 중간지대 성읍의 70명을 최다로 해서 딴 지역은 어느곳도 50명 이하의 구역인데, 본적인구에 대한 출가비율도 각각 5% 이하이다.

그 희소(稀疎)이유는 지리적 위치의 관계상 섬중심지역과 떨어져 있어 가장 순박, 보수적 순 농촌지역으로 첫째 주민의 성정과 환상일주도로 및 자동차개통이 가장 늦어진 지방이기 때문에 출가자극이 미약한 탓이다.

한편 좋은 항구가 없고 여름에는 남동풍이 강하여 판제(阪濟) 항로의 개항후도 기항이 안될 때가 종종 있다. 더우기 돌아올 때는 북안을 서회하여 최후의 상륙지가 되므로써 판제(阪濟)간 여러 항구중 최장거리가 되고 돌아오는 최초의 기항지 김녕에 상륙해서도 육상교통관계상 값비

싼 자동차요금과 숙박 필요가 생겨서 교통비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같이 섬 남동부에 위치해서 오사카에는 가장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회선(廻線)관계상 거리적으로 가장 먼 거리가 되고 있다. 더우기 이 구역은 도내인구의 최대희소지역으로 면내의 호당 평균경지면적은 4.58정보, 제주읍 및 구우면의 약 3배의 경지를 가져, 노동력부족 때문에 도내제일의 휴한경지율을 보유하는 지방이라는 것 등이 출가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從事職業構成과 주요職工공급지

1. 출가지에 있어서의 從事職業構成

제주도인의 내지 출가지의 종사직업별인구는 출가분포도상(그림 1-16)으로도 알 수 있지만 도내 12개소의 경찰관주재소에 계출된 집계를 얻어 작성된 것이 <그림 1-20>이다.

이에 따르면 34종류나 되는 많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농업이 2백44명으로 전체의 0.5%약이며, 어업은 6백87명으로 1.3%, 상업 6%, 66%강이 공업 즉 공장노동자로 되어 있다.

남자직공가운데 특색있는 것은 고무공(工)이 4천2백8명, 철공이 3천7백94명, 유리공 1천8백77명, 법랑공(琺瑯工) 1천6백71명 등이 주된 직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내지인의 내지에 있어서의 출가에선 남자출가의 첫째는 어로(漁撈)이고, 그 다음은 주조(酒造), 탄광 그리고 매약(賣藥)의 순이며 이 4종류가 출가직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여자쪽에서는 제사(製絲)를 필두로, 방적 양잠 찻잎따기 직물 등 5대 출가직종이 내지인에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제주도출가의 경우엔 방적공이 단연 최고인 5천3백7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고무

<그림 1-20> 제주도인 내지출가자 직업별인구 (1934년)

공 1천7백56명, 미싱재봉공 1천1백83명, 유리공 1천50명, 성냥공 9백45명 등이 특색을 이루어 내지인의 경우와는 두드러지게 다르다.

방적공이 많은 것은 본도인의 출가가 방적회사의 방적공모집에 그 시초를 두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앞에 말한 것 이외의 직업에서 절대적으로 남자들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선원의 1백3명과 목욕탕종업원 56명, 이발업 12명, 운전수 10명, 사진공 4명, 변사(辯士) 1명 등이다.

또 여자만이 갖고 있는 직업은 앞에 말한 어업자 외에 출가해녀가 1천93명이나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통계의 조사시기는 4월말이지만 해녀의 최고출어기인 6월에는 2천명을 돌파한다는 것은 조선반도부나 그 도서부에선 볼 수가 없는 본도 독자적인 현상으로 졸저(拙著) 「濟州島海女의 地誌學的硏究」에서 논술한 바와 같은데 이는 인구이동의 가장 특색있는 현상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 외에는 자유노동자 3천2백63명, 하숙업 1백7명, 요리음식업 17명 등인데 요리 등도 내지인 상대의 조선요리업 경영이 아니라 단독출가자의 집단지구 즉 수력발전소 기타 토공(土工) 도카타(土方) 등 집단공사장 부근을 중심으로 마치 군대와 병참부대의 그것과도 같이 하숙업 요리음식점은 반드시 부수해서 이동하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출가자중에 농업노동자가 적은 것은 고향이 주농업지대로서 농번한기(農繁閑期)가 일치되고 노동보수가 다른 그것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도 그 원인의 하나이며 전기 2백44명의 농업노동자는 보수보다 양농(良農)이 되고자 하는 집약영농견습자(集約營農見習者)이며 어업의 경우도 같은 이유가 발견된다.

2. 주요직공 공급지

직공 중에 최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방적공으로 고무공·철공·유리공 등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 대표적인 2, 3종의 직공의 출신지를

검토해보면 최대다수를 점하는 방적공은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4.2배에 달하며 그 다음인 고무공은 남자가 거꾸로 많아서 여자의 3.1배가 된다. 방적공의 출신지별 분포도(<그림 1-21>)에 의해 3개의 집단지를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제주성내중심구 한림중심구 모슬포중심구의 3핵심지역으로서, 앞의 2자(者)는 <그림 1-18>의 출가공급중심지구와 일치하고, 후자는 그 인접구에 위치한다. 이들 핵심지역이 목화재배 수직(手織)가내공업지역과 일치하는 것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고무공(<그림 1-22>)에 대해서 살펴보면 북제주는 대개 제주성내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그 동쪽이웃인 조천중심구에 많으며 서쪽이웃인 신우면은 적다.

남제주에서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하는 우면 및 동쪽 이웃인 서중면에 많고 남동부인 동중·정의 2개면은 적다.

그밖에 철공·인쇄공·법랑공·유리공·성냥공·에나멜공·세르로이드공·염직공(染織工) 등에 대해선 각각 1백62개리에 대해 각리별공급상황을 조사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상론(詳論)을 생략한다.

이상 단순히 2~3개를 조사한 데 지나지 않으나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한 결과 같은 종류의 것이 어떤 지구에서 그 집단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떤 이법(理法)의 잠재성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出稼者의 소질

1. 출가자의 성별

쇼와 9년(1934)의 출가자들을 성별로 검토해보면 절대수에 있어서 남자 2만9천3백65명 여자 2만6백88명으로 남자 1백명에 대하여 여자 70명의 비율이다.

이 숫자 가운데는 유년 비생산계급인 15세 이하의 남자 3천8백12명, 여자 3천5백86명을 포함하며 또 육체노동 비생산계급인 50세 이상의 남자 7백1명, 여자 6백47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숫자가 대부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온가족이 출가한데서 나타난 숫자로서 비생산계급을 제외한 생산연령자 15세 이상으로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은 남자가 2만5천50명, 여자 1만6천4백67명으로, 남녀비율은 남자 60%, 여자 40%이며, 내지인의 내지간출가(內地間出稼) 남녀비율인 남자 54% 여자 46%에 비하여 여자가 약간 적다.

이상 말한 제주도의 인구통계는 쇼와 9년(1934)의 조사이며 내지의 것은 다이쇼 11년(1922)의 통계이지만 제주도인의 출가초기인 다이쇼 11년의 남녀비율은 남자 91%, 여자는 겨우 9%로서, 남자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이 다음해인 12년에는 남자 88%에 대하여 여자는 겨우 12%가 되고 그후 여자의 출가는 증가해왔다. 그러나 그 증가율은 극히 낮아서 그 때문에 내지는 남자의 출가지역이라고 말할 정도로 특수지역이었으나 쇼와 6년(1931)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하여 남자 60% 여자 40%가 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림 1-23> 제주도의 인구(성별)추이

제주도의 생산연령계급 특히 징병적령기 남자가 내지의 그것과 비교해서, 하등 징병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노동력잉여기를 자유로이 출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지인출가 남녀비율에서 남자가 웃도는 원인의 한 요소가 된다고 여겨진다.

원래 제주도에 있어서의 인구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인구가 월등히 많고 그 통계로 얻을 수 있는 한 도내에서 작성된 것이 그림 1-23이지만 여자인구는 항시 남자를 웃돌아 출가현상 출현 이전부터 여자가 많아서 탐라의 여러 풍속 항목중엔 「여다남소(女多男少)」라고 나와있다.

가장 정확한 조사결과가 되는 다이쇼 14년(1925)의 국세조사에 있어서는 남자 9만5천2백80명, 여자 10만9천34명으로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많은 것이 실로 1만4천7백54명이나 되며 쇼와 5년(1930)에는 남자 9만3천8백79명, 여자 11만1백82명으로 여자가 많은 것이 1만6천3백3명, 남자 1백명에 대하여 여자는 1백17명강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반도부에 있어서 같은 연도에는 남자 1백명에 대하여 여자 96명강의 비율이며 내지는 남자 1백명에 대하여 여자는 99명이다.

이와같이 제주도의 남자인구가 현저하게 여자에게 뒤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여자인구과잉의 결과 특수한 사회풍습까지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주의를 끄는데, 남자인구의 유출은 더 더욱 그 차를 크게 해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 출가자의 연령구성

출가자들의 연령구성이 통틀어 활력에 넘치는 청장년층인 것은 출가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산업에 종사하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연령구성(<그림 1-24>)이 마름모꼴(菱型)로서 유년층은 극히 적고 청장년층은 두드러지게 많다. 또 노년층에 가면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는 사사키 이학사(佐佐木彦 理學士)가 말한바 양파모양(玉葱狀) 연령구성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는 이 형태를 「도회성」의 한 요건이라고 했으며 다케미(武見)이학사는 「입이민지성(入移民地性)」이라고 칭하였으나 필자는 「출가연령성(出稼年齡性)」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연령구성은 도회성의 경우보다도 한층 양파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의 출가자 연령가운데 16세부터 40세까지의 생산연령계급자는 16~20세는 남자 4천2백47명, 여자 3천4백81명, 21~25세는 남자 6천6백91명, 여자 3천5백15명, 26~30세는 남자 5천4백22명, 여자 3천8백22명, 31~35세는 남자 4천2백53명, 여자 2천6백70명, 36~40세는 남자2천9백55명, 여자 1천8백28명으로 합계 3만8천8백84명에 달하며 총수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 최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계층은 21세부터 25세까지로, 1만2백6명에 오르며, 특히 남자가 66%를 차지한다는 것은 오키나와(沖繩) 도민의 내지출가자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과 흥미있는 대조로서 이 연령기의 남자가 본도에서는 징병과 관계 없이 때문에 남자가 월등히 많은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도부여성이 집에 들어앉아 비활동적인 것과는 전연 사정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림 1-24> 제주도인 내지출가자의 연령구성 (1934년)

여성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본도에 있어서 아직도 그러한 현상을확인하게 되는 것은 흥미있는 경향이다.

3. 교양정도

출가자총수 5만53명의 교양정도(敎養程度)는 쇼와 9년(1934) 현재 제주경찰서의 조사에 의하면 무교육자가 3만3천7백15명으로 실로 총수의 67%강에 이르고 있다.

이 실수가운데 자료관계상 10세 이하의 출가수반자(出稼隨伴者)인 유소년자 4천1백4명을 제외하고도 아직도 59%의 문맹출가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남녀별로 보며는 남자가 1만4천9백21명으로 총수의 50%강을 차지하며 여자는 1만8천7백94명으로 실로 91%에 달한다.

수학자(修學者) 1만6천4백46명 가운데 서당수업자는 1천9백62명으로 그 비율은 72%강을 점하고 그밖은 신제교육수업자(新制敎育修業者)이다.

서당수업자는 남자 1만8백52명, 여자 1천1백10명인데 이 비율은 9대1이다.

신제교육수업자 즉 보통학교졸업자는 남자 3천6백8명, 여자 7백83명 합계 4천3백91명으로 남자가 82%강을 차지하며 그 대부분이 구제(舊制) 서당수업자들이다. 그밖은 고등보통학교 및 기타 학교졸업자들인데 대략 교육정도는 낮고 무학문맹자가 많은 것은 남부 이탈리아의 출이민(出移民)의 경우와 흡사하다.

5만여명의 출가자를 보내고 있는 가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도내 세대의 이동을 살펴보면 1934년 4월 현재 제주도인 세대수 4만7천4백66호중 출가허가증을 얻고서 도항한 호수는 3만4백98호로 실로 64%의 출가호수를 보이며, 그 내용은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세대당 평균 1.1명의 출가자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한집안 모두가 출가한 호수에 있어서는 농업 1천6백48호, 어

업 1백55호, 상업 1백92호, 공업 32호, 자유노동자 2백호, 무직 4백21호 등 합계 2천6백48호로서 전도출가호수의 9%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술한 유년비생산계급인 7천3백98명, 노년비생산계급인 1천3백48명 등은 일가전체출가 가족중에 그 대부분이 포함되는 것이다.

<표 1-6> 제주도인의 내지출가자 공급 가정조사 (1934년 4월말 현재)

		전가족 도항 호수	50세이상 20세미만 잔류	여자및20 세미만자 잔류	40세이하 20세이상 2명까지 잔류	전가족 반수이상 20~40세 잔류	도항 호수	비도항 호 수	계
농업	지 주	14	111	36	191	99	451	690	1,141
	자 작	102	1,110	1,362	2,852	2,573	7,999	6,536	14,536
	자작겸소작	578	1,694	1,858	2,670	2,430	9,230	4,733	13,963
	소 작	954	1,929	1,331	1,909	1,745	7,868	3,249	10,117
어 업		155	472	351	427	450	1,862	1,706	3,568
자유노동		200	22,310	194	289	188	1,094	364	1,458
상 업		192	95,694	95	116	168	666	497	1,163
공 업		32	58,929	66	66	29	251	59	310
무 직		421	284	193	122	56	1,076	134	1,210
계		2,648	5,983	5,487	8,642	7,738	30,498	16,968	47,466

더구나 일가전체의 출가도 문을 잠가 놓고서 쉽게 도항(渡航)하고도, 부재중에 거의 도난등의 염려가 없다 한다. 그것은 분가제도와 음료수 등 관계로 극단적인 집촌취락을 형성해 동일구내의 대지에 수세대가 있고 딴채에서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으로, 자연히 출가하기에 편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물론 간소한 생활과 외따로 떨어진 고도(孤島)인 지리적 환경 등은 이런 것들을 잘 방범해주고, 경찰의 감시망도 유감없이 펴져서 도항에는 도항허가증이 필요하며, 범인의 탈출은 우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출가가 성행되기 때문에 화폐의 유통도 비교적 윤택해서 섬에는 궁핍자가 적고 거지 같은 자도 필자가 몇 차례에 걸쳐 답사 중에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일가전체의 출가를 용이하게 해주고, 농업기에는 섬에, 농한기에는 내지로 적시적소에서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같은 계절적 출가이민을 Golondrinas(스페인어로 「제비」)라고 부르는데 내지에서도 눈많은 지역에서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 태평양지역(表日本)에 일시적으로 입이주(入移住)하는 사람들을 「찌르레기(掠鳥)」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50세 이상 20세 미만자를 본집에 있게 하고 가장 활력있는 생산연령계급자만의 출가 호수는 5천9백83호로 도항호수의 20%, 여자 및 20세 미만자를 남겨둔 출가호수는 5천4백87호로, 18%나 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주의를 끄는 것은 내지에서는 볼 수 없는 지주 및 자작농계급자의 출가로서 전도의 지주 1천1백41호 가운데 4백51호가 도항호수이며 자작농에 있어서는 9백99호 즉, 전 자작농의 55%강이 출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작겸 소작농, 그리고 소작농에 이르러서는 66~77%에 달하며 섬의 경제적 영향에 미치는 바가 다대하다.

출가계절과 섬의 營農勞力配分

출가이동에 계절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입가지(入稼地)에 있어서의 노동수요관계 즉 양잠출가, 찻잎따기출가, 어로출가 등이다. 농업자의 출가는 영농한기를 이용한 잉여노동의 이동이기에 계절성이 가장 명료하게 나타나게 된다.

제주도민의 계절적 이동조사를 위해 쇼와 5년(1930)부터 8년(1933)에

이르는 최근 4년간의 월별출가도항, 거기에다 귀환자의 이동조사를 각 경찰서를 통해 조사한 것이 그림 1-25이다.

출가에 있어서는 출가도항허가증 수령자의 승선, 하선에 즈음해서 제주경찰본서 기타 15개 경찰관주재소 및 기선회사의 협력으로 조사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그 위에 판제간(阪濟間) 항로의 기선 안에 있어서도 선객 전원을 동승한 이동경찰관 및 선원의 협력하에 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이것들은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25에 의하면 1년에 2개의 봉우리를 나타낸다. 즉 도항자수는 2월에 들어 급증하고 3월에 이르러 최고에 달했다가 점차 체감(遞減)하여 6, 7월에 들어서는 극소가 되고 8, 9월에는 재차 증가한다. 그러나 후자의 증가지수는 전자의 2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귀환자의 변화에도 2개의 골짜기가 나타난다. 즉 도항자의 극대월(極大月)인 3월에 극소가 되었다가 점차 그 수를 증가, 7월에 이르러 커지고 재차 감소한다.

도항자수 및 귀환자수를 나타내는 선(線)에 매년 공통적으로 거의 동일시기에 2개의 봉우리와 골짜기가 있음이 이동의 계절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전자의 2개의 봉우리와 후자의 2개의 골짜기와의 각달은 거의 동일하며 그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도항자의 최다월(最多月)은 귀환자의 최소월(最少月)이며, 도항자의 최소월은 귀환자의 최다월이 되고, 그것은 도외에 유출하는 노동력의 귀농을 필요로 하는 농번기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최다도항월은 매년 3월이며, 특히 그 수에 있어서도 1933년도의 예외를 제외하면 4천5백명 전후에 항시 그 수적 일치를 보인다.

<그림 1-25> 쇼와 5~8년(1930~33)의 제주도 내지출가자의 월별변화

가을철엔 우란분(盂蘭盆 : 음력 7월 15일의 中元명절)을 마쳐 9월에 출가하는 것인데 그 숫자가 전자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기간이 짧은 것과 여름농사의 풍흉예상관계에 따른다.

특히 제주도의 농업은 필자가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본도 중앙에 높이 솟은 화산 1천9백50m의 주봉 한라산 주위에 널려있는 완경사부인 2백m 이하의 벌판에 전개되는 9만4천9백여 정보의 광활한 경지는 논이 겨우 9백57정보밖에 안되며 주로 밭농사 지역이다.

따라서 재배하는 주작물은 보리가 첫째이다. 그중에서도 대맥(大麥 : 濟州倍取)이 75%를 차지하며 소맥(小麥 : 江島神力, 赤達摩), 나맥(裸麥 : 竹下·熊本島原), 대두(大豆 : 長湍·赤殼), 조(粳, 强突粒·靑味實·糯) 고구마 등 비교적 한정종작물(限定種作物)로서 자급자족을 기조로 하는 영농법은 조방농업이 된다.

조 파종과 같이 5월 하순으로부터 6월 하순 사이에 밭에 평파(平播)하고 파종과 동시에 말 십수두에서 수십두를 풀어 진압하는 특별한 건조농업이 이루어지며 육도·대두(陸稻·大豆)·고구마·목화 등의 파종과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본도 주작물인 대맥·소맥의 수확과 정곡, 여름철의 제초 10~11월의 여름작물 수확, 겨울작물의 파종으로 5월말에서 11월말까지는, 그 사이 얼마간의 번한불연속(繁閑不連續)은 있으나 대개 농번기가 계속되고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농한기가 되는 것은 <표 1-7>의 해안지대 비출가농가면별 영농개황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노동일수는 농한기월은 농번기월의 5분의1에서 10분의1로서, 농한기월에는 2분의1에서 3분의1의 노동인원으로 경영을 할 수가 있으며 내지의 다각적 집약농업에 대하여 노동잉여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제주도에 있어서도 당국의 장려로 곡류 이외의 각종 공예농작물의 재배가 점차 행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원시적 조방농업으로, 아직도 시작기(試作期)를 벗어나지 못해, 섬의 농가경제를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잉여노동의 커다란 마무리기간이 있게 마련이어서 출가자들을 보다 많이 내지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섬이 위치·지형관계상 때때로 태풍의 중심이 되고 그 진로를 맞아 주작물이 재해를 입어 흉작이 될 때에는 다수의 내지 출가도항자의 격증을 보게 되는 것이다.

1933년 9월의 격증은 동년 8월 7일 남선지방을 휩쓴 풍수해에 의한 흉작의 영향이며, 그 해는 비상시 군수공업의 발흥(勃興)에 의한 출가자 수입지(受入地)의 경제적 번영에 따른 영향 및 환(換)인플레에 의한 수출품산업의 활황에 의한 호경기때문인데 노동력의 수요·공급 양지간(兩地間)의 경제적 풍흉이 우연히 일치한 결과, 그와 같은 이상현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內地出稼의 推移와 그 進出助長性

1. 내지출가의 추이

이상은 제주도인의 내지출가에 대한 개요인데, 1934년에는 실로 5만명 이상, 전도주민의 25%나 되는 특색있는 출가공급지역을 구성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인의 출가는 극히 최근의 일에 속하는 것으로 그 급격한 증가발전도 드물게 보는 것인데 그 추이과정에는 4기의 경과가 고려될 수 있다.

a. 제1기 (메이지40년~다이쇼 2년 · 1907~1913)

이 기간은 자발적 출가기인데 제주도인의 내지출가 요람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 동안에는 섬의 행정구획상에도 이합개폐(離合改廢)가 있어서 그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섬안의 고노(古老) 및 내지

<표 1-7> 제주도비출가농가의 면별영농개황 (新右面자료를 제외)

인 최초의 이주자들인 장노(長老) 나카무라(中村鶴吉·長崎縣출신), 사이고(西鄕武十·對馬출신) 기타 몇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당시 기타큐슈(北九州), 세이부추우고쿠(西部中國) 및 기타시코쿠(北四國) 지방의 어선이 본도 근해의 좋은 (註)어장에 착안, 출어하고 한창 활약했었다.

원래 일반적인 어로에 익숙치 못했던 도민들은 그저 통어선(通漁船)의 활약에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통어선의 활약, 어선·어구·어법의 우수성에 자극되어 통어선에 편승해 어로견습으로서 내지도항을 한 것이 최초로서 그 수에 있어서도 1백여명에 불과했다.*

b. 제2기 (다이쇼 3년~11년·1914~1922)

전기(前期)에 대하여 유발적(誘發的) 출가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유럽대전의 발발과 함께 일본이 미증유의 공업발전을 보게되었고, 내지노동자와 직공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므로써 마침내 노동력을 절해의 고도인 제주로 구하기에 이르렀다.

즉 오사카방적공장 기타 회사의 사무원이 직공모집을 위하여 내도하고, 이에 응모해서 오사카로 도항한 제주도인은 우수직공으로 인정을 받아 수요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호황기는 더욱 계속되고 내지공업의 융성과 함께 다이쇼 8년(1919)에는 판신(阪神)공업지대로부터의 모집과 출가귀환자의 물질생활향상 및 내지소개(內地紹介)에 자극받아 많은 도항자를 보게 되었다.

한편 후쿠오카현 구라테군 신뉴무라(福岡縣鞍手郡新入村)의 미츠비시(三菱) 탄광회사원의 광부모집을 위한 내도가 있었고, 이것을 인연으로 기

---

* 註 : 항시 섬의 동쪽 성산포해안은 방어 정갱이, 남부 서귀포해안은 조기 고등어 방어 고래, 남서 가파도해안은 돔 벤자리, 북서 비양도해안은 참치 돔 가다랭이, 북부제주해협은 유명한 고등어의 어장으로써, 당시에 비해 어획고는 감소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조선 굴지의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타큐슈(北九州)의 공업지대로도 진출을 보게되어 다이쇼 11년(1922)에는 남자 3천1백98명, 여자 3백5명, 합계 3천5백3명의 출가자를 보기에 이르렀다(<그림 1-25>).

c. 제3기 (다이쇼 2년~쇼와 8년 · 1923~1933)

타성적(惰性的) 출가기라고도 부를 수 있는 시기인데 다이쇼 말기부터 직공모집원, 권유원의 내도는 끊겼지만, 정확한 통계가 있는 다이쇼 11년에 이미 3천5백여명의 출가자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당국의 알선도항자였기 때문에 대개 얌전하게 근무 · 노동하므로써 노동자로서의 좋은 자질을 구비, 반도부에 비하여 사회상태 풍속관습 등에 순박하고 선량했다. 특히 삼성(三姓)의 신화는 섬사람들에게는 내지를 「어머니 나라」라고 부를만큼 특수한 정조관계(情操關係)가 지배되고 고용자에게도 비교적 신용을 얻고 있었다.

뒤에 경제계는 불황내습과 함께 각사가 경쟁적으로 생산비절감을 기도하고 제품판매상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본도출가자를 저임금지향의 시대로 빠지게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저렴한 운임이 판제간(阪濟間) 거리를 시간적으로나 운임상으로도 현저하게 단축시켰다. 판제간 교통기관의 혁명이라고나 할까. 다이쇼 11년(1922)에 아마가사키(尼ヶ崎) 기선회사의 판제간 직통항로가 개시되고 동13년(1924)에는 조선우선의 판제간 정기항로가 개시되는등 오사카에의 도항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이쇼 13년에는 일약 1만4천2백78명으로 2년 전에 비하여 4배강이나 되고, 동년 귀환자는 5천1백7명으로 1년간 왕복 2만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더 나아가 14년(1925)에는 도항자 1만5천9백6명, 귀환자 9천6백46명으로 점증했다. 이래서 쇼와 2년(1927)에는 도항자 1만9천2백24명, 귀환자 1만6천8백63명으로, 실로 1년간 승선자가 약 3만6천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림 1-26> 제주도인 내지출가자의 연차변화와 송금액

그리고 쇼와 4년(1929) 4월에는 동아통항조합(東亞通航組合)이란 기선회사가 창립되어 동사의 용선(傭船) 「후시기마루(伏木丸)」가 취항함과 동시에 삼파(三巴)경쟁이 되고, 도내 11개 기항지로부터 오사카항까지 균일요금으로 식사비까지 합쳐 3엔이라는, 결손이 되는 파격적인 저렴균일요금제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어떠한 무학문맹자도 본고장에서 승선만 하면 2~3주야 뒤에는 직접 목적지에 상륙이 되고, 선배의 마중, 공제회의 알선 등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쇼와 4년에는 도항자가 2만4백18명, 귀환자가 1만7천6백60명으로, 약 4만명의 출가자왕복이 있게 되고 출가자의 우편국경유 송금액을 봐도 약 1백20만엔을 계상하기에 이르렀다(그림 1-26). 그러나 동아통항은 마침내 경쟁에 패배해서 쇼와 7년(1932) 후시기마루(伏木丸)은 폐항이 되고 현재는 조선우선회사의 「경성환(京城丸)」(1천39톤) 아마가사키(尼ヶ崎)기선의 「제2군대환(第2君代九)」(9백19톤) 등 두 척이 교대로 매월 3회씩 취항, 요금도 판제간(阪濟間) 8엔, 16엔의 2등급 균일제를 채택하고 있다.

출가이민이 게이한신(京阪神)공업지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노동력수요의 관계도 있지만 우선은 판제직항(阪濟直航)의 저렴하고 안이한 교통수단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기타큐슈에 가려면 한 번 오사카에 나가 하행항로(下行航路)에 편승, 석탄을 싣기 위하여 시모노세키(下關)에 기항하는 기회에 상륙을 해서 큐슈로 건너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또 오사카~시모노세키간 선임은 판제간 선임 8엔보다도 비싸다. 목포·여수·부산 등지 코스를 경유하는 경우는 섬과 반도간에서 이미 판제간 운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특정요금제가 한신(阪神)공업지대로 제주인 출가의 집단적 편재 분포를 가져오게 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d. 제4기(쇼와 9년 · 1934)

출가도항자는 매년 증가일로를 걷게되어 쇼와 8년(1933)에는 도항자가 2만9천2맥8명, 귀환자는 1만8천62명, 9년에는 실로 약 5만명, 전도인구

의 25%에 달했고, 더구나 4만1천여명이 가장 활력 왕성한 생산연령계급이었던 것이다.

이들을 도외로 송출함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노동력은 감퇴하고 노동력의 부족은 도내임금을 올리게 했다.

귀환자는 도회의 악풍에 익숙해서 귀농시의 노동능률감퇴를 가져오게 된다. 이때문에 현재 농가 1호당 평균경지 1정4반보를 겨우 1.5~2명이 경작하는 상태인 것이다. 더욱이 휴한지의 개량이용이 진척되면 1호당 28반보(內地 1호당평균경지의 2.8배)꼴의 경지가 되어 한층 노동력부족을 가져오게 되어 도당국은 유시(諭示)를 내려 도항을 막았다.

한편으론 12개 경찰관주재소에 시달하여 출가자를 엄선하고 자각적으로 도내에 머물러 있도록 신규식산개발을 지도하고 있다. 쇼와 8년 1월부터 9년 4월까지에 도항출원자 12만7백2명 가운데 도항유시자는 8만4천4백58명이며 출원자의 70%를 금지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만일 당국의 유시가 없었다면 구제불능의 결과가 일어날지도 모를 판이다.(<표 1-8>)

2. 출가의 動因 및 助長性

여기에는 경제생활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동인과 보다 좋은 경제생활을 바라는 생활의 발전이라는, 적극적 두 방면이 생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인의 내지출가동인(動因)을 2백60명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출가자 각 개인의 본질적 원인은 향토에 있어서의 경제상태의 적극적 동인에 유래되고 있으나, 그러나 전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출가의 왕성함을 가져오게 한 직접적 원인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다.

a.「계(契)」및 친족의 원조와 자극

어떻든 내지출가의 발단은 오사카나 기타큐슈의 공업지대로부터의 직공모집원의 내도에 기인하다고 하는 것은 기술(旣述)한 바와 같지만

<표 1-8> 제주도인 내지출가 출원자 및 출가諭示者數 (1933년 1월~9년 4월)

종별		出稼渡航出願者			出稼渡航諭示者		
연월 \ 성별		남	여	계	남	여	계
쇼와 8년 (1933)	1	4,086	2,187	6,273	2,745	1,072	3,817
	2	5,394	3,395	8,789	3,048	1,270	4,308
	3	5,568	3,428	8,996	2,580	778	3,358
	4	3,582	2,978	6,560	2,854	1,163	4,017
	5	3,360	1,579	4,939	2,388	760	3,148
	6	2,088	1,739	3,827	1,488	1,233	2,721
	7	3,780	3,150	6,930	3,156	2,627	5,783
	8	4,434	3,658	8,092	3,618	2,948	6,566
	9	5,388	3,290	8,678	3,764	1,940	5,704
	10	5,310	3,231	8,541	4,182	2,289	6,471
	11	5,602	3,362	8,424	4,048	2,517	6,565
	12	5,202	3,063	8,265	4,320	3,328	6,648
	계	53,254	35,060	88,314	38,191	20,825	59,016
쇼와 9년 (1934)	1	4,742	3,652	8,394	3,724	2,993	6,717
	2	5,421	3,216	8,637	4,758	2,851	7,609
	3	5,155	4,623	9,778	4,193	3,207	7,400
	4	2,453	3,126	5,579	1,552	2,164	3,716
	계	17,771	14,617	32,388	14,227	11,215	25,442
	누계	71,025	49,677	120,702	52,418	32,040	84,458

계 및 친족의 원조, 그 자극에 말미암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친족 및 계원중의 출가귀환자로부터 받은 자극과, 출가희망자에 대하여 그 도항여비의 융통, 취직, 숙박소 소개 등의 알선을 해주는 일은 출가를 두드러지게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 무일푼의 사나이라도 출가희망자에게는 인보(隣保)상부상조의 계(契)정신에서 융통이 되고 출가자도 출가여비의 융통에 대해 반제(返濟)했다는 이야기를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 사람의 출가귀환자는 재차 도항 때는 반드시 이웃 또는 지인(知人)을 유인(誘引), 몇 사람이서 출가도항을 했던 것이다.

b. 제주도공제조합 및 해녀조합의 활동

영농관계상 아무리 잉여노동력이 있어도 특히 언어를 달리하는 지역으로의 출가는 단순한 우인(友人)·지인(知人)의 원조만으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발전이 있게된 데에는 조합의 힘에 의한 것이 크다. 현재의 제주도출가자는 반드시 제주도공제조합원인 것이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도항이 허가되지 않는다. 조합은 본부를 제주도성내에, 그 지부(支部)는 오사카후히가시나리구 나카미치(大阪府東成區 中道)에 두고서 내지출가자의 취업소개 숙박소·주거편의의 알선, 근검저축의 장려, 위생사상의 보급, 풍속도덕의 향상 등 훈련을 실시했다.

이로써 노동자의 능률·소질을 높이고 또한 그것이 고용자를 격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c. 阪-濟間 직통항로

제주도는 절해의 고도에 위치해서 반도부(半島部) 경유에 의한 복잡한 교통로와 비싼 여비, 언어 풍습을 달리하는 내지에의 무학자진출 발전은, 판-제(阪-濟)간 직통항로의 정기개항이 큰 유도(誘導)를 이루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경쟁선박의 출현, 소위 3개 기선회사의 경쟁에 의한 파격적인 기선임(汽船賃)은 오사카에의 도항을 더욱 조장시켰다.

일본상공업의 심장부인 오사카로 가는 것은 조선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운임에 있어서 거리를 단축시켰으며 1932년에는 마침내 관부(關釜)연락선 운임보다도 싸게, 판-제간은 겨우 3엔이 되고 그나마 제주도 주위의 2백여㎞가 어느 항구에서도 균일요금제를 이루고 있다.

섬인 지리적 환경은 힘들이지 않고서 섬과 오사카를 연결시켰고 승선만 하면 오사카축항에 도착하고, 오사카잔교에 접안함과 동시에 선착자(先着者)의 출영을 받게 되고 공제회의 알선 등으로 쉽게 도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안(對岸)인 목포항으로 건너가는 것보다 간편하다고 여겨졌다.

d. 出稼地의 경제적 번영기에 投合

섬의 농업노동은 그 생산방법에 있어서 여전히 구법묵수(舊法墨守)가 많지만 종합적인 노동력의 잉여, 즉 장기간 농한기를 갖게 되는 위에 계·친족·조합 등의 원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더 나아가 출가지인 한신지방 공업계의 경제적 번영기에 투합된 점을 들 수 있다. 초기의 출가는 오사카 방적공장으로 부터의 권유원(勸誘員)의 내도에 시초를 두었으며 그 후 내지공업계는 다이쇼·쇼와 연대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보아 제주도인의 출가가 항시 공업계의 발전과 병행되었다.

즉 출가자수의 증감이 공업발전의 지표인 공업자본의 증감과 일치하였다. 일본은행의 조사에 의한 최근 5년간의 공업자본은 쇼와 4년도(1929) 5억2천6백60.6만엔, 5년도 2억3천3백55.9만엔, 6년도 3억2천11만엔, 7년도 1억9천1백81.5만엔, 8년도 4억6천5백93.6만엔 등으로, 증자(增資)의 최대 연도인 쇼와 8년도에는 출가자수에 있어서도 현저한 격증을 보게되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요컨대 출가지인 한신(阪神)지방의 다이쇼 에서 쇼와에 이르는 경제적 번영이 유인이 되고 양자를 연결시켜 주

는 값싼 한신간(阪神間)간 직통 정기항로가 열리면서 그 흡인력을 조장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출가자의 향토에 미치는 영향

1. 좋은 영향

a. 생활정도의 향상

5만여명의 출가자 중 그 대부분이 내지의 대상공업도시 특히 오사카의 공장노동자였다. 판제간 직항에 의한 교통의 발달은 매년 4만명 내외의 왕복자를 헤아리게 되었고 교통편과 교통비의 저렴은 왕복빈도를 많게 해서 월 1일과 16일의 돌아오는 항로에는 월말·월중의 정산임금을 손에 쥔 귀환객들로 배는 크게 붐볐다. 그리하여 이들 귀환자들에 의하여 생활정도의 향상을 보게 되었다. 생활정도 향상의 정밀한 측정은 어려운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그 향상이 두드러짐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생활정도의 향상은 음식물의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특히 소비되는 음식물의 종류를 변화시켰는 바 종래의 조밥(粟食) 및 보리밥(麥食)에서 쌀밥(米食)으로 바뀌나가게 되었다.

본도는 전체인구 19만6천9백49명 중 내지인이 1천3백13명, 중국인 60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역상태를 통해서도 분명히 생활정도의 향상은 인정되고 있다. 쇼와 8년도의 이수입(移輸入) 무역총액은 1백56만엔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백미 16만1천8백71엔(9천2백74석), 싸래기(碎米) 3만5천2백80엔(1천9백60석) 소맥분 10만5천엔(10만5천관) 청주 2만2천8백80엔(2백20석) 소주 1만7천8백80엔(5백90석) 맥주·설탕 2만6천7백3엔(14만7천6백94근) 기타 일용잡화류 직물 화장품 고무신 건축재료 등

인데 이수출(移輸出)총액 1백10만엔을 40여만엔이나 초과하고 있다.

쌀은 원래 논이 적어서 본고장 쌀산액(米産額)은 쇼와 8년 2만4천8백10석 중 벼(水稻)가 1만2백34석이지만 쌀생산이 없던 당시는 대부분 쌀의 이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본고장 쌀에 이입미 1만1천2백34석을 합치면 실로 3만6천44석을 소비하는 것이 되어 이 점에서도 생활향상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입초(入超)는 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근엔 항시 수입초과를 이루어 40~1백60만엔(쇼와 4년)을 나타내며 자급자족 경제체제로 부터 입초경제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또 예전부터 불완전한 음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좌면 회수리(左面 廻水里)에선 도내 최초의 계획으로 간이수도가 준공됐는데 이것은 귀환자의 발기에 의한 것이다.

이상은 직접 출가에 의한 생활향상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b. 출가자의 송금과 入超相殺

본도 출가자에 의한 우편국 경유 송금액은 통계가 있는 쇼와 원년(昭和 元年 : 1926)으로부터 동8년(1933)까지의 8년간을 보면 쇼와 원년의 송금액이 77만4천7백84엔, 쇼와 3년도는 급증하여 일약 1백28만7천1백40엔으로 1인당 평균 40엔에 달했다. 4년도에도 1백24만여엔, 7년도에는 68만5천1백55엔으로 감소했으나 8년에는 재차 증가해서 85만7천엔이 되었다. 이것을 월별 및 면별 금액(<표 1-9>)으로 보면 8년간의 송금총액은 약7백30만엔의 거액에 달하여 연액 평균 1백만엔 송금을 보였다. 이것들은 도민의 인습에 의해 대부분 지폐로 송금됐다.

더우기 출가자가 스스로 소지해서 귀환하는 금액을 합계하면 어쩌면 우송금(郵送金)의 배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도에 있어서의 내지 지폐의 유통은 극히 윤택해서 이 점에서도 지역성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생활정도의 향상을 수반하는 입초액(入超額)은 이들 출가금에 의해 상쇄(相殺)가 되고, 더욱 다소의 잉여상태를 보임으로써 실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c. 內地語(일본어)의 보급

카가와(香川)현의 면적에 필적하는 제주도, 그런데 내지인이 적은 지역인데도 내지어(日本語)가 잘 보급되고 있다. 육지부에선 보통학교 교육을 받은 청년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내지어를 잘 말할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본도에서는 어떠한 산간벽지의 오지에서도 잘 내지어가 이해되고 잘 말해진다. 내지인의 내지어와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있어서 청장년은 물론이고 교양이 없는 노인, 부녀자도 잘 내지어를 이해하고 내지어의 보급도 또한 딴 곳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인데 이는 내지출가에 의한 영향이 바로 나타나는 점인 것이다.

2. 나쁜 영향

a. 노동력의 부족

치열한 도항열에 자극된 잉여노동력의 도외유출 이상으로 가업을 버리고 향토를 떠나는 상태가 되므로써 농가 1호당 평균경지 1정4단보를 1.5명 내지 2명이 경작하는 상태까지 되어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상의 묘가 있는 농촌이 황폐되는 원인이 되고 광활한 경지는 텅 비게 황폐화하는 상태가 되었다. 한편 노동력의 과도한 유출은 노동임금의 현저한 고임금지향으로 빠져들고 농가경제의 파멸을 가져오게도 되었다.

b. 정신적 방면

출가에 따라 도시풍조에 익숙해지고 단순한 농촌생활을 기피하는 풍

습이 생겨남으로써 종래의 용감민첩한 근면 정신은 점차 근로를 억제하는 풍습으로 기울어졌다. 귀환자는 취성무위(醉醒無爲)를 일삼아 농업을 돌보지 않고 마치 휴양하러 귀환한 것 같이 되어 본래의 농한기 잉여노동력의 경제가치화 정신에 바탕을 둔 출가는 그 정신이 본말전도(本末轉倒)가 되어 향토의 미풍을 파괴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더우기 원래 제주도인은 절대 노동쟁의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으나 도항자의 격증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관계등으로 해서, 최근 사상계의 나쁜 기류에 번롱(飜弄)되기도 해서 민족적 편견과 계급적 사상운동에 편승된 마수(魔手)는 귀환자를 통해 도내에 전파되는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선박임검을 엄중히 하고 이동승선사찰원을 배치하여 극좌운동의 단속에 힘쓰고,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출가도항자를 엄선하기에 이르렀다.

c. 육체적 방면

출가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일보다 섬사람들이 육체적 방면에서 받는 결손은 상당히 큰 것이었다. 출가 개시이래의 정확한 조사는

<그림 1-27> 1934년 4월의 제주도인 내지출가자 질환자수

입수 안되고 있으나 1934년 4월 현재의 조사로 얻어진 자료에 의하면 질환자 총수는 2천8백95명으로 출가자 총수의 5.7%강을 나타내고 있다. 질병의 중류는 주로 11가지인데, 가장 많은 것이 풍토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각기병(脚氣病)으로 9백6명에 달하며 두번째는 폐결핵환자의 6백1명, 다음으론 위장병 2백93명 기타 소화기병환자 2백83명, 늑막염 2백71명의 순이며, 호흡기병 소화기병을 합쳐 50%강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이에 버금가는 것은 화류병(花柳病)환자의 1백49명으로 5.2%에 달하고 전염병인 악성환자가 많은 것은 도회지 출가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경향과 유사하다. 위생사상에 어둡고 앞에 말한 바와 같이 교양도가 낮은 출가자 및 섬사람들이 받는 병해는 예상이상의 것으로 판단되어서 섬 장래를 위하여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주도인의 內地出稼의 지리적 의의

이상 제주도의 지역성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섬사람들의 내지출가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중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최근 급격히 발전한 제주도인의 내지출가는 전 조선가운데 수위를 차지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역도 극히 편재적이어서 게이한신(京阪神)의 상공업도시, 특히 오사카에 가장 집중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 흡인력의 강대성에도 기인하지만 특히 특수교통계(交通系)가 그 분포상 두드러진 제약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출가공급지역에 있어서의 공급분포 현상의 보편성은 섬의 자연지리적 위치로서 화산지형 임해취락(臨海聚落)과 경지관계 등의 유사성 및 환해성(環海性)이 판제간 정기기선을 연안에 거의 등거리적으로 기항시키고 더 나아가 판제간 균일제 기선운임 채택에 따라 강력하게 유도되었다.
3. 출가는 본래 노동력의 계절적 과부족지역의 번한기가 다른 데에 기

인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노동력의 과잉지로부터 부족지로 기술의 이동 및 노력이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기술의 이동출가가 현저한 것은 어로출가·해녀출가·차잎따기출가·모심기출가 등이지만 본도인의 경우는 대부분 농업자출가로서 공장노동자가 주종을 이룬다. 이들은 노력을 제공, 계절적인 이동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4. 출가자의 성별상 초기에는 남자가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최근에 가까스로 여자가 남자수에 접근해 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양파모양의 청장년생산형을 나타내고 딴 출가이민지역의 연령구성과 유사하다.
5. 출가자를 공급하는 가정비율은 섬 전체호수의 64%에 달하며 1호 평균 1명 이상의 출가자를 공급하고 있음은 출가공급지로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
6. 출가는 향토문화를 높이고 생활정도의 향상을 가져오며 더 나아가 매년의 송금고는 백수십만 엔에 달해 향토에 있어서의 입초상쇄(入超相殺) 효과를 크게 했다. 출가자에 무학문맹이 많고, 자각없는 출가에 의한 노동력의 부족, 근농질박(勤農質朴)의 고유미풍이 파괴되는 현상도 많아졌다. 특히 출가공급은 수요지의 경제상태에 좌우되는 바가 많고 최근의 불황은 불온사상(不穩思想)의 이입매개자가 되고, 다른 한편으론 질병자가 해마다 증가해 심신이 함께 침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영향이 우려를 금치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당국은 마침내 출가의 제한, 엄선을 하기에 이르렀다.

출가의 완전한 발전은 노동력 수요지의 경제지리를 조사하고 그것으로 두 지역간의 노동력 수급관계를 명료하게 함과 동시에 한편에선 도당국이 기도하는 종래의 단순조방경작(單純粗放耕作)이 다각적 집약영농으로 나아가 노동력이 평균화되는 외에, 지리적 환경을 이용, 그전부터 개통된 판제항로의 이용으로 생산품의 중앙시장에의 이수출 및 출가초기의 정신에 입각한 우수소질자의 출가를 꾀해나간다면 섬의 발전은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항시 지도를 베풀어주셨던 다나

카(田中啓爾) 조교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함과 동시에 현지에서 갖가지 자료와 조사의 편리를 제공해 주신 제주도사 다구치(田口禎憙)씨, 미우라(三浦)내무주임, 고노(河野)서무주임, 그 밖에 다테노(立野角之助), 아리요시(有吉脩) 다치바나(立花正典) 최병묵(崔炳默)씨, 그외 도청의 여러분, 제주보통학교장 이케다(池田俊雄)씨, 서귀포 엔도(西歸浦 遠藤壽雄) 교장, 해녀조합이사 김근시(金根蓍)씨, 동 주임 마수다(桝田耕豊)씨, 제주경찰 야마다(山田至朗)부장, 동 사토(佐藤重太郎)씨, 서중면(西中面) 수기 모토(杉本幸一)부장을 비롯한 각 경찰관주재소장, 각읍면장, 동 사무소원 가바시마(樺島久治)씨 기타 도내유지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한다.

(쇼와 10년(1935) 6월 30일/濟州島人의 內地出稼에 관하여)

濟州島의 聚落

수년내 제주도에 관한 지지학적 연구에 뜻을 두고 그 결과는 몇 차례에 걸쳐 발표[53]~[60]했었다. 이 연구도 또한 그러한 연구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이 문제의 일부는 쇼와 9년(1934) 11월 오오츠카(大塚)지리학회대회에서 발표를 시도했다가 그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지금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으나 이 기회에 보고를 하고 많은 분들의 비판을 받고 장차 완성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다.

제주도의 취락문제에 관하여는 ① 섬의 집구조에 의한 지역성 ② 취락형태와 분포 ③ 취락발전과 그 이동 ④ 동족취락의 지리적 특수성 등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섬의 집구조의 지역성, 취락형태와 그 분포에 한정해서 논술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집 구조

1. 가 옥

본도의 호수는 4만2천여호에 달한다. 그중 조선인 거주 가옥은 4만1천8백호이다. 조선인의 직업별은 농·목업 약 3만8천3백호, 어업 1천5백호,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 가옥은 제주성내 및 서귀포·성산포에서 내지인이 경영하는 여관 기타 2~3호를 제외하면 모두가 단층집(平家)들이다. 그 배치는 구형(矩形)가옥 한 채씩, 2동 대칭(對稱)의 「二」자형, 3동의 「역ㄷ」자형, 혹은 「ㄷ」자형 및 4동 「口」형 등이다.

더욱이 동수 및 가옥의 대소와 빈부도(貧富度)는 내지에서와 같이 정비례하지만 족보를 존중해서 예로부터 분가제도의 절대적인 계속 실시로 해서 동족집단의 습속을 보지(保持)하기 때문에 동일대지 내의 동수의 다과에 부귀도(富貴度)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장 두드러진 가옥배치 양식은 「二」자형과 「ㄷ」자형이다. 「二」자형 배치의 가옥은 일반적으로 남북으로 대치하는 것이 많다. 이 경우 북측가옥은 안채(內棟 또는 內家) 남측이 부속가옥(바깥채 外棟 또는 外家)이다(그림 1-28).

1세대의 경우는 안채는 가장(家長) 주부 아이들이 살며 바깥채에는 연장자의 머슴방이나 작업방인 경우가 많다. 또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북측가옥이 본가, 남측가옥이 분가의 경우가 보통인데 대지 범위가 허용하는 한 이 형식이 채택된다.

「ㄷ」자형의 경우, 혹은 「역ㄷ」자형의 경우, 북측가옥이 안채, 남측이 바깥채로서 하인들의 방, 또는 작업실이 되며 동쪽 또는 서쪽 가옥은 협실(夾室. 안방에 딸려 붙은 방)이 된다. 「口」형의 경우는 북쪽에 안채, 동쪽에 사랑채, 서쪽에 협실, 사랑에 대치해서 하인실(작업실·창고) 등과 각 직능을 달리 하는 건물이 배치된다.

<그림 1-28>은 필자가 실지답사를 할 때 특히 호주의 호의에 따라

<그림 1-28> 제주도 농가구조와 배치

방 배치도를 작성한 것인데 그림을 잘 관찰해 보면 방의 배치와 집 구조등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가 있다.

반도부 가옥과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점은 온돌아궁이를 각각 별개로 갖고 주방 즉 취사장은 독립해 있으며 아궁이는 여러 개가 대소의 순으로 바르게 배열해서 밥짓는 화기를 온돌로 이용하지 않는 점이다. 특히 집구

조에서 주의할 점은 문로(門路 : 올래)가 직접 되모양(樣形)으로 되어있어서 안채가 직접 비쳐지지 못하도록 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가옥의 건축방식이 몹시 낮고 문짝틀 외에는 창이 없으며 채광은 충분하지가 못하다. 지붕은 새(띠 : 茅)로 덮고 기와집은 조선인의 한 마을에 1~2동을 헤아릴 정도여서 묘당이나 양반의 가옥에 한정된다.

함석지붕은 일본인이 많은 시가지 가옥이나 공장 등 성내에 비교적 많고 성산포 서귀포 모슬포 등지에는 극히 적었으며 농가는 전부가 초가이다. 30~40㎝ 두께의 새(띠)지붕은 표면을 띠로 만든 굵은 밧줄로 그물코 모양으로 묶어 견고하게 보이는데 반도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을 나타낸다. 사방의 벽은 문짝틀을 제외한 부분은 대부분 돌과 흙으로 만들어지고 지상에서 30~50㎝ 높이의 상판(床板) 또는 돌을 깔아 그 위에 진흙을 발라 한 편에 온돌아궁이를 마련하고 있다(<그림 1-28>).

2. 돌담(石垣)

다음 지역적인 특색은 가옥의 대소, 대지의 광협(廣狹)에 관계없이 매호 전부가 집주위에 병풍모양의 돌담을 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돌담의 높이는 보통 1.5~2m로 구조양식은 전도가 거의 비슷하다.

석재는 자연히 붕괴한 검은색 현무암의 각력(角礫)으로 대단히 거치른 자연상태 그대로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오오무라(大村)의 편상지상(扁狀地上) 취락의 담, 이즈하치조(伊豆八丈)의 호안옥석(護岸玉石)과 같은 둥근 돌맹이가 아니라 거칠고 모난 돌맹이를 쌓아올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돌담사이 구멍으로 내외양측을 엿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일견 불안정한 감이 있으나 역면(礫面)은 잘 짜여져 있다.

이 돌담은 단순히 민가만이 아니라 관청 학교 기타 공공영조물, 일본인주택까지 같은 양식이다. 그리고 가옥 뿐만이 아니라 묘지 밭 논등에

도 빠짐없이 돌담을 둘러치고 있는 경관은 이색적인 장관을 이루는데 도민들은 예전부터 생활의 대부분을 돌의 문화 건설에 바쳐온 듯한 느낌이다.

실로 돌담은 섬 고유의 문화경관이며 두드러진 지역특성이기도 하다.

3. 채수림(採水林)

집 주위에 심어진 방풍림은 무사시노(武藏野)의 농가, 레이하 평야(礪波平野)의 고립주택 마츠에 저지(松江 低地)의 민가주변 등 예거(例擧)할 겨를이 없다. 이들 방풍림과 외관이 하등 다른 점이 없지만 그 기능상으로 보아 오히려 채수림이라고 명명한다. 즉 물을 채취하기 위한 수풀이란 뜻이다. 필자도 답사 초기에 돌담 안쪽에 수목이 둘러 있는 것을 보고 방풍림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방풍적 요소에 대하여 갖가지 고찰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조사가 전지역에 걸쳐 실시됨에 따라 그 피상적인 관찰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방풍적 기능 혹은 방화적 기능까지 지니는 것이지만 채수림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히 채수림이란 말을 쓰기로 한 것이다.

방풍책으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가옥의 구조, 지붕 이는 법, 돌담 등의 모든 구조로 보아 매년 여름 가을에 내습하는 초속 40m 안팎의 강풍에 대하여도 충분한 것이다. 실지로 북제주의 해안지대에는 전지역이 대부분 무수목(無樹木)으로서 다만 검은색 현무암의 돌담과 황갈색의 둔중한 두꺼운 새지붕에 의해 강한 건조감(乾燥感)이 지배되지만 동부 및 남제주지역에 있어서 녹색으로 둘러쌓인 민가의 집단적 경관은 마치 오아시스의 쾌감마저 느끼게 한다.

필자가 이들 수목에 대하여 채수림이라고 부르는 연유는 취락입지의 기초요인인 음료수, 용수가 풍부한 북제주 해안의 모든 취락에는 집 안에 거의 수목이 없고 빈 집터 뿐인데 반하여 물이 풍부하지 못한 중간

해안지대의 취락은 이 수목을 이용하여 천수(天水)를 모아 음료, 기타 용도에 쓰는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

나무의 종류는 동백나무와 해변 비파수(枇杷樹)가 가장 많고 녹나무, 대나무숲 등도 있다. 그리하여 한 마을 동일종류의 수목을 심어 지리적으로 수종을 같이 한다는 것은 흥미가 있었다. 또 채수의 목적을 고도로 발휘하는 것은 동백나무인데 부산물로 동백기름이 나며, 따라서 동백나무는 많이 심게 된다.

수종에 따라 지역을 구분해보면 ① 해변 비파수의 채수림지구 ② 동백나무의 채수림지구 ③ 대나무숲의 채수림지구 등을 볼 수 있다. 더욱이 녹나무(樟樹)에 의한 채수림도 있으나 그 지역은 답사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차후의 조사로 미룬다.

① 해변비파수의 채수림지구

북제주의 해안지대는 대부분이 무수목지대이지만 동부로 옮겨갈수록 조천면 북촌 부근에서부터 점차 수목의 출현을 보게 된다. 나무 사이사이에도 비교적 성겨서 대부분 멀구슬나무이지만 여기부터 동쪽인 한동리(漢東里)·세화리(細花里)·하도리(下道里)의 별방(別訪) 등지는 해변비파수의 두꺼운 잎사귀가 무성하다. 나무의 높이는 지붕을 겨우 넘을 정도인데 주방 부근에 많이 심어지며, 특별히 바람의 방향과는 비교적 관계가 없어 보인다.

② 동백나무의 채수림지구

남제주 동쪽끝에 위치한 성산면은 앞의 지구와 인접하는 지역이지만 이 성산면은 주로 동백나무의 채수림을 이루고 있다. 그 가장 아름다운 미림(美林)을 이루고 있는 곳이 고성리(古城里)·수산리(水山里)·화남동(花南洞)·온평리(溫平里) 등인데 짙은 녹색의 미림이 갖는 경관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바라보는 감이 있다. 여기서는 탱크를 만들어, 한편으론 나무줄기에 새 또는 보리짚을 빙빙 감아 줄기로부터 흘러내리는 빗물을 모아 탱크나 항아리로 유도, 저수하는 양식이다.

또 남제주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서귀면의 신효리(新孝里)·하효리(下孝里)·호근리(好近里)·서귀리(西歸里) 등의 여러마을에선 수령 1백년 이상의 동백나무에 둘러싸여 미림이 집집마다 들어차 있었는데 간이수도 준공 후에도 여전히 동백나무 미림은 남아 있다.

③ 대나무숲의 채수림지구

남제주, 동쪽의 남원 표선 양면에서는 대나무숲에 둘러싸인 취락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표선면의 구룡동(九龍洞)·가시리(加時里)·위미리(爲美里) 등의 마을인데 필자가 전에 보고한 대만[61]의 지쿠이야(竹圍仔)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으나 기능은 다르다. 채수능력은 빈약하지만 취락경관상 대나무숲은 특색을 이루어 기후관계상 조선에서는 극히 진귀하며 남원·성산·표선 등지의 중간지대 여러 마을에 많다.

가옥구조 생성의 地理的 因子

단층집(平家)건축은 본도의 가옥에 국한되지 않고 반도부와 함께 조선인 취락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층집은 가옥건축의 초기에 출현하는 구조로서 기술이 유치하고 문화정도가 낮은 시대의 구조이며, 다른 한편으론 토지에 여유가 있는 경제기(經濟期)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선가옥의 단층집은 온돌에 의한 방한기구이며 그 가옥은 반도부에 비하여 한층 낮은 점에 내풍구조의 특색이 인정되는 것이다. 독립된 주방과 온돌아궁이의 구별을 제외한 그 밖의 것은 모두가

내풍적 구조인데 본도의 강풍은 널리 알려진 바로서 강풍일수는 1년의 약 3분의1이나 된다.

이 지역의 강풍에 대하여는 이미 「耽羅誌」에 삼다(三多)의 하나로서 기술된 바가 있다. 지붕이 새로 덮어진 것은 본도의 중간(中間), 산간(山間) 양 지대에 풍부하게 자생하는 새가 많은데 기인한다. 지붕을 바꿔 이는 일은, 반도부에선 벼 수확 후 새로운 짚으로 갈아 이어 같은 색으로 새로 갈아 덮은 산뜻한 지붕과 집 주위의 장작 울타리는 겨울에 볼 수 있는 특색있는 경관이기도 한데, 이 섬의 지붕들은 신구혼색(新舊混色)을 이루어, 지붕의 색깔에서도 반도부와 섬과는 차이가 생긴다. 이는 섬에서는 새(띠) 지붕이기 때문에 내구력이 커서, 몇 년만에 지붕을 갈게 되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 지붕에 새 끈으로 된 굵은 밧줄을 묶고 있는 것은 본도 독특한 내풍구조로서 밧줄의 굵기와 그물코의 대소에 따라 강풍구(强風區) 중의 강풍지역임을 알 수 있다.

집을 돌담으로 둘르는 것은 이시가키지마(石垣島 : 沖繩縣에 있는 섬)와 같이 강풍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지형, 지질보다는 석재 구입이 손쉬운 데에 따른 것이다. 물론 이것은 방풍기구이긴 하지만 본도의 중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의 방목우마에 대비한 것이란 것도 간과할 수가 없다. 더우기 가옥배치상의 입지에 대하여는 직업·풍습·동족분가제·풍수설 등의 여러 관점에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 당장은 무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독립된 주방과 온돌아궁이의 구별, 주방의 독립은 반도와는 그 취지가 다르고 내지(일본)농가의 양식과 흡사하다. 또 온돌 아궁이를 별개로 해서 취사화열(炊事火熱)을 이용 안하는 것은 반도에 비하여 월등하게 기후가 온난하고 온돌용 연료에, 농가는 물론 시가지에서도 대부분 우마분(牛馬糞)을 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마분은 들판에 방목되어 있는 7만여 마리의 우마로부터 쉽게 얻어지며, 마치 연탄덩어리 같이 그 화열은

온화한 섬 기후에 적합하고 보온시간도 오래다. 온돌입구를 옥외에 마련한 것은 방취책(防臭策)에 다름 아니다.

취락 형태

본도의 취락은 화산도인 자연지리적 제약과 그 거주지역의 지리적 제약을 받아 취락형태상에도 명료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대략 괴상형태(塊狀形態)를 이루는 것이 많아서 집단촌(塊村)·소상(疎狀)집단촌·산촌(散村) 등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그림 1-29는 육지측량부의 5만분의1 제주도지방도폭(濟州島地方圖幅)[62]에 필자의 답사에 의한 수정을 고려해서 1평방㎞의 방안(方眼)을 치고, 형태상의 구분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이것으로 본도의 취락이 형태적으로 현저하게 집단화된 현상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단촌(塊村)

집단촌은 북제주의 해안지대에서 남서 제주 일대에 걸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본도 집단촌의 경관은 마치 버섯의 군락을 보는 것과도 같은 느낌이다. 대지내부는 나무그늘과 공지가 부족하고 대부분 나가옥(裸家屋)만이 들어서 있다.

특히 지형관계상 취락내 도로망은 교통로·주거로가 모두 불규칙인 게 전도에 걸쳐 가장 많은 취락형태이다. 이는 취락입지의 기초적 요인이 되는 음료수와의 관계가 가장 큰 때문인데 용천에 의한 경우도 큰 마을 안에 용천이 2~3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취락입지상 샘 있는 곳과의 거리적 제약이 근저(根底)에 있다.

한편 예전부터의 분가제도에 의한 동족의 집단군거적(集團群居的) 습

성, 옛부터 악정(惡政)에 의한 강요, 과중과역(過重課役)을 피하기 위한 가옥구조의 응축, 왜구·해적방위상의 집결 등 역사성, 정곡(精穀) 기타 농산업상의 연자방아 설치를 위한 공동출자, 그 중에서도 최근 20~30년간의 경제기구의 변화가 섬의 경제중심대를 중간지대로부터 해안지대로 전이시킨 것이 집단촌 형성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대한 집단촌은 임계적(臨界的) 위치를 차지해서 한 마을 호수가 3백호를 헤아리는 것은 북제주지역에 가장 많다. 다시 말하면 제주읍내의 제주·화북, 애월면의 애월·하귀·한림면의 한림, 구좌면의 동김녕·서김녕·월정·평대·세화·하도, 조천면의 신촌·조천·함덕 등이며 남제주에선 대정면의 모슬포가 유일하다.

이상 여러마을은 모두가 바다에 임해 있어 해안일주환상도로를 따라 발달하고 있다. 임해지역이 아닌 곳은 애월면의 납읍이 유일하다.

남제주 동반부에는 1개 취락 3백호를 갖는 대집단촌은 한 곳도 없다. 3백호 이하의 소집단촌도 여전히 북제주에 많고 어느 것이건 북제주의 비임해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2. 성곽집단촌(城郭塊村)

집단촌중 특수목적에 의하여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취락이 있다. 본도의 수읍(首邑)인 제주 및 대정면의 대정(안성리·보성리·인성리) 성산면의 정의(성읍)에는 각각 그 주위에, 제주는 원진(円陣), 다른 지역은 방진(方陣)으로 높이 3m에서 5m의 성벽을 갖고 보호되고 있으며 성내에는 경비신·수호신으로서 세워진, 현무암으로 조각된 장군입상(주=돌하루방)이 남아있다. 제주성벽의 일부, 중앙을 횡단하는 도내일주도로 이북은 산지항 축항 매립공사 때에 헐어서 매립용으로 사용했고·성벽터는 개수되어 반환상도로(半環狀道路)를 이루고 있다.

3. 소상집단촌(疎狀塊村)

이 형태는 남제주에 두드러지게 많은 현상으로, 그중에서도 서귀면 이동(以東)지역에 많다. 집집마다 돌담 안에는 비교적 넓은 공지를 갖고 동백나무를 비롯하여 해변비파수, 과일나무, 기타 수목으로 덮여 있으며 집터 주위에는 면적의 광협은 있으나 박하 제충국 뽕나무 등의 특수작물이라든지 양봉 등으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단원(單元)으로 한 가옥이 주거로(住居路), 소로촌망(小路村網)으로 연결돼 한 덩어리의 취락을 구성하고 있다. 서귀면의 서호리(西好里)·호근리(好近里)·서홍리(西烘里)·동홍리(東烘里)·토평리(吐坪里)·서호리(西好里)·하효리(下孝里)·보목리(甫木里) 등은 울창한 수목에 둘러싸인, 그 대표적인 곳이다.

음료수에는 용천·천수(天水)·간이수도 등의 여러 형태를 볼 수 있지만 듬성듬성하게 이뤄진 요인은 일찍이 유림(儒林)마을이었던 점, 각호별로 음료수를 천수(奉天水)에 의지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목사시대의 관도(官道)는 제주성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애월면의 원(院)을 거쳐 대정으로 통하고, 또 동남쪽 정의에는 조천면의 원동(院洞)을 거쳐 직통하는데 반하여, 남부는 관도에 멀리 떨어져 있어 그 구석진 곳에는 목사를 비롯한 관원의 왕래를 드물게 해서 착취의 손길이 뻗쳐지는 일이 적어 가옥구조도 자연히 커지게 되고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4. 산촌(散村)

산촌은 중간·산간지대 및 남제주의 남원면 지역 등의, 바다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표고와 경사도가 큰 표토층이 엷은 지역과 일치한다.

남원면 기타지역에 있어서도 표고 4백m 부근의 비교적 평탄한 곳에

산거(散居)하는 먹물(墨旨)에 4호, 장구못(長鼓池) 12호, 두수악동(斗數岳洞) 5호, 마체동(馬體洞) 6호, 다시 그 동북쪽의 표선면에 속하는 신비지동(新榧旨洞), 상비지(上榧旨), 영아동(靈峨洞) 등은 어느 곳이나 한라산 남동사면 중허리의 비교적 평탄면에 분포한다.

산거(散居)[63]는 개간을 의미하고 인류거주 본래의 성질의 것이라는 견해가 발표된 바 있으나 앞에 말한 산촌취락은 구정시대(舊政時代 : 일제 이전)의 이른바 화전마을로서 전술의 집단촌 소상집단촌 등의 집단적 생활형태와 떨어져서 자급자족의 고립경제생활이 행해지고, 화전금지후는 그 명맥유지책으로 경(耕)·목(牧)을 주로 하여 아직도 원시적 생활이 행해지고 있다.

중문면 관내의 표고 6백m 이상의 상문동(上文洞)·법정동(法井洞)·녹하지(鹿下旨), 북제주 애월면의 원(院)18호. 상화전(上花田)10호 대정면 고촌동(孤村洞), 한림면 상수동(上水洞), 애월면 어음리(於音里)와 같은 곳은 데라다(寺田)씨의 산거입지(散居立地)에 대한 견해와는 전혀 상반해서 기존 소상집단촌(疎狀集團村)이 최근 20~30년간의 경제기구의 변화에 따라 해안지대로 이동한 결과 잔류농가가 산거형태를 이룬 것으로 노년기취락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중간·산간지대에는 이같은 종류의 산촌이 많이 발견된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본도취락의 이동문제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5. 무주거지역

이 지역은 표고 6백m를 한계로 하는 한라산 중허리 이상의 지역으로 경사도가 크고 또한 임야국(林野局)의 관리에 속해 있어서 요존림(要存林)으로서 삼림지대를 형성, 거주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또 동부 및 서부지역은 용암원(熔岩原)을 이루고 용암의 풍화가 진행되지 않아 음료수가 부족한 지역인 것이다.

취락분포의 특색

이상과 같이 취락분포를 볼 때 토지이용상으로 본 4지대 중의 해안지대에 전도 취락의 75%가 위치하고 그 중에도 해안선 약 2백50㎞를 따라 수읍 제주읍을 비롯 74개 취락집단촌 및 소상집단촌이 분포해 있다. 그리하여 북제주에 52, 남제주에 22개가 환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다시 그 안쪽 해안으로부터 3~5㎞의 지역, 즉 환상일주도로 또는 그보다 안쪽 2~4㎞의 지역에 나머지 대부분이 분포해 있다. 그 내륙도(內陸度)는 남제주의 서귀·중문 및 남원의 여러 면에 적고, 서귀·중문 양면의 경우 소위 고립적 산거취락을 제외하면 3㎞ 이내의 내륙에 그친다. 북제주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내륙도(內陸度)가 커서 제주읍·애월·한림·조천면 등은 5~6㎞의 지역에 있어서도 비교적 많은 취락분포를 본다. 특히 서부의 애월면에서는 최대 11㎞에 이르는 지역이 있다. 이와 같이 전자의 임해환상취락 분포대에, 그리고 그 안쪽에 제2환상취락 분포대를 볼 수 있고 다시 그 안쪽에 산거적 고립취락이 제3환상대를 이루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것들이 토지이용상의 해안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의 각 3개지대와 거의 일치한다. 취락의 대소는 해안에서 내륙에의 거리에 반비례 한다. 표고 6백m를 한도로 해서 상부는 사원(寺院) 및 버섯재배용 오두막 등 계절적 거주의 특수취락을 제외하곤 무거주지역으로 점차 옮겨갔다. 이러한 현상은 취락입지의 자연적 요인인 음료수 즉 용천, 용암의 풍화도(風化度)와 경사도, 해발고도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聚落立地와 음료수

1. 음료수

전술한 바와 같은, 특색있는 취락분포를 결정하게 된 제1요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바는 음료수 문제이다. 상부의 삼림지대를 제외하면 거의가 무수목지(無樹木地)를 이루고 화산암이 전도를 덮어 표토는 극히 얇고 지상(地相)은 반사막의 경관을 나타낸다. 하천도 대부분은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학갈류(涸渴流)로서, 대부분은 속으로 흘러서 용암의 깨진 곳이나 화산의 사력(砂礫) 속으로 침투해 해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솟아오른다. 따라서 해안에서 가장 많은 용천을 볼 수 있다.

필자가 해안지대에서 세어본 용천은 1백62개소의 많은 지역에 달했으며 점차 내륙으로 나아감에 따라 용천은 감소하고 주민은 음료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본도의 음료수는 원시적 형태에 속하며 지역적으로 채수방법을 달리한다. 채수양식상으로 용천(湧泉)사용지역·우물물(井戶水)사용지역·천수(天水)사용지역·간이수도지역의 4지역으로 대별된다.

(1) 용천(湧泉)사용지역

이 지역은 임해지역에 있으며 대집단촌지역과 일치해서 전기 70여개 취락을 포함한다(<그림 1-30>). 용천이 나오는 곳은 자연 그대로여서, 아무런 인공시설도 하지 않은 곳이 많고, 취락입지의 발생적 형태가 발견된다. 대집단촌에 있어서의 용천 주위는 현무암의 돌담을 두르고 용출구 가까운 곳은 음료수 취수전용장, 조금 떨어져서 하류엔 빨래터·목욕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해안에 접해있기 때문에 물때(潮時)를

계산해서 음료수의 운반과 세탁 등에 종사하며 물 때문에 활동하는 경우가 상상이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취락발달의 핵심이 용천에 있기 때문에 용천부근은 대개 양반, 구가(舊家)가 많고, 땅값도 용천의 거리에 반비례해서 평가된다.

물을 운반하는 거리는 1㎞, 멀리는 2㎞나 되고 더우기 거의가 부인에 한하며 물허벅을 대나무바구니로 지어 나르는 풍습은 본도 특유의 지역성이다. 제주성내와 같이 일본인이 약 7백명이나 많이 있는 수읍에서는 조선인의 물장수가 출현, 쇼와 9년과 10년의 각 8월에 조사한 결과로는 용천을 핵으로 해서 운반거리에 따라(석유초롱 1통의 물값이 1전에서 4전까지) 4등급의 등치구(等値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청부근은 실제로 4전구(錢區)로 되어 있었다. 이 마을에는 두 흐름의 용천대가 존재한다. 즉 동부의 산지천(山地川), 서부의 병문천(屛門川)인데 모두 연안지역이다.

두 하천이 모두 간헐적 학갈류인데 하구는 조석간만을 예민하게 탄다. 가장 풍부한 용천지대는 전자인데 제주신사(濟州神社) 언덕 밑(현재의 동문로터리 북쪽)의 삼천수(三泉水)는 그 대표적인 것이며 주민들은 대부분이에 의존한다. 다시 하류의 건입리(健入里) 산지다리 근처의 용천, 또 그곳으로부터 하류 우측 강 밑에 2개소, 발전소 부근에 7개소, 삼천수 남쪽에도 2개소의 용천을 볼 수가 있는 바, 삼천수는 질·양 모두가 우수해서 시가지 중앙에 가까운 점에서 이용도가 높다. 병문천의 용천은 질·양 모두가 떨어진다. 따라서 성내에서는 용천대(湧泉帶)가 두드러지게 동쪽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⑵ 우물물(井戶水) 사용지역

우물물 사용지역은 극히 범위가 한정돼 있다. 신정 후(新政 後 : 일정통치 후를 말함) 내지인의 입도자 증가에 따라 위생 기타 견지에서 인공적으로 우물을 파서 음료수 기타 용도로 공급하고자 굴착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용암이 두껍고 암반굴착도 쉽지 않아서 기술·노력·비용 여러 점에서 제주성내나 성산포 등지에 한정되고 내지인 거주지와 일치하는데 우물의 보급은 전도가 요원한 상태이다.

ⓐ 성내 도청중심구

도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도청구내에 2개의 우물이 있으며 제주보통학교 북동쪽과 그에 인접한 연초전매국(煙草專賣局) 제주출장소 구내의 남쪽 및 동쪽(20~1호 地內), 같은 지역 동쪽 등에 3개소가 있다.

기타 무선전신국 구내, 제주우편국, 그 남쪽의 자동차회사 등에 우물이 있어서 음료 기타 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여름에 고갈돼서 여전히 용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산지천 연안구(山地川 沿岸區)

제주성내 동쪽지역에 있는데 산지천 좌안(左岸)에 3개 및 서쪽 식산은행사택 구내, 남쪽의 도립병원장관사, 우안(右岸)환상도로 북쪽 등에 있는데, 우안의 용천지구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 지역은 산지천의 사행부(蛇行部 : 꼬부라진 부분)인데 그 복류수의 침투로 우물물은 풍부하고 양질이다.

ⓒ 남서지구

성내의 남서부 즉 제주심상고등소학교(濟州尋常高等小學校) 및 도립의원 구내에 각 한 군데 우물이 있어 사용중이다.

ⓓ 성산지구

본도의 동쪽끝 성산포지역으로 내지인 30호(96명) 조선인 1백64호(7백50명)가 살고 있는데 서귀포 다음의 도내 제3위의 내지인 다수점거지역이다. 화산도인 성산(城山)을 연결하는 모래톱 위에 위치하나 용천은 없다.

이곳에는 옛 우물(古井)이라고 칭하는 전설의 영정(靈井)이 있어서 예전부터 주민들은 여기에 의존, 도내 최고(最古)의 우물사용지역이 되고 있다.

메이지 44년(1911) 이후 내지인의 증가에 따라 우물파기가 차례로 이루어져서, 내지인 개인용 우물 9, 조선인 개인용 1, 공동우물 1, 공동세탁용 우물 1 등 합계 12개의 우물이 있다.

우물의 상층 2m는 흑색롬, 다음층 5~6m은 황색자갈, 이어서 적색점토에 이른다. 이것이 점토대수층(粘土帶水層)인데 깊이는 7~8m, 수심이 1m를 넘는 것은 거의 없다.

이 지역에 특히 우물이 많은 것은 첫째 지질관계상 우물파기가 용이하며 노력·경비가 많이 필요치 않은데 따른 것이다.

⑶ 천수(天水)사용지역

이 지역은 제2환상취락분포대와 대부분 일치한다(그림 1-30의 A_2, A_2', A_2''). 잡용수(雜用水)는 물론 음료수도 전부 천수에 의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우수채집(雨水採集)의 방법에 관해서는 암반의 오목한 곳(凹狀), 점토층의 오목한 곳에 담겨진 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매우 원시적 자연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질·지형이 좋지 못한 지역에 있어서는 우기에 천수를 항아리에 담아 저수한다. 채수방법으로 수목에서 우수를 구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정의면 수산리에서는 다이쇼 10년(1921)에 이미 개인용 탱크가 설치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공동용탱크를 마을안 3개소에 마련, 각 탱크 소속자는 집집마다 수목으로 부터 빗물을 모아 공동탱크에 반입, 건기(乾期)의 사용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 탱크는 1930년 경비 8백엔을 공동지출해서 1천석들이를 만들고 이어서 1933년과 1934년에 같은 용적의 것을 1개씩 증설하였다. 이렇게 해서도 아직 갈수기에는 멀리 4㎞의 용천지

대로부터 음료수를 운반한다.

⑷ 간이수도지역

남제주의 중앙부 한라산 남사면에 위치한 서귀면해안에 입지하는 서귀포 및 제2환상취락분포지대에 위치한 호근리(好近里)·토평리(吐坪里)·하효리(下孝里)·신효리(新孝里) 등 소상집단촌을 포함한다(그림 1-30B).

ⓐ 서귀포지구

서귀포는 섬의 최남단 용암말단(末端) 위에 있다. 본도 최초의 수도설치구로, 도내 제2의 내지인 다수 거주지가 되었다. 내지인 61호(2백18명), 조선인 4백56호(1천6백92명) 기타 8호에 급수를 해주고 다시 춘추 두 우기에 집중하는 내지통어선에 급수하는 상태이다. 이 수도가 창설된 것은 다이쇼 15년(1926) 5월로서 본도개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이고(西鄕武十)옹 등의 공적에 힘 입은 바 크다.

ⓑ 好近·西好里 지구

서귀포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두 마을 합해서 4백40여호, 내지인 거주자는 4호이다.

산록평탄면(山麓平坦面)에 입지해 집집마다 울창한 동백나무 노수에 둘러싸여 있고 넓은 대지를 지니고 있는 표준적 소상집단촌으로 극히 부유한 경관을 보이지만 음료수는 부족하다. 수목(樹木)으로 우수를 모으고 갈수기에는 동쪽 1~2㎞의 연외천(淵外川) 골짜기의 용천 및 남쪽 약 1㎞의 용천에서 물을 구한다. 그러나 앞에 말한 서귀포와 인접해 있고 내지출가 귀환자의 생활향상의 영향은 수도 건설을 촉진하게 되고 공비 8천엔을 투자, 북쪽 5㎞, 표고 5백m의 용천에 수원을 구해서 쇼와 2년(1927) 7월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 서귀면 동부지구

토평·하효·신효의 3개리 8백81호를 일단으로 하는 지역인데 동백나무 노수(老樹)로 집집마다 둘러싸여 있는 소상집단촌으로 다각산업(多角産業)이 발달해있는 모범적 산업부락이다.

종래 음료수를 토평리는 천수로, 신효리는 천수 및 효돈천(孝敦川)의 용천에 의존했으나 북방 표고 4백m 미악(米岳) 동쪽기슭의 용천을 수원으로 이용할 것에 착안, 전기 두 지역의 인접자극(隣接刺戟)과 내지출가귀환자의 촉진운동이 공을 이루어 지방민으로서는 거액인 1천5백엔을 투자, 쇼와 7년(1932)에 완성을 보기에 이르렀다.

姓으로 본 취락의 발달

제주도에서의 조선인 세대수는 4만7천39호인데 이들은 성(姓)의 종류[64]가 겨우 67종으로 포괄되고 있다. 조선의 성 종류 총수[65]가 2백50종임에 비하면 30%강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도내의 대성(大姓)[66]은 김(金)씨의 1만1백85호를 필두로 고(高)씨의 4천1백45호, 다음으로 이(李)씨 3천5백27호, 강(姜)씨 2천7백62호, 양(梁)씨 2천3백58호, 강(康)씨 및 오(吳)씨 각 1천4백63호, 문(文)씨 1천1백44호, 박(朴)씨 1천2백69호, 송(宋)씨 1천1백59호, 홍(洪)씨 1천1백14호 등의 순위이다.

이들 대성은 전 조선에 있어서의 대성의 순위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지만 고(高)씨의 전체순위 제22위가 제2위로, 양(梁)씨의 제25위가 제5위로, 강(康)씨의 제36위가 제6위인 점 등이 본도 성에 나타난 특색인데 이는 梁高夫의 3성[67]이 제주도를 본관으로 하는 성이기 때문이다.

이 3성 이외에는 모두가 육지방면으로부터의 이입자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조선의 성은 원래 중국의 모방인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아직 성을 칭하지 않았었고 「삼국사기(三

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사(記事)는 후세 신라에 당문화의 영향이 커지고 중국세력의 지배를 크게 받게 됨으로써 그 왕가가 한성(漢姓)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처음으로 학자들에 의해 작성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많다.

신라 고려 이조로, 사대주의가 강한 조선민족은 모두가 한성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중국의 저명한 성을 내세우는 것이 유행했기 때문에 조선의 여러 성과 중국의 성보(姓譜)를 비교해 보면 일치하는 것이 대단히 많아서 대국추수(大國追隨)의 사상과 저성(著姓)숭배의 관념보다 선조의 역사가 미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조선의 성은 그 종류가 몹시 적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저성(著姓)에 속하는 자가 극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필자는 본도 취락의 발달을 문헌에 의해 알아보기 위해 이들 여러 성씨가 소유하고 있는 족보를 갖고서 조사를 실시했다. 물론 성의 제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신라 이후에 속하며 제정 전에 이미 본도에 취락이 발달했었음은 상상이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문헌에 의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족보법을 채택하고 양고부(梁高夫) 3성 이외는 도외로부터의 이주를 전제로 해서 전도 각면의 협력으로 족보 조사를 시도한 것이었지만 쉽게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겨우 중문면에서 불충분하지만 조사를 했는데 그 요점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 江汀里

○ 尹(本貫 坡平). 15대조(中宗때 윤빈) 윤빈(尹斌)이 선전관(宣傳官)의 관직을 갖고 입도, 제주성내에 거주, 7대조 윤부석(尹富碩)은 지금으로부터 2백여년 전에 강정리에 들어가, 오늘에 이른다. 지금의 후손 윤대언(尹大彦)은 농사에 종사한다. 현재 살고있는 동문족 76호.

○ 高(濟州). 시조 고을나(高乙那) 46대손 고말로(高末老)에 이르러 왕위

를 잃고 고말로의 16대손 고대필(高台弼)은 제주성내로부터 구우면(현 한림면) 명월이로 이주, 지금으로부터 2백여년전 8대조 고득열(高得悅)이 강정으로 옮겼다. 현대손(現代孫) 고운길(高雲吉)은 농업을 영위함. 현주(現住) 동문족 56호.

○金(金海). 김은 같은 김해(金海) 본관을 갖지만 혹은 2~3대 전 혹은 5~6대 전 대정면·애월면·제주읍 등지로부터의 내주자(來住者)임. 집단적 친족관계를 갖는 자 소수임.

김씨의 합계는 58호,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람은 8대 전에 대정면 일과(日果)로부터의 내주자로, 현대손은 김진호(金眞浩)라고 칭한다. 농목업에 종사한다.(傳說 청취)

● 道順里

○李(全州·古阜). 전주 이씨(全州李氏)는 13대조 이수형(李樹馨)이 지금으로부터 3백90여년전에 육지로부터 입도 제주성내에 거주, 그후 8대조 이태림(李太林)은 2백40년전까지 송리(宋里 : 현 中文面 道順里)에 내주, 현대손을 이봉천(李奉千)이라 부르며 동문족은 28호.

고부이씨는 15대조 이세번(李世蕃)이 3백50여년전 지(池)씨, 임(林)씨 등 3명이 함께 육지로부터 입도, 대정면 도원리(桃源里 : 舊頓浦)에 거주. 11대조 이광립(李光立)은 좌면 예래리(左面 猊來里 : 현 下猊里)로 이주. 그의 동생 이광신(李光信)은 분가해서 중면 감산리로 이주, 2백여년 전의 7대조 이종영(李宗英)은 도순리에 내주, 현대손 이용왕(李鏞王)은 농업을 함. 동문족 25호.

● 河源里

○金(慶州, 光山, 金海). 경주 김씨(慶州金氏)는 지금으로부터 4백년전(李朝太宗시대) 18대조 김검룡(金儉龍)이 육지로부터 입도, 정의면(현 城山面) 오

조리(吾照里)에 거주, 그후 10대조 김상묵(金尙默)은 지금으로부터 2백50년 전에 하원리로 내주, 현대손 김기항(金基恒)은 농업에 종사함. 동문족 32호.

광산 김씨(光山金氏)는 고려말인 지금으로부터 5백여년전 19대조 김윤(金允)이 육지로부터 입도, 구좌면 김녕리에 거주, 그후 8대조 김최량(金最良)은 약 2백년전 하원리에 내주, 현대손 김필규(金弼圭)는 농업에 종사함. 동문족 23호.

김해김씨(金海 金氏)는 3대조가 약 50년전에 신우면(현 涯月面) 어음리로부터 하원리로 내주, 현대손 김치형(金致亨)은 농목업에 종사함. 현재 동문족 8호.

● 大浦里

○金(金海), 대포리의 금씨는 본관이 같은 김해로 2파가 있다. 하나는 11대조(이름 불명)가 약 3백년 전에 육지로부터 제주면 노형리로 내주, 그후 7대조 김흥대(金興大)는 대포리로 이주, 현대손 김항원(金恒源), 동문족 30호.

다른 하나는 10대조가 약 3백년 전에 육지로부터 대정면 일과리로 내주, 그후 7대조 김미추(金米秋)가 2백여년전에 대포리로 내주, 현대손 김천(金千). 동문족 33호.

○李(古阜). 13대조 이세번(李世蕃)이 약 3백50년 전에 육지로부터 입도, 대정면 일과리에 거주. 그후 6대조 이인시(李仁時)는 대포리로 내주, 현대손 이재영(李在永). 농목업에 종사함.

● 河源里

○姜(晋州). 본관이 동일한 진주(晋州)이지만 2파가 있다.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4백년전 16대조 강위량(姜渭亮)이 육지로부터 입도, 제주성

내에 거주, 그후 12대조 강계남(姜繼男)은 가락리(加樂里 : 지금의 涯月面 上加里)에 거주, 10대조 강두일(姜斗一)은 같은 면 어도리로 이거, 6대조 강시응(姜時鷹)은 1백90년 전에 안덕면 감산리로 이주, 그의 4남 강만화(姜晩華)는 약 1백40년 전에 하원리로 내주, 현대손 강상옥(姜尙玉). 동문족 23호.

다른 일파는 약 3백50년전에 13대조 강인호(姜仁浩)가 육지로부터 입도 대정면 일과리에 거주. 10대조 강부웅(姜富雄)은 2백년 전에 하원리로 내주, 현대손 강은중(姜恩重)은 농목업에 종사한다. 동문족 45호.

● 廻水里

○李(古阜). 지금으로부터 3백50년 전 현대손 이정희(李正喜)의 15대조 이세번(李世蕃)이 육지로부터 입도 대정면 도원리에 거주, 약 2백30년 전 11대조 이광립(李光立)은 중문면 예래리(현 上猊·下猊里)에 내주, 2백년 전 10대조 이함(李瑊)은 중문면 대포리로 내주, 지금으로부터 1백70년 전 대포리로부터 분기(分岐)해 중문리가 되고 그후 85년 전에 중문리로부터 분기해 회수리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는 동문족은 47호.

● 中文里

○李(古阜). 회수리(廻水里)의 이씨와 동문족으로서 현재 동문족은 1백10여호.

○金(金海). 약 3백50년 전 14대조 김신명(金信明)은 육지로부터 입도, 대정면 도원리에 거주, 지금으로부터 2백90년 전 제12대조 김영손(金永孫)은 안덕면 사계리로, 1백80년전 8대조 김상추(金尙秋)는 중문면 도순리로, 약 1백년전 5대조 김치영(金致榮)이 이 마을에 내주했다. 현대손은

김승채(金承彩). 동문족 30호.

○金(光山). 지금으로부터 4백년전 16대조 김모(金某)가 육지부로부터 입도, 표선면 토산리에 거주(중간 未詳). 지금으로부터 2백여년 전에 8대조 김모(金某)가 성산면 수산리로 부터 이 마을에 내주, 현대손 김병수(金丙洙). 동문족 15호.

○金(慶州). 지금으로부터 4백년 전에 현대손 김성수(金性洙)의 18대조 김검룡(金儉龍)이 육지로 부터 입도 구좌면 종달리에 거주, 3백20년 전에 14대조 김자식(金子植)이 남원면 의귀리에 내주, 1백50년 전 6대조 김화필(金華弼)은 중문면 중문리로 내주하고,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는 동문족은 20호.

○金(金海·光山·慶州)씨 성을 가진 자로서 선조의 파가 모두 다른 사람이 30여호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었다.

● 穩達里

○金(金海). 지금으로부터 5백년 전에 현대손 김여권(金麗權)의 22대조 김경흥(金景興)이 육지로부터 입도, 제주성내에 거주, 약 3백년 전의 15대조 김신방(金信邦)은 안덕면 사계리에 거주, 60년 후의 10대조 김경인(金耿仁)은 중문면 예래리에 내주, 1백80년전의 8대조 김기철(金起哲)이 이 부락에 내주함. 현재 거주하는 동문족은 53호.

○金(慶州). 지금으로부터 5백년 전 현대손 김희진(金喜珍)의 21대조 김모(金某)는 육지로부터 입도, 남원면 의귀리에 거주, 1백70여년 전에 7대조 김모는 이 부락에 내주. 현재 거주하는 동문족은 26호.

● 上猊里

○姜(晋州). 지금으로부터 4백년 전 현대손 강승록(姜升祿)의 16대조 강

해(姜海)가 입도, 안덕면 사계리에 거주. 그후 9대조 강위보(姜渭輔)는 3백년 전에 중문면 예래리(현 上猊里)에 내주. 현재 거주하는 동문족은 68호.

○金(金海). 지금으로부터 3백80년 전에 현대손 김윤찬(金潤燦)의 16대조 김복모(金福謨)가 육지로부터 입도. 도내 산금(山今)의 정실동(井實洞 : 현 제주읍 吾羅洞관내)에 거주. 그후 13대조 김눌보(金訥輔)는 제주면 이승리(利承里 : 현재의 海安里)로 이주, 8대조 김우선(金遇繕)은 애월면 납읍리로 이주, 6대조 김효택(金孝澤)은 2백년 전에 중문면 성산리(城山里 : 현 上猊里)로 내주. 현재 거주하는 동문족은 6호.

○金(光山). 지금으로부터 5백50년 전에 현대손 김원지(金元枝)의 18대조 김윤조(金胤祖)가 입도해 성산면 고성리에 거주, 그후 9대조 김진용(金晋鎔)은 제주면 명도암(明道巖 : 현 奉蓋里 부근)에 내주. 6대조 김계융(金繼隆)은 신우면(현 涯月面) 광령리에 내주. 2백년 전의 6대조 김윤희(金胤禧)는 중문면 예래리에 내주, 현재 거주하는 동문족은 30호.

○金(延安). 지금으로부터 4백년 전에 현대손 김영호(金永好)의 15대조 김안보(金安寶)가 육지로부터 입도, 제주면 일도리에 거주, 약 2백년 전에 6대조 김성시(金聖時)는 이 마을에 내주, 현재 거주하는 동문족은 5호.

이 밖에도 본관이 김해, 광산, 연안, 경주인데 선조의 파생(派生)이 각각 달라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吳(軍威). 지금으로부터 4백여년 전에 현대손 오치인(吳穉仁)의 19대조 오석현(吳碩賢)이 입도, 정의면 고성리에 거주. 2백50년 전 9대조 오세진(吳世振)이 이 마을에 내주. 현재 동문족은 66호.

● 下猊里

○姜(晋州), 상예리의 강씨와 같다.

이상은 중문면 거주자의 족보가 전해주는 거주이동 및 발전의 과정이다.

현재의 총호수 2천6백27호는 모두가 5백년 이후의 입거자로서 원주자(原住者) 불명인 고씨를 제외하면 도외로부터의 내주자이며 이조시대에 있어서의 발달된 취락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윤씨와 같이 관명에 의해 입도해서 정주후(定住後) 일족이 번영해 오늘의 마을을 형성했거나, 은둔자·유죄인·특수계급자 등의 자손으로 구성된 취락이다.

더욱이 중문면 거주자 가운데 육지로부터 직접 이 면에 온 사람은 전무하고(그림 1-31) 2~3차례의 이주, 진주강(晋州姜)씨의 일파 등은 5차례, 김해강(金海姜), 김해김(金海金), 고부이(古阜李)씨 등도 입도 이후 각각 네 번에 걸쳐 정착, 오늘의 번영을 이룬 것이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 있어서 입도자의 최초의 상륙지가 제주성에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대정과 성산 두 면에 많은 것도 3군시대의 대정·정의의 각 성읍에 가까운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직접 최초부터의 입도자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섬 가운데 가장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결과였는지 여부는 도내 전부의 조사를 한 후에 판명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조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바는 취락입지가 해안으로부터 약간 내륙의 해안지대와 중간지대와의 점이적(漸移的) 위치를 선정해서 이주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이 당시의 농목지와 삼림대와의 교계지(交界地)를 이루고 첫째의 주거조건인 음료수를 비롯, 지형(地形), 지세(地勢), 일사(日射), 요새지(要塞地), 연료, 교통 등 비교적 생활의 호조건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지역이 육지방면으로부터의 내주자의 주생업인 농목업에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었으며 소위 한라산 산록선(山麓線)의 전기 조건들을 비슷하게 갖춘 땅을 선택하여 취락은 발달이 되고 거기에 산록의 취락분포대는 결정되었다고 사료된다. 구정의군(舊旌義郡)의 수읍 정의 및 대정읍 대정이 고려조에 발달을 보게 된 것도 이 산록지역에 중

점이 있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또 이 지역에는 지금도 여전히 유서 깊은 구가(舊家)가 비교적 많고 예의 언행 등도 뛰어나서 민풍은 순박하고 내지출가가 왕성한 본도에 있어 아직 그 자극에 접하지 않은 채 초연하는 바가 많다.

취락의 이동

이상은 입도자에 의한 취락 발달의 일면으로, 본도 취락 분포의 기초가 된 것이지만 근대에 있어서는 도내간 이동에 있어서 2개의 동향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섬 중앙에 솟아있는 한라산정을 향하여 차츰 산기슭과 산허리로, 해안지대로부터 중간·산간지대로, 내륙·높은지대에 경지·목야를 찾아 상향(上向)이동이 이루어지고, 한편 그와는 반대로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해안지대로, 특히 임해지역에의 이동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동향에서 전자를 구심적 이동, 후자를 원심적 이동이라고 한다. 이 경우 전체 마을이 갑지로부터 을지로 이동하는 경우 및 부분적 이동, 즉 갑마을의 일부가 을지로 옮겨 신취락을 형성하는 경우, 갑마을이 전부 이동해서 을마을과 합성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일괄해서 취락 이동이라고 한다.

1. 취락의 구심적 이동(求心的 移動)

<그림 1-3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환상취락[68] 조밀지역이 모체가 돼서 이 지역의 취락민이 그 전면에 펼쳐진 삼림지대(古老들에 의하면 현재의 황량한 초원지대는 전에 큰 삼림을 이루었음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南元面長인 金秉柱씨 집 대청마루 판자재목인 느티나무는 폭이 1척5촌남짓이나 되

는데 이전 집터 부근에 있던 것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다)의 매력은 점차 화전화(火田化)됨에 따라 산간으로 원시적 농업을 위해 이동한 것인데 개간 당초에는 「막(幕)」 또는 「농막(農幕)」이 영위되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주해 취락을 형성하는 양식이 행해졌다.

이 삼림지대에의 이동은 화전이 묵인 되던 이조말기까지인데 신정후(新政後=한일합병후)의 화전 금지와 함께 구심적 이동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⑴ 남제주지구

구심적 이동은 대략 남제주에 많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대정군지(大靜郡誌)에 의하면 안덕면 동광리(현재 1백47호)와 마전동(麻田洞)의 두 취락은 약 1백년전 자단(自丹)이란 마을이 존재했었음을 기술하고 있고 자단에 사는 사람 수 명이 원수악(院水岳) 남쪽 기슭 일대의 삼림을 개척해 농막을 개설한 땅에 자단 사람이 두 마을로 나뉘어 이주했는데 하나는 동광리(東廣里)를, 다른 하나는 마전동을 형성, 자단의 옛 취락은 2개의 자촌(子村) 파생과 함께 소멸한 것이다.

이 밖에 이 면의 감산리로부터 파생된 상천리(上川里)·천서동(川西洞)의 두 취락을, 서귀면에 있어서는 서홍리의 고모씨와 그 일족에 의해 생수동(生水洞)을, 같은 마을 김씨일족은 응자동(鷹子洞)을 만들었다. 평대진전(坪垈陳田)은 상효리(上孝里)의 오(吳)씨일족에 의해 새 취락을 형성했다. 남원면의 수악동(水岳洞)은 신례리를 모촌(母村)으로 하여 김씨 및 정(鄭)씨 등에 의해, 묵지(墨旨)는 한남리(漢南里)의 이씨, 고씨 일족에 의하여 각각 새로운 취락의 발전생성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⑵ 북제주지구

이 지구는 조천면의 교래리를 중심으로 하는 감발래(甘發來)·고수동(古水洞)·길영동(吉永洞) 등, 그리고 제주읍 제주성 남쪽 중간지대인 아

난동(阿蘭洞)으로부터 분파된 민전동(敏田洞)·도남리를 모촌으로 하는 김씨 중심의 병다동(並多洞)·이생동(利生洞) 등 2개 집단을 볼 수 있는 외에는 극히 적다.

현재의 삼림지대는 표고 약 6백~8백m까지 후퇴해, 전기 신취락은 그 사이에 분포하고 특히 2백50m~3백50m 내외의 고도에 분포한 것이 많다.

화전은 6백~8백m를 한도로 하여 신정(新政)에 의하여 그 이상의 잔존림(殘存林)은 모두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으로 편입되어진 결과 취락의 상승이동현상도 정지되고, 거꾸로 이 지역의 취락은 최근 20년간에 해안지대를 향해 이동현상을 보이게 되기까지 되었다. 신정(新政)에 의해 획기적인 정치가 베풀어 지지 않았다면 이미 한 그루도 남기지 않고 전도가 황폐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신정 후에는 내륙에 구심적 방향으로 이동한 중문리가 있다. 여기는 현재 약 3백70호를 보유하는 면정(面政)의 중심취락인데 다이쇼 4년(1915)의 3등환상도로의 개통당시에는 1호의 민가도 보이지 않았었다. 그것이 임해부에 위치한 상문리(上文里)의 취락을 전부 이곳으로 이동시켜 신취락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취락의 원심적 이동(遠心的 移動)

현재 본도의 취락밀도의 최대지역은 해안지대로서 특히 인구 1천5백명 이상을 포괄하는 대집단촌은 모두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전에는 제2환상취락분포대 즉 해안으로부터 5~10㎞의 내륙부가 취락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이야말로, 오랜 역사를 갖고 유서깊은 구가(舊家)·양반·부농이 많이 살고 있었다. 임해지역은 대개 빈농·천민이 많이 취락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2환상취락분포대의 각 취락을 연락한 관도(官道)가 아직도 불연속환상(不連續環狀)을 이루고 있는 점이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안취락은 관도를 향해 내륙에 도로

로 연락하고 해안 상호간보다도 배후의 취락 내륙부와의 관계밀접성이 도로망에도 인정되는 것이었다.

더우기 당시는 어민을 낮추어보는 풍조가 강하고 차별적인 사상마저 있었다. 특히 이와같은 고도적(孤島的) 위치에 있는 임해취락은 해적 내습의 우려를 피해서 임해취락을 마련하지 않고 내륙에서 농목을 주로 하고 현재의 비교적 취락희소한 중간지대가 조밀지역을 이루어, 배해적(背海的)으로 다시 내륙에로 가는 등 화전에 의해 구심적으로 이동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어서도 해안지대를 향하여 이동했던 것도 또한 인정되는 바이다.

(1) 남제주지구

성산면 수산리가 동백나무의 채수림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에서도 드문 미촌(美村)인 점은 기술(旣述)한 바와 같으나 수산진(水山鎭)에 보존하고 있는 영남각호부단서(瀛南各戶負担書)에 의하면 이 마을은 7대 이전(약 2백년전) 강(康)씨 거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강씨는 원래 북쪽 영남리(瀛南里)의 소왕산(小王山) 및 소왕산 동쪽 기슭에 4백여를 지니는 큰 마을로 거주했으나 갑인년(약 2백년전)의 가뭄으로 인한 대흉작과 전염병 발생 등으로 사망자가 속출, 병을 두려워 강씨를 따라 이주해 온 30호가 현재의 수산리를 형성한 것인데 영남의 취락은 그후 이주가 계속 됨으로써 소멸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을터는 현재도 아직 수산리 주민들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많고 경작되는 밭가운데서 도기류(陶器類)의 파편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동쪽에 위치한 황무지는 30호 정도 되는 소취락이었으나 30년래 임해취락인 오조리 및 성산리로 옮겨져 현재는 겨우 3호만이 남았으며 이 또한 조만간 자취를 감출 운명에 놓여 있다.

같은 면 난산리(蘭山里)는 현 위치보다 3㎞ 서쪽에 위치했었으나 뒤에

동쪽해안에 가까운 현재의 위치로 이동하고 난산리보다는 신환상도로를 따라 신산리로 점차 이동해 가고 있다. 삼달리는 원래 와강리(臥江里)라고 부르고 북서쪽 약 2㎞의 지점에 있었다. 그런데 와강리 취락의 전신은 더욱 내륙의 남산봉(南山峰) 동쪽 기슭에 위치했던 것으로, 현재의 삼달리는 세 번 이동해서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삼달이라고 명명을 한 것이라는 게 면장의 이야기였다.

남원리 경찰관주재소의 스기모토(杉本幸一)부장 말에 의하면 남원 동남쪽의 태흥리 취락은 현재 해안 가까이에 위치하지만 신정 전에는 북쪽 2㎞에 위치했던 것으로, 그 이동은 음료수의 결핍과 가뭄에 기인하며 그러한 유적들을 남기고 있다.

남원면사무소의 소재지는 전에 북쪽 의귀리였다. 호수 3백여를 헤아리고 옛 일주관도변에 발달된 취락이었으나 다이쇼 4년(1915) 해안가까이 새환상도로가 개통되고 주거가 없는 새길 연변에 면사무소를 우선 이전, 점차 전기 의귀리 및 남원리의 각 주민은 해안의 신도로 곁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는 보통학교 경찰관주재소 등의 설치를 보게 되고 중산간지대 취락의 이동에 따라 신흥의 취락 남원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이 때문에 태흥리는 현재 겨우 1백여호를 보유하고 있고 구남원(舊南元)도 또한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면장 김병주(金秉柱)씨의 주거도 남원으로부터 옮겨온 거택으로 친히 그 집구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지만 많은 경우 가옥을 해체해서 주거와 함께 이동이 이루어진다.

서귀면에 있어서는 동홍리의 북쪽 평대전(坪大田)이 겨우 3호를 보유하는 산거취락이지만 평탄한 넓은 지역에는 집터와 밭터가 잔존한다. 그 원인은 풍수설의 과신(過信)으로 해안인 보목리와 하효리로 이동한 것이다. 서귀포의 발전은 신정 뒤인데 특히 두드러지게 호수가 증가한 것은 최근 수년간의 일이다. 남제주 제일의 융성을 보게 된 것도 주로 배후인 동홍·서홍의 산지 여러마을로부터의 이동의 결과이다. 또 중문

면 중문리는 상문리로부터의 이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기술(旣述)한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북쪽 회수리 및 대포리로부터의 이동에 의해 오늘을 이루게 되었다.

안덕면 사계리는 그 북쪽 2㎞의 산방산 서쪽의 금물리(今勿里)에 있던 취락이 현재의 임해적 위치로 이동했음은 대정군지(大靜郡誌)를 봄으로써 알 수 있고 현재도 돌담 못 기타 도기파편(陶器破片) 등이 남아있어 취락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대정면에 있어서 해안지방으로의 취락이동이 현저한 예는 삼군시대(三郡時代)의 대정군청 소재지 대정을 중심으로 주위로 옮겨가서 보성, 안성, 인성의 성곽집단촌으로 발전했으나 3군 합병에 의해 군정중심의 기능을 잃고 더욱 최근에는 면사무소도 남서쪽 4㎞의 모슬포로 이전함에 따라 보성사람들은 주로 모슬포와 일과리로, 인성·안성사람들은 남동쪽 사계리와 남서쪽 4㎞의 상모리 등지로 이동하였다.

⑵ 북제주지구

한림면의 면사무소는, 현재 옹포리 남동쪽 1㎞ 남짓에 취락을 형성, 면정(面政)의 중심취락을 이루었으나 신환상도로 개통의 결과 다이쇼 8년(1919)에 도로북쪽으로 이전, 취락도 또한 용천의 풍부함과 교통의 편리 등에 유인되어 신 면사무소를 따라 이동, 현재는 잔류민가(殘留民家) 8호와 돌담 기타 등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그 소유권은 아직 옹포리민의 것으로 소속돼 있다. 또 면사무소원 혁운(赫韻)씨 말에 의하면 옹포리 남동쪽 애월면 경계에 가까운 표고 2백80m의 중간지대에 있던 상수동(上水洞)은 과거 30년동안 이동해서 북쪽 1㎞지점에 월각이(月角伊)를 만들어, 어떤 이는 옹포리로 내려가고, 또는 어도리로 옮겨가서 현재는 겨우 3호만이 남았다고 한다.

애월면의 면정의 중심지 애월은 남동쪽 약 2㎞ 지점에 있었으나 2백여년 전 흉작이 몇 년에 걸쳐 마침내 현 위치로, 김모씨의 전거와 함께

따라와 점차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 촌로의 회고담이다.

조천면의 함덕리는 북동쪽에 서산악(犀山岳)을 지녀 지독한 북서풍과 본도 독특한 패각분말사(貝殼粉末砂) 및 해안지형등은 대규모 모래언덕(砂丘)을 발달시켜 그 내륙에의 이동은 심대하고 당국의 사방부심(砂防腐心)도 효과가 적어서 신환상도로를 비롯, 경지·민가를 매몰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진로에 해당되는 함덕리 취락의 남동쪽민가 약 10여호는 서쪽으로 이동하기에 이르렀다. 구좌면 월정리의 동쪽 민가의 이동도 또한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제주도에 있어서의 취락이동의 지리적 의의

이상은 본도에 있어서의 취락이동 중에 조사할 수 있었던 결과이지만 구심적 이동은 메이지 43년(1910)의 신정 개시를 획으로 정지되고 원심적 이동은 다이쇼 4년(1915)의 해안일주 신환상도로의 완전개통을 기해서 두드러지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이동이 계속되고 있다.

전자는 조선의 촌락형태로서 가장 민족적 특징을 발휘한 동족동문(同族同門) 취락 중에 예속되는 하인농민이 지배계급인 지주 양반으로부터 이탈하는 독립적 자영심(自營心)에 의한 이동이다.

동족의 마을은 일족일문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가명문벌(家名門閥)을 중히 여기고 계급관념이 강렬하였으며 종교를 중심으로 한 선조의 제사 동족의 친목·상호부조·일치단결심 등이 강했다. 과거에 있어서는 딴 문족(門族)과의 경쟁반목·지위단결력을 악용한 횡포가 발호하고 부근 상민에 대하여 비밀리에 사형적(私刑的) 제재를 가하는 자도 있었다. 이들의 박해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이동, 경쟁에 의한 낙오자의 은둔에 대하여 개발되지 않은 채 남겨졌던 삼림지대는 그들을 화전민으

로 이동을 유발시켰다. 더 나아가 이동을 조성시킨 것은 민족성으로서의 취락입지에 대한 풍수설의 믿음이다. 또 원시적 조방농업을 영위하고 자급자족적 경제를 이루고 있는 점이 풍수설과 합쳐서 전 취락의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해안지역에로의 이동은 신정후 특히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화전경작의 엄금, 과거 남벌화전으로 말미암은 수원의 고갈, 천수(天水)음료와 위생사상의 향상에 따른 해안 용천지대로에의 이동, 신정에 의해 자급자족 경제로부터 교역경제시대로의 이행 등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농산물의 가격에 비하여 일상생활비가 상승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소작농 이하는 수지불균형의 경제로 빠져들고 생활상 여유없는 결손계급농이 격증함에 따라 전업자의 급증을 보게 되었다. 빈농 영세민 등 가동성(可動性)계급의 전업유인(轉業誘因)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임해지역의 교통의 편리와 상공업의 발달 노임의 고율 등이 유인이 되어 전 조선 제일의 내지출가지역[69]을 형성하게 하고 출가자의 생활정도 향상은 귀환후 이농을 하고 중간지대로부터 해안지대에로 이동하기에 이르렀다.

(1939년 1·2월/濟州島聚落의 地誌學的 硏究, 제1·2보)

參 考 文 獻

1) 濟州島畜産同業組合「家畜 家禽調」쇼와 7年(1932年) 8月.
2) 桝田一二「濟州島」平凡社 百科事典 第10卷 쇼와 7年(1932年) 9月, p.300.
3) 福井英一郎「日本の氣候區」地理學評論 쇼와 8年(1933年) 3月, p.31.
4) 尾崎卮四郎「日本の氣候區」地理學評論 쇼와 8年(1933年) 3月, p.18
5) 濟州島廳「牧畜の沿革と現況」쇼와 8年(1933年) 5月, p.1~2.
6) 桝田一二「濟州島海女の 地誌學的 硏究」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2輯(下) 쇼와 9年(1934年) 3月 p.144.
7) 中村新太郎「濟州火山島雜記」地球 第4卷 다이쇼 14年(1925年) 10月 p.326.
8) 河野正直「但馬に於ける牧牛の地理學的 硏究」地學雜誌, 쇼와 9年(1934年) 4월, p.457
9) 桝田一二,「中國の人文地理(畜産と林業) 日本地理大系 쇼와 6年(1931年) 5月. p.195.
10) 濟州島廳「濟州島の畜産」쇼와 4年(1929年) 12月 p.12.
11)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其二) 濟州島 쇼와 4年(1929年) 12月 p.26.
12) 桝田一二「濟州島の地理的 特性に就て」地理學評論 쇼와 8年(1933年) 6月. p.517.
13) 森壽美衛「大村扇狀地の礫」地理學評論, 쇼와 7年(1932年) 6月.
14) 眞野恒雄,「放牧牛馬の耳印」島 쇼와 8年(1933年) 9月 p.453.
15) 田中啓爾「朝鮮の人文地誌學的硏究」地理學論文集 쇼와 8年(1933年) 9月. p.685.
16) 桝田一二 (6)과 同一 p.154~158.
17) 內田寬一 「氣候と農業地域の垂直的限界」 經濟地域に關する問題の硏究 쇼와 9年(1934年) 3月 p.289.
18) 德田義信「養蜂に就て」
19) 千葉縣社會課「全國潛水業者調」쇼와 6年(1931年) 6月 p.8~10
20) 陸地測量部「圖幅20万分ノ1, 濟州島北部・同南部」.

21) 同 圖幅 「5万分ノ1 金寧・濟州・城山浦・漢拏山・翰林・表善・飛揚島・西歸浦・大靜及び馬羅島・摹瑟浦」
22) 中村新太郎「濟州火山島雜記」地球 第4卷 다이쇼 14年(1925年) 10月 p.325
23) 原口九万 「濟州島火山」 小川博士 還曆記念地學論叢 쇼와 5年(1930年) 10月. p.3.
24) 辻村太郎「地理學」다이쇼 12年(1923年)1月 p. 551～552.
25) 桝田一二「濟州島の地理的特性に就て」地理學評論 쇼와 8年(1933年) 6月. p.64.
26) 田口禎憙「濟州海女」朝鮮 쇼와 8年(1933年) 7月 p.68.
27) 濟州島海女漁業組合「各面里別 組合員統計」쇼와 6年(1931年) 및 쇼와 7年(1932年) 8月 現在.
28) 朝鮮總督府農商工部「韓國水産誌」第3輯 明治43年(1910年) 10月. p.425.
29) 朝鮮總督府「濟州島漁業免許指令書」p.1～155.
30) 同「海女漁業組合員 各府縣別出稼調統計」쇼와 5・6・7年(1930年～1932年).
31) 同「各府縣內出稼地 各村別及び面里別統計表」.
32) 水産試驗場「海洋調査要報 第51報」쇼와 8年(1933年) 5月 p.12, p.45.
33) 朝鮮總督府殖産局水産課「朝鮮漁業保護取締規則」쇼와 6年(1931年) 7月. p.457.
34) 朝鮮水産會「朝鮮漁業組合規定集」.
35) 朝鮮總督府「朝鮮の人口現象」쇼와 2年(1927年) 12月 p.460.
36) 桝田一二「濟州島の人口移動に關する地理學的 硏究」地理學評論 第11卷1號 쇼와 10年(1935年) 1月. p.65～86.
37) 桝田一二「濟州島の地理的特性に就て」地理學評論 第9卷 第6號, 쇼와 8年(1933년) 6月. p.66.
38) 桝田一二 「濟州島海女の地誌學的硏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2輯(下) 쇼와 9年 p.148～150, p.154～156.
39) 桝田一二「濟州島の地域性素描」地理學 第2卷 第13號 쇼와 9年(1934年) 12月. p.270～272.
40) 田中啓爾 「日本に於ける海岸平野の人文地誌學的硏究概報」 大塚地理學

會論文集 第1輯 쇼와 8年(1933年) p.600～604.

41) 山本熊大郎「我國の主要季節的移動分布」地理學 第1卷 쇼와 8年(1933年) 11月 p.114.

42) 農商務省農務局「副業的季節出稼に就て」다이쇼 11年(1922年) p.15.

43) 桝田一二「濟州島の地域性素描」地理學 第2卷 第13號 쇼와 9年(1934年) 12月. p.265～266.

44) 金斗奉「耽羅誌」p.6

45) 佐佐木彦一郎「鹿角盆地の經濟地理機構」地理學評論 第2卷 다이쇼 15年(1926年) p.623～658

46) 武見芳二「樺太入移民の經濟地理學的考察」地理學評論 第4卷 쇼와 3年(1928年) p.881.

47) 武見芳二「冲繩島出移民の經濟地理學的考察」地理學評論 第4卷 쇼와 3年(1928年) p.42.

48) 武見芳二「人口の移動」地理學講話 쇼와 6年(1931年) p.29.

49) 濟州島「農家經濟調査」쇼와 3年(1928年) p.1～52.

50) 朝鮮史學會「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八 濟州島建國沿革.

51) 朝鮮總督府「生活狀態調査(其二)」濟州島 쇼와 4年(1929年) p.22～23.

52) 濟州島廳「濟州島管內狀況」쇼와 8年(1933年).

53) 桝田一二「濟州島」平凡社百科事典 第10卷 쇼와 7年(1932年) p.300.

54) 同「濟州島の地理的特性に就て」地理學評論 쇼와 8年(1933年) 6月.

55) 同「濟州島海女の地誌學的硏究」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2輯(下) 쇼와 9年(1934年)

56) 同「濟州島に於ける畜産の地理學的硏究」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3輯 쇼와 9年(1934年).

57) 同「濟州島の地域性素描」地理學 쇼와 12年(1937年).

58) 同「濟州島の人口移動に關する地理學的硏究」地理學評論 第11권第1號, 쇼와 10年(1935年) 1月.

59) 同「濟州島人の內地出稼に就て」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5輯 쇼와 10年(1935年) 12月.

60) 同「濟州島南北斜面の地理的對比」地理學評論 第13卷第6號 쇼와 12年

(1937年) 6月.

61) 同「台灣の聚落竹圍仔に就て」 全國地理歷史協議會台灣南支旅行報告 쇼와 7年(1932年) p.294~298.

62) 陸地測量部 圖幅 「5万分ノ1 金寧・濟州・城山浦・漢拏山・翰林・西歸浦・摹瑟浦・飛揚島・表善・大靜・馬羅島」.

63) 寺田貞次「讚岐の人口稠密なる原因の一部に就て」 小川博士還曆記念 史學地理學會論叢. p.93~94.

64) 濟州島 各邑・面事務所 戶籍簿 쇼와 11年(1936年) 8月 現在.

65) 善生永助 [朝鮮の同族部落」 地理敎育 쇼와 10年(1935年) 1月.

66) (64)로부터 算出.

67) 朝鮮史學會「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八」 濟州島建國沿革.

68) 桝田一二「濟州島聚落の地誌學的硏究(第1報)」 地理 第2卷第1號 쇼와 14年(1939年) 1月. p.36.

69) 桝田一二「濟州島人の內地出稼に就て」 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5輯 쇼와 10年(1935年) 12月.

잊을 수 없는 濟州島

제주도 조사의 동기

● 지도에서 보는 제주도에의 동경(憧憬)

그로부터 그럭저럭 사반세기나 지났다. 나는 그즈음 도쿄문리과대학 지리학교실의 조수를 하고 있었는데, 도쿄대학으로부터 츠지무라 타로(辻村太郎)선생이 지형학(地形學) 강의를 위해 오시고 계셨다. 어느날 강의가 끝난 후에 5만분의1 제주도 지도(金寧・城山浦・表善・濟州・漢拏山・西歸浦・翰林・大靜・飛揚島・摹瑟浦의 10매)를 내보이면서 지형적인 특색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해주셨다. 얼른 보아서 그 경관(景觀)의 굉장함과 선생님의 설명에 매혹되고 말았다.

츠지무라 선생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일본지형학의 시조로 지형학의 강의에는 항상 선생 특유의 멋진 「블럭 다이아그램」의 묘사에 의해 지형의 새로운 시각, 사고방식에 대해서 강의하시는지라 흥미가 진진했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시각(視角), 그 사고방식이 잇따라 우리들의 뇌리에서 발전해 나가는, 참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었다. 그 선생님이 손에 넣었다고 하시면서 제주도 지도를 일부러 갖고 오셔서, 그 지도를 통해서 흥미진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그 감흥은 실로 깊은 것이었다.

나는 즉시 미야케자카(三宅坂)의 참모본부 옆에 있던 지도판매점인 고바야시센류도(小林川流堂)에서 지도를 사서 이것을 맞붙여 등고선에 따라서 레아식으로 세피아로 착색해, 한눈에 지형이 선

명해지도록 궁리를 했다. 더욱이 또 세트로 구입을 해서, 기호에 따라서 색칠을 하고, 토지이용도를 작성했다. 이 두 가지 지도를 좁은 서재에 걸어 놓고 자세히 비교했다. 지형도에는 그 중앙에 우뚝 솟은 조선 제2의 고봉, 아스피테형의 한라화산(1950m)의 아름다운 들판, 특히 동서로 길게 펼쳐진 완경사(緩傾斜)의 들판, 거기에는 3백여를 헤아리는 중대가리 같은 종상화산군(鐘狀火山群)이 돌기해 있어 옷자락처럼 아름답게 분포한다. 조화의 신기(神技)의 아름다움에 감명받았다. 한편 토지이용도에서 보는 환상(環狀)의 토지이용형태, 이 환경 속에서 빚어지는 섬사람의 생활, 취락의 분포에 따른 흥미와 매력은 독도(讀圖)에 의해서도 섬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품게 되고 방도(訪島)의 꿈은 커가기만 했다.

• 방도(訪島)의 꿈 실현

쇼와 5년(1930) 8월, 조선총독부의 위촉에 의해서 약 1개월간, 은사인 다나카(田中啓爾) 선생을 모셔서, 조선반도의 거의 전역, 그 중에도 농촌·산촌·어촌지역을 주제로 한 관찰의 기회를 얻었다. 현지관찰에 있어서는 특히 혜안(慧眼)의 다나카 선생을 좇는 실지답사이며 게다가 조선어에 능숙하고 박식한 총독부의 가토(加藤灌覺)씨도 함께였었기 때문에 얻는 바가 엄청 많았다. 가토씨는 또 제주도 사정에도 밝았기 때문에 긴 여행중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로부터 섬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방도열(訪島熱)을 더욱 더 부풀게 하였다.

이 여행은 경성(京城 : 서울)을 맨끝으로 일단 끝났기 때문에 호기를 놓칠세라 홀로 제주도에 갈 것을 결심했던 것이었다. 총독부로 부터는 섬의 도사(島司)에게 전보를 쳐주었다. 나는 경성에서 곧장 목포에 내려가, 목포항에서 밤배로 다음날 새벽, 섬의 중심인 제주읍의 산지항 외항에 정박했다. 어수므레한 해안에는

제등(提燈)을 들고 오가는 출영객의 인파가 보인다. 그 뒤에는 남쪽 아득히 한라산의 조용한 자태가 밝아오는 하늘에 어렴풋이 떠 있다. 도청(島廳) 사람의 마중을 받으며 거룻배로 가까스로 상륙, 오랫동안 그리던 땅, 제주도에 첫발을 디뎠고, 그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항구 근처에 있는 M여관에서 해뜨기를 기다려 아침식사를 끝내고, 도청에 다구치(田口)도사를 찾으니 미우라(三浦)내무주임을 비롯 각 과장·주임·기사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모두 일본인으로, 그 밑에 조선인 이원(吏員)을 거느리는 조직이다. 제주도는 1읍11면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행정·경찰 양권을 쥐고 있는 도사가 섬을 관할하고 있다. 면장 및 읍 면사무소원의 대부분은 조선인이다. 도사가 섬의 행정·경찰의 양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실태조사상 지극히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도청에는 도세요람(島勢要覽), 인구, 토지대장, 농업, 임업, 수산업, 광공업 등 섬 전역에 대한 통계자료, 메이지 43년(1910년)에 일본에 귀속된 이래의 매년 통계자료 등도 갖춰져 있었다. 인쇄되어 있는 것은 즉시 제공해 주었고, 읍·면사무소에 있어서의 리별, 동별 말단통계자료도 보관되어 있어, 자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구명(究明)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만일 현지조사를 하게 된다면 원주민들과의 접촉도 상당히 있기 마련인데 양반이나 유지, 원로를 대할 경우, 또는 가정을 방문할 때, 풍속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에티켓, 혹은 노력에 대한 사례의 방법 등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의논했다.

이런 일들은 일본 안의 현지조사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거나 결례를 하므로써 그 진상이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며 시간이나 노력을 낭비하며 고생하는 수가 있는데 하물며 외지에 있어서의 세밀조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컸었기 때문이다.

그 때는 약 1주일 정도의 체재였는데 때마침 그 봄에 전장(全長) 2백50㎞의 해안환상도로가 개통되어 남안(南岸)의 서귀포로 서회선, 동회선의 두 정기버스가 오전·오후에 각각 2회씩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을 이용해서 섬의 남동부 이외의 해안지대의 약 4분의3을 대충 살피고 남단의 서귀포로부터 중앙에 솟아 있는 한라산의 정상을 확인한 다음 북쪽의 제주성내로 내려오는, 남북 횡단코스를 답파하여 섬을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 뒷해에도 방도를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쇼와 7년(1932) 여름, 만주국 출장의 도중에, 방도해서 전번의 나머지인 해안지대와 중간지대의 일부를 잠깐 볼 수가 있었다.

연구대상지역으로서 발원(發願)

앞서 두 차례의 견문답사(見聞踏査)에 의해, 섬이 갖는 중요한 성격은, 자연경관이나 사회경관으로부터 받은 강한 인상과 매력에 의해, 연구대상으로서 가치있는 것을 확인하고, 섬의 지역성의 종합적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발원(發願)했다.

그렇지만 연구필드로서는 너무도 멀었다. 현지조사를 위해 간다면 장기간 체재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름과 겨울의 휴가를 이용해야 하므로 조사의 계절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지 않을까. 거리적·시간적·계절적으로, 더우기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누가 이 섬의 조사에 착수할 것인가? 제주도야말로 나에게 하늘이 안겨준 연구분야는 아닐는지. 어떠한 곤란을 만나도,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섬의 전모를 구명하고 싶다고 결심한 것이다.

본격적 조사에 들어가다

쇼와 8년(1933)부터 5년간, 연간 40일씩, 2백일간의 예정으로 착수를 했다. 쇼와 8년 여름에는 목포를 경유해서 방도, 귀도(歸途)는 불과 10t의 어선에 편승해서 여수에 건너가, 부산으로부터 시모노세키(下關) 경유의 코스로, 왕복 일수를 포함해서 40일을 소비했다. 다음해 9년(1934)에는, 도민이 오사카(大阪)에 해마다 수만명씩 출가하기 때문에 오사카와 제주도와의 사이에 특별히 직통항로가 있어, 출가자들이 월급을 갖고 귀도한다고 하는, 8월 1일의 편선(便船)으로 방도하기로 했다.

배는 아마가사키(尼ヶ崎) 기선의 다이2기미가요마루(第二君代丸 : 919t)으로 오사카축항 잔교(大阪築港棧橋)로부터 출항한다. 선객은 5백65명, 그 가운데 일본인은 그해 봄 고마자와(駒澤)대학을 졸업하고 귀도(歸島)한다고 하는 가바시마학사(樺島學士)와 나의 2명, 그 외에 사복의 이동경찰관 3명이 승선해 있었다. 섬의 제1기항지까지는 3주야, 섬의 주위에는 15곳의 기항지가 있어, 손님들을 승하선시키며 섬을 일주한 후에 오사카로 돌아가는 코스이다.

내가 이런 순항선을 선택한 것도 배삯이 식비 포함해서 상등석 12엔(하등석은 6엔)이라는 값싼 요금때문만은 아니었다. 제주도 출신의 출가자를 손님으로 삼는 이 배에서 항해중에 선객을 통해서 섬에 대한 청취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지리적인 조사는 오사카축항 잔교의 광경에서부터 시작했다.

이 3주야의 항해로 현지에서의 1개월분 조사와도 맞먹는 능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졸고(拙稿)의 「濟州島人의 內地出稼에 대해서」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쇼와 10年(1935)에는 겨울휴가를 이용해서, 목포경유로 연말연시에 걸쳐, 3주간 조사를 했다. 여름의 조사에서 미처 착안 못했던 한라산에 있어서의 남북사면의 적설(積雪)의 고도차나 농작물의 경관의 차이, 연중방목에 있어서의 우마의 자연이동, 겨울의 생활, 연말연시의 행사 등, 겨울에 보는 현실이 예전의 상상이나 추정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어 겨울의 현지조사의 수확은 매우 큰 것이 된다.

「濟州島의 三多」라는 말이 있는데, 삼다란 바람과 돌과 여자로, 제주도의 명물이 되어, 지역성을 잘 상징하고 있지만, 북풍이 강한 겨울철은 옆집에 가는 동안에도 날아갈 것 같은 강풍에 놀라며, 명절용 장식품이나 식료품을 실은 배에 강풍 때문에 거룻배가 접근하지 못해, 명절용품이 때를 놓치는 일 등은 겨울의 현지조사에서 얻은 체험이었다.

그후 3년간은 봄의 조사를, 그리고 가을의 방도를 생각했었지만, 결국 실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여름휴가를 섬의 조사로 보내게 됐다. 그 사이에 중간보고로써 다음의 졸논(拙論)을 발표했다.

1. 「濟州島의 地理的 特性에 대해서」, 地理學評論 쇼와 8년 6월.
2. 「濟州島海女의 地誌學的 硏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2輯 쇼와 9년 3월
3. 「濟州島에 있어서의 畜産의 地理學的 硏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3輯 쇼와 9년 6월.
4. 「濟州島의 地域性 素描」, 地理學(古今書院 現發行 「地理」의 前身) 쇼와 9년 12월
5. 「濟州島의 人口移動에 관한 地理學的 硏究」, 地理學評論 쇼와 10년 1월

6.「濟州島民의 內地出稼에 대해서」, 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5輯 쇼와 10년 12월
7.「濟州島 聚落構成要素로부터 관찰한 地理學上의 二, 三의 問題」, 地理學評論 쇼와 11년 6월.
8.「濟州島 南北斜面의 地理的 對比」, 地理學評論 쇼와 12년 6월
9.「濟州島 聚落의 地理學的 硏究 第1・2報,「地理」(大塚地理學會에서 發行한 雜誌, 戰爭의 激化로 인해 地理學評論과 合併) 쇼와 14년 1・2월

• 조사중의 불유쾌했던 일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제주도에는 처음 온 때부터 도사를 비롯하여 도청사람들, 읍・면사무소의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합이든 사무소이든, 유지건 개인이건 가정을 방문해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방도가 세 번, 네 번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섬의 관민은 더욱 더 협조적이 되었고, 가장 큰 걱정이었던, 원주민과의 기우(杞憂)도 사라져 그들도 진심으로 격의없이 협력을 해주어, 나는 도민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언제나 유쾌하게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동떨어진 섬에 멀리 도쿄로부터 매해 방문하는 나에게 친애감이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또, 이런 협력적인 태도가, 나를 먼 이섬까지 끌어당긴 인력(引力)던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쇼와 12년(1937)의 8월, 언제나와 같은 기분으로 방도했다.

먼저 도청을 찾았다. 도사는 경성에 출장가서 부재중이었다. 내무주임과 과장들과 체재 일수, 작업 등에 대해 미리 의논도 하고, 새로운 통계자료의 요구에도, 언제나처럼 흔쾌히 수락하는 등 친절히 협력해 주었다. 그것은 조사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었다. 이제부터 조사나가겠다고 하자「조심해서 다녀오

세요」라고 격려해 주었다.

처음에 S면사무소를 방문했다. 면장은 출근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모여 앉아서 서로 무언가 이야기하다가 나의 모습을 보자 각기 제자리로 돌아갔다. 토지대장을 열람하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담당자가 없다고 한다. 이전에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자료라도 내어주곤 했었다.

사무소내의 공기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기에 오래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겠다고 판단, 다음날을 기약하면서 작별하고 다음의 K면사무소를 찾아갔다.

구면(舊面)인 면장은 기분좋게 맞아주고 토지대장도 내주었지만, 직원의 태도가 왠지 모르게 그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담당자도 질의에 대해 어쩐지 단지 의무적으로 대할 뿐이었다. 어찐지 이상스러운 일이다. 예전에는 조합장인 R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 소개장을 써준다거나, 상당히 먼 거리라도 직원이 안내해 주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러오겠다고 직원이 달려가 주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이번은 지극히 비협조적으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어째서 이렇게 냉담해졌는지 나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원주민에 대한 에티켓에는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다고 자부한다. 냉담한 취급을 당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한심스럽고 불유쾌한 일이었다.

이유는 U면의 국민학교장 I씨를 만나서부터 분명해졌다. I씨는 카가와(香川)현 출신으로 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사람. 그가 말하기를 지난 7월 중일(中日)전쟁이 발발한 이래 그렇게 변한듯하다. 우리 교장과 교원까지도 학부형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느낀다. 그들은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이번은 일본이 무언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얕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든다고 말한다.

만주사변 발발때도 그랬었지만 사변이 마무리 지어지자 사변 전 이상으로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방침을 바꿔 대인관계가 적은 물의 조사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진작부터 물도 조사했었고, 사막과도 같이 물이 모자란 이 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물의 전모를 파악하는 일이 앞으로 조사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내 1읍11면에 대해서 오로지 자연용수점(自然湧水点), 천수류(天水溜=奉天水), 천수탱크, 우물물, 간이수도시설의 소재 등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하여 면별로 해안지대로부터 중간·산간지대로 조사영역을 넓혀서, 이것을 5만분의1 지도에 담을 수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도청에 들러 물의 조감도(鳥瞰圖)를 내보이면서 조언(助言)을 요구했는데 7백여개를 헤아리는 「물」이 있다는 데에는 놀라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 즈음하여 비협력적이고, 불유쾌했던 일들을 이야기했더니, 그런 눈치도 알고 있었지만, 선생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말하지 않았다, 출발할 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라고 말했던 것은 그런 때문이었다고 한바탕 웃었지만 이런 태도에는 경계를 요하는 것임을 강하게 느꼈다.

물의 조사에 있어서는 경찰관의 도움에 의한 것이 많았다. 취락 안과 그 부근의 물의 조사는 비교적 쉽게 진행되었지만, 중간·산간 등의 무주지대(無主地帶)의 답사를 위한 혼자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

가는 곳 마다에서 주재소에서 자고 비번(非番)의 경찰관에게 동행을 부탁하는가 하면 방사곡(放射谷)의 「와디」(Wadi : 雨期에만 물이 흐르고 우기 이외에는 물이 없이 마르는 골짜기) 속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넓은 들판에서는 방목중인 우마 떼를 목표로 물을 찾아

내어 지도에 표시하며 카메라에 담아 물을 확인하는 일 등은 이만 저만한 일이 아니었다. 뒷해인 1938년 여름에는 전해와는 사뭇 달리 한층 협력적인 데는 놀라고 기뻤다. 그것은 대륙작전의 결과가 눈부실만큼 호전되고 있었기 때문일까.

• 고마웠었던 일들

쇼와 12년(1937)의 조사에서는 가는 곳마다 경찰관주재소를 숙소로 제공받았다. 덕분에 대단한 능률을 올린 일은 이미 말한대로이다. 제주도의 조사에서 언제나 불편을 느낀 것은 여관이었다. 도내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여관은 4개 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50~60㎞씩 떨어져 있다. 그것 이외에는 조선인이 경영하는 여관밖에 없었다. 물론 처음에 도사가 여관이 불편하면 주재소를 이용하도록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고장에 가면 그 고장의 숙소가 아니면 원주민의 실태는 파악되지 않는다. 거기에다 주재소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이용을 주저했던 이유였다.

쇼와 9년(1934)의 여름은 표선리라는 아담한 부락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황해에 저녁달이 질 무렵, 피로한 몸으로 조선여관의 입구에 섰다. 입구의 정면이 4첩반(4疊半=다다미. 2疊이 1평) 정도의 방, 그 양쪽에도 같은 크기의 방이 있다. 소리를 내어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다. 륙색을 내려서 기다리면서 봤더니 오른편 방에서 남자 5명이 둘러앉아 노름에 열중하고 있었다.

정면의 방은 바닥에 있는 감물을 들인 종이 같은 것(주=장판지)을 붙인 방인데, 바닥은 드문드문 무늬를 이루고 있고 파리가 떼지어 있었다. 그방 건너편이 뜰인데, 물웅덩이 속을 돼지가 꿀꿀거리며 흙탕질을 하고 있다. 이윽고 중년의 아낙이 나왔다.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묻자,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환경으로 상상컨대 식사, 침구, 그리고……,

도저히 편히 잘 수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게다가 저녁식사 때까지 한가하게 기다릴 수도 없을 것 같았다. 「좀 산보 다녀오겠다」고 아무생각 없이 말이 나와 집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인적이 없는 마을 안을 20분 정도 헤매었다. 그리고 되돌아가려는데 길모퉁이에 주재소가 있잖은가, 나는 앞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재소에 들어섰다. 지금까지의 상황설명을 했더니, 숙소를 사절해서 올테니 여기서 머물라고 친절히 말해준다. 게다가 경찰관 자신이 가서 륙색도 찾아오겠다고 한다. 내가 가야하는 게 도리지만 모처럼 부탁했던 처지라 취소하기 어려웠다.

경찰관이 다녀오겠다는 것은 고맙지만,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경찰관이 나갔다. 역시 내가 갔어야 하는데……. 노름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자 제정신이 아니었다. 얼마 안있어 륙색을 자전거 뒤에 실어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는 경찰관의 얼굴을 보는 순간의 안심과 기쁨,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심경을 말하는 것인가. 그저 고맙기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은 물이 부족한데도 물을 데워주어 목욕을 할 수 있었다.

저녁은 쇠고기통조림과 양파를 섞은 볶음, 미역된장국 등등 섬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의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다. 식사가 끝나고, 섬의 이야기랑 도쿄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모기향도 짧아져 잠을 자기로 했다. 새 모기장, 깨끗한 침구 위에 들어누어서 감사의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은 쾌적한 아침이었다. 경찰관부인의 후의에 깊이 감사하고, 조선인 여관에 들러서 촌지를 두고 나왔다. 도청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자 섬의 주재소에는 그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고, 자기들도 자주 이용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나의 경우, 스기모토

(杉本)순사 부인의 후의는 몸에 사무쳐 영원히 잊을 수 없다.

● 기연(奇緣)

그 다음해인 쇼와 10년(1935) 여름 조사 때의 일이다. 서귀포행 버스를 놓친 나를 도청의 포장자동차(島內唯一의 車)로 보내주겠다고 한다. 후의를 받아들여, 동회선코스로 부탁했다. 그렇게 한 것은 작년에 신세를 진 스기모토순사 부인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나의 처가 만들어준 애기옷과 장난감을 건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주재소에 들른 것이 3시 넘어, 주인은 목포에 출장으로 부재중이라고 한다. 부인의 안색이 심상치 않아 들었더니 애기가 열이 높고 설사에 잠만 계속 잔다고 한다.

내게는 쇼와 7년(1932)에 큰딸을 잃은 아픈 경험이 있다. 애기의 증상은 역리(疫痢)같은 예감이 든다. 이곳은 무의촌으로 의사는 80㎞ 정도의 제주읍과 30㎞ 남짓의 서귀포 밖에 없다. 그리고 서귀포에는 도립병원이 있다. 촌각을 다투어 부인과 작은 생명을 차에 태워 도립병원으로 달렸다. 병원에서는 의사역리(擬似疫痢)로 위기 직전이라는 진단이 내려 입원했다. 전보 받은 주인이 다음날 도착했다. 위기를 넘겼다고 의사가 애기했다. 부부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울면서 기뻐했다. 그로부터 4일째, 나의 큰딸을 잃었던 괴로운 경험이 어린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할 수 있다. 죽은 큰딸의 명복을 다시금 빌었다.

그로부터 약 20년, 훌륭한 처녀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부인이 되어 어머니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잊을 수 없는 실패담

자료도 일단 수집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지조사도 대강 끝마쳐 그때마다 찍은 사진도 대략 4백매를 헤아린다. 여기서 제주도의 종합적 연구를 정리하고, 장기간 지도를 해주신 은사 다나카(田中)·츠지무라(辻村)선생을 비롯하여 모든 분의 질정(叱正)을 받고자 의도해서 그 일에 착수했다.

그때부터 나날이 전쟁은 확대되어, 태평양전쟁이 세계대전이 되어, 일본의 공세는 얼마 없어 수세(守勢)로 바뀌고 미군의 반공(反攻)작전은 결국 일본 본토에 상륙작전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상륙 예상지는 규우주규우리하마(九十九里浜), 아니면 도사만두(土佐灣頭),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등으로 추정되어져, 참모본부에서는 가와이(川合)대위가 주임이 되어 제주도의 자료를 구하고 있었다. 다나카 선생님으로부터 자료를 제공하는 게 어떠냐는 주선을 받았다. 나는 조사자료가 쓸모가 있게 된다는 데에 감격하고, 고리짝에 가득찬 자료·사진까지를 학생들로 하여금 운반케 했다. 그 즈음 문리과대학 지리학교실에는 2~3학년의 학생은 수로부(水路部)나 참모본부에 학도동원으로서 출동하고, 나는 1학년생을 데려, 도서·지도·기계기구류 등을 함께 치치부(秩父)의 절에 소개(疎開)시키고 있었다. 5월 25일의 공습에서는 도쿄의 집도 도서·가재도 하나 남김없이 재가 되고 말았다. 자료가 참모본부에 제출하므로써 난(難)을 면한 것은 신의 도움이었다고 기뻐했다. 8월 15일 드디어 천황은 종전을 선언했다. 당시 나는 치치부에 있었는데, 1주일간 상경은 금족되어 있었다. 제출된 자료는 대부분 불에 타 버려졌다. 학생이 조사실에 급히 달려가 준 때는 오래된

통계 2권이 뒹굴고 있었다고 했다. 10년간의 고심의 자료는 마치 가미가제(神風) 특공대같이 옥쇄(玉碎)해 버린, 잊을 수 없는 실패담이었다.

쇼와 30년(1955)의 가을이었다. 츠지무라선생으로부터 제주도의 사진만이라도 출판해 보면 어떠냐는 고마운 말씀이 계셨다. 섬의 사진은 그때마다 보여드렸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것들도 몽땅 없어져 버렸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제주도의 자료수집과 현지답사에 열심이었던 때가 가장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다. 처음에 착색한 제주도의 지형도와 토지이용도의 두 가지를 치치부에 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戰禍)를 모면하고 있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추억은 끊이질 않는다.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제주도」이다.

빨리 국제정세가 호전되어 방도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다시 한번 섬에 건너가, 새로운 각도에서 제주도를 재삼 보고싶다고 바라고 있다.

(쇼와 34년≪1959≫ 11월 「地理」 第4卷 第11號/調査의 追憶)

▣ 저자 소개

洪 性 穆

- 1933~2008
- 제주고등학교 졸업
- 제주일보 편집국장 · 상임논설위원
- 한라일보 상임논설위원 · 편집국장 · 주필
- 한라일보 이사 겸 논설고문
- 제주도문화상, 새마을훈장, 덕산문화상 수상
- 일본외무대신 표창장 수상
- 칼럼집 「나아가며 되돌아보며」
- 「되돌아본 세월」, 「제주 미래를 위한 제언 Ⅰ · Ⅱ」

日帝强占期의 濟州島 Ⅰ

인쇄일 : 2010년 7월 5일
발간일 : 2010년 7월 15일

저 자 : 洪 性 穆
발행인 : 洪 性 豪
발행처 : 도서출판 濟州文化
인쇄처 : 耕 信 印 刷 社
☎ (064)746-2044

<300부 한정판> 값 20,000원

ISBN 89-88949-77-3-94090
ISBN 89-88949-00-5(세트)